

# 낙산사 시문



天下兵仰給縣官者  
三分增一大率二戶  
時調發不在此數  
裝均為中書侍郎  
宰相天下細務皆自  
肩事上在備鮮心固  
推心委之嘗謂油等  
非輔佐以成矣理既  
有手由亦蜀談輔佐上  
通鑑節要卷之四十六  
者陛下欲振舉紀綱立  
下可得而確也上  
始伊呂以至成行南  
新舊州縣幸而三  
文海類上  
故或謂之為  
由是議久不決以開  
不違聖教誰不憤然  
成德軍自武俊以來父子  
信實言不以為非  
將軍務一旦易之恐未  
易之備青  
相傳與成德則  
十

襄陽文化院









우리 양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야기를 간직한 고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문화가 미래를 밝혀주는 시대에 양양의 우수한 문화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과 삶과 생활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문화원에서는 이 같은 막중한 책임을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낙산사의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낙산사라는 역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사찰이 간직하고 있는 인문학적인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는 일이기도 하다.

낙산사의 한시에는 우리 선인들의 열과 자취가 담겨 있다. 낙산사의 한시와 기록은 양양의 얼이고 역사로서 우리 정신문화의 기틀이 되어 아름답게 꽃피워 왔다.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는 천년고찰 낙산사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불교의 성지이자 화랑들의 중심수련장이었던 양양의 전통적이며 소중한 문화가 튼튼하게 뿌리내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양양학의 가치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그리고 양양학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낙산사 한시집의 발간으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7. 12.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어릴 적, 소풍을 항상 낙산사로 갔다. 그곳에서 보물찾기도 하고, 어느 스님으로부터 낙산사의 유래와 흥미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나에게 어린 시절 낙산사는 문화센터 같은 곳이었다.

지금, 낙산사와 관련된 문헌을 찾으면서 스님께서 들려주었던 답론을 보물찾기 하던 즐거움으로 탐색하였다.

과거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삶을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고, 나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은 “문학”에서 찾을 수 있다. 낙산사를 특별히 좋아했던 허균은 세상의 비난과 역경 속에서 낙산사를 찾아 두보의 시를 읽었다. 그 마음은 불가에서 중시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였다.

의상법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양양에 처음으로 사찰을 설립한 이유이기도 하다. 낙산사는 변방이었지만 교통과 문화의 중심공간으로 불가에서 중시하는 깨달음의 세계로 설정하였다. 그 탐색과정에서 조신의 꿈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이처럼 천년사찰 낙산사는 양양문화의 중심이고, 우리 문학사의 시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최고의 문인과 학자들의 낙산사 시문이 양양의 역사이고 문화가 되었다.

소중한 낙산사 시문을 번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진하 군수님과 장석삼 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양문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윤여준 원장님과 향토사연구원분들께도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7. 12.

강원도립대 교수 양 언 석



●●● 1부

고려사절요 -----	2	중종실록 -----	30
태조실록 -----	4	정조실록 -----	31
정종실록 -----	4	승정원일기 -----	35
태종실록 -----	5	일성록 -----	36
세종실록 -----	6	성종실록 -----	37
태종실록 -----	6	정조실록 -----	43
세조실록 -----	7	승정원일기 -----	44
예종실록 -----	8	신증동국여지승람 -----	46
성종실록 -----	10	연려실기술 -----	48
연산군일기 -----	29	선조실록 -----	49



●●● 2부

윤휴 -----	52	최 자 -----	83
숙종 -----	80	김부의 -----	84
정조 -----	82	김극기 -----	85





유자량	86
이 곡	88
이정형	90
김시습	91
허 균	95
이규보	106
김 구	113
이유원	115
남효온	122
임 춘	125
이 식	129
최유해	132
변계량	137
황경원	139
성 현	145
송시열	148
홍인우	149
휴 정	152
김창협	157
조 엄	159
심언광	166
최 립	169
선 수	170
채지홍	171
허 목	175
정두경	180
이 색	182
양사언	182
김상헌	183

안석경	185
이 행	190
양창해	193
조석윤	195
안경운	195
박 성	196
유경시	196
이 조	199
김원행	200
박 순	200
이휘진	201
권 필	201
임억령	202
홍계적	203
이중협	203
양경우	204
장영수	204
채팽윤	205
이경석	205
금원김씨	206
유사규	213
이정암	214
안 축	215
심수경	218
이춘원	218
신익성	219
남용익	224
정 추	225
채 련	225







강희맹	226
이 우	226
임숙영	227
최상익	227
유득일	228
여필용	228
홍봉조	229
김진상	229
박태관	230
정 식	230
조재호	231
이 송	231
임 순	241
강현규	241
유휘문	242
최계웅	242
유 송	243
유희경	243
신 흘	244
이이명	245
이민구	245
조문수	247
수 초	247
장 유	248
이명후	249
이해조	253
김창흠	269
남효온	280
이규준	307

일 연	309
배용길	318
이관명	318
이산해	319
박지원	324
이수광	328
이 직	328
윤 휴	329
유영길	342
윤 증	342
조종저	343
김상성	344
김이안	345
이기상	345
남한조	346
윤홍규	346
강일규	347
이해창	347
권 예	347
백영수	348
조성하	348
김희대	349
안병두	349
윤병기	350
강필효	350
오윤환	351
이명준	352
정 엽	369







부  
역사 속의 낙산사



# 1부

## 역사 속의 낙산사



### 고려사절요

○ 「헌종 공상대왕(獻宗恭殤大王)」

송나라 상인 황충(黃冲) 등 31명이 자은종(慈恩宗) 중 혜진(惠珍)과 함께 왔기에 근신이 맞이하여 보제사(普濟寺)<sup>1)</sup>에 머물도록 할 것을 명하였다. 혜진이 항상 말하기를, “보타락산(普陀落山) 성굴(聖窟)<sup>2)</sup>을 보고자 하여 왔다” 하며 가서 보기를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宋商, 黃冲等三十一人與慈恩宗僧惠珍來, 命近臣迎置于普濟寺. 珍常曰, 爲欲見普陀落山聖窟而來, 請往觀之不許.

『高麗史節要』, 「獻宗恭殤大王」

○ 3월에 마강(馬絳)이 돌아갔는데 대장군 송분(宋玠)과 동행하여 가게 하였다. 원 나라 황후가 일찍이 낙산사(洛山寺)의 여의주(如意珠) 보기를 원하였으므로 분(玠)을 시켜 드리게 하였다.

三月, 馬絳還以大將軍宋玠伴行. 皇后, 嘗求見洛山寺如意珠, 使玠獻之.

『高麗史節要』, 「元宗順孝大王」

1) 보제사(普濟寺), 개성(開城)에 있음.

2) 성굴(聖窟), 강원도 양양(襄陽) 낙산사(洛山寺)의 관음굴.

○ 왕과 공주가 북산 낙산사(北山洛山寺)에 거동하였다. 이후로 여러 번 사원(寺院)에 거동하였다.

王及公主, 幸北山洛山寺. 自是, 屢幸寺院.

『高麗史節要』, 「忠烈王」

○ 「신돈」(辛旽)

9월에 왕이 낙산사(洛山寺)에 행차하였다. 낙산사는 신돈의 원찰(願刹)이다. 측근의 신하가 다투어 왕에게 아뢰기를 “금년에는 대풍이 들었습니다.” 하니, 왕이 부처 앞에 꿇어 앉아 말하기를 “제가 나라를 다스린 지 15년이 되었는데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많았다. 금년의 풍작은 실로 첨의(僉議-신돈)가 음양을 고르게 다스린 데 연유한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신돈을 공경하여 첨의라 일컫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신돈은 낙산사의 관음보살(觀音菩薩)이 영이(靈異)하다고 하자 오일악(吳一鸚)을 시켜 비밀리에 저의 축원문(祝願文)을 쓰게 했는데, 그 원장에 “제자(弟子 신돈 자신을 말함)의 분신 모니노(牟尼奴)가 복이 많고 장수하여 나라에 머물러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였다.

모니노는 신돈의 비첩 반야(般若) 소생이니 우(禍)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처음에 신돈이 사비(私婢) 반야를 맞아 들여 임신시켜서, 반승(伴僧) 능우(能祐)에게 부탁하여 능우의 어머니 집에 가서 아이를 낳게 했다.

7일 만에 반야는 돌아오고 능우의 어머니가 아이를 거두어 길렀는데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아이가 죽었다. 능우의 어머니는 신돈에게 꾸지람을 받을까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훔쳐 다른 곳에 두고, 신돈에게 청하기를 '아이가 병이 있으므로 성 밖으로 옮겨서 기르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니 신돈이 이를 허락하였다.

1년이 되어 신돈이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길렀으나, 반야도 제 아이가 아닌 줄은 알지 못하였다. 왕이 항상 대 이을 아들을 구하여 양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어느 날 미행하여 신돈의 집에 갔다, 신돈이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양자를 삼아 뒤를 잇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왕이 곁으로 보고 웃으면서 답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내심 이를 허락하였다." 한다.

九月, 幸洛山寺, 辛旽願刹也. 左右爭言於王曰, 今歲大稔, 王, 跪于佛曰, 自不穀莅國, 十有五年, 水旱爲災, 今歲之稔, 實由僉議之變理也. 王敬旽, 稱僉議而不名, 旽, 以洛山觀音靈異, 令吳一鸚, 密書願狀曰, 願令弟子分身牟尼奴, 福壽住國. 牟尼奴, 旽, 婢妾般若所生, 是爲禍, 或云, 初, 旽, 納私婢般若, 有娠, 屬伴僧能祐, 使就產於其母家. 七日而般若還, 能祐母, 收而養之, 未期年, 其兒死. 能祐, 恐被旽讓, 竊取他人兒, 置諸他所, 請於旽曰, 兒有疾, 移養城外, 何如, 旽許之. 比及一年, 旽取養于家, 般若, 亦未知非其兒也. 王, 常求嗣, 謀所以立後, 一日, 微行至旽第, 旽, 指其兒曰, 願殿下, 爲養子以立後, 王睨而笑之不答.

『高麗史節要』 「辛旽」



## 태조실록

○ 의주에서 도조인 이선래를 낳다.

이곳에 거주한 지 수년(數年)이 되어도 아들이 없으므로 최씨(崔氏)와 함께 낙산(洛山)의 관음굴(觀音窟)에 기도했더니, 밤의 꿈에 한 승복(僧服)을 입은 중이 와서 고(告)하기를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땅히 이름은 선래(善來)라고 하십시오.”하였다.

얼마 안 가서 아이를 배어 과연 의주(宜州)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마침내 이름을 선래(善來)라고 했다, 이 분이 도조(度祖)이다.

관음굴(觀音窟)은 지금 강원도(江原道) 양양부(襄陽府)에 있다. 이때 익조가 안변(安邊)에 왕래하였는데, 또한 간혹 화주(和州)와 함주(咸州)에도 왕래하였다.

居數歲無子，與崔氏禱于洛山 觀音窟，夜夢有一衲衣僧來告曰，必生貴子，當名以善來。未幾有娠，果生子於宜州，遂名曰善來，是爲度祖。窟在今江原道襄陽府。時翼祖往來安邊，而亦或往來於和州咸州。

『太祖實錄』, 叢書

○ 왕실의 비용으로 관음굴에서 스님들을 공양하다

내탕고(內帑庫)를 내어 관음굴(觀音窟)에서 중들을 공양(供養)하였다.

出內帑，飯僧于觀音窟。

『太祖實錄』태조 1년. 임신(1392) 11월 15일(임진)



## 정종실록

○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태상왕이 낙산사에서 능엄법회를 베풀고 이튿날 돌아오다.

태상왕이 낙산사에 가서 능엄법회(楞嚴法會)를 베풀고 이튿날에 돌아왔다.

太上王如洛山寺，設『楞嚴』法會，翌日還。

『定宗實錄』, 정종 1년 정종 1년 8월 26일

○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태상왕이 정릉에 이르러 정근 법석을 베풀다. 오대산·낙산사 행차계획을 아무도 몰랐다.

태상왕이 정릉(貞陵)에 이르러 정근 법석(精勤法席)<sup>3)</sup>을 베풀고, 태상왕이 옷을 벗어서 부처에게 시사(施捨)하였다. 장차 대산(臺山)·낙산(洛山)에 거둥하려 하니, 나라 사람들이



승여(乘輿)의 가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낭사(郎舍)에서 상소하였다.

“창업한 임금은 자손이 마땅히 본받는 바입니다. 지금 불사(佛事)로 인하여 멀리 외방에 행하시니, 실로 모유(謀猷)를 남기는 도가 아닙니다. 국군(國君)의 아버지로서 출입하는 것이 때가 없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가시는 곳을 알지 못하니,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도가 아닙니다. 청하건대, 수상(首相)과 두세 훈로(勳老)를 보내어 나라 사람의 정을 진달해서 거가를 돌이키도록 청하여, 성체(聖體)를 보전하고 편안하게 하여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태상왕의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비록 재상을 시켜 청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다.

太上王至貞陵，設精勤法席。太上王脫衣施佛，將幸臺山洛山，國人不知乘輿所指。郎舍上疏曰，“草創之主，子孫之所宜法也。今因佛事遠行于外，實非貽謀之道。以國君之父，出入無時，國人不知所之，非體國子民之道也。請遣首相及二三勳老，道達國人之情，請還車駕，保安聖體，以慰臣民之望。”上曰，“太上之志，已定矣。雖使宰相請之，何益”

『定宗實錄』, 정종 2년 10월 정종 2년 10월 24일.



## 태종실록

○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선공 소감 김계란을 낙산사에 보내 기양 도량을 베풀다.

선공 소감(繕工少監) 김계란(金桂欄)을 낙산사(洛山寺)에 보내어 도량(道場)을 베풀었으니, 재이(災異)를 없애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다.

遣繕工少監金桂蘭于洛山寺。設道場禳災異也。

『太宗實錄』 6권, 태종 3년 8월 1일 丙午

○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내시를 흥국사와 낙산사에 보내 기청 법회(祈晴法會)를 열게 하다.

내신(內臣)을 흥국사(興國寺)와 낙산사(洛山寺)에 보내어 기청 법회(祈晴法會)를 베풀었다.

遣內臣于興國寺及洛山寺，設祈晴法會。

『太宗實錄』 태종 4년 7월 25일 甲子

3) 정근 법석(精勤法席), 나라의 가뭄이나 재앙(災殃)이 들 때 중들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법회(法會)를 열어 설법(說法)하던 일. 보통 정근(精勤)에서는 중 대신에 무당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 세종실록

○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사헌부에서 전 판정주목사 변처후를 국문하기를 아뢰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전 판정주목사(判定州牧事) 변처후(邊處厚)가 일찍이 양양(襄陽)에 군수(郡守)로 있을 때, 군어(郡衙) 안에 간직된 추포(麤布) 90필, 건어(乾魚) 1백 50마리, 소금 10말 등의 물품을 온 곳에 바로 공문으로 회답하지 않았으며, 또 군어 안에 있는 건어와 관청 안에 있는 건어 합계 1백 50마리, 해곽(海藿) 40속(束)으로 생고치[生繭] 6석(石)을 바꾸어 사사로이 사용하였다. 또 무녀(巫女)의 낫쇠 11냥(兩)을 거두어 군어 안에 있는 낫쇠까지 합하여 낫주발을 만들어 사사로이 썼으며, 또 경내(境內) 낙산사(洛山寺)의 진수정 염주(眞水精念珠) 21개를 비밀리 사고, 또 경내(境內)의 산성포 만호(山城浦萬戶)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면화(縣花)와 닥나무[楮]를 바꾸었습니다.

공사(供辭)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은 명백히 공사에 자백(自白)하였는데도 처후(處厚)는 승복하지 않으니, 직접을 회수하고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임금은 범죄가 사죄(赦罪) 전에 있었으므로 논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司憲府啓, 前判定州牧事邊處厚曾任襄陽時, 衙中所藏麤布九十匹, 乾魚百五十首, 鹽十斗等物來處不直答通. 又以衙中乾魚及官中乾魚并百五十首. 海藿四十束, 換生繭六石私用. 又收巫女鑰鐵十一兩并衙中鑰鐵, 造鑰鉢私用. 又密買境內洛山寺眞水精念珠二十一枚. 又請鹽于境內山城浦萬戶李養脩, 換縣花及楮. 辭連各人, 明白納招, 而處厚不承, 請收職牒鞫問. 上以犯在赦前命勿論.

『世宗實錄』 15권, 세종 4년 1월 25일 癸未



## 태종실록

○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경상도 감사에게 백성들의 숭배와 신앙을 금하게 하다. 이 앞서 종[婢] 중이(衆伊)란 자가 상언(上言)하기를,

“여의주(如意珠)가 경상도 지리산(智異山) 오대사(五臺寺)에 있사오니, 만약에 불러서 서울에서 맞게 하면, 비가 억수로 쏟아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괴이하게 여겨 경상 감사로 하여금 친히 가서 살펴보게 하니, 바로 수정으로 된 구슬[水精珠]이었다.

또 그 절의 비문에 이르기를, “수정(水精) 1매(枚)를 찾아서 무량수상(無量壽像)에 걸었다.” 하였다. 전에 이 때문에 이름을 수정사(水精社)라 하였고 그것이 여의주가 아님은 명백한 것이었다.

중들이 허탄한 말을 만들어 말하기를,

“이 구슬은 바로 동해 용왕의 여의주(如意珠)인데, 용왕이 낙산관음(洛山觀音)에게 바친 것을, 이제 이 절에 옮겼다.”하였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혹신하고 다투어가면서 숭배하고 믿어 그 괴이하고 허탄한 것을 좋아함이 이와 같았으므로, 임금이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백성들의 숭배와 신앙을 금하게 하였다.

先是, 有奴衆伊者上言, 如意珠在慶尙道智異山五臺寺, 若招迎來京, 則當沛然下雨. 上怪之. 令慶尙道監司, 使之親往審視, 乃水精珠也. 且其寺碑文曰, 索水精一枚, 懸於無量壽像前因名水精社. 其非如意珠明矣. 僧人等造爲誕妄, 乃曰此珠乃東海龍王如意珠也. 龍王獻于洛山觀音, 今移此寺. 愚民信惑, 爭相崇信, 其好爲怪誕如此, 上令其道監司, 禁民崇信.

『太宗實錄』72권, 세종 18년 6월 4일 己亥



## 세조실록

○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낙산사에 거동하다.

낙산사(洛山寺)에 거동하였다.

幸洛山寺.

『世祖實錄』38권, 세조 12년 윤3월 13일 甲申

○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윤필상에게 함길도의 군수로 유점사·낙산사의 개창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 묻다. 임금이 윤필상(尹弼商)에게 묻기를,

“함길도(咸吉道)의 군수(軍需)가 장차 궁핍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유점사(楡岾寺)와 낙산사(洛山寺)의 두 절은 함길도와 거리가 매우 가깝고 개창(改創)하기 위한 비축(備蓄)이 매우 많다. 내가 그 역사를 정지하고 거기에 쓸 물건을 안변(安邊)으로 옮기려 하는데, 경의 뜻은 어떠한가?”하였다.

윤필상이 짐짓 놀랜 기색을 띠며 아뢰기를,

“이 무슨 교지(教旨)입니까? 이시에는 소인의 무리이니, 행하면 반드시 주륙(誅戮)될 것입니다. 지금 소인의 무리들 때문에 국가에 복이 될 역사를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감히 교지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하자, 임금이 크게 기뻐하였다.

上問尹弼商曰, “咸吉道軍需將乏, 爲之乃何? 楡岾 洛山兩寺, 距咸吉至近, 而其改創之備甚多. 予欲停其役, 移所費之需於安邊, 於卿意何如?” 弼商陽驚曰, “是何教也? 李施愛小醜, 行當就戮. 今以小醜之故, 停國家資福之役, 得無不可乎? 臣不敢奉教.” 上大悅.

『世祖實錄』42권, 세조 13년 5월 27일 辛卯

○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중 학조에게 역말을 주어 고성 유점사에 가게 하다.

병조(兵曹)에 명하여, 중 학조(學祖)에게 역말(驛騎)을 주어 고성(高城)의 유점사(楡岾寺)에 가게하고 그가 데리고 가는 장인(匠人) 15인에게도 또한 역말을 주었다. 그 당시 중(僧) 신미(信眉)가 그의 무리 학열(學悅)·학조(學祖)와 서로 뜻을 합하여 자못 큰 복(福)을 베푸니, 훈척(勳戚)과 사서인(士庶人)이 많이 의지 하였다.

학열은 낙산사(洛山寺)를 영조하고 학조는 유점사(楡岾寺)를 수축하였는데, 강원도(江原道)가 소연(騷然)하여 감사(監司)·수령(守令)이 지오(支梧) 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소득(所得)한 것으로서 산업(產業)을 경영하였다.

命兵曹，給僧學祖驛騎，往高城 楡岾寺，其帶去夫匠十五人，亦給驛騎。時，僧信眉，與其徒學悅學祖相結，頗張威福，勳戚士庶多附之。悅造洛山寺，祖修楡岾寺，江原道爲之騷然，監司 守令莫能支梧，乃以所得營置產業。

『世祖實錄』45권, 세조 14년 1월 23일 甲申

○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낙산사를 조성할 때 중 학열의 말에 따라 말을 징발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관(金瓘)에게 치서(馳書)하기를,

“낙산사(洛山寺)를 조성(造成)할 때에 중(僧) 학열(學悅)의 말을 듣고 편의대로 말[馬]을 징발하되, 그 말의 문권(文券)은 양양 부사(襄陽府使)로 하여금 작성하여 주게 하라.”하였다.

承政院奉旨馳書于江原道觀察使金瓘曰，“洛山寺造成時，聽僧學悅言，便宜發馬，其馬文，令襄陽府使成給。”

『世祖實錄』45권, 세조 14년 3월 20일 庚辰



## 예종실록

○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어떤 중이 족인에게 관작을 줄 것을 청하니 동반에 서용하게 하다.

어떤 중이 대비전(大妃殿)으로 인해서 족인(族人)에게 관작(官爵)을 주도록 임금에게 청하니,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낙산사(洛山寺)는 선왕(先王)께서 일컫기를, ‘내가 창건(創建)한 것이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선왕의 일을 위한다면, 비록 폐단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해 볼만하다. 만약 낙산사를 내가 창건하였는데, 지금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내가

감히 참을 수가 있겠는가? 이미 그 도(道)에 감사(監司)를 잡아오도록 하였고, 지금 대궐(大闕)에 있는 승인(僧人)들도 뜻이 스스로 안정되지 아니하면, 혹시 돌아가겠다고 고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들 중들의 족인(族人)을 동반(東班)<sup>4)</sup>에 서용(敍用)<sup>5)</sup>하는 것이 가(可)하다. 궐원(闕員)이 없으면 서반(西班)에 서용(敍用)하도록 하라."하였다.

有僧因大妃殿，請爵族人于上，傳于吏曹曰，"洛山寺，先王稱爲子創構，若其爲先王之事，則雖有弊，猶或可爲。如洛山寺則爲子創之，而今聞百姓受苦，予敢忍焉？已令拿致其道監司，今在闕僧人，意不自安，或有告歸者。此僧族人，可於東班敍用。無闕則敍於西班。"

『睿宗實錄』 2권, 예종 즉위년 11월 7일 癸亥

○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강원도 관찰사 김관에게 낙산사 조성 비용의 과도한 정세를 국문하다.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허준(許峻)이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관(金瓘)을 잡아 오니,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기를,

"낙산사(洛山寺)를 조성(造成)한 비용을 어찌 민간에게 함부로 거두었는가?"하였다. 김관(金瓘)이 대답하기를,

"일찍이 내리신 유서(諭書)에 '낙산사(洛山寺)의 여러 가지 일은 경(卿)이 마땅히 나를 몸 받아서 힘을 보아서 마음을 다하고, 비록 일포일색(一匏一索)<sup>6)</sup>이라도 민간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중 학열(學悅)이 신을 보고 친히 사목(事目)<sup>7)</sup>을 주면서 말하기를, '사목(事目)에 붙인 물건들을 모름지기 일일이 준비하여 주시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중에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물건들은 여러 고을로 하여금 적당하게 준비하여 주게 하고, 준비하기가 어려운 물건은 유서(諭書)<sup>8)</sup>에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말에 의거하여 대답하였다.

학열이 말하기를, '영순군(永順君)이 전지(傳旨)한 말씀을 받들었는데, 백성들을 사역(使役)시키는 일은 지극히 중하므로 감사(監司)가 마음대로 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타일러 가르친 것이나, 나머지 여러 가지 일은 감사(監司)가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감사는 공신(功臣)이므로, 다른 재상(宰相)과 비할 바가 아니니, 원컨대 막지는 마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부득이하여 여러 고을에 이문(移文)<sup>9)</sup>하였으나, 수령(守令)을 검찰(檢察)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는데 이르렀으니, 신이 실로 죄가 있습니다."하였다.

4) 동반(東班), 조선의 관직은 문반과 무반으로 나뉘는데 그 중 문반을 동반이라고 함.

5) 서용(敍用), 죄가 있어 벼슬을 박탈했던 사람을 다시 임용함.

6) 일포일색(一匏一索), 한 개의 박과 한 가닥의 끈이라는 뜻으로 아주 적은 양을 이룸.

7) 사목(事目), 조선시대 관청의 규칙이나 특정 사업의 시행규칙을 일컫는 말.

8) 유서(諭書), 왕이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원에게 준 군사관계의 명령서.

9) 이문(移文), 관아 사이에 주고받던 공문.

즉시 명하여 항쇄(項鎖)를 풀어주고 그를 궐내(闕內)에 안치(安置)하였다.

義禁府經歷許峻，執江原道觀察使金瓘以來，令承政院問曰，洛山寺造成之費，何濫收民間乎？瓘對曰，曾降諭書，洛山寺諸事，卿宜體予，視力盡心，雖一匏一索，勿煩民間。其後僧學悅見臣，親受事目曰，事目付物，須一一備給。故其中易辦之物，令諸邑隨宜備給，難辦之物，據諭書勿煩之語對之。學悅曰，永順君承傳言，役民至重，非監司所顯，故諭以勿煩民，自餘諸事，監司可以措置’且曰，‘監司功臣，非他宰相比，願勿阻當。臣不得已移文諸邑，然不檢守令，至於擾民，臣實有罪。卽命解鎖，置之闕內。

『睿宗實錄』 2권, 예종 즉위년 11월 9일 乙丑

○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낙산사 근처의 인가를 자원에 따라 한지를 주어서 5리 밖으로 이주시키다.

승정원에서 강원도 관찰사 조근(趙瑾)에게 치서(馳書)하기를,

“낙산사(洛山寺) 근처의 인가(人家)를 모두 자원(自願)하는 데 따라 한지(閑地)를 주어서 5리(里) 밖으로 이거(移居)시키고, 그 명수(名數)와 전지(田地)의 결부(結負) 수를 갖추어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承政院馳書江原道觀察使趙瑾曰，洛山寺近處人家，竝於五里外，從自願給閑地移居，具名數及田地結負數以聞。

『睿宗實錄』 3권, 예종 1년 2월 25일 庚戌



## 성종실록

○ 호조에서 낙산사의 수세전을 경상도 삼가현의 전지로 절급해 줄 것을 청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낙산사(洛山寺)의 수세전(收稅田)을 청컨대 경상도(慶尙道) 삼가현(三嘉縣)의 전지 2백 결(結)로 절급(折給)<sup>10)</sup>하게 하소서.” 하자 그대로 따랐다.

戶曹啓洛山寺收稅田，請以慶尙道 三嘉縣田二百結，折給 從之。

『成宗實錄』 실록 4권, 성종 1년 3월 28일 丁未

○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대왕대비와 함께 승문당에 나아가니 한명회 등이 들어와서 정사를 아뢰다.

대왕 대비(大王大妃)와 임금이 같이 승문당(崇文堂)에 나아가니, 원상(院相) 한명회(韓明澮)·도승지(都承旨) 정효상(鄭孝常)·우승지(右承旨) 이숭원(李崇元)이 들어와서 정사(政

10) 절급(折給), 관에서 토지나 조세 따위를 묶에 따라 나누어주던 일.



事)를 아뢰었다. 대비가 한명회에게 전지(傳旨)<sup>11)</sup>하였다.

“정승(政丞)이 다시 원장(圓杖)을 사용하도록 청하였다는데, 무슨 뜻인가?”하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지금 도적(盜賊)이 성행(盛行)하는데, 심지어 경성(京城)에서는 명화 강도(明火強盜)<sup>12)</sup>까지 있습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중한 형벌을 쓰지 않으면 이들을 그치게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신이 듣건대 지난번에 원장(圓杖)을 사용하니 도적들이 서로 경계하기를, ‘우리들이 차라리 상인이 될지언정, 조심하여 도둑질하지 말자.’고 하였다 합니다. 원장(圓杖)을 혁파한 뒤부터 도적들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옛날 명(明)나라 고 황제(高皇帝)<sup>13)</sup>가 법을 세울 때 비록 너그러웠다고 하나, 당시 바늘 하나를 도둑질한 자도 모두 사형에 처하였기 때문에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사람들이 줍지 않았다고 하니, 지금 중한 형벌을 쓰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자 대비가 말하기를,

“원장(圓杖)은 사람을 상(傷)하게 하는 수가 매우 많으니, 금후로는 도둑질한 정범자(正犯者) 이외에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하였다.

대비가 또 전지(傳旨)하기를,

“낙산사(洛山寺)를 영선(營繕)<sup>13)</sup>한 공력(功力)이 많았는데, 화재(火災)가 있을까 두렵다. 절에 가는 자들은 모름지기 새 길을 거쳐야 하는데, 옛 길은 절에 가는 자들이 밟을 지어 먹다가 불이 절에 번질까 두렵다.”하니 한명회가 말하기를,

“강원도의 새 관찰사(觀察使)가 갈 때 유시(諭示)하여 보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자 대비가 정효상에게 이르기를,

“경은 모름지기 배사(拜辭)하는 날 잊지 말고 이를 말하라.”하였다. 이승원이 아뢰기를,

“무릇 도적으로서 도망 중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여러 도에 이문(移文)하여 이를 체포하게 하였는데, 지금 한 고을에서도 체포하여 아뢰지 아니하니 필시 수령(守令)들이 마음을 쓰지 않는 소치(所致)일 것입니다. 금후로는 여러 도로 하여금 월말에 도적들을 포획(捕獲)하였는지의 여부를 기록하여 아뢰게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하였다.

大王大妃及上同御崇文堂，院相韓明澮 都承旨鄭孝常 右承旨李崇元入啓事。大妃傳于明澮曰，政丞請復用圓杖，何意耶？明澮對曰，今盜賊盛行，至於京城，有明火強盜。當此之時，不用重典，難以弭之。臣聞曩用圓杖，盜賊相戒曰，我輩寧爲商賈，慎勿爲盜。自革圓杖，盜賊尤熾。昔大明 高皇帝立法雖寬，當時盜一針者，皆處死，故路不拾遺。今莫如用重典。大妃曰，圓杖，傷人甚多。今後盜賊正犯者外，勿濫用。又傳曰，洛山寺營繕功重，恐有火災。行者須由新路，舊路距寺甚邇，行者炊飯，恐火延於寺。明澮曰，江原道新觀察使去時，諭送爲便。大妃

11) 전지(傳旨), 상과 벌에 관한 임금의 뜻을 해당 관청이나 관리에게 전하여 알리는 일을 이르던 말.

12) 명화강도(明火強盜), 밤중에 흉기(凶器)나 등불을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앗는 강도를 이룸.

13) 영선(營繕), 건축물을 짓거나 수리함.

謂鄭孝常曰，卿須勿忘，拜辭日言之。崇元啓曰，凡盜賊在逃者，必移文諸道捕之，今無一邑捕啓，必是守令不用心所致。今後令諸道，月季錄捕獲與否，以啓。傳曰，卿言是。

『成宗實錄』 9권, 성종 2년 2월 8일 辛亥

○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안관후가 강원도 영동의 군현에 읍성을 쌓기를 청하다.

경연에 나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안관후(安寬厚)가 아뢰기를,

“강원도영동(嶺東)509 의 군현(郡縣)에 읍성(邑城)을 쌓지 아니한 곳이 많고, 울진(蔚珍)·평해(平海) 같은 데에는 비록 있기는 하나 담과 다름이 없으니, 한 해 동안에 비록 다 쌓지는 못할지라도 금년에 한 성을 쌓고, 명년에 한 성을 쌓으면 거의 가(可)할 듯 합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하였다.

안관후가 아뢰기를,

“백성을 반드시 농한기에 부리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兵曹)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하였다.

안관후가 또 아뢰기를,

“낙산사(洛山寺)는 예전 길은 평탄한데, 새 길은 험하므로, 다니는 사람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옛 길은 절에서 멀고, 절 앞에 나무가 무성하고 뺨뺨하여서 다니는 사람이 절을 볼 수가 없으니, 청컨대 옛 길을 회복하게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길이 절에서 멀다면, 다니는 사람이 그 절을 볼지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감사(監司)로 하여금 친히 살펴서 아뢰게 하라.”하였다.

안관후가 또 아뢰기를,

“낙산사 앞 20여 리(里)는 절의 중들이 남이 고기잡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까운 곳을 두고 먼 곳에 가서 취하니, 어찌 폐단이 없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하였다.

지사(知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이는 반드시 세조조(世祖朝) 때에 중 학열(學悅)이 금하기를 청한 것입니다.”하고,

안관후가 아뢰기를,

“한 절을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利)를 보지 못하게 함이 옳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좌승지 박숙진(朴叔秦)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감사(監司)로 하여금 금지하는지의 여부를 물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御經筵 講訖, 大司諫安寬厚啓曰, 江原道嶺東郡縣多不築邑城, 如蔚珍 平海雖有之, 無異

垣墻. 一歲之間雖未畢築, 今年築一城, 明年築一城, 則庶乎其可矣. 上曰, 得無難乎? 寬厚曰, 役民必於農隙, 則可無弊矣. 上曰, 其令兵曹議啓. 寬厚又啓曰, 洛山寺舊路平易, 而新路險阨, 行人甚苦之. 臣意以爲舊途遠於寺, 而寺前樹木茂密, 行人不得見寺宇, 請復舊路. 上曰, 若路遠於寺, 則行人雖見其寺何害? 其令監司親審以啓. 寬厚又啓曰, 洛山寺前二十餘里, 寺僧禁人漁採, 故人民捨近取遠, 其無弊乎? 上曰, 禁之不可. 知事洪應曰, 是必世祖朝僧人學悅請禁也. 寬厚曰, "爲二寺使民失利, 其可乎? 上顧謂左承旨朴叔秦曰, 其令監司問其禁止與否以啓.

『成宗實錄』 92권, 성종 9년 5월 28일 己丑

○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대사간 안관후가 낙산사의 옛 길을 열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상참(常參)<sup>14)</sup>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간(大司諫) 안관후(安寬厚)가 아뢰기를, “신이 전날 낙산사(洛山寺)에 구로(舊路)를 열어 금표(禁標)를 치우도록 청하였었는데, 지금까지 하명(下命)을 듣지 못하였습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낙산사의 금표는 1백 보(步)에 불과하고 해수(海水)는 지극히 넓은데, 하필 1백 보 안에서 고기를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나? 구로(舊路)는 절에서 거리가 멀지 아니한데, 대개 양양(襄陽)을 왕래하는 사자(使者)들이 기생을 탐하여 오래 머물면서 간혹 햇불을 들고 밤길을 다니다가 불을 내어 연소(延燒)될 염려도 없지 않으니, 만일 구로를 다시 연다면 내가 기생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안관후가 말하기를,

“기생이야 있고 없고 관계가 없으나, 양양에 기생이 있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인데, 이제 만일 기생을 없애버린다면 후세에 반드시 절을 위해서 없애었다고 할 것입니다. 옛날 제왕도 못에 설치한 통발은 금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하였는데, 이제 만일 금하신다면 후세에 반드시 ‘절을 위해서 금하였다.’고 할 것입니다.”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신자(臣子)로서 선왕(先王) 때의 일을 다 고치고자 하는 것이 옳겠는가?”하니,

안관후가 말하기를,

“만일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고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하고,

좌참찬(左參贊) 허종(許琮)이 아뢰기를,

“선왕 때의 일로 헌장(憲章)<sup>15)</sup>에 관계되는 것은 경솔히 고칠 수 없겠지만, 이와 같은 일은 마땅히 빨리 고쳐야 합니다.”하였다.

14) 상참(常參), 중신들이 매일 편전에서 임금에게 국무를 아뢰는 일을 이르던 말.

15) 헌장(憲章),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이상으로서 규정한 원칙을 선언한 규범.

안관후가 말하기를,

“만일 농사가 흉년이 되어서 백성들이 주리게 되면 반드시 해물(海物)을 취하여 먹어야 할 것인데, 어찌 백성들로 하여금 굳이 가까운 데를 버리고 먼 데에서 구하게 하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묻기를,

“그 금표(禁標)의 안에 민가가 얼마나 되기에 꼭 해물(海物)에 의뢰해서 살려면 창해(蒼海)가 굉장히 넓은데 어찌 반드시 금하는 곳에서 해야 되겠는가?”하니,

도승지(都承旨) 손순효(孫舜孝)가 아뢰기를,

“다른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을 위해서 금표를 설치하는 것을 의리에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受常參, 視事. 大司諫安寬厚啓曰, 臣前日請洛山寺開舊路, 除禁標, 至今未得聞命. 上曰, 洛山寺禁標不過百步, 海水至廣, 何必於百步內捕魚乎? 舊路距寺不遠, 凡奉使往來襄陽者, 耽妓留連, 或炬夜行, 不無失火延燒之慮. 若復開舊路, 予欲革妓. 寬厚曰, 妓則雖不關有無, 然襄陽有妓, 其來尙矣, 今若革之, 後世必曰爲寺革也. 古之帝王澤梁無禁, 與民共之, 今若禁焉, 後世必曰爲寺禁也. 上曰, 予不好佛, 庸何傷? 臣子欲盡革先王之事, 可乎? 寬厚曰, 如其非道, 革之何害? 左參贊許琮啓曰, 先王之事係于憲章者, 不可輕改, 如此等事, 當速改之. 寬厚曰, 若歲凶民飢, 則必採海而食, 豈宜令民舍近而求遠? 上問左右曰, 其禁標之內, 民家幾何? 必欲資海物而生, 蒼海至廣, 豈必於禁地乎? 都承旨孫舜孝啓曰, 非謂無他處也, 爲寺設禁, 於義不可耳.

『成宗實錄』 94권, 성종 9년 7월 23일 壬午

○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관찰사에게 중들이 민전을 빼앗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최반(崔潘)이 아뢰기를, “신 등이 전날 낙산사(洛山寺)의 옛길을 열어주시도록 두 번이나 상충(上聰)을 괴롭게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윤희를 받지 못하여 결망(缺望)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해(沿海)의 빈민(貧民)들 가운데 해산물(海錯)에만 의뢰하여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이 절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기잡이를 금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生業)을 잃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강원도는 산이 많고 밭[田]이 적는데, 듣건대 낙산동(洛山洞) 안에는 비옥한 논으로 범씨 30여 석(碩)을 뿌릴 만한 땅이 있어 세조(世祖)께서 다 이 절에 속하게 하여 승도(僧徒)들로 하여금 경작해 먹도록 하셨다고 하니, 신은 마음이 아픕니다. 빌건대 본 주인에게 도로 돌려주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어떻게 하겠는가?”하니,

지사(知事) 강희맹(姜希孟)이 대답하기를,

“선왕(先王)의 구전(舊典) 가운데 큰 것은 차마 갑자기 고칠 수 없겠지만, 사소한 일들은 고쳐도 무방하겠습니다.”하였다.

최반(崔潘)이 또 아뢰기를,

“근래에 와서는 대간(臺諫)들이 드리는 말씀을 많이 청납(廳納)하지 않으시니, 신은 실망하고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언관(言官)이 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아직 이전에 있었던 일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구전(舊典)을 고친 것이 많다. 그대들이 간청하는 까닭은 이단(異端)을 물리치기 위한 것인데, 내가 만일 불교를 숭신(崇信)한다면 그대들의 말이 옳겠지만, 내가 그렇지 않으니 이것을 고치기에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는가? 다만 선왕 때의 일이라 하여 다 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말한 것과 같이 한다면 반드시 절(寺社)을 다 없앤 뒤에라야 마음에 쾌할 것이다. 어제 안선(安璿)이 말하기를, ‘절을 어찌 다 없애지 못하며, 중(方袍)들을 어찌 다 죽이지 못하겠습니까?’라고 하였지만, 이 말을 어찌 시행할 수가 있겠는가?”하였다.

최반(崔潘)이 아뢰기를,

“중도 사람인데 죽인다는 것은 옳지 못하나, 이와 같이 폐단이 되는 일은 비록 대간(臺諫)의 청을 따라서 고친다 하더라도 후세에 누가 전하게서 경솔하게 구전(舊典)을 고쳤다고 하겠습니까?”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손순효(孫舜孝)가 아뢰기를,

“중들이 민전(民田)을 빼앗아 경작하게 된 유래(由來)를, 청컨대 추문(推問)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이 어떻게 빼앗아 경작할 수가 있겠는가? 백성들이 도리어 승전(僧田)을 빼앗았다고 들은 듯하니,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실상을 조사해서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御經筵 講訖，獻納崔潘啓曰，臣等前日請開洛山寺舊路，再瀆上聰，迄未蒙允，不勝缺望。沿海貧民資海錯以坐[生]者多，今爲此寺禁民漁採，使民失業甚不可。且江原道多山少田，聞洛山洞裏有水田膏腴者，可種三十餘碩，世祖令盡屬此寺，而使僧徒耕食，臣竊痛焉。乞令還給本主。上顧謂左右曰，何如？[知]事姜希孟對曰，先王舊典，大者不忍遽改，小小節目改之無妨。潘又啓曰，近來臺諫所言，多不聽納，臣竊失望。上曰，爾之爲言官不久，未知已前之事，予之改舊典亦多矣。爾等之所以懇懇者，爲闕異端也，然予若崇信釋氏，則爾言是矣，予無是也，改此何難？第以先王朝事不可盡廢故也。若如爾等所言，則必盡革寺社而後快於心矣。近者安璿言，寺社豈不可盡革？方袍豈不可盡戮？此言豈可行乎？潘曰，僧亦人也，誅之不可，如此弊事，雖從臺諫之請而改之，後世孰謂殿下輕改舊典乎？都承旨孫舜孝曰，僧徒奪耕民田之由，請推問。上曰，僧何奪耕之有？似聞人民反奪僧田，令觀察使閱實以啓。

『成宗實錄』 94권, 성종 9년 7월 24일 癸未

○ 대사간 안관후 등이 낙산사의 옛 길을 열고 해물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청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안관후(安寬厚)와 지평(持平) 이세광(李世匡)이 낙산사(洛山寺)의 구로(舊路)를 열어 해물(海物) 채취(採取)를 금하였던 것을 파할 것과, 원각사(圓覺寺)의 조라치(照刺赤)를 없앨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세광이 또 아뢰기를,

“요즈음 대사헌(大司憲) 김유(金紉)로써 도화(圖畫)를 감독하도록 명하셨는데, 대사헌은 조정의 강기(綱紀)를 통섭(統攝)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몸소 자질구레한 일까지 나가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부중(府中)이 제좌(齊坐)717 하였을 때 도화의 일로 김유(金紉)를 부르셨는데, 김유가 혼자 먼저 나가고 없었으니, 다만 일을 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의 체모(體貌)가 없게 되었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유는 본래 도화서 제조(圖畫署提調)가 되었었고, 또 들으니 그림에 재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독하게 한 것이다. 도화가 비록 자질구레한 일이지는 하나, 또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니, 가령 선왕(先王)의 어용(御容)을 고쳐서 그릴 곳이 있을 때 나 중국의 사신이 와서 그림을 찾는 자가 있을 경우에 그림이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 하였다.

이세광이 말하기를,

“신은 도화를 다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화는 국가의 정체(政體)에 관계가 없는 일이지는 반드시 김유로 하여금 그 일을 보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방승지(禮房承旨)가 넉넉히 그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니, 김유는 그 일에 관여하지 말도록 하겠다.”하였다.

御經筵 講訖, 大司諫安寬厚 持平李世匡請開洛山舊路, 罷禁採海, 除圓覺寺照刺赤, 不聽. 世匡又啓曰, 近以大司憲金紉命監圖畫, 大司憲, 朝廷綱紀無不統攝, 不可親蒞細事也. 昨日府中齊坐, 以圖畫事命召紐, 紐獨先出, 非唯廢事, 且無朝廷體貌. 上曰, 金紐本爲圖畫署提調, 且聞工於畫, 故命監其事. 圖畫雖細事, 亦不可無, 假令先王御容, 有改畫處, 中國使臣有求畫者, 其無畫者可乎? 世匡曰, “臣非以圖畫爲可盡廢也, 圖畫非關於國家政體, 不必金紐監其事. 上曰, 禮房承旨足以監其事, 金紐其勿與焉.

『成宗實錄』 94권, 성종 9년 7월 27일 丙戌

○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헌납 최반과 지평 안선이 낙산사의 옛 길을 열고 해물 채취를 허락할 것을 청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최반(崔潘)과 지평(持平) 안선(安璿)이 낙산사(洛山寺)의 구로(舊路)를 열어 줄 것과 해물(海物) 채취(採取)를 금하였던 것을 파하



여 줄 것과 금하였던 묵은 민전(民田)을 올려줄 것 등을 청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보고 말하기를,

“어떻게 하겠는가?”하니,

지사(知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신은 아직 낙산사의 일을 모르고, 노사신(盧思愼)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왕(先王) 때의 일을 어찌 꼭 고쳐야 하겠습니까?”하고,

영사(領事) 노사신이 말하기를,

“신은 세조조(世祖朝) 때 호종(扈從)718) 하다가 보니, 그 도로가 절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를 막아버리고 새 길을 열었습니다마는, 그 새 길도 그리 멀리 돌지 않고 거기에 묵은 민전(民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동(嶺東)은 땅이 대해(大海)에 접해 있는데, 백성들이 고기잡이(漁採)를 어찌 반드시 이 절 앞에서만 해야 하겠습니까? 신은 생각건대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은 작고, 선왕(先王)의 일을 고치는 것은 크니,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하니,

안선(安璿)이 말하기를,

“노사신의 말은 전하로 하여금 신의 말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전(傳)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澤梁無禁]’라 하였는데, 승사(僧寺)를 위하여 금표(禁標)를 세우고 고기 잡는 일을 금한다는 것은 나라의 대체(大體)에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동은 땅이 대해(大海)에 접해 있어서 고기잡이를 못하는 곳이 없는데, 단지 절 앞에만 금한 것이 어찌 ‘택량무금’이란 뜻에 해(害)가 되겠는가?”하였다.

이극배가 말하기를,

“해물(海物)을 채취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도 구로(舊路)를 여는 일은 대간(臺諫)의 말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가(不可)하다.”하였다.

안선(安璿)이 또 아뢰기를,

“재범(再犯)의 절도를 장물을 계산하지 않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신의 생각에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도를 잃어 실수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듯이,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한 것이어서 진실로 가볍게 죽일 수는 없는 일이니, 초범과 재범을 통틀어 장물이 10관에 다다르면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바늘 한 개나 돈 1전을 훔쳐도 또한 재범이라 하여 죽이겠습니까? 제왕의 호생(好生)의 덕(德)에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재범을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살려야 할 사람은 살려주고 죽

여야 될 사람은 죽이도록 할 것이니, 내가 늘 그 경중(輕重)을 짐작해서 죄를 주겠다." 하였다.

최반(崔潘)이 말하기를,

“요즈음 도둑이 잠잠해졌는데, 만일 장물을 계산하기로 한다면, 청컨대 『대명률(大明律)』에 따르도록 하소서.”하고,

이극배가 말하기를,

“재범을 사형에 처하는 법은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실려 있으니, 가볍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도둑이 잠잠해졌다면 마땅히 『대명률(大明律)』에 따라야 합니다.”하였다.

안선이 또 아뢰기를,

“대저 수령 벼슬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 단지 임기(任期)에 준하여 서용(敍用)하지 않는 법이 영갑(永甲)722)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령이 된 사람이 관사에 도임(到任)해서, 혹은 수개월 만에 사직하고, 혹은 수년 만에 사직하여 얼마 안 있다가 경직(京職)에 제수되니, 빌건대 따로 법을 세워서 규제(規制)를 면하는 폐단을 막으소서. 또한 국가에서는 수령의 직책을 중히 여기고, 육조 낭관(六曹郎官)은 다 외직(外職) 서용에 5품까지 허락하되, 수령의 직책을 거치지 아니하면 4품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여 법이 세밀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기회를 엿보아 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도임한 지 1년이 되어 사직한 자는 5년 동안 서용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도 각각 도임한 연월(年月)에 따라서, 임기가 되어도 <경직(京職)에> 서용하지 말며, 서용할 때에는 도로 수령의 직을 제수하도록 하소서.”하고,

좌승지(左承旨) 박숙진(朴叔綦)이 말하기를,

“수령으로 부임하기도 전에 사직한 자는 6년 동안 서용하지 아니하고, 부임한 지 1년이 되어 사직한 자는 5년 동안 서용하지 아니하며, 부임한 지 2년이 되어 사직한 자는 4년 동안 서용하지 않는 것이 통례(通例)입니다. 『대전』에 이르기를, ‘핑계를 대는 자는 6년 동안 서용하지 않는다.’ 하고, 주(註)에 이르기를, ‘제수할 때에는 외관(外官)을 제수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법이 통칙인데, 어찌 도임한 것을 지칭해서 경직(京職)을 제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사로(崔士老)가 일찍이 수령이 되어 도임한 지 2년 만에 사직하였는데, 4년이 되도록 서용하지 않으니, 이것이 그 한 예입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가령 수령 될 사람이 현능하여 쓸 만한데 실지로 병이 있으면 쓰지 않아야 하겠는가? 또 병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으니, 비록 의관(醫官)을 시켜 진찰하도록 한다고 해도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허위를 진실이라고 할 것인데, 무엇으로 분별하겠는가?”

하였다.

노사신이 말하기를,

“과연 대간(臺諫)의 말과 같이 근래에는 교묘하게 피하는 자가 많으니, 사직했던 사람을 서용할 때에 다시 외직(外職)을 준다면, 6년 동안 서용하지 않는 법에 구애됨이 없

이 사람을 등용하는 길이 넓어질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으로 도입하였다가 사직하는 자는 이조(吏曹)로 하여금 경직(京職)을 제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간 또한 마땅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하도록 하라.”하였다.

이극배가 아뢰기를,

“『중용혹문(中庸或問)』을 신에게 나와서 강(講)하라고 명하셨는데, 간혹 가다가 『중용』이 고열(考閱)하기에 편리하니, 『중용』으로써 진강(進講)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하였다.

이극배가 말하기를,

“신이 어려서 이것을 읽었으나, 중년(中年)에는 정사를 다스리는 데에 이끌려서 수습(修習)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또 학문을 하는 데에는 중간에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소신이 진강(進講)하는 날에만 강(講)하기로 한다면 중간에 끊게 되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니, 경연관(經筵官)들로 하여금 돌려가며 진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용혹문』은 경연관으로서 누가 모르기야 할까마는, 다만 한 사람에게서 학문을 받아들이고자 할 따름이다.”하였다.

丁亥/御經筵。講訖，獻納崔潘。持平安璫請開洛山寺舊路，罷禁採海，給還禁陳民田。上謂左右曰，何如？知事李克培對曰，臣未知洛山事，盧思愼詳知之。然先王時事，何必改之？領事盧思愼曰，臣於世祖朝，扈從見之。其道路近於寺，故塞之而開新路，然其新路不甚迥遠，其陳荒之田亦少。且嶺東地濱大海，民之漁採，豈必於此寺前乎？臣以謂除去百姓之弊小，更改先王之事大，斷不可變更也。璫曰，思愼之言，欲使殿下不從臣言也。傳曰，澤梁無禁，爲僧寺而立標禁漁，於國體何如？上曰，嶺東地濱大海，無處而不漁，只禁寺前，豈害於澤梁無禁之義乎？克培曰，採海細事，開舊路，則從臺諫之言何如？上曰，不可。璫又啓曰，再犯竊盜，不計贓而處死，臣意謂未便。書曰，與其殺不辜，寧失不經。人命至重，固不可輕殺，通初再犯贓，滿十貫而處死爲便。假令竊一針，偷一錢，亦以再犯而殺之乎？甚乖帝王好生之德。上曰，雖立再犯處死之法，可以生則生，可以殺則殺，子每酌其輕重而罪之。潘曰，邇來盜賊寢息，若計贓，則請依大明律。克培曰，再犯處死之法，載在大典續錄，不可輕改。若盜賊寢息，則當依大明律。璫又啓曰，大抵守令，人皆厭之，只緣准期不敘之法，着在令甲。故爲守令者，到官或數月而辭，或數年而辭，未幾授京職，乞別立法，以防規免之弊。且國家重守令之職，六曹郎官皆許外敘五品，而未經守令者，不得陞四品，法非不密，而率多窺避。請自今依大典，到任一年而辭，則准五年不敘，餘各依到任年月准期不敘，敘時還除守令。”左承旨朴叔秦曰，守令未赴任而辭者，六年不敘，赴任一年而辭者，五年不敘，赴任二年而辭者，四年不敘例也。

大典云, 托故者六年不敘. 註云, ‘除授時, 復除外官. 此法可謂通矣, 何可指謂到任而授京職乎? 崔士老嘗爲守令, 到任二年而辭, 准四年不敘, 此其一也. 上曰, 假令爲守令者, 賢可使而實病, 則其可不用乎? 且病之眞僞未可知也, 雖使醫官診候, 受彼賄賂以虛爲實, 何以辨之? 思慎曰, 果如臺諫之言, 近來巧避者多, 辭職者敘用之時, 復授外職, 則不拘於六年不敘之法, 而用人之道廣矣. 上曰, 守令到任辭職者, 令吏曹勿授京職, 臺諫亦當檢覈. 克培啓曰, 中庸或問, 命臣進講, 間或中庸便於考閱, 以此進講, 何如? 上曰, 可. 克培曰, 臣幼而讀之, 中年牽於治事, 不能修習. 且爲學不可間斷, 只講於小臣進講之日, 則慮有間斷之弊, 令經筵官輪次進講何如? 上曰, 中庸或問, 經筵官誰不知之? 但欲受學於一人耳.

『成宗實錄』 94권, 성종 9년 7월 28일 丁亥

○ 중 학열에게 침탈된 민전을 주인에게 돌리고 인하여 사전을 침탈하면 처벌케 하다. 전교(傳敎)하기를,

“산산(蒜山)의 제방(堤防)과 방축(防縮) 안에 있는 민전(民田)을 침탈(侵奪)한 것을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고자 한 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선왕(先王)께서 하사(下賜)한 바이고, 또 한 번 준 뒤에 백성이 혹 사전(寺田)을 침점(侵占)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못했던 것이다. 금년(今年)에는 이미 종자를 심었으니 명년(明年)부터 민전을 돌려주게 하라. 만일 이로 인하여 사전을 침탈하는 자가 있으면 승려(僧侶)의 장고(狀告)<sup>16)</sup>를 들어서 죄(罪)를 살펴서 처리할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학열(學悅)이 낙산사(洛山寺)에 살면서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여 거리낌이 없이 산산 제방의 민전(民田)을 강탈(強奪)하였으나 감히 누구냐고도 하지 못하다가, 백성 가운데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있으므로, 임금이 관원을 보내어 조사해 물어 사전과 민전을 구별하여 아뢰게 하여 이에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열은 교활하고 기세(氣勢)가 있어서 청탁(請託)을 번갈아 행하였으므로, 마침내 민전을 주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傳曰蒜山堤堰內 侵奪民田欲還其主久矣. 然先王所賜 且恐一與之後 民或侵占寺田 故未果耳. 今年則業已付種 其自明年還給民田. 如有因此侵奪寺田者, 聽僧狀告科罪.

史臣曰學悅居洛山寺縱惡無顧忌 強奪蒜山堤傍民田 莫敢誰何 民有訴冤者 上遣官案問 別寺田 民田以聞 乃有是命. 然學悅 奸黠有氣勢 請託交行 竟不與民田

『成宗實錄』 105권, 성종 10년 6월 14일 己亥

○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장령 이인석이 낙산사에 노비를 영세에 전하는 전교를 고치도록 아뢰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이인석(李仁錫)이 와서 아뢰기를,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특별히 낙산사(洛山寺)에 노비(奴婢)를 주었으나, 영구히 전하

16) 장고(狀告), 어떤 사실을 상부 관아에 서면으로 알리거나 그 내용을 적은 글.

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바야흐로 자손(子孫)을 추쇄(推刷)<sup>17)</sup>하려고 하는데, 전 하께서 비로소 영세(永世)에 전하라고 명령하시었으니 불가합니다. 또 어유소 등은 끝 까지 추문하여 사람들의 의심이 풀리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司憲府掌令李仁錫來啓曰, 世祖大王, 特給洛山寺奴婢, 而無永傳之命, 故今方推刷子枝, 而殿下始命傳于永世不可. 且魚有沼等, 不可不窮推, 以釋人疑也. 皆不聽.

『成宗實錄』 120권, 성종 11년 8월 6일 癸丑

○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집의 이덕숭 등이 중국 사신의 폐해를 부추킨 통사와 그 족친을 국문하도록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덕숭(李德崇)·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사신이 오는 것은 한 번이 아닌데, 본국에 폐해를 끼친 것은 금년이 더욱 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통사(通事)에게서 연유합니다. 심지어 호조(戶曹)의 방목(榜目)까지 두목(頭目)에게 가리켜 보여 무릇 우리 나라에서 숨기는 것을 누설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를 다스리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또한 사신의 족친에게도 죄가 있다.”

하였다.

이덕숭 등이 말하기를,

“족친이 몰래 사신에게 청탁하여 스스로 전민(田民)을 점거(占據)하였으니,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주선하여 그 욕망을 달성한 것은 통사입니다. 지금 그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먼저 족친을 추궁하면 통사의 죄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하였다.

이덕숭이 말하기를,

“경기(京畿) 백성이 사신의 행차로 인하여 곤란과 고생이 막심하였으니, 청컨대 요역(徭役)<sup>18)</sup>을 정지하여 백성의 힘을 넉넉하게 하고, 또 금년 경기에서 점마(點馬)<sup>19)</sup> 하는 것을 정지하게 하소서.”하니,

17) 추쇄(推刷), 도망한 국역부담자나 노비 등을 찾아서 본거지로 되돌리는 일.

18) 요역(徭役), 국가의 필요에 따라 민의 노동력을 대가없이 정기·부정기적으로 징발하는 세의 한 항목이다. 요역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개별 민호에 부과되며, 소유토지의 많고 적음이 수취기준이 되었다. 요역은 공역과 일반 요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역은 공납품의 채취·제작·수송 등에 충당된 노동력의 수취로 요역 중 가장 큰 부담이었다. 일반 요역은 궁원·사찰관아의 건축과 수리, 성이나 도로의 구축, 제방의 개수 등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것을 말한다.

19) 점마(點馬), 예전에, 말을 점고하는 일을 이르던 말.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덕송·김성경이 또 아뢰기를,

“낙산사의 노비를 영세토록 전하라고 명하신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그 자손(子孫)을 본도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소속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덕송이 아뢰기를,

“낙산사의 중은 한 도의 큰 해가 되는데, 백성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하니, 백성이 더욱 괴롭게 여깁니다. 미역[海菜] 종류는 오히려 괜찮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고기 잡는 것까지 금하고, 그 노비로 하여금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여서 이리 저리 판매하여 치부(致富)합니다. 각 고을에서 불시에 진상할 것이 있으면 도리어 중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중들은 사치하고 방자하여지며 백성은 날로 가난하여지고 군읍(郡邑)은 날로 쇠잔하여지는데, 지금 또 그 노비를 영구히 전하게 되면 더욱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말하기를,

“신이 선위사(宣慰使)로 벽제역(碧蹄驛)에 가서 보았는데, 한사옹(漢司饗)이 두목(頭目)과 결탁하여 폐단을 만들므로 여러 고을이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송사(伴送使)가 금하지 못하는가? 만일 폐해가 있다면 보내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벽제역을 지나가게 되면 하루의 지공(支供)<sup>20</sup>에 불과한데, 경기의 수령으로 와서 모인 자가 10여 명이나 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황해도(黃海道) 이북 여러 고을의 여러 참(站)에는 두 고을이 조치고 준비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다. 내가 마땅히 자세히 정(定)하겠다.” 하였다.

이덕송·김성경이 또 아뢰기를,

“방산수 이난(李瀾)이 처음에는 어유소·노공필·김세적·김칭·김휘·정숙지가 어을우동을 간통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지금은 말을 바꾸어 숨기니, 청컨대 끝까지 추궁하여 진실을 알아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산수가 제 죄를 가볍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무고(誣告)하여 끌어낸 것이 많으니, 어찌 반드시 다시 묻겠는가?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 하였다.

김성경이 말하기를,

“난(瀾)이 죄가 큰데 다만 고령(高靈)에 귀양 보냈으니,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

20) 지공(支供), 음식 따위를 대접하며 받들.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御經筵 講訖 執義李德崇 獻納金成慶啓曰 使臣之來非一 而貽弊本國 今年尤甚 所以致此者 皆由於通事 至以戶曹榜目 指示頭目 凡我國所諱 無不洩之 罪莫大焉 請治之 上曰 可 且使臣族親 亦有罪矣 德崇等曰 族親潛囑使臣 自占田民 城[誠]有罪也 然周旋其間 道達其欲者 通事也 今不治之 必爲後患 上曰 先推族親 則通事之罪 自露矣 德崇曰 畿甸之民 因使臣之行 困苦莫甚 請停徭役 以寬其力 且停今年京畿點馬 上皆從之 德崇 成慶又啓曰 洛山寺奴婢 命傳永世不便 請以其子枝 分屬本道諸邑 不聽 德崇又啓曰 洛山寺僧 爲一道巨害 禁民採海 民尤苦之 海菜之類 猶可也 至於禁人捕魚 使其奴婢 專擅其利 轉販致富 各官有不時之獻 則反資於僧 故僧徒侈肆 民生日貧 郡邑日殘 今又永傳其奴婢 尤爲不可也 不聽 領事洪應曰 臣以宣慰使 到碧蹄驛 見漢司饗者 與頭目 交結作弊 諸邑不能堪也 上曰 伴送使 其不能禁之耶? 若有弊 則當勿遣 應曰 天使過碧蹄 不過一日支供 而京畿守令來會者 至十餘人 其弊不貲 黃海以北諸邑諸站 則二邑措辦 不爲不足 上曰 卿言甚善 予當詳定之 德崇 成慶又啓曰 方山守瀾 初言魚有沼 盧公弼 金世勳 金侁 金暉 鄭叔墀 奸於乙字同 今乃變辭諱之 請窮推得情 上曰 方山守 欲輕其罪 故多誣引 何必更問? 置之可也 成慶曰 瀾罪大 而只流于高靈 請遠竄 上曰 可

『成宗實錄』 120권, 성종 11년 8월 9일 丙辰

○ 대사헌 정괄 등이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라는 성명을 거두어 달라는 차자를 올린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정괄(鄭估) 등이 차자(笱子)를 올리기를,

“신 등은 생각건대, 노비를 대대로 전하는 법이 예전에는 없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자(箕子)가 봉(封)함을 받은 이래 비로소 노비가 있어 대대로 전하였으니, 존비(尊卑)를 밝히고 귀천(貴賤)을 분별하고 예속(禮俗)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고려(高麗) 말년에 이르러 널리 사사(寺社)를 세우고, 인하여 토지(土地)·노비[臧獲]를 주었으니, 사사(寺社)에 노비가 있게 된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태종 대왕(太宗大王)께서 토지를 거두어 군수(軍需)에 보충하고 노비를 호적에 올려 공천(公賤)<sup>21)</sup>에 소속시켰으니, 참으로 만세에 큰 다행입니다. 여러 성인이 서로 이어 오늘에 이르렀고, 전하는 천성이 총명하고 성학(聖學)이 고매하시니, 온 나라의 백성이 모두 이단(異端)에 미혹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지난번에 듣건대, 낙산사(洛山寺)의 노비 사패(賜牌)<sup>22)</sup>에 영세토록 전하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추쇄도감(推刷都監)이 노비의 자손(子孫)을 공천(公賤)에 소속시킬 것을 청하자, 성상께서는 옳다고 하시면서 그 절의 중의 호소로 인

21) 공천(公賤), 조선 시대, 관부에 속한 남자 종과 여자 종을 이룸.

22) 사패(賜牌), 고려와 조선 시대, 임금이 왕족이나 공신에게 토지나 노비를 하사할 때, 그것의 소유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내려 주던 일.

하여 특별히 영세토록 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세조(世祖)께서 처음에 노비를 낙산사에 소속시키면서 사패(賜牌)에 영구히 전하라는 말씀이 없었던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째서 허가 한 일의 한 먹이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중들의 말로 인하여 임금님의 결단을 고치십니까? 선왕(先王)께서 주신 것이 만일 도리가 아니라면 고쳐도 옳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패(賜牌)에 영구히 전하라는 말이 없는데, 영구히 전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특별히 임금님이 결단을 내리시어 급히 내려진 명을 거두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司憲府大司憲鄭佖等上劄子曰, 臣等竊謂, 奴婢世傳之法, 古昔所無, 吾東方, 自箕子受封以來, 始有奴婢以世傳焉, 無非所以明尊卑 辨貴賤 成禮俗也. 至于麗季, 廣建寺社, 仍賜土田 臧獲, 寺社之有奴婢, 始於此矣. 惟我太宗大王, 收土田, 以補軍需. 籍臧獲, 以屬公賤, 誠萬世一大幸也. 聖聖相承, 至于今日, 殿下天性聰明, 聖學時敏, 一國臣民, 皆知不惑於異端也. 頃聞洛山寺奴婢賜牌, 無可傳永世之語, 故推刷都監, 請以子枝屬公, 上可之, 因其寺僧之訴, 特許永傳, 世祖初, 以奴婢屬於洛山寺, 而賜牌, 無永傳之語, 必有以也. 柰[奈]何判下之墨未乾, 遽以僧人之言, 改其成命乎? 先王之賜, 如其非道, 雖改之, 未爲不可. 況賜牌, 無永傳之語, 而使之永傳可乎? 特垂睿斷, 亟收成命.

『成宗實錄』 120권, 성종 11년 8월 10일 丁巳

○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장령 이인석 등이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음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인석(李仁錫)·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낙산사(洛山寺)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천천히 처리하겠다.”하였다.

御經筵, 講訖, 掌令李仁錫 獻納金成慶啓曰, 洛山寺奴婢, 不宜永傳. 上曰, 徐當有以處之.

『成宗實錄』 120권, 성종 11년 8월 24일 辛未

○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집의 이덕숭 등이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지 말 것 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덕숭(李德崇)·정언(正言) 유찬(劉瓚)이 아뢰기를,

“낙산사(洛山寺)의 노비를 자손(子孫)까지 아울러 영구히 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20년이 되어야 바야흐로 정안(正案)<sup>23)</sup>을 만드는데, 만일 이미 적(籍)을 이루었다면 고치기 어려울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겠다.”하였다.

御經筵 講訖 執義李德崇 正言劉瓚啓曰 洛山寺奴婢 不可并子枝永傳也 二十年方成正案 若已成籍 則恐難更改 上曰 知道

『成宗實錄』 120권, 성종 11년 8월 26일 癸酉

○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손순효가 증으로 궁궐을 짓고 도첩을 주는 것의 폐단을 말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손순효(孫舜孝)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궁궐을 수리하는데 승도(僧徒) 2천 명을 부역시키고 한 달이 되면 도첩(度牒)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조(先朝) 때에는 유점사(楡岾寺)와 낙산사(洛山寺) 두 절을 수선하고 건축하는데 도승(度僧)<sup>24</sup>이 6만 명이나 되었으므로 군액(軍額)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하께서 불도(佛道)를 믿지 않으시고 일반인이 중이 되는 것을 금지하므로 환속(還俗)하는 자가 날로 많기 때문에 군액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도승(度僧) 2천 명을 명하셨는데, 이는 국가에서 정병(精兵) 2천 명을 잃는 것이 됩니다. 비록 도승이 아니라도 수군(水軍)·정병(正兵)·팽배(彭排)·대졸(隊卒) 중에서 부역에 나갈 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승도(僧徒)들을 부역시키지 마소서.”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하문하였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기를,

“궁궐의 수리(修理)는 급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공역(工役)은 중대(重大)하니, 승군(僧軍)을 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기(天氣)가 장차 추워지려 하기에 널리 역졸(役卒)들을 모아 그로써 그 공역을 마치고자 한다. 지금 비록 도승이라 하더라도 일찍이 군적(軍籍)에 매였던 자는 와서 부역하지 못할 것이다.”하였다.

손순효(孫舜孝)가 말하기를,

“만일 부득이하다면 일찍이 도첩을 받은 자로 나이 50세가 안된 자들은 모두 살살이 뒤져 찾아내어 부역하도록 하고, 한 달이 차거든 선사(禪師) 또는 대선사(大禪師)의 직첩(職牒)을 주도록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증은 더 많아지지 않을 것이고 군액(軍額)도 감손(減損)되지 않을 것입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근일(近日)에 방리(坊里)의 사람을 써서 공역(工役)에 조역(助役)시킨다면 자못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승군(僧軍)은 쓰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23) 정안(正案), 조선 시대, 관아에서 부리던 중의 등록 원부.

24) 도승(度僧), 불보살이나 선지식의 설법을 듣고 수행한 결과 깨달음을 얻은 승려.

御經筵. 講訖, 大司憲孫舜孝啓曰, 臣聞修理宮闕, 以僧徒二千赴役, 准一朔, 給度牒. 在先朝, 修營楡岾 洛山兩寺, 度僧六萬, 而軍額太減. 殿下不信佛道, 禁人爲僧, 還俗者日多, 故軍額稍敷. 今命度僧二千, 是國家失精兵二千也. 雖不度僧, 水軍 正兵 彭排 隊卒赴役者, 不爲小矣. 請勿役僧徒. 上問左右, 領事尹弼商對曰, 宮闕修理, 不可不急, 工役重大, 僧軍不可不役也. 上曰, 天氣將寒, 欲廣聚役卒, 以畢其功. 今雖度僧, 曾係軍籍者, 固不得來赴矣. 舜孝曰, 如不得已, 其曾受度牒, 而年未五十者, 竝令刷出赴役, 滿一朔, 則以給禪師 大禪師職牒. 如是, 則僧不加多, 而無損於軍額矣. 上曰, 近日用坊里人, 助役於功役, 頗有利. 僧軍不可不用也.

『成宗實錄』157권, 성종 14년 8월 21일辛巳

○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강원도 관찰사 이육이 통전의 세금을 양양부에서 반도록 해 주기를 청하다.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육(李陸)이 아뢰기를,

“2월 24일에 산불이 나서 양양부(襄陽府) 주민 2백 5호와 낙산사(落山寺) 관음전(觀音殿)이 연소(連燒)되고, 간성 향교(杆城鄉校)와 주민 2백여 호가 일시에 모두 탔는데 오직 사람과 가축은 상하지 아니하였고 민간에 저장한 곡식이 모두 재가 되었으니, 청컨대 통천(通川)의 전세(田稅)를 옮겨 받아서 주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江原道觀察使李陸啓, 二月二十四日, 本道山火, 連燒襄陽府居民二百五戶 洛山寺 觀音殿 杆城鄉校及居民一百二十四戶, 一時皆燒. 唯人畜不傷, 而閭閻所儲之穀, 盡爲灰燼. 請移納通川田稅以給. 從之.

『成宗實錄』226권, 성종 20년 3월 14일 壬申

○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헌납 정탁 등이 증을 뽑는 시험에 예조의 낭청을 보내지 말 것 등을 청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정탁(鄭鐸)이 아뢰기를,

“증을 선발하는 법은 마땅히 험파해야 할 것이나, 만약 갑자기 험파하지 못한다면, 청컨대 예조 낭청(禮曹郎廳)을 보내어 선발을 감시하는 것은 그만두게 하소서.”하니, 시독관(侍讀官) 강겸(姜謙)이 말하기를,

“『대전(大典)』에 구애되어 도승(度僧)의 법을 고치지 않으시니, 지금 이때를 잃고 고치지 않으면, 어느때에 고칠 수 있겠습니까?”하고,

집의(執義) 이예견(李禮堅)은 아뢰기를,

“예조의 낭청(郎廳)이 석서(釋書)를 모르니, 비록 시험을 감시하게 한다 하더라도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또 비록 정선(精選)하게 한들, 국가에 무슨 도움 됨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중을 선발하는 것은 이미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입니다. 또 주지(住持)로 하여금 사찰(寺刹)을 지키게 한다면 시험 선발하여 맡기지 않을 수 없고, 시험해 취할 것 같으면 반드시 외람(猥濫)된 폐단이 있을 것이니, 낭관(郎官)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그 집을 불사르고 사람도 불살라 버린다면 그만이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관(禮官)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익정(趙益貞)이 말하기를,

“조종조에서는 내직 별감(內直別監)을 보내어 그 시험해 취하는 것을 감시하게 하였는데, 예조 낭관을 보낸 것이 어느 때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중이 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국가의 군액(軍額)이 날로 줄어드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내직 별감을 보내어 시취(試取)하게 하면 외람된 폐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예조의 관원을 보낼 뿐입니다.” 하였다.

강겸이 말하기를,

“강원도(江原道)는 인민이 희소한데, 금강산(金剛山)과 오대산(五臺山)에는 사찰(寺刹)이 대단히 많고, 여기에 살고 있는 중의 무리가 몇이나 되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니, 만약 이들로 충군한다면 어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조익정은 말하기를,

“강원도는 인민이 영세(零細)하여 겨우 1만 2천여 호이며, 한 도(道)의 백성을 다하여도 다른 도의 한 거읍(巨邑)을 당하지 못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중이 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강겸은 말하기를,

“강원도는 군수(軍需) 물자가 지극히 적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산사(洛山寺)와 유점사(楡岾寺) 등의 사찰에다가 국가에서 식염(食鹽)을 주고 있는데 그 수효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으로 곡식을 사서 군수 물자를 보충한다면 어찌 풍족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또 낙산사는 사염분(私鹽盆)<sup>25)</sup>도 또한 많으니 관에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조익정이 말하기를,

“진실로 강겸이 아뢰 바와 같습니다. 낙산사 등의 사찰에 줄 소금을 곡식으로 바꾸어서 군수 물자에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

25) 사염분(私鹽盆), 사염인(私鹽人)으로부터 일정한 염세(鹽稅)를 징수한 것을 이룸.

“조종조로부터 주어 온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이제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다.” 하였다.

이에건이 말하기를,

“중이 되는 자가 단지 사조(四祖)<sup>26)</sup> 만을 써서 양종(兩宗)에 바치는데, 이로 말미암아 위조하는 사례가 많으니, 모름지기 본관(本官)의 정역(定役)이 없다는 공문을 받게 한 뒤에 비로소 도첩(度牒)을 주면, 중이 되려는 자가 반드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중의 무리가 비록 위첩(僞牒)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수령이 어찌 알겠습니까? 예조로 하여금 유점사(楡岾寺)의 수리 도감 도첩(修理都監度牒)을 내어준 연월(年月)을 상고하여 각도(各道)에 이첩(移牒)하게 하면 그 진위(眞僞)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또 관차(官差)가 비록 절에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중들이 반드시 산에서 내려올 때가 있을 것이니, 그때 추쇄하면 도첩 없는 중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강겸이 말하기를,

“대저 강원도의 각 고을에서는 대구어(大口魚)가 생산되지 않고 오직 간성(杆城)한 고을에서만 나기 때문에 여러 고을에서 스스로 준비할 수 없어 모두 무역하여 바치고 있습니다. 청컨대 그곳에서 생산되는 물건으로 공물(貢物)을 정하게 하소서.” 하니

조익정이 말하기를,

“본래 생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성(高城)·간성·통천(通川) 등의 고을에서는 영안도(永安道)에서 무역해 오고, 평해(平海)·강릉(江陵)·울진(蔚珍) 등의 고을에서는 서울에서 무역을 하여 바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모든 도(道)에 물어서 공물을 정하지 않았던가? 자라[魷魚]도 안변(安邊)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감(減)하였다. 생산되고 생산되지 않는 것을 다시 상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御經筵 講訖 獻納鄭繹啓曰 選僧之法 在所當革 若不遽革 請勿遣禮曹郎廳監選 侍讀官姜謙曰 拘大典 不改度僧之法 失今不改 則何時可改乎 執義李禮堅啓曰 禮曹郎廳 不知釋書 雖使監試何益 且雖使精選 亦何補國家乎 上問左右 領事尹弼商對曰 選僧既是祖宗故事 且以住持守刹 則不可不試取而任之 若試取 則必有猥濫之弊 不可不遣郎官也 上曰 若火其廬 人其人則已矣 不然 禮官不可不遣也 特進官趙益貞曰 祖宗朝遣內直別監試取 其遣禮曹郎官 未知始自何時 大抵爲僧者多 故國家軍額日減 誠非細故也 弼商曰 內直別監試取 有猥濫之弊 不得已遣禮官耳 謙曰 江原道人物鮮少 而有如金剛山 [五]臺山 寺刹甚多 所居僧徒 不知其幾 若以此充軍 豈不有益乎 益貞曰 江原道人物濶

26) 사조(四祖),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네 조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

殘, 僅一萬二千餘戶, 舉一道之民, 不敵他道一巨邑. 此無他, 爲僧者多故也. 謙曰, 江原道軍需至少, 不可不慮也. 洛山<sup>1)</sup> 榆岾等寺, 國家給食鹽, 其數甚多, 以此貿穀補軍需, 豈不足用? 且洛山寺私鹽益亦多, 不須官給也. 益貞曰, 誠如謙所啓, 以應給洛山等寺之鹽, 貿穀以裨軍需可也. 上曰, 自祖宗朝給之已久, 今不可遽革." 禮堅曰, 爲僧者, 但書四祖呈兩宗, 由是多僞, 須令受本官無役公文, 方給度牒, 則爲僧者必不多矣. 且僧徒雖持僞牒, 守令何以知之? 其令禮曹考榆岾修理都監度牒成給年月, 移于諸道, 則可辨其眞僞矣. 上曰, 可. 且官差雖不得上寺, 然僧徒必有下山之時, 此時推刷, 則無牒之僧可得矣. 謙曰, 大抵江原諸邑, 不產大口魚, 惟杆城一邑獨產, 故諸邑不能自備, 皆貿易以進, 請以所產之物定貢. 益貞曰, 本非不產也, 產不多也, 故高城<sup>2)</sup> 杆城<sup>3)</sup> 通川等官, 貿於永安道, 平海<sup>4)</sup> 江陵<sup>5)</sup> 蔚珍等官, 貿於京中. 上曰, 無乃已問於諸道而定貢乎? 魴魚不產於安邊, 故亦減之矣. 其更考產<sup>6)</sup> 不產.

『成宗實錄』 261권, 성종 23년 1월 17일 戊子



## 연산군일기

○1496년 명 홍치(弘治) 9년 김수동이 유점사·낙산사에 소금 공급하는 일을 서계하다.

홍문관 전한(典翰) 김수동(金壽童) 등이 서계하기를,

“신들이 듣자오니, 내수사(內需司)가 유점사(楡岾寺)·낙산사(洛山寺) 두 절에 소금을 공급할 것을 계청하였다 하옵는데, 신들의 생각으로는, 소금을 굶는 공력이 막중하거니와, 백성의 힘을 빌어서 구워낸 것을 무단히 놀고먹는 무리들에게 제공함은 왕정(王政)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오며, 특히 세조(世祖)께서 한때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신 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종(成宗)께서 여러 조정의 분부를 받은 것 중에 행할 만한 것을 취하여 대신들과 상의해서 『속록(續錄)』을 작성하였는데, 이 두 절에 소금을 공급하는 조문은 실려 있지 않으니, 내시들이 제멋대로 아뢰는 것을 가지고서 경솔히 『대전(大典)』을 변경할 수 없사옵니다. 함부로 아뢰는 죄를 다스려서 길이 성헌(成憲)을 준수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의 형세를 살펴보면 임금으로 하여금 수족을 늘리지 못하게 하고서 아랫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다. 이 일은 선왕(先王)의 친압(親押)<sup>27)</sup>이 있으니 폐기할 수도 없으며 또 내수사는 성종조에 모든 일을 다 직계하고 승정원(承政院)을 거치지 않았다.”하자,

수동(壽童) 등이 또 서계하기를,

“신하가 임금 섬김에 있어 일을 만나면 곧 말하여 허물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임금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한(漢)·당(唐)의 말엽과 같이 내시들이 전청하여 나라

27) 친압(親押), 예전에, 임금의 수절을 이르던 말.

의 정사를 전제(專制)해서 임금으로 하여금 아무런 시책도 있을 수 없게 한 후에야 수족을 놀리지 못하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속록(大典續錄)』은 성종(成宗)께서 대신들과 더불어 강구해서 작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신 것이운데, 승하(昇遐)하신 지 얼마 안 되어 내시들이 함부로 위에 아뢰어 성법(成法)을 동요하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내수사가 비록 직계한 전례가 있다 할지라도 소관이 곡물(穀物)이나 포목(布木)을 출납하는 따위 일이라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선왕의 법을 무너뜨리어 130섬[斛]의 나라 소금을 허비하는 일을 어찌 내수사에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실로 내시들이 정사에 간여하려는 조짐이오니, 통렬하게 다스려야 할 일입니다. 또 소금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비록 세조(世祖)의 어필(御筆)이 있다 할지라도 성종께서 『속록』에 실지 않으셨으니, 어찌 뜻하신 것이 없겠습니까. 세조께서 일찍이 해마다 유점사(楡岾寺)에 쌀을 대주셨는데도 성종께서 혁파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정히 전하께서 본받으셔야 할 일입니다."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弘文館典翰金壽童等書啓. 臣等聞, 內需司啓請楡岾 洛山兩寺給鹽. 臣等以謂, 煮鹽功重, 勞民力以煮, 而橫費於遊食之徒, 非王政美事, 特出於世廟一時私恩耳. 成宗取累朝受教可行者, 與大臣商確, 以成續錄, 而不載兩寺給鹽之條, 不可以宦豎擅啓, 輕變大典. 請治擅啓之罪, 永遵成憲. 傳曰, 觀今之勢, 使人主不得措手足, 而下之人皆欲任便自爲耳. 此事有先王親押, 不可廢也. 且內需司在成宗朝, 凡事皆直啓, 不由政院矣. 壽童等又書啓, 臣之於君, 遇事輒言, 納於無過之地, 是敬君也. 如漢 唐之季, 閹寺恣橫, 專制朝政, 使人主不得有爲, 然後方可謂之不得措手足也. 大典續錄 成宗與大臣講剴酌定, 以遺後嗣, 而賓天未幾, 宦寺擅自上聞, 以撓成法, 罪不可赦. 內需司雖有直啓之例, 如所管穀布出納等事, 猶之可也, 毀先王之法, 以橫費一百三十斛之國鹽, 豈內需司所得擅也? 此實宦豎干政之漸, 在所痛治. 且給鹽雖有世廟御筆, 成宗不載續錄, 豈無謂歟? 世祖亦嘗歲給米于楡岾寺, 而成宗革之不疑, 此正殿下所當法也. 不聽.

『燕山君日記』 12권, 연산 2년 1월 4일 癸未



## 중종실록

○ 1513년 명 정덕(正德) 8년 공주의 예사전이 된 낙산사의 사전을 예전대로 사찰에 주게 하다.

이보다 앞서 의령(宜寧)에 있는 낙산사(洛山寺)의 사전(寺田)을 경순공주(慶順公主)가 예사전(例賜田)으로 받았었는데, 그 후 사노(寺奴) 명동(命同)이 신소(申訴)<sup>28)</sup>하기를 ‘왕패(王牌)가 있는 사사전(寺社田)<sup>29)</sup>을 속공(屬公)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이때에



와서 호조가, 예조의 공문서에 따라 왕패가 있는 전지는 속공하지 말도록 하고 예전대로 사찰에 줄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先是, 洛山寺田在宜寧, 慶順公主, 以例賜田受之, 厥後寺奴命同申訴云, 有王牌寺社田, 不當屬公. 至是戶曹請, 依禮曹關, 有王牌田地, 勿令屬公, 仍舊給寺. 從之.

『中宗實錄』 19권, 중종 8년 11월 19일 癸未



## 정조실록

○ 낙산사 공납의 감소와 물기의 시행에 대한 서정수의 장계.

원춘도 관찰사(原春道觀察使)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에 이르기를,

“국초(國初)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에서 배와 미역을 명례궁(明禮宮)에 바치는 일이 있었으나 배나무와 미역밭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먼곳에서 교역(交易)하여 바치므로 승도(僧徒)들이 지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감면해 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선무(選武)·권별(勸別)<sup>30)</sup>·마병(馬兵) 등의 도시(都試)에서 물기(沒技)<sup>31)</sup> 한 사람이 전시(殿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은 각도(各道)의 공통된 전례입니다. 그런데 유독 본도(本道) 도시의 상전(賞典)에는 다만 우등(優等)만을 뽑고 물기에는 미치지 않으니 허다한 무사(武士)들이 늘 조정(朝廷)에 한 번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타도의 예에 의하여 특별히 물기한 사람에게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을 허용한다면 격려와 권장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이 과거의 규칙(規則)에 관계되므로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하니,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原春道觀察使徐鼎修狀啓言, 國初襄陽 洛山寺, 有生梨 甘藿之納於明禮宮, 而梨樹 藿田, 今無所存, 遠貿充納, 緇徒莫能支吾. 請蠲減. 從之. 又啓言, 選武 勸別馬兵等都試沒技人, 直赴殿試, 各道通然, 而獨於本道都試賞典, 只舉優等, 不及沒技, 許多武士, 輒願一聞於朝. 若依他道例, 特許沒技, 人直赴殿試, 則可爲激勸之方. 事係科規, 令該曹稟處." 命依他道例施行.

『正祖實錄』 20권, 정조 9년 6월 21일 戊戌

28) 신소(申訴),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함을 이룸.

29) 사사전(寺社田), 조선 시대, 절에 소속되어 있던 논밭.

30) 권별(勸別), 권무 별시(勸武別試)의 준말. 조선조 후기 권무 군관(勸武軍官)에게 보이는 무과(武科)의 하나로 고시 방법과 정원은 별시(別試) 규정을 준용함.

31) 물기(沒技), 조선시대 각종 무예시험에서 전과목에 모두 우등 합격하던 일.

○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강원도 암행어사 권준의 장계에 대해 답하는 전교를 내리다.

강원도 삼척(三陟)·간성(杆城) 등지의 암행어사 권준(權駿)이 장계하기를,

“신은 간성 경내로 들어가 곧장 고백진(古栢津) 화재 장소에 이르러 상황을 탐문하고 그 전말을 알아보았더니, 69가구가 한꺼번에 불탔는데 홀전(恤典)<sup>32)</sup>으로 나누어 지급한 쌀은 29석이었습니다. 불탄 가구가 먹은 환곡(還穀)<sup>33)</sup>은, 때마침 선달을 만나 이미 창고를 봉(封)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꺼내어 지급하였는데 그 수량은 각곡 도합 1백 59석이었으며 영읍(營邑)에서도 다 함께 도와서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본 바로는 마을 형태가 이미 이루어져 모두 자리 잡고 살 곳을 정한 형편입니다. 그들 가운데 간혹 농사지를 동안 먹을 식량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환곡을 받겠다고 자원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창고에 보관해 둘 명목으로 놓아둔 부근 창고의 곡물로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에 고백진에서 발길을 돌려 경내의 촌마을로 찾아가 상세히 탐문해 보았더니, 계묘·갑진년 이후 조정에서 보살피고 구제해 준 혜택이 본읍에까지 두루 미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공삼(貢蔘)<sup>34)</sup>의 일부를 면제한 일, 진결(陳結)<sup>35)</sup>을 감면한 일, 포보(砲保)를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도록 한 일, 유량민에 대해 10년 동안 잡역을 부과하지 말도록 한 일 등은 이 모두 고을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기회였는데, 그 이후 16년이 된 오늘날 상처가 거의 다 아물고 유량민도 이미 안정되어 다른 고을에 견주어 볼 때 별다른 폐단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행적을 숨기고 다니면서 보고 들은 일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본군 고백진(古栢津)의 불탄 가구 가운데 군보(軍保)<sup>36)</sup>를 띠고 있는 자의신포(身布)<sup>37)</sup>를 이미 다 감면하였으니, 삼척의 불탄 가구 가운데 공천록(公賤錄)에 올려진 역군과 내노(內奴)·역노(驛奴) 5명도 누구나 차별 없이 보아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에 비추어 다 함께 신역을 견감해 주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삼척 후평(後坪) 굴촌(窟村)에 사는 유학(幼學) 김채인(金采仁)의 질녀가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스물일곱 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가의 노비로 속량(贖良)<sup>38)</sup>을 한 이웃에 사는 정완수(鄭完守)가 그를 맞아들여 아내로 삼고 싶었으나 신분이 서로 맞지 않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식 가락지를 사서 같은 마을의 어린아이를

32) 홀전(恤典), 정부에서 이재민 등을 구하기 위해 제공하는 특전.

33) 환곡(還穀), 정부의 양곡을 춘궁기에 백성에게 대여하고 추수 후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회수하는 것.

34) 공삼(貢蔘), 예전에, 나라에 공물로 바치는 산삼을 이르던 말.

35) 진결(陳結), 예전에, 묵은 논밭에서 거두는 조세를 이르던 말.

36) 군보(軍保), 조선시대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에 나가는 대신 정군(正軍)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역(身役)의 단위.

37) 신포(身布), 조선 말기, 평민이 신역 대신에 바치던 무명이나 베.

38) 속량(贖良),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함.

꼬여 김씨 질녀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기를 "아무개 질녀가 나에게 시집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가락지를 사서 줬다." 하였습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곧 목을 매어 죽어버렸는데 채인은 그 더러운 소문이 역겨워 끝내 덮어두고 말았습니다. 신은 그 말을 들은 뒤에 관가에 들어가 은밀히 물어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아 감영에 보고하기까지 하였고, 감영의 판결문에서도 그 억울한 마음을 밝히긴 하였습니다만 완수는 곧장만 쳐서 석방하였습니다. 불가불 한번 다시 조사하여 그 사실을 캐낸 다음에 완수를 무고죄로 조율하여 억울하게 죽은 녀으로 하여금 참된 심정을 밝히게 해야겠습니다.

간성(杆城)에서 해척(海尺) 11인과 선격군(船格軍) 77인이 지난해 정월 11일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들어갔다 갑자기 폭풍을 만나 한꺼번에 침몰하였으나 시신을 건져내기 전에는 생사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에 장계를 올리지도 못하고 홀전(恤典) 또한 제급(題給)<sup>39)</sup>하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월달에 추위가 매섭고 거센 바람이 몰아쳤으니, 그들이 익사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이 보고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아비 잃은 어린 자식과 남편을 잃은 홀어미가 소리를 삼켜가며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어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에게 분부하시어 해상에서 제사를 지내 구슬픈 녀을 위로하게 하고 특별히 선세(船稅)를 견감하여 백징(白徵)<sup>40)</sup>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소서.

양양(襄陽) 낙산진(洛山津)에 있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으니 이곳을 어느 정도로 중시했던가를 알 만한데, 근년 이후 제관(祭官)이 된 자가 전혀 정성을 드리지 않아 제물이 불결하고 오가는 행상들이 걸핏하면 복을 빌어 영락없는 음사(淫祠)로 변했으며, 게다가 전 홍천 현감(洪川縣監) 최창직(崔昌迪)의 집이 신묘(神廟)에서 매우 가까운 지점에 놓여 있어 닭이며 개들의 오물이 그 주변에 널려 있고 마을의 밥짓는 연기가 바로 곁에서 피어 오릅니다. 신과 인간이 가까이 처해 있는 것은 신을 존경하되 멀리한다는 뜻에 자못 어긋납니다. 요즘 풍파가 험악해져 사람들이 간혹 많이 빠져 죽고 잡히는 고기도 매우 양이 적은데, 해변 사람들이 다 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끌어다 붙인 말로서 족히 믿을 것이 못 되지만, 신명을 존경하고 제사 예법을 중시하는 도리로 볼 때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감사에게 분부하시어 그 사당을 중수하여 정결하게 만들고 제향에 올리는 제물도 다 정성을 드리게 하며, 미신으로 믿어 기도하는 일을 일체 금지시키고 사당 앞의 인가도 빨리 철거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39) 제급(題給), 예전에, 관부에서, 백성이 제출한 소장이나 원서에 판결이나 지령을 써 주는 일을 이르던 말.

40) 백징(白徵), 예전에, 세금을 물어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세금을 거두는 일을 이두식으로 이르던 말.

“이 장계를 살펴보니, 간성 백성들 또한 살 곳으로 나아가 안정되게 살아갈 가망이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 덧붙여 아뢴 여러 조항 가운데 첫 조항은 사실 옳은 말이다. 즉시 문건을 만들어 감사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고을 수령에게 분부하여 간성 고백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역을 견감해 주도록 하라. 삼척 후평 굴암촌(窟巖村)의 조사할 일 또한 감사에게 철저히 조사 처결한 뒤에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 간성 해변 마을에서 1백 명에 가까운 사람이 바다에 빠져버렸는데도 아직까지 조정에 알리지 않으면서 어찌 생사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즉시 감사로 하여금 지방관을 엄중히 지시하여 제단을 설치, 위문제를 행하도록 하고, 선세(船稅)도 문서에서 청한 대로 거행하라. 양양 낙산진 동해신묘에 관한 일도 장청대로 보수한 뒤에 감사가 그 결과를 장계로 보고하면 그대 권준을 현관으로 차임하여 제물을 올려 양양 백성들이 옛날처럼 풍요를 누리도록 빌게 하겠다.

일찍이 들은 바로는 양양간성에서 은어(銀魚)를 잡아 바치는 폐단은 백성의 큰 고통이라 했는데, 그대는 이번 걸음에서 어찌 장계에다 거론하지 않았는가. 쓸모없는 산물로써 바로잡기 어려운 폐단을 만드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는 일이며 게다가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뜻으로 말하더라도 양양은 그나마 해당되는 고을이라 할 수 있으나 간성은 참으로 부당하다. 이 문제를 항상 규정으로 정하려 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는데, 그대가 마침 영동에 어명을 받고 나간 김에 우선 두 고을 은어에 대하여 궁중에 바치는 것이거나 감영에서 사용하는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전복을 잡지 말도록 한 제주(濟州)의 규례에 의해 다시는 거론하지 말도록 하라. 봉진(封進)과 복정(卜定)<sup>41)</sup>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고을에서라도 만일 한 마리라도 사들여 쓰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고을 수령을 균역청 사목(均役廳事目)의 은결죄(隱結罪)로 다스리겠다.” 하였다.

江原道 三陟 杆城等暗行御史權峻狀啓言. 臣入杆城境, 直抵古栢津火燒處, 探問事勢, 審視形止, 則延燒六十九家, 而恤典分給米爲二十九石零. 燒戶所食還穀, 時值臘月已封庫, 故出給之數, 各穀爲一百五十九石零, 營邑亦皆有助給. 以今所見, 聚落既成, 皆已奠接. 其中或有農糧難辦, 而自願受還者, 故以附近倉穀留庫條分給. 而自古栢津, 轉尋境內村閭, 詳細訪問, 則蓋自癸甲以後, 朝家存恤之澤, 偏及於本邑. 貢蔘之蠲除, 陳結之減免, 砲保之給代, 流民之限十年勿侵雜役, 皆是邑民再生之秋, 而去今十六年之間, 瘡痍幾盡甦醒, 流寓亦既安集, 比之他邑, 還爲無弊. 外此潛跡時所聞見, 開錄于左. 一, 本郡古栢津燒戶中, 有帶軍保者, 身布既皆蠲免, 則三陟燒戶, 亦有案付軍與內奴 驛奴合五名, 其在一視之義, 竝爲蠲役, 恐合事宜. 一, 三陟 後坪窟村居幼學金采仁姪女, 幼失父母, 年至二十七而未嫁, 隣居鄭完守以私賤贖良者, 欲娶之爲妻, 而地不相適, 不敢生意, 誘同里小兒, 買給錫指環於金女, 號於衆曰, ‘某女當歸于我. 我嘗買給指環.’ 女聞其言, 仍卽縊死, 采仁, 惡其醜名, 遂爲掩置. 後

41) 복정(卜定), 조선 시대,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하여금 규정된 공물 이외의 그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바치게 하던 일을 이두식으로 이르던 말.

入官家廉問，捧招各人，至有報營之舉，營題亦已白其心，而但完守則杖而釋之。不可不一番更查，得其直情然後，完守則照以誣人之律，使冤死之魂，得以暴其本情。一，杆城海尺十一，船格軍七十七人，昨年正月十一日，捉魚入海，猝遇急風，一時漂沒，而以屍身拯得前，生死未分，不得狀聞，恤典亦不得題給云。而時值正月，寒威太酷，惡風大發，則其爲渰死，丁寧無疑。以臣所聞見言之，孤兒寡婦，吞聲掩泣，有不忍見。分付道臣，設祭海上，以慰啾啾之魂，特蠲船稅，俾無白徵之冤。一，襄陽 洛山津，有東海神廟，享禮在於國典，則其爲所重如何，而近年以來爲祭官者，全欠致敬，牲豆不潔，往來商旅，輒事祈禱，便成淫祠，重以前洪川縣監崔昌迪家，在於神廟至近之地，鷄犬糞穢，雜糞於其間，村里烟火，繚繞於逼側。神人狎處，殊非敬遠之義。近來風濤險惡，人物間多渰沒，魚產亦甚絕貴，沿海人言，皆云職此之由。語涉傳會，不足爲經，其在敬神明重祀典之道，不可仍置。分付道臣，重新其廟，使之潔淨，享祀之具，亦必申飭，凡係淫禱，一切禁斷，廟前人家，亟命撤去。教曰，觀此狀本，杆民亦有就次奠居之望，甚可幸也。附陳諸條中，首條果然，卽爲文移道伯，或分付邑倅，一依杆城 古栢之例蠲役。三陟 後坪 窟巖村查事，亦付之道臣，拔例查決狀聞。杆城海戶近百名渰沒之，尙無登聞，豈可謂之生死未分乎？卽令道臣，嚴飭地方官，設壇慰侑，船稅依狀請舉行。襄陽 洛山津東海神廟事，亦依狀請修補後，道伯狀聞，則當差爾爲獻官，設祭以祈襄民之若昔富盛。嘗聞襄 杆銀口魚捉納之弊，爲小民切苦，而爾於今行，何不舉論於狀本乎？以無用之物，爲難矯之端者，已無意味，且以任土之義言之，襄猶該邑，杆尤不當。此一款每欲定式而未果，爾適銜命嶺東，先從兩邑銀口魚，無論供御與營用，依濟州折大全鱖勿捉之例，更勿舉論。不但 不爲封進與卜定而已，雖自該邑，若有一尾買用之弊，該守令，施以均廳隱結之律。

『正祖實錄』 54권, 정조 24년 4월 7일 己丑



## 승정원일기

○ 1631년 崇禎(明/毅宗) 4년 13일부터 15일까지 襄陽에 盲風이 크게 불어 五峯山 뒤에 큰불이 나서 洛山寺 등이 延燒되었다는 江原監司의 서목규장각

江原監司書目, 襄陽呈, 本月十三日始, 十五日至, 盲風大作, 五峯山後, 大火自出, 洛山寺及民家·海尺家, 竝一百三十餘坐, 一時延燒事.

『承政院日記』 권 3 2 인조 9년 4월 26일

○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大風이 불고 산불이 나서 洛山寺 등이 탔다는 江原監司의 장계규장각

江原監司狀啓, 襄陽呈, 以三月初二日, 大風猝起, 掀天動地, 氣勢獐怪, 百尺之松, 盡爲拔根, 屋瓦皆飛, 人不立行. 初三日, 嶺上累十里外, 有一派山火, 瞬息之間, 飛到平郊, 烈火翻

空, 烟焰漲天, 火塊飛舞, 着物輒燒, 境內民家五十坐, 盡爲燒盡, 洛山巨刹, 亦被灰燼. 祥雲  
察訪呈, 元巖驛至殘, 難堪其役, 且值凶荒, 流亡相繼. 二月二十三日, 狂風猝作, 山火發延,  
元巖一驛十五家, 一時燒盡, 事係變異事.

『承政院日記』 84책 인조 21년 3월 26일



## 일성록

○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에서 생리(生梨)와 감곽(甘藿)을 해마다 바치는 것에 대  
해 특별히 감해 주라고 명하였다.

우승지 서정수가 아뢰기를,

“옛날 국초(國初)에 양양의 낙산사에서 생리와 감곽을 명례궁(明禮宮)에 해마다 바치던  
것이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당시 생리는 좋은 품종이 있고 감곽은 사전(賜田)이 있었  
기 때문에 절의 승려들이 이 토산물로 보잘것없는 정성을 표하였는데, 그 후 수백 년  
이래로 배나무와 곽전(藿田)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는데도 전례가 되어 지금까  
지 그대로 답습하여 수납(輪納)할 때마다 먼 곳에서 사서 취하기도 하고 경시(京市)에  
서 사서 바치기도 하여 지탱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이 순행(巡行)하여 이르렀을 때  
해진 장삼을 입은 두세 명의 승려들이 길을 막고 호소하면서 변통해 주기를 간절히 청  
하였는데, 그 정상을 살펴보면 참으로 대단히 측은합니다. 궁납(宮納)은 비록 정공(正  
貢)과는 차이가 있으나 진상(進上)하는 일에 관계되므로 견감(蠲減)해 주기를 청하지 못  
하겠습니다만, 이미 본 바가 있기에 감히 아뢰입니다.”하여,

하교하기를,

“듣고 나니 매우 불쌍하다. 이후로 특별히 감해 주라고 해궁(該宮) 및 해도(該道)에 분  
부하라.”하였다.

命襄陽洛山寺梨藿歲納. 特爲減給.

右承旨徐鼎修啓言. 在昔國初. 有襄陽洛山寺生梨甘藿之歲納於明禮宮者. 蓋聞伊時梨有佳  
種. 藿有賜田. 故寺僧輩以此土地之產. 用表獻芹之誠. 其後數百年來. 梨樹藿田. 無一見存.  
而便成已例. 因循至今. 每當輪納之時. 或買取於遠地. 或買納於京市. 莫能支吾. 臣於巡到  
時. 數三破納. 遮路呼訴. 懇乞變通. 觀其情狀. 誠甚矜惻. 宮納雖與正貢有異. 事關進上. 不  
得請蠲. 而既有所見. 敢達矣. 教以. 聞甚可矜. 此後特爲減給事. 分付該宮及該道.

『日省錄』 정조 9년 을사(1785) 6월 21일. 무술

○ 낙산사(洛山寺)의 폐단을 없애 소생시킬 방도를 나중에 장문(狀聞)하라고 명하였다.  
원춘 감사(原春監司) 이시수(李時秀)가 낙산사의 조곽(早藿) 진상(進上)에 따른 폐단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달라고 치계한 데 대해, 하교하기를,  
 “절이 이미 쇠잔해졌는데 조곽 또한 값이 뛰었으니, 전례만을 고집하여 몇 안 되는 승  
 도(僧徒)들에게 해마다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쌍히 여길 일이다. 이 장계에 대해 회  
 계(回啓)할 것 없으니, 궁납(宮納)하는 조곽을 올해부터 특별히 모두 탕감해 주라. 낙산  
 사는 나라 안에서 가장 뛰어난 명찰(名刹)이어서 열조(列朝)에서 하사해 준 전토(田土)  
 와 노비(奴婢), 염전(鹽田) 등이 매우 넉넉하고 후하였는데, 근래 대부분 유실되어 장차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다. 절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되는 바가 긴급(緊重)하기  
 때문이니, 이에 대해서는 도백으로 하여금 폐단을 없애 소생시킬 방도를 별도로 강구하  
 여 등문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장문하게 하도록 하라. 이 내용을 묘당으로 하여금  
 행회하게 하라.”하였다.

命洛山寺蘇弊之方. 從後狀聞.

原春監司李時秀以洛山寺早藿進上之弊. 稟處馳啓. 教以. 寺旣凋殘. 藿亦騰貴. 膠守前例.  
 年年責徵於數少緇徒. 在所矜念. 此狀聞不必回啓. 宮納早藿. 自今年特竝蕩減. 大抵洛山一  
 寺. 最稱國中名刹. 列朝賜與田土奴婢鹽田等屬. 極其優厚. 而近皆遺失. 將不得收拾云. 非  
 爲寺刹也. 所關關係緊重. 此則令道伯另究蘇弊之方. 如有可以登聞者. 從後狀聞事. 令廟堂  
 行會.

『日省錄』정조 9년 을사(1785) 11월 12일.무오



## 성종실록

○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대사간 성현 등이 건의한 중 학열과 홍지의 처벌을 불허  
 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성현(成愼) 등이 차자(筵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엎드려 듣건대 사헌부(司憲府)에서 근래에 중 홍지(弘智) 등의 불법(不法)한  
 일을 가지고 조율(照律)하여 아뢰었으나, 전하(殿下)께서 법(法)으로 조치하지 않고 마침  
 내 그 죄를 감해 주었으며, 빼앗은 민전(民田)을 옛날대로 돌려주도록 하시니, 신 등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중의 도리는 세속을 떠나고 속연(俗緣)을 끊어 청  
 정(淸淨)하고 과욕(寡慾)하는 것으로써 업(業)을 삼는 것인데, 이제 홍지 등은 낙산사(洛  
 山寺) 근처에서 따로 농장(農庄)을 개설하여 남의 토전(土田)을 빼앗고, 남의 가사(家舍)  
 를 철거하며, 사채(私債)를 수렴(收斂)할 때에는 여러(閭里)를 횡행(橫行)하면서 백성의  
 재물을 수색(搜索)하는 등 여러 가지 작폐(作弊)를 하였는데, 이는 비록 홍지의 소위(所  
 爲)라 하더라도 모두 학열(學悅)이 시킨 바이니, 승려의 도리가 과연 이와 같은 것입니  
 까? 이와 같이 무법(無法)한 일을 애당초 알지 못하였다면 그만이었지마는, 이제 이미

관원(官員)을 보내어 죄를 조사하여 정적(情迹)이 현저(現著)한데, 오히려 또 용서한다면 신 등은 적이 상벌(賞罰)이 밝지 못하여 백성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심(聖心)으로 재결해서 율(律)에 의하여 단죄(斷罪)하고, 그 점탈(占奪)한 민전(民田)은 거두어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며, 식화(殖貨)도 하지 말게 하여 민생(民生)을 넉넉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司諫院大司諫成倪等上劄子曰, 臣等伏聞, 司憲府, 近將僧弘智等不法事, 照律以啓, 殿下不置於法, 未減其罪, 所奪民田, 仍舊還給, 臣等不勝驚駭. 夫僧之爲道, 離世絕俗, 以清淨寡慾爲業. 今弘智等, 於洛山近處, 別開農庄, 奪人土田, 撤人家舍, 以至私債收斂之時, 橫行閭里, 搜索民財, 作弊多端. 此雖弘智所爲, 悉皆學悅所使, 僧道果如是乎? 如此不法之事, 初若不知則已矣, 今既遣官推覈, 情迹現著, 而猶且容貸, 則臣等, 竊恐賞罰無章, 而民不知所措矣. 伏望裁自聖心, 依律斷罪, 其奪占田民, 收還本主, 勿令殖貨, 以厚民生. 不從.

『成宗實錄』 104권, 성종 10년 5월 8일 癸亥

○ 중 학열에게 침탈된 민전을 주인에게 돌리고 인하여 사전을 침탈하면 처벌케 하다. 전교(傳敎)하기를,

“산산(蒜山)의 제언(堤堰) 안에 있는 민전(民田)을 침탈(侵奪)한 것을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고자 한 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선왕(先王)께서 하사(下賜)한 바이고, 또 한 번 준 뒤에 백성이 혹 사전(寺田)을 침범하여 차지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못했던 것이다. 금년(今年)에는 이미 종자를 심었으니 명년(明年)부터 민전을 돌려주게 하라. 만일 이로 인하여 사전을 침탈하는 자가 있으면 승려(僧侶)의 문서로 아뢰는 것을 들어서 과죄(科罪)할 것이다.”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학열(學悅)이 낙산사(洛山寺)에 살면서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여 거리낌이 없이 산산 제방의 민전(民田)을 강탈(強奪)하였으나 감히 누구냐고도 하지 못하다가, 백성 가운데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있으므로, 임금이 관원을 보내어 조사해 물어서 사전과 민전을 구별하여 아뢰게 하여 이에 이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열은 교활하고 기세(氣勢)가 있어서 청탁(請託)을 번갈아 행하였으므로, 마침내 민전을 주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傳曰, 蒜山堤堰內, 侵奪民田, 欲還其主久矣. 然先王所賜, 且恐一與之後, 民或侵占寺田, 故未果耳. 今年則業已付種, 其自明年還給民田. 如有因此侵奪寺田者, 聽僧狀告科罪. 史臣曰, 學悅居洛山寺, 縱惡無顧忌, 強奪蒜山堤傍民田, 莫敢誰何, 民有訴冤者, 上遣官案問, 別寺田 民田以聞, 乃有是命. 然學悅, 奸黠有氣勢, 請託交行, 竟不與民田.

『成宗實錄』 105권, 성종 10년 6월 14일 己亥

○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장령 이인석이 낙산사에 노비를 영세에 전하는 전교를 고치도록 아뢰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이인석(李仁錫)이 와서 아뢰기를,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특별히 낙산사(洛山寺)에 노비(奴婢)를 주었으나, 영구히 전하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바야흐로 자손(子孫)을 추쇄(推刷)<sup>42)</sup>하려고 하는데, 전하께서 비로소 영세(永世)에 전하라고 명령하시었으니 불가합니다. 또 어유소 등은 끝까지 추문하여 사람들의 의심이 풀리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司憲府掌令李仁錫來啓曰，世祖大王，特給洛山寺奴婢，而無永傳之命，故今方推刷子枝，而殿下始命傳于永世不可。且魚有沼等，不可不窮推，以釋人疑也。皆不聽。

『成宗實錄』120권, 성종 11년 8월 6일 癸丑

○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대사헌 정괄 등이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라는 성명을 거두어 달라는 차자를 올린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정괄(鄭佾) 등이 차자(笏子)를 올리기를,  
 “신 등은 생각건대, 노비를 대대로 전하는 법이 예전에는 없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자(箕子)가 봉(封)함을 받은 이래 비로소 노비가 있어 대대로 전하였으니, 존비(尊卑)를 밝히고 귀천(貴賤)을 분별하고 예속(禮俗)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고려(高麗) 말년에 이르러 널리 사사(寺社)를 세우고, 인하여 토지(土地)·노비(臧獲)를 주었으니, 사사(寺社)에 노비가 있게 된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태종 대왕(太宗大王)께서 토지를 거두어 군수(軍需)에 보충하고 노비를 호적에 올려 공천(公賤)에 소속시켰으니, 참으로 만세에 큰 다행입니다. 여러 성인이 서로 이어 오늘에 이르렀고, 전하는 천성이 총명하고 성학(聖學)이 고매하시니, 온 나라의 백성이 모두 이단(異端)에 미혹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지난번에 듣건대, 낙산사(洛山寺)의 노비 사패(賜牌)에 영세토록 전하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추쇄도감(推刷都監)이 노비의 자손(子孫)을 공천(公賤)에 소속시킬 것을 청하자, 성상께서는 옳다고 하시면서 그 절의 중의 호소로 인하여 특별히 영세토록 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세조(世祖)께서 처음에 노비를 낙산사에 소속시키면서 사패(賜牌)에 영구히 전하라는 말씀이 없었던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서 허가한 일의 먹이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중들의 말로 인하여 성명(成命)을 고치십니까? 선왕(先王)께서 주신 것이 만일 도리가 아니라면 고쳐도 옳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패(賜牌)에 영구히 전하라는 말이 없는데, 영구히 전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특별히 예단(睿斷)을 내리시어 급히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司憲府大司憲鄭佾等上笏子曰，臣等竊謂，奴婢世傳之法，古昔所無，吾東方，自箕子受封以來，始有奴婢以世傳焉，無非所以明尊卑，辨貴賤，成禮俗也。至于麗季，廣建寺社，仍賜土地，臧獲，寺社之有奴婢，始於此矣。惟我太宗大王，收土田，以補軍需。籍臧獲，以屬公賤。

42) 추쇄(推刷), 전근대시대 도망한 국역부담자나 노비 등을 찾아서 본거지로 되돌리는 일.

誠萬世一大幸也. 聖聖相承, 至于今日, 殿下天性聰明, 聖學時敏, 一國臣民, 皆知不惑於異端也. 頃聞洛山寺奴婢賜牌, 無可傳永世之語, 故推刷都監, 請以子枝屬公, 上可之, 因其寺僧之訴, 特許永傳, 世祖初, 以奴婢屬于洛山寺, 而賜牌, 無永傳之語, 必有以也. 柰[奈]何判下之墨未乾, 遽以僧人之言, 改其成命乎? 先王之賜, 如其非道, 雖改之, 未爲不可. 況賜牌, 無永傳之語, 而使之永傳可乎? 特垂睿斷, 亟收成命. 不聽.

『成宗實錄』 120권, 성종 11년 8월 10일 丁巳

○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집의 이덕숭 등이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덕숭(李德崇)·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낙산사(洛山寺)의 노비는 처음에 내려 준 수(數)가 이미 많았는데, 그 자손(子孫)까지 아울러 영구히 전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先王)이 주신 것은 영구히 전하게 하고자 하심인데, 어찌 그 자손(子孫)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하였다.

이덕숭 등이 말하기를,

“만일 후 자손이 번창하여 천백 명에 이르더라도 영구히 전하여야 합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商量(商量)하겠다.”하였다.

이덕숭이 또 아뢰기를,

“통사(通事) 장유화(張有華) 등이 사신에게 청탁(請託)하여 자급(資級)을 더하기를 희망하였으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조관(朝官)이라도 사명(使命)을 받들고 오면 혹 통사의 관직을 올려 주도록 청하는 일이 있으니, 오랫동안 『통사』가 좌우에 있기 때문이다. 태감(太監)의 청은 보통 있는 일인데, 어찌 청탁하였다고 억측하여 국문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이덕숭이 또 아뢰기를,

“북경에 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정동(鄭同)이 한씨(韓氏)의 족친을 사신으로 임명하기를 청하는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보내지 마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은 이미 한 정승이 북경에 가는 것을 알고 있으니, 중지할 수 없다. 또 정동이 매사에 모두 스스로 공을 자랑하는데, 한 정승이 가는 데에 왕비 책봉만 청하고 궁각(弓角)은 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왕비 책봉은 항상 있었던 일이므로 예(禮)에 의거하여 청하면 단연코 따르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근래에 우리 나라에서

별도로 헌납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궁각(弓角)을 청하여 준허(准許)를 받는다면, 중국 조정에서 의논하여 반드시 우리가 뇌물을 바치고서 얻었다고 할 것이니,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하자,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신이 보건대, 중국 조정에서 궁각(弓角)을 금하는 것이 매우 엄하니, 천천히 보아서 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다.

御經筵 講訖, 執義李德崇 獻納金成慶啓曰, 洛山寺奴婢, 其初賜給之數已多, 竝其子枝永傳之可乎? 上曰, 先王賜給, 欲其永傳也, 豈可奪其子枝乎? 德崇等曰, 如或子枝繁息, 至于千百, 其亦永傳之耶? 上曰, 予更商量. 德崇又啓曰, 通事張有華等, 請囑於使臣, 以希加資, 不可不問. 上曰, 雖朝官奉使而來, 或有請職通事者, 以其久在左右也. 太監之請, 乃其常事, 豈可臆料囑託, 而鞠之乎? 德崇又啓曰, 每赴京之行, 鄭同必請差韓氏族親爲使, 必有以也. 請勿遣. 上曰, 同已知韓政丞赴京, 不可中止. 且鄭同每事, 皆自矜功, 韓政丞之行, 只請册妃, 勿請弓角何如? 册妃常事, 據禮請之, 斷無不從之理. 近來我國, 別獻太多, 今奏弓角而蒙準, 則朝論必謂我以賂得之, 甚可恥也. 弼商曰, ‘臣觀朝廷弓角之禁甚嚴, 徐觀請之爲便.

『成宗實錄』120권, 성종 11년 8월 20일 丁卯

○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장령 이인석이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라는 전지를 고치기를 청하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이인석(李仁錫)이 낙산사(洛山寺)의 노비(奴婢)를 영구히 전하라는 임금님의 명을 고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司憲府掌令李仁錫, 請改洛山寺奴婢永傳之旨, 不聽.

『成宗實錄』121권, 성종 11년 9월 24일 辛丑

○ 강원도 관찰사 이육이 통전의 세금을 양양부에서 받도록 해 주기를 청하다.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육(李陸)이 아뢰기를,

“2월 24일에 산불이 나서 양양부(襄陽府) 주민 2백 5호와 낙산사(落山寺) 관음전(觀音殿)이 연소(連燒)되고, 간성 향교(杆城鄉校)와 주민 2백여 호가 일시에 모두 탔는데 오직 사람과 가축은 상하지 아니하였고 민간에 저장한 곡식이 모두 재가 되었으니, 청컨대 통천(通川)의 전세(田稅)를 옮겨 받아서 주도록 하소서.”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江原道觀察使李陸啓, 二月二十四日, 本道山火, 連燒襄陽府居民二百五戶 洛山寺 觀音殿 杆城鄉校及居民一百二十四戶, 一時皆燒. 唯人畜不傷, 而閭閻所儲之穀, 盡爲灰燼. 請移納通川田稅以給. 從之.

『成宗實錄』226권, 성종 20년 3월 14일 壬申

○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시독관 강겸 등이 도승법을 개혁할 것·서울로 도망온 중들을 추쇄할 것 등을 청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강겸(姜謙)이 아뢰기를, “선승(選僧)과 도승(度僧)의 법을 재상(宰相)들이 모두 이르기, ‘선왕(先王)의 법이라 고칠 수 없다.’고 하나, 대저 제왕(帝王)의 도(道)는 때에 따라 손익(損益)하는 것이어서 비록 선대(先代)의 법이라 할지라도 폐단(弊端)이 있으면 마땅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단(異端)의 도(道)가 나라에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 해가 있음이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윤호(尹壕)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군액(軍額)과 중의 무리를 놓고 그 많고 적은 것을 비교한다면 중은 몹시 많고 군액은 몹시 적으니, 도첩(度牒)이 없는 자는 마땅히 철저히 수색하여 정해진 노역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승과 도승은 곧 선왕의 법이니 갑자기 고칠 수 없고, 도첩이 없는 중에게 정해진 노역을 하게 하는 것은 내 이미 문서를 내렸다.”하였다.

우승지(右承旨) 권경희(權景禧)가 말하기를, “신(臣)이 듣건대, 모든 도(道)에서 바야흐로 중들을 수색해 찾고 있으므로, 모두 서울로 피해 온다고 합니다. 청컨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붙잡아 원위치로 돌리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끝까지 수색하여 돌아갈 곳이 없게 하면, 장차 변하여 도적(盜賊)이 될 것이다.”하였다.

강겸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일찍이 하교하시기를, ‘도첩(度牒)이 없는 중을 정역한다면, 중의 무리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외방(外方)에는 문자(文字)를 해독하는 자가 적으니, 비록 다른 중의 도첩을 가지고 관차(官差)에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 진위(眞僞)를 알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신은 만약 도승법을 혁파(革罷)해 버린다면 중의 무리는 자연히 멸절(滅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도승법(度僧法)을 개혁하지 않더라도 만약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능히 내 뜻을 받들어 행한다면 이 폐단은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검토관(檢討官) 권유(權瑠)가 말하기를, “부잣집 자식들은 정전(丁錢)을 용이하게 갖추기 때문에 모두 도첩(度牒)을 얻어 중이 되지만, 군사(軍士)의 무리는 모두 가난하고 곤궁해서 노역을 지탱해내지 못하고 도망하여 흩어지는 데 이르는데, 만약 중을 군역(軍役)에 귀속시킨다면 군액(軍額)이 장차 날로 넉넉해질 것입니다.”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궁궐(宮闕)도 수축하지 않고, 사사(寺社)도 창건(創建)하지 않는데, 중들이 무슨 연유로 도첩을 내는가? 낙산사(洛山寺)의 일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선왕조(先王朝) 때 도첩을 받은 자는 지금 필사 없을 것이니, 감사와 수령이 도첩을 점검(點檢)하면서 그 나이를 상고하고 용모를 살핀다면, 곧 진위(眞僞)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윗사람이 하는 것을 아랫사람이 반드시 본받는 법인데, 내 이미 이단(異端)을 숭상하지 않으므로, 공경(公卿)이하 모두가 좋아하고 숭상함도 반드시 같을 것이므로 비록 도첩법(度牒法)이 있다 하더라도 해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하니,

지평(地平) 유경(劉璟)이 말하기를,

“지금 중이 되는 자는 화복설(禍福說)에 현혹(眩惑)되어 그 도(道)를 닦으려는 자가 아니고 모두 군역(軍役)을 피하려는 자들입니다.”하였다.

御經筵 講訖 侍讀官姜謙啓曰 選僧度僧之法 宰相皆以謂先王之法不可改也 大抵帝王之道 因時損益 雖先代之法 有弊當改 況異端之道 無益於國而有害於民者乎 上問左右 領事尹壕對曰 軍額與僧徒 較其多少 則僧人甚多 軍額甚少 無度牒者 固當窮搜定役也 上曰 選僧度僧 乃先王之法 不可遽改也 無度牒僧人定役 予已下諭 右承旨權景禧曰 臣聞 諸道方括僧徒 故皆避來于京 請令漢城府推刷 上曰 如此窮推 無所於歸 則將變而爲盜賊 謙曰 上嘗教云 定役無度牒僧 則僧徒自息 然外方解文者少 雖以他僧之度牒 示於官差 何以知眞僞乎 臣意 若革度僧之法 則僧徒自絕矣 上曰 雖不革度僧之法 若監司 守令 能奉行子意 可革此弊 檢討官權瑠曰 富家之子 易備丁錢 故皆得受牒而爲僧 軍士類皆貧窮 不能支役 以至逃散 若以僧定軍 則軍額將日敷矣 上曰 今不修宮闕創寺 社僧何由出度牒 洛山事 予未及知 然先王朝受度牒者 今必不在 監司 守令點檢度牒 考其年歲 察其容貌 則可知眞僞 上之所爲 下必效焉 予既不尙異端 公卿以下 其好尙必同 雖有度牒之法無傷也 持平劉璟曰 今之爲僧者 非惑於禍福之說 欲其修道 皆避軍役者也

『成宗實錄』 261권, 성종 23년 1월 29일 庚子



## 정조실록

○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낙산사 공납의 감소와 물기의 시행에 대한 서정수의 장계.

원춘도 관찰사(原春道觀察使)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에 이르기를,

“국초(國初)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에서 배와 미역을 명례궁(明禮宮)에 바치는 일이 있었으나 배나무와 미역밭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먼곳에서 교역(交易)하여 바치므로 승도(僧徒)들이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감면해 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선무(選武)·권별(勸別)<sup>43)</sup>·마병(馬兵) 등의 도시(都試)에서 몰기(沒技)<sup>44)</sup> 한 사람이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하는 것은 각도(各道)의 공통된 전례입니다. 그런데 유독 본도(本道) 도시의 상전(賞典)에는 다만 우등(優等)만을 뽑고 몰기에는 미치지 않으니 허다한 무사(武士)들이 늘 조정(朝廷)에 한 번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타도의 예에 의하여 특별히 몰기한 사람에게 전시에 직부하도록 허용한다면 격려와 권장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이 과거의 규칙(規則)에 관계되므로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原春道觀察使徐鼎修狀啓言，國初襄陽洛山寺，有生梨<sup>1</sup>甘藿之納於明禮宮，而梨樹<sup>2</sup>藿田，今無所存，遠買充納，緇徒莫能支吾，請蠲減，從之。又啓言，選武<sup>3</sup>勸別馬兵等都試沒技人，直赴殿試，各道通然，而獨於本道都試賞典，只舉優等，不及沒技，許多武士，輒願一聞於朝。若依他道例，特許沒技，人直赴殿試，則可爲激勸之方。事係科規，令該曹稟處，命依他道例施行。

『正祖實錄』 20권, 정조 9년 6월 21일 戊戌



## 승정원일기

○ 1631년 崇禎(明毅宗) 4년 13일부터 15일까지 襄陽에 盲風이 크게 불어 五峯山 뒤에 큰불이 나서 洛山寺 등이 延燒되었다는 江原監司의 서목

강원 감사의 서목은, 양양(襄陽)에서 “이달 13일부터 시작하여 15일까지 맹풍(盲風)이 크게 불어 오봉산(五峯山) 뒤에서 저절로 큰 불이 나는 바람에 낙산사(洛山寺) 및 민가와 해척가(海尺家) 등 모두 130여 채가 일시에 불탔습니다.”라고 정장하였다는 일이었다.

江原監司書目，襄陽呈，本月十三日始，十五日至，盲風大作，五峯山後，大火自出，洛山寺及民家·海尺家，竝一百三十餘坐，一時延燒事。

『承政院日記』 32책 인조 9년 4월 26일 기사

○ 강원 감사가 3월 2일 양양에서 태풍으로 100척 되는 소나무가 모조리 뽑혀 나가는 등 재이가 심상치 않다는 내용으로 장계를 올렸다

강원 감사의 장계는, 양양(襄陽)에서 “3월 2일에 태풍이 갑자기 일어나 하늘이 흔들리

43) 권별(勸別), 권무 별시(勸武別試)의 준말. 조선조 후기 권무 군관(勸武軍官)에게 보이는 무과(武科)의 하나로써 고시 방법과 정원은 별시(別試) 규정을 준용함.

44) 몰기(沒技), 조선시대 각종 무예시험에서 전과목에 모두 우등 합격하던 일.

고 땅이 진동하였는데, 기세가 사납고 괴이하여 100척 되는 소나무가 모조리 뿌리째 뽑혀 나갔고 기왓장이 모두 날아가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3일에는 산령(山嶺) 위쪽 수십 리(里) 밖에서 산불이 일어나 순식간에 교외의 평평한 들녘까지 번졌는데, 맹렬한 불이 공중에서 나부껴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자욱하였고 불덩이가 날아와 물건에 닿는 대로 태워 버렸습니다. 경내(境內)의 민가 50채가 모조리 불에 탔고, 큰 사찰인 낙산사(洛山寺)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는 일과, 상운 찰방(祥雲察訪)이 “원암역(元巖驛)이 지극히 잔폐하여 역(役)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흥년까지 들어서 유리하거나 사망하는 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23일에는 사나운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산불이 번져서 원암역의 15가구가 일시에 모조리 타 버렸습니다. 재이(災異)가 심상치 않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大風이 불고 산불이 나서 洛山寺 등이 탔다는 江原監司의 장계

江原監司狀啓, 襄陽呈, 以三月初二日, 大風猝起, 掀天動地, 氣勢獐怪, 百尺之松, 盡爲拔根, 屋瓦皆飛, 人不立行. 初三日, 嶺上累十里外, 有一派山火, 瞬息之間, 飛到平郊, 烈火翻空, 烟焰漲天, 火塊飛舞, 着物輒燒, 境內民家五十坐, 盡爲燒盡, 洛山巨刹, 亦被灰燼. 祥雲察訪呈, 元巖驛至殘, 難堪其役, 且值凶荒, 流亡相繼. 二月二十三日, 狂風猝作, 山火發延, 元巖一驛十五家, 一時燒盡, 事係變異事.

『승정원일기』 84책 인조 21년 3월 26일 기미

○ 낙산사(洛山寺) 조곽(早藿) 진상(進上)의 폐해(弊害)를 묘당(廟堂)이 품처(稟處)하도록 한 일에 대해, 도백(道伯)이 폐단을 없애고 소생시킬 방도를 별도로 강구하여 보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 차후에 장계를 올리도록 묘당에서 의논하라는 전교(傳敎)

원춘감사(原春監司)가 아뢴 문서에 낙산사의 조곽(早藿) 진상(進上)에 따른 폐단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달라고 한 일은, 이성규(李聖圭)에게 전교(傳敎)하기를,

“절이 이미 쇠잔해졌는데 조곽 또한 값이 뛰었으니, 전례만을 고집하여 몇 안 되는 승도(僧徒)들에게 해마다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쌍히 여길 일이다. 이 장계에 대해 회계(回啓)할 것 없으니, 궁납(宮納)하는 조곽을 올해부터 특별히 모두 탕감해 주라. 낙산사는 나라 안에서 가장 뛰어난 명찰(名刹)이어서 열조(列朝)에서 하사해 준 전토(田土)와 노비(奴婢), 염전(鹽田) 등이 매우 넉넉하고 후하였는데, 근래 대부분 유실되어 장차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다. 절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되는 바가 긴급(緊重)하기 때문이니, 이에 대해서는 도백으로 하여금 폐단을 없애 소생시킬 방도를 별도로 강구하여, 만일 보고할 만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문서로 보고하게 하도록 하라. 이 내용을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하였다.

以原春監司啓本, 洛山寺早藿進上之弊令廟堂稟處事, 傳于李聖圭曰, 寺旣凋殘, 藿亦騰貴, 膠守前例, 年年責徵於數少緇徒, 在所矜念. 此狀聞不必回啓, 宮納早藿, 自今年特竝蕩減.

大抵洛山一寺，最稱國中名刹，列朝賜與田土·奴婢·鹽田等屬，極其優厚，而近皆遺失，將不得收拾云。非爲寺刹也，所關關係緊重，此則令道伯別究蘇弊之方，如有可以登聞者，從後狀聞事，令廟堂行會。

『承政院日記』 정조 9년 을사(1785) 11월 12일, 무오



## 신증동국여지승람

○ 불우. 낙산사(洛山寺) 오봉산에 있다.

신라 중 의상(義相)이 지은 것이다. 대웅전 위에 전단관음상(梅檀觀音像) 하나를 봉안하고 대를 이어 높이 받들었는데, 영험이 있었다. 우리 세조(世祖)가 이 절에 행차하였다가, 전사(殿舍)가 비좁고 누추하다 하여 신축하도록 명하여, 매우 굉장하여졌다.

고려 중 익장(益莊)의 기문에, “양주(襄州) 동북쪽 강선역 남쪽 동리에 낙산사가 있다. 절 동쪽 두어 마장쯤 되는 큰 바닷가에 굴이 있는데, 높이는 1백 자 가량이고 크기는 곡식 1만 섬을 싣는 배라도 용납할 만하다. 그 밑에는 바닷물이 항상 드나들어서 측량할 수 없는 구멍이 되었는데, 세상에서는 관음대사(觀音大士)가 머물던 곳이라 한다. 굴 앞에서 오십 보쯤 되는 바다 복판에 돌이 있고, 돌 위에는 자리 하나를 펼 만한데 수면에 나왔다 잠겼다 한다. 옛적 신라 의상법사(義相法師)가 친히 불성(佛聖)의 모습을 보고자 하여 돌 위에서 전좌배례(展坐拜禮)하였다. 27일이나 정성스럽게 하였으나 그래도 볼 수 없었으므로,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동해 용왕이 돌 위로 붙들고 나왔다. 대성(大聖)이 곧바로 속에서 팔을 내밀어, 수정염주(水精念珠)를 주면서, ‘내 몸은 직접 볼 수 없다. 다만 굴 위에서 두 대나무가 솟아난 곳에 가면, 그곳이 나의 머리 꼭지 위다. 거기에서 불전(佛殿)을 짓고 상설(像設)을 안배하라.’ 하였으며 용(龍) 또한 여의주와 옥을 바치는 것이었다. 대사는 구슬을 받고 그 말대로 가니 대나무 두 그루가 솟아 있었다. 그곳에다 불전을 창건하고 용이 바친 옥으로써 불상을 만들어서 봉안하였는바, 곧 이절이다.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봄가을에 사자(使者)를 보내 사흘 동안 재를 실시하여 치성하였고, 그 후에는 갑령(甲令) 항상 하는 일에 적어서 항규(恒規)로 하였다. 그리고 수정염주와 여의주는 이 절에 보관해 두어 보물로써 전하게 하였다. 계축년에, 원(元) 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왔으므로 이 주(州)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 방어하였다. 성이 함락되자, 절의 종[奴]이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땅에 묻고 도망하여 조정에 고하였다. 침입군이 물러간 후에 사람을 보내 가져다가 내전(內殿)에 간수하였다. 세상에 전해 오기로는, ‘사람이 굴 앞에 와서 지성으로 배례하면 청조(靑鳥)가 나타난



다.’ 하였다. 명종(明宗) 정사년에, 유자량(庾資諒)이 병마사가 되어 시월에 굴 앞에 와서 분향 배례하였더니, 청조가 꽃을 물고 날아와서 복두(幘頭) 위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서는 드물게 있는 일이라 한다.” 하였다.

고려 유자량의 시에, “바다 벼랑 지극히 높은 곳, 그 가운데 낙가봉(洛迦峯)이 있다. 큰 성인은 머물러도 머문 것이 아니고, 넓은 문은 봉해도 봉한 것이 아니다. 명주(明珠)는 내가 욕심내는 것 아니며, 청조는 이 사람이 만나는 것일세. 다만 원하노니 큰 물결 위에서, 친히 만월 같은 모습 비옵는 것을.” 하였다.

○ 안축의 시에, “대성의 원통(圓通)한 지경은, 일찍이 바다 위 봉우리라 들었네. 불은(佛恩)은 감로와 같이 젖고, 향은 자니(紫泥)로 봉한 것이 있다. 유(類)에 따라서 몸은 항상 나타났으나, 미혹에 잠겨서 눈으로 만나지 못한 것일세. 참인가 거짓인가는 말할 것 없고, 다만 자애로운 모습에 배례할 뿐일세.” 하였다.

김부의(金富儀)의 시에, “한번 해안 높은 곳에 등립하고서는, 머리를 돌리니 티끌 근심 없어졌노라. 대성의 원통한 이치를 알고자 하면, 성낸 물결이 산 밑에 부딪치는 소리를 들을 것일세.” 하였다.

김극기의 시에, “다행히 묘경(妙境)을 찾아 떠돌던 몸을 머무르니, 생각이 맑아지고 보는 것이 그윽하여 만 가지 상념(想念)이 없어진다. 물결 밑의 달은 누가 위아래를 분간하리, 봉우리 끝 구름은 저절로 서동(西東)을 차지한다. 금당(金堂) 속 가짜 상을 잠깐 보았을 제, 석굴(石窟) 속 참 몸을 벌써 보았노라. 대사를 도와 7일 재계(齋戒)함을 기다리지 않아도, 그의 마음은 원에 응해 먼저 통했으리라.” 하였다.  
관음굴(觀音窟) 오봉산 밑에 있다.

우리 익조(翼祖)께서 정숙왕후(貞淑王后)와 함께 여기에 와서 후사를 점지하도록 기원하였다. 어느 날 밤 꿈에, 가사(袈裟)를 걸친 중이 와서 알리기를,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름은 선래(善來)다.” 하였다. 얼마를 지나서 도조(度祖)를 낳으므로 드디어 선래라 이름 하였다.

영혈사(靈穴寺)·사옹사(四擁寺) 모두 설악산에 있다. 도적사(道寂寺) 정족산에 있다.

사묘. 사직단 부 서쪽에 있다. 문묘 향교에 있다. 성황사 성안에 있다. 동해신사(東海神祠) 부 동쪽에 있다. 봄가을 나라에서 향축을 보내 치제한다. 여단 부 북쪽에 있다.

고적. 권금성(權金城) 설악산 꼭대기에 있으며 석축이다. 둘레는 1천 1백 12척이고 높이

는 4척이었는데, 지금은 반쯤 무너졌다. 세상에 전해 오기로는, “예전에 권씨 김씨 두 집이 여기에 피란한 까닭으로 이름하였다.” 한다. 낙산사 기문에, “원 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왔는데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서 방어하였다.” 한 곳이 이곳인 듯하다.

냉천(冷泉) 오봉산 밑에 있다. 세상에 전해 오는 말에, “관음보살이 계집으로 화해서 벼를 베고 있었는데, 원효대사(元曉大師)가 냉천 물을 마시면서 함께 장난을 하였다.” 한다.

정추의 시에, “바닷가 산이 밝은 세상 되기 전부터 왔는데, 금년까지 몇 번이나 흥망을 보았다. 가을빛이 온 들에 젖어 붉은 벼가 수북하고, 해가 오봉산에 비쳐서 붉은 연기 오른다. 덕녀(德女)의 옛터엔 잔디가 섬돌을 덮었고, 원효의 남긴 자리에는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 누에 올라 상사(相思) 꿈을 맺고자 한다면, 꿈속에도 응당 냉천을 잔질하리라.” 하였다.

오색역(五色驛) 부 서쪽 45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新增東國輿地勝覽』



## 연려실기술

○ 비(妃) 경순왕후(敬順王后) 박씨는 본관이 문주(文州)이고, 원조(元朝)의 천호(千戶)이며, 본조의 증 문하시중(贈門下侍中) 안변부원군(安邊府院君) 광(光) 박씨 족보에는 이름을 한보(韓甫)라 하였다. 의 딸이다. □□ 7월 23일에 승하하였다. 태조가 경비(敬妃)로 추존하였으며, 태종이 경순(敬順)의 시호를 더 올렸다. 능은 순릉(純陵)함흥 동쪽 동명사(東溟社)에 있으니 임좌병향(壬坐丙向)이다. 표석이 있다. 이다. 익조가 최비(崔妃)와 더불어 낙산 관음사(洛山觀音寺)에서 기도하여 도조(度祖)를 낳았다. 어릴 때 이름은 선래(善來)요, 몽고 이름으로는 학안테물(學顏帖木兒)이었다.

『練藜室記述』

○ 9년 신미 2월에 강릉부(江陵府)의 집경전(集慶殿)에 불이 나서 태조의 어용(御容) 임금의 영정이 불에 탔다. 『각전전고』(各殿典故)에 상세하다. ○ 집경전 화재가 나기 전에 강릉부 경내에 공중에서 천화(天火)가 떨어져 매우 멀리까지 불이 번지더니, 오래되지 않아서 집경전에 화재가 있었다. 또 오래되지 않아서 양양(襄陽) 낙산사(洛山寺)에 화재가 있어 10여 리 안의 인가가 연소되었는데 이것도 천화라고 한다.

『練藜室記述』



## 조선실록

○ 양양부의 바다 속에서 돌 두개가 나와 의상대 아래에 가로 놓다  
강원도 관찰사 박동량(朴東亮)이 치계하였다.

“양양부(襄陽府)에 돌 두 개가 바다속에서 나와 의상대(義湘臺) 아래에 가로 누워 있습니다. 전에는 해변에 노출된 돌이 푸르기도 하고 검기도 하며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돌은 백분(白粉)을 바른 것 같이 그 색이 유난히 달랐습니다. 춘천(春川) 동면(東面)에 사는 백성이 우연히 들에 나갔다가 암퇘을 잡았는데 머리와 가슴·날개·꼬리의 깃털이 태반이 변형되어 수렁이 되었습니다. 변이(變異)가 비상합니다.”  
『宣祖實錄』 선조 36년 계묘(1603) 3월 20일(병자)





2부  
문학 속의 낙산사



## 2부

# 문학 속의 낙산사



윤휴

○ 『풍악록(楓岳錄)』

백호(白湖)

윤휴(尹鑣)<sup>45)</sup>

1672(임자) 윤7월 24일(정유) 맑음. 아침에 배와 대추 등 과일을 사당에다 차려놓고 풍악(楓岳)으로 다녀오겠다는 뜻을 고하였다. 그리고 출발하여 통제사(統制使) 외숙 댁에 도착하였다.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주역』 두 권과 일기책 한 권뿐이다. 일행들의 필요한 여행 도구를 모두 외삼촌이 챙기셨다. 부평 사는 외숙도 오셔서 나더러 멀리 가서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타일렀다. 통제 외숙과 함께 출발하여 동소문 밖에 나가 누원(樓院)에서

45) 윤휴(1617, 광해군9~1680, 숙종6)의 본관 남원(南原)이고, 자는 희중(希仲), 호는 백호(白湖)·하현(夏軒)이고, 초명은 정(鎭)이었으나 후에 휴로 고쳤다. 부친은 광해군 때 대사헌을 지낸 효전(孝全)이며, 2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자랐다.

이수광(李睟光)의 아들인 이민구(李敏求)와 이원익(李元翼)에게서 배웠다. 1672년(현종13) 7월 56세에 금강산으로 유람을 가며 낙산사에 들러 빈일료(賓日寮)에 나가 일출광경을 보고, 최간이(崔簡易)가 읊었다는 운(韻)자를 들었는데 운자만 있고 시는 없어 그 운자에 차운하여 써 주고, 또 벽상에 걸려 있는 홍녹문(洪鹿門)·정동명(鄭東溟) 운에도 차운하여 시를 썼다.

1660년(현종1) 효종에 대한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를 송시열 등 서인이 기년복(基年服)으로 정하여 시행하자, 삼년상을 지내자는 참취설(斬衰說)을 들어 이를 반대했다.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계와 맞섰으며, 이로 인해 서인계로부터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규탄 받았다.

1675년(숙종 1) 효종 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상을 당하여 다시 일어난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여 집권하자 성균관사업(成均館司業)으로 조정에 나아갔다. 허목(許穆)과 함께 청남을 이끌며 활동했다. 이해 승정원동부승지·이조참의·대사헌·성균관좌주 등을 두루 거쳐 이조판서를 역임 하였다. 이후 대사헌·좌참찬·우참찬·형조판서·우참성 등을 역임하였다.

1680년 영의정 허적(許積)의 아들 허견(許堅)이 복선군(福善君)을 추대하려는 역모에 관여했다고 하여 갑산(甲山)으로 유배되었다가 같은 해 5월에 처형당했다.

말에 먹이면서 지나가는 스님 덕명(德明)을 만났다.

그 스님은 일찍이 풍악산 유람을 하여 우리에게 대충 풍악의 뛰어난 경치를 말해주었다. 늦어서야 양주읍(楊州邑)에 도착하여 외숙은 양주 목사를 찾아가고 나는 민가에 있었는데, 양주 목사 이원정(李元禎)이 찾아와서 간단한 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유여거(柳汝居-이름은 光善)도 따라왔다.

유군은 원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외숙을 통해 죄중에서 서로 인사를 나눈 사이였다. 그 민가에 벼룩이 많아 잠자리를 고을 서당(序堂)으로 옮겼는데 고을 주수의 아들인 정자(正字) 이담명(李聃命)이 찾아왔고 고을 아전(州佐) 우(禹)와 한(韓) 두 사람도 왔다. 날씨가 매우 더웠다.

25일(무술) 맑음. 양주 목사 부자(父子)가 또 찾았다. 아침에 출발하여 무성(蕪城) 고개를 넘어 감악산(紺嶽山)을 바라보며 가면서 유군(柳君)과 함께 홍복(弘福)·고령(高靈)·도봉(道峯)·불암(佛巖) 등지를 가리키기도 했다.

입암(笠巖) 울정(栗亭) 아래서 말에 풀을 먹인 후 일행과는 일단 갈라섰다. 나는 송형 석우 계신(宋兄錫祐季慎)이 살던 곳을 묻고 송군 옥(宋君澳)의 초당에 들렀더니 매화나무, 대나무는 옛날 그대로이고 벽에는 내가 몇 해 전에 써 준 기문(記文)과 허장 미수(許丈眉叟)가 쓰신 기(記)가 걸려 있어 읽어보니 지난날의 회포가 일어 눈물이 글썽했다.

송군 제(宋君濟) 부자를 다 조문하고 일행을 뒤쫓아 간파령(干波嶺) 아래서 만났다. 차근연(差斤淵)을 건너서는 유군과 서로 다른 길로 갈라서 가다가 저물어 신릉(新陵) 정극가(鄭克家) 산장에 당도하여 함께 잤는데, 자해(紫蟹) 홍주(紅酒)를 마시며 서로 흔쾌하게 보냈다.

26일(기해) 맑음. 정극가와 출발은 함께 했으나 길이 달랐다. 나는 진수동(眞樹洞)으로 참봉 이언무 자는 경운(景允)을 찾아가서 그의 세 아들 태양(泰陽)·태징(泰徵)·태룡(泰隆)과 윤세필(尹生世弼)을 만났다.

윤생은 이 참봉의 이모 아들로 우리 남원(南原) 윤씨라고 하였다. 이생 태양이 나를 따라왔다. 군영동(群英洞)에 이르러 허미수(許眉叟) 어른을 뵈었는데 일행들은 먼저 와 있었고, 미수 어른을 배알하는 자리에서 허함(許生)·송직(宋生濩)·정태악(鄭生泰岳)을 만났다.

미수 어른은 서실로 나가고 그들과 함께 은행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는데 초가집에 온갖 화초가 그윽한 정취를 풍겼다.

미수 어른이 두류산(頭流山)·오대산(五臺山)·태백산(太白山) 등의 기록과 허암 정희량에 대한 글과 아들이 부친의 상복을 대신하여 입은 것에 대한 편지글 등을 보여주었다. 나는 일찍이 지은 선계설(禪繼說)로 답하였다.

또 짐 꾸러미에서 술과 과일을 내놓아 몇 순배 대작한 후 섬돌 위에 있는 일월석(日月石)을 구경하였다. 옛날에 석경(石鏡)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해와 달 그림자가 석면에 흰히 비쳤으며 미수 어른이 손수 그 세 글자를 조각했다고 한다.

이야기 도중 길을 떠나는 정표로 글을 지어달라고 청했더니 쾌히 허락하고 또 전서(篆書)로 광풍제월(光風霽月) 낙천안토(樂天安土) 수명안분(受命安分) 이렇게 열두 자를 써 주어 유균과 나눴는데 유균은 수명(受命) 이하 네 글자를 차지했다. 늦어서야 하직하고 출발하였다. -중략-

이 날 어부가 금방 잡아온 생전복과 대구(大口)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전복은 회치고 대구는 삶아 먹었다. 또 막걸리까지 사다가 즐기었다. 달 놀이를 마치고 정사(亭舍)로 돌아와 묵었다.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아침 햇살에 먼지 한 점 없더니	旭日氛埃滅
가을바람에 큰 파도 일어	秋風大海波
다시 태산이라도 오르는 기분으로	還將登岱興
다시 달빛 아래 뗏목에 올랐었지	更上月邊槎

유광선과 정극기에게 말해주며 화답하라고 하였다. 양양(襄陽) 부사가 관인(官人)을 시켜 우리 일행을 탐문하였다.

13일(을묘), 새벽에 일어나 일출 광경을 보려는데 구름이 가리고 있었으나 구름과 해가 서로 엇갈리면서 바람에 황금빛이 비추니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있는 것 같아 보기에 매우 좋았다. 길 중간에 언덕이 하나 보였는데 황죽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대의 크기는 모두 화살 감이었으며 바다 속의 섬들도 모두 푸르른 황죽 숲이었다.

노포(蘆浦)에 와서 호수가 터져 건널 수가 없어 뱃사공으로 하여금 바다의 배를 끌어다가 건넜다.

내가 보기에 동해에 있는 배들은 통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것이 마치 말구유 모양이고 몸통도 매우 적은데 그래야 배가 파도를 잘 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날은 큰 배 한 척을 보았는데 모양이 서해(西海)에서 부리는 배 같았고 모래 위에 정지해 있었다.

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더니 그들 말이 동해에는 그렇게 생긴 배가 없고 지난 큰 흉년 때 영남(嶺南) 백성들이 살 길이 없자, 그 배로 고기 잡고 해초라도 캐기 위해 파도를 무릅쓰고 동해로 들어왔던 것인데, 그들은 동해에서 고기잡이를 하여 생활을 꾸려가자는 속셈이었다. 파도에도 역시 별 걱정이 없었다고 하였다.

내 그들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동해의 작은 배들은 그것이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들 쓰기에 편리하게 만든 것이지만 저 큰 파도는 큰 배가 아니고서는 건널 수



가 없다.

나라에서 동해에는 파도가 거세지 않다 하여 관(官)의 힘으로 큰 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해에는 큰 배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지금 지난 흉년 때 들어왔다는 저 배를 놓고 보더라도 동해·서해를 배로 통행할 수 있음을 알지 않겠는가.

그날은 또 염막(鹽幕)을 지나다가 소금 굽는 방법을 들어가서 보았는데 바닷물을 달여서 소금을 만드는 것이 우선 서해와 다르고 소금 맛도 너무 써서 음식을 만들면 달고 맛있는 서해 소금보다 훨씬 못하였다. 서해안의 소금 만드는 방법을 동해안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은 또 따뜻한 날씨에 동남풍이 불어 바닷물이 잔잔한데 가끔 고래가 나와 노는 모습이 보였다. 큰 새처럼 생긴 몸집이 새까맣고 물을 뿜어대면 눈발 같았으며 소리는 소 울음소리 같았다. 어부들의 말에 의하면 바닷고기로는 고래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또 황수차(黃水差)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 서로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고래가 죽는다는 것이다. 그 황수차는 꼭 떼를 지어 다니다가 만약 고래를 만나게 되면 수컷 하나가 지휘자로 뒤에 딱 버티고 서서 그 무리들로 하여금 번갈아서 나가게 하여 꼭 죽여 놓고야 만다는 것이다.

만물이 다 종류별로 서로 제어를 하고 또 싸우는 기술까지 갖고 있다니 그 역시 자연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그로부터 20여 리를 더 가 건봉(乾鳳) 하류를 건너 낙산(洛山)을 바라보고 달리다가 산등성으로 올라 얼마를 더 가서 절 문간에 들어서니 스님들이 견여를 메고 나와 맞이했다.

견여를 물리치고 걸어서 이화정(梨花亭)에 올라 앉아 있었다. 정자는 절 문간 밖에 있었는데, 그 절의 문정(門庭)이나 헌각(軒閣)이 웅장하여 바로 하나의 큰 아문(衙門)이었다. 절은 설악산을 등진 채 동해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지세가 편평하며 넓고 건물도 탁 트여 넓었다. 당(堂)에 올라 보니, 금벽(金碧) 장식이나 용마루 등의 높이는 비록 장안사·유점사 등만 못해도 대문과 담의 꾸밈새나 전망이 좋기는 그 두 절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다.

양양 태수 이대옥(李大玉)이 온다는 시간에 오지 못하고 한참을 기다린 뒤에 와서 우리들이 옛날 산당(山堂)에서 있었던 일처럼 스님들로 하여금 북을 울리게 하여 그가 시간에 오지 못한 것을 장난삼아 책하고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앉아 있는데 대옥이 술과 안주를 차려가지고 와 함께 마시며 즐겼다.

얘기 도중 극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성 태수(高城太守)는 이 좋은 풍경 속에 앉아 있으면서, 천리 멀리 구경 나온 서울의 사우(士友)들을 만났는데도 서로 위로하는 술 한 잔도 없으니 그 어디 풍류 있는 태수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 일은 배울 일이 아닙니다.” 하자, 외삼촌이 말씀하기를 “고성 태수는 천성이 원래 깔끔해서 애당초 그 생각을 않은

것뿐이지 정의가 박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네.”하였다.

내가 뒤이어 말하기를, “자신이 깔끔하기 때문에 남을 대우하는 것도 냉랭하게 하는 것이 물론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주식(酒食)에 빠져 그칠 줄 모르는 자에 비한다면 훨씬 더 고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이라야 술 속의 취미도 알아서 사람을 운치 있게 대우하는 것이지,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야 마치 기와 조각을 물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언제나 편안하고 차분할 때가 없는 것인데 남이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또 그런 분과 어떻게 호산(湖山)의 승경을 논할 만하겠습니까?”하였다.

그때 좌중에 술을 마시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다. 서로 한바탕 웃고 나서 다시 한잔씩 들고는 밤이 깊어 파하고 함께 선당(禪堂)에서 잤다.

내가 시 한 수를 읊어 대옥에게 주니 대옥도 화답하였다.

구름 드리운 설악은 삼천 길이요  
달 솟는 동해는 구만 길이로다  
오늘 이화정에서 가진 모임에  
아양곡 한가락은 벗의 마음이구나.

雲垂雪嶽三千丈  
月湧東溟九萬尋  
今日梨花亭上會  
峩洋一曲故人心

이상은 내 시인데, 그날따라 하늘이 비가 내릴 듯 설악산 절반을 구름이 가리고 있었고 달이 중천에 오르자 비로소 빛이 있었다. 또 좌중에는 현금(玄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기에 시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대옥의 화답시는 다음과 같다.

홀로 높은 대에 올라 신선세계를 바라보나  
봉래섬 아득하여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거문고에 실어보는 아양곡 한 가락에  
두 사람 마주 앉은 백년의 마음이네

獨上高臺望仙子  
蓬島微茫何處尋  
惟有峩洋琴一曲  
兩人相對百年心

했고, 또 읊기를,

동쪽 바다 저 멀리 이화정에  
술을 들고 오르자 흥이 절로 나네  
누가 그리 말했던가 낙양의 탐승객이  
한때는 수운향을 너무 좋아했노라고

梨花亭迴海東傍  
杯酒登臨引興長  
誰道洛陽探勝客  
一時青眼水雲鄉

하고서 나에게 화답을 구했으나 나는 술에 취해 자느라고 화답하지 못하였고 유군만이 화답하였다. 그날 밤 내 잠자리에는 기생들이 곁에 있었다. 내가 좌중의 여러 사람들에

게 말하였다.

“꽃과 버들은 봄빛과는 잘 어울리는 것이어서 풍류로는 그만이지만 초나라 군대가 한왕(漢王)을 겹겹으로 에워싸는 날이면 빠져 나올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일을 어찌지?”

했더니, 대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기고 지고는 내 하기에 달린 것인데 가까이 하면 어떤가.”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한 나라 군대가 사면에서 모두 초가를 부르다가 그들이 요란스럽게 장막 아래까지 다가오면 그때는 포위망을 뚫고 남쪽으로 가려 해도 안 될 것이니 내 아주 자리를 걷어가지고 피하고 싶네.”하자, 모두들 웃으면서, 싸움을 해 보지도 않고 미리 도망치는 것은 속이 부족한 탓이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그것은 제군들이 안 보았을 뿐이지 병법(兵法)에 있는 말일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예 패배하지 않을 위치를 택하는 법이야.”

하고, 드디어 그 자리를 떴더니 유군 하는 말이,

“그대야말로 성문을 굳게 닫고 철저히 지키는 자로다.”

하였다. 외삼촌이 하신 말씀이,

“내가 자리를 바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겠다.”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께서는 노장이어서 모든 일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패배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서 서로 농을 하며 한바탕 웃었다. 이어 외삼촌이 말씀하기를,

“옛날 개서막(開西幕)에 부임해 있을 때 명나라 사신 뇌유령(雷有寧)이 바다를 통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일이 오래 지나도 오지 않아 원접사(遠接使) 이하 여러 명승들이 모두 모여 20여 일간이나 머무르고 있었지. 그때 원접사는 김신국(金薰國)이었고, 구봉서(具鳳瑞)·정태화(鄭太和)가 종사관(從事官)이었는데 감사(監司) 장신(張紳), 병사(兵使) 유림(柳琳)이 좌음(佐飲)을 위해 남북의 기생들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각기 20여 명의 예쁜 여인들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너도나도 못하는 짓이 없이 별짓을 다했는데, 그 중에는 처음에는 돌아본 체도 아니 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다가도 결국에는 별 수 없이 한통속이 된 사람도 있다. 그때 조경(趙綱)이 문례관(問禮官)으로 함께 있었는데 그가 평소 청고(淸苦)하다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공들이 그의 지조를 시험해 보려고 그 중에서 예쁜 여인을 골라 조공을 꼭 품안에다 넣도록 당부했는데, 조공은 처음부터 난색 하나 보이지 않고 그와 함께 기거하며 날마다 앞에다 두고 부리는 등 모든 행동을 함께 하면서도 끝까지 지킬 것을 지켰기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 늙은이의 지조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했다. 그 말끝에 일행 모두가 말하기를,

“그 늙은이를 혹 경멸하고 헐뜯는 자도 있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에 비해 훨씬 단계가 높은 분이지요.”하였다.

14일(병진) 새벽에 빈일료(賓日寮)에 나가 일출광경을 보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하늘에 비가 올 징후가 있어 붉은 노을이 남북을 통해 하늘에 질펀하였고 만경장과 같은 구름 물결이 끝도 없이 하늘을 띄워 보내고 해를 목욕 시킬듯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이 하늘 밖에 나가 놀게 만들었다. 조금 후 하늘은 금방 변하여 새벽빛이 다시 짙고 하늘 끝도 희미했다. 태양은 비록 뜬구름에 가려 있었지만 구름이 변화하는 태도라든지 별스럽게 자꾸 바뀌는 모양은 보기에 이채로웠다. 그날은 기일(忌日)이었기에 혼자 빈일료에 앉아서 재계하였다. 늙은 스님 비경(秘瓊)이라는 자를 불러 함께 얘기하다가 최간이(崔簡易)가 읊었다는 운(韻)자를 들었는데 운자만 있고 시는 없었다. 그 운자에 차운하여 써 주고, 또 벽상에 걸려 있는 홍녹문(洪鹿門)·정동명(鄭東溟) 운에도 차운하였다.

낙산사는 동해의 동쪽에 있어  
부상에서 해가 뜨면 온 하늘이 붉어지고  
절간의 맑은 새벽에 향 피우고 앉았으니  
상서로운 보랏빛 구름 기운 속에 있는 듯하네

洛寺寺臨東海東  
扶桑日出滿天紅  
上方清曉燒香坐  
身在祥雲紫氣中

위의 시는 간의의 운에 차운한 것이다.

설악산 동쪽 바다 낙가정에서  
붉은 해가 푸른 하늘로 오르는 걸 보았네  
바다와 산이 다한 곳에 이름난 고장 있어  
육경에 뛰어난 호걸스런 사람 같네

雪嶽東溟洛伽亭  
直窺紅日上青冥  
海山窮處名區在  
却似人豪出六經

위의 시는 동명의 운에 차운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차운하였다.

우주 개벽 어느 때에 열렸나  
이 절은 신라 시대에 지었다네  
새는 구름 저 멀리로 사라지고  
돛단배 저 하늘 밖에서 오네  
바람 일자 파도는 태양을 흔들고  
늦가을 객은 대에 오르네  
바다 삼 천 리를 돌아보니  
이 정자가 참으로 장쾌하구나

宇宙幾時闢  
禪宮羅代開  
鳥向雲邊滅  
飄從天外來  
風生波盪日  
秋晚客登臺  
遵海三千里  
茲亭實快哉

또 한 수는 다음과 같다.

위치는 산하 좋은 곳 차지  
창은 바다 쪽으로 향해 있네  
하늘 밖에서 흰구름 일고  
붉은 해가 밤중만 온다오  
바람은 금선굴 흔들고  
파도는 의상대를 절구질하네  
동쪽 가 살고픈 뜻이야 있지만  
나를 따를 자가 누구인가

地占山河勝  
窓臨溟海開  
白雲天外起  
紅日夜中來  
風撼金仙窟  
波舂義相臺  
居夷夙有意  
從我其誰哉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차운하였다. 정동명의 원운(元韻)은, ‘임지로 가는 유열경(柳悅卿)을 보내며’이다.

바닷가 정자에 나무마다 배꽃이 만발하고  
낙산의 바다는 아득하구나  
관청에 일이 없어 종일토록 한가하니  
모름지기 낙산에서 대제경이나 읽으리라

萬樹梨花海上亭  
洛山邊海海冥冥  
訟庭竟日間無事  
須讀扶桑大帝經

하였고, 홍녹문의 원운은, ‘낙산사에서 노두(老杜)의 운으로’인데,

이곳이 용왕의 집자리인가  
어느 해에 절이 열었는가  
하늘은 푸른 바다에 떠가고  
산은 백두산에서 왔다네  
가을 풍경을 실컷 보고  
석대에 올라 쉬었네  
여기에 올라 세월의 무상함을  
생각하니 이런 일 저런 일 끝이 없어라

地卽龍王宅  
何年梵宇開  
天浮青海去  
山自白頭來  
縱目觀秋色  
扶筇倚石臺  
登臨撫今古  
俯仰恩悠哉

했으며, 손홍우 희(孫洪宇熙)는 차운하기를,

창파가 아득하여 끝이 없는데  
천지는 언제쯤 개벽되었던가

滄波杳無際  
天地幾時開

옛 절엔 가을빛이 다해가는데  
 모래밭으로 물새들이 오는구나  
 시 읊조리며 옛일 더듬어도 보고  
 먼 곳 바라보며 누대에 앉았네  
 황학이 한번 날아가니  
 흰 구름이 왜 그리도 먼가

古寺秋光盡  
 明沙海鳥來  
 吟詩憶舊迹  
 騁眺坐寒臺  
 黃鶴一飛去  
 白雲何遠哉

하였다. 그리고 그 날 비경이 최간이가 시 두 수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 하나는,

옛날 누대에서 일출을 바라보면 기이하다고 들었는데  
 달은 한가위 해마다 기간이구나  
 이 날 이 때 장맛비를 만나니  
 하늘이 날 영동에서 시 쓰라고 잡아 두었네

樓觀海日昔聞奇  
 月得中秋一歲期  
 此日此時逢久雨  
 天公停我嶺東詩

라고 읊었다. 이 시는 낙산(洛山)을 읊은 것이고, 또 십칠조(十七朝)라는 시는 이렇다.

높고 높은 하늘 달이 진 후 동쪽에서  
 갑자기 만경창파가 붉게붉게 끓더니  
 굽틀굽틀 온갖 괴물들은 모두 다 어디가고  
 채색 구름 속에서 붉은 해가 솟아 오르네

玉宇迢迢落月東  
 波萬頃忽翻紅紅  
 蜿蜿百怪皆如畫  
 擎出金輪彩霧中

이상의 시들은 최공(崔公)이 간성 유수로 있을 때 판각해서 달아 두었던 것으로 언젠가 화재로 그 현판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는데, 어느 선비 집에 남아 있던 이 시를 비경이 나에게 보여 주기 위해 베껴 온 것이다. 그리고 또 정수몽(鄭守夢)이 유수로 있으면서 비경에게 준 사운시(四韻詩)도 읊기에 그럴 만하여 역시 베끼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좌중에다 말하기를,

“선배들은 별것 아닌 이 시 한 수까지도 그렇게 관심들을 가졌었는데 어찌해서 지금 후배들은 그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도 없는지 모르겠어.”

하였다.

정수몽의 시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적을 수가 없으니, 일행들에게 다시 물어 보아야겠다. 그 중의 시축에는 요즘 여러 사람들 시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었다.

15일(정사) 흐림. 가랑비가 싸늘하게 뿌리다가 그쳤다. 기신(忌辰)이라 좌재(坐齋)하면서 《주역》을 읽었고 부리(府吏)를 시켜 일록(日錄)을 베끼게 하였다. 또 어제 유군을 통

해 늘승(訥僧)에게서 얻은 향언지로가(鄉言指路歌)는 퇴계(退溪)가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내용을 볼 때 학문에 조예가 없이는 지을 수 없는 내용으로 역시 후일 아이들의 영가(詠歌) 자료로 삼기 위해 베껴 두게 하였다.

영덕 현령(盈德縣令) 심철(沈轍)이 지나다가 절에 들러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는 고 판서(判書) 집(諱)의 손자이고, 사간(司諫) 동구(東龜)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날 또 두 군을 통해 김 장군 응하(金將軍應河)의 애사(哀詞) 두 편을 들었는데, 둘 다 읊을 만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억할 수가 없어서 추후 기록하기로 하겠다. 말이 난 김에 명(明) 나라 희종(熹宗)이 김응하를 포증(褒贈)한 일에 관해 말을 해야겠기에 내가 두 군들에게, 당시 명 나라에서 포증할 때 천자로부터 조서(詔書)가 있었는데 그 조서를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보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명문이 아니냐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건 그렇지 않다. 나도 그 조서를 읽어 보았지만 누가 초안한 것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천자가 자칭 과인(寡人)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김군(金君)을 수양(睢陽)의 장순(張巡), 승상(丞相) 문천상(文天祥)에게 비유하여 말하기를, ‘장순(張巡)·허원(許遠)이 죽지 않았더라면 당(唐) 나라 왕실에 신하가 없는 폭이고, 문천상이 죽지 않았더라면 송(宋) 나라 왕실에 신하가 없는 폭이며, 장군이 죽지 않았던들 과인의 나라에 신하 없는 폭이 되었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뜻이 전도되고 사체(事體)를 모르는 정도가 심하였다. 또 문장의 표현 방법까지 서툴고 꺾끄러워 마치 고문(古文)을 흉내 내 보고자 하였으나 문장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남의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천자 나라에서 외국 신하를 포증하려면 조서를 만들 때도 반드시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해야 할 것인데, 지어 놓은 글이 그 모양인 것을 보면 나라가 망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만하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내 언젠가 또 승정(崇禎) 연간에 황 감군(黃監軍)이 나왔을 때 그가 읊었다는 시를 보았는데, 내용이 말도 못하게 거칠고 추하고 졸렬한데도 그 자신은 그것마저도 모르는 지라 장계곡(張谿谷)이 그의 작품을 써 놓고 비웃었다는 것이다. 듣기에 그 황은 진사(進士) 출신으로 조정에 오른 이후 우리나라를 왕래할 정도였으니 역시 한때 쟁쟁한 인물이었을 것인데도 그 모양이니 인재가 쇠할 대로 쇠해 세상이 오래 못 가리라는 징조인 것이다. 문장(文章)이라는 것이 비록 별것은 아니로대 한 시대의 성쇠가 거기에도 그렇게 반영되는 것이다. 아, 후세 사람들이 지금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옛날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못 할런지 어떻게 알겠는가.

16일(무오) 새벽에 일어나 창을 밀치고 일출 광경을 보았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바다도 활짝 개어 동쪽이 밝기도 전에 서광(瑞光)이 만 길이나 치솟고 있었

고 못별들은 이미 드문드문해져 함께 빛을 겨룰 만한 것이 없었다. 처음에는 하늘가에 갑자기 구름 같은 것이 띄엄띄엄 생기면서 가릴 듯이 하더니 막상 붉은 기운이 점점 무르익자 그것들은 녹은 듯이 없어지고 다만 금물결이 만 리나 뻗어 하늘과 물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것과 같은 것만 보였다. 그것은 화륜(火輪)을 달구느라고 홍로(洪爐)가 너무 뜨거워 바다 전체가 끓고 있는 것과 같기도 했고, 또 어찌 보면 태양 궤도가 잠겼다 떴다 하면서 뛰어도뛰어도 오르기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잠시 후 태양이 불끈 솟자 위아래에서는 서로 받들고 좌우에는 상서로운 구름 자색 서기가 무수히 깔려 있어 마치 그것들을 타고 올라온 것 같기도 했다. 이에 해는 등실 등실 떠오르고 그 빛은 아래로 내리쬐어 바다는 바다대로 깊고 넓게만 보이고 하늘은 하늘대로 높고 크게만 보였으며, 상하 사방이 똑같이 밝아지고 삼라만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실로 천지간의 일대 장관이었다. 날마다 기다렸지만 그때마다 뜬구름이 가리더니 오늘에야 비로소 장쾌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밝음 속에도 어딘가 일말의 그 무엇이 살짝 가린 빛을 띠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아마 겸손해야 하고 밝음을 숨겨야 하는 천지조화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뜻이 아닐런지 나로서는 감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어 생각하면 모든 물건의 이치가 각기 종류별로 움직이고 형상에 의해 동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달리 비유하면 마치 군자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소인이 나타나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세상은 항상 드물고 어지러운 세상이 언제나 많은 것과도 같다고 하겠다. 그러나 군자가 참으로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고 그리하여 세상이 치평을 향해 치닫게 되면 저 소인이라는 것들은 풀이 죽어 자취를 감추거나 아니면 과거를 청산하고 이쪽으로 심복해 오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쪽에 병통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말을 따르고 받들면서 우리 쪽의 쓰임이 될 것이다. 문제는 군자 자신이 자기를 소명하고 순수하고 밝은 덕을 길러 음(陰)을 저 땅 밑에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높고 밝은 위치로 부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또 세상을 맡아 다스리는 자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다. 양웅(揚雄)의 『太玄經』에 이르기를,

“태양은 날고 음은 매달려 있으면 만물이 화락하리라.”

하였다. 그를 해설한 자의 말에 의하면, 태양은 군자를 말하고, 매달려 있다는 것은 녹아 없어짐을 뜻하며, 음은 소인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군자의 기가 성하면 못 음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뜻으로 바로 오늘에 필요한 점괘인 것이다.

이 날도 기신이어서 재계하면서 앉아 있었다. 밤에 비는 개고 달은 기망(既望)이어서 바다에 뜨는 달을 또 구경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지 않게 17일이 진짜 보름이어서 그런지 해가 서산에 채 지기도 전에 달이 이미 동천에 솟아 있었고, 막 눈을 들고 보려고 했을 때는 이미 달이 벌써 구름 끝에 나와 있었다. 저녁이 되어 스님 몇 사람과 함께 걸어서 이화정(梨花亭)에 나갔더니 중천에 솟은 달이 바야흐로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그 빛은 바다 밑까지 비치고 있었으며 만경창과는 은물결로 변하여 위아래가 모두 마치 벽유리(碧琉璃)와도 같았다. 이윽고 바람이 해면을 스치자 파도가 넘실대고 달은 그 속을 출몰하니, 마치 삼켰다 뱉었다 당겼다 놓았다 하는 것 같았고, 또 잠시 후 하늘을 보았더니 높고 높은 푸른 하늘에는 외로운 달만이 천천히 옮겨 가고 있었다.

고인이 이른바, ‘사방에 구름 걷히고 은하마저 없는 하늘[纖雲四卷天無河] 일 년 중에 오늘 밤 달이 제일 밝네그려[一年明月今宵多]’ 했던 것이 바로 오늘을 두고 한 말인 듯 했다.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광채는 비록 일출을 볼 때만큼 장엄하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그 맑고 밝고 깨끗한 자태로 태양을 대신해서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천하의 훌륭한 구경거리였다. 천지 음양의 이치가 서로 양보라도 하듯이 하나가 차면 하나는 비는 것으로, 옛 분들이 말했던, ‘백옥반(白玉盤)·요대경(瑤臺鏡)’ 같은 말로는 지금 이 광경을 비교 표현하기에 부족한 바가 있는 것이다. 중 비경 등이, 오늘 밤 달빛은 일 년 중 보기 드문 달빛이라고 한 말에 대해 나도 동감을 하였다. 이미 일출 광경을 보았고 지금 또 중추(中秋)의 밝은 달까지 보았으니 이만하면 이번 걸음은 헛걸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삼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서 두 군들을 불러내어 같이 구경하다가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대고 밤기운이 너무 시원해서 요사(寮舍)로 들어가 『주역』 계사(繫辭)를 중편까지 읽었다. 향을 가져와 피우게 했더니 중이 침향(沈香)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기에, 내가 웃으면서 이르기를,

“그대들은 이름만 취택하고 실물은 취택하지 않는군. 중국에서 말하는 침향이라는 것은 바로 나무 이름인데 남국(南國)에서 나는 나무야. 지금 그대들이 물속의 썩은 나무를 가져다가 부쳐 앞에다 피우면서 그것을 아주 향기로운 것으로 알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에 현혹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하였다. 다시 흑단(黑檀)을 가져와 피우게 하였다. 흑단은 시속 말로는 노가자(盧柯子)라고 하는 것으로 그 향기가 매우 맑았다. 또 중향성(衆香城)에서 얻어 왔다는 도로파(都盧芭)도 피워 보았는데 그것은 향기가 천궁 비슷하면서 역시 정신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내 이어 생각해 보니, 광풍제월(光風霽月)은 주무숙(周茂叔)의 가슴 속을 상징하는 말이고, 서일상운(瑞日祥雲)은 정백순(程伯淳)의 가슴 속을 상징하는 말이며, 태산교악(泰山喬岳)과 해활천고(海闊天高)는 또 주회옹(朱晦翁)의 기상을 그린 것인데, 내 사실 이번 걸음에 그러한 것들을 다 직접 보고 정신적으로 느껴 보았고, 일만 겹의 봉래산과 동해의 구름 물결 그리고 해돋이 때의 눈부신 광채와 휘영청 밝은 가을 달도 내 모두 살펴보고 희롱해 보았다. 게다가 또 하늘까지도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비, 바람, 구름, 먼지 등으로 휘방을 놓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가령 안문(鴈門)의 가을비, 죽포(竹浦)의 거센 파도, 낙산(洛山)의 찬이슬 같은 것은 풍백(風伯)·우사(雨師)가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준 작품들로서 누군가가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이번의 이 기회를 단순히 구경만 했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터득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산요수 그리고 호연지기라는 것과는 상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천 년 전의 고인들을 만나 본 것과는 같을 것이다.

해돋이 구경에 관해서는 나중에 시를 지어 그 일을 적어 둔다.

해 뜰 때 바다의 경치를 바라보니	看看海色候扶桑
떠가는 구름이 하늘을 더럽힐까 두렵구나	常恐浮雲穢太清
눈부신 해가 갑자기 나타나서	忽覩赫曦懸陰處
천 길이나 뻗는 광선 천지사방 다 비추네	千丈毫光六合明

그리고 낙산중추월(洛山中秋月)을 두고는 노소재(盧蘇齋)의 ‘청간정(淸澗亭)’ 운자로 읊었다.

바다에 뜬 달은 가을 들어 더 밝고	海月當秋白
거센 파도는 밤바람에 일어라	鵬濤入夜風
절 방에 외로이 누워 있으니	禪窓孤臥處
뭇 생각이 다 사라지는구나	萬慮落真空

또 읊었다.

맑은 것은 한가위의 달빛이요	霽色中秋月
파도소리 큰 바다 바람이여라	波聲大海風
그 소리 그 빛깔 말고도	須知聲色外
텅 빈 하늘이 또 있다네	更有寂寥空

아침에는 심군철(沈君轍)이 왔다가 갔고, 저녁에는 간성 군수 윤세장(尹世章)이 동해신(東海神) 제사의 예차관(預差官)으로 와서 이 절을 지나다가 여러 사람들과 서로 만나고 또 나를 와서 보았는데, 윤(尹)은 바로 윤 상공 해원(尹相公海原)의 증손이요 윤 판서 이지(履之)의 손자라고 했다. 대옥 역시 동해신 제사 일로 저녁에 떠나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감사(監司)와 도사(都事)가 부(府)에 온다는 말을 듣고 하직을 고하고 떠난 것이다.

낮에 그 곳의 중 몇 사람과 함께 의상대(義相臺)에 올라 관음굴(觀音窟)을 바라보았더니 작은 집 하나가 파도에 의해 무너져 있었다. 대(臺) 위에 앉아 잠시 물결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정(鄭)군과 유(柳)군이 내게로 와 함께 갔다. 그날 사눌(思訥)이라는 중이 영남 태백산에서 와 그 절을 위해 예불(禮佛)을 하고 있었다. 그 중은 방에서 혼자

거처하며 밤 5경이면 일어나서 불전에 향을 올리는데, 낮에도 자지 않고 밥도 하루 한 끼만을 먹으면서 언제나 시간 맞추어 염불을 했다. 내가 데리고 얘기해 보니 그는 선정(禪定)의 설을 듣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자였다. 내가 묻기를,

“노선(老禪)께서 마음 공부를 하신 지가 오래인 모양인데 지금 부동심(不動心)의 경지에까지 갔습니까?”

하자, 그는 그렇다고 하면서 아무리 어지럽고 화사한 성색(聲色)을 듣고 보아도 그것을 안 보았을 때와 똑같이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성색에 대한 생각은 그래도 제어하기가 쉽지만 마음에는 유주상(流注想)이라는 것이 있어 바로 온갖 잡념이 때없이 왕래하는데, 노선께서는 마음 공부를 하여 그러한 것들도 다 제거가 되었습니까?”

하자 그는,

“공부 초기에는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그것이었는데 지금은 온전히 없어졌지요.”

하였다. 공부를 몇 년이나 했느냐고 물었더니,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하였고, 마음에 잡념 하나 일어나지 않고 혼자 흰한 것을 느낄 때가 있느냐고 했더니, 그가 이르기를, “그게 바로 이른바 비치지 않고 있는 거울 같고 파도가 일지 않고 있는 물 같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마음이란 불과 같다고 하는데 불은 다른 물건에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풀에 불거나 혹은 나무에 불거나 또 혹은 다른 물건에 붙어야지 만약 그 물건들이 없다면 그 불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도 그와 같아서 비록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 발동은 없을지라도 잠깐 사이에 얼핏 스치는 생각이 없지는 않은 것인데 그 역시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노선이 말씀하신 이른바, 거울이 비치지 않고 물이 파도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을 무엇으로 증험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가 이르기를,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논리라서 이 노승(老僧)으로서도 잘 알아차릴 수가 없네요.”

하였다.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를,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오. 전인들 화두(話頭)에 얽매이지도 말고 문자(文字)를 가지고 참조 고증할 것도 없고 다만 내 마음에 얻어진 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와서 내게 말하십시오.”

했더니, 그 중이 그러겠다고 하고 떠나갔는데, 밤이 되어 간찰 하나를 부쳐왔다. 거기에 이르기를,

“마음의 허령(虛靈)이라는 것은 아무런 생각도 염려도 없고 형체도 소리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무엇인가를 지각하는 마음은 있는 것이외다.”

하고, 또 시가 있었다.

휘영청 밝은 달은 언제나 그 빛이요  
점점이 푸른 산은 만고의 모습이어라  
그나 내나 유별나게 다른 것이 뭐 있으리  
불전에 분향하며 종을 치는 거라네

明明白月千秋色  
點點青山萬古容  
伊我別無奇特事  
焚香佛前打鳴鍾

또 말하였다.

“마음에 모든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물론 있기는 있으나 다만 그것은 순간이고 지속하기란 매우 어렵다.”

내가 이르기를,

“그대 본 것이 매우 정밀하고 말도 다 좋은 말이오. 나도 시로 답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지금 기좌(忌坐)중이어서 내일로 미루어야겠소.”

했는데, 그 중은 그길로 물러갔다.

17일(기미) 맑음. 나도 재계가 끝났고 대옥도 제소(祭所)에서 돌아왔다. 나더러 동해 신묘비문(東海神廟碑文)을 지으라고 하고 서로 손을 잡고 작별을 고했는데, 그날 모두 한번 실컷 즐기고 싶었으나 마침 관사(官事)가 바빠 부득이 서둘러 돌아가야 했기에 간성 군수 윤군이 행리 속에서 꺼내 온 술과 안주로 몇 순배 돌리고 각기 파했다. 스님 사놀이 나를 보러 왔기에 내가 시로 답하였다.

휘황한 해와 달은 오랜 세월 빛나고  
높고 넓은 산과 강은 만국이 모양이네  
만약에 모든 것이 고요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불전에서 종을 어찌하여 친단말이오

輝煌日月千秋色  
崑蕩山河萬國容  
若道寂然爲究竟  
佛前那用打鳴鍾

스님 사놀은 하직을 고하고 떠났고, 정극가는 강릉(江陵)을 다녀오기 위해 뒤에 머물렀다. 우리 일행이 서로 헤어지려 할 때 중들이 나와 전송하였는데, 모두 작별하기 아쉬워하는 빛을 보였다. 동구 밖을 나와 설악산을 바라보며 15리 남짓 가서 신흥사(神興寺)에 들렀더니 중들이 견여를 가지고 동구 밖까지 환영을 나왔다. 그 절은 설악산 북쪽 기슭에 있는 절로 동쪽을 향해 앉아 있었는데 전각(殿閣)이나 현루(軒樓)가 역시 규모가 큰 사찰 중의 하나였고, 여기에서 바라다 보이는 설악산과 천후산(天吼山)의 깎아지른 봉우리와 가파른 산세는 마치 풍악(楓岳)과 기결함을 겨루기라도 하는 듯했다.

여기에 있는 육행(六行)과 쌍언(雙彦)이라는 스님은 다 얘기 상대가 될 만하여 서울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는 외삼촌을 모시고 유군과 함께

견여로 5, 6리쯤 가 앞 시내의 수석(水石)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그날 대옥이 심부름꾼 한 사람에게 술과 안주를 보내왔기에 편지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또 극가에게 부탁하여 금강산에서 얻었던 소마장(疏麻杖) 하나를 허미수(許眉叟)에게 가져다 드리도록 했는데 그 지팡이는 바로 금강산중이 말하는 산마(山麻)라는 것으로 색은 청록색이고 재질은 옹골지며 매끈하고 가벼워 지팡이 감으로 좋았다. 그런데 그것을 산마라고 하지만 초사(楚辭)에 이른바, ‘소마(疏麻)를 꺾음이며, 백옥같은 꽃이로다’라고 한 그것이 아닌가 싶어 드디어 소마로 명명한 것이다. 그리고 극가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부쳤다.

땡땡한 녹색 옥장을  
저 금강대에서 다듬었지  
그대 통해 노인께 드렸지만  
돌아올 때 풍뢰 조심하게나

銅錫綠玉杖  
斲彼金剛臺  
憑君奉老子  
歸路慎風雷

유군도 대옥에게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극가가 시와 함께 이름을 그 밑에다 적었으나 그 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날 밤 최간이(崔簡易)의 낙산시 운자로 절구 한 수를 읊어 유군에게 주었다.

동쪽 태산 남쪽 형산 나라가 명산이라  
공자도 주자도 마음 같았으리  
그 뉘라서 알았으랴 천 년 후에 이 땅에서  
그 풍경 구경하고 짧은 시를 읊을 줄을

東岱南衡海內奇  
仲尼元晦共心期  
誰知千載東溟外  
無限雲波屬短詩

이렇게 쓰고서 내 말이 “이 시는 표현을 더 다듬어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아 손질을 좀 해 달라는 것이네.” 하였다.

18일(경신) 맑음. 아침에 출발하여 뒤 고개를 넘어 외삼촌을 따라가다가 유군과 뒤떨어져 계조굴(繼祖窟)에 들어갔다. 바위에 나무를 걸쳐 처마를 만들어서 지은 절인데 지키는 중은 없었다. 앞에는 깎아지른 바위 하나가 서 있는데 그 이름이 용바위(龍巖)이고 아래는 활모양으로 된 바위 하나가 반석을 이고 있었다. 그 크기가 집채만 했는데 중 하나가 흔들어도 흔들흔들하여 이른바 흔들바위(動石)라는 것이다. 천후산 중간에 위치하여 남으로는 설악산과 마주하고 동으로는 큰 바다에 임해 있어 역시 한번 구경할 만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 날은 바다가 칙칙해서 멀리 볼 수는 없었다. 그 절 벽상에 기(記)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기를 보니 다음과 같다.

“이 굴은 의상(義相)이 수도하던 곳이다. 동으로 부상(扶桑)을 바라보면 망망한 큰 바다

에 해와 달이 떴다 잠겼다 하고, 남으로 설악을 바라보면 일천 겹 옥 같은 봉우리가 눈 안에 죽 들어온다. 안개 낀 동정호(洞庭湖)의 물결이 제아무리 장관이라 해도 일천 겹 옥 같은 봉우리가 있다고는 들어보지 못했고, 여산(廬山)이 비록 도인(道人)들이 앞다투어 찾는 곳이라지만 역시 만경창파는 없는데, 여기는 그 모두를 다 겸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 승경을 기록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리가 비좁고 암자 모양도 왜소하여 경치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중들 말에 의하면 몇 해 전에는 수계(守戒)하는 중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포악한 자에 의해 죽었다는 것이다. 이는 장주(莊周)가 이른바, ‘안으로 는 수련을 쌓아도 겉은 표범이 먹는다’는 것으로서 이학(異學)의 무리들은 인간과 유리 되고 세상과 동떨어진 일 하기를 좋아하면서 그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그러한 일을 당해 마땅한 것이다.

그 굴 뒤로는 지상에서 몇 천 길 높이로 석부용(石芙蓉)이 치솟아 있는데 서쪽에서 달려온 것으로서 기기교교한 형상의 봉우리가 40여 개나 되었다. 어떤 것은 검극(劍戟) 같고, 어떤 것은 규벽(圭壁) 같고, 어떤 것은 종정(鍾鼎) 같고, 어떤 것은 기고(旗鼓) 같고, 어떤 것은 불꽃이 튀는 모양이고, 어떤 것은 용솟음치는 파도와도 같아 모양이 제 각기 형형색색이고, 중간의 한 봉우리는 구멍이 나 있어 마치 풍악의 혈망봉(穴網峯)처럼 생겼는데, 중의 말에 의하면 그 산을 소금강(小金剛)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리고 언제나 비바람이 있으려면 미리 울기 때문에 천후(天吼)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계조(繼祖)라고 한 것도 아마 이 산의 조산(祖山)이 풍악을 닮았다는 뜻 아니겠는가.

견여를 타고 산에서 내려와 미시령(彌時嶺) 아래 계시는 외삼촌 뒤를 쫓아왔다. 재에 와서 재 아래 있는 여러 고을들을 내려다보며 내가 유군에게 이르기를, “영동(嶺東) 한 구역을 옛날에는 창해군(滄海郡)이라고 불렀다. 장자방(張子房)이 이르기를, ‘동으로 가 창해국 임금을 뵈고 거기에서 역사(力士)를 만나 진시황에게 철퇴를 던지게 됐다.’고 했다 하니, 아마도 그가 여기까지 왔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또 견여를 타고 재를 넘어오는데 재가 높고 험해 걸음마다 마치 사다리와 같은 가파른 바위가 거의 30리나 뻗쳐 있었다. 난천(暖泉) 가에 와서 말을 쉬게 했는데, 이른바 난천이란 겨울에도 얼지 않아 길 가는 사람들이 눈에 막히고 해가 저물면 반드시 거기에서 자고 갔다는 것이다. 연도에는 꽤 아름다운 수석들이 있었으나 이미 풍악과 낙가(洛伽)의 승경을 구경한 우리들 눈에는 별로 들어오는 것이 없었다. 큰 바다나 높은 산을 구경한 자에게는 어지간한 산과 물이 산과 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인(聖人)의 문에서 노는 자에겐 도술(道術)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재 위에 군데군데 옛 성터가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고장성(古長城)인 것으로 금강산·설악산 정상에도 그러한 곳들이 더러 있었다. 우리나라 삼국(三國) 시절에 피란 나온 이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모여 있으면서 서로 버티던 곳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가 3백여 년 태평을 유지하는 동안 성 단속을 하지 않았다가 중간  
의 왜놈 난리에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도망만 치다가 결국 문드러지고  
말았다. 지금도 병진(兵塵)이 일어나지 않은 지 한 세기가 다 되어가고 있으니, 태평 뒤  
에는 비운이 반드시 오는 법이어서 염려가 안 될 수 없다.  
도중에 천후산 흔들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賦)를 지었다.

천후산 앞에 큰 바위 하나 어디에서 떨어져 계조암(繼祖菴) 가에 있을까.  
한 명이 흔들어도 흔들리지만 옮기려면 천 명 가지고도 안 될 바위.  
어찌보면 우(禹)가 구독(九瀆)을 뚫고, 구주(九州)를 개척하고,  
구택(九澤)을 쌓고,  
사경(四逕)의 물길을 낸 다음,  
구주의 쇠붙이를 모아 만들어놓은 술 같기도 하고,  
또 진시황(秦始皇)이 이주(二周)를 삼키고 육왕(六王)을 죽이고 사해(四海)를 통일하고  
오랑캐까지 제어한 다음,  
천하 병기를 모두 녹여 주조한 종(鍾)과 같기도 하다.  
그러나 술이라고 해도 상제(上帝)께 술 한 잔 올릴 수도 없고,  
종이라고 해도 팡팡 울지도 못한다.  
기껏 종들만 이곳을 이용하여 절로 꾸며 두고,  
구경꾼들만 그를 두고 별소리 다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월출산(月出山) 꼭대기에 바위 아홉 개가 있었는데 중화 도사(中華道士)가 서에서 와  
서 그 중 여덟 개를 쳐 없애버렸다고 들었지만,  
나도 두보(杜甫)가 말했듯이 맹사(猛士)의 힘을 빌려 그를 들어다가 저 하늘 밖에다 던  
져버림으로써 사특한 말 편벽한 행동이 판치지 못하게 하고 싶다.  
하지만 한편 천주(天柱)가 부러지고 지유(地維)가 찢어지고 귀신들이 울부짖고 미워하  
면서 갱혈(坑穴) 속에 가만히 있지 못할까 봐서 머뭇거리며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가  
슴을 어루만지며 탄식만 한다.  
장자방을 데리고 창해군(滄海君)을 찾아가서 역사(力士)를 만나 300근 철퇴를 옷소매에  
넣고 있다가 그를 저격하여 혼비백산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구나.  
아, 신력(神力)이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

그날은 남교역(嵐校驛)에서 잤는데 마을 앞에서 한계산(寒溪山)을 바라보니 그다지  
멀지 않고 또 그 골이 깊고 수석도 기괴하다고 들었으나 가는 길목이 아니고 또 우회  
해야 하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다.  
주인의 성명은 함응규(咸應奎)라는 자였는데 우리에게 꼴차를 대접하였다.  
또 문자를 꽤 알고 있었으며 점도 칠 줄 알았다.  
내가 집을 떠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집 안부가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아무 걱정 없다고 하면서 옥녀상봉(玉女相逢)의 점괘가 나왔다고 하였다.

19일(신유)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 안개를 무릅쓰고 일찍 출발하여 인제(麟蹄) 원통역(圓通驛)에 와서 말에게 꼴을 먹였다. 주인 성명은 박윤생(朴潤生)인데 꼴차를 대접했고, 역리(驛吏)들은 술과 과일을 대접했다. 춘천(春川)의 청원(淸源)을 보려고 홍천(洪川) 가는 큰길을 좌로 하고 굽은 시내를 건너 한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과거보기 위해 떼지어 걸어가고 있는 선비들을 길에서 만나 말에서 내려 서로 읊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두 차례나 했다. 시내 하나를 열여섯 차례나 건너 산골의 민가를 찾아 갔는데 아주 궁벽한 곳이었다. 주인의 말이, 자기 나이는 70이고 아들이 셋, 딸이 넷인데 금년 봄에 굶고 병들어 모두 죽었으며 집안 간에 죽은 자들이 30명도 더 되는데 아직 땅에 다 묻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 땅을 버리고 떠돌이로 나서고 싶어도 자기 자신은 그 고을의 토착민이고 아들이 또 어궁졸(御宮卒)이어서 쉽사리 옮겨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의 사정이 불쌍했고 산골짜기의 백성들 생활상이 그렇게도 맵고 고통스러워 장초지탄(長楚之歎)이 없지 않았다. 슬픈 일이었다. 땅은 인제 땅이었고 마을 이름은 가음여리(加陰餘里)였다.

20일(임술) 맑음. 일찍 출발하여 광치(廣峙)를 넘는데, 재가 매우 가파르고 길이 전부 돌 뿐이어서 사람이나 말이나 힘들고 괴롭기가 미시령에 버금갔다. 원화촌(遠花村) 윤동지(尹同知) 옛집에서 조반을 먹었는데 윤생 천민(尹生天民)이라는 자가 술과 과일을 가져와서 대접했다. 재를 넘고 골짜기를 벗어나니 들판이 매우 넓고 민가 수십 호가 여기 저기 살고 있었으며 지붕은 모두 기와로 덮였는데 그 모두가 선비들 집이라고 했다. 윤생의 말에 의하면 윤동지라는 자는 이름은 수(洙)이고 관향은 파평(坡平)인데 그의 증조부가 처음으로 그 곳에 들어와 농사에 주력하여 재산을 이루었고 그 고장에 삼(蔘)이 생산되는데 한 근 한 냥이 아니라 캐면 섬으로 캐기 때문에 가세가 매우 요족하고 곡식도 1만 석을 쌓아 두었다가 병자년 난리에 싸우러 가는 북로군(北路軍)이 모두 그 곳을 지나게 되어 그 군대들 먹을 것을 전부 그가 대었고,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그에게 가선(嘉善)의 품계를 내렸다고 하였다. 난리로 인하여 세상이 그렇게 어지러울 때 자기 사재를 털어 국가의 다급함을 돕는다는 것은 복식(卜式)과 같은 사람인데, 국가에서 그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야 영직(影職)이나 공함(空啣)뿐이니 그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충성을 권장하고 공로에 보답할 것인가. 더구나 그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 자력으로 치부하여 그 고을에서 우뚝하게 솟았고 또 자기의 힘이 많은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였으니 그만하면 재질로나 힘으로나 기릴 만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사람 쓰는 것은 꼭 쓰일 사람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쓰였다고 해서 꼭 쓸 사람도 아니어서 그 역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 것이다.

그날 수인천(水仁遷)을 지났는데 매우 땅으로 위험한 길이 거의 10여 리나 되었다.



수인역 마을에서 잤는데 그 곳은 양구(楊口) 그날은 70여 리를 온 셈이다. 내가 역리 한 사람과 얘기해 보았는데 내가 말하기를,

“이 고장은 지대가 궁벽하고 산이 깊어 산삼이 날법하다.”

했더니, 그 역리 말이,

“이 고장에 물론 산삼이 나지요. 그러나 근년 들어 유랑민들이 산에 들어가 나무를 베고 밭을 일구는 바람에 산택(山澤)이 모두 물골이 말이 아니고 또 남아난 재목도 없어 옛날과는 판판입니다.”

하였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다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산중을 다녀 보니까 금강산도 내산 외산 할 것 없이 모두 황무지 개간한답시고 아무리 높은 데도 다 올라가고 아무리 깊은 곳도 다 들어가 초목도 자라지 못하여 새 짐승도 붙어 살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서는 고기 못 먹고 가죽 옷 입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집도 잘 지을 수 없고, 생활의 변화를 도모할 수도 없고, 의약(醫藥)도 제대로 쓸 수 없으며, 죽어서는 널마저도 쓸 수 없게 만들고 있어, 그로 인한 재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뿐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자들은 부역(賦役)과 형벌을 피해 다니며 국가로 하여금 저들을 기속하지 못하게 하는데, 일단 무슨 경급(警急)이라도 있으면 서로 모여 도둑으로 변해버리고 마니, 참으로 국가의 간민(姦民)인 것이다. 고을 수령들이 그 피해를 모르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들이 원적(元籍)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세 이외의 수입을 노려 그들을 사민(私民)으로 삼아 그들 요구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 폐단이 자꾸 번지고 있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숲을 모두 태우거나 베어 내어 토석(土石)이 전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장마라도 한번 지는 날이면 모두 무너져 흘러내려 산은 산대로 깎이고 시내와 평원은 막히고 메워져서 옛날에는 숲이 울창하던 산과 물이 깊던 못들이 전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와 짐승은 다 도망가고 물고기도 자라도 자리를 옮겨 근세 이후로 토지는 더욱 척박해지고 백성들은 더욱 가난에 찌들리며 산이 무너지고 시내가 말라 비구름도 일지 않고 수재 한재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 모두가 사람들이 살피지 않아서 그렇지 다 원인이 있어 그리 된 것이다. 그대도 그것을 알고 있겠지.”

하였다. 유군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금하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할 것인가?”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지금이라도 만약 호구(戶口) 정책을 엄하게 하여 떠돌이의 길만 막는다면 옛날처럼 위 아래로 쫓나무 새 짐승까지도 다 제 삶을 즐기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를 다 설명하자면 말이 기네.”

했더니, 역리가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상객(上客)의 말씀이 옳습니다. 꼭 할 말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산에 들어가 경작하는 자들은 참으로 국가로 보아 간교한 백성들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산골 백성들이 더 입고 있습니다.” 하였다.

21일(계해) 아침 날씨가 음산하더니 이어 가랑비가 내렸다. 조반 후 출발하여 부창현(富昌峴)을 넘어 부창역 마을에서 말에게 꼴을 주었다. 가랑비 때문에 늦게 출발하여 기락이천(祈樂伊遷)을 지났는데, 기락이는 방언으로 기어서 나온다는 말로서, 그 천의 길이 너무 좁고 또 바위 구멍이 있어서 누구나 그 곳을 가는 자는 반드시 기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천전(泉田)의 길가 큰 시내 위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날은 하루 내내 산골 험한 길만을 걸었는데, 여기에 이르자 산들이 확 트이고 그 가운데 큰 평야가 펼쳐 있었으며 강물이 굽이치고 돌아가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느꼈다.

북쪽을 바라보니 높다란 산이 하나 있고 그 아래 민가 수십 호가 있었으며 뒤에는 소나무 숲이 울창하고 느릅나무가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데 유군의 말로는 강릉 부사(江陵府使) 이후(李煦)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시냇가에 작은 저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생 후평(李生后平)이 집에 있는가 물었더니, 지금 양양(襄陽)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20여 리를 가면서 북으로는 청평산(淸平山)을 바라보고 남으로는 소양정(昭陽亭)을 가리키며 오다가 배로 앞강을 건너 소양정에서 잠시 쉬었다. 그 곳 벽 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남긴 시가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월봉(月峯)·청음(淸陰)·백현(白軒) 그리고 유창(俞瑒)의 것을 보고 드디어 춘천(春川) 읍내로 들어와 유군 종의 집에다 여장을 풀고 주수에게 소식을 전했다니, 주수는 병이 있어 나오지 못하고 비장(裨將) 신완(申椀)을 보내 왔다. 그리고 조금 뒤에 주수의 형 이생 석(李生錫)이 왔고, 또 최남(崔男)의 아들 상인(喪人)인 이역(爾嶷)도 왔으며, 이생을 통해 서울에 있는 집안 소식도 대강 들었다. 유군이 이르기를,

“듣기에 청평산에 이자현(李資玄)의 식암 영지(息菴影池)가 있다는데 식암은 자현이 홀로 앉았던 곳으로 동사(東史)에 이른바, ‘둥글둥글하기가 곡란(鵠卵)과 같다.’고 한 것이 그것이고, 영지는 식암 아래 있는 겨우 반묘(半畝)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못으로, 해 뜨는 아침, 달 뜨는 밤이면 식암의 풍경과 사람의 동정까지도 모두 그 못 속에 비친다고 한다. 그리고 자현이 죽었을 때 불가의 법대로 화장을 하여 불에 탄 그 뼈를 아직까지 그곳 중이 간직하고 있는데 빛이 푸르른 청옥(靑玉)과 같다. 그리고 용마루에는 또 김열경(金悅卿) 친필이 있다. 그래서 신상촌(申象村)의 송인시(送人詩)에, ‘이자현 유골은 풍류가 대단하고[李資玄骨風流遠], 김열경 글씨는 유일의 자취로세[金悅卿書逸躋存]’라고 하였으니, 그 모두가 다 값진 고적들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내가 이르기를,

“이자현으로 말하면 능히 세리(勢利)의 길에 초연하여 몸을 운수(雲水)에 의탁하고 거기에서 일생을 마쳤던 것이다. 퇴계(退溪)는 그를 위해 억울함을 밝혀 주고 그 사실을 영탄(咏嘆)했으며, 열경(悅卿)은 국가 위난을 평정한 세상에서 임금을 섬기지 않았던 뜻을 높이 샀는데, 사실은 동방(東方)의 백이(伯夷)인 것으로, 그의 청고한 풍도와 모범을 남긴 행위는 백세의 스승이 되기에 족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길에 그 유적지를

찾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다만 내가 탄 말이 걸음이 더디고 바탕이 둔해서 외삼촌을 따라가야겠기에 마음대로 못하겠네.”

하고, 서로 말이 나쁘다고만 탓했다. 내가 웃으면서, 재상 상진(尙震)의 소에 관한 얘기를 들어 보았느냐고 물었다. 유군이 못 들었다가에 내가 얘기하기를,

“상진공이 언젠가 들을 지나는데 어느 늙은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면서 쟁기 하나에다 소 두 마리를 메워가지고 아주 힘들게 밭갈이를 하고 있더라네. 상진공이 한참 구경하다가 이어 말하기를, ‘농사일을 참 잘하시는구려, 그런데 그 소 두 마리 중에도 우열(優劣)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농부가 대답을 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상진공이 농부 앞으로 다가갔더니 그 늙은이가 이쪽으로 와서 귀에다 대고 말하기를, ‘공이 물은 대로 두 소 중에 한 마리는 힘이 세고 옹골찬데 한 마리는 힘도 약하고 미련한데다 늙기까지 했지요.’ 하더라는 거야. 상진공이 말하기를, ‘그렇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대답을 않고 지금 와서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니, 그 늙은이 말이, ‘소는 큰 짐승이어서 사람 말을 알아듣고 또 부끄러워할 줄도 알지요. 내가 그 힘의 덕을 보고 그 놈을 부려먹으면서 그 놈 부족한 점을 꼬집어 그 놈의 마음을 상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요.’ 하더라는 거야. 상진공은 그 말끝에 크게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는 한평생 남의 과실 말하기를 부끄럽게 여겨 장점만 말하고 단점은 말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장후(長厚)한 군자가 됐다는 거야. 지금 우리들이 그 말들 힘으로 천리 길을 두루 돌면서 온갖 험난한 곳을 다 지나 여기까지 왔으니 그 말이 병들었거나 둔함을 그렇게 험뜯을 일이 아닌데, 더구나 그들이 듣는 데서 그래야 되겠는가. 사람도 꾸짖고 욕설을 하면 풀이 죽고 치켜세우면 흥을 내는 법인데, 저 말들이 오늘은 뽐내면서 달릴 기운이 더욱 없겠네. 그것은 우리가 대우를 잘못된 소치가 아니겠는가.”

했더니, 외삼촌이 말씀하기를,

“참으로 소나 말이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나 보다.” 하여 서로 한바탕 웃었다.

22일(갑자) 맑음. 아침에 이생 석이 왔고, 최이억도 왔다. 조반을 먹고 출발하여 유군과 함께 봉의루(鳳儀樓)에 올라가 보았다. 그 고을 뒷산이 날아가는 봉의 형국이기 때문에 산 이름이 봉산이고 누대 역시 그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고을이 모양은 매우 그럴싸했으나 거민이 100호도 안 되는데다 성지(城池)도 목석(木石)도 없어 국가를 지킬 요충지는 못 되었다. 만약 삼악산(三岳山)에다 관(關)을 설치하여 그 삼면을 막고 지킨다면 이 나라의 한 보장(保障)이 될 법했다. 우리들이 봉의루에 올라 있음을 주수가 듣고 술과 배를 가지고 와 행장에 챙겨주었다. 외삼촌을 뒤쫓아 신연(新淵) 나룻가에 와서 만나고 신완(申椀)과도 서로 만났으며 만호(萬戶) 반예적(潘禮積)이라는 자도 만나 동행하게 되었다. 석파령(席破嶺)을 넘었는데 산 이름은 삼악(三岳)이었다. 재가 매우 높아 길은 평평했어도 길가로는 깎아지른 절벽이라 말에서 내려 걸었다. 재 너머 서쪽은 전부 산 아니면 깊은 골짜기뿐이고, 그 재에서 군(郡)까지의 거리는 20여 리였다. 거

기에서 또 20리를 더 가 안보역(安保驛)에 다다르니 청풍부부인(淸風府夫人) 묘가 있었고, 그 아래 있는 재사(齋舍)가 매우 조용하여 거기에서 잤다. 저녁에는 나와 강가를 거닐었다.

이 날은 춘천(春川)을 떠났다. 이는 대개 청평산에 들어가 진락옹(眞樂翁)과 매월당(梅月堂)의 유적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시 한 수를 읊어 유군에게 화답을 청했다.

춘주가 수려하기로 이름난 고을인데  
더구나 청평학사 별장까지 있음이라  
청연에 물이 고여 동실동실 배 떠있고  
구름 덮인 화악에는 바위 빛이 푸르다네  
희이자 뼈 푸르다니 신선 상징 분명하지  
매월당이 남긴 글씨 그 체취가 풍긴다네  
서운하게 식암 영지 바라만 본단 말인가  
그들이 남긴 향기 누가 가서 맡으라고

春州素號水雲鄉  
況有淸平學士莊  
水積靑淵舟泛泛  
雲靄華岳石蒼蒼  
希夷骨碧仙蹤杳  
梅月書留道韻長  
惆悵菴池空入望  
澗蘅誰復嗅遺香

춘천(春川)과 잿마루와의 거리는 멀지 않은데, 물이 급류에다 여울이 얁다. 주(州)의 북쪽에 청연(靑淵)이라는 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심이 배를 띄울 만한데 여기는 바로 소양강(昭陽江) 상류이다. 그 강이 양구(楊口)의 강과 합류하여 신연도(新淵渡)를 이루고 평야 가운데로 굽이굽이 흘러 파강(巴江)의 형국을 이루고 있다. 경운(慶雲)의 북치(北峙) 서쪽에는 백운산(白雲山)이 있는데 일명 화악산(華岳山)이라고도 한다. 가파른 바위 산이 구름 높이 솟아 있어 영서(嶺西)에서는 화악만큼 높은 산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경운은 청평의 원래 이름이다. 유군의 화답시는 다음과 같다.

진락공 그 명성이 이 고을에 자자한데  
더구나 청평하면 그 있던 곳 아니던가  
예스러운 못과 누대 지원처럼 경계 좋고  
보지의 가을 풍경 나무들이 푸르러라  
치솟은 바위산과 겨를 만한 높은 절의  
고상한 풍류는 장강유수 그것이라네  
선구를 지척에 두고 계획이 틀려서  
선생께 판향 하나 피워 올리지 못한다오

眞樂公名表此鄉  
淸平況是故時莊  
祗園勝概池臺古  
寶池秋容樹木蒼  
淸節漫爭山骨聳  
高風直與水流長  
仙區咫尺違心賞  
未薦先生一瓣香

23일(을축) 새벽에 안개가 잔뜩 끼었다. 일찍 출발하여 가평(加平) 길을 거쳐 초연대(超然臺)를 지나면서도 안개 때문에 올라가 구경하지 못하였다. 가평읍 아래 와서 조반

을 먹고, 아현(芽峴) 남쪽에 와서 말에게 꼴을 먹였다. 청평(淸平) 언덕을 지나 굴운역(屈雲驛) 마을에서 잤는데 그 마을 북쪽에 있는 언덕의 형세가 매우 좋아 보여 올라가서 종을 시켜 치표(置標)를 해 두게 하였다. 그 주산(主山)의 이름을 물었더니 청취전(靑翠田)이라고 했는데, 그 산이 백운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운등산(云登山)이 되고 거기에서 또 동으로 달려가다가 회강(淮江)을 만나 거기에서 멎었는데 곱게 감싸고 있는 것이 마치 누군가의 장례를 받아들이고 싶은 듯이 보였다.

24일(병인) 흐렸다. 일찍 출발하여 천괘산(天掛山)을 향하여 가다가 마치현(摩蚩峴)을 넘어 그 고개 서쪽에서 조반을 먹고 여러 사람 무덤들을 가리키고 물어가면서 길을 가는데 시내 곁 단풍잎들이 마치 붉은 비단 같았다. 대개 평천(平川)의 가을 빛이 이제 와서야 비로소 무르익고 있었다. 풍양(豐壤)에 당도하여 왕숙천(王宿川)을 건너고 퇴駕원(退駕院)을 지나 오릉(五陵) 밖에서 쉬노라니 백악(白岳)과 남산(南山)이 보이기 시작했다. 들은 넓고 시내는 편평하여 새삼스러운 감회가 있기에 울시 한 수를 읊었다.

만 겹이나 푸르른 봉래산을 꿈에 보고  
구름 따라 동쪽 땅을 한 바퀴 다 돌았네  
아침이면 넓은 바다 부상의 해를 보고  
밤에는 비로봉 가을 나무에 의지했다네  
자장처럼 호탕하게 놀자는 뜻 아니었고  
나그네 모진 시름 달래려고도 아니었네  
돌아와서 동산에 다시 올라 바라보니  
끝도 없는 연파가 한강 섬에 자욱하네

夢入蓬萊翠萬重  
一筇東盡白雲求  
朝看滄海扶桑日  
夜將毗盧碧樹秋  
不因子長疏宕舉  
非關楚客慍愉愁  
歸來更上東山望  
無限煙波江漢洲

늦게야 성안에 들어와 동소문(東小門) 안에서 외삼촌과 작별하고 집에 돌아와 사당에 무사히 돌아왔음을 고하였다.

풍악(楓岳)의 경치가 삼한(三韓)에서 으뜸이요 천하에 소문이 나 있어 내 늘 사영운(謝靈運)처럼 나막신을 장만하여 사마자장(司馬子長)같이 한번 마음껏 구경을 해보려고 버르기는 했으나, 세상일도 뜻대로 되지 않고 병마에도 시달리다 보니 속절없는 풍진 세월에 흰머리가 이미 머리에 가득해갔다. 임자년 7월 내가 동성(東城)에 부처 있으면서 마침 유동(楡洞) 사시는 통제사 외삼촌과의 자리에서 옛 친구 정극가를 뜻밖에 만나 담소하던 차에 산수(山水) 구경 얘기가 나왔다. 외삼촌 말씀이,  
“내가 진작부터 관동(關東) 구경의 뜻이 있었으나 몸이 무부(武夫)라서 미처 못했었는데 지금 마침 집에 있게 되었으니 구경할 때는 바로 이때다. 극가도 같이 갈 생각이 있는가?” 하자, 극가가 대답하기를,  
“그렇잖아도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안 가다니요.”

하였다. 외삼촌은 또 나더러도,

“너도 이번 걸음에 불가불 동행을 해야겠다.”

하시기에, 나 역시,

“가구말구요. 그것이 저의 평소 원이었는데요.”

하고, 드디어 중도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하여 그 해 윤월(閏月) 정유일에 침석정(枯石亭)에서 내가 외삼촌과 만나 동소문을 출발했는데 유군 여거(柳君汝居)라는 자가 그 소식을 듣고 뒤쫓아 왔다. 연산(漣山)에 가 미수(眉叟)에게 문안하고 석록(石鹿)에서 극가를 데리고 그로부터 9일 만에 풍악의 장안사에 도착하였다. 이틀 밤을 정양사에서 자고 천을대(天乙臺)를 구경하고 마하연(摩訶衍)으로 옮겼다가 안문(鴈門)으로 나와 남천(南川)을 끼고 동으로 갔었다. 유점사에서 사흘을 묵으면서 산영루(山暎樓)를 산책하고 만경대(萬景臺)를 바라보았으며 맑은 가을의 운물(雲物) 등 온갖 경치를 두루 감상하였다.

내 늙고 병들어 비록 비로봉 절정에 올라 깊은 구룡연을 내려다보면서 아주 높고 으스스하고 험한 곳까지 샅샅이 다 보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풍악산 겹겹이 쌓인 구름 속의 산빛이나 늦가을 풍경에 관하여는 그런대로 볼만큼 보았다. 그리고 나서 고성(高城)을 경유 해산정(海山亭)에 오르고, 삼일포(三日浦)를 거쳐 청간정(淸澗亭)에서 거닐었으며, 선유담(仙遊潭)·영랑호(永郎湖)에서 쉬기도 하였다. 또 양양의 낙산사(洛山寺)에서 묵으면서 동해를 바라보며 부상에 떠오르는 해를 구경하기도 하고 중추에 바다에 뜬 달도 완상했다. 그리고 다시 신흥사(神興寺)에 들러 설악산을 바라보고 천후산을 답사했으며, 또 춘천에 들러 회강(淮江)을 건너고 몽구(夢口)에 올라 우수(牛首 춘천의 옛이름) 평야를 굽어보고 경운산(慶雲山)·화악산(華岳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돌아왔다. 비록 사방을 두루 돌아보고 싶은 뜻을 다 이루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평생의 소원을 다소는 풀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길에 들른 고을이 15개 주에 달하고, 길은 1천여 리 길이었으며, 왕복에 한 달이 걸렸다.

돌아다니는 동안 작은 일기책에다 날씨와 그날그날 가고 구경한 곳을 적어 옛 분들 유행록(遊行錄)에 대신하였고, 또 동정부(東征賦) 한 편을 써서 거기에 나의 영귀(詠歸)의 뜻을 대강 펴 보았다.

임자년 9월 일 침석정(枯石亭)에서 쓰다.

『白湖全書』 卷之三十四, 雜著

壬子閏七月丁酉. 晴. 朝薦梨棗于廟. 告楓岳之行. 遂發行. 至統制舅氏家. 余之所携者. 唯韋篇二日筍一. 一行行李皆舅氏治之. 富平舅氏亦至. 戒余以涉遠淹留. 與統制舅氏偕發. 出東小門. 秣馬于樓院. 逢過僧德明者. 此僧蓋曾遊楓嶽者. 略說楓嶽之勝概. 晚至楊州邑內. 舅氏往見楊牧. 余寓民家. 楊牧李公元禎來見設小酌. 柳君汝居名光善隨至. 柳君曾未之相識因舅氏來. 與之相揖于座中. 以寓舍多虫蚤. 移宿于鄉序堂. 主倅之子正字聘命來見. 州佐禹韓

二人亦來看。是日甚熱。

八月初一日癸卯。晴。朝發秣馬昌道驛。館壁上有二詩。一是閔貳相齊仁嘉靖己亥題。其彌孫閔鼎重大受懸刻之。一則庚戌過客題。不著姓名。俱可詠也。閔詩曰。寵恩榮養孰如之。回首終南向戀思。北塞寒雲歸去遠。東門落日出來遲。花殘野菊秋將老。山遶郵亭路自歧。杖鉞渡江聊擊楫。一生安肯負心期。其過客詩。艱難險阻備嘗之。客館無人慰所思。落日孤雲東去遠。秋風五馬北歸遲。寧同杜子瞻家室。不學楊公泣路歧。身被國恩何以報。承流盡責是心期。路中絲吟得一絕。與二君求和。世事如絲不可理。秋風欲上望高峯。倘從魯叟浮滄海。更擬鸞輪喚赤松。兩君皆和之未夕。止泊于夏遲城民家。主人名李天鳳。是日沿途摘草花。與一行諸人。下識其性味。或問諸僕夫。其中艾蒿之類最多。其可名者有七種。以鄉名言之曰。白陽蒿也水蒿也真蒿也獅足艾也多復艾也燕艾也蜂艾也。或曰白陽蒿叢生。卽古之所謂蓍也。而與華人所著本草不同。未知其果然也。李芝峯類說。以秋至發紫花者當之。此則恐是山菊之類。諸人仍曰天下無無用之物。余曰固然。苟因其材而用之。天下固無棄材也。人之不善者。亦有可用之處乎。諸人皆曰天下最無用者。莫如不善之人。豈有可用之處。余曰天下之無用者。無如中間半界。非冷非熱。悠泛無爲 [一作悠悠泛泛無無爲二字]。無善可取無惡可指之人。若甚不善之人。亦有用處。皆曰異哉。言也。何謂也。余曰桀紂至不善。湯武征之。天命佑之。百姓歸之而奄有天下。子孫萬世項籍王莽爲惡之尤。漢二祖戮之。以警動天下。風勵百世。漢氏四百年之社稷。實賴之。此非有用而何。以至行師用兵。莫不有此術。有戮一人而三軍震。敵國服者。故古昔英雄伯主之於經綸事業也。唯恐不得此人。以爲取天下之資。此吾所謂有用也。皆曰可謂詭論。然亦有理。令人心快然。相與一噓。又路逢一行人。自言能採蓼。余曰此可與同行。與之採得三枝九葉之靈卉。亦是好伴。舅氏曰觀其人庸夫也。固無可用。余復曰此庸夫也。故云可用。若使其人秀而慧。固不爲我用矣。昔許魯齋有言。馬用上等馬。牛用中等牛。人用下等人。馬駿可乘。牛馴可服。人庸易使。苟其人之知而黠。固不爲我用。而我顧爲不用矣。可馬君實有一僕。供事一久。雖公位至叅政。猶稱君實秀才。一日蘇子瞻來。冀僕應門亦如是。子瞻教之曰。相公今已大叅。可稱大叅相公。其後僕如子瞻所教。公駭曰。誰教爾作此語。僕曰向蘇學士教我。公歎曰好箇僕。披子瞻壞了。此冀人用下等人 [一無入字]。之驗也。亦相與戲笑之。然余思此二者。皆不能無弊。視惡人爲可用。則無惻隱思濟之心矣。以庸人爲可使。則已立私勝而無賴於瀆知矣。此伯者之術。非仁人君子之心也。此又不可以不知。可與知者道。難向姦雄說。言後更有此意。

二日甲辰晴。朝發渡也音不川。又歷觀音遷。渡菩提津。過通溝院。秣馬于路傍民家。饋以蜂蜜山果。主人名全起天。約與相訪于京中。遂登斷髮嶺。山名葛离峙。嶺路危險。或步或乘。至嶺上有檜亭。石砌坐憩。望見楓岳面目。歷歷皆在眼前。得一絕。東出都門八日行。金城踏盡是淮陽。摩尼嶺上披震坐。萬二千峯次第迎。說與柳君和之。是日宿新院。有戶主名金世翊。約來訪于京中。

三日乙巳晴。渡新院水踰鐵伊峴。入萬瀑洞口之野。令僕夫取墨石于溪邊。曲折其川而亂渡之。憩于路傍松林之下。至一洞口。松檜成行。間以海松。山始奇水石始清。悠然有洞天之趣。渡

一川名牛川渡。下馬而步。濯足于川。少憩松壇寺。僧五六人來迎。遂偕入寺。門有一閣傑然。結搆于雲。前對長景峯。矗立千仞。旁列數峯。皆巉巖奇壯。已非人間所見。寺名長安。問之居僧。云是元順帝后奇后氏願刹。棟樑之宏。金碧之眩晃。甲於山中云。是日散步逍遙于寺門之前。水石甚佳。有一樹枯死。僧言佳樹。蓋檜身栢皮。枝葉剝落。釋子數人相隨。令少僧摘取寺前海松子。和蜂蜜而餐之。亦山中勝味也。又居僧以石芝供朝夕。茲山之產也。

四日丙午晴。發長安指正陽。居僧備籃輿待之。石嵌清流。楓葉乍紅。步步可坐。遂或步或輿。棧路石磴。人不可竝行。至鳴淵少憩。水深數丈。其清澈底有細鱗鯉鮪游泳其中。僧言此萬瀑洞洞口也。淵中猶有細鱗。自此以上魚不得上云。至一處有二石矗立。宛然成門。斷三佛像於崖面。云是懶翁所作。向前有古寺云白華菴。無居僧。有浮圖五種石碑四跌。浮圖則清虛休政霽月敬軒就進義瑩鞭羊彥機虛白明照楓潭義誡。敬軒義瑩彥機皆西山清虛之徒。明照東山松月應祥之徒。義誡鞭羊之徒云。碑月沙議政白洲天章李端相幼能白軒議政之所作。書則義昌君珖申翊聖東陽尉吳判書竣朗善君侯。穹碑顯刻。照映山門。遂少留。讀盡而去。又至表訓寺。亦大伽藍也。佛宇南開。佛軀東向。僧言此地形象行舟佛坐須若坐舵然不然則有災昔世嘗以佛坐向南。被萬曆乙巳大水圯毀。而更如舊云。其言詭矣。而亦堪輿家說也。少憩向正陽寺。山路極高峻。步步而息。自長安至表訓。途中舍輿而徒者屢。次晦菴南岳韻。爲憫人疲舍輿行。此心生處是靈明。昔賢已自原頭說。天下平時此心平。攀援而上。若歷級而登。至一高岡云天一臺。亦曰天乙臺。居半山之上。橫臨四遠。曠然駭矚。正陽居僧五六人來待。老禪普願者。亦來迎。絡巾袈衣。形貌淨慤。神氣清茂。可喜山中靜者。與之共坐松根。周覽四顧。指點詢廬問。凌灑永朗毘爐衆香香爐穴網望高白馬長景十王等峯。一一在目。古人所謂千岳競秀。萬壑爭流者。爲可以當之。毘盧最高。而衆香尤奇。穴網峭峯。而望高嶒峻。若與之爭雄。白馬長景迢遠若列屏布幕。永朗香爐凌灑如相拱揖。十王以下諸峯。若觀音彌勒文殊等峰。皆以佛號駕之。又若曇仙黃面列立齊坐。而翻經談道也。萬壑鳴泉。雜以松聲。亦若風雨至。而雷霆在下焉。僧言此山古記云一萬二千。曇無竭所住。曇無竭者佛名也。余意曇無竭者梵語。未知何謂。而僧言鄙誕。意者古人之意。謂茲山之萬峯千巒。皆山靈岳祇之所宅也歟。是時涼風乍起而露氣淒清。紫葍丹楓。秋氣屯於山中矣蒼松翠栢。間以紅綠。尤可愛也。余謂諸禪曰。秋色未爛熳。吾輩遊賞。無乃太早乎。願禪曰不然。凡觀物者。必於未盛。欲觀爛熳。則極盛而向衰矣不若此時之向盛而觀之爲有餘趣也。余曰老師之言。可謂得觀物之道矣。古人有言曰。花不欲看披離。酒不欲至酩酊。亦老師之言也。仍說與兩君言曰。凡天地萬物之理。皆不欲極其盛。世之處富貴繁華聲色者。尤不可不知此理。某嘗有一詩請兩君記取。克家書之小記。柳君曰此殆君得意作也。詩。一有日字。騎馬悠悠行不行。石橋南畔小童清。問君何處尋春好。花未開時草欲生。偶得冲菴金先生元冲毘盧贈僧詩。誦與兩君。落日毗盧頂。東溟渺遠天。碧岳敲火宿。連袂下蒼烟。余曰此殆詩家古今絕唱。不徒我東所未有。惜我東無識取者不能膾炙人口耳。兩君曰諒哉。相與哦咏者久之。令人飄飄然有凌絕頂望東海之思。次晦翁南岳韻。九秋霜露滿天風。天乙臺前一盪胸。詠歸何處尋行迹。直到蓬萊最上峯。諸人和之。至東樓觀諸人懸壁綉有諸公作。企齋湖陰龍洲清陰李天章金道源申伯潤所作。皆可詠也。而企齋湖陰最高。後人無一



六四能及者。此亦見世道人材之升降也。是日宿正陽寺。與願公夜話。夜深而寢。夜起觀星辨方望高正東而凌灑處北。寺南臨午位。而東受朝陽。寺之得名其以是乎。龍洲詩有。盲壑彰三字與諸人看辨不得。或云草畫訛。或云文字僻。相與一笑塵。

五日丁未。晴。令居僧出懶翁眼珠葛布。珈黎鐵鉢。瑪腦塵尾等。而觀之眼玉一顆色青如小豆。佛家所謂舍利也。盛之琉璃。重以金合。繡錦襲之。居僧相寶守之。余聞懶翁嘗以徒盛惑衆被誅于國朝其知不足稱也。今僧徒乃言其成佛。而尊敬之何歟。問之。僧徒亦不知其事之首末也。且珠產於人。無中生有。殆非理之所有。余每疑之。而古今禪僧之相傳積信崇嚮。牢不可破。余不能究詰也。觀八角殿石佛。壁有古畫。云是吳道子。吳道子未聞來東國。亦誕說也是日克家題名于寺閣之樑。是日在登東樓。樓名歇惺。飯後携一僧獨登天乙臺。騁望與之指點罔巒洞壑。其中松蘿峽。新羅王子之所灑居處也。凌顛峰放光臺。高麗王太祖拜佛之處也。嗟呼。王子之事卓矣。足與漢之北地王爭烈麗祖之宏謨厚德。亦可并肩於宋祖。而乃惑於異教。使誕說詭迹遺於後代。何也。以一幅略寫灑罔巒之形。要他日借龍眠手爲記勝之圖。願僧言自今春。有大鳥自何而來。翱翔山間。形如野鶴。頸長尾黑。脚赤身高。人言欲見則必回轉其身以視之。其聲鶴云。蓋仙鶴也。今雖不在眼中。而必在此山中云。余謂聞鶴聲唳而長。清徹九霄。故詩曰。鶴鳴于九臯。聲聞于天。古志亦稱鸞鳳同爲群。且必擇地而翔。候時而鳴。故謂之仙禽。今此鳥無鸞鳳之友。無師曠之琴相岳之鼓而來。且其鳴無韻不高不長。而適以自標。此殆似鶴非鶴。而欲自班於仙禽者。非其實而假其名。物皆然。禽何獨不然。昔嘗見致思軒李公龜金剛錄云。有鳥巢崑隙。蓋野鳥也。山僧認而爲鶴。呼之以鶴。則其鳥必出巢而舞。以視於人。而不自知其非鶴。今此鳥自呼爲鶴。而人亦視之爲鶴。又復耀羽毛。以示於人。何其自名而又不自晦也。豈山禽野鳥猶不免塵間俗人之念歟。此與致思翁所記。其事正相類。而絕好笑也。且鶴亦靈禽不見者千秋似之而非真者。適至於今日此又何也。余聞之嘿然而內嘅於心。柳君出晦翁廬山韻要余和之。口占破寂。又次歇惺樓韻。并書贈余。余謂願禪曰。吾家有知行爾家有定慧。慧生定乎。定生慧乎。曰定生慧乎。余曰。不先知定慧之理。則何據以守定。無守心之定力。則又何以發此心之真覺。願禪曰然則定固生慧而慧又生定矣。余曰吾家亦。有此法其說多歧。爾言之良善。但吾家萬理俱備。其知之者。將以行之也。釋家則但守空明爾。願禪曰然。因問吾道傳統之序。余略答之。亦問其家衣鉢之傳。願禪亦答之。其說蓋以達摩爲宗。余曰達摩面壁修道。而卒爲人所藥殺。有道者固若是乎。曰達摩蓋厭世人之澆薄。而故示寂者。其身則去入西天。余笑曰。浮屠氏固多幻說。因曰佛家有二派。曰禪曰教。師之所修者何法。曰略聞經教。而以念佛爲事。非有心學之工云。與之處再宿。每聞中夜彌陀之聲。金剛之山。雄峻秀拔。甲於東方。而其來則根於長白。雄峙於劍山。橫亘於鐵嶺。起伏於楸池。蟠結而爲此山。突起爲凌顛峯。猶雜土石巒巒重而去。騰躍爲永郎岫。又忽然聳拔爲毗盧。則湧全石爲峯。直于雲霄。豐隆轟轟。無與之爲敵者。其降勢嶒嶙嶮。則衆香城也。翠壁蒼岳。環列爲城。石色皓皚。望之如粉堞然。石間生檜栢海松蔓香等樹。蔚然成彩。迤延爲日出月出等峯。衡列其下。則爲白雲臺金剛臺六香爐小香爐。其川則爲萬瀑洞會百川洞。南出爲淮漢之上流。又西去爲望高穴網。其高次於毗盧。又次之爲白馬玄登等峯。若將西面而俯者。又南出傍海。而馳去莽蒼爲天

吼雪嶽寒溪. 其西南去者. 五臺也. 直南而走者爲嶺左右. 湖西南之根幹也. 毗盧以西謂之內山. 山骨矗立. 迎西風而受夕日. 松檜不甚長大. 毘盧以東. 則山間土石脈頗厚朝日照之而近襲海氣. 萬木茁壯. 翳日于雲. 謂之外山. 其東支去者不百里. 至東海而盡. 其西支俠淮水西未至少海. 遇楊江而止半千里而近. 其北支層巒疊嶂. 盤束爲洞壑者. 爲九龍淵. 其萬瀑洞則崑崖奇秀. 水石清勝. 杖屨可涉爲遊人賞客之所來往. 九龍淵則竊冥深險. 幽昧不測. 爲龍策螭鳥獸之宅. 白日風霆之所起. 怪物之所見. 人跡所難到也. 余老矣且病. 恨不理短策携童冠登毗盧之絕頂. 出雲霧臨風雨. 覽山川之紆曲. 撫四極以揚靈. 又不能凌巒絕嶂. 俯九龍之深湫. 窺神恠之窟穴. 極幽險奇詭之觀. 以拔此磊壘鬱塞之懷. 甚矣吾衰也. 曾聞李栗谷叔獻先生少時. 因事去家. 入此山. 問之僧徒. 不聞知. 僧固野矣. 而去之百年. 宜遺響之邈邈也. 與願禪夜話. 願禪曰鄭知祥何人. 余曰高麗文士. 其詩清警. 有唐人風. 惑於妖僧妙清. 以誤國事其人亦不足貴也曰金富軾何人. 曰有文章作三國史嘗爲將. 討妙清之亂. 願禪曰余聞富軾與知祥爭名. 每不勝. 因而陷之殺知祥. 卒爲知祥崇死. 豈好人也. 因言富軾崇死事. 如竇嬰田蚡事. 其說甚恠. 余未前聞也錄之以俟詢問. 願禪云金富軾. 嘗以試官入院. 題詩院門曰. 燭盡天將曉. 詩成句. 一作桂字已香. 滿庭人擾擾. 誰是壯元郎. 知祥就試見之. 卽援筆. 添以三更八角落月不知八字於五字之上. 富軾於是知其才之不及. 遂謀陷之云云

『白湖全書』卷之三十四, 雜著



## 숙종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 숙종어제시(肅宗御製詩)<sup>46)</sup>

46) 숙종(1661, 현종2~1720, 숙종46)의 이름은 순(焯). 자는 명보(明普)이고 조선의 제19대 왕(1674~1720 재위)이다. 현종의 아들로서 어머니는 청풍부원군 김우명(金佑明)의 딸 명성왕후(明聖王后)이다. 처음 비(妃)는 영돈녕부사 김만기(金萬基)의 딸인 인경왕후(仁敬王后), 두 번째 비(妃)는 영돈녕부사 민유중(閔維重)의 딸인 인현왕후(仁顯王后), 제2계비는 경은부원군 김주신(金柱臣)의 딸인 인원왕후(仁元王后)이다.

1667년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674년 8월 즉위했다. 숙종 초기 집권층이었던 남인은 병권의 장악과 서인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청남(淸南)과 탁남(濁南)으로 분열되어, 허적(許積)을 중심으로 한 탁남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에 숙종은 김석주(金錫胄)·김익훈(金益勳) 등 외척을 기용하는 한편 서인을 재등용하고자 했다. 1680년(숙종 6) 복선군(福善君)과 탁남의 영수인 허적의 서자 허견(許堅) 등이 역모했다는 고변이 있자 이를 계기로 남인들을 축출하고 서인들을 등용시켰다. 그러나 서인계열은 남인의 숙청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고, 1689년 희빈 장씨(禧嬪張氏) 소생 왕자(뒤의 경종)의 세자책봉에 반대하다가 다시 남인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남인은 이후 정국을 이끌면서 1694년에는 서인이 인현왕후 복위를 도모하려 했다는 고변을 하고 옥사를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종은 인현왕후를 서인(庶人)으로 폐비한 것을 후회한다는 전지(傳旨)를 내려 소론정권을 성립하게 하고 남인의 다수를 명의죄인(名儀罪人)이라 하여 중앙정계에서 몰아냈다. 정국은 서인 내의 노론·소론 사이에 정권을 둘러싼 각축이 벌어지면서 노론 일당전제화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노론·소론 당쟁의 핵심은 희빈 장씨의 처벌문제 및 장씨 소생의 세자와 연잉군(延昞君, 뒤의 영조)의 양위계승을 둘러싼 문제였다. 숙종은 노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는 한편, 1717년

상쾌하게 올라 남쪽 낙가봉 바라보니  
 바람은 구름 걷어 달빛만 짙구나  
 관음보살의 원통한 이치 깨닫고 싶은데  
 때로는 파랑새 꽃 물고 사람 맞이하러 오는구나  
 『江原道誌』

快登南望洛迦峰  
 風捲纖雲月色濃  
 欲識圓通大聖理  
 有時青鳥含花逢



숙종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정조어제시(正祖御製詩)<sup>47)</sup>

취봉문 절강의 물결 마주하고  
 비껴 흘러 돌다리 띄우려 하네  
 밤은 고요하고 달 밝은데 수님 들어와 자리 정하고  
 하늘로 솟은 측백나무 그림자만 하늘거리는 구나  
 『江原道誌』

鷲峰門對浙江潮  
 直欲橫流泛石橋  
 夜靜月明僧入定  
 諸天柏樹影邈陰陰

에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다. 이밖에 사육신을 복관시키고, 노산군(魯山君)을 복위시켜 단종(端宗)으로 묘호를 올렸으며, 폐서인(廢庶人)이 되었던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 강씨를 복위시켜 민회빈(愍懷嬪)으로 하는 등 왕실의 충역관계(忠逆關係)를 재정립했다. 그리고 명분의리론이 크게 성행하는 분위기 속에서 명의 은공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대보단(大報壇)을 세워 존명의리와 북별론의 기치 아래 사회기강을 단속하는 작업이 행해지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선원록璿源錄』, 『大明集禮』 등이 간행되고, 『大典續錄』,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이 편찬되었다. 능은 명릉(明陵)으로 경기도 고양군 서오릉(西五陵)에 있다. 시호는 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익효(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이다.

47) 정조(1752, 영조28~1800, 정조24)의 이름은 산(禔)이고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이다. 영조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장헌세자(莊獻世子, 思悼世子)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딸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이다. 1759년(영조 35) 세손(世孫)에 책봉되고, 1762년 세자인 아버지가 뒤주 속에 갇혀 죽은 뒤 동궁으로 불렸으며, 1764년 2월 어려서 죽은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의 후사(後嗣)가 되었다.

그의 즉위를 방해했던 정후겸(鄭厚謙)과 홍인한을 경원과 여산으로 귀양 보냈다가 사사(賜死)했다. 홍국영이 세도를 부리며 권력을 남용하자 조신들의 탄핵에 따라 1779년 9월 정계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듬해 2월에는 전리(田里)로 돌려보내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정조는 즉위한 다음날 어제봉안(御製奉安)의 장소로 마련했던 규장각(奎章閣)을 9월에 준공, 역대 왕의 문적들을 수집해 보관하게 하고, 중국에서 보내온 서적을 비롯한 많은 책들을 거두어 수장하게 했다. 규장각에 이가환(李家煥)·정약용(丁若鏞) 등을 각신(閣臣)으로 선발해 후한 녹봉을 주고 연구에 몰두하도록 했으며, 정조 자신도 이들과 밤을 새워 대화를 나누고 시정(時政)의 득실과 학문을 논했다.

정조는 영조의 뜻을 이어 탕평책을 실시했다. 1800년 6월 개혁의 의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 갑자기 죽은 뒤, 유언에 따라 현릉원 동쪽 언덕에 묻고 건릉(健陵)이라 했다. 1821년 효의왕후가 죽자 현릉원 서쪽 언덕으로 옮겨 합장했다. 시호는 문성무열성인장효왕(文成武烈聖仁莊孝王)이다.



## 정조

○ 어떤 사람이 풍악(楓嶽)에서 돌아와 관동도(關東圖)의 병풍을 나에게 보여 주므로,  
그 병풍에 써서 돌려보내다 8수(八首) 정조어제시 (正祖御製詩)

강남에 가랑비와 저녁 날기 개니	江南小雨夕嵐晴
거울처럼 맑은 비단 물결 끝없이 편평하여라	鏡水如綾極望平
명사십리 해당화는 봄이 저물어 가는데	十里海棠春欲晚
한중천에 흰 갈매기 울며 날아가누나	半天飛過白鷗聲

이상은 경포대첩(鏡浦臺帖)을 읊은 것이다.

영취산 문전엔 절강의 조수를 마주했는데	驚峯門對浙江潮
곧장 멋대로 흘러 석교를 띄우려 하네	直欲橫流泛石橋
고요한 밤 달은 밝고 중은 선정에 들었는데	夜靜月明僧入定
하늘가엔 잣나무 그림자만 흔들리누나	諸天柏樹影搖搖

이상은 낙산사첩(洛山寺帖)을 읊은 것이다.

깊은 바다 다한 곳에 최고의 대가 우뚝 섰으니	層溟盡處最高臺
오초는 동남쪽에 궤안처럼 펼쳐졌네	吳楚東南几案開
큰물은 하늘에 넘치고 하늘은 사방을 덮었으니	巨浸漫天四蓋
풍류 태사가 술잔 멈추고 구경할 만하구려	風流太史可停杯

이상은 만경대첩(萬景臺帖)을 읊은 것이다.

정자를 두른 솔과 잣나무는 너무도 푸르는데	環亭松柏太蒼蒼
겹겹의 깎데기엔 오랜 세월이 쌓이었네	皮甲嶙峋歲月長
광대한 큰 바다는 끝없이 흐르기만 하는데	浩蕩滄溟流不盡
수많은 배 돛대들은 석양을 띠었구려	帆檣無數帶斜陽

이상은 월송정첩(越松亭帖)을 읊은 것이다.

신령 담긴 큰 바위가 푸른 바다에 연했는데	巨石含靈碧海連
심상한 선객들이 목란선을 정박했었네	尋常仙客住蘭船
고벽의 붉은 글씨는 어느 때에 씌어졌던고	丹書古壁知何世
마고 선녀의 귀밑 푸르던 해를 돌아보며 웃노라	回笑麻姑綠鬢年

이상은 삼일포첩(三日浦帖)을 읊은 것이다.

높디높은 정자가 창공에 우뚝 솟아 있으니  
 큰 바다 가운데 연꽃을 깎아 세운 듯하네  
 날날이 여섯 모서리로 동여 놓은 듯 늘어섰으니  
 태초부터 조화로 이뤄졌음을 누가 알리오  
 이상은 총석정첩(叢石亭帖)을 읊은 것이다.

高高亭子入蒼空  
 削立蓮花大匯中  
 箇箇六稜森似束  
 誰知造化自鴻濛

돌 새기고 절벽 깎아서 한 누각을 세우니  
 누각 가에는 창해요 창해 가에는 백구로다  
 죽서 고을 태수는 님 집의 아들이던고  
 미인을 배에 가득 싣고 밤놀이를 하는구나  
 이상은 죽서루첩(竹西樓帖)을 읊은 것이다.

雕石鐫崖寄一樓  
 樓邊滄海海邊鷗  
 竹西太守誰家子  
 滿載紅粧卜夜遊

원기가 아득히 넓은 바다에 펼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망양정을 만들었는고  
 흡사 공자의 집을 마음대로 구경하여  
 종묘와 궁장들을 역력히 보는 것 같네  
 이상은 망양정첩(望洋亭帖)을 읊은 것이다.

元氣蒼茫放海溟  
 誰人辦此望洋亭  
 恰如縱目宣尼宅  
 宗廟宮牆歷歷經

『弘齋全書』



## 최자

○ 관고(官誥)

동산수(東山叟) 최자(崔滋)<sup>48)</sup>

문하. 법은 스스로 서지 못하고 말로 인하여 세움으로 진승(眞乘)은 진언(眞言)을 총섭(總攝)하고, 덕은 일정한 스승이 없고 착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스승이 되므로, 큰 호(號)는 마땅히 크게 착한 이에게 가하여야 한다.

48) 최자(1108, 명종18-1260, 원종1)의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초명은 종유(宗裕)·안(安), 자는 수덕(樹德), 호는 동산수(東山叟)이다. 문헌공 충(冲)의 후손이고, 부친은 우복야 민(敏)으로, 1212년(강종 1) 과거에 급제하고 상주사록(尙州司錄)을 거쳐 국자감학유(國子監學諭)가 되었다. 10년간 중용되지 못하다가 일찍이 지어 놓은 시 「虞美人草歌」와 「水精盃」가 이규보(李奎報)의 눈에 띄어 최이(崔怡)에게 문하(文翰)를 담당할 사람으로 추천하였다.

추천받은 사람들 간의 시험에서 5번 장원을 하고, 5번 차석을 했으며, 고종 때 정언을 거쳐 상주목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전중소감(殿中少監)·보문각대제(寶文閣待制), 충청도·전라도 안찰사, 국자감대사성·지어사대사·상서우복야·한림학사·추밀부사 등을 역임했다. 문신이면서도 무인정권기에 대표적 문벌로서 활동했다. 저서로 『崔文忠公家集』·『補閑集』이 있다. 『三韓詩龜鑑』에 시 1편이, 『東文選』에 부(賦) 2편, 시 10편 등이 수록되어 있고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낙산사(洛山寺) 주지(住持) 선사(禪師) 조유(祖猷)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삼매(三昧)의 힘으로써 일체의 마귀를 제압할 수 있었다. 진양공(晉陽公)이 수십 일 동안 병을 앓고 있을 적에, 천리 밖의 낙가산(洛伽山)으로부터 갑자기 와서 용주(龍呪)를 외었는데, 바리때 밑에 막 금강저(金剛杵)의 소리를 드날리자, 술잔 가운데에 비친 뱀이 곧 각궁(角弓)의 그림자인 것을 깨달았다. 이에 상쾌하고 화평한 기운이 빨리 돌아와 우뚝하게 태산이 다시 편안한 것 같았다. 나만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이에 봉조(鳳詔)를 반포하여 특별히 큰 칭호를 준다.

아, 우리 여래(如來)를 제호(醜酬)라 이르나니 이것이 최상의 법장(法藏)이 되는 것인데, 어찌 선왕(先王)이 용상(龍象)에게 품계를 내릴 적에 선사(禪師)에게 큰 대(大)자를 더하지 않았던가. 작위는 반드시 사람을 기다리므로 등급을 초월하는 상을 내리노니, 마땅히 특별히 보살펴주는 뜻을 체득하여 더욱 국가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힘써야 한다.

官誥

門下。法不自立因言而立。眞乘摠攝於眞言。德無常師主善爲師。大號宜加於大善。洛山寺住持禪師祖猷。以頌持三昧力。能攝伏一切魔。當晉陽公累旬而未寧。自洛伽山千里而忽至。呪龍鉢下。才揚金杵之音。映蛇盃中。旋覺角弓之影。灑然和氣之遶集。屹若泰山之復安。非朕獨嘉。舉國咸喜。茲頒鳳詔。特賜鴻稱。於戲。我如來謂之醜酬。是爲最勝之法藏。何先王秩其龍象。例不加大於禪師。位必待人。賞以不次。當體殊尤之眷注。益勤福利於邦家云云。

『東文選』卷之二十七, 制誥



## 김부의

○ 낙산사(洛山寺)-양양부에서 북쪽으로 십오 리 오봉산 중에 있다(襄陽府北十五里五峰山中)

김부의(金富儀)<sup>49)</sup>

49) 김부의(1079, 문종33~1136, 인종14)는 고려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고 초명은 부철(富轍), 자는 자유(子由)이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富軾)의 아우로 1097년(숙종2) 문과에 급제하고 직한림원(直翰林院)이 되었다. 1111년(예종6)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추밀원부사 김연(金緣)을 따라 송나라에 가서 문명을 떨치고 귀국하여 감찰어사가 되었다. 1124년(인종2)사은부사로 송나라에 다녀왔고, 대사성과 이부·호부·예부의 3부상서(三部尙書)를 거쳐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이 두 편의 시 중에 첫수는 高, 勞, 濤의 운자를 썼다. 낙산사의 높은 곳에 올라 아름다운 풍경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세속에 대한 순화된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곳에서 의상과 같은 고승들이 득도한 곳으로 그 이치를 터득하고 싶은 소망으로 찾았지만 자신에게는 깨우침의 공간이 아니라 다만 파도소리 밖에 들을 수 없는 자신의 심회를 표현하였다.

둘째 수는 東, 紅, 中의 운자를 썼다. 한 밤 중에도 흰 물결이 일고 일출 전에 붉은 구름이 바람에 흩어진 다. 아침 해가 흥련암의 해안 석굴을 비추자 파도의 포말들이 영롱한 구슬이 흩어지는 느낌에서 관음의 진상을 대하는 것처럼 경이함을 느끼고 쓴 시이다.

한번은 해안 높은 언덕에 올라  
머리 돌려 멀리 바라보니 세상 근심이 없어지네  
대성(大聖-관음보살)의 깨달음 이치 알고 싶으면  
산근(山根)에 부딪치는 노한 파도 소리만 들어보게

一自登臨海岸高  
回頭無復舊塵勞  
欲知大聖圓通理  
聽取山根激怒濤

한밤 중 동쪽 바다에 해가 솟아오르고  
불어오는 바람결에 붉은 구름 날리네  
맑은 빛 어룡굴을 바로 비치니  
물가의 전각에 물결은 유리처럼 흠어지는구나  
『金剛山詩集』下篇

半夜銀輪湧海東  
長風吹散彩雲紅  
清光直射魚龍窟  
照破琉璃水殿中



## 김극기

###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노봉(老峰)

김극기(金克己)

다행히 묘경(妙境)을 찾아 떠돌던 몸 머무르니  
생각이 맑아지고 보는 것이 그윽하여 온갖 잡념이 없어지네  
물결 밑의 달은 누가 하늘과 땅을 구분하리  
봉우리 끝 구름은 저절로 서동(西東)을 차지하네  
금당(金堂) 속 가짜 상을 잠깐 보았을 때  
석굴(石窟) 속 진신을 벌써 보았네  
대사를 도와 7일 재함을 기다리지 않아도  
그의 마음은 기원에 응해 먼저 통했구나

幸尋妙境住萍踐  
澄慮冥觀萬想空  
浪底月誰分天下  
峰端雲自占西東  
俄瞻假像金堂裏  
已見真身石窟中  
不待相師齋七日

자연을 벗하며 낙산사에 머무르니 묘경으로 생각이 맑아지고 온갖 상념이 사라졌다.  
석굴에서 관음의 진상을 친견하려고 기도하니 마음이 통했다고 노래하고 있다.

### ○ 새의 길 아득하게 북쪽 바다에 이어져(鵬路森茫連北浸)

노봉(老峰)

김극기(金克己)

일찍이 말고삐를 멈추고 잠깐 머뭇거렸는데  
말을 달려서 다시 찾으니 경치가 더욱 새롭네  
봉새의 길은 아득하게 북쪽 바다에 이어졌고  
낙산은 멀리 동쪽 바닷가와 접해 있네

曾停客轡暫逡巡  
躍馬重尋景更新  
鵬路森茫連北浸  
蝶墟迢遞接東賓

물결 사이의 그럴 듯한 것은 냉천을 엿보는 나그네요  
 물 밑의 희미한 것은 바다를 보는 사람이네  
 내 돛을 펼쳐서 큰 구멍을 넘고자 하나  
 천오(天吳)가 성냄이 신과 같구나

波間髣髴窺泉客  
 水底依稀見海人  
 我欲張帆超巨壑  
 天吳鼓怒若爲神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냉천은 부 북쪽 15 리에 있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관음 보살이 덕녀로 변해 벼를 베고 있는데 이곳에서 원효대사와 냉천의 물을 마시면서 함께 실없는 말로 농지거리를 하였다’고 한다. 여행을 멈추고 이곳에서 잠시 머물며 냉천을 노래하였다.



## 유자량

###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유자량(庾資諒)<sup>50)</sup>

50) 유자량(1150년, 의종4~1229년, 고종16)의 본관은 무송(茂松)이고 자는 담연(湛然)이다. 16세 때부터 유가(儒家)의 자제들과 교유하였으나 무인(武人)들과도 교제를 하여, 정중부(鄭仲夫)의 난 때 화를 면하였고, 그와 사귀던 사람들도 모두 화를 면하였다. 대부소경(大府少卿)·병부시랑·형부시랑·대부경(大府卿)·지삼사사(知三司事)·판대부사재사(判大府司宰事)·태자첨사(太子詹事)·판각문사(判閣門事)·지다방사(知茶房事)를 역임하였고, 고종 때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가 되어 치사(致仕)하였다. 불교를 신봉하였다.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671)에 의상(義湘)대사가 창건하였고, 현안왕 2년(858)에 범일(梵日) 선사가 중건하였다고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스님인 익장(益莊)의 기문(記文)에 “양양 동북쪽에 낙산사가 있다. 절 동쪽 두어 마장쯤 되는 큰 바닷가에 굴이 있는데, 높이는 1백자 가량이 되고 크기는 곡식 1만 섬을 싣는 배라도 용납할 만하다. 그 밑에는 바닷물이 항상 드나들어서 측량할 수 없는 구렁이 되었는데, 세상에서는 관음대사가 머물던 곳이라 한다.

굴 앞에서 50보쯤 되는 바다 북편에 바위가 있고, 바위 위는 자리 한 닢을 펼 만한데, 수면에 나왔다 잠겼다 한다. 옛적 신라 의상대사가 친히 관음보살을 만나기 위하여 바위 위에서 자리를 깔고 배례를 하였다. 27일이나 정성스럽게 하였으나 오히려 볼 수 없었으므로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동해 용왕이 바위위로 붙들고 나왔다. 관음보살이 곧 바다 속에서 팔을 내밀며 수정염주를 주면서 ‘내 몸은 직접 볼 수 없다. 다만 굴 위에 두 그루의 대나무가 솟아난 곳에 가면, 그곳이 나의 머리꼭지 위다. 거기에서 불전을 짓고 상설(像設)을 안배(安排)하라’ 하였다. 용도 또한 여의주와 옥(玉)을 바치는 것이었다. 대사는 구슬을 받고 그 말대로 가니 대나무 두 그루가 솟아 있었다. 그곳에서 불전을 창건하고 용이 바친 옥으로써 불상을 만들어 봉안하였는바, 곧 이 절이다” 하였다.

우리 태조(고려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봄, 가을에 사자를 보내어 사흘 동안 재를 실시하여 치성을 하였고, 그 후에는 감령에 적어서 향규로 하였다. 그리고 수정염주와 여의주는 이 절에 보관하여 보물로써 전하게 하였다. 계축년(1253)년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왔으므로 이 주(州)는 설악산에 성을 쌓아 방어 하였다. 성이 함락되자 절의 노비가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땅에 묻고 도망하여 조정에 고하였다. 몽고군이 물러간 후에 사람을 보내 자저다가 내전(內殿)에 간수하였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사람이 굴 앞에 와서 지성으로 배례하면 청조(靑鳥)가 나타난다’ 하였다. 명종(明宗) 정사년(1197)에 유자량이 병마사가 되어 10월에 굴 앞에 와서 분향 배례하였더니 청조가 꽃을 물고 날아와서 복두(幘頭) 위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드문 일이라 한다 하였다.

낙산사의 금당(金堂)은 관세음보살을 모신 원통보전(圓通寶殿)이고 낙산사를 관음도량이라 한다. 또한 그 굴을 관음굴이라 하고 흥련암이라 부르는 암자가 세워졌다. 조선시대에 세조는 낙산사에 행차하여 사찰



해안의 절벽 높은 곳  
그 가운데 낙가봉(洛迦峯)이 있다  
큰 성인은 머물러도 머뭇이 아니고  
넓은 문은 닫아도 닫음이 아니네

海岸高絕處  
中有洛迦峰  
大聖住無住  
普門封不封

명주는 내가 탐하는 것 아니라  
청조는 사람을 만났세  
다만 원하노니 큰 물결 위에서  
만월 같은 관음의 모습 뵈고 싶네

明珠非我欲  
青鳥是人逢  
但願洪波上  
親瞻滿月容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 ○ 낙산사(洛山寺)

고려 중 익장(益莊)의 기문에, “양주(襄州) 동북쪽 강선역 남쪽 동리에 낙산사가 있다. 절 동쪽 두어 마장쯤 되는 큰 바닷가에 굴이 있는데, 높이는 1백 자 가량이고 크기는 곡식 1만 섬을 싣는 배라도 용납할 만하다. 그 밑에는 바닷물이 항상 드나들어서 측량할 수 없는 구렁이 되었는데, 세상에서는 관음대사(觀音大士)<sup>51)</sup>가 머물던 곳이라 한다. 굴 앞에서 오십 보쯤 되는 바다 복판에 돌이 있고, 돌 위에는 자리 하나를 펼 만한데 수면에 나왔다 잠겼다 한다. 옛적 신라 의상법사(義相法師)가 친히 불성(佛聖)의 모습을 보고자 하여 돌 위에서 전좌 배례(展坐拜禮)하였다. 27일이나 정성스럽게 하였으나 그

---

을 크게 중수하고 주위에 성을 쌓게 하였다. 이때 만든 성문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강원도 고을 수에 맞추어 26개의 홍예석을 써서 조영(造營)하였다고 전하여 온다.

낙산사 원통보전 주위의 담장은 기와를 이용하여 쌓은 것으로 불에 구워서 완성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비바람에도 흠이 씻겨 내리지 않아 아주 튼튼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담장에는 동그란 돌로 심을 박아 보강을 하였는데, 이는 하늘의 별자리를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어 이곳이 곧 극락세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봉산은 낙가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관음보살의 상주처인 인도의 보타낙가산(普陀洛迦山)에서 연유된 것이다.

첫 수는 峯, 封 운 둘째 수는 逢, 容의 운자를 썼다. 고려 유자량이 병마가사 되어 관음굴 앞에 이르러 분향재배하니 청조가 꽃을 물고 날아와 노래하며 꽃을 두건 위에 떨어뜨렸다. 유자량의 시에 명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청조를 이 사람이 만나 것이라고 노래하며 자신이 관음의 진상을 뵈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51)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보고 구원의 손길을 뻗는 보살이라 하여 관세음(觀世音) 또는 관음(觀音)보살이라 한다. 낙산의 월명은 보타락가산으로, 약해서 낙산이 됐다. 곧 낙산사가 들어선 현장은 관세음보살의 8대 성지 가운데 하나로 세계적인 성지다.

고려 스님 익장(益莊)이 써 남긴 낙산사의 유래는 이렇다. 지금 의상대 맞은편 바다를 향한 암굴 속에 관세음보살이 사는데 신라의 의상(義湘) 대사가 그 굴 오십 보 앞 바닷물에 잠겼다 드러났다 하는 암반에 두 이레를 앉아 관음의 모습을 보고자 기도를 했다. 끝내 드러내지 않자 부덕을 자책,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보살이 용으로 하여금 앞발을 뻗게 해 구하고서 수정 염주와 여의주를 주면서 “내 몸은 볼 수 없다. 다만 굴 위에 대나무 두 그루가 솟아있는 곳이 내 정수리이니 그곳에 절을 짓고 불상을 모셔라” 했다. 그렇게 지은 절이 낙산사요 수정 염주와 여의주는 사보(寺寶)로 간직해 내려오는 동안 외난과 화재로부터 안전했다. 몽골 침략 때 절의 종이 이 두 보물을 땅에 묻어 보존했다는 것을 끝으로 행방을 알 수 없다.

래도 볼 수 없었으므로,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동해 용왕이 돌 위로 붙들고 나왔다. 대성(大聖)이 곧바로 속에서 팔을 내밀어, 수정염주(水精念珠)를 주면서, ‘내 몸은 직접 볼 수 없다. 다만 굴 위에서 두 대나무가 솟아난 곳에 가면, 그곳이 나의 머리 꼭지 위다. 거기에다 불전(佛殿)을 짓고 상설(像設)을 안배하라.’ 하였으며 용(龍) 또한 여의주와 옥을 바치는 것이었다. 대사는 구슬을 받고 그 말대로 가니 대나무 두 그루가 솟아 있었다. 그곳에다 불전을 창건하고 용이 바친 옥으로써 불상을 만들어서 봉안하였는바, 곧 이절이다.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봄가을에 사자(使者)를 보내 사흘 동안 재를 실시하여 치성하였고, 그 후에는 갑령(甲冑 항상 하는 일)에 적어서 항규(恒規)로 하였다. 그리고 수정염주와 여의주는 이 절에 보관해 두어 보물로써 전하게 하였다. 계축년에, 원(元) 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왔으므로 이 주(州)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 방어하였다. 성이 함락되자, 절 종(奴)이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땅에 묻고 도망하여 조정에 고하였다. 침입군이 물러간 후에 사람을 보내 가져다가 내전(內殿)에 간수하였다. 세상에 전해 오기로는, ‘사람이 굴 앞에 와서 지성으로 배례하면 청조(靑鳥)가 나타난다.’ 하였다. 명종(明宗) 정사년에, 유자량(庾資諒)이 병마사가 되어 시월에 굴 앞에 와서 분향 배례하였더니, 청조가 꽃을 물고 날아와서 복두(幘頭) 위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서는 드물게 있는 일이라 한다.” 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 이곡

○ 동유기(東遊記)

가정(稼亭)

이곡(李穀)<sup>52)</sup>

52) 이곡(1298, 충렬왕24~1351, 충정왕3)의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자는 중부(仲父), 호는 가정(稼亭)이다. 아들이 색(穉)이고, 백이정(白頤正)·정몽주·우탁(禹倬)과 함께 경학(經學)의 대가로 꼽힌다. 1317년 거자과(擧子科)에 합격,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1332년 원나라에서 정동성 향시(鄕試)에 수석, 전시(殿試)에 차석으로 급제했고, 한림국사원검열관(翰林國史院檢閱官)이 되어 원나라 문사들과 사귀었다. 1334년 귀국하여 가선대부 시전외부령직보문각(嘉善大夫試典儀副令直寶文閣)을 제수받았다. 이듬해 다시 원나라에 가서 정동행중서성좌우사원외랑(征東行中書省左右司員外郎) 등의 벼슬을 거쳤고, 고려에서의 처녀 징발을 중지하도록 건의했다. 문장이 뛰어나 원나라에서도 존경받았다. 가전체 작품 〈죽부인전 竹夫人傳〉과 100여 편의 시가 『東文選』에 전하며 저서로 『가정집』 4책 20권이 전한다. 한산의 문헌서원(文獻書院), 영해의 단산서원(丹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태평루는 객관 남쪽에 있었다. 16칸으로 원나라 인종연우 2년(1315)에 창건 되었고, 경인년에 중 창되었다. 파면시켰다 다시 은총을 입어 나랏일을 하며 양양에 들러 태평루에서 이 시를 지었다. 동우는 전성시처럼 강건하다. 백성들은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다. 판나라 吳隱之가 貪泉이란 시가 있다

옛 사람이 이 샘물을 말하기를

古人云此水

한번 마시면 천금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네

一飲懷千金

백이와 숙제에게 이 샘물을 마시게 한다 해도

試使夷齊飲

지정(至正) 9년 기축년(1349, 충정왕 1) 가을에 장차 금강산(金剛山)을 유람하려고 14일에 송도(松都)를 출발하였다. -중략-

8일에 영랑호(永郎湖)에 배를 띄웠다. 날이 기울어서 끝까지 돌아보지 못하였다. 낙산사(洛山寺)에 가서 백의대사(白衣大士 관세음보살)를 참알(參謁)하였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관음보살이 이곳에 머문다고 하는데, 산 아래 석벽에 있는 동굴이 바로 관음보살이 들어가서 머무는 곳이란단다. 저녁 늦게 양주(襄州)에 도착해서 묵었다.

그 다음날은 중구일(重九日)인데, 또 비가 와서 누대 위에서 국화 술을 들었다. 10일에 동산현(洞山縣)에서 유숙하였는데, 그곳에 관란정(觀瀾亭)이 있었다. 11일에 연곡현(連谷縣)에서 묵었다.

12일에 강릉 존무사(江陵存撫使)인 성산(星山) 이군(李君)이 경포(鏡浦)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배를 나란히 하고 강 북판에서 가무를 즐기다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포대(鏡浦臺)에 올랐다. 경포대에 예전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근래에 풍류를 좋아하는 자가 그 위에 정자를 지었다고 한다. 또 옛날 신선의 유적이라는 석조(石竈 돌 아궁이)가 있었는데, 아마도 차를 달일 때 썼던 도구일 것이다. 경포의 경치는 삼일포와 비교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지만, 분명하게 멀리까지 보이는 점에서는 삼일포보다 나았다.

비 때문에 하루를 머물다가 강성(江城)으로 나가 문수당(文殊堂)을 관람하였는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보현보살(普賢菩薩)의 두 석상이 여기 땅속에서 위로 솟아나왔다고 한다. 그 동쪽에 사선(四仙)의 비석이 있었으나 호종단에 의해 물속에 가라앉았고 오직 귀부(龜趺)만 남아 있었다. 한송정(寒松亭)에서 전별주를 마셨다. 이 정자 역시 사선이 노닐었던 곳인데, 유람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고을 사람들이 싫어하여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소나무도 들불에 연소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오직 석조(石竈)와 석지(石池)와 두 개의 석정(石井)이 그 옆에 남아 있는데, 이것 역시 사선이 차를 달일 때 썼던 것들이라고 전해진다. 정자에서 남쪽으로 가니 안인역(安仁驛)이 있었다. 해가 이미 서쪽으로 넘어가서 재를 넘을 수가 없기에 마침내 그곳에 머물러 숙박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여 역을 지나서 동쪽 산봉우리를 오르는데 길이 매우 험하였다. 등명사(燈明寺)에 도착해서 누대 위에서 일출을 구경하고, 마침내 바다를 따라 동쪽으로 향하여 강촌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재를 넘어 우계현(羽溪縣)에서 묵었다. 12일에 삼척현(三陟縣)에서 유숙하였다. 이튿날 서루(西樓)에 올라 이른바 오십천(五十川)의 팔영(八詠)이라는 것을 마음껏 살펴보고 나와서 교가역(交柯驛)에 이르렀다. 이 역은 현

---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리라

終當不易心

이 샘물을 마시면 육심쟁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진 태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심회를 표현 하였다. 두 번째 시는 태평루의 풍경이 넉넉하여 오가며 찾은 지가 2년이나 되었다. 이곳에서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며 눈같이 맑고 시원한 시로 화답하고 싶지만 자신의 문장이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며 심회를 읊고 있다.

의 치소(治所)에서 30리 떨어진 지점에 있다. 그곳에서 15리를 가면 바다를 굽어보는 단애 위에 원수대(元帥臺)가 있는데, 또한 절경이었다. 그 위에서 조금 술을 마시고는 마침내 역사에 묵었다. 18일에 옥원역(沃原驛)에서 묵었다. 19일에 울진(蔚珍)에 도착하여 하루를 머물렀다.

『稼亭先生文集』卷之五, 「東遊記」

至正九年己丑之秋. 將遊金剛山. 十四日. 發松都.

初八日. 泛舟永郎湖. 日晚不得窮源. 到洛山寺謁白衣大士. 人言觀音菩薩所住. 山下石崖有竇. 是觀音所入處也. 晚至襄州宿. 明日重九. 又有雨舉菊觴於樓上. 十日. 宿洞山縣. 有觀瀾亭. 十一日. 宿連谷縣. 十二日. 江陵存撫使星山李君侯于鏡浦. 方舟歌舞中流. 日未西. 上鏡浦臺. 臺舊無屋. 近好事者爲亭其上. 有古仙石竈. 蓋煎茶具也. 與三日浦相甲乙. 而明遠則過之. 以雨留一日. 出江城觀文殊堂. 人言文殊. 普賢二石像從地湧出者也. 東有四仙碑. 爲胡宗旦所沉. 唯龜跌在耳. 飲餞于寒松亭. 亭亦四仙所遊之地. 郡人厭其遊賞者多. 撤去屋. 松亦爲野火所燒. 惟石竈石池二石井在其旁. 亦四仙茶具也. 由亭而南. 有安仁驛. 日已西. 不可踰嶺. 遂留宿. 明日. 早發過驛. 東峯甚險. 至燈明寺觀日出臺. 遂並海而東. 憇于江村. 踰嶺宿羽溪縣. 十二日. 宿三陟縣. 明日. 登西樓. 縱觀所謂五十川八詠者. 出至交柯驛. 驛去縣治三十里. 於十五里臨海斷崖上有元帥臺. 亦絕景也. 小酌其上. 遂宿驛舍. 十八日. 宿沃原驛. 十九日. 到蔚珍留一日.

『稼亭先生文集』卷之五



## 이정형

○ 낙산사차판상운(洛山寺次板上韻)      지퇴당(知退堂)      이정형(李廷馨)<sup>53)</sup>

풍경소리 맑게 들리는 등불 밑에

一聲清磬一籠燈

53) 이정형(1549, 명종 4~1607, 선조 40)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덕훈(德薰), 호는 지퇴당(知退堂)·동각(東閣)이다. 1568년(선조1)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임금을 호종(扈從), 개성부유수로 특진되었다. 이때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개성이 함락되자 형 정암(廷穉)과 함께 의병을 모아 왜적을 격파했다. 1

594년 고급사(告急使)로 요동(遼東)에 다녀왔다. 이후 홍문관부제학·이조참판·비변사당상·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1602년 예조참판이 되어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6년 삼척부사로 부임, 이듬해 병으로 죽었다. 평소 이황(李滉)을 흠모하여 호를 지퇴당(知退堂)이라 지을 정도였던 그는 남인인 이원익·이수광(李睟光) 등과 가까이 지내며 학문을 연마했다. 저서로는 『東閣雜記』·『黃兎記事』·『壽春雜記』·『지퇴당집』 등이 있다. 춘천 문암서원(文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이 작품은 1606년 삼척부사로 부임하여 낙산을 찾아 쓴 것으로 보인다. 낙산사의 맑은 풍경소리 은은히 들리는데 고요히 등불아래 잠선하며 깨달음에 정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속세의 인간으로 파듯소리의 시름만 더 한다. 갈 길은 멀어 시름은 더하는데 동창을 열고 멀리 삼신산을 바라보면 속세의 인연에서 벗어나 신선이 되고 싶은 심회를 토로하고 있다.

고요히 참선하는 승려 있구나  
 인생의 괴로움 어느 날 그칠 것인가  
 파도소리 여운은 여수만 더하는구나

坐待伽趺入定僧  
 自笑勞生何日記  
 海濤聲裏旅愁增

시름걱정 아직도 끊이지 않고  
 갈 길 멀어서 힘에 겹구나  
 동창을 활짝 열어 두 눈을 들어  
 보일듯한 삼신산을 아득히 바라본다오

多病相如未解消  
 不堪鞍馬去程遙  
 東窓拓盡擡雙眼  
 隱約三山八望迢

『知退堂集』



## 김시습

○ 산중의 답답함을 유 공희에게 보여주며(山中悶甚示柳公翬)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sup>54)</sup>

객관에서 무료하여 술에 반쯤 취했는데  
 예쁜 꽃 한 송이가 좋은 향길 풍기누나

客館無聊酒半醺  
 好花日朶吐奇芬

54) 김시습(1435년, 세종 17-1493년, 성종 24)의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열경(悅卿)이고, 호는 매월당(梅月堂), 동봉(東峰), 벽산청은(碧山淸隱), 혜세옹(贅世翁)이고, 법호는 설잠(雪岑)이다. 선조는 신라 무열왕의 6대손인 김주원(金周元)의 후손이다. 김시습은 5세에 학문과 문장으로 신동으로 알려져 당시 정승 허조와 세종대왕에게 문장능력을 인정받고 미래를 약속 받았다. 하지만 단종 폐위 사실을 듣고 책을 불사르고 머리를 깎고 방랑을 시작하였다.

단종에게 절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생육신의 한사람으로 최초의 한문소설인 『金鰲新話』를 지었다. 조선조 최고의 문인이지만 불우한 현실에서 기인이고, 미치광이로 대접받으면서도 자신의 지조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자신의 가문과 철학, 불교관, 인생관 등 자신을 인정하고 위로하였던 양양부사 유자한에게 서신으로 예의를 갖추었고, 서신의 내용이 김시습과 당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이다.

유자한(柳自漢?)의 본관은 진주이다. 1459년(세조 5) 평양별시문과(平壤別試文科)에 1등으로 급제하여 1464년 경기도경차관(京畿道敬差官)이 되었다. 이듬해 중시문과(重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고, 1466년 지평을 지냈다. 1475년(성종 6) 홍문관부교리가 되고, 1478년 예문관응교·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을 지낸 뒤 1482년 행사간(行司諫)을 지냈다.

1486년(성종 16) 양양부사로 재임하면서 의창(義倉)의 환자〔還上〕에 따른 폐단을 상소하여 백성들의 구휼에 힘썼다.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배소에서 죽었다. 양양부사로 있으면서 양양의 백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유부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유배지에 죽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단종에게 절의를 지키기 위해 방랑생활을 하였던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金時習)과 서로 위로하며 가까이 지냈다.

김시습에 관한 가문과 어린 시절, 그리고 많은 일화들이 양양부사 유자한의 서신에 나타나 있다. 유부사는 양양의 여인을 김시습에게 소개하여 편안한 가정을 꾸밀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김시습은 평생 전국을 방랑하였지만 유부사 때문인지 몰라도 문집 속에 양양에 관한 기록과 설화가 많이 전해오고 있다. 오세암의 전설을 보면, 매월당 김시습이 이 절에서 주로 은거하여 오세암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이 시는 부사 유자한의 접대로 양양 객관에서 머물며 술이 취해 예쁜 꽃송이를 보고 지었다. 양양의 전통적인 풍류와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사내들 곳곳마다 풍류 벌어지니  
날마다 고당(이름난 기생)과 채색 구름 꿈꾸네

男兒到處風流在  
日日高唐夢綵雲

서쪽으로 장안을 바라보니 갈 길은 멀다마는  
양양 고을 기생들이 특별히 아름답네  
내일도 점점 복잡해도 마음 아니 조이는데  
버들가지 이제부터 긴 가지에 얽히었어라

長安西望道途遙  
花語襄陽特地嬌  
明日漸多心不迫  
柳枝從此綰長條

양양은 예부터 풍류가 심하였는데  
지금까지 숙부님의 정사가 가장 우수하네  
행장차려 서쪽으로 웃고 가지 말고  
맑은 술로 국화 필 때 한 잔 하세  
『梅月堂集』 卷之三

襄陽自古甚風流  
叔父于今政最優  
且莫俶裝西笑去  
清樽相對菊花秋

○ 낙산 노장(老丈)의 방 좌하(座下)에서(洛山丈室座下) 5수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바다 위 푸른 봉우리 바다 속을 비추니  
고승이 편히 앉아 자단(紫檀),沉香(沉香)을 피우네  
열반(涅槃)을 강의하는 곳엔 모진 돌도 신통해 지고  
찰리(왕족)가 교차될 때 도관(道觀)도 회복되네  
나 인연 있어 법석(法席)에 참여한 것 기뻐하고  
대사 추하게 아니 보아 불설(佛說) 들려주셔 감사하네  
멀리서 사알룡(娑謁龍) 와서 들으니 알겠고  
제일 화엄경 말끝마다 금이 나온다네

海上青峰映海心  
高僧宴坐藜檀沈  
涅槃講處神頑石  
刹利交時復道林  
喜我有緣參法席  
感師不鄙唯圓音  
遙知娑謁龍來聽  
第一華嚴口口金

선사는 승고하고 기략과 말을 잘하여  
일찍이 제사(提婆)의 육상종(六相宗)을 논파했네  
명월과 청풍은 함께 하기 어렵고  
높은 산 흐르는 물에는 만나는 사람 적구나  
창에 반쯤 가린 푸른 대에 우수수 빗소리요  
뜰에 가득 누런 꽃 아래 귀뚜라미 소리  
만일 서쪽에서 온 뜻 분명히 묻는다면<sup>55)</sup>

禪師高峻有機鋒  
曾破提婆六相宗  
明月清風難共友  
高山流水少人逢  
半窓翠竹蕭蕭雨  
滿切黃花晰晰蝻  
若問西來端的意

55) 만약~묻는다면: 달마가 서쪽에서 중국으로 온 뜻을 묻는 것임.

두루 끄집어내 사람의 마음을 탁 트이게 함도 무방하리      不妨拈出豁人胸

현각스님 고귀한 가문 세상에선 둘도 없는데      永嘉右族世無雙  
그 다 버리고 여러 해 동안 말 복잡한 것 배웠네      拋累年來學語嘵  
보타산 그 앞에는 사나운 호랑이 었드렸고      寶陀山前獐虎伏  
사바 바다 그 가에는 독룡이 항복했네      薩娑海畔毒龍降  
미투리에 대 지팡인 선사의 사는 방도요      芒鞋竹杖禪生計  
불경과 향로 이 둘은 계율의 표당(깃발)일세      經卷香爐戒標幢  
장로님의 마음 근본을 사람들은 아는가      長老心源人會否  
바퀴 같은 달이 소나무 창에 비추네      一輪明月照松窓

고향의 형님, 아우는 유림에 발탁되었는데      舍兄及弟擢儒林  
등 같은 불법 전해 받아 아우는 불심에 합했네      阿弟傳燈契佛心  
부처님과 소왕(素王)이 모두 다 한 궤도를 걸어가니      覺帝素王同一軌  
대나무 생황 오동나무 슬(瑟) 같은 음을 갖추었네      竹笙桐瑟備諸音  
십년 세월 형설 끝에 불경 열어 다 통했네      十年螢雪窮經達  
만겁 단(檀) 같이 닦아 도 깨닫기 깊었다네      萬劫檀修悟道深  
만일에 그 공부가 같고 다름을 묻는다면      若問功夫同與別  
장차 같을 게 없다는 밖에 다시 무엇을 찾으랴      將無同外更何尋

난수정(難水亭) 그 앞에선 뜬 갈매기와 친했고      難水亭前押泛鷗  
의상대 난간에 서서 조각배를 바라보고 있네      義湘臺畔看扁舟  
참선 마음 맑고 고요하긴 망망한 창해 바다요      禪心淡泞如蒼海  
법상(法相) 평화롭고 조용함은 흰 소와 같다네      法相雍容似白牛  
늙어가니 이마에도 응당 눈이 있을 게요      老去頂畝應有眼  
한가해도 구름 달박엔 다시 짝할 이 없네      閑來雲月更無儔  
파도소리 산 빛은 썩 작은 티끌의 게(偈)<sup>56)</sup>요      波聲山色微塵偈  
지각없는 사람 앞에선 꿈 이야기 그만 두었네      無智人前說夢休  
『梅月堂集』 卷之三

○ 낙산사에서 선 대사에게 주머(洛山寺贈禪上人) 3首.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sup>57)</sup>

56) 게(偈): 부처의 공덕이나 교리를 찬미하는 노래글귀.

57) 김시습은 어린 시절부터 전통적인 유가의 집안에서 유가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단종폐위 이후 불자임을 자처하며 불자의 길을 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사찰과 고승들과의 교류가 많이 남아 있다.

한번 보니 깨끗한 그 태도는 옛 친구 같은데	一見清標似舊知
모습을 사모한 지 벌써 오래 되었네	羨牆面目已多時
절조(節操) 크기는 높은 소나무와 대나무 모양	節操落落松筠態
몸가짐 밝고 높아 난새, 학의 의포 이네	容止昂昂鸞鶴儀
고요한 참선 의자에서 창해의 달을 보는데	禪榻靜看滄海月
다천(茶泉)에는 한가로이 푸른 못의 교룡(蛟龍) 흔드네	茶泉閑擾碧潭螭
대사 따라 도(道)를 물으러 어느 땐가 가게 되면	從師問道他時去
검은 눈동자에 쌓인 백태 긁어내는 금칼 되리라	積瞖玄眸肯刮鋸

방장(方丈)은 봉래(蓬萊)가 가까이 있는데	方丈蓬萊指顧中
흰 구름 누런 학은 긴 구름 타고 가네	白雲黃鶴馭長風
신기루 그림자 교인(蛟人-인어)의 집을 놀렸고	蜃樓影壓蛟人室
금 불전의 광채 해약(海若-바다 신)궁에 뚫고 드네	金刹光穿海若宮
담소하며 용은 밑 없는 바리때에 항복하고	談笑降龍無底鉢
경행(經行)으로 뱀 범 같고리 있는 지팡이에 굴복하네	經行伏虎有鉤?
바위 속에 편안히 앉았으니 하늘 꽃이 비 오듯 내리는데	巖中宴坐天花雨
풍진 세상의 뜨고 잠김이 별안간 공(空)이 되네	塵世浮沈轉眼空

흐리고 무지한 인간이라 만 가지 일 다 글렀는데	質買人間萬事非
장자와 열자 따라 삼기(三機)를 배웠네	欲從莊列學三機
뜬 인생 한 되는 건 바람 앞에 등불인 양 변화하는 것	浮生有限風燈變
부질없이 죽는 게 새끼 새 나는 데 무슨 도움되리	浪死何裨鷄鳥飛
선녀가 차(茶를) 받드니 향주(香廚-절의 부엌)가 깨끗하고	天女供茶鄉廚淨
산(山) 잔나비 바리때 받드니 도(道) 기름지고 살찌네	山猿擎鉢道腴肥
그 무슨 인연 얻어 생(生) 없다는 말씀 늘 들으며	何緣恒聽無生話
돌집 소나무 다락에서 그대와 함께 의지하리	石室松龕共爾依

『梅月堂集』 卷之三

특히 낙산사를 자주 찾았다. 이 시는 낙산사의 법연에서 화엄경을 들려주는 스님에 대한 고마움을 읊고 있다. 화엄경은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화엄종을 배우고 돌아와 낙산사를 중심으로 화엄종을 창시하였다. 화엄종은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첫 제자에게 최초로 설법한 것이 화엄종으로 설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면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다.

김시습은 유가이면서도 불가에 심취하여 설점이라는 법호를 사용하며 불가에 의지하여 생활하였다. 자신의 고향이고 근본인 강릉과 관동지방을 자주 왕래하며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이 지방에는 김시습에 관한 일화가 많이 전해 오고 있다. 첫 수에서 선대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선대사를 사모하여 만나보니 옛 친구처럼 느껴졌고, 그 스님의 모습은 정결하고 절개는 송죽처럼 굳고 몸가짐 또한 밝고 높아 난새와 학의 모습인 선대사의 태도와 모습을 칭송하며 심회를 노래하였다. 그리고 세째 수에서는 자신의 삶이 현실에서 어긋나 불행하지만 항상 책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체험한 심회를 표현하였다.





## 허균

○ 낙산사에 묵으며(宿洛山寺)

교산(蛟山)

허균(許筠)<sup>58)</sup>

오봉사를 다시 찾아오니

重尋五峯寺

풍경은 지난해와 다름이 없네

風景似前年

대숲 길은 오가는 가을 발길

竹逕通秋屐

화대엔 저녁연기 일어나네

花臺起夕煙

스님들이 늘어서서 환영하는데

歡迎羅衆衲

멋진 놀이 제천을 밟아가네

勝踐躡諸天

이미 무생인을 깨달았으니

已悟無生忍

숙연히 속된 인연 씻어 버렸다고

蕭然淨俗緣

『惺所覆瓿稿』卷之一 詩部一, 楓嶽紀行, 宿洛山寺

○ 석주에게 주는 글(與石洲書)<sup>59)</sup>

교산(蛟山)

허균(許筠)

58) 허균(1569년 선조 2-1618, 광해군10)의 본관이 陽川이고, 자는 端甫, 호는 蛟山, 惺叟, 惺惺翁, 白月居士이다. 초당(草堂) 허엽(許曄)의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친 허엽은 문장가로서 文名이 높았으며 大司諫承旨·副提學·大司成·大司憲·吏曹參議·경상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강한 성격과 그리고 명나라 進賀使가 되어 皇太子의 冊封을 祝賀하는 외교가로서 그리고 당쟁시대 중심인물이었다.

草堂의 前妻는 韓叔昌의 女로 큰 누이는 朴舜元에게, 次女는 禹性傳(문과급제, 대사성에 이르렀고, 임란 때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움)에게 출가하였다. 그리고 伯兄 箴이 있고, 후처인 金光輶(예조참판)의 女는 강릉김씨로 仲兄 箴과 작은누이 蘭雪軒 그리고 筠은 후처소생이다. 이처럼 筠은 후처소생으로 가정 내에서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정신적 갈등이 있었고, 이것이 그가 가정 내의 정실과 서얼문제에 관심을 갖고 소설로 형상화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草堂의 前妻는 韓叔昌의 女로 큰 누이는 朴舜元에게, 次女는 禹性傳에게 출가하였다. 그리고 伯兄 箴이 있고, 후처인 金光輶(예조참판)의 女는 강릉김씨로 仲兄 箴과 작은누이 蘭雪軒 그리고 筠은 후처소생이다. 9세(1577)에 부친을 따라 건천동에서 庠谷(明禮坊)으로 이사 하였다. 『於野譚』에 의하면 총명하고 영특하여 9세(1578, 선조 11)에 능히 作詩하였다.

교산 허균은 황해도 도사, 성균관 전직, 수안군수, 공주목사, 삼척부사, 형조참의 추천사로 명나라를 다녀왔다. 형조판서, 좌참찬 등을 역임 했으나 1618년 기준격이 상소를 올려 반역죄로 처형당하였다. 홍길동전과 문집 성소부부고 등이 있다.

25세(1593년, 선조26) 낙산사에서 두보의 시를 공부하였다. 허균은 낙산사에서 임진왜란 중에 아내와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학문정진에 힘써 26세에 대과에 급제하였다. 낙산사는 푸른 동해를 접하고 있고, 풍경이 아름다운 이곳에서 글을 읽으며 당쟁과 불합리한 현실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려는 자신의 이상을 정립한 곳이다. 청정하고 원대한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의 사상적 근원과 철학을 정립한 곳으로 학문적 토대가 되었다.

허균은 벼슬길에서 잦은 파직과 유배를 당하면 고향 강릉으로 돌아왔다. 조선조에 허균만큼 영욕의 삶을 산 사람도 없다. 이러한 삶속에서 교산은 불가의 세계를 좋아하여 불서와 불교사상을 심취해 있었다. 낙산사를 찾아 당대의 고승들과 교류하며 자신세계를 넓혀 왔다. 이 시는 낙산사를 찾아 묵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세속의 무상함을 깨닫고 속된 인연이 멀어짐을 아쉬워하며 노래하였다.

59) 석주에게 준 서찰에 의하면 몇 부임지인 낙산(洛山) 땅을 찾으니, 그 고을의 노인들이 모두 술병과 장작을 가지고 와서 다리를 덥혀 주었고, 태수(太守)가 또 기생과 풍류로 호사를 더해 주니 호연히 안석(安石)의 동산(東山)에서 노닐던 흥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서울에 있을 적에 형이 강도(江都)에서 보낸 편지를 받아보니, 나의 벼슬 잃음을 위로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나는 이미 수레를 단속하여 도성문을 나오는 참이었는데, 찾아 온 사환이 편지를 놓고 떠나겠다고 하기에 충망중이라 답장을 쓰지 못했으니, 우물쭈물 결례한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집을 떠난 이틀 만에 김 정경(金正卿)의 영평(永平) 별장에 닿으니 천학(泉壑)과 계산(溪山)의 아름다움은 지난해에 못지않았으나, 다만 한스러운 것은 대관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방안에 들어가니 단술이 항아리에 가득하여 향의(香蟻 술독에 뜬 쌀을 벌레에 비유한 것)가 한창 굵실거리니 형을 초치해다가 큰 술잔으로 권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형이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군침을 흘릴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러도 성벽에는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의 호)·하곡(荷谷 허봉(許篈)의 호)의 시가 남아 있어 청초하여 읊을 만했고 또 자민(子敏, 이안눌-李安訥의 자)의 시가 있었으나 바빠서 화운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를 만나 통구(通溝)에서 자고 단발령(斷髮嶺)을 넘어 멀리 1만 2천봉을 바라보니 빙 둘러 있는 봉우리들이 서로 읊을 하며 마치 나의 나들이 걸음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람하는 흥취가 날듯이 흥가분함을 스스로 금치 못하며 말을 재촉하여 장안사(長安寺)로 드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었습니다. 중 도관(道觀)이 호남에서 왔는데 그가 글을 약간 알기에 함께 이야기해 보니 매우 밝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왕백천동(十王百川洞)에 드니 깎은 듯한 바위는 땅 위로 솟아 뻗어 서 있고, 물은 솟구쳐서 내리고, 단풍은 우거져 하늘 가득 뻗뻗하였습니다. 15리쯤 가서 영원(靈源)에 당도하여 거기서 묵고, 새벽에 망고대(望高臺)를 향해 가는데, 골짜기는 좁고 벼랑은 깎아지른 듯하여, 쇠줄을 잡고 겨우 올랐습니다. 송라(松蘿) 아래 잠시 쉬고 드디어 만폭동(萬瀑洞)에 들어가 양봉래(楊蓬萊 봉래는 양사언-楊士彦의 호)의 팔대자(八大字)를 완상하니 필세(筆勢)가 나는 듯 하여 이 산과 더불어 웅(雄)을 닮았습니다. 돌아오면서 명연(鳴淵)에 닿아 저녁에 표훈사(表訓寺)에서 쉬니, 주승(主僧) 담유(曇裕)가 자리와 상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 진혈대(眞歇臺)에 올라 거기서 남여(藍輿)를 버리고 걸어서 개심사(開心寺)에 오르니 1만 봉우리가 눈앞에 죽 늘어 있어 그 모습을 이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높이 솟아 치켜든 것은 마치 그대가 우뚝하게 뻗어나 홀로 선 모습 같고, 그 현걸차고 기우뚱한 것은 마치 그대가 취해서 옥산(玉山)이 넘어지는 모습과 같았으니, 이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족히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17일 밤에는 정양루(正陽樓) 동쪽에서 달을 구경하였습니다.

원통(圓通)에서 조반을 들고 난 다음, 지름길로 사자봉(獅子峯)으로 질러가 보덕굴(普

---

파직되어 산수를 유람하던 허균에게 양양인의 변하지 않는 의리와 여유 있고 아름다운 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허균과 양양, 그리고 낙산사는 깊은 인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德窟)에서 목고는 화룡담(火龍潭)을 거쳐 마하연(摩訶衍)에 닿았습니다. 바람과 물, 삼나무·회나무가 밤새도록 부벼대고 너울거려 음향을 내니, 마치 생황과 학이 서늘하게 구름 밖에서 우는 듯 하였습니다.

바로 운흥(雲興)을 거쳐 구정봉(九井峯)에 오르다가 비가 오므로 비로봉(毗盧峯)에는 오르지 못하고 적멸(寂滅)에 당도하여 성문동(星門洞)을 내려다보니, 뭇 골짜기가 층층이 겹쳐 있어 마치 긴 바람이 바다에 파도를 일으켜 놓은 것 같았습니다. 두 중이 말하기를 ‘이곳에서 박달곶(朴達串)으로 가면 은신대(隱身臺)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신발을 준비하고 새벽 기운을 헤치면서 백전(白田)으로부터 꼬부랑길을 내려가 5리쯤 가니, 울퉁불퉁한 돌이 한데 모인 곳에 사나운 물줄기가 그 사이로 뿜어 대는데, 돌들은 모두 괴수처럼 생겨 그 모습이 마치 서로 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맨발로 건너왔습니다.

정오에 자월암(紫月庵)에서 쉬니 암자가 내산·외산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 그 승경(勝景)을 다 모두어 놓았는데, 대체로 구경꾼들이 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남쪽 비탈을 구불구불 내려와 불정대(佛頂臺)에 닿았는데, 잠시 후에 바람과 천둥이 골짜기 안에 일고 큰 구름이 평평하게 깔리며 발 아래로 번갯불이 번쩍이고 쿵쾅거리며 놀라서 내려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윽고 천둥이 개고 나니, 1천 폭포가 푸른 절벽에 시원하게 내려, 마치 옥빛 무지개가 다투어 뿜내는 듯 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유점(楡店)에 닿으니 정생 두원(鄭生斗源)이 뒤 미쳐 와서 현담(玄談)을 나누다가 오경(五更)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쉬고 산을 내려오면서, 백천교(百泉橋)를 거쳐 가섭동(迦葉洞) 쪽으로 길을 잡고 명파(明波)에서 묵었습니다. 대개 삼일포(三日浦)는 옛날에 익히 지나던 터이라 이 때문에 임영(臨瀛)으로 바로 향했으니, 두 번씩 구경하지는 않을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수성(迎城)에서 최동고(崔東皐) 동고는 최립-崔嵬-의 호)를 만났더니, 무척이나 기뻐하며 3일을 붙잡아 두더군요. 또 석주(石洲)는 요사이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고, 자기가 지은 시문을 모두 꺼내 보여 주었는데 시마다 주옥(珠玉) 같았습니다.

인하여 옛 부임지인 낙산(洛山) 땅을 찾으니, 그 고을의 노인들이 모두 술병과 장작을 가지고 와서 다리를 덥혀 주었고, 태수(太守)가 또 기생과 풍류로 호사를 더해 주니 호연히 안석(安石)의 동산(東山)에서 노닐던 흥이 있었습니다.

말이 절뚝거리 땃새를 머물렀다가 강릉 외가(外家)로 돌아오니, 내가 고향집을 떠난 지 벌써 8년이라 풍상을 겪는 서글픈 마음이 배나 더하였습니다. 읍 동쪽에 작은 서당이 있어 학생 5-6명이 문을 닫고 책을 읽고 있으니, 잔생(殘生)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으나, 하늘이 사람의 욕심을 허락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산(海山)을 크게 구경한 것은 대략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만약 형과 함께 다녔더라면 그동안에 지은 주옥같은 시가 의당 많았을 것이니, 형이 이 말을 들으면 틀림없이 유쾌하게 여기며 또한 크게 한스러워할 것입니다.

벼슬할 뜻은 식은 재(灰)처럼 싸늘해지고, 세상맛은 썸바귀처럼 쓰며, 조용히 사는 즐거움이 벼슬살이보다 나오니, 어찌 내 몸 편함을 버리고 남을 위해 수고하겠소. 오직 벗에 대한 그리움이 내 마음속에 맺히지만 거리가 멀어 만나기 어려우니 회포를 다 풀 수 없습니다. 가을 기운이 점점 짙어가니 부디 양친(兩親)을 잘 모시고 양지(養志)를 다 하기 바랍니다. 편지로는 말을 다 못하고 뜻도 다 적지 못합니다. 다 갖추지 않습니다.

#### 與石洲書

在洛下得兄江都書。嗚僕失官。此時僕已戒轄出都門。來价置而告去。忙不草復脩謝。逋慢之罪。安所逃乎。僕辭家二日。抵正卿永平潭墅。泉壑溪山之勝。不減昔年。而所恨者。臺館不起廢耳。入室。醇酒滿甕。香蟻浮浮。恨不拉吾兄以大白侑之。聞之。必流饑涎也。至今城壁有孤竹。荷谷詩。清楚可詠。又有子敏詩。恩恩不得和矣。冒雨宿通溝。踰斷髮嶺。遙見萬二千峯環峭拱揖。如逆吾行。游興翩翩不自禁。促馬入長安寺。日已曛矣。釋道觀自湖南來。稍解文與。語甚適。明早携入十王百川洞。巖峭拔地骨立。水激瀉。楓栝參天。行十五里抵靈源宿。曉向望高臺。峽束崖斷。攀鐵絙僅陟。小憩於松蘿。遂入萬瀑洞。翫揚蓬萊八大字。筆勢飛躍。可與此山爭雄。回至鳴淵。夕休於表訓寺。主僧曇裕設蒲供以待。明登真歇臺。去藍。步躋開心臺。萬峯森在眼底。不可名狀。其峻拔而仰然。若君之標秀特立。其隗俄而頽然者。若君之醉倒玉山。對此足以慰吾懷也。是十七夜。待月於正陽樓東。朝飯圓通。取經於獅子峯。宿普德窟。歷火龍潭。抵摩訶衍。風泉杉檜。徹曉磨站作響。如笙鶴冷冷於雲表。卽由雲興登九井峯。以雨不克上毗盧。到寂滅下視星門洞。衆壑嶙峋。如長立扇。海。濤二僧言。自此下抵朴達串。可達於隱身臺。余治蠟屐。拂曙從白田而下。繚曲行五里許。始石叢立。悍湍瀆其中。石皆作怪獸狀。如欲相搏。赤足躍流而濟。午息于紫月庵。庵正據內外山之間。悉摠其勝。蓋游人未嘗到也。迤從南崖。到佛頂臺。少選風雷起於中壑。大雲平鋪。脚底電光。閃閃麟。惶不可類眺。俄歇則千瀑快垂於青壁。若玉虹爭矯然。昏抵揄帖。則鄭生斗源踵至。玄談五更而睡。留一日下山。從百泉橋取途於迦葉洞。宿于明波。蓋三日浦。舊所慣歷。爲直向臨瀛計。不復游也。翌日。見崔東臯於遼城權甚。挽二日留。且問石洲今作何狀。盡出其詩文以示。觸目琳琅珠玉也。因訪洛山舊踐。則鄉耆宿俱持壺未煖脚。太守又以妓樂侈之。浩然有安石東山之興焉。以馬蹇留五日。歸江陵外家粉榆。僕不修謁已八年。霜露之愴倍切矣。邑東有小塾。與學子五六人閉戶讀書。欲了殘年。未知天從人欲否。海山壯游。大略如斯。當時若同吾兄。則奚囊所收珠璧當富。兄聞之。必大愉快。亦大恨慨也。宦情灰冷。世味茶苦。靜處之樂。甚於軒裳。豈肯捨我所便而爲人役役耶。唯是停雲之念。結於中情。地遠難聚。懷不能遺。秋候漸互。幸好侍二萱親。以畢養志。書不盡言。言不盡意。不備。

『惺所覆瓿稿』卷之九 文部六, 書

설악산 높은 창공에 꽃혔으니  
 많은 옥이 다투어 푸른 노을 중에 솟았네  
 한줄기 꿈틀거리려 오봉을 지어내니  
 바닷가에 금빛 연꽃 봉우리 우뚝이 빼어났네  
 영도(주역의 팔괘) 암암리에 낙산사와 어울려라  
 그윽한 동굴은 예부터 원통이 장엄하네  
 용천팔부 시종들이 베풀며 법을 따르니  
 백호(白毫)는 빛을 내어 동쪽 바다 비추네  
 금산의 늙은 스님은 부처님의 후신이라  
 석장 짚고 여기 와서 이궁을 얻었다네  
 관음보살의 진상으로 나타나서  
 여의주 내려주어 지난 업보 없앴다네  
 부처님께 바쳐 대가 땅에 솟아나니  
 짧은 시간에 절을 구름 밖에 세워졌네  
 채색 노을 창에 비쳐 벽에 어린 붉은 색깔  
 나는 듯 솟은 누각 뿔뿔이 마주보네

雪嶽之山高插空  
 萬玉爭聳青霞中  
 蜿蜒一脈作五峯  
 海上秀出金芙蓉  
 靈圖暗與寶陁合  
 幽窟自古莊圓通  
 龍天八部設法從  
 白毫光照滄溟東  
 金山丈老佛後身  
 一錫來瞰得異宮  
 白衣大士現真相  
 投下摩尼除宿障  
 旃檀貢玉竹湧地  
 頃刻花宮雲外創  
 彩霞射牖丹寫壁  
 飛樓聳閣森相向

일곱 겹의 구슬발이 주전을 가리우고  
 세 발 달린 금오가 금방으로 날아들어  
 향화에 정근한 지 자그마치 일천 년이라  
 장엄한 그 공덕 진실로 끝이 없네  
 어느 해에 임금께서 자해를 순행했나  
 암자마다 연이어 채장을 옮기었네  
 임금께서 만월의 용모를 알아보니  
 법되는 소리 흘러 공악이 울렸어라

七重珠網鎖珠殿  
 三足金烏轟金榜  
 精勤香火一千年  
 功德莊嚴信無量  
 何年清蹕慈海巡  
 岳竇聯翩移彩仗  
 重瞳親識滿月容  
 法雷流音空樂響

새는 꽃비 머금어 천의에 떨어지고  
 용은 향운을 뱉어 어장을 감쌌다오  
 그 향운 그 꽃비가 공중으로 사라지니  
 임금 행차 아득아득 물을 곳 없네그러  
 산문의 성사가 이보다 더할쏜가  
 노승들 이야기 지금도 들려주네  
 내가 온 때 바야흐로 팔월달 맑은 가을

鳥銜花雨墮天衣  
 龍吐香雲籠御帳  
 香雲花雨入空去  
 縹緲宸遊問無處  
 山門盛事此最雄  
 只今猶聞老僧語  
 我來正值清秋節

죽장에 짚신 신고 숲 속을 걸어가네

竹杖芒鞋步林樾

바다에 부는 천풍 산악을 뒤흔들어  
바라보니 놀란 파도 불골에 침노하네  
이화정 가에서 달 뜨기를 기다리니  
옥바퀴 돌아돌아 하늘로 떠오르네  
계수나무 그림자 금계를 뒤덮으니  
선들선들 마치도 바람탄 열자인 듯  
황학의 등에 올라 부구를 붙들고자

天風吹海動雲根  
笑看驚濤侵佛骨  
梨花亭畔待初月  
玉輪輾出琉璃滑  
千巖變作瓊瑤窟  
冷然似馭列子風  
欲挹浮丘跨黃鶴

함께 간 풍류승이 티끌 생각 벗어나니  
총채를 휘두르며 선 이야기 싫지 않아  
법라의 혀끝으로 인천을 다 흔드니  
부생이란 주착이 없다는 걸 깨달았네  
사리가 재촉하여 오경종을 두들기니  
새벽녘 동쪽 방에 비단발을 걷는구나  
둘러싼 향기 구름 양곡을 가렸는데  
고래가 화주 끌고 푸른 하늘 날아가네

同遊韻釋出塵想  
揮塵談禪也不惡  
人天掉盡法螺舌  
頓覺浮生無住著  
闍梨催打五更鍾  
曉上東房褰綉箔  
繚繞香雲掩暘谷  
鯨引火珠騰碧落

문을 닫고 향 피우니 일 만 생각 맑아져서  
부처님 설법하신 미타경을 다 읽었네  
미진을 건너갈 보벌도 빌렸어라  
각로에서 다시 또 금승을 찾아가네  
이 몸은 황홀하게 극락 땅에 와 있는데  
묘오에 어찌 꼭 명성을 봐야 하나  
내 한평생 발걸음 모두 길을 잃었는데  
무슨 일로 하늘이 이 구경 막지 않지

焚香閉閣萬慮清  
讀盡佛說彌陀經  
迷津已借寶筏渡  
覺路更覓金繩行  
恍然身在極樂土  
妙悟何必看明星  
平生投足總失路  
何事茲遊天不阻

원컨대 이 몸을 유마에 기탁하여  
우리 스님 짝을 삼아 부처님께 참여하리  
언젠간 벼슬 놓고 행각을 머물리니  
청련의 한 탑 자릴 나에게 허해주네  
『惺所覆瓿稿』卷之二, 附錄 蛟山憶記詩

願將身世寄維摩  
長伴吾師參佛祖  
投簪他日住行脚  
一榻容我青蓮宇

○ 양양의 이명부를 배알하러 가는 양비로를 보내면서 이어 뜻을 붙임(送楊毗盧謁襄陽 李明府因以寄意)

교산(蛟山)

허균(許筠)

사군님 일이 없어 중관을 닫았으니  
빈 뜰에 형구(形具)가 한가함을 짐작하리  
천리라 옛 친구는 아직도 적막한데  
일 년의 봄 흥치는 하마야 늦었구려  
형용은 쇠약해라 시름 가운데 늙고  
향국은 분명히도 꿈속에 돌아가네  
나그네 신세로 더구나 손 보내니  
배꽃이 활짝 핀 낙가산을 배신했네

使君無事掩重關  
見空庭木索閑  
千里故人猶寂寞  
一年春興已闌珊  
形容潦倒愁中老  
鄉國分明夢裏還  
爲客不堪兼送客  
梨花辜負洛迦山

황당이라 고요한 낮 옥사가 울리는데  
웃음으로 평번하여 정무는 이뤄졌네  
바다의 장기(瘴氣)는 지난 꿈을 깨고  
육혼의 산수는 그윽한 정 알맞구만  
마을 연한 도리에는 동풍이 따사롭고  
성곽 두른 상마에는 곡우가 개었구려  
그 누가 생각하리 옛날 말탄 나그네가  
이 한 봄 허송하여 습지에도 못 가는 걸

黃堂晝靜玉絲鳴  
博笑平反政已成  
瓊海瘴煙醒昨夢  
陸渾山水愜幽情  
連村桃李條風暖  
繞郭桑麻穀雨晴  
誰念舊時騎馬客  
一春虛擲習池行

등불이 나부끼어 병초가 어둑해라  
바람 장막 향기 어리고 밤은 적막하구나  
봄빛은 성에 가득 꽃이 만발하였건만  
객의 시름 바다 같아 술로도 풀지 못해  
도원의 송죽은 삼경이 묵었는데  
반현의 현가는 구소가 격했구려  
현산의 반마하던 그곳을 추억하니  
붉은 난간 다리 밖에 천 가지 능수버들

釘飄蘭燼暗屏蕉  
風幔凝香夜寂寥  
春色滿城花正發  
客愁如海酒難消  
陶園松竹荒三逕  
潘縣絃歌隔九霄  
仍憶岷山盤馬地  
赤欄橋外柳千條

적막한 빈 집에 병 앓고 누워  
남당에서 울어대는 개구리 소릴 듣네  
비 맞은 해당화는 붉은 비단 찬란하고  
바람맞은 강버들은 푸른 실이 비졌구나

空齋寂寞抱沈痾  
臥聽南塘一部蛙  
經雨海棠紅錦爛  
受風江柳翠絲斜

비환은 꿈에 들어 애가 끊기려 하고  
 이별은 마음 놀라라 귀밑머리 희어지네  
 생각건대 대제엔 봄빛이 무르익어  
 새로 불은 벽계에 복사꽃이 떴으리라  
 『惺所覆瓿稿』卷之二, 附錄 교산역기시

悲歡入夢腸堪斷  
 離別驚心鬢易華  
 遙想大堤春色老  
 碧溪新漲泛桃花

○ 절구(絕句)

교산(蛟山)

허균(許筠)

이설당 가운데 비단 장막 나지막하고  
 석양이 막 화란의 서쪽으로 내려가네  
 오는 이 없이 문 닫아 적적도 한데  
 다만 산새만이 마음껏 울어대노라

梨雪堂中錦幕低  
 夕陽初下畫欄西  
 閑門寂寂無人到  
 只有山禽盡意啼

경함이 십년 만에 선관을 작별하고  
 삼월 명주에서 귀밑머리 희끗희끗 하구나  
 해당화 다 떨어져 떠나려 해도 떠나지 못하고  
 밤만 되면 꿈에 오봉산을 찾는다오

經函十齋別禪關  
 三月溟洲鬢已斑  
 落盡海棠行不得  
 夜來歸夢五峰山

홍농의 제자들은 사화가 풍부해  
 개인 날 남전에 고운 노을 일었네  
 서창 향해 좋게 취한 꿈 되새기니  
 이백의 큰 붓은 단정하게 꽃 피우리

弘農才子富詞華  
 晴日藍田壁絢霞  
 好向西窓拚醉夢  
 謫仙椽筆定生花

단양의 시객이 동파를 배웠고  
 은황을 내리쏟아 세상이 자랑하네  
 반산의 두보처럼 바짝 여위려 말고  
 규합 좇아 명하나 지어보소

丹陽詩客學東坡  
 屈注銀潢世共誇  
 莫似飯山成杜瘦  
 好從閨閣賦明河

일찍이 개원 시격을 공부하여  
 사구 지으면 음갱 하손보다 절묘했지  
 그 누가 알리오 강서사로 타락하여  
 큰 바다 고래를 못 끌어 올릴 줄이야

早向開元着力多  
 發爲詞句妙陰何  
 誰知晚墮江西社  
 未掣鯨魚碧海波

점필재 김종직 두 소릉에 가깝지만  
 백년 구학에 등굴만 얽혔구나

佔畢金公逼杜陵  
 百年丘壑蔓寒藤



유편의 남은 향기 지금도 싱그러워  
구옥같은 그 문장 그 누가 계승하리

遺篇賸馥今迨巧  
玉佩瓊琚嗣未能

손곡이 시를 읊어 머리가 희었고  
백 편의 시 화려함이 수주에 가깝구나  
지금 사람 육안으로 아무리 비웃지만  
만고에 흐르는 강하를 어찌 폐하리오

孫谷吟詩到白頭  
百篇穠麗近隨州  
今人肉眼雖嗤點  
豈廢江河萬古流

비로가 북으로 가 양양을 배알하니  
말달림 도리어 술취한 갈강 같네  
응당 이화정 달을 구경하면서  
벽해의 응달샘처럼 바라보며 잔 들리라  
『惺所覆瓿稿』附錄

毘廬北去謁襄陽  
馳馬還同醉葛疆  
應踏梨花亭畔月  
盃看碧海倒瓊腸

○ 가는 길에 낙산을 바라보며(道中望洛山)      교산(蛟山)      허균(許筠)

향로봉에 흩어져서 족운반이 지어지니  
푸른 빛 쌓인 사이 채색 우리 노상 밝네  
낙산사를 물어 하룻밤 자자 하니  
길 가는 사람 멀리 오봉산을 가리키네  
『惺所覆瓿稿卷』卷之一, 詩部

香纒散作族雲盤  
彩暈長明積翠間  
欲問洛迦禪寺宿  
行人遙指五峰山

○ 중수 동해용왕묘비(重修東海龍王廟碑)      교산(蛟山)      허균(許筠)

만력 갑진년(선조37, 1604) 7월 양양부 동산(洞山)에 사는 어부 지익복(池益福)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 바람이 그 배를 몰고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였다. 이렇게 일주야(一晝夜)를 달려 동쪽 한 섬에 닿았는데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이 인도하여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궁에 나아가니 정원에는 창을 든 병사의 경계가 매우 삼엄하였다. 왕이라는 자가 보라색 옷을 입고 궁전에 앉아서 말하기를

“내가 강릉에서 제사를 받아먹은 지 수 천년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강릉부 사람에게 쫓기어 이곳에 옮겨와 보니 좋은 곳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상제께 호소하여 이제 비로소 허락을 받았으므로 너의 힘을 빌어 관원에게 뜻을 전하고 옛 땅 내 집에 돌아가고자 하니, 너는 목민관에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군사를 몰아치게 할 것이니, 백성들이 나의 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하고는 바람을 몰아 돌려보내 주었는데 하루가 못 되어 동해 가에 돌아왔다.

어부는 매우 이상하게 여겼으나 감히 관가에 나아가 스스로 이야기 하지 못하고 향임(鄕任) 이석림(李碩霖)에게 말하여 관에 보고하게 하였다.

부사 홍여성(洪汝成)은 이 말을 듣고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여 전고(典故)를 들어 상고해 보니 가정(嘉靖-명 세종 연호) 병신년(중종31년)에 사당이 강릉부 정동촌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음을 알았다. 그러나 감히 귀신의 말을 인용하지 못하고 폐해가 많다는 이유로 옛 문서를 돌려주기를 방백(方伯)에게 청하였으나 따라주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해 을사년(선조38년, 1605) 7월 관동지방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안변, 통천에서부터 남쪽으로 안동까지 수십 군이 혹독한 수해를 입어 백성과 가축 죽은 수효는 수만에 이르렀는데 강릉이 특히 심하였다. 부사 홍공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여 지방 관리와 백성을 불러 의논하기를

“귀신이 사당을 옮기지 않으면 해를 내린다고 우리에게 경고한지 1년 만에 수해가 이 지경이니 이는 과연 그 징험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으나 그 사당을 보니 퇴락하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지 않고 있다. 어찌 우리가 서로 이를 새롭게 단장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의 할 일을 수행하고 정성으로 받든다면 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 그렇다 하고 드디어 녹봉을 떼 내어 공장이와 인부를 모아 향임에게 이를 감독하게 하여 기와를 갈고 벽을 바르고 담장을 둘러쌓고 신문(神門)을 만들고 마당 고르는 일을 두어 달 만에 완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공이 몸소 제사를 지내니 이때부터 양양이 바람이 없고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강릉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여 비석을 세워 후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글을 청하기에 나는

“우리나라는 사해 용왕을 위해 사당을 세웠고, 지리의 중앙을 가려 설치하였는데 강릉은 동해의 한 가운데이고 정동이며 더욱이 고을 한가운데가 상개(爽塏-앞이 탁 트여 밝은 땅)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정동이라 이름하고 신라 때부터 이곳에서 제사지냈다. 그런데 공희왕(恭僖王-중종) 때 강릉부 사람으로 장원급제한 심언경(沈彦慶), 심언광(沈彦光)형제가 용왕의 사당에 비용이 든다고 하여 방백에게 말하여 상개 글을 올리고 까닭 없이 옮겨버렸다. 근래 편찬한 여지서(輿地書)에는 ‘동해 용왕의 사당은 양양에 있는데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사당 자리는 낮고 더러워 귀신의 영을 평안히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니 귀신의 노여움도 당연하다 하겠다. 언광형제의 몰락도 이것 때문일 것이며 을사년 바람과 비의 변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다. 신이 사람에게 밝게 고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미혹하기 때문이다. 부사의 사당 개수에 예에 들어맞는 처사이니 어찌 그를 덮어 둘 것인가”하고 갖추어 기록하고 이에 송(頌)을 드린다.

바다는 천지간에  
가장 큰 것이다

海於天地  
爲物甚鉅

그 누가 왕이 되어  
 바람 불고 비 오게 하는가  
 강하고 강한 용왕신이라  
 하늘의 용은 이것 같음이 없네  
 복 내리고 화 내림에  
 신령스러운 응보 매우 진실하네  
 그 누가 그 곳 낮은 데에  
 내 집 옮기게 하였는가  
 적은 비용 아끼니  
 신의 노여움 마땅하네  
 귀신이 계신 곳은  
 조개집 구슬 궁궐이네  
 세상의 오두막집  
 뭐라 연연하여 섭섭해 하겠는가  
 아니로다 정성은  
 신의 흠향하시리라  
 불경한 자가 방자하고  
 불선하면 게으른 법  
 땅을 쓸고 물 떠 놓아도  
 정성껏 공경하면 강림하리  
 좋은 자리 좋은 음식 차려 놓아도  
 방자하면 흠향하지 않는다네  
 옮겨 놓고 더럽힘은  
 게으르고 방자한 일  
 어찌 제수의 많고 적음에  
 기뻐하고 탄식할까  
 알려줘도 안 따르니  
 홍수피해 마땅하네  
 온화한 원님이  
 공경으로 신 받드리  
 새로 사당 단장하고  
 제수차려 제 올리오

孰王其中  
 以風以雨  
 矯矯龍神  
 天用莫如  
 降福降沕  
 靈應孔孚  
 疇就其庳  
 俾徒我宇  
 惜其小費  
 宣神之怒  
 神之所都  
 貝闕珠宮  
 俗之陋居  
 奚戀以恫  
 不然誠敬  
 神所享者  
 不敬者慢  
 不誠則隋  
 掃地酌水  
 誠敬則臨  
 玉寢瓊饗  
 慢則不欽  
 移以汚之  
 卽隋則慢  
 豈以豐殺  
 而爲忻歡  
 告以不從  
 宜水之洪  
 溫溫邦侯  
 事新以恭  
 乃新其構  
 乃腆其饗

신이 돌아보고 기뻐하여  
 바람같이 와 흠향하네

神顧以喜  
 風來悽愴

공경을 다 하여 정성껏 받든다면  
 어찌하여 강릉, 양양 가리겠는가  
 원컨대 이곳이 길이 진정하시어  
 해마다 풍년들게 도와주소서  
 백성들 상하지 않으며  
 전란이 미치지 못하게 하오  
 길이길이 만년토록  
 우리 고을 도와주소서  
 『惺所覆瓿稿』附錄

克敬克誠  
 奚擇江襄  
 顧此永鎮  
 資歲禳禳  
 民無札傷  
 五兵不入  
 於萬斯年  
 祐我弊邑

○ 가는 길에 낙산을 바라보며(道中望洛山)      교산(蛟山)      허균(許筠)

향로봉에 흩어져서 족운반이 지어지니  
 푸른 빛 쌓인 사이 채색 우리 노상 밝네  
 낙산사를 물어 하룻밤 자자 하니  
 길 가는 사람 멀리 오봉산을 가리키네  
 『惺所覆瓿稿卷』卷之一, 詩部

香纒散作族雲盤  
 彩暈長明積翠間  
 欲問洛迦禪寺宿  
 行人遙指五峰山



## 이규보

○ 낙산사에 있는 관음보살의 복장을 보수한 데 대한 문 병송. 최 상국을 대신해서 지음. 최상국은 지금의 진양후다(洛山觀音腹藏修補文 并頌代崔相國行, 今晉陽侯也)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      이규보(李奎報)

운운. 넓게 생각하니 동해 변 낙산 가에 한 승지(勝地)가 있는데 청정하여 티끌 한 점 없으니, 수월(水月 물속에 비친 달)의 청수한 실상이 이곳에 의탁하였다. 아, 저 완악한 오랑캐는 무지막심하도다. 모름지기 그들이 횡행하며 노략질할 적에 심지어 절의 불상까지도 훼손을 입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우리 대성(大聖)의 존구(尊軀)도 또한 그러하여 비록 형체는 겨우 보존되었으나 복중(腹中)의 진장(珍藏)은 모두 수탈당하거나 흩어져서 텅 비었다.

지인(至人)의 경계는 본래 영허(盈虛)·소식(消息)의 이치가 없는데, 금강(金剛)의 진체(眞體)에 어찌 휘멸이 있겠는가. 그러나 범부(凡夫)의 보는 바에 있어서는 어찌 상심이 되지 않으랴. 하물며 제자(弟子)로서는 경앙하는 마음이 전부터 간절하였었는데, 이

제 복중의 진장이 분산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남보다 배나 가슴 아프게 여기고 동시에 용감히 보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전일의 소장된 것을 참작하여 삼가 심원경(心圓鏡) 2개와 오향(五香)·오약(五藥)·색사(色絲)·금낭(錦囊)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갖추어 복중을 채워서 완전히 복구하여 예전 것과 손색이 없게 하였으니, 바라던 바에 무슨 문제될 게 있겠는가. 운운.

제자는 머리를 조아리고 이마를 두드리며 이어 단송(短頌)으로 다음과 같이 찬(贊)한다.

마침내 헐어버리지 못할 것은	究竟不毀
금강의 진신이다	金剛真身
그 밖의 상설이야	外之像設
이루고 허는 일은 사람	成毀由人
사람이 똑같지 않은데	人非一類
공경하거나 업신여기네	或敬或侮
저들은 업신여겨 손상하고	彼侮而殘
나는 공경하여 보수하네	我敬而補
저 이지러진 달과 같아	如月斯缺
얼마 안 가서 다시 둥글었네	未幾復全
모든 사녀(士女)들은	凡百士女
한 마음으로 가라	一心歸處

洛山觀音腹藏修補文 并頌代崔相國行,今晉陽侯也

云云. 洪惟東海之濱洛山之上. 有一勝境. 清淨無塵. 水月睟相. 於是乎寄焉. 嗟乎. 愷彼頑戎. 無知莫甚. 方其橫行冠掠也. 至於佛宇梵相. 無不被其殘毀者. 我大聖尊軀亦爾. 雖形體僅存. 而腹中之珍藏. 盡爲搜露散頓. 枵然其空矣. 且至人境界. 本絕盈虛消息之理. 則金剛真體. 寧且有毀滅耶. 然在凡夫所覩. 得不愴然傷心哉. 況如弟子者. 仰止之心. 自昔滋切. 乃今聞腹藏潰散之事. 能不倍痛於人. 而勇爲之補理耶. 是用揆舊所藏. 謹備心圓鏡二事及五香五藥色絲錦囊等衆緣. 以充其服. 完而復之. 與昔無損. 庸何傷乎. 所願者云云. 弟子頓首扣頰. 仍以短頌贊之云.

究竟不毀. 金剛真身. 外之像設. 成毀由人. 人非一類. 或敬或侮. 彼侮而殘. 我敬而補. 如月斯缺. 未幾復全. 凡百士女. 一心歸處.

『東國李相國全集』卷第二十五, 雜著

○ 봉명사신으로 관동(關東)에 가는 전 우군(全右軍)을 전송하는 서(送全右軍奉使關東序)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

이규보(李奎報)<sup>60)</sup>

내가 들으니 산수가 기절하고 수려한 것은 관동(關東)이 제일이다. 이를테면 금란(金蘭)의 총석(叢石)과 단혈(丹穴), 고성(高城)의 삼일포(三日浦), 익령(翼嶺)의 낙산(洛山)이 야말로 비록 봉래(蓬萊) 방장(方丈)을 보지 못했지만 능히 이보다 낫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들 하네. 나는 일찍이 만일 한 번 보게 되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생각했네. 그러나 세상 일로 헤매고 천리 길이 멀고멀어 속절없이 동쪽만 바라보며 서글퍼 할 따름이오.

지금 그대가 용절(龍節)에 의지해 황화(皇華)를 빛내며 경장(輕裝)을 떨치고 가며 잘 달리는 말위에 앉아서 마치 양쪽 겨드랑에 날개가 돋치어 천지의 밖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가니, 사람으로 하여금 그지없이 부럽게만 하오. 높은 곳에 올라 옷소매를 잡고 손수 술잔을 들어 전송을 하지만, 이 이별이 오래가지 않을 텐데 어찌 반드시 눈물 콧물을 많이 흘려야만 하겠는가.

상상하건대 그대는 산 하나 물 하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생각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만약 맑은 물과 붉고 푸른 봉우리를 편지에 봉함하여 부쳐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시를 써서 수습하여 바람 편에 보내어 동해의 산수가 나의 눈앞에 삼삼하게 하면 그로써 만족 하겠네 어찌 반드시 직접 구경해야만 되는 것이겠는가. 여러 사람이 시를 지었으니, 나는 서를 써서 첫머리에 싣다.

予聞山水之奇秀. 關東爲最. 若金蘭之叢石丹穴. 高城之三日浦. 翼嶺之洛山. 則雖未觀蓬萊方丈. 想不能過此也. 僕嘗以爲苟得一見. 雖死無恨. 但塵驂未鞭. 千里悠然. 空悵悵東望而已. 今足下杖 龍節耀皇華. 振輕裝而言邁. 跨逸駕之如飛. 軒軒. 若傳翰兩腋. 飛出六合之外. 而令人歎豔之不已也. 登高挹袖. 手酌送行. 此別不久. 何必多淫涕耶. 想足下每遇一山一水. 不得不思我也. 如不能緘 清漪封紫翠以寄之. 尚可詩以收拾. 因風有寄. 使東海山水. 森列我

60) 이규보(1168, 의종22-1241, 고종28)의 본관은 황려(黃驪). 자는 춘경(春卿)이고 초명은 인저(仁低)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지현(止軒)·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다. 시, 거문고, 술을 좋아하여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라고 불렸다.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문인으로 어려서부터 다양한 서책을 섭렵하여 시와 문장에 뛰어났다. 9세 때 이미 신동으로 알려졌으며 14세 때 성명재(誠明齋)의 하과(夏課)에서 시를 지어 기재(奇才)라 불렸지만 사마시에서 계속 낙방하였다.

1191년(명종20)진사과에 급제하였으나 부친이 돌아가시자 천마산으로 들어가 호를 백운거사라 하고 장자사상에 심취하였다. 1230년(고종17)잠시 위도에 귀양 갔다 다시 기용되어 집현전대학사, 정당문학, 태자소부, 참지정사를 역임하고 1237년(고종24)문학시랑평장사로 관계에서 사퇴하였다.

6세 때 개성에 돌아와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문란한 정치와 사회적 혼란을 보고 동명왕편(東明王篇)을 지었다.

그의 생애를 보면 전반기에는 불운하였지만 후반기에 들어서 최충헌 정권에 노력하여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환로에서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았다. 우리나라 최고의 문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의 행적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신 권력에 아첨한 지조 없는 문인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의 문학적 재능은 역대 최고의 문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의 저서로는 『東國李相國集』, 『白雲小說』, 『麴先生傳』 등이 있다.

최고의 문인으로, 자신의 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술을 좋아하며 자유분방하게 지냈다. 그의 문학적 재능은 우리 문학사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文士이다. 이러한 이규보가 낙산사에 있는 관음보살의 진신이 거란의 침략으로 크게 훼손되었다. 관음상의 형체만 보존되었으나 복중의 귀중한 물건들이 모두 수탈당하여 텅 비어 있었다. 이에 최우는 명에 의하여 완전히 복구하고 이규보로 하여금 복장을 보수하고 보수문을 짓도록 하였다. 이에 이규보가 칭송하며 찬한 이 작품은 양양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眼界足矣. 何必親賞也. 群子賦詩. 予以序冠之.

『東文選』卷之八十三, 序, 送全右軍奉使關東序

○은청광록대부 상서좌복야 치사 유공 묘지명(銀靑光祿大夫尙書左僕射致仕庚公墓誌銘)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

이규보(李奎報)

예로부터 사대부들을 보면, 처음에는 일찍이 염치로 조심하여 가득 차지는 않을까 주의하지 않는 이가 없다. 부하고 귀한 데에 처하게 되면 대체로 세월이 가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태연히 물러갈 줄을 모르는 자가 많았는데, 우리 복야부군(僕射府君)은 이와 아주 달랐다. 나이 64세에 이미 대신의 지위에 올랐으니, 거기서 3정승까지 가는 데에 몇 등급이 있는데 그 지위를 밟지 않았는가. 이보다 앞서 6년 전에 물러났으니, 은총이 넘치는 것을 피하여서였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전에 벌써 최고 지위에 이르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역』에 이르기를 진퇴존망을 알아서 그 바른 것을 잃지 않았다.

유씨(庾氏)는 근원이 금성(錦城)의 무송(茂松)에서 나왔으며, 문벌에 있어서 갑족(甲族)이 되는데, 공은 그 출신이다. 공의 휘(諱)는 자량(資諒)이요, 자는 담연(湛然)이다. 증조부의 휘는 모씨인데 검교태자첨사(檢校太子詹事)였으며, 조부의 휘는 모씨인데 검교태자 태사(檢校太子太師)였다. 아버지 모씨는 종묘에 배향한 공신으로, 문하시중수문전대학사판이부사증공숙공(門下侍中修文殿大學士判吏部事贈恭肅公)이며, 어머니 장씨(張氏)는 상의봉어(尙衣奉御) 휘 찬(贊)의 딸로, 이것이 공의 세계(世系)이다. 공은 사람됨이 중화(中和)하고 순수하며 장중하고 말이 적은데, 어질고 미더운 것은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것은 세상을 다스릴만하니, 이것이 공의 타고난 천품이다. 의묘(毅廟 의종) 때에 이르러 문신(山東 즉 동반의 의미)들이 점점 성하였는데, 공의 나이 16세에 귀한 가문의 자제들과 더불어 언약하여 친교간이 되었다.

공이 무관으로 견룡행수(牽龍行首)에 있는 오광척(吳光陟), 이광정(李光挺) 등을 끌어 들여 참여시키려 하자, 여러 사람들이 따르려 하지 않았다. 공이 특히 나서서 의논하기를, “비록 사사로이 노는 중에도 문·무가 구비하면 역시 잘 될 것이지,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후에 반드시 뉘우침이 있을 것이다.” 하니, 얼마 안가서 경인년의 난리가 일어나고 문신들이 거의 탕진(湯盡)되었는데, 무릇 그들과 친교가 있는 사람은 모두 화를 면하니, 이것은 오(吳)·가(李) 두 장수가 구하느라고 많이 힘썼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이 젊어서부터 벌써 기미를 아는 도량이 있었다.

나이 들자 재상의 아들이라 하여 바로 수궁서 승(守宮署丞)에 보직되었으며, 마침내 대악서승(大樂署丞)에 전근되었다. 좀 있다가 나가 용강 현령(龍岡縣令)이 되었으며, 정사를 하는 데 있어, 사리와 대체를 잘 알아 적발하기를 귀신 같이 하니, 한 지방에서 이름이 났는데 이는 공이 처음 고을을 다스린 것이다. 여러 번 역임하여 어사 상의봉어

시어사 호부낭중 어사잡단(御史尙衣奉御侍御史戶部郎中御史雜端)이 되었으며, 사금자대부소경(賜金紫大夫少卿)으로 병 형부 시랑·대부경·지삼사사(知三司事)·판대부사재사(判大府司宰事)·태자첨사(太子詹事)·판합문(判閣門)·지다방사(知茶房事)에 이르렀는데, 이때의 관직 등급은 모두 정의대부(正議大夫)였으며,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로 관직 등급이 광록대부(光祿大夫)에 이르니, 이것은 공의 역임한 관직 차례이다. 동남쪽 지역을 염문 안찰하고, 동북쪽 지역에서 군사를 지휘할 때에는 그 위풍이 미치는 곳마다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어짐과 미더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편하게 여기니. 이 때문에 공이 사명을 받들어 나가서도 칭찬을 들었다.

대개 정 3품의 작위는, 들어가서 정승이 될 수 있는 자리이지만, 공이 판사재(判司宰)로 있을 때에는 도리어 지방관이 되기를 간절히 청원하였으며, 호부상서로 나가 남경유수(南京留守)가 되었으니, 이것은 공이 가득 차는 것을 사양하고 꺼려서이다. 공은 항상 선군사(選軍使)로 군정(軍政)을 시행하였는데, 청사 위의 기울어진 기둥이 저절로 일어서니, 당시 모두들 이상한 일이라고 떠들어 전하였는데, 이것이 공의 공평무사에서 얻어진 일이다.

관동 지방에 장수가 되어 갔을 때에는 낙산사(洛山寺)에 이르러 관음보살에게 예하였는데, 좀 있다가 두 마리의 푸른 새가 꽃을 물어다 옷 위에 떨어뜨렸으며 또 바닷물 한 움큼 쫓 솟아올라서 그의 이마를 적셨다. 세상에서 전하여 오는 말이, “이 곳에 푸른 새가 있는데 부처에게 배알하는 자로서 그만한 사람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 하니, 이것은 공의 두터운 덕과 지극한 미더움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승경(崇慶) 2년 계유(강종(康宗) 2년)에 연로함으로 하여 퇴직 청원하기를 매우 간곡히 하니, 임금이 부득이 허락하여 은청광록대부 상서좌복야(銀靑光祿大夫尙書左僕射)로 사면하고 집에 있게 되었다.

당시 경상(卿相)들 중 퇴직하고 편안히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로회(耆老會)를 만들어서 때로는 혹 술자리를 만들어 마음껏 즐기기도 하였는데 태평하게 놀며 성품을 수양한지 17년이니, 이것이 공의 벼슬을 그만두고 한가로이 지내던 낙이었다. 기축년 8월 7일에, 기로회에 나가서 조용히 잔치하여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정오 때에는 문득 팔계문(八戒文 불교의 8개조 계문)을 열람하였으며, 밤에는 세수 목욕하고 편하게 취침하였다. 아침이 되자 집안사람을 불러 시간을 묻고서는 홀연히 저승으로 가니, 향년 80세인데, 이것이 공의 마지막이다. 이에 앞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죽어서 한 곳에 가니 궁전 누각이 매우 장엄한데, 지키는 자가 있다가 말하기를, ‘여기는 유복야(庾僕射)가 올 곳이다.’ 하였다.” 하였다. 그 말이 비록 황당하기는 하지만 생각하면 공의 행적이 이미 부끄러울 것이 없고, 그 세상을 떠남이 이러하였은즉, 그 말도 역시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공이 선한 곳에서 살아 있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좌승선(左承宣) 김씨 휘 존중(存中)의 딸에 장가들었는데, 3남 2녀가 있었다.

장자 모(某)는 국학학유(國學學諭)가 되었다가 일찍 죽었으며, 차자 모는 지금 판대복사 지어사대사 보문각직학사 지제고(判大僕事知御史臺事實文閣直學士知制誥)가 되었으



며, 계자(季子) 모는 내시의 모 관이 되었는데, 역시 공보다 앞서 죽었다. 장녀는 모 관 모에게 시집갔다가 일찍 과부가 되었으며, 계녀는 모 관 모에게 시집갔다가 지금 과부로 있다. 장사를 지내려면 지대(知臺) 군이 공의 행적을 갖추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명문을 청탁하니, 내가 글을 받들고 울며 또 말하기를, “아, 옛날에 남긴 정직한 이여, 내가 다시 공과 같은 인인 군자(仁人君子)를 볼 수 없게 되었도다. 명문을 감히 사양할 것이랴.” 하고, 드디어 명문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다.

드러나게 진실한 대신이여  
이 나라의 기강이었네  
백성들은 마음으로 공을 우러렀는데  
공은 문득 지위를 버렸네  
지위가 지극한데 이르지 않음은  
공 스스로 피하신 것이라네  
공은 스스로 피하였지만  
사람들은 부족하게 생각하였네  
머릿털 누렇게 오래 사시는 일  
공은 원하지 않았네  
공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늘이 진실로 도우셨네  
정직한 마음 신을 감동시켜  
기울어진 기둥서고 새가 날아드니  
공에게는 보통이지만  
사람들 보기에야 이상한 일 아닌가  
아  
옛 덕 있는 이 가고 마니  
세상의 모범 닦게서 찾으리  
저 산은 높고 높은데  
물 흘러 그 아래로 감도니  
이곳이 공의 계신 곳  
서기가 감도는구나  
돌에 새겨 광 속에 넣으니  
만년토록 밝아 있으리라

顯允端揆  
惟邦之紀  
民方注心  
遽釋其位  
位不至極  
公所自避  
公則自避  
人歎其意  
黃髮壽考  
公所不蘄  
公雖不蘄  
天固相之  
正直感神  
柱立鳥駟  
於公爲常  
怪者維人  
嗚呼  
舊德云亡  
模範疇倚  
有山巖巖  
水灌其趾  
是公之宮  
吉祥止止  
鑿石納窆  
眉目萬祀

銀青光祿大夫尙書左僕射致仕庾公墓誌 銘

觀自古士大夫. 其始未嘗不以廉恥操心滿盈爲戒. 而及富貴方酣. 率翫惜日月. 恬不知退者多矣. 我僕射府君大異於是. 年六十有四. 已登端揆. 則其去台鉉能有幾級. 而未踐其地耶.

但先六載引退。求避溢寵耳。不然久已升極秩。而猶有餘矣。此易所謂知進退存亡。不失其正者歟。庾氏源于錦城之茂松。在版籍爲甲。而公其出也。公諱資諒字湛然。曾祖諱某。皇檢校太子詹事。祖諱某。皇檢校太子太師。考諱某。皇配某廟功臣門下侍中修文殿大學士判吏部事。贈恭肅公。母張氏尚衣奉御。諱贊之女。此公之世系也。公爲人中和毓粹。莊重寡言。仁信足以感人。清儉足以律世。此公之受之天也。方毅廟時。山東寢盛。公年十六。與貴門子弟約爲交契。公欲引虎官御牽龍行首吳光陟。李光挺等與焉。衆莫肯之。公挺然議曰。雖私遊中。文虎俱備亦得矣。何有不可乎。後必有悔矣。衆咸以爲然。於是使之參焉。未幾庚寅亂。文臣幾蕩盡。凡人交契者皆得免。以吳。李二將營救甚力故也。此公之自少已有知幾之量也。年若干。以宰相子直補守宮署丞。尋遷大樂署丞。俄出爲龍岡縣令。其爲政諳練理體。擿發如神。一方稱之。此公之始莅郡也。累歷御史。尚衣奉御。侍御史。戶部郎中。御史雜端。賜金紫大府少卿。兵刑部侍郎。大府卿。知三司事。判大府司宰事。太子詹事。判閤門。知茶房事。階皆正議。尚書右僕射。階光祿。此公之所歷官序也。其或廉察東南。秉鉞東北。則威風所及。無不股弁。然濟以仁信。故民便之。此公之奉使延譽也。夫三品正秩。入相可冀。而公之判司宰也。反乞郡痛切。以戶部尚書出知南京留守。此公之辭滿忌盈也。公常以選軍使聽軍政。其廳事上欷柱自立。時譁傳以爲異事。此公之公平無私所感也。其帥關東也。到洛山禮觀音。俄有二青鳥含花落衣上。又海水一掬許湧灌其頂。世傳此地有青鳥。凡謁聖者非其人則不見。此公之惇德至信所致然也。越崇慶二年癸酉。引年乞退甚篤。上不得已允之。以銀青光祿大夫尚書左僕射。得謝家居。與當時卿相之退逸者。爲耆老會。時或置酒盡歡。凡優游養性十有七年。此公之懸車閑適之樂也。歲己丑八月七日。詣耆老會。從容宴飲。還于第。明日方午。忽覽八戒文。夜盥浴尚安然就寢。及旦呼家人問時。然後倏然而化。享年八十。此公之終也。先是人有死復生者。自言死至一處。宮觀甚嚴。守者曰此庾僕射至處也。其說雖荒唐。考公之行已無愧。及其終如此。則其言亦不可不信。公之生善處也必矣。娶左承宣金諱存中女。凡生子三女二。長曰某爲國學學諭早卒。次曰某今爲判大僕事。知御史臺事。寶文閣直學士知制誥。季曰某爲內侍某官。亦先公卒。女長適某官某早寡。李弐001適某官某今寡。方葬也。知臺君具公之行錄。託予以銘。子奉書泣。且曰。嗚呼。古之遺直也歟。吾不復見仁人君子之若公者矣。銘其敢辭乎。遂銘曰。

顯允端揆。惟邦之紀。民方注心。遽釋其位。位不至極。公所自避。公則自避。人歎其意。黃髮壽考。公所不蘄。公雖不蘄。天固相之。正直感神。柱立鳥馴。於公爲常。恠者維人。嗚呼。舊德云亡。模範疇倚。有山巖巖。水灌其趾。是公之宮。吉祥止止。鑲石納竊。眉目萬祀。

『東文選』卷之一百二十二，墓誌



○ 낙산 관음 경찬 소(洛山觀音慶讚疏)

김구(金丘)<sup>61)</sup>

무진(無盡)한 눈과 무진한 팔로 무량(無量), 미진(微塵)이 세계에 기틀을 나타내시며, 상(想)에도 머물지 않고 공(空)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온갖 물건, 온갖 생물에게 감응을 보이시는 관음보살의 그림을 그린 소상(塑像)을 우러러보며, 의지하는 마음 진실로 간절할 뿐이며, 소리와 형상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감격은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얽드려 생각하건대, 임금 되는 것이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몸가짐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만 백성들의 허다한 허물을 누구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하며, 여러 관료들의 잘못이 있다면, 대개 이것은 짐(朕)이 어질지 못한 탓입니다. 흐리고 별 나고 춥고 더운 것은 하늘의 법칙이건만, 백성들은 이따금 나를 원망하고, 수해가 있고, 한재가 생기며,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것은 해의 운수이건만, 세상은 모두 나를 나무랍니다. 하물며, 이제 제자인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난리가 있는 뒤를 이어, 온 나라가 시들고 파리하게 된 나머지를 맡아서 사막이라는 곳은 꿈에 잠깐 노닐어 본 일도 없었는데, 두 번이나 그곳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노고를 겪었으며, 전쟁이란 것은 그 이름만 들어도 겁이 나는 일인데, 몇 번이고 요란하게 침노를 당하였습니다.

이제는 비록 불쌍히 여기는 상국의 가호를 입고 있으나, 아직도 옛날에 받은 칙명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이 흐리고 개는 것이 잠깐 사이에 간혹 변하기도 하는 것이니, 사랑하고 미워하는 정이 아침에 어떻게, 저녁에 어떻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슬프다, 나의 사신(使臣)의 행차가 간 뒤로 기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나의 사사로운 염려됨은 거기에 사고가 있어서, 자못 억류 되는가 의심됩니다.

다만, 외환만이 이러한 뿐 아니라, 또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근심이 이릅니다. 정치와 용형(用刑)이 모두 문란하여져서 풍속은 퇴폐하고, 재화와 양곡이 함께 없어져서, 공사(公私)가 모두 곤궁합니다. 대개, 사람의 하는 일을 바로 닦지 못하여, 재앙의 징조가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달과 별이 차례를 잃으니, 그에 대한 상소는 왜 그리 많은지. 우레와 비가 제때를 맞추지 아니하니, 이것 또한 어찌 상서로운 징조가 되겠습니까.

61) 김구(1211 희종7-1278, 충렬왕 4)본관은 부령(扶寧). 초명은 백일(百鎰), 자는 차산(次山), 호는 지포(止浦). 고종 때 문과에 급제한 뒤 저원부사록, 제주관판 등을 지냈다. 원종 때 예부시랑이 되어 원나라에 관한 여러 문서를 맡아보았으며, 서장관으로 원나라에 다녀와서 『북정록』을 남겼다. 그 후 우간의대부·추밀원부사·정당문학(政堂文學)·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 등을 거쳐 1274년 충렬왕이 즉위한 이후 지침의부사·참문학사(參文學士)·판판도사사(判版圖司事) 등을 지냈다. 옛 사람의 명문을 본떠서 말을 다듬는 것을 거부하고 거칠더라도 현실을 생생하게 읊었다. 고려가 원나라에 복속된 다음에 사신으로 임명받아 가는 길에 지은 시는 대몽항쟁의 문학으로 손꼽힌다. 특히 평안북도 철주를 지나며 몽고군에 대항한 이원정의 충정을 읊은 <과철주 過鐵州>가 대표적이다. 이규보가 죽으면서 자기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최자(崔滋)와 함께 추천했다. 저서로는 『지포집』이 있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까. 전쟁과 기아와 질병이 두렵다고 하니, 자나 깨나 근심하고 애쓰는 마음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환란을 돌이켜 생각하고 다시 장래의 어려움을 생각합니다. 다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을 빌어 복조가 연장되고 넓어짐을 얻고자 할 뿐입니다. 생각하건대, 보타락산(補陀洛山) 관음세보살이 계신다는 산 이름으로 여기서는 낙산사에 관세음보살이 있었는데, 그 온화한 모습이 일찍이 들불[野火]로 말미암아 불전(佛殿)과 함께 불타더니, 이제 새로운 건물이 다시 바위 벼랑에 솟아올랐습니다. 담장도 이미 갖추어졌으니, 문득 기교 있는 장인(匠人)을 구하여 높은 얼굴을 그릴 것을 꾀하였습시다.

마땅히, 훌륭한 공사가 끝난 것을 고유하고, 낙성(落成)의 장엄한 의식을 경계하여 말쑤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보배로운 굴(岫)에 돌아가매, 한 조각구름도 오고 감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림자 맑은 못에 가득하노니, 한 덩이의 달이 어찌 옛날과 지금이 다르겠습니까. 이에 궁궐 안의 높은 집을 청소하고, 특히 선종의 깨달은 무리를 맞아다가 혹은 대비보살(大悲菩薩)의 착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혹은 바로 선종을 가리키어 막힘없이 강연(講演)하기도 합니다.

북을 치니,十方세계[十方世界]에 항상 막힘없는 참된 들음이 원만하게 통하고, 한 곳에서 영(鈴)을 울리니, 빈손으로 범(犯)할 수 없는 묘희(妙戲) 불가사의한 유희)를 연출합니다. 정순(精純)하게 재계하고 성의를 피력하니, 지혜로운 비춤(慧照)이 머리에 와 닿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하늘의 요사한 기운과 땅의 괴이한 변고는 흩어져 사라져서 조종(祖宗)의 왕업과 국가의 기초가 유구하게 되고, 이웃 나라의 우호는 더욱 굳어져서 다시는 변경의 경거망동이 없게 되며, 나이를 쌓음은 더욱 장구(長久)하고, 또한 왕비의 안녕과 길함을 이루며, 동반(東班)·서반(西班)의 장수와 재상들은 화합하고, 국내·국외의 간악한 무리들은 무너져 잔멸(殘滅)되며, 삼광(三光)은 운행을 순조롭게 하고 7난(七難)은 조짐(兆朕)을 꺾어 버리게 하소서.

그러한 뒤에 신기(神器) 임금의 자리)가 가득하게 이루도록 잘 보우하시고, 항상 불법을 옹호하는 데 전일(專一)하게 하소서.

#### 洛山觀音慶讚疏

無盡眼無盡臂. 塵塵刹刹之現機. 不住想不住空. 物物頭頭之垂應. 繪塑瞻依之苟切. 聲形感激之難思. 伏念爲君何樂. 處己克艱. 萬姓多愆. 當使誰而任責. 群僚有過. 盖是朕之無良. 陰陽寒暑. 天之經也. 民或怨予. 水旱豐荒. 歲之數也. 俗皆謗我. 況今弟子. 乘累紀亂離之後. 掇三韓萎悴之餘. 沙漠非入夢暫遊. 再勞跋涉. 干戈是聞名亦怖. 幾見擾侵. 今雖蒙上國之加憐. 尙未副前時之稟勅. 上天之陰壽. 須臾或變. 世間之愛憎. 旦暮安知. 噫我使輅去矣. 踰時而未返. 故於私慮. 疑其有故以頗淹. 非唯外患之如斯. 抑此內虞之迺爾. 政刑皆紊而風俗頹圯. 財穀並殫而公私困窮. 盖緣人事之不修. 而致咎徵之斯集. 月星失次. 何其多上以封章. 雷雨非時. 此亦豈爲之瑞兆. 謂兵飢疾疫之可畏. 而寤寢憂勞之曷戢. 追思既往之焚燹. 更念將來之茹鯁. 但借慈悲之攝護. 獲臻祉祚之延洪. 惟補陀洛山. 有觀世音聖眸

儀. 嘗從於野火. 殿宇并燒. 新構復湧於崑崖. 垣墻既備. 輒求巧匠. 謀就尊容. 屬當告畢於  
 勝功. 規說落成之熏範. 心歸寶嶺. 孤雲不導於去來. 影滿清潭. 一月何殊於今古. 爰掃禁  
 園之高閣. 特邀禪社之悟流. 或大悲聖號之呼號. 或直指心宗之演暢. 十方擊鼓. 圓通常無  
 尋之眞聞. 一處弄鈴. 空手也不干之妙戲. 精熏瀝懇. 慧照當頭. 伏願天妖地恠之散消. 祖業  
 邦基之悠久. 隣歡愈固. 更無邊境之聳驚. 儲筭尤長. 亦致宮闈之寧吉. 東西將相之和協. 內  
 外姦究<sup>001</sup>之潰殘. 三光順躔. 七難摧朕. 然后克保盈成於神器. 恒專擁護於法輪.  
 『東文選』卷之一百十, 疏



## 이유원

○ 선유담(仙遊潭), 낙산사(洛山寺)                      굴산(橘山)                      이유원(李裕元)<sup>62)</sup>

낙산사는 양양군(襄陽郡)에서 20리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관음굴(觀音窟)이 그 곁에 있다. 바다 위로 두 바위에 걸터앉혀서 허공을 질러 절을 일으켰는데, 의상대사(義相大師)가 창건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세조대왕(世祖大王)이 중수하였다. 어수정(御水井)과 선유담이 있다.

간이(簡易)의 낙산사(洛山寺) 시는 다음과 같다. 그중 한 수는 다음과 같다.

누관과 해일의 그 기특한 경치 예전에 듣고	樓觀海日昔聞奇
증추의 좋은 시절에 구경 날짜를 잡았다	月得仲秋一歲期
이곳에서 이때에 꺾은비를 만났으니	此地此時逢苦雨
하늘이 나를 영동에 머물러 시를 짓게 하누나	天公停我嶺東詩

하였고, 또 한 수는

계속 내리던 비 갓 개인 때를 타서	剛因積雨得新晴
동대로 걸어 나가 달 뜨기를 기다리네	步出東臺遲月生
십육일 밤에야 달이 꼭 찬 것을 보겠으니	二八眞看規正滿

62) 이유원(1814, 순조14~1888, 고종25)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경춘(景春), 호는 굴산(橘山)·묵농(默農)이다. 부친은 이조판서 계조(啓朝)이다. 1841년(헌종7) 정시문과에 급제, 검열·대교를 거쳐 1845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고종초 함경도관찰사를 거쳐 좌의정이 되었으나, 1865년(고종 2) 수원유수로 좌천되었다. 다시 영중추부사가 되었으며,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자 영의정이 되었다. 글씨를 잘 썼으며 특히 예서(隸書)에 뛰어났다. 저서로 『嘉梧藁略』 『橘山文稿』 『林下筆記』 등이 있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간밤엔 그릇 몇 사람의 심정을 괴롭혔을까

前宵枉惱幾人情

하였으며, 또 한 수는 다음과 같다.

아득한 하늘가 달이 질 무렵에  
만경창과 갑자기 붉은빛 번쩍이네  
꿈틀거리는 온갖 괴물들 불을 머금고  
밝은 달을 황도 가운데 전송하누나

玉宇迢迢落月東  
滄波萬頃忽翻紅  
蜿蜒百怪皆銜火  
送出金輪黃道中

시남(市南)의 ‘낙산사에서 상인(上人)에게 주다’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바닷가에 위치한 그윽한 관음굴  
천년토록 내려온 외로운 낙산사  
한퇴지(韓退之)가 벗한 태전(太顛)은 전생의 그대요  
한퇴지 그는 바로 후생의 나라네  
불경 소린 밤새도록 놀라게 하고  
바다의 파도는 새벽에 몰려오네  
서로 일출을 보기로 약속했으니  
하늘이 맑은지 여부 물어보노라

海上觀音窟  
千年洛寺孤  
顛公前世爾  
韓子後生吾  
禪梵通宵驚  
溟濤入曉驅  
相期看日出  
天色問晴無

명재(明齋)의 낙산사 시는 다음과 같다.

세도(世道)의 소장 성쇠를 아랑곳하지 않는데  
사람의 희비를 어떻게 알겠는가  
천하를 경영할 큰 뜻을  
애오라지 해산의 유람에 쓰노라  
첫여름이라 청화한 시절  
배꽃 만발한 낙산사러라  
바다는 만리나 아스라한데  
해 돋으니 채색 구름 걷히네

不管道消長  
何知人樂憂  
且將弧矢志  
聊付海山遊  
首夏清和節  
梨花洛寺樓  
滄溟正萬里  
日出彩雲收

택당(澤堂)의 낙산사 시는 다음과 같다. 그 중 한 수는 다음과 같다.

누가 용공 불러내어 눈을 뿌리게 하였노  
머리 돌려 보니 선궁(仙宮)의 광경 새롭구나

誰喚龍公撒玉塵  
琳宮光景轉頭新

바다는 은백색 거품을 흠뻑 뒤집어쓰고  
 사찰은 하얀 치자나무 꽃으로 단장하였네  
 세모에 올라와 보니 역시 그대로 승지  
 타향에서 만나 뵈는 분은 바로 집안 어른  
 돌아가는 길에 도롱이 젖는 일 걱정치 않고  
 술동이 앞에 한가한 몸으로 서로 대하누나  
 이날 집안 어른을 만났는데, 큰 눈이 내렸다.

滄溟倒接銀濤沫  
 祇樹粧成白菴春  
 歲暮登臨仍勝地  
 天涯會合是宗人  
 不愁歸路蓑衣濕  
 且鬪樽前漫浪身

또 한 수는 다음과 같다.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도 숨어 살고 싶은 뜻을 가졌던지  
 신령스런 그 자취를 동해안에 남겼구나  
 한 손길 자비를 베풀려 동방에 왔으니  
 웅장한 사찰 천추토록 하늘 높이 솟았네  
 범종이 울리자 스님들 발우 공양 서두르고  
 보배 기운 떠오르니 벽에서 무지개 뿜었네  
 백화 왕자가 지은 찬을 본받으려고 하여도  
 숨씨 겨를 만한 기어 없는 게 부끄럽네

至人亦有滄洲趣  
 靈迹曾留海岸東  
 一手慈悲奔鰈域  
 千秋臺殿壓鴻濛  
 鯨魚自吼僧催鉢  
 寶氣常騰壁吐虹  
 欲效白華王子讚  
 愧無奇語與爭工

진해(鎭海)의 낙가산(洛伽山)을 일명 ‘소백화산(小白華山)’이라 하는데, 곧 관음(觀音)의 도량(道場)이다. 왕자 이안(李安)이 이에 대해서 찬을 지었는데, 글 숨씨가 무척 기이하였다. 또 한 수는 다음과 같다.

안건의 수묵화와 임억령(林億齡)의 시편은  
 천재토록 가람의 두 보화로 꼽혔네  
 병화로 인해 승려들마저 모두 떠나  
 명구가 마치 상전벽해처럼 변했네  
 향운과 법우 다시 볼 수 없는 속에  
 깨진 기와 무너진 담 절터 희미하네  
 다행히도 성종(成宗) 임금의 글 한 편 남아  
 신령스런 빛 여전히 절을 감싸 주네

安堅水墨石川詩  
 千載伽藍兩絕奇  
 劫火併將僧寶去  
 名區便覺壑舟移  
 香雲法雨虛無裏  
 解瓦頽垣指點疑  
 賴得宣陵宸翰在  
 神光依舊擁山祇

곤륜(昆侖)의 ‘북진(北津)을 건너 낙산사로 향하면서’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배 한 척을 물 한복판에 띄워 나가니

孤舟泛出水中央

석양 속에 일렁이는 물결 아득하여라  
구름 속 종소리 낙산사에서 들려오고  
성 가 우뚝한 나무 양양에서 보이네  
밝은 달 만물을 비치듯 마음 명쾌한데  
손으로 은하수 거머잡고 팔방 굽어본다  
취한 뒤에 물귀신을 질타하였더니  
파도 맑고 바람 자서 흥 더욱 높아라

落日煙濤更淼茫  
雲裏疎鐘聞洛寺  
城邊獨樹見襄陽  
心將水月通羣照  
手攬星河俯八荒  
醉後馮夷隨叱咤  
波明風定興逾長

또 ‘낙산사에 이르러’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낙산사 아래에다 배를 매어 놓고  
이리저리 산책하며 바람을 씌노라  
달 뜨려고 하니 사찰은 고요하고  
물새 갓 잠드니 물가가 텅 빈 듯  
시야는 반짝이는 은하수 밖에서 끝나고  
몸은 맑은 하늘 가운데 우뚝 서 있노라  
이로부터 몸에 날개가 생겨서  
만리 길 영주 봉래에 표연히 이르고 싶네

洛山寺下繫孤蓬  
散步微吟老樹風  
松月欲生僧梵靜  
水禽初定渚煙空  
眼窮星漢沖融外  
身御雲霄沉澗中  
便欲從茲生羽翰  
飄然萬里到瀛蓬

또 ‘낙산사에서 달밤에’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오봉 대전은 연하 밖에 우뚝 솟았는데  
시야가 부상에서 끝나도록 구름 보이지 않네  
하늘과 바다 서로 포용하니 원기가 합하고  
달과 별 높은 데서 비치니 천지가 나뉘네  
독룡은 염불 소리 들으며 못 속에 엎드렸고  
황새가 바람 속에 우는 소리는 나무 끝에서 들리네  
뛰어난 지경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니  
인간 세상 벗어나고 싶은 생각 간절하구나

五峯臺殿出煙氣  
目斷扶桑不見雲  
天海相涵元氣合  
月星高照兩儀分  
毒龍聽梵淵中伏  
巢鶴呼風樹杪聞  
絕境頓教心地淨  
向來深欲遁人羣

또 ‘일출(日出)을 보다’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바다 공기 서늘하고 하늘빛 새로운데  
물결 갑자기 붉은 용의 비늘 이루네  
높고 낮은 하늘과 땅은 온갖 형상 드러내고

海氣蒼涼天氣新  
波瀾忽作赤龍鱗  
兩儀高下開羣象



만국의 광명 천지는 밝은 태양을 우러러본다  
 조금도 사심 없이 우주를 임하여야  
 가는 티끌까지도 두루 비칠 수 있느니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기우는 건 가상하나  
 뜬구름이 맑은 하늘 가릴까 그것이 염려

萬國光明仰一輪  
 直以無私臨宇宙  
 方能遍照及纖塵  
 獨憐葵藿傾陽意  
 長恐浮雲翳紫旻

또 ‘낙산 앞바다에 뱃놀이를 하면서’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한 필의 하얀 베처럼 생긴 은하수  
 푸른 하늘 위에 높이 걸려 있네  
 맑은 빛 푸른 바다에 닿아서  
 억만 길을 거꾸로 드리워졌네  
 바다의 넓음을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천지의 광대함을 알겠나  
 은하수에 이르도록 두둥실 배를 띄우고  
 망망대해를 깔보며 노를 짓노라  
 신선의 궁궐에 가까이 다가가면  
 천상의 음악 소리 요란하게 들리리  
 석양의 하늘은 유리처럼 맑디맑고  
 동서남북은 광활하게 툭 트였네  
 별들은 구슬을 꿰 듯 연해 있고  
 북두칠성은 손바닥 편 듯 벌여 있네  
 바다 속의 푸르디푸른 하늘빛  
 아래로 온갖 형상을 포용하였네  
 회오리바람 파도를 일으키니  
 바닷물 어지럽게 움직이네  
 하늘의 높음을 알지 못하고서  
 문득 바람 타고 오르고 싶구나  
 몸은 가벼워 맑은 공기를 어거하고  
 기운은 쾌활하여 진세를 벗어난다  
 우습구나 진세 속에 있는 사람  
 공연히 신선 될 생각 갖는 것  
 그 뉘라서 대지를 다 밟아 보겠는가  
 장자처럼 구경이나 하길 원하네

銀河一疋練  
 挂之青天上  
 澄輝接滄海  
 倒垂億千丈  
 不覩溟渤寬  
 焉知天地廣  
 浮舟犯牛斗  
 鼓櫂凌泱泱  
 冉冉仙闕逼  
 嘈嘈天樂響  
 夕氣霽空廓  
 四維倏褰敞  
 星辰若連珠  
 玉衡如布掌  
 蒼蒼太虛色  
 上下涵羣象  
 層飈鼓駭浪  
 水怪紛攢怳  
 不知天宇高  
 便欲乘風往  
 身輕御沆瀣  
 氣逸超塵壤  
 却笑區內人  
 徒結方壺想  
 誰將蹈大方  
 願同莊生賞

관음굴(觀音窟) 시는 다음과 같다.

바다가 밤낮으로 파도를 쳐서  
 바위에 그만 붕괴된 곳도 생겼구나  
 말하지 말아다오 두 구멍 사이에  
 허공을 가로질러 집을 지었다고  
 격렬한 파도 산 밑등을 때려 대니  
 여향이 골짜기를 진동하네  
 흡사하다 산 위서 나는 우렛소리  
 번개를 동반하고 우르르 하는 듯  
 처마에까지 하얀 물방울 뿜으니  
 부처의 휘장은 빨아 놓은 것 같네  
 물어보겠노라 그 어느 시대에  
 누구를 위해서 이 집을 지었던고  
 대사가 옛날에 영험을 나타내고  
 진짜 몸은 인도로 변환해 갔다네  
 새 감실엔 황금빛이 찬란한데  
 불상의 기상 장엄하고 엄숙하네  
 노승은 향 피우고 꿇어앉아서  
 절하고 머리 조아리며 복을 비네  
 그래서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들로 하여금  
 분주히 금옥을 바치게 하네  
 이교는 정도를 파괴하고  
 자비는 백성들을 현혹시킨다  
 길을 틔우고 구멍을 뚫어서  
 극치의 토목 공사를 베풀었구나  
 사람들은 모두 허탄한 말을 즐기나  
 나만은 그 허황된 것을 비웃노라  
 승려들은 이 이치 까마득히 모르니  
 원컨대 이 말로써 권면하누나

滄溟日夜翻  
 石齒有崩漉  
 不謂空嵌間  
 憑虛架楹屋  
 層濤撼山根  
 餘響振崖谷  
 有如山上雷  
 隱隱驅電轂  
 當檐歎素沫  
 佛幌如溼沐  
 借問何代泐  
 爲誰勤板築  
 大士昔現靈  
 真軀幻西竺  
 新龕煥金碧  
 寶像氣莊肅  
 焚香老僧跪  
 拜叩祈淨福  
 遂令愚蒙者  
 奔走捐金玉  
 異教壞正道  
 慈悲惑氓俗  
 疏鑿及澗竇  
 人工窮土木  
 人皆樂誕說  
 我獨嗤荒瀆  
 僧徒昧斯理  
 願以此相勸

낙가사(洛伽寺) 시는 다음과 같다.

자라 등에 얹힌 여러 산의 주변에  
 전조의 누관들 몇 번이나 변천되었나  
 바위엔 관음상 나타나 있고  
 복을 비는 글은 세조 연간에 전했네

鰲背諸山若箇邊  
 前朝樓觀幾桑田  
 通神石現觀音像  
 薦福書傳世祖年

하늘가 나는 새는 아스라이 가고  
뜰에 늘어선 잣나무들 선정에 든 듯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모두 변환하는데  
어찌 구구하게 신선 배울 필요 있겠나

天際飛禽疑莽渺  
庭中列柏摠安禪  
細推萬物都成幻  
何用區區學衆仙

시남(市南)의 선유담(仙遊潭) 시는 다음과 같다.

선유담 위에는 눈발 갓 걷히고  
십 리의 물가엔 옥수와 경림 뿅뿅하네  
귀양 온 신하 원행의 괴로움 망각하고  
이 몸 바로 선유를 하는가 의심하노라

仙遊潭上雪初收  
樹瓊林十里洲  
忘却逐臣行邁苦  
自疑身世是仙遊

택당의 선유담 시는 다음과 같다.

푸른 바다 서쪽 해안엔 다시 호수와 산  
경도의 누대가 한눈에 싹 들어오네  
속인들의 발걸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듣자 하니 신선들만 한가하게 왕래한다오  
소나무와 돌은 모두 윤기를 머금었고  
나는 구름과 새는 물에 비쳐 얼룩덜룩  
최고의 운치로는 난주 타고 철적 붙어  
밤중에 깊이 잠든 용 깨우는 일이라

滄溟西岸更湖山  
瓊島樓臺一望間  
未許俗蹤飛渡便  
却聞仙客往來閑  
松寒石瘦俱含潤  
鳥渡雲移盡作斑  
最好蘭舟橫鐵篴  
夜深驚破睡龍慳

간이(簡易)의 선유담 시는 다음과 같다.

바다 빛 못 빛이 언덕 하나로 나누어졌는데  
비바람 몰아쳐도 변함없는 푸른 유리 세계이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선유하는 날  
크고 작은 못을 모두 내왕하는 일

海色潭光隔一陂  
無風雨改碧琉璃  
安能直使仙遊日  
來往纔同大小池

또 한 수는 다음과 같다.

선유담 위에서 호올로 노닐 때  
새 날고 구름 떠가는 속에 술 한 잔 마시네  
한두 마리 백구 나를 알아본 듯이

仙遊潭上獨遊時  
鳥度雲移把酒卮  
一兩白鷗如識我

부침 왕래를 일부러 더디게 하누나

沈浮來去故依遲

명재(明齋)의 ‘선유담에서 간성 군수(杆城郡守)와 작별하면서 주다’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소나무 밑에 마주 앉으니 정신 상쾌한데	長松對坐覺神濃
인간사 어찌 이곳서 만날 줄 예기했으랴	人事寧期此地逢
도원에 대한 말을 들으니 거듭 감개하나	聽說桃源重感慨
이 걸음 종용하지 못한 것 도리어 부끄럽네	此行還愧未從容

간성 군수 어른이 나를 위해 양양 오색의 명승지를 설명하고 그곳에 와서 살도록 권하였으며, 또 지나는 길에 찾아 달라고 하였는데 바빠서 들르지 못하였다.

『林下筆記』卷之三十七, 蓬萊秘書



남효온

○ 낙산사 향로봉에서(洛山寺香鑪峯)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sup>63)</sup>

무성했던 만물이 근본으로 돌아가니	芸芸物歸根
지는 해는 맑은 경치 펼쳐네	落日展清眺
바람이 불어 맑은 거문고 울리고	風進淨琴張
높은 산 뾰족한데 맑고 흰 달이 작구나	山尖白月小

『秋江先生文集』卷之三, 詩

63) 남효온(1454년~1492년)의 본관은 의령(宜寧)이고 자는 백공(伯恭), 호는 추강(秋江), 행우(杏雨), 최락당(最樂堂), 벽사(碧沙)이다. 생육신 중의 한 사람으로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신(曹伸), 이윤중(李允宗), 주계정(朱溪正), 안응세(安應世) 등과 사귀었다. 소릉 복위 주장은 세조 즉위와 정난공신(靖難功臣)의 명분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던 것이었으므로 훈구파(勳舊派)의 미움을 받았다. 이에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전국의 명승지를 두루 찾아다니는 유랑생활로 생을 마쳤다. 죽림칠현(竹林七賢)을 자처하면서 세상일을 가볍게 여겼다. 사육신(死六臣)의 절의를 추모하고, 그들의 충절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음을 염려하여 『六臣傳』을 저술하였다.

『弔義帝文』이 문제가 되어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났을 때, 김종직의 문인으로 지목되었다. 1504년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尹氏)의 복위문제로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소릉 복위를 상소했던 일이 다시 논죄되었다. 고양에 있던 그의 묘가 파헤쳐지고 시체는 양화도(楊花渡) 나룻가에 버려졌으며, 아들 충서(忠愬)도 사형 당했다. 숙종 대에 이르러 함안 백이산(伯夷山) 밑에 서산서원(西山書院)을 세워 원호(元昊)·이맹전(李孟專)·김시습·조여(趙旅)·성담수(成聃壽) 등과 함께 배향되었는데, 이들을 생육신이라 일컫는다. 1782년(정조 6)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추강집』·『秋江冷話』·『師友明行錄』·『귀신론』·『육신전』 등이 있다. 고양 문봉서원(文峰書院)·장흥 예양서원(沔陽書院)·영월 창절사(彰節祠)·의령 향사(鄉祠)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 양양 바닷가에서(襄陽海邊)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sup>64)</sup>

어촌의 집들 나무껍질로 지붕 덮고  
 소금 굽는 장막에는 흰 연기 오르네  
 푸르디푸른 빛은 동해의 바닷물이요  
 연분홍 고운 빛은 서안에 핀 꽃이네  
 둘러선 바위에는 해달이 울고  
 저무는 길에 명사십리는 메아리치네  
 산봉우리들 푸름이 다하지 않는데  
 만 겹의 산이 눈 앞에 지나가네  
 『秋江先生文集』卷之二, 詩

漁家木皮蓋  
 鹽幕白煙斜  
 重碧東溟水  
 輕紅西岸花  
 廻巖鳴海獺  
 暮路響鳴沙  
 峰巒青不盡  
 萬疊眼中過

○ 해초 스님께 드림(贈海超)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sup>65)</sup>

푸른 산에 에워싸인 낙산사  
 어제 저녁 홀연히 투숙했네  
 주지인 지둔스님의 승려들이  
 손님 맞아 갖가지 음식 마련했네  
 내뱉는 말씀 내 게으름 일깨우니  
 맑은 서리 가을 하늘에 걸린 듯  
 새벽 종소리 깊이 반성하게 하더니  
 새벽빛이 벌써 누각에 밝았구나  
 『秋江先生文集』

靑纏洛山寺  
 昨暮忽暝投  
 主人支遁徒  
 邀客具庶羞  
 出言起我懶  
 清霜橫素秋  
 晨鍾發深省  
 曙色已明樓

○ 낙산사에서 성휴 스님께 드림(洛山寺 贈性休)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sup>66)</sup>

64) 양양은 예부터 바닷가의 풍경이 절경이다. 어촌의 촌가는 나무껍질로 지붕을 덮었고 소금 굽는 장막에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표현은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진다. 바다는 푸르고 푸른빛으로 빛나고 해안가의 고운 연분홍 꽃이 피어 봄의 흥취를 돋운다. 바위 위에서 해달이 소리 내고 저무는 길에 명사십리는 메아리친다. 푸르름을 드러내는 많은 산들이 눈에 들어오는 관동지방을 유람하며 추강의 심회를 노래하였다.

65) 추강은 김종직은 문인이고 생육신의 한사람으로 강개한 선비이다. 푸른 산에 둘러 쌓인 낙산사에서 하루 유숙하면서 지둔스님의 제자인 해초스님이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면서 하시는 말씀 마다 맑고 곧아 자신의 게으름을 일깨워 준다. 새벽까지 스님과의 담론에서 새벽 종소리에 깊이 깨닫고, 아침 해가 누각을 비추는 풍경 속에서 자신의 심회를 표현하였다.

66) 추강은 생육신으로 강호를 떠돌다 낙산사를 찾았다. 성휴스님과 한 밤중까지 불을 밝히고 약속대로 법언을 하였다. 창밖은 기암절벽으로 법당 앞의 잣나무는 제격이다. 이런 풍경 속에서 탕휴스님이 자신의 시심을 불러일으킨다. 탕휴는 당나라 시승(詩僧) 湯惠休를 말한다. 불가에서 시를 잘하는 스님으로 탕휴가 그 시초로 미소 지으며 시를 지으라고 하기에 시를 지어 성휴스님께 주었다.

나는 강호로 떠도는 나그네  
 그대는 불제자의 스승이시오  
 푸른 등불 한밤중에 밝히고  
 약속대로 불교교리를 말씀하시네  
 창밖은 기암절벽이고  
 뜰 앞에는 잣나무 제격이라  
 탕휴가 내 시심 일으켜  
 미소 지으며 시 지으라 하네  
 『秋江先生文集』

我是江湖客  
 君爲釋者師  
 青燈明半夜  
 法語果幽期  
 窗外奇巖老  
 庭前柏樹宜  
 湯休起我病  
 微笑索題詩

○ 낙산사(洛山寺) 향로봉(香鱸峰)에서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무성했던 만물이 뿌리로 돌아가니  
 떨어지는 햇빛에 맑은 경치 펼쳤네  
 바람이 불어 맑은 거문고 울리고  
 높은 산 뾰족하여 흰 달이 작구나  
 『秋江集』

芸芸物歸根  
 落日展清眺  
 風進淨琴張  
 山尖白月小

○ 낙산사에서 성휴 스님께 드리다(洛山寺 贈性休)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sup>67)</sup>

나는 강호로 떠도는 나그네  
 그대는 불제자의 스승이시오  
 푸른 등불 한밤중에 밝히고  
 약속대로 함께 담론하노라  
 창밖에는 기암절벽 예스럽고  
 뜰 앞에는 잣나무 제격이라  
 탕휴 스님 내 시심 일으켜서  
 미소 지으며 시 지으라 하네  
 『秋江先生文集』

我是江湖客  
 君爲釋者師  
 青燈明半夜  
 法語果幽期  
 窗外奇巖老  
 庭前柏樹宜  
 湯休起我病  
 微笑索題詩

67) 남효온(南孝溫)은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전국의 명승지를 두루 찾아다며 방랑생활을 하다 일생을 마쳤다. 이 시는 낙산사와 오색역에 묵으며 쓴 시로, 혜초스님을 만나 함께 밤을 지새우며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게으름을 깨닫고, 새벽 종소리에 깊은 반성을 하게 된다. 또 성휴스님을 만나 한밤중까지 담론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시심을 일으켜 시를 짓게 한다.



세상에서 산수를 논하면서 강동(江東) 지방을 가장 좋은 곳이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 “조물주가 하늘이 물(物)을 창조할 때에 진실로 어디는 좋게 어디는 나쁘게 하려는 마음이 없다. 어찌 한 쪽 지역에만 후하게 했겠는가.” 하였다.

남쪽 지방으로 다니면서 경치가 빼어난 곳은 모두 찾아다니며 보았다. 천하의 좋은 경치라는 것이 아마 이 이상 더 나은 곳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또 동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명주(溟州), 원주(原州)의 경계부터는 풍토가 특별히 달라지는데 산이 더욱 높고 물이 더욱 맑았다. 일천 봉우리와 일만 골짜기는 서로 빼어남을 경쟁하는 듯하였다.

백성들이 그 사이에 거주하는데 모두 비탈에서 밭을 갈고 위태롭게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니, 판 세상이 있는 듯 놀라워, 과거에 다니며 보던 곳은 마땅히 여기에 비하여 모두 모자라고 부족하여 감히 거둘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순수하고 웅장한 기운이 홀로 어리어 이곳이 된 줄을 알게 되었다.

죽령(竹嶺)에서 서쪽으로 20여 리를 가면 당진(唐津)이라는 물이 있다. 아래에는 자갈이 많은데 모양이 모두 둥글고 반질반질하며 푸른빛이 난다. 빛은 투명하여 물이 푸르게 보이며, 잔잔하여 소리가 나지 않고, 물고기 수백 마리가 돌 사이에서 장난을 하고 있었다. 좌우편은 모두 어마어마하게 깎아 세운 듯 산이 솟아서 만 길이나 될 듯한데 붉은 바탕에 푸른 채색을 올린 것처럼 보인다.

68) 임춘의 출생과 사망날짜를 알 수 없다. 본관은 예천(醴泉)이고 자는 기지(耆之), 호는 서하(西河)이다. 고려 건국공신인 조부 중간(仲幹)은 평장사(平章事)를 지냈고 충경(忠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부친 광비(光庇)와 백부 중비(宗庇)는 모두 한림원의 학사직을 지내 구귀족사회에서 일정한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 이규보와 함께 고려의 중심 문인으로, 이인로, 오세재 등과 더불어 죽림고회(竹林高會)에 나가 술을 벗하며 문학을 논하여 고려 중기 문단을 대표하는 문인 중의 한 사람이다.

20세를 전후한 1170년(의종 24)에 무신난이 일어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임춘의 일가가 화를 당하여 조상 대대의 공음전(功蔭田)도 모두 빼앗겼다. 풀한 포기 심을 땅이 없다는 말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다. 겨우 목숨을 보전하고, 개경에서 5년 정도 숨어 지내면서 출사(出仕)의 기회를 엿보았으나 어쩔 수 없이 가솔들을 이끌고 영남 상주의 개령으로 옮겨가 7년여의 떠돌이 생활을 한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실의와 고뇌에 찬 생활고를 하소연하는 것들이다. 김부식 이래로 소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당시 문풍(文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문집으로 『서하집』이 있으며, 한국 가전문학(假傳文學)의 작품인 『麴醇傳』과 『孔方傳』을 남겼다.

이 작품은 임춘이 우리나라의 산수는 강동(江東) 최고라는 말을 듣고 남쪽지방을 탐방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감회와 역사를 기술하였다. 낙산사를 찾아 옛날 원효와 의상 두 법사가 신선굴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 스스로 범상한 몸과 속된 정신이라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감을 탄식하기도 하였다. 두 법사를 그리워하며 두 편의 시로 감회를 표현하였다.

마지막에 대장부가 먼 곳을 두루 여행해야만 가슴속 후련한 기운을 넓히게 된다고 하면서 만약 자신이 명예나 벼슬에 얽매어 있었다면 기이하고 아름다운 승경을 탐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은 속세의 구속 없이 호방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벼랑과 골짜기의 모양은 요철(凹凸)같아 움푹하기도 하고 볼록하기도 하여 두둑 같기도 하고 굴 같기도 하다. 기이한 화초, 아름다운 대나무가 엇갈리게 자라서 그림자가 물밑에 거꾸로 비친다.

이러한 것은 그 대략만을 적었을 뿐이요, 그 기묘하고 수려한 점은 무어라 형언할 수 없다. 마침내 끊어진 벼랑 어귀에서 말을 내려 석벽(石壁)이 있던 자리에서 배를 띄웠다. 배 안에서 사람이 말을 하면 산골짜기는 모두 메아리를 친다.

곧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 만족하게 놀면서 하루 종일 돌아가기를 잊었다. 어두운 저녁 빛이 먼 데서부터 스며들었다. 그곳이 너무 싸늘하여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 시(詩) 한 편을 읊어서 거기에 써놓고 그곳을 떠났다.

푸른 물 출렁출렁 쪽빛과 같은데	碧水溶溶色似藍
물결에 비친 푸른 절벽은 험한 바위가 거꾸로 있듯	映波靑壁倒巉巖
만 리 길 정처 없이 동으로 가는 나그네	飄然萬里東征客
홀로 돛대 한 폭을 가을바람에 걸고 가네	獨掛秋風一幅帆

내가 동쪽 지방으로 수레바퀴와 말발굽을 끌고 다닌 곳이 많았으나,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다. 만일 서울 부근에 가까이 있었다면,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은 반드시 하루에 천 냥이라도 값을 올려 가면서 다투어 사들일 것이다.

다만 먼 지역에 떨어져 있어 오는 사람이 적고 간혹 사냥꾼이나 어부가 여기를 지나지만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것은 반드시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 두었다 우리 같이 궁하고 근심 있는 사람을 기다린 것일 듯하다.

명주(溟州)의 남쪽 재를 넘어서 북으로 해변에 이르자, 조그마한 성(城)이 있는데 동산(洞山)이라 하였다. 민가가 사는 촌락은 쓸쓸하고 매우 궁벽하였다. 그 성에 올라서 바라보니 어스름 저녁 빛이 어둑어둑하여지는데, 길옆에 고기잡이하는 집에는 등불이 가물거렸다. 이런 풍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며 고향을 떠난 서글픔에 쓸쓸한 감상이 일어나서 슬픔을 자아낸다.

밤에 객주집에서 잤다. 석벽에 기대어 무릎 꿇고 앉으니, 강물 소리 출렁거리며 그칠 줄을 모른다. 우리가 터지는 듯, 번개가 치는 듯, 사람의 머리끝을 쭈뼛하게 하였다. 부견(符堅)이 군사 백만을 거느리고 와서 강남(江南)을 공격할 때에 군사를 지휘하여 퇴각시키다가 엉겁결에 대오가 무너져 견잡을 수 없어 장비와 물자를 다 내버리고 빨리 달아나던 모양과 같았다. 어쩌면 그렇게도 웅장한 것인가. 마침내 시(詩)를 썼다.

바다에 나간 사람 반이나 되니 주민들은 적막하고	居民寂寞半溟濤
백 길이나 되는 산마루에 높은 건물이 솟아있구나	百丈峯頭插麗譙
돛대 그림자 가볍게 날아오니 생선 파는 시장은 넓어가고	帆影輕飛魚市闊



물결이 다투어 주름지니 바다 어귀는 아득하여라

浪花爭蹙海門遙

싸늘한 황혼이 달빛을 띠고 말안장에 실려 왔는데  
밤중 밀물 소리에 나그네의 베개머리는 시끄럽구나  
오강정 위에서 바라보는 운치만 못하지 않아  
붉은 단풍 푸른 굴이 긴 다리에 비추는구나

征鞍冷帶黃昏月  
客枕頻喧半夜潮  
不減吳江亭上望  
丹楓綠橘映長橋

새벽에 마을에서 들려오는 닭소리를 듣고 떠나서 낙산(洛山) 서쪽을 지나는데, 길옆에 외롭게 서 있는 소나무가 있었다. 마디와 새싹이 뚜렷하고 가지와 줄기가 구불구불하여 땅을 덮고 있는데, 그 그늘 주위가 몇 십 보(步)나 되어 보이는데 . 특이하다.

소나무가 이렇게 기괴하게 생긴 것이 세상에 또 다시 있을까. 골 안은 깊숙하고 고요하며 구름 어린 물은 흐릿하여 아마도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요 신선이 거주하던 곳인 듯, 높은 선비의 유적이 완연히 있었다.

나는 옛날 신라(新羅)의 원효(元曉)와 의상(義相) 두 법사가 신선굴 속에서 관음보살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을 생각했는데, 범상한 몸과 속된 정신이라 신선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감을 탄식하였다.

남아 있는 이야기를 물어보려 하였으나 다만 산만 길게 뻗었고, 물만 흐르고 있음은 볼 수 있을 뿐, 수백 년 동안에 옛집과 남은 풍속이 모두 없어졌다. 이에 절구(絶句) 두 편을 지어 이를 그리워하였다.

일찍이 들었노라 거사인 늙은 불제자는  
지팡이를 휘날리며 허공을 건너서 만 리 길을 지나가네  
벌써 문수보살을 보내어 문병하러 왔으니  
일 없이 비야리(중인도의 지명)로 나오지는 않았으리라

曾聞居士老維摩  
飛錫凌空萬里過  
已遣文殊來問疾  
不應無事出毘耶

이 작품은 원효를 가리킨 것이다.

지팡이를 휘날리며 좋은 곳을 찾아 외로운 바닷가에 이르렀더니  
묘한 양상 바라보니 허무에서 나왔네  
대사로 인연하여 신령한 응답을 돌리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신룡의 진주 한 덩이를 얻어 낼 수 있었으랴

飛錫尋眞海岸孤  
親瞻妙相出虛無  
不緣大士廻靈應  
爭得神龍一顆珠

이 작품은 의상(義相)을 가리킨 것이다.

한성(捍城)에서부터 북쪽은 가보지 못하였다. 세상에서 전하는 총석(叢石), 명사(鳴沙) 같은 곳은 모두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강동에서 구경한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

에 불과하다.

만약 모두 구경하였다면 비록 수만 장의 종이를 다 쓰며 천 자루의 붓이 다 망가진  
들 어떻게 모두 적을 수 있었으랴. 옛날에 사마태사(司馬太史)는 일찍이 회계(會稽)에  
가서 우혈(禹穴)을 구경하여 천하의 장관을 다 보았으므로, 더욱 대단하여 그 문장이  
시원스럽고 웅장한 기운이 있었다.

무릇 대장부가 널리 돌아다니며 먼 곳으로 구경을 다니어 천하를 휘젓는다면, 장차  
그 가슴속의 수려한 기운을 넓히게 된다. 내가 만일 명예나 벼슬에 얽매어 있었다면 반  
드시 그 기이한 것들을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평소에 가졌던 뜻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  
이다. 여기에서 하늘이 나에게 후한 혜택을 베풀어 주셨다. 월일모(某)가 적는다.

世之論山水者. 以江東爲秀地. 余獨未信曰. 造物者. 固無心於與奪. 安肯私于一方邪. 及  
遊南國. 凡以奇勝絕特自名者. 咸所冥搜覿見. 以爲天下之奇觀. 殆無出於此矣. 又去而之東.  
自溟原一州之境. 風土特變. 山增高水益清. 千峯萬壑. 誇奇競秀. 民居其間. 皆側耕危穫. 恍  
然若別造一世界. 向之所歷者. 宜皆遜讓屈伏. 無敢與抗矣. 然後知混沌氏始判清濁. 混淪磅  
礴. 獨凝結而爲是也. 竹嶺之西二十餘里. 有水名唐津. 下多細石. 皆圓熟而青色. 色徹而水  
碧. 沉沉無聲. 魚可數百尾. 戲于石間. 左右皆巖巖積峙. 壁立萬仞. 如丹而碧之. 崖谷之勢.  
呀然窪然. 若埤若穴. 奇卉美箭. 交生羅絡. 影倒水底. 大略如此. 而其奇麗不可狀. 遂下馬斷  
岸口. 泛舟於石壁之址. 舟中人語. 山谷皆應. 乃嘯詠自得. 終日忘歸. 蒼然晚色. 自遠而至.  
其境過清. 不可久留. 吟一詩題之而去. 碧水溶溶色似藍. 映波青壁倒巉巖. 飄然萬里東征  
客. 獨掛秋風一幅帆. 自余東邁. 車轍馬迹之所及多矣. 清絕之地. 莫有過此者. 如近置於京  
邑. 則貴遊必日增千金而爭買矣. 以僻在荒壤. 人罕能至. 時時有獵夫漁老. 過而不顧. 此必  
天將秘之. 以待吾輩窮愁之人爾. 至登溟州南嶺. 北出海畔. 有小城曰洞山. 人民聚落. 蕭然  
甚僻. 登其城以望之. 薄暮冥冥. 道傍漁舍. 燈火隱顯. 使人有懷鄉去國. 淒然感極而悲者. 夜  
宿傳舍. 倚壁危坐. 江聲洶洶不已. 雷輓電擊. 豎人毛髮. 若苻堅以百萬之師. 來伐江南. 麾陣  
而却. 驚潰不止. 弃器械輜重而疾走也. 何其壯哉. 遂題詩曰. 居民寂寞半溟濤. 百丈峯頭插  
麗譙. 帆影輕飛魚市闊. 浪花爭蹙海門遙. 征鞍冷帶黃昏月. 客枕頻喧半夜潮. 不減吳江亭上  
望. 丹楓綠橘映長橋. 曉聞村雞一號. 行過洛山之西. 路有孤松. 節目礫砢. 枝幹屈盤. 蔭地而  
周圍者數十步. 異哉松之奇怪. 世復有如是者耶. 洞天幽寂. 雲水沉沉. 殆非人間之境. 仙靈  
之所居. 高士之逸迹. 宛然在焉. 余感昔新羅元曉. 義相二法師. 親謁觀音於仙窟中. 自歎其  
骨凡氣俗. 未遇而返. 欲問遺事. 則徒見其山長水流. 而數百年間. 故家遺俗盡矣. 乃作二絕  
以懷之曰. 曾聞居士老維摩. 飛錫凌空萬里過. 已遣文殊來問疾. 不應無事出毗耶. 謂元曉  
也. 飛錫尋眞海岸孤. 親瞻妙相出虛無. 不緣大士迴靈應. 爭得神龍一顆珠. 謂義相也. 自  
捍城以北. 未有所歷. 若世所傳叢石鳴沙. 皆不目焉. 則今之見於江東者. 眞大倉一稊稗耳.  
設使盡觀. 雖窮萬穀之皮. 禿千兔之翰. 安能盡紀耶. 昔司馬太史. 嘗遊會稽. 窺禹穴以窮天  
下之壯觀. 故氣益奇偉. 而其文頗踈蕩而豪壯之風. 則大丈夫周遊遠覽. 揮斥八極. 將以廣  
其胸中秀氣耳. 余若桎梏於名檢之內. 則必不能窮其奇探其異. 以償其雅志也. 有以見天之厚

余多矣. 月日某記.

『東文選』卷之六十五, 記, 東行記



## 이식

○ 낙산사(洛山寺)에서 양양 부사(襄陽府使)인 이여복(李汝復) 경용(景容)종장(宗丈)<sup>69</sup>을 만나서. 이날 눈이 크게 내렸다. 3수

택당(澤堂)

이식(李植)<sup>70</sup>

누가 용왕 불러내어 옥가루 뿌리게 하였는가  
머리 돌려 바라보니 절의 광경 새롭네  
은백색 포말(泡沫) 거꾸로 쓴 푸른 바다요  
봄철인 양 담복(蒼菴)으로 하얗게 단장한 기수로세  
세모에 올라와 굽어보니 그대로 마냥 절승(絶勝)  
하늘 끝 타향 만나 뵈 분 바로 우리 집안 어른  
귀로에 도롱이 젖은들 무슨 걱정 있으리까  
구속 떨쳐 내버리고 술이나 한껏 드세

誰喚龍公撒玉塵  
琳宮光景轉頭新  
滄溟倒接銀濤沫  
祇樹粧成白菴春  
歲暮登臨仍勝地  
天涯會合是宗人  
不愁歸路蓑衣濕  
且鬪樽前漫浪身

지인도 창주의 취향이 있었던지  
신령스런 그 자취 동해안에 남겼네  
자비로운 천수 관음(千手觀音) 동방에 한 손길 뻗쳐 줌에  
웅장한 절 천추토록 홍몽을 제압하였네  
경어 우는 소리에 스님들 발우(鉢盂) 공양했고  
보배 기운 감들면서 벽에서 무지개 뿜었네  
백화 왕자가 지은 찬 한번 본떠 보려 해도  
숨씨 겨룰 기막힌 시어(詩語) 없는 것이 부끄럽네

至人亦有滄洲趣  
靈迹曾留海岸東  
一手慈悲奔鯨域  
千秋臺殿壓鴻濛  
鯨魚自吼僧催鉢  
寶氣常騰壁吐虹  
欲效白華王子讚  
愧無奇語與爭工

69) 종장(宗丈): 집안 어른이라는 말이다.

70) 이식(1584년, 선조17-1647년,인조25)은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 남궁외사(南宮外史), 택구거사(澤癯居士)이다. 좌의정 행(荇)의 손자로, 당대의 뛰어난 학자이자 문장가로 문풍을 주도하여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문장능력이 뛰어나 절제된 문장으로, 시는 우아한 흥취가 표현되어 있다.

이정구, 신희, 장유와 더불어 한문4대가(漢文四大家)로, 1610년(광해군 2) 문과에 급제하여 7년 뒤 선전관이 되었으나 폐모론이 일어나자 경기도 양동면 쌍학리로 낙향하여 택풍당(澤風堂)을 짓고 학문에만 전념하여 호를 택당이라고 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이조좌랑이 되었다. 대사간으로 있을 때 실정(失政)을 논박하다가 여러 번 좌천되었다. 1642년(인조 20) 김상헌 등과 함께 척화(斥和)를 주장하여 청나라 군사에게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의주에서 잡혔으나 탈출하여 돌아왔다. 그 뒤 대사헌, 형조·이조·예조 판서를 지냈다.

진해(鎭海)의 낙가산(洛伽山)을 소백화산(小白華山)이라고도 하는데, 이곳도 바로 관음(觀音)의 도량(道場)이다. 왕자 안(安)이 이에 대해서 찬(讚)을 지었는데, 무척이나 기이한 솜씨를 보이고 있다.<sup>71)</sup>

안견의 수목화에 석천의 시편

천 년토록 가람의 기막힌 기예로 꼽혔네  
이제는 겁화로 승려들마저 모두 떠나  
이 명승지 마치고 골짜기 배가 옮겨진 듯  
분향 구름 감로 법문 다시는 볼 수 없이  
옛 추억 더듬어도 무너진 담에 기왓장편  
그래도 다행히 선묘(宣廟)의 글 한 편 남아  
신령스런 빛으로 여전히 산사(山寺)를 감싸 주네

安堅水墨石川詩  
千載伽藍兩絕奇  
劫火併將僧寶去  
名區便覺壑舟移  
香雲法雨虛無裏  
解瓦頽垣指點疑  
賴得宣陵宸翰在  
神光依舊擁山祇

『澤堂先生集』

○ 나는 양양(襄陽)의 이 사군(李使君)에 대해서 같은 일가의 조카가 되는데, 나의 모친과 양양의 대부인(大夫人)이 똑같은 을묘생(乙卯生)이기 때문에, 내가 사군과 형제처럼 서울에서 지내면서 수친계(壽親契)를 함께 결성했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봉양을 목적으로 외직(外職)을 간청하여 똑같이 영외(嶺外)의 관직을 맡고 있으면서 서로들 접경(接境)을 하고 왕래를 하고 있으니, 실로 희한(稀罕)한 인연이라고도 하겠다.

올해 임신년은 모친의 연세가 칠십팔 세가 되는 해인데, 2월 초사흘이 바로 탄신일이기에 조촐하게 술과 음악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사군이 마침 기휘(忌諱)하는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고는 8일이 되었을 적에 대부인을 모시고 이곳에 이르렀으므로, 마침내 초아흐렛날로 날을 정하여 관사의 동헌(東軒)에서 연회를 베풀고, 그 다음 날에는 사군이 관사의 서헌(西軒)에서 연회를 베풀었으며, 다음 날 또다시 청하여 동헌에서 자그마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내가 청간정(淸澗亭)까지 모시고 갔다가 영동(嶺東)으로 돌아왔는데, 겨울과 봄 사이에 하루도 풍설(風雪)이 없었던 적이 없건마는, 이 당시 일주일 동안은 잇따라

71) 이식의 문장은 한문이 함축성과 살리면서 간결하고도 품격이 높았고, 5언율시를 잘 썼다. 한문4대가의 한 사람으로서 문풍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고 소설의 폐단을 강경하게 지적하고 소설배격론을 주장하며 허균을 공격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이 시는 이식이 간성부사로 부임하여 낙산사를 지나면서 쓴 시이다. 첫 수는 낙산에서 바다를 바라보자는 내리는 모습을 용왕이 옥가루를 뿌려 은백색의 포말이 선궁 같고, 은백색의 포말을 뒤집어 쓴 푸른 바다, 너무나 아름다움에 모든 구속을 떨쳐버리고 술이나 마시면서 걱정 없이 살고 싶음을 노래하고 있다.

두 번째 수는 낙산은 관음보살의 상주처로 자비로움을 이야기 하며 의상대사가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성전에 모셨던 고사을 인용하고 있다. 세 째 수에서는 안견의 수목화와 임억령의 시가 천년토록 아름다우며 전란으로 스님들이 모두 떠나 큰 변화로 폐허가 되었다며 심회를 표현하였다.

날이 개고 그렇게 온화할 수가 없었다. 내가 통음(痛飲)을 해 오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흠뻑 빠져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보통 때에는 현판(懸板)에 시를 지어 제(題)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으나,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지금의 이 일만은 전해 두지 않을 수 없기에, 읊시 두 수를 지어 기록하고 아울러 사군의 좌하(座下)에 써서 올렸다.

금강산 남쪽 기슭 신선 노니는 동굴이요  
푸른 바다 동쪽 머리 해님 뜨는 나무로세  
모두가 동갑이신 고령(高齡)의 두 분 모친  
종친끼리 생신 잔치 성대한 모임 열었네  
화려한 수레 검은 일산 가까이서 상봉하여  
신선의 술과 과일 올려 새로이 송축하는 오늘  
일천 년 전 영광의 일 말할 것이 뭐가 있소  
인간 세상 이 즐거움 만고 장춘(萬古長春) 족하네

金剛南麓遊仙窟  
碧海東頭浴日津  
大耋兩堂偕甲子  
同宗高會屬初辰  
華駟巨蓋逢迎近  
玉醴瓊桃頌祝新  
莫說永郎千載事  
人間此樂足長春

맑게 갠 날 흰 모래밭 판여 모시고 가뿐가뿐  
현수의 풍광이 수성까지 잇따랐네  
달은 상현 지나서 어느 사이에 재생백(哉生魄)  
한식 절기 맞아서 꽃들도 다투어 피네  
노위의 경계 맞대고서 생신 잔치 함께 열고  
교송의 축수 바치면서 교대로 올린 술잔  
친족끼리 멋진 모임 극진히 하면 그뿐  
해변이든 서울이든 굳이 따질 게 뭐 있으리

鳴沙晴路板輿輕  
峴首風煙接水城  
月過上弦初展魄  
花臨寒食政催榮  
封隣魯衛叨聯席  
壽祝喬松遞進觥  
但得情親窮勝事  
滄濱何異在秦京

植於襄陽李使君爲同宗姪。而慈氏與襄陽大夫人同乙卯生。植與使君兄弟在京。同修壽親稷。今爲養乞外。同爲嶺外官。接壤往來。實稀罕之邁也。今年壬申。慈壽七十八。二月初三日。乃誕辰。粗設酒樂。而使君適有忌不果來。越八日。使君奉大夫人至。遂卜初九日。開筵館之東軒。明日。使君開筵于衙舍西軒。又明日。復請小設於東軒。植陪至清澗亭而歸嶺東。冬春來無日不風雪。是時連七日晴和。余久不劇飲。至是不覺酩酊。尋常不喜作題板詩。顧念此事不可無傳。仍以二律記之。兼錄奉使君座下。

『澤堂先生集』卷之五, 詩



○ 『영동산수기(嶺東山水記)』 묵수당(默守堂) 최유해(崔有海)

만력 경신년에 나는 분호조 낭청으로서 왕명을 받들어 9월 15일 조정을 떠났다가 신유년 윤 2월 16일 복명했다. 기간은 6개월이었으며, 임무를 수행한 곳은 경기도와 강원도로 산수를 유람할 곳이 많았다. 처음 길을 떠나 지평을 향해 가다가 양덕을 지나면서 완평 이 상공을 문안하였다. 지평에 도착하여 이여고를 만났는데, 장산을 곁에 두고 살았다. 사방에 빼어난 봉우리가 들렸는데 그 안의 한 구역이 넓고도 깊고, 태풍당이라는 작은 누각이 가운데에 우뚝 자리하고 있었다. 이불을 나란히 덮고 하룻밤을 보내면서 옛날 일을 이야기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여고가 동구까지 따라 나왔다. 그보다 먼저 이여고가 시냇가에 술자리를 마련했다. 잠시 후 마을의 벗들이 술을 가지고 이르렀다. 그들은 바위에 걸터앉거나 소나무에 기대어 연못을 굽어보며 물고기를 찾았고, 국화를 완상하며 술잔을 돌렸다. 서로 시를 주고받으니 가을 흥취가 무르익었다. 술에 취하여 나는 일어나 원주로 향했다. 이여가와 울암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며칠 후 이여고가 약속 장소로 왔고 나도 뒤쫓아 가서 만났다. 정곡의 묘소 아래에 있는 조그만 사찰이었다. 큰 산이 앞에 우뚝 솟아있고, 조그만 호수가 오른쪽을 에워싸고 있었다. 산세는 멈추다 가는 듯 일어난 형상인데, 그 꼭대기를 평평하게 해서 작은 집을 지어놓았다. 산은 그 기이함을 즐길 만했고, 물은 그 맑음을 볼 만했으며, 집은 그 고요함에 거처할 만했다. 이때 바람은 사납게 불었고, 나무는 누렇게 물들었으며, 산은 앙상했고, 바위는 그대로 드러나 있어 그윽한 정취가 지극했다. 시와 술로 그 즐거움을 도우고 좋은 벗은 그 선을 도야하니, 표연히 구름 위로 솟아오르고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된 듯하였다.

원주를 떠나 홍원창에 이르니, 호수는 맑고 산은 수려했다. 서운 조성립과 잠깐 술잔을 나누었다. 제천을 지나 영월로 들어서니 산은 험준하여 하늘에 닿을 듯했다. 산에 올라 물길을 굽어보니 물살이 매우 급하게 흘렀고, 산의 형세는 물건을 묶어놓은 듯 조밀하여 몇 리 정도의 너른 땅도 없었다. 노릉에서 예를 표하니, ‘노산군지묘’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대개 송강 정철이 장계하여 봉분을 만들고 표식을 세우자고 청했기 때문이다. 묘를 지키는 조그마한 암자가 있는데 김택룡이 세웠다. 관사 뒤 10리 쯤에 정자가 있었다. 가까운 산은 호수에 인접해 있고 먼 산은 와서 읍하는 모습인데, 마치 만마리의 말이 다투어 달리다가 강물을 마시며 멈춘 것 같았다. 물은 북쪽에서 흘러나왔고, 웅덩이의 물은 검푸르렀으며, 빠른 물살은 요란하였다. 협곡으로 들어가 올라 바라보니, 그제야 평평한 곳에서 바라보는 절경이 펼쳐졌다.

평장을 지나 정선을 거쳐 백복령을 넘어 삼척으로 들어갔다. 산은 험하고 바위는 가파르니, 실로 한 나라의 지극히 험한 요새이다. 응벽현이 북쪽에 있고, 죽서루가 남쪽에 있었다. 산은 북쪽에서 서쪽으로 벌여 있고, 물은 서쪽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산은 두타산이고, 물은 오십천이다. 바위가 땅에 꽃혀 호수에 우뚝 서 있는데, 물에서의 높이가 거의 20여 길이나 되었다. 누각은 바위에 의지해 탁 트여서, 마치 거북 등에 학이 서 있는 듯하였다. 절벽이 앞에 벌여 있고, 온갖 나무에는 서리가 흠뻑 내려 붉은 빛과 자줏빛으로 비단과 같았다. 그 사이사이로 구름과 안개가 드리웠고, 새가 울고 물고기가 뛰놀았다. 뱃놀이로 풍악이 떠들썩한데도 만물은 제자리에서 즐거워하고 사람들 또한 그들의 즐거움을 즐기니, 각각 조화의 기미를 타고서 자기 본성에 순응하여 즐기는 것이리라.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옥거울 같은 물속에서 흘러 움직이니, 일대가 맑고 깨끗해 흡사 인간 세상의 경치가 아닌 것 같았다.

며칠을 머물고 두타산으로 들어갔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니 발길 닿는 곳마다 즐기고 노닐 만하였다. 하룻밤을 유숙하고 아침에 절 뒤에 계곡으로 올랐다. 흰 바위는 울퉁불퉁하고 맑은 물이 휘감아 흘렀다. 사람들과 술잔을 띄워 보내고 물길을 따라 그 잔을 건져 술을 마셨다. 피리소리와 노래가 조화를 이루니, 골짜기가 응답하고 구름이 멈추었다. 앞산의 자태는 빼어나고 석검은 귀신이 깎아놓은 듯하였다. 가을빛에 눈이 어질어질하였고, 흐르는 구름이 하늘에 자욱하였다. 근원을 다 궁구할 수 없어 쓸쓸히 바라보다가 돌아오는데, 난새의 생황 소리와 학의 수레가 숲 끝에서 보일 듯 말 듯하였다.

바다를 따라 북쪽으로 가서 허이대에 올랐다. 대개 이 대는 해안가에 있는 바위로 우뚝하게 서서 삼층으로 되어 있으며, 위에는 수백명이 앉을 만했다. 그 위에 올라 좌우로 바다를 내려다보니 마치 하늘과 더불어 서로 움직이는 듯하였고 산은 날아서 바다로 들어가는 듯했다. 어부를 불러 전복을 따게 했다. 어부가 끈으로 표주박을 묶어 물 위에 띄워놓고 파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표주박은 물 위에 떠 있었다. 어부가 순식간에 칼로 전복을 찢러 잡아왔는데, 껍질에 붙어 꿈틀거리려 차마 먹을 수가 없었다. 10리 남짓 가니 한송정이 있었다. 특이한 경관은 아닌 듯했지만, 조각해 놓은 듯한 바위에는 기이한 흔적들이 매우 많았다.

소 울음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 문수암이 있다. 시골 노파가 그곳에 살고 있었으나 누추하여 유람할 수 없었다. 강릉부로 들어가니 큰 집들이 즐지어 있고 역대 수령들의 공적비가 연이어 있었으니, 또한 색다른 곳이었다. 김숙무 등 여러 벗과 함께 경포대로 갔다. 호수의 넓이가 거의 10리이고 깊이는 몇 척을 넘지 않았지만, 맑은 물이 넘실대며 출렁거렸다. 산은 대관령에서 뻗어 내려와 호수 가까이에서 낮아졌는데, 열계치장을 한 듯 수려하고 빼어났다. 경포대는 산자락 위의 평평한 곳이고, 그 위에 정자를 세웠다. 동쪽을 바라보니 넓은 바다가 하늘과 닿아 있고, 남쪽 물가에는 수많은 소나무가 모래톱에 우거져 있었다. 왼쪽에는 초당이 있고 오른쪽에는 화목정이 있는데, 붉은 단청이 물에 비치어 바라보니 마치 신선이 사는 집과 같았다.

천여 마리의 갈매기가 날아서 물가에 모이고, 황어와 온갖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있었다. 어부가 작살질을 하여 잡으니 회로 먹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조그마한 배에 자리를 펴고 물결을 따라 오르내렸는데, 옥같이 아름다운 달이 바다에서 떠올라 우주를 환히 비추니, 바다와 하늘이 온통 한 빛이어서 끝없이 넓고도 넓었다. 함께 어울려 술이 동날 때까지 마셨고, 거나하게 취해서는 시를 읊조리며 감회를 풀었고, 시를 읊조린 뒤에는 노래를 부르며 즐겼다. 마치 성사를 타고 은하에 올라 만물의 밖에 홀로서 있는 듯 황홀하였다. 신선의 즐거움이 인간의 즐거움과 다르다고 말한다면 그만이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기생과 연문의 무리도 반드시 이곳에서 노닐며 이런 즐거움을 얻으려 할 것이다.

양양으로 출발하였다. 해안가 모래가 말밭굽에 닿아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으니, 이른바 ‘명사 십 리에 해당화가 붉도다’라고 한 것이다. 말밭굽 소리를 말한다면 위와 아래로 천 리나 될터이다. 유독 이곳에서만 소리가 나는 것은 어째서인가? 이 이치는 따지기가 어렵다.

동산을 지나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절구 모양의 바위가 있었다. 전하는 말에 신선이 단약을 제련하던 곳이라 하니, 어찌 모두 믿을 수 있겠는가.

낙산에 이르러 빈일요에서 묵었는데 절은 신라 때 창건되었다. 뜰에는 오래된 회화나무가 있는데, 줄기 몇 그루가 배나무와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정자를 ‘이화정’이라 하였다. 바다에 바짝 붙어있어 일출을 볼 수 있다. 종을 치는 승려가 이미 날이 밝았다고 고하였다. 나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는데 채색 구름이 바다를 뒤덮어 마치 층층(層層)의 성(城)이 물에서 솟아오르는 듯했다.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오니 구름은 붉고 바다는 끓어올라 온 세상이 불타는 듯하였다.

다음날, 보슬비가 내리다가 새벽에 개어 하늘 끝이 탁 트이고 화창하였다. 아침 해가 나는 듯이 솟구쳐 신비로운 빛을 비추자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대개 구름이 태양을 호위하여 다섯 빛깔이 상서로움을 응축했고, 비가 내려 바다를 말끔하게 해주었다. 태양은 가리는 것이 없어 각자 자신의 기이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 하늘은 바다에서 돌고 해는 하늘에 붙어 있어, 밤낮이 서로 바뀌고 만고토록 늘 새로운 것이다. 사람은 그 조화를 타고서도 세월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나태하고 게으른 욕망에 얽매어 있으니, 슬퍼할 만하다.

야교대가 있었는데 허이대와 비슷했다. 청간정 만경대 능파대는 이보다 못하였다. 그러나 바다를 감상하는 최고의 장소라는 점에서는 모두 똑같았다. 수령 아래에 천후산이 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려 하면 산에서 반드시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상으로써 이름을 지은 것이다.

산 아래에 청초호가 있고, 청초호 끝에 비선정이 있었다. 대개 바다에서 10여 보쯤 들어간 곳에 작은 봉우리가 툭 튀어나왔는데, 어린 소나무가 덮여 있었다. 내가 그 위에 올라가 보니 향긋한 바람이 멀리서 불어왔고 마치 아득한 우주에서 조물주와 만나



는 듯 이채로웠다. 간성에 있는 영랑호와 화진호는 모두 경포호와 비슷했지만 영랑호는 암석이 기이하고 화진호는 수목이 특이하니, 각자 아름다운 점을 지니고 있었다. 건봉사에서 묵었다.

고성으로 향했다. 길 곁에 현종암이 있었는데 민간에 전해지기로는, 53불이 서역에서 올 때 이곳에서 쉬며 바위에 종을 걸어두고 굴속에 불상을 안치했으며, 돌로 된 배는 언덕에 대었다고 한다.

10월 그믐날, 고성을 출발해 삼일포로 향했다. 길 왼쪽에 거북 바위가 있는데 세 개의 뿔을 드러내고 소나무와 삼나무가 덮고 있다. 포구로 들어가니 뱃사람이 이미 배를 마련해 놓았으며, 두 배를 하나로 합치고 그 위에 장막을 설치했다. 드디어 말에서 내려 배에 올라 곧장 단서암으로 향했다. 바위가 물밑에 꽂혀 있어 부여잡고 올라가니, 한 자 남짓의 비석이 있다. ‘간성 고성 의 모 포구에 몇 가지를 묻는다’라고 새겨져 있으니, 대개 매향을 기록한 비석이다. 뒷면에 ‘고려 강릉도’라고 쓰였고, 양쪽 옆에는 ‘황제께서 장수하고 오래도록 복을 누리소서’라 새겨져 있으며, 또 ‘등불 밝힌 가마에 백은이 한 근’이라 기록되어 있으니, 대개 부처에게 아침한 것이다.

벼랑을 따라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니, 움푹 파인 곳에 숨겨진 석각이 있는데 바로 홍귀달의 시를 새긴 것이다. 시가 글씨만 못하고, 글씨는 석각만 못했다. 새기는 기술이 매우 절묘했다. 그 서쪽의 바위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쓴 ‘술낭도남석행’ 여섯 글자가 있었다. 야만스런 사람들이 먹으로 칠을 해놓았고 유람객이 분개하여 갈아내 붉은 글씨를 알아 볼 수 없었다. 옛 자취가 사라지려 하여 안타까웠다.

곧장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 바위 아래에 이르니, 넓고도 기괴했다. 돌아서 사선정에 올랐다. 대개 큰 바위가 물에서 솟아 섬이 되었고, 큰 소나무가 돌 사이에서 나와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조그마한 정자가 그 소나무에 기대어 기둥으로 삼고 있다. 들어가 그 기둥에 기대니, 36개의 봉우리가 낮기도 높기도 하였으며, 푸른 벼랑과 기괴한 바위는 마치 조물주가 만들어 낸 사물인 듯 그 가지들을 뿜내고 있었다.

사면으로 둘러싼 호수는 깊고도 맑았다. 바람이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하여, 마치 거울을 공중에 매달아놓은 듯 하였으니, 옛 사람이 이른바 ‘물이 고요하면 밝게 비춘다.’라고 한 것이다. 물의 성질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이로운데, 폭포수처럼 날아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이 호수처럼 깊고 고요한 것은 어째서인가? 사람이 보는 것에 있어, 폭포를 보면 호탕한 흥취를 고취시키고, 호수를 보면 심성을 맑게 하며, 바다를 본 사람은 절로 천지를 포용하는 기상을 지니게 되어 각각 그 만나는 바에 따라 터득하는 게 있기 마련이니, 사람은 처지를 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략—

萬曆庚申. 以分戶曹郎廳承命. 九月十五日辭朝. 辛酉閏二月十六日復命. 月日則六朔. 道路則兩道. 山水可遊者夥. 初行向砥平過仰德. 拜完平李相公. 到砥平見李汝固. 乃傍葬山而

宅也。四山環秀，一區寬邃，澤風小閣中屹焉。連衾徂一夜，談千古事不以眠，汝固出洞，先之溪上席焉。俄有村友携壺而戾，踞巖倚松，俯潭窺魚，賞菊傳盃，相酬以詩，秋興酣甚，酒半余起向原州，與汝固約會於鬱巖寺，數日後汝固赴約，余亦追會，蓋鄭公穀墓下小刹也，大山峙於前，小湖環於右，山勢將止而起，夷其顛構小堂，山可以賞其奇，水可以鑑其清，齋可以栖其靜，時風赤木黃，山瘦石露，其幽情則極矣，詩酒以陶其樂，勝友以薰其善，飄飄然有凌雲羽化之意，自原州到興元倉，湖澄山秀，與趙庶尹誠立小觴，過堤川入寧越，山峻極于天，陟山瞰流，水勢甚急，山形如束，地無數里之寬，展禮魯陵，則書以魯山君之墓，蓋鄭松江澈啓請封植者也，有守墓小菴，卽金澤龍所建也，官舍後十里許有亭，山臨湖，遠山來拱，如萬馬爭馳，飲河而止，水自北出，潭渟者黑，湍激者閭，入峽登覽，始有平臨之勝，過平章歷旌善，踰百卜嶺入三陟，山峴石狠，實一國之至險也，凝碧軒在北，竹西樓在南，山自北而羅於西，水自西而東入于海，山曰頭陘，水曰五十川，巖伏于地，壁立于湖，距水而高幾二十丈餘，樓據巖而敞，有若鶴峙龜背，山崖列前，萬樹酣霜，紅紫成錦，間以雲霞，禽啼魚躍，樂喧舡行，物則樂其所，人亦樂其樂，各乘造化之機，順其性而娛焉，天光雲影，流動於玉鑑之中，一境蕭洒，似非人間之景致也，留數日入頭陘山，緣溪而上，隨處可樂遊也，宿一宵，朝上寺後谷，白巖盤陘，清流洄泓，與人流觴，隨水取飲，笛與歌和，谷應雲盪，前山秀出，石劒神剗，秋光眩目，飛霞漫空，不盡窮源，悵望而歸，疑鸞笙鶴駕隱暎於林梢，遵海而北，歷登許李臺，蓋海濱有巖，屹自立成三層，上可坐數百人，登其上，左右瞰海，若與天而相轉，山若飛入于海，招海人摘鯪，海人以繩繫瓠，浮入海波中，瓠泛水上，未食頃，以刃擗鯪而出，付甲而蠶，有不忍食者，行十里許，有寒松亭，海山低處有松數株，似非異境，而有石雕鏤，異迹頗多，一牛鳴地有文殊菴，野婆宅焉，陋不堪遊，入江陵府，廈屋接椽，旌行連碣，亦異地也，與金叔武諸友，適鏡浦臺，湖濶幾十里，深不踰數尺，洄澈演迤，山自大嶺而下，近湖而低，淡裝秀拔，臺跨山而夷，亭構其上，東望大洋接天，南涯則萬松挺于沙洲，左草堂右花木亭，丹煥映水，望之宛如神仙之宅，白鷗以千數翔集于汀，黃魚雜鱗恣泳波心，漁人挺叉取之，於膾允宜，張筵小舫，順流上下，璧月騰海，光遍宇宙，水天一色，浩洋無涯，與之極酒以撓之，酒之酣嘯以舒之，嘯之暢歌以樂之，悅若乘星槎上銀漢，獨立萬物之表者，若謂神仙之樂，異於人間則已，不然則安期羨門之徒，必將遊此境得此樂而已，發向襄陽，海涯之沙，觸馬蹄有聒然聲，所謂鳴沙十里海棠紅者也，若謂馬蹄之聲則上下千里，獨有聲於此地者何也，此理難詰，過洞山有石曰於海中，傳以爲神仙鍊丹之所，何可盡信，抵洛山宿賓日寮，寺卽新羅所創也，庭有老槐數行，交以梨，故梨花名亭，直臨于海，可觀日出，鍾鳴僧以已曙告，余攬衣而出，彩雲籠海，如層城出水，火輪穿雲，雲赤海沸，萬里如火，翌日微雨曉晴，乾端軒豁，金鴉飛出，神輝射目，不可正視，蓋雲以衛之，五彩凝祥，雨以清海，大陽無蔽，各呈其奇，吁天轉於海，日付於天，晝夜遙代，萬古常新，人乘造化，不知天日之迅行，自拘怠惰之欲，可哀也已，有阿嶠臺，與許李臺相類，而清澗亭，萬頃臺，凌波臺亞焉，其觀海之雄則一也，水嶺之下有天吼山，天欲雨則山必有聲，故名，以其實，山之下有青草湖，湖之窮有秘仙亭，蓋入海十步許，小峰斗起，稚松被之，余臨其上，香風自遠而至，若與天翁相遇於縹緲，異哉，杆城有永郎，花津兩湖，皆與鏡湖

相似. 而永郎巖石之奇. 花津樹木之異. 各有佳處. 宿乾鳳山寺向高城. 路傍有懸鍾巖. 諺傳五十三佛自西域歸. 憇于此石以懸鍾. 窟以安佛. 石舡艤岸云矣. 陽月晦出高城向三日浦. 路左有龜巖. 呈三角松杉襲之. 入浦則海人已舡舡. 兩舡合一. 張幙于上. 遂舍馬而舟. 直向丹書巖. 巖插水底. 攀而躋. 則有小碣尺餘. 刻曰杆城高城某浦埋幾條. 盖志埋香也. 陰記高麗江陵道云. 兩傍刻皇帝壽遐. 且題張燈窰白銀一片. 盖諂佛也. 緣崖入石竇. 有石刻陷而藏. 卽洪貴達詩刻也. 詩不如書. 書不如刻也. 刻工甚妙. 其西巖下有丹書述郎徒南石行六字. 狂獠渾以墨. 遊人憤而磨. 丹書仍迷. 古跡將泯. 惜矣. 卽以舟遡至巖下. 磅礴奇恠. 回登四仙亭. 盖大石出水爲島. 高松出石濃陰. 小亭倚松爲楹. 入據其楹. 則三十六峰. 或低或高. 蒼崖怪石. 有如化生之物. 爭呈其枝. 四面環湖. 淵泓澄清. 風殘浪淨. 如寶鑿縣空. 古人所謂水靜則明者也. 水之性利於下. 如瀑流之飛走者何也. 如此湖之淵渟者何也. 人之見者. 觀瀑鼓豪興. 觀湖清心性. 而觀海者自有牢籠天地之氣. 各隨所遇而有得焉. 人不可不擇地也.

『嘿守堂先生文集』卷之十八 記.



## 변계량

○ 낙산 행 소재 법석 소(洛山寺行消災法席疏) 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sup>72)</sup>

거룩합니다. 부처님께서 나라를 보호하는 자비(慈悲)가 어찌 다함이 있으리오. 소자가 재앙을 만나 두려워서 어찌 할 줄을 모르나이다. 이에 간절히 귀의(歸依)하와 큰 이익을 받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옵건대 이 조그마한 몸이 외람되게 큰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비록 윗자리에 있어 능히 밝지는 못하나 그래도 임금의 업무가 쉽지 않은 줄은 압니다. 사냥이나 놀이를 즐기고 음악이나 여색의 즐거움을 조심하며, 두려운 것은 백성이니 썩은 줄로 말을 다루 듯하고, 임금의 자리를 편안히 여김이 없이 깊은 연못에 임한 듯합니다. 그래도 혹 정치의 잘못됨이 있었을 것이며, 형벌의 지나침이 없었겠습니까.

이를 상제(上帝)께서 검열하시매 마땅히 하늘의 꾸지람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와 산이 무너져서 호구(戶口)의 손실을 가져 왔고, 폭풍이 불어 나무를 뽑아서 곡식의 피해도 많았습니다. 불상(佛像)에 땀 흐르는 비상한 일이 있었으며 금성(金星)이 낮에 나타

72) 변계량(1369, 공민왕18~1430, 세종12)의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자는 거경(巨卿), 호는 춘정(春亭)이다. 이색(李穡)·권근(權近)의 문인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네 살에 고시의 대구를 외우고 여섯 살에 글을 지었다. 1382년(우왕8) 진사시에 급제하고, 이듬해 생원시에도 급제하였으며, 1420년(세종 2) 집현전이 설치된 뒤 대제학이 되었고, 1426년에 우군도총제부판사(右軍都總制府判事)가 되었다. 특히 문장에 뛰어나 거의 20년간 대제학을 맡아 외교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대제학으로서 귀신과 부처를 섬겨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하여 주위로부터 ‘살기를 탐내고, 죽기를 두려워 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거창의 병암서원(屏巖書院)에 제향 되었고,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저서로는 『춘정집』이 있다.

났습니다. 괴변이 거듭 이르니, 근심이 이에 청정한 곳을 가려서 재앙 없애는 기도의 자리를 베푸나이다. 자비하신 법신(法身)은 30가지의 묘한 상(相)을 갖추셨고, 길상(吉祥)의 신비한 주문(呪)은 8만 가지의 재앙을 녹인다 합니다. 환란이 나기 전에 막자면, 오직 가피(加被)에 의지할 뿐이옵니다.

엿드려 원하옵건대, 주시(周詩)의 순수한 복을 받아서, 더욱 수하며 어질어지고 기범(箕範)의 나쁜 징조는 없어져 길이 편안하여서, 백성이 안락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병란이 끝나고 시절이 태평합니다.

洛山寺行消災法席疏

偉覺皇護國之慈. 曷有其極. 余小子遇災而懼. 罔知所爲. 茲切依歸. 冀蒙饒益. 念惟眇質. 叨據丕基. 雖未能居上克明. 亦少知爲君不易. 庶省遊畋之樂. 思戒聲色之娛. 可畏非民. 凜如御以朽索. 無安厥位. 恒若臨於深淵. 然有敷政之失宜. 豈無播刑之或濫. 斯乃帝心之簡. 寔宜天譴之多. 積雨山崩. 以致戶口之損. 暴風木拔. 而多禾稼之傷. 且佛汗之非常. 又金星之現晝. 變異荐至. 虞憂實深. 故當食而忘飧. 或已卧而復起. 爰擇清淨之地. 式陳禴禩之筵. 慈悲法身. 實爲三十妙相. 吉祥神呪. 能消八萬種災. 庶防患於未然. 惟仰憑於加被. 伏願茂擁周詩之純嘏. 俾壽而臧. 悉蠲箕範之咎徵. 其寧惟永. 民安物阜. 兵戢時康.

『東文選』卷之一百十三, 疏

○ 동창(東窓)과 천마산(天摩山) 낙산사(洛山寺)에 노닐기로 약속하며

춘정(春亭)

변계량(下季良)

눈 녹아도 동풍이 실새없이 불어 대니  
천마산 산빛이 흐르는 것 같구나  
어찌하면 그대와 종소리를 따라가서  
뭇 봉우리 유람하고 사루에도 올라가지

雪盡東風吹不休  
天摩山色望如流  
何當共聽山鍾去  
遊了諸峯又寺樓

『春亭集』

○ 관음굴(觀音窟)

춘정집(春亭)

변계량(下季良)

성거산 동쪽이자 천마산 서쪽에  
위치한 관음굴이 한적하고 깨끗하지  
박연에서 쏟아진 물은 무지개를 토해 내고  
의상대는 저 멀리 창공에 솟아 있네  
두 개의 석불은 그야말로 진상이고  
백발의 노승은 속세의 정 없다네  
평생 유람한 적 일찍이 없었으니

聖居山東天磨西  
觀音之窟幽且清  
朴淵水下垂玉虹  
倚祥臺迥干青冥  
兩箇石佛是真象  
白頭老僧非世情  
生平遊歷未曾有

벽을 쓸고 성명을 써 보고 싶었다네  
『春亭集』

殷勤掃壁題姓名

○ 관음굴(觀音窟)에서 노닐며 춘정집 (春亭)

변계량(卞季良)

나무꾼 따라서 산 속으로 들어가니  
양쪽 언덕 숲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었지  
몇 조각 채색기는 석양빛에 찬란하고  
뫓부리의 풍경은 가을 구름 가리었네  
밤 연못에 하얀 기는 용이 살기 때문이고  
솔 달에 맑은 소린 출중한 학 때문이지  
송도를 돌아보니 십 리도 안 되는데  
수레가 남북으로 시끄럽게 왕래하네  
『春亭集』

獨隨樵者入山門  
夾岸疎松路自分  
幾片彩幡明夕照  
一峯寒磬隔秋雲  
夜潭白氣龍曾蟄  
松月清音鶴不群  
回望京都無十里  
輪蹄南北正紛紜



### 황경원

○ 강원 도사가 되니 도암 선생이 매우 기뻐하시면서 어서 가라 권면하셨다. 내 장차 중추의 달에 동쪽으로 아홉 군을 유람하면서 바다와 산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되었기에 삼가 절구시를 지어 12수를 올리다 (自文學 出爲都事江原道 陶菴先生爲余甚喜 勉以趣行 余將以仲秋之月 東游九郡 縱觀海山 謹獻絕句 十二首)

강한(江漢)

황경원(黃景源)

차가운 높은 나무엔 이슬기 자옥한데  
꿈속에선 저 멀리 시냇물이 졸졸 흐르네  
도사의 돌아오는 행장이 가볍다 말하지 말라  
가을골짜기 구름과 노을이 만 겹이나 묵직할테니

高樹夜涼露氣濃  
夢中幽澗遠淙淙  
莫言都事歸裝薄  
秋壑雲霞一萬重

두 번째(其二)

중향성의 가을 기운 과연 어떠한가  
천일대 서쪽에는 낙엽이 많이 쌓였겠지  
슬퍼라 선생님께서 지금 연로하시니  
그 누가 모시고 달빛 아래 담쟁이길 오를까

香城秋氣定如何  
天一臺西落木多  
只恨先生今已老  
誰携明月上青蘿

세 번째(其三)

청평산엔 옛적에 은자의 거처가 있다는데  
층층 벼랑이 높아 오를 수 없다 하네  
안타까워라 은자의 사립문 어디에 있는지  
흰 구름만 아직도 빈 계곡을 지키고 있겠지

清平古有逸民棲  
曾壁峩峩不可躋  
惆悵衡門何處在  
白雲猶自守空谿

네 번째(其四)

설악산에 백 길 폭포가 떨어지니  
현란한 무지개 내려와 맑은 물결 위에 떠있겠네  
가상하구나 봉정암의 승려는  
아직도 선생께서 은거하실 때를 기억하고 있으리

雪嶽飛流百丈垂  
亂虹交下汎清漪  
可憐鳳頂緇衣子  
尙憶先生遯世時

다섯 번째(其五)

잇닿은 산봉우리 남으로 오대산에서 갈라지는데  
슬픈 학의 울음 달빛 아래 들리겠네  
어찌 하면 낚싯대를 흰 바위 아래 드리워  
비선암 위에서 흘러가는 구름을 낚아볼까나

連峰南自五臺分  
哀鶴遺音月下聞  
安得竹竿垂白石  
祕仙巖上弄游雲

여섯 번째(其六)

태백의 산빛은 하늘 위로 뻗치고  
황지에는 가을비 견혀 기러기 울겠지  
은자들이 집 짓고 산 것이 언제였던가  
차가운 달만 또렷이 떠 돌옹덩이에 어리겠네

太白山光凌上清  
黃池秋霽鴈鴻鳴  
幽人築室知何歲  
寒月亭亭映石泓

일곱 번째(其七)

강을 낀 벼랑에는 단풍이 고운데  
소양정 아래에는 저녁배가 떠 있으리  
선생께서는 밤마다 창주의 꿈을 꾸시며  
응당 갈바람 이슬 속에 찾아 드시겠지

雲石夾江楓葉妍  
昭陽亭下暮帆懸  
先生夜夜滄洲夢  
應入秋風白露天

여덟 번째(其八)

첫날 돌아가지 않고 이틀째도 머무르더니  
사흘째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 누구와 놀았는고  
잔잔한 호수가 응당 손들을 즐겁게 하였으리나  
부질없이 영랑을 붙잡아 두어 단약을 캐게 하였구나

一日不還二日留  
泝洄三日爲誰游  
澄湖澹蕩應娛客  
空滯永郎採藥舟

아홉 번째(其九)

넙실대는 경포엔 흰 마름풀 시들하고  
쓸쓸한 경포대에 석양빛 쉬 들겠네  
한 구비로 성은을 바랄 필요 없다오  
태평성대의 벼슬살이가 또한 영광이니

鏡湖灑灑白蘋涼  
寥落高臺易夕陽  
一曲未須希聖渥  
清時冠蓋亦榮光

열 번째(其十)

가을 구름은 낙산과 나란히 높이 떠 있고  
현묘한 굴 아래에는 파도가 칠 테지  
부상이 지척이라 해돋이를 볼 수 있으니  
왕명을 받들고 가는 길 감히 수고롭다 하라

秋雲一與洛山高  
玄窟下垂碧海濤  
咫尺扶桑觀旭日  
驅馳原隰敢言勞

열한 번째(其十一)

높은 정자 아득히 구름 너머에 서 있고  
총석정에 서리 멧혀 밤기운 차갑네  
만일 선생님과 먼 곳까지 유람할 수 있다면  
청려장 받들고 가을 산을 오르고 싶어라

孤亭縹緲立雲端  
叢石凝霜夕氣寒  
若使先生窮遠賞  
願陪藜杖陟秋巒

열두 번째(其十二)

벗들은 다 왕명 받들고 가는 길 걱정하였는데  
선생께서만 홀로 바다와 산을 즐기게 되었다고 축하하시네  
봉래산은 멀지만 단풍이 일찍 물들었으니  
한가을까지 기다리지 않고 말을 재촉하려네  
『江漢集』

寮友皆愁原隰紆  
先生獨賀海山娛  
蓬萊迢遰香楓早  
不俟高秋命疾驅

○ 관음굴(觀音窟)

강한(江漢)

황경원(黃景源)

운무 속 암자가 거센 물결을 누르는데  
날아오를 듯한 서까래는 천정에 걸쳐있네  
백길 깊은 곳에 현묘한 굴이 있어  
찬 등불 밤새도록 반짝이는구나  
용의 궁궐 바로 가까이 있고  
인어의 집 또한 나란히 있어  
아침저녁으로 조수가 일고  
출렁이는 물은 태초의 기운과 통하네

雲龕壓驚瀧  
飛棟跨其頂  
玄窟百丈深  
寒燈永夜炯  
龍宮正鄰近  
鮫室且比並  
早潮與暮潮  
潏潏通溟溟

단향목에 부처를 새기었는데  
 향기는 어찌 그리 그윽하게 퍼지는지  
 선조께서 신령스러운 산에 기도를 하여  
 이에 하늘이 성인을 내시었네  
 만년토록 왕위를 보위하고  
 칠묘가 제사를 받게 되었도다  
 누가 일컫던가 이 산신의 공이  
 위로 하늘과 같다고 /

梅檀刻金仙  
 香氣何幽迥  
 烈祖禱山靈  
 聖人乃天挺  
 萬年負黼辰  
 七廟饗烝鼎  
 孰謂嶽神功

『江漢集』

○ 시(詩) 문학으로 강원 도사가 되니 도암 선생이 매우 기뻐하시면서 어서 가라 권면 하셨다. 내 장차 중추의 달에 동쪽으로 아홉 군을 유람하면서 바다와 산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되었기에 삼가 절구시를 지어 올리다. 12수                      황경원(黃景源)  
 (自文學 出爲都事江原道 陶菴先生爲余甚喜 勉以趣行 余將以仲秋之月 東游九郡 縱觀海山 謹獻絕句 十二首)

세 번째(其三)

청평산엔 옛적에 은자의 거처가 있다는데  
 층층 벼랑이 높아 오를 수 없다 하네  
 안타까워라 은자의 사립문 어디에 있는지  
 흰 구름만 아직도 빈 계곡을 지키고 있겠지

清平古有逸民棲  
 曾壁峩峩不可躋  
 惆悵衡門何處在  
 白雲猶自守空谿

네 번째(其四)

설악산에 백 길 폭포가 떨어지니  
 험란한 무지개 내려와 맑은 물결 위에 떠있겠네  
 가상하구나 봉정암의 승려는  
 아직도 선생께서 은거하실 때를 기억하고 있으리

雪嶽飛流百丈垂  
 亂虹交下汎清漪  
 可憐鳳頂緇衣子  
 尙憶先生遯世時

다섯 번째(其五)

잇닿은 산봉우리 남으로 오대산에서 갈라지는데  
 슬픈 학의 울음 달빛 아래 들리겠네  
 어찌 하면 낚싯대를 흰 바위 아래 드리워  
 비선암 위에서 흘러가는 구름을 낚아볼까나

連峰南自五臺分  
 哀鶴遺音月下聞  
 安得竹竿垂白石  
 祕仙巖上弄游雲



여섯 번째(其六)

태백의 산빛은 하늘 위로 뻗치고  
황지에는 가을비 건혀 기러기 울겠지  
은자들이 집 짓고 산 것이 언제였던가  
차가운 달만 또렷이 떠 돌웅덩이에 어리겠네

太白山光凌上清  
黃池秋霽鴈鴻鳴  
幽人築室知何歲  
寒月亭亭映石泓

일곱 번째(其七)

강을 낀 벼랑에는 단풍이 고운데  
소양정 아래에는 저녁배가 떠 있으리  
선생께서는 밤마다 창주의 꿈을 꾸시며  
응당 갈바람 이슬 속에 찾아 드시겠지

雲石夾江楓葉妍  
昭陽亭下暮帆懸  
先生夜夜滄洲夢  
應入秋風白露天

여덟 번째(其八)

첫날 돌아가지 않고 이틀째도 머무르더니  
사흘째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 누구와 놀았는고  
잔잔한 호수가 응당 손들을 즐겁게 하였으리나  
부질없이 영랑을 붙잡아 두어 단약을 캐게 하였구나

一日不還二日留  
泝洄三日爲誰游  
澄湖澹蕩應娛客  
空滯永郎採藥舟

아홉 번째(其九)

넙실대는 경포엔 흰 마름풀 시들하고  
쓸쓸한 경포대에 석양빛 쉬 들겠네  
한 구비로 성은을 바랄 필요 없다오  
태평성대의 벼슬살이가 또한 영광이니

鏡湖灑灑白蘋涼  
寥落高臺易夕陽  
一曲未須希聖渥  
清時冠蓋亦榮光

열 번째(其十)

가을 구름은 낙산과 나란히 높이 떠 있고  
현묘한 굴 아래에는 파도가 칠 테지  
부상이 지척이라 해돋이를 볼 수 있으니  
왕명을 받들고 가는 길 감히 수고롭다 하라

秋雲一與洛山高  
玄窟下垂碧海濤  
咫尺扶桑觀旭日  
驅馳原隰敢言勞

열한 번째(其十一)

높은 정자 아득히 구름 너머에 서 있고  
총석정에 서리 멧혀 밤기운 차갑네  
만일 선생님과 먼 곳까지 유람할 수 있다면  
청려장 받들고 가을 산을 오르고 싶어라

孤亭縹緲立雲端  
叢石凝霜夕氣寒  
若使先生窮遠賞  
願陪藜杖陟秋巒

열두 번째(其十二)

벗들은 다 왕명 받들고 가는 길 걱정하였는데  
 선생께서만 홀로 바다와 산을 즐기게 되었다고 축하하시네  
 봉래산은 멀지만 단풍이 일찍 물들었으니  
 한가을까지 기다리지 않고 말을 재촉하려네  
 『江漢集』

寮友皆愁原隰紆  
 先生獨賀海山娛  
 蓬萊迢遼香楓早  
 不俟高秋命疾驅

47 .낙산사에서 묵다(宿洛山寺)

황경원(黃景源)

높은 누각에 밤새 파도 소리 시끄럽더니  
 셋별이 어느새 뜨락의 언덕에 떴네  
 차츰차츰 해가 올라와 바퀴 같은 것이 커지고  
 넘실넘실 바닷물 불어나 수평선 다시 높아지누나  
 알지 못하겠어라 저 하늘가 어느 나라 국경인지  
 굴속에는 응당 옛 신선들이 있으리  
 부상은 환히 트여 삼청이 가까우니  
 신령스러운 경관에서 이틀 묵는 노고를 잊네  
 『江漢集』

高閣夜喧萬里濤  
 啓明忽已在庭臯  
 升陽冉冉輪方大  
 漲海茫茫水更高  
 天際不知何國界  
 窟中應有古仙曹  
 扶桑寥廓三清近  
 靈境還忘信宿勞

○ 관음굴(觀音窟)<sup>73)</sup>

황경원(黃景源)

운무 속 암자가 거센 물결을 누르는데  
 날아오를 듯한 서까래는 천정에 걸쳐있네  
 백길 깊은 곳에 현묘한 굴이 있어  
 찬 등불 밤새도록 반짝이는구나  
 용의 궁궐 바로 가까이 있고  
 인어의 집<sup>74)</sup> 또한 나란히 있어  
 아침 저녁으로 조수가 일고  
 출렁이는 물은 태초의 기운과 통하네  
 단향목에 부처를 새기었는데  
 향기는 어찌 그리 그윽하게 퍼지는지  
 선조께서 신령스러운 산에 기도를 하여

雲龕壓驚瀧  
 飛棟跨其頂  
 玄窟百丈深  
 寒燈永夜炯  
 龍宮正鄰近  
 鮫室且比並  
 早潮與暮潮  
 瀾瀾通溟滓  
 梅檀刻金仙  
 香氣何幽迴  
 烈祖禱山靈

73) 관음굴(觀音窟):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 있는 법당. 낙산사 홍련암(洛山寺紅蓮庵)이라고도 한다.

74) 인어의 집: 바닷속을 말한다. 『述異記』에 “남쪽 바다 가운데 교인(蛟人)의 실(室)이 있는데 고기와 같이 물에서 살고 직조(織造)하는 일을 폐하지 아니하며 눈물을 떨어뜨리면 구슬이 된다.”라고 하였다.

이에 하늘이 성인을 내시었네<sup>75)</sup>  
 만년토록 왕위를 보위하고  
 칠묘<sup>76)</sup>가 제사를 받게 되었도다  
 누가 일렸던가 이 산신의 공이  
 위로 하늘과 같다고  
 『江漢集』

聖人乃天挺  
 萬年負黼辰  
 七廟饗烝鼎  
 孰謂嶽神功  
 上與穆清等



## 성현

○ 낙산사(洛山寺)

허백당(虛白堂)

성현(成俔)<sup>77)</sup>

오봉산 숲은 들쭉날쭉 하 무성도 하여라  
 높은 나무 그늘 침침해 바닷가가 어둑하네  
 절집은 갑자기 청정한 경계에 나타났고  
 백호<sup>78)</sup>의 광명은 대자비 얼굴을 둘러쌌구나

五峯林麓鬱參差  
 雲樹沈沈暗海湄  
 紺宇忽開清淨界  
 白毫光繞大慈悲

75) 하늘이 성인을 내시었네: 태조 이성계의 증조부인 익조(翼祖)가 정숙왕후(貞淑王后)와 함께 이곳 관음굴에 와서 후사를 점지하도록 기원하였더니 어느 날 밤 꿈에 가사를 걸친 중이 와서 알리기를,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름은 선래(善來)다.”라고 하였다. 그 뒤 얼마 지나서 도조(度祖)를 낳았다고 한다. 도조는 태조의 조부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江原道 襄陽都護府》

76) 칠묘(七廟): 종묘(宗廟), 곧 태조(太祖)의 종묘와 삼소(三昭)·삼목(三穆)의 총칭이다.

77) 성현(1439, 세종21~1504, 연산군 10)의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자는 경숙(馨叔), 호는 허백당(虛白堂), 용재(慵齋), 부휴자(浮休子), 국오(菊塢)이다. 1462년(세조 8) 식년문과에, 1466년 발영시(拔英試)에 각각 3등으로 급제하여 박사가 된 뒤 홍문관정자를 거쳐 사록(司錄)이 되었다. 1485년 첨지중추부사로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대사성·대사간·동부승지·형조참판·강원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1488년 평안도관찰사로 있을 때 동지중추부사로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대사헌을 거쳐 1493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연산군 즉위 후 한성부판윤을 거쳐 공조판서가 된 뒤 대제학을 겸했다. 62세 때는 홍문관과 예문관 양관의 대제학에 올라 이 시기의 문풍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그의 시론의 특징은 이규보와 서거정의 기론(氣論)을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다양한 미의식의 구현을 주장한 점이다. 또한 사회적 효용을 중시하는 각도에 서 정치적 득실에 대한 풍간(諷諫)의 작용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그의 애민시(愛民詩) 계열 작품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었다. 그의 작품세계는 매우 다양하다.

『慵齋叢話』를 저술했으며, 장악원의 의궤(儀軌)와 악보를 정리한 『樂學軌範』을 유자광 등과 함께 편찬했다. 문집으로 『虛白堂集』이 전한다. 죽은 뒤 수개월 만에 갑자사화가 일어나 부관참시 당했으나, 뒤에 신원(伸寃)되었고 청백리로 뽑혔다. 시호는 문재(文載)이다.

성현은 강원도관찰사와 대제학을 지냈고, 조선조 文風을 주도 하였다. 강원도 관찰사로 낙산사를 찾아 오봉산은 숲으로 우거져 울창하지만 구름에 걸린 나무는 침침하고 바다는 어둑다는 표현에서 작품의 내용을 예견할 수 있다. 낙산사는 청정의 세계가 열려 부처님의 자비로 감싸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고기잡이를 금하여 백성들이 살아가기 어렵고, 역졸들도 멸길 달리기에 고달픔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자신도 오로지 산나물과 다과만 있어도 즐겁게 먹고 배고픔을 잊을 수 있다는 처참한 생활상을 표현하였다.

78) 백호(白毫): 백호는 부처의 삼십이상(三十二相) 가운데 하나로, 부처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희고 빛나는 가는 털력을 말하는데,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오른쪽으로 말린 데서 끊임없이 광명을 발한다고 한다.

고기잡이 금지된 백성은 살길이 막막하고  
노정 바뀐 역부들은 멀리 달리기 괴로운데

禁魚民戶無生理  
移路郵夫苦遠馳

○ 양양에서 승려 계열을 만나 그의 시권의 운에 차하다 2수 (襄陽逢僧戒說次其詩卷韻  
二首. 허백당(虛白堂) 성현(成俔)

진여의 불변의 법성을 환히 깨달아  
혜검이 멀끔한 빛을 발휘하누나  
달은 천 시내의 물에 도장을 찍고  
꽃은 만상의 봄을 담아 간직하였네  
본심이 마치 수경처럼 맑거니  
그 어디서 번뇌가 생겨나리오  
버들개지가 진흙에 붙은 지 오래라  
담담하여 무사무려한 사람이로다

眞如了法性  
慧劍發光新  
月印千溪水  
花涵萬象春  
本心如水鏡  
何處惹埃塵  
柳絮粘泥久  
澹然無慮人

머무름 없음이 바로 참 머무름이라  
산비탈에 새로운 흥미가 발하누나  
장은 금강산 길에서 날리었고  
짚신은 낙가산의 봄을 밟아 오네  
구름 낀 골짜엔 맑은 바람이 일고  
흐르는 계곡엔 티끌 한 점 없으라  
홀로 거닐고 또 홀로 깨고 하노니  
오직 속인이나 만나지 않았으면  
『虛白堂集』

無住是真住  
巖崖發興新  
錫飛鞞鞞路  
鞋踏洛伽春  
雲壑生靈籟  
溪流絕點塵  
獨行仍獨寤  
唯願不逢人

○ 낙산사(洛山寺)

허백당 (虛白堂)

성현(成俔)

오봉산 숲은 들쭉날쭉 하 무성도 하여라  
높은 나무 그늘 침침해 바닷가가 어둑하네  
절집은 갑자기 청정한 경계에 나타났고  
백호의 광명은 대자비 얼굴을 둘러쌌구나  
고기잡이 금지된 백성은 살길이 막막하고  
노정 바뀐 역부들은 멀리 달리기 괴로운데  
그나마 산나물이랑 차와 과실이 있기에  
향긋하고 단 맛이 굶주림을 달랠 만하네  
『虛白堂集』

五峯林麓鬱參差  
雲樹沈沈暗海湄  
紺宇忽開清淨界  
白毫光繞大慈悲  
禁魚民戶無生理  
移路郵夫苦遠馳  
惟有山蔬與茶果  
芳甘亦可慰窮飢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용재(慵齋)

성현(成俔)

오봉 숲 기슭 모두 울창하여  
 구름에 걸린 나무 침침하고 바다는 어둡네  
 감우(낙산사)에 홀연히 청정세계 열리고  
 부처님 미간에 나는 빛 대자비로 감쌌네  
 고기잡이 금하니 백성들 살길 없고  
 길가는 역졸은 먼 길 달리기 고달프다  
 애오라지 산나물과 다과(茶菓) 있으면  
 향기롭게 달게 여겨 배고픔 잊으리라  
 『江原道誌』

五峰林麓鬱泰差  
 雲樹沉沉暗海湄  
 純宇忽開清淨界  
 白毫光繞大慈悲  
 禁漁民戶無生理  
 移路鄭大苦遠馳  
 惟有山蔬與茶菓  
 芳日亦可慰窮飢

○낙산사의 스님 해초(海超)가 우리 문중에 출입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하루는 부처에게  
 공양할 것을 요구하니 유본(有本)이 방에 있다가 말하기를  
 洛山寺僧海超 出入吾門已久 一日來求供佛之具 有本在房曰 용재(慵齋) 성현(成俔)

높은 집 용마루에  
 단청을 칠하고  
 나무에 진흙을 칠하여 부처 만들었네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여 공궤하여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高架棟宇  
 塗以丹雘  
 塑泥木爲像  
 晝夜虔誠而飼之  
 有何利益

하니 스님이 즉석에서 대답하기를

僧卽應聲答曰

높은 집 용마루에  
 단청을 칠하고  
 밤나무를 깎아 신주를 만들고  
 사철 중월(仲月)에  
 정성을 다하여 공궤한들  
 무슨 이익이 있는고  
 하여 유본은 대답하지 못 하였다  
 『慵齋叢話』 卷之六

高架棟宇  
 塗以丹雘  
 斲栗木爲主  
 四仲之月  
 虔誠以飼之  
 有何利益  
 有本不能對

○양양에서 남쪽으로 수 리 떨어진 길가에 돌이 서 있는데 항간에서 전하기를

옛날에 한 암행어사(安廉)가 주지(州妓)를 몹시 사랑하다가 이별하게 되자 시를 지어  
 돌에 제하기를[襄陽南數里. 有瀉立路旁. 諺傳. 昔一按廉酷愛州妓. 臨遞別妓. 作詩題于石  
 曰.] 용재(慵齋) 성현(成俔)

너 돌은 어느 때 돌이노 汝石何時石  
 나는 금세의 사람이로다 吾人今世人  
 이별의 괴로움도 모르고 홀로 서서 不知難別苦  
 몇 번이나 봄을 지내었던가 獨立幾經春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함부림(咸傅霖)이 지은 것이라고도 말한다[或云咸傅霖所作]  
 『慵齋叢話』 卷之七

 송시열

○ 박화숙(朴和叔) 세채(世采) 이 보낸 시의 운에 차하다. 경술년(1670, 현종 11년, 선생  
 64세) 4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낙산에 마른 소나무 있고 洛山有枯松  
 파산에 그윽한 풀 있구나 坡山有幽草  
 좋은 곳에 뿌리박지 못했지만 不得好托根  
 천 년 두고 길이길이 좋아하리라 千載永相好  
 머뭇거리노라 세월 저물었는데 徘徊歲云暮  
 부질없이 제결새만 먼저 울어 댄다 空令鷓鴣早  
 말랐어도 봄꽃 원치 않고 枯不願春華  
 그윽해도 큰길 원치 않네 幽不願周道  
 시 읊으며 외로이 바라보니 沈吟騁孤眺  
 옛 시내에 푸른 이끼도 늙었구나 澗古蒼苔老

기이(其二)

이소경에 식물들의 꽃다움 일컬었으나 離騷稱物芳  
 마침내는 난초도 부끄럽게 여겼다 終亦耻蘭草  
 처음에는 빛나고 아름다웠지만 始也耀猗猗  
 이제는 향기로운 덕도 없어졌네 今無馨德好  
 물성(物性)도 이러하지만 物性有如此

사람도 초년과 만년이 다르다네  
 애석하여라 영음 사람  
 끝내 이천의 도에 부끄러웠네  
 분분한 고금의 모든 일을  
 창주 노인(滄洲老人)에게 질정하게나  
 앓고 이천이 사양한 것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한 데서 온 말이다.  
 『宋子大全』

人亦異晚早  
 可惜穎陰人  
 終愧伊川道  
 紛紛古今事  
 請質滄洲老



## 홍인우

○ 『관동록(關東錄)』

치재(恥齋)

홍인우(洪仁祐)

우리 세 사람은 각각 한 봉우리를 차지하고 앉아 감상하였다. 이때, 바다와 하늘은 밝고 아름다웠다. 만 리의 창주가 흰히 드러났다. 자시 뒤에 동풍이 갑자기 일어나 성난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니 마치 수천의 병사와 수만은 군마가 달려드는 듯하였다.

다시 한 동산의 호수를 지니고 출발 길을 20리나 가서 청간역에 도착하였다. 역은 바다와 겨우 10보 거리에 있었다. 조금 동쪽으로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있었다. 높이가 수십 길이나 되었다. 봉우리 위에는 구불구불한 소나무 10여 그루가 있었다. 그 아래는 어지러이 바위가 울퉁불퉁 바닷가에 솟아 있었다. 바다를 굽어 보니 맑기가 거울과 같았다. 바람과 파도가 바위에 닿으면 흩날리는 눈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동쪽으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니 석양이 밝고 아름다웠다. 서쪽으로 설악산을 바라보니 비를 머금은 구름이 어두워졌다. 어부 몇 명이 깊은 파도 속으로 들어가 전복을 잡았다. 이는 김군수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이날 바닷길을 4 5 리나 갔다.

3일(무신). 새벽에 안개가 짙어 일출을 볼 수 없었다. 하늘은 내가 장대한 감상을 하도록 해주지 않았다. 북쪽으로 돌아가니 다시 남쪽으로 5리나 가서 넓은 호수를 지났다. 또 10리를 가니 영랑호를 지났다. 영랑호의 둘레는 20여리나 되었다. 호숫가는 굽어져 있고 바위는 기괴하였다. 호구 동쪽의 작은 봉우리가 호수 가운데 잘린 듯 잠겨 있었다. 바닷길에는 방풀나물이 어지러니 있었다. 몸종에게 수백뿌리를 캐도록 하였다.

또 5리를 가서 쌍성호를 지났다. 호수 서쪽으로 10여리를 가니 바위 봉우리를 가로질러 있어 울타리 같았다. 이것이 바로 이산이다. 속세에서는 읍산이라고도 한다. 호수 동쪽으로는 또 바위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었다. 길이 실처럼 가늘게 육지와 연결되었는

데 바로 비선대이다.

또 23, 24리를 가니 낙산동으로 들어가 서쪽으로 갔다. 다시 동쪽으로 숲속 길을 들어가 낙산사에 이르렀다..절은 동쪽은 큰 바다가 있어 경관과 흥취가 감상할 만하다. 시구가 떠올라 동행한 이에게 보여 주었다.

시는 가음과 같다. .

하늘이 물위에 떠 있어 땅은 감로인 듯하고  
바다가 이웃해 경치가 고소산보다 뛰어나네

地疑甘露天浮水  
境勝姑蘇海作隣

이 날 바닷길로 60여리를 가서 낙산사 동쪽 별채에서 묵었다. 창문을 열고 멀리를 보니 문득 못 고래가 물을 뿜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장관이다.

4일(기유). 새벽에 또 바다가 어두워져 일출을 볼 수 없었다. 하늘의 뜻이다. 이 날 아침 동쪽으로 작은 고개를 넘었다. 솜대를 헤치고 1리쯤 가자 두 칸짜리 절이 굴 위에 있었다. 파도가 늘 그 아래로 들락거려 소리가 진동하고 물결이 세차게 솟아 올랐다. 깊이는 헤아릴 수 없다. 주지 휴정은 자못 학문에 통달했지만 교만하여 나는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이 날 낮에 7, 8리를 가서 대포를 지났다. 대포는 만호의 진영이다. 다시 5리쯤 가자 큰 시내가 있었다. 시냇가에서 쉬며 밥을 먹었다. 저녁에 양양에 이르렀다.

5일(경술). 비가 왔다. 저물녘에 김기복이 만류하여 사문 남 부사에게 술대접을 받고 취하여 쓸어졌다.

6일(신해). 비가 왔다. 앞에 있는 강물이 심하게 불어나 건널 수 없었다.

7일(임자). 날씨가 개지 않았다. 또 술에 취해 다시 쓰러졌다.

8일(계축). 김기복은 풍악산으로 향했다. 우리 세 사람은 남부사와 작별하고 찰방 김자정과 더불어 배를 타고 남천을 건넜다. 25리를 가서 상운역에서 묵었다. 박자정은 상운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많이 취하였다.

9일(갑인). 15, 16리를 가서 관란정에서 쉬었다. 정자는 바다에 접해 있고 큰 소나무 만그루가 동남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정자의 서쪽으로 2리를 가자 동산관이 있었다. 다시 가서 연곡현의 경계에 이르렀다.



바닷가 곳곳에 기암괴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모래는 희고 바다가 푸르러 맑은 흥취에 정신이 없었다. 나는 갑자기 말에서 내려 모래 위로 뛰어들어 몸을 굴리며 누웠는데 마치 미친 사람 같았다. 소나무 사이로 큰 호수가 은은히 비쳤다. 허국선과 남시보가 말하기를 “이곳이 경포가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나는 그들을 속여 말하기를 “아니네”라고 하였다. 수백 걸음을 가서 솔숲을 지나서 맑은 모래가 끝없이 펼쳐 있는데 거울을 갓 닦은 듯하였다. 봉우리가 굽이진 물가를 두르고 있는데, 둘레가 20여 리였다.

허국선과 남시보가 말하기를 “진짜 경포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손벽을 치며 한바탕 웃었다. 함께 말에서 내려 강문교를 거닐었다. 조금 뒤에 조각달이 소나무와 바다 사이에 빛나고 있었다. 어둠을 타고 강릉으로 가서 묵었다. 이 날 바닷길 90여리를 갔고, 육지로 10여리를 갔다.

吾三人各占一峯坐玩. 是時. 海天明媚. 滄洲萬里. 軒豁呈露. 俄而. 東風忽作. 怒濤衝岸. 如千兵萬馬馳突. 又過一苑湖. 行松逕二十里. 抵清澗驛. 驛亭距海纔十步. 小東有峯峽起. 其高數十仞. 上有虬松十餘株. 其下亂石嵯峨. 聳插海澨. 俯見海水. 清如銅鏡. 或風濤觸石. 飛雪四散. 東望海天. 落日明妍. 西望雪岳. 雲雨潑墨. 海夫四五. 沒入千尋之浪. 採石決明. 是金斯文爲吾儕供. 是日. 海行四十五里. 戊申之曉. 霧暗. 不得觀日出. 天其使余不遂壯賞也. 北旋而行. 又南五里. 過廣湖. 又十里. 過永郎湖. 湖周可二十餘里. 汀回渚曲. 岩奇石怪. 湖東小峯. 截入湖心. 海路處處. 防風亂生. 令僕夫採數百根. 又五里. 過雙城湖. 湖西十餘里. 有石峯. 直橫如藩. 卽籬山俗云泣山. 湖東. 又有石峯峭拔. 有徑如線連陸. 卽秘仙臺. 又二十三. 四里. 入洛山洞. 西行. 又東入林路. 抵洛山寺. 寺東. 臨大洋. 景趣可翫. 得句示同行云. 地疑甘露天浮水. 境勝姑蘇海作隣. 是日. 海行六十餘里. 宿東別室. 開窓遠眺. 忽見群鯨噴水. 亦壯玩. 己酉曉. 又海暗不得見日出. 天乎天乎. 是朝. 東踰小峴. 披綿竹一里許. 佛宇二間. 構在窟上. 海濤常出. 入其下. 聲振洶湧. 深不可測. 住持休靜. 頗通其學. 稍驕點. 余不與之語. 是午. 行七八里. 過大浦. 浦. 萬戶營也. 又五里許. 有大川. 憩川邊攤飯. 夕抵襄陽. 庚戌. 雨. 向晚爲金基福所挽. 被主倅南斯文酒. 醉倒. 辛亥. 雨. 前江甚漲. 不得渡. 壬子. 不晴. 又被酒再倒. 癸丑. 基福向楓岳. 吾三人辭南斯文. 與朴察訪子正. 同舟渡南川. 行二十五里. 投祥雲驛. 子正. 主人也. 被酒劇甚. 甲寅. 行一十五六里. 憩觀瀾亭. 亭臨海. 長松萬株. 擁抱東南. 亭西二里. 有銅山館. 又行至連谷縣境. 海曲處處. 奇岩怪石. 不知其幾. 沙白海碧. 清興難收. 余忽下馬投沙上. 轉身而臥. 若狂者焉. 人或謂之狂. 自連谷. 又十五六里. 見松間有大湖隱映. 國善. 時甫曰. 此非鏡浦乎. 余謾之曰. 非也. 行數百步. 纔過松林. 明沙無際. 鏡面新磨. 峯回渚曲. 其周可二十餘里. 國善. 時甫曰. 眞鏡浦也. 余拍手一笑. 共下馬. 散步江門橋. 有頃. 殘月已映松海間. 乘昏投江陵. 是日. 海行九十餘里. 陸行十餘里.

『恥齋記』



## 휴정

○ 제동낙산동헌(題東洛山東軒)      청허당(淸虛堂)      석 휴정(釋 休靜)<sup>79)</sup>

세산 티끌에 휩쓸려 분주히 달리니  
주색에 미친 마음 밤낮이 없네  
어찌 타락한 모습으로 누우리오  
동창에는 바다의 새해가 뜨는구나  
『淸虛堂集』

塵漲蹄輪忙裏走  
心狂酒色夜中行  
豈如破衲蒙頭臥  
直至東窓海日生

○ 제동낙산동헌(題東洛山東軒)      청허당(淸虛堂)      석 휴정(釋 休靜)

세산 티끌에 휩쓸려 분주히 뛰고  
주색에 미친 마음 밤낮이 없네  
타락한 모습으로 어찌 누우랴  
동창에는 바다의 새해가 뜨네  
『淸虛堂集』

塵漲蹄輪忙裏走  
心狂酒色夜中行  
豈如破衲蒙頭臥  
直至東窓海日生

79) 휴정(1520, 중종 15~1604, 선조 37)은 속명은 최여신(崔汝信)이고 본관은 완산(完山), 자는 현응(玄應), 호는 청허(淸虛)이다. 묘향산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묘향산인(妙香山人) 또는 서산대사(西山大師)로 불린다. 휴정은 법명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의 부탁을 받고 전국에 격문을 보내어 의승군(義僧軍)의 결기를 호소했다. 안심사(安心寺)와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 답이 세워졌으며, 해남 표충사(表忠祠)와 밀양 표충사 및 묘향산의 수충사(酬忠祠)에 제향되었다.

9세 때 어머니가 죽고 이듬해 봄에 아버지마저 죽자 안주목사 이사증(李思曾)의 양자로 들어가 서울로 옮겼다. 1540년(중종 35)에 일선(一禪)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1549년(명종 4) 승과에 합격했으며, 대선(大選)을 거쳐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에 올랐다. 1556년 선교양종판사직이 승려의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를 버리고 금강산-태백산-오대산-묘향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선 수행과 후학지도에 전념했다.

1589년(선조 22)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다가 선조의 직접 신문에 의해 무죄가 입증되어 석방되었다. 이때 선조와 휴정이 주고받은 시가 그의 문집에 실려 전한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의 부탁을 받고 전국에 격문을 보내어 의승군(義僧軍)의 결기를 호소했다. 자신은 순안 법흥사(法興寺)에서 문도 1,500명으로 승군을 조직했으며, 평양탈환작전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다. 선조가 팔도십육종도총섭(八道十六宗都摠攝)에 임명하자,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제자인 유정(惟政)에게 물려주고 묘향산으로 돌아갔다. 선조가 서울로 돌아오자 승군을 이끌고 나가 호위한 후 승군장의 직에서 물러나 다시 묘향산으로 돌아갔다.

1604년 1월 묘향산 원적암(圓寂庵)에서 앉은 채로 입적했다. 저서로는 문집인 『淸虛堂集』이 있다.

이 시는 휴정이 낙산에서 묵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감회를 표현하였다. 휴정은 임진왜란과 모반의 혐의, 그리고 불교와 관계없는 속세의 일들에 중심을 잃고 생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조 불교의 중심에서 속세의 일에 분주히 많은 일들을 하며 때로는 속세와의 인연으로 청정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속세의 욕망과 허무함을 표현하였다. 낙산사는 불교의 성지로 이곳을 찾아 선대 고승들을 생각하며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였고, 새롭게 뜨는 해를 보며 마음을 새롭게 잡고 자신을 찾으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 증낙산사승(贈洛山寺僧)                      송운(松雲)                      석 유정(釋 惟政)<sup>80)</sup>

한양 남도에 남은 꽃마저 지니	漢陽南道落殘花
홀홀히 가는 가절 어찌하리오	佳節忽忽不奈何
내일이면 봄도 가고 그대도 가고	明日春歸君又去
헤어지는 서운함 견딜 수 없소	不堪相送過天涯

『四溟堂集』

○ 관동(關東) 관동 공령생(功令生)의 응제(應製). 계축년(1793)

왕은 말하노라.

80) 유정(惟政, 사명당, 송운대사)1544(중종 39) 경남 밀양-1610(광해군 2).조선 중기의 승려. 본관은 풍천(豐川). 속명은 임응규(任應奎). 자는 이환(離煥), 호는 사명당(四溟堂)-송운(松雲), 별호는 종봉(鍾峰). 아버지는 수성(守成)이며, 어머니는 달성서씨(達城徐氏)이다.

7세 무렵부터 할아버지에게 <사략 史略>을 배웠으며, 13세에 황여헌(黃汝獻)에게 <맹자>를 배웠다. 1558년(명종 13)에 어머니가 죽고, 이듬해 아버지가 죽자 김천 직지사(直指寺)로 출가하여 신묵(信默)에게서 <전등록 傳燈錄>을 배웠다. 3년 뒤 승과에 합격한 것을 계기로 많은 유학자들과 교유했는데, 특히 20세 연상인 박순(朴淳) 및 5세 연하인 임계(林梯)와 봉은사(奉恩寺)에서 자주 토론하며 가까이 지냈다. 또 당시 재상이던 노수신(盧守愼)으로부터 <노자>·<장자>·<문자 文子>·<열자 列子> 및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시를 배웠다.

그 뒤 직지사의 주지를 거쳐, 1575년(선조 8)에 선종 승려의 여론에 의해 선종의 본거지인 봉은사 주지로 천거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묘향산 보현사(普賢寺)로 휴정(休靜)을 찾아가서 수행에 정진했다. 1578년에 휴정에게 하직하고 보덕사(普德寺)로 가서 3년간 머문 후 1581년부터 팔공산-금강산-청량산-태백산 등을 돌아다니면서 선을 닦았다. 1586년 옥천산 상동암(上東庵)에서 진리를 깨닫고 오대산 영감사(靈鑑寺)에 머물렀다. 1589년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스승인 휴정과 함께 투옥당했다가, 강릉지방 유생들의 탄원으로 풀려났다. 1592년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기응변으로 인근 9개 촌락의 백성을 구출했으며, 휴정의 격문을 받고 승병을 모아 순안으로 가서 휴정과 합류했다. 의승도 대장(義僧都大將)으로 1593년 1월의 평양성 탈환작전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으며, 그해 3월 서울 부근 삼각산 노원평과 우관동 전투에서도 공을 세웠다. 이 일로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를 제수받았다. 1594년 4월부터 1597년 3월 사이에 적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의 4차례 협상회담에 참여했다. 1595년에는 장편의 상소문을 올려 전쟁에 대비하여 국력을 충실히 하는 방책을 건의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승려로서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의 벼슬을 하사받았다. 1604년 휴정이 입적하여 묘향산으로 가던 중에 왕명을 받고 일본과 강화를 맺기 위한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1605년 4월에 포로로 잡혀갔던 조선인 3,000여 명을 데리고 귀국했는데, 이때 왜군에 강탈당했던 통도사(通度寺)의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되찾아와서 건봉사(乾鳳寺)에 안치했다고 한다. 묘향산으로 가서 휴정의 영정을 참배한 다음 원주 직야산에 머물렀다. 그후 병이 들어 해인사에서 요양하던 중 1610년 8월에 입적했다.

그는 휴정의 4대 제자의 하나였지만, 불교승려로서의 독창적이며 체계화된 사상은 남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승병장(僧兵將)이나 외교가로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경험을 토대로 부국강병책을 건의하여 중농정책의 실시, 인물본위의 관리채용, 탐관오리 숙청, 민력(民力)의 무장, 산성축조, 무기제조, 군량미 비축 등을 강조했다. 특히 불교억압책으로 인하여 몰락한 승려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민과 같이 해줄 것을 건의했다. 임진왜란중에 이미 가토와 4차례의 회담을 가진 바 있는 그는 난이 끝난 직후에는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만나 성공적인 강화를 맺고 귀국했으며, 입적하기 직전에는 쓰시마 도주(對馬島主) 종의지(宗義智)에게 우호를 강조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시문에 능하여 저술이 많았으나 임진왜란 때 거의 불타버렸고, <사명대사집 四溟大師集> 7권과 <분충서난록 奮忠紆難錄> 1권, 기타 상소문·발문(跋文)·서장(書狀) 등이 전한다. 문도들이 해인사 홍제암(弘濟庵)에 탐과 비를 세웠다. 밀양 표충사(表忠祠), 묘향산 수충사(酬忠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이다.

강원도는 동으로 푸른 바다와 닿고 서로는 경기와 마주하고 남으로는 영남과 호서 지방을 접하고 북으로는 관서 지방과 가깝다. 고을이 무려 26개 군이며 산봉우리가 1만 2천 봉이다. 진실로 일국의 이름난 지방이며 삼한의 명승지다. 이곳을 예맥(濊貊)의 옛 도읍지라고 하는데 『職方記』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28수(宿)의 분야로는 기수(箕宿)의 자리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천체가 운행하는 도수는 바뀌지 않았느냐? 연해의 삭방(朔方)은 우선 소멸되는 대로 놓아두고 경기 지방의 고을과 호서 지방의 고을은 그 연혁을 말할 수 있겠느냐? 병마와 수군은 무장이 각기 통솔하는 것인데 모두 없애 버린 것은 어째서이며 삼부(三部)와 육사(六司)는 감영(監營) 제도의 당연한 것인데 고르지 못한 것은 어째서이냐?

한(漢) 나라 천자는 창해군(蒼海郡)이라는 군현을 설치하였고 박망후(博望侯 장건(張騫))는 선사(仙槎)에 닿줄을 묶었다. 어떻게 멀리까지 관할할 수 있겠으며, 또한 얼마나 과장된 말이나. 멀리는 부상(扶桑)을 마주하고 가까이는 양곡(陽谷)과 인접하였으니 이곳에 소경(小京)을 설치한 일이 있었고, 이름난 산악을 바라보고 드넓은 광야를 돌아보니 태봉(泰封)이라는 국호가 일찍이 있었다. 그 연대와 경계를 모두 상고할 만한 문헌이 있느냐?

미노리(未老里)<sup>81)</sup>의 상마(桑麻)와 옛 언덕은 다름없는 고향 풍경이며 관음굴(觀音窟)<sup>82)</sup>의 납의(衲衣)의 영험함은 왕자의 생산을 기원하는 상서에 부합하였다. 화천(花川)의 돌을 쏘아 화살이 박혔다는 고적과 예국(藥國)의 뛰어난 인물들의 훌륭한 모두가 아름다움을 들추어내고 성스러움을 기릴 만한데 아직도 기록되지 아니하고 있다. 의관(義館)과 천보(天寶)는 구름 같은 산들이 첩첩인데 대관령이 자물쇠처럼 가로막고 있으며 쌍성호(雙成湖)와 다대포(多大浦)는 안개 낀 파도가 끝이 없으니 이보다 더 험난한 해방(海防)은 없을 것인데 지금은 어찌하여 수비를 철수하였느냐?

도내의 넓이는 천 리에 가까우나, 대부분 산협으로 쌓여 있으며 바다는 100년 동안 조용하니 인구는 더욱 번성하였다. 토지는 척박하고 민생은 어려운데 세금은 부포(夫布), 이포(里布)뿐만 아니라 어염(魚鹽)의 이익까지도 수탈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근거도 없이 거두는 세 가지 세금에 대해 ‘청산 육리(靑山六里)’라는 속담을 낳고 있을 지경이다. 유생에게는 노역이 있고 향교에도 공물을 물리고 있으니 승려는 독경을 못 하며 상인은 장사를 못 한다. 고슴도치 털처럼 울연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단의 원인을 한마디로 들 수 있겠느냐.

만폭동(萬瀑洞)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수점(水岫)을 벗어나지 않고 도로의 맥락을 찾아볼 수 없다. 산세는 철령(鐵嶺)의 능선을 따라서 백두산에 소급되는데 북쪽 한계와

81) 미노리(未老里): 목조(穆祖)의 무덤이 이곳에 있으며, 도조(度祖)가 태어난 고향임을 말한다. 읍지(邑誌)에는 미노리(眉老里)로 되어 있다. 『關東邑誌』

82) 관음굴(觀音窟): 익조(翼祖)가 정숙왕후(貞淑王后)와 함께 이곳에서 아들 낳기를 기원하고 있었는데, 꿈속에 납의를 입은 승려가 나타나서, “반드시 귀한 자식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선래(善來)라고 하라.”고 일러 주었다. 얼마 후 도조(度祖)가 탄생하니 이름을 선래라고 하였다고 한다. 『關東邑誌』

남쪽 가닥이 완곡하게 내려온 것이 있을 것이니, 그 풍기와 수원을 아울러 들추어낼 수 있겠느냐? 청학동(靑鶴洞)은 작은 골짜기이지만 금강산에 견줄 만하고 석옹(石鷹)의 기괴한 형상은 『지장경』에서 취하여 온 모습이라고 하는데 역시 조화물의 잔재에 불과한 것이냐? 한 굽이 호수와 5리에 이르는 흰모래는 영랑(永郎)이 노닐던 곳으로 약을 만들던 절구와 차를 끓이던 화로가 아직도 희미한 자취를 전하여 주고 있다고 하니, 신선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꾸며 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강(杠)은 녹죽(葛竹)과 같으며 승(升)은 북송아만큼 크다고 한다. 이것은 산이 크다는 것을 과장한 것이고 땅이 기름지고 물산이 풍요하여 이용후생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일일이 찾아내는 정책은 도리어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비파의 가곡<sup>83)</sup>이 강남에 유포되니 한송정(寒松亭)의 이름이 이로부터 성가가 올라가고, 돌 위의 염주(念珠)는 죽정(竹頂)에서 영험을 보이니 낙가(洛伽)의 징조가 보배로운 집물에 오르게 되었다<sup>84)</sup>. 사물도 기대하지 않은 만남이 있는 것이더냐? 일출을 공경히 맞을 수 있는 바닷가는 어느 곳이 가장 좋으며, 동해에는 조수의 물때가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

원주(原州)에 주천석(酒泉石)이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낭설이 아니며, 울진(蔚珍)에 천량혈(天糧穴)이 있다는 것은 황당한 말이 아니냐? 청평(淸平)의 문수비(文殊碑)에 제사를 올려 기원한 것은 어느 시대이며 도원(桃源)의 효제향(孝悌鄉)은 순박한 풍속이 지금도 전하고 있느냐? 기자(箕子)의 옥규(玉圭)는 누가 얻어서 누구에게 바쳤으며, 중국 사신 공씨(龔氏)의 환선(紈扇)은 누가 시를 쓰고 누가 읊었느냐?

진평왕(眞平王)이 암석에 새겨 놓은 시구는 보았으며 익성공(翼成公 황희(黃熹)의 시호)이 머물렀다는 곳은 석정(石亭)의 아래쪽에 있는지 와현(瓦峴)의 위쪽에 있는지 들었느냐?

오죽헌(烏竹軒)에서는 현인이 태어났는데 골짜기가 깊어 지초를 캐는 은둔자가 노닐 만하고 유림(柳琳)<sup>85)</sup>의 큰 공적은 백전(栢田)에 완연하게 남아 있고 실직(悉直 삼척의 옛 이름)의 유래된 풍속은 우산(羽山)처럼 높다랗다.

지난 공적과 넉넉한 향기는 지금도 격려시키는 아름다움이 남아 있느냐? 대저 산은 서북에서 일어나고 물은 동남으로 흘러가는데 풍기가 치밀하고 형세가 완전하여 마을

83) 비파의 가곡: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지적하는 말이다.

84) 돌 위의 …… 되었다: 낙산사(洛山寺)의 개창과 관련된 설화의 내용을 말한다. 낙산 바닷가에 석굴이 하나 있는데 신라의 승려 의상(義湘)이 관음의 모습을 보려고 석굴 앞에서 14일간 기도를 하였으나 보이지 않으므로 바다에 투신을 하였다. 그런데 바다의 용이 구출하여 바위 위에 놓으니 관음대사가 석굴 속에서 팔을 펴 수정(水晶) 염주를 주면서, “내 몸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석굴 위에 쌍죽(雙竹)이 자라고 있는 곳이 나의 정수리이니 이곳에 가람을 세우도록 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해룡도 여의주(如意珠)와 편옥(片玉)을 전해 주었는데 의상이 그곳에 가람을 짓고 해룡이 준 편옥으로 관음상을 조각하여 보관하였다고 한다. 《關東邑誌》

85) 유림(柳琳): 1637년(인조15) 호란(胡亂) 때에 관서 절도사 유림이 왕을 돕기 위해 갈 때 이곳을 지나다가 적병을 만나 적장 야빈대(耶彬大)를 죽이고 공적을 이룬 일을 말한다. 백전(栢田)은 관서 관찰사 홍명구(洪命畝)가 순절한 곳이기도 하다. 승첩비(勝捷碑)와 충렬사(忠烈祠)가 있다. 『關東邑誌』

의 촌락과 영부(營府)의 관할을 차례로 구비하였다. 관동이 비록 작으나 역시 나라 안의 하나의 도회지다. 물산으로는 산삼(山蔘), 백출(白朮), 마저(麻楮), 봉밀(蜂蜜), 해산물, 석유(石乳)와 호랑이 가죽을 공물로 바치고, 백성은 효성 있고 우애하며 농업에 힘쓰고 바탕이 곧으며 의리를 좋아하는 선비가 많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만년의 안식처를 꾸미려는 사람은 모두 관동을 꺾고 있으니, 비단 산수와 어조(魚鳥)만을 보고 즐길 뿐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근년에 들어서 땅에서 재화가 번식되지 않고 백성의 생활은 나날이 곤궁해져서 농가의 비축이라고는 탕감해 주고 남은 세액을 바치기에도 부족하고, 어부의 집은 쇠잔하여 국가에서 넉넉하게 진휼하여 주는 실효를 볼 수 없다.

조적(糶糶)의 액수가 30여 만 포(包)인데 쪽정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군사의 수는 모두 1만 몇 천 명인데 빈 대오를 보충하지 못하고 있다. 삼공(蔘貢)은 법을 누차 변경하였음에도 백성의 힘을 덜어 줄 실효는 아직도 까마득하고, 승역(僧役)에 대해 매번 칙령을 내렸으나 승려들이 노역하게 하는 폐단은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어찌 도백이 직책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뿐이겠느냐. 참으로 나 한 사람의 성의가 부족하여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즉위한 이래로 10년을 하루같이, 밤낮으로 동방 백성들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감히 농사가 어느 정도 풍년이 들었다고 하여 혹시 상처가 조금은 아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밭갈이를 끝내고 등불을 밝혀 놓고 붓과 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역시 사농공상 중에 으뜸이 아니더냐.

민정의 이해와 고을의 크고 작은 폐단을 그대들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묻겠느냐. 이번에 이 공령생(功令生)을 선발하여 시험을 치르는 일은 한 지방을 흔들어 감화시키고 많은 선비를 교육하는 뜻에서이지마는, 풍속과 고난을 묻는 좋은 제도도 그 속에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여야 정치를 조금의 까다로움도 없이 하고 사물의 모든 해로움을 제거하여 소생시켜서, 선비는 덕의 보답을 받고 농민은 농토에서 일하며 동해에 둘러싸여 있는 8만여 호 모두가 우리의 천 억년 무궁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하겠느냐?

아, 그대 제생은 추천장에 성명이 올라 있으니 군왕의 앞에서 들추어낼 책임이 있다. 그대들은 마음을 다하여 조목조목을 진술하라. 내 친히 열람하리라.

『關東邑誌』關東 關東功令生應製○癸丑

王若曰. 江原爲道. 東極滄溟. 西拱畿甸. 南接嶺湖. 北近關塞. 郡凡二十有六. 峯有一萬二千. 誠一國之名藩. 而三韓之勝區也. 地是濊貊之都. 職方可按歟. 星分箕宿之次. 躔度不改歟. 沿海朔方. 且置銷刻. 畿邑湖縣. 能說因革. 兵馬水軍武帥各領. 而竝闕則那. 三部六司營制固然. 而不齊緣甚. 漢天子置郡曰蒼海. 博望侯繫纜於仙槎. 曷迺遙管. 何亦浮夸. 遠拱扶桑. 近挹暘谷. 斯有小京之設. 粵瞻名嶽. 顧視曠野. 夙著泰封之號. 其年代境界. 皆有攷信之文歟. 未老里之桑麻古陌. 依然粉榆之物色. 觀音窟之衲衣靈應. 實符玄鳥之禎祥. 花川射羽

之勝蹟. 藁國拔髦之盛典. 悉合揚休頌聖. 而尙稽於紀載歟. 義館天寶. 雲山千疊. 而嶺陬如鎮. 雙成大浦. 烟波萬頃. 而海防莫險. 則今胡撤其守歟. 疆近千里. 而山峽殆遍. 海晏百年. 而生齒益繁. 土最確而民最寡. 賦不止於夫里. 利盡括於魚鹽. 伊來自地三稅. 諺稱青山六里. 儒有役而校有貢. 僧不唄而賈不售. 凡係百弊之蝟起. 可以一言而毛舉歟. 源窮萬瀑. 不出於水帖. 而脈絡道里. 仍無可尋. 勢從鐵嶺. 直溯於白頭. 而北戒南條. 曲有自來. 風水并可揚挖歟. 青鶴小洞. 竊比於金剛. 石鷹奇形. 取象於地藏. 亦云造化之糟粕歟. 一曲平湖. 五里明沙. 卽永郎盤桓之地. 而丹臼茶竈. 尙傳其依稀蹤跡. 則神仙之說. 不可盡誣歟. 杠如藁竹. 升大桃子. 乃于山強大之所. 而沃壤饒產. 多賴於利用厚生. 則搜討之政. 反歸太膠歟. 瑟底詞曲. 流布於江南. 寒松之名. 自此增價. 石上念珠. 示靈於竹頂. 洛伽之兆. 至登寶什. 物亦有不期之遇歟. 日出之寅賓海隅. 何處最勝. 潮信之不及東洋. 其理可推. 原州有酒泉石. 無已齊諧. 蔚珍有天糧穴. 得非唐荒. 清平文殊之碑. 祝釐者何代. 桃源孝弟之鄉. 不沫者淳風歟. 箕子玉圭. 孰得而誰獻. 龔使執扇. 誰寫而孰詠. 爾見眞平王勒詩. 爾聞翼成公駐節之在石亭之下瓦峴之上歟. 軒號烏竹. 賢人篤生. 洞採紫芝. 隱者考槃. 而柳琳之膚勳. 柏田宛然. 悉直之餘俗. 羽山率彼. 其往烈膺馥. 至今有風勵之美歟. 大抵山起西北. 水注東南. 風氣密形勢全. 而井里之聚落. 營府之統轄. 次第備焉. 關東雖小. 亦王服之一都會也. 物產則有蓼朮麻楮蜂蜜海錯石乳文豹之貢. 人民則多孝友力田質直好義之士. 數樂土而營菟裘者. 無不以關東爲歸. 蓋非獨山水魚鳥之爲可悅眼而已. 夫何挽近以來. 地財不殖. 民生日困. 田家之蓄積. 不足當寬蠲之餘稅. 漁戶之凋殘. 未見有優恤之實效. 糶糴之包三十餘萬. 而糠粃居多. 軍額之摠萬有數千. 而虛伍難充. 蓼貢屢變. 其法. 而吾民息肩之驗. 奈遲俟應. 僧役每煩飭令. 而緇徒荷擔之弊. 相續前後. 此豈但承流分憂者之未副職責. 實由予一人誠未孚而惠不究耳. 肆予宵旰之念. 憧憧於東民者. 癸甲以來. 十年如一日. 不敢以稼穡之稍登. 或幾其瘡痍之少完. 而輟耕籌燈. 握鉛而懷槩者. 又非四民之長乎. 民情之怎利怎害. 邑瘼之若大若小. 不於是問而又誰問. 今此功令生抄啓試取之舉. 固出於風動一方教育多士之意. 詢謠俗訪疾苦之良規美制. 亦欲兼寓於其間. 何以則政無一毫之煩苛. 物得衆疵之蘇祛. 士食舊德. 農服先疇. 而環東海八萬餘戶. 共享我千億年無疆之利澤歟. 咨爾子諸生. 名登剡薦. 責任對颺. 其可悉乃心條陳之. 予將親覽焉.

『弘齋全書』



김창협

○ 관음굴(觀音窟)에서 아침에 일어나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어스름에 산속에서 잠을 자는데

暝宿翠微內

잠자리에 흰 구름 피어났다네  
 아침에 일어나서 홀연히 놀라  
 어리둥절 이곳이 어디란 말까  
 밤사이에 봄비가 내렸었는지  
 꽃 위엔 이슬 아직 함초롬한데  
 바위 샘에 세수하고 입을 행군 뒤  
 빗질할 제 들려오는 새들 소리에  
 녁쿨 얽힌 오솔길 돌아가려다  
 애오라지 다시금 가만 섰노라  
 『龔巖集』

白雲生臥所  
 起來忽自驚  
 還問此何許  
 不省夜來雨  
 花上露猶溼  
 盥濯漱巖泉  
 梳頭聽禽語  
 欲歸蘿徑長  
 聊此復延佇

○ 내주(萊州) 박 사군(朴使君) 치도(致道) 과 함께 범어사(梵魚寺)의 의상대(義相臺)에 올라가 산성(山城)의 형세를 살펴본 뒤에 다시 대마도(對馬島)를 굽어보니, 대마도가 마치 방 안에 놓인 궤안(几案)처럼 가로놓여 있었다.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깃발을 펴리며 산꼭대기 올라가  
 누대에서 술잔 잡고 변방 계책 살펴볼 제  
 바다 구름 남방의 오랑캐 기운 서리었고  
 하늘 저쪽 대마도 아스라이 보이누나  
 『農巖集』

風旆登山轉上頭  
 高臺把酒聽邊籌  
 海雲不散南夷氣  
 天畔看橫對馬州

○ 관음굴(觀音窟)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맑은 바람에 소리에 우는 소나무 가지  
 이 세계는 분명 자궁과 통하는 구나  
 고요한 곳 새소리 골짜기 밑에서 들려오니  
 온갖 꽃 흩어져 오히려 아득하다  
 서쪽 기슭에 깨끗한 흰 모래 고요히 좋아하여  
 소나무 뿌리 베개 삼아 노을 속에 누웠다네  
 벌은 인간 세상에 나를 따르니  
 간간이 내 몸 곁 철쭉꽃을 쪼네  
 『三淵集』

寥寥松頂振天風  
 此界知應通紫宮  
 幽鳥一聲生壑底  
 杳然猶隔百花叢  
 靜愛西崖潔白沙  
 松根爲枕臥青霞  
 蜂從下界隨巾履  
 間啜身邊躑躅花





## 조엄

- 준하주 청견사에서 호곡 남용익의 시를 차운함[駿河州淸見寺次南壺谷龍翼韻]  
해사(海槎) 조엄(趙巖)<sup>86)</sup>

해 돋는 동쪽이라 청견사란 절이 있어	日東淸見寺
문을 열면 만 리의 파도를 대하게 되네	門對萬里波
스님이 입정(入定)하자 흰 구름 떠오르고	僧定白雲出
누각(樓閣)이 높으니 나는 새를 내려보누나	樓高飛鳥過
낙산사(洛山寺)도 이처럼 그리면 좋겠구만	洛山同畫可
한국(韓國)의 사신은 시를 많이 부쳤다오	韓使寄詩多
풍광의 바깥일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欲說風光外
언어가 다른지라 어찌하리오	殊音奈爾何

남호곡이 일찍이 이 절을 양양(襄陽) 낙산사(洛山寺)에다 비했으므로 스님들이 이 말에 인하여 낙산사의 그림을 그려 보내달라고 하기에 경련(頸聯)에서 언급하였다.[南壺谷. 曾以此寺比之襄陽洛山. 僧仍是語. 乞畫洛山. 故頸聯及之.]

『海槎日記』

- 종일 흐리고 비가 왔다. 길원(吉原)에서 잤다. 제곡(濟谷) 조엄(趙巖)

오늘의 원래 정해진 참(站)은 삼도(三島)에 있는데, 1백 20리가 된다. 그래서 일찌감치 출발할까 했는데, 밤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대령(待令)하는 마필(馬匹)마저 지체되었다. 그래서 행차를 멈추고 싶었지만, 도주(島主)가 이미 떠났기 때문에 부득이 비를 무릅쓰고 늦게 출발하였다.

20리를 가다가 지나는 길에 청견사(淸見寺)에 들렀다. 절은 오산(鰲山)에 있는데 일본에서 유명하므로 앞서의 신사(信使) 중에는 올라서 구경했던 이가 많았다. 앞은 큰 바

86) 조엄(1719, 숙종45~1777, 정조1)의 본관은 풍양(豐壤)이고 자는 명서(明瑞), 호는 영호(永湖)이다. 이조판서 상경(商綱)의 아들이다. 1738년(영조 14)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음보로 내시교관(內侍敎官)·세자익위사시직(世子翊衛司侍直)을 지내고, 1752년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이듬해 정언이 되었다. 1758년에 이례적인 승진으로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대사헌·부계학·승지·이조참의 등을 지냈다. 1763년 통신정사(通信正使)로서 일본에 다녀온 뒤 대사간·한성부우윤, 예조·공조의 참판 및 공조판서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유배 중에 아들 진관(鎭寬)의 호소에 의하여 죽음을 면하고 김해로 귀양이 옮겨졌으나 실의와 불만 끝에 이듬해 병사하였다.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대마도에서 고구마의 종자를 가져오고 그 보장법(保藏法)과 재배법을 아울러 보급하였다.

1794년(정조18)좌의정 김이소(金履素)·평안도안핵어사(平安道按覈御史) 이상황(李相瓚)의 노력으로 신원되고, 1814년(순조 14)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통신사로서 일본을 내왕하며 견문한 바를 적은 『해사일기』가 전하고 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다에 다다랐으니 안계(眼界)가 트이고, 뒤는 산이 병풍처럼 들렸으며 화초가 우거졌다. 집들이 우뚝 솟고 폭포는 쏟아졌다. 앞뜰에 한 그루의 매화나무가 있어 가지는 옆으로 퍼져서 그늘이 세 칸 집을 덮었고, 바야흐로 꽃이 피어서 향기가 한 동산을 풍긴다. 비록 들던 바만은 못하나 또한 흔히 있는 게 아니라 하겠다.

주지(住持) 주인(主忍)이란 자가 나와 뵈더니, 전후의 우리나라 사람의 시장(詩章) 등본(謄本)을 내어 보이며 시 한 수를 요구한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써 주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지어 바친 것에는 볼 만한 게 없었다. 법당(法堂) 문설주에 현판들이 있는데, 하나는 병오년(1606, 선조 39)의 신사(信使)여우길(呂祐吉)·경섬(慶暹)·정호관(丁好寬)이 지은 칠언절구(七言絕句) 한 수씩이고, 다른 하나는 무진년(1748, 영조 24)의 삼사(三使)가 병오년의 사신들이 지은 운을 따라 지은 것이다. 또 ‘제불택(諸佛宅)’이란 3자가 쓰인 현판이 있기에 물었더니, 이는 신묘년(1711, 숙종 37)의 제술관 박안기(朴安期)의 필적이라 한다.

전부터 이 절을 논하는 사람이 간혹 우리나라의 양양(襄陽) 낙산사(洛山寺)에다 비유하곤 했는데, 그건 남호곡(南壺谷) 일기(日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절 중이 이 말로 인하여 화사(畫師)에게 낙산사의 화본(畫本)을 요구하는데, 그도 역시 돌아오는 길에 해주겠다고 허락하였다. 세 사신이 한자리에 모여 잠깐 쉬고 곧 떠나는데, 길이 해안(海岸)을 경유하므로 성난 파도가 철썩거리고, 바다 공기가 사람을 엄습하였다. 길가에 소금 굽는 가마솥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은 소금 굽는 일로 생업을 삼는다 한다. 진흙길을 걸어서 한 준령(峻嶺)을 넘는데 곧 살타현(薩陀峴)이요, 다시 평지로 내려서서 한 주교(舟橋)를 건너니 바로 부사천(富士川)이다. 내는 마치 홍수를 만난 것처럼 넓고 깊었으니, 참으로 건너기 어려운 곳이었다.

좌우로 제방을 쌓았다. 앞서 이른바, 죽부인(竹夫人) 모양처럼 생긴 것을 수없이 펼쳐 두었고, 또 가는 대와 조각대를 가지고 주교의 바깥 길가 좌우를 자못 몇 리 넘게 둘러 놓았는데, 모래를 쌓아서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나무를 둘러서 그 좌우를 한계한 것이다.

이 대나무로 둘러놓은 곳을 건널 때에 풍우(風雨)가 크게 일어서, 인마(人馬)가 거의 쓰러질 뻔하였다. 그 길은 겨우 잘 지났으나 날짜를 헤아려 보니 삼도(三島)에 꼭 도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장무관(掌務官)을 도주에게 먼저 보내어 내일 떠날 것을 요청하고, 해가 저물어서야 길원에 들어갔는데, 이곳 역시 준하주(駿河州)의 소속이다.

일행들이 거개 후줄근히 젖어 있어 형편상 전진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도주는 내가 보낸 심부름꾼을 만나보기도 전에 먼저 이미 떠났다 한다. 이는 미처 요량하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저들은 주참(晝站)을 야참(夜站)으로 변경하는 것이 종일 머물며 지체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여긴 때문이라고 한다. 비록 지대(支待) 먹을 것과 쓸 물건을 이바지하는 일을 갑자기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을 염려한 모양이나, 그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는 전연 알지 못한다고 하겠다.

호행(護行)하는 왜인들 중에 떠나기를 청하려는 자가 있다 하기에, 나는 ‘지난번 저들이, 주교(舟橋)를 고쳐 놓는다는 핑계로 하루를 대원(大垣)에서 머물고, 또 대정천(大井川)을 건너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루를 지체한 것은 무슨 뜻이었던가? 지금 비가 퍼붓고 해가 저물 때에 떠나기를 청하는 것은 매우 근거 없는 일이며, 수역관이 이런 말을 들어와서 고하는 것 역시 매우 온당치 못하다.’는 뜻으로 아울러 엄하게 나무라고, 따라서 유숙(留宿)하겠다는 뜻을 도주에게 통보하게 하였다.

어두워질 무렵에 풍우가 또 일어났다. 만약 전진하였더라면 사람들 중에는 병이 생기는 이가 많고, 옷을 얇게 입은 하례(下隸)들이 혹 중도에서 쓰러지게 되는 염려도 없지 않았을 것인데, 다행히 머물러 자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세 사신의 이부자리를 머물러 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앞질러 가져갔다. 그런데도 여러 사람들이 모두 ‘비록 침구(寢具)는 없더라도 떠난 것보다는 낫다.’고 하니, 풍우에 시달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다. 유숙하게 된 길원 지방은 준하주의 소속이다. 일공(日供)은 비록 갑자기 변통하여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만약 전수를 제감하도록 허락하면 후일의 폐단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또 사체(事體)에도 어떨지 몰라서 바치게 하였더니, 준례대로 준비되었으나 과연 두세 가지 갖추지 못한 잡종이 있다 하기에 그것을 제감하게 하였다.

이날은 70리를 갔다.

陰雨終日. 宿吉原. 今日元定站實在三島. 將爲百二十里. 必欲早發. 自夜雨下不止. 且馬匹之待令遲滯. 欲爲停行. 而島主已發. 不得已冒雨晚發. 行二十里. 歷入清見寺. 寺在鰲山. 而有名於日東. 故從前信使輒多登覽. 而前臨大海. 眼界廣闊. 後山園屏. 花卉成林. 傑構嵬嵬. 懸瀑淙淙. 前庭有一梅樹. 枝幹旁達. 蔭覆三間. 花藥方開. 香濕一院. 雖不及於所聞. 亦可謂稀有也. 住持僧主忍者出謁. 進前後我國人詩章謄本. 仍乞一詩. 以歸路書給答之. 而渠之製呈者無可觀矣. 法堂門楣有兩懸板. 一是丙午信使呂祐吉. 慶暹. 丁好寬七絕一首. 一是戊辰三使所次丙午韻者也. 又有諸佛宅三字懸板. 問是辛卯製述官朴安期筆也. 自前論此寺者. 或比之於我國襄陽洛山寺. 觀於南壺谷日記則可知矣. 寺僧因是語乞得洛山寺之畫本於畫師. 故亦許歸路. 三使同會少休即發. 路由海岸. 怒濤崩騰. 海氣襲人. 路邊多有鹽釜. 而居民以煮鹽爲業云. 衝泥而行. 踰一峻嶺. 卽薩陀峴也. 轉下平地. 渡一舟橋. 卽富士川也. 川廣而深. 若值潦水. 誠難渡涉處也. 左右爲堤堰. 鋪列前所云竹夫人樣子者. 不知其數. 且以細竹片竹作圍於舟橋外路傍左右者. 殆過數里許. 以其築沙爲路. 故以竹圍限其左右也. 渡竹圍之時. 風雨大作. 人馬幾乎顛仆. 僅能趨程. 而商想日力. 必不及於三島. 故先送掌務官於島主. 要以姑待明日作行之地. 日暮始入吉原. 亦屬駿河州. 一行舉皆沾濕. 勢難前進矣. 島主則未承吾侪之前. 先已作行云. 而非但未及料量. 彼人輩以晝站之改爲夜站. 極爲持難. 有甚於終日之留滯云. 雖以支持之猝難辦出爲慮. 其於待客之禮. 可謂全不知也. 護行差倭等有欲請行者云. 故余以向日渠輩托以舟橋改鋪. 淹留一日於大垣. 又以大井川之難涉. 遲滯一日者何意. 今欲請行於雨注日暮時者. 極爲無據. 首譯之以此語入告者. 亦甚未安. 並嚴責之. 仍以留宿

之意. 使通於島主. 初昏風雨又作. 若或前進. 則多人必多生病. 衣薄下隸. 或不無中路顛仆之患. 而幸而止宿. 三使則衾籠留待. 而餘並先去. 諸人皆以爲雖無寢具. 有勝於作行. 可想其風雨之苦狀也. 止宿吉原. 地屬駿河州. 而日供雖是不時辦備. 若許全減. 則非但後弊有關. 且於事體如何. 故使之捧上. 則依例準備. 而果有數三雜種未備者云. 故此則使之除減. 是日行七十里.

『海槎日記』

○맑음. 청견사에서 점심을 먹고 강고(江尻)에서 잤다. 제곡(濟谷) 조엄(趙暉)

밥을 먹은 뒤에 출발하여 20리를 가서 주교에 이르렀는데, 냇물이 사납고 급하였으니 게려(揭厲)하기는 이미 어려웠다. 배를 연결해서 다리를 놓았는데 과연 힘을 많이 들였으니, 이틀 동안 체류한 것은 사세가 그렇게 된 것이다. 또 19여 리를 가서는 도주가 앞서고 반드시 모여서 가지 않았다.

잠깐 다옥(茶屋)에 들어갔는데, 다옥은 바닷가 언덕 위에 있었다. 바다는 바로 내양(內洋)인데 백 리쯤 산을 에워싸고 거울 면처럼 평평하였다.

문에 작은 간판이 있는데 ‘임해정(臨海亭)’이라고 씌었다. 이는 저들의 글씨인데, 필법이 이미 졸렬하고 내용도 무의미하였다. 서중화(徐中和)를 시켜 ‘경호정(鏡湖亭)’이라고 세 글자를 큼직하게 써서 벽에 붙이게 하였다.

앞으로 나아가 청견사에 들어갔다. 매화는 비록 떨어졌지만 연약한 푸른 잎은 그늘을 이루고, 괴이한 화초는 새잎이 많이 돋았으며, 폭포는 비 뒤에 수세를 더했다. 절은 더욱 깊숙하고 경치는 펍 그윽하였다.

‘푸른 그늘 꽃다운 풀, 꽃 피는 시절보다 낫구나(綠陰芳草勝花時)’라는 것은 참으로 헛말이 아니다.

삼면(三面)이 바다로 둘러싸인 것은 비록 통활(通豁)한 도포(韜浦)만은 못하더라도 사시(四時)의 장춘(長春)은 실로 도포에는 없는 것이었으니, 만약 일본의 절경을 논한다면 도포와 서로 백중(伯仲)을 할 만하다고 하겠다.

주지(住持) 주인(主忍)이 또 칠언 절구 한 수를 바치고 세 사신에게 화답을 요구하기에, 모두 붓을 날려 수응(酬應)하고, 또 남호곡(南壺谷) 시의 ‘다(多)’ 자에 차운한 것을 여기에 두고, 또 낙산사(洛山寺)의 화본(畫本)으로 앞서 간절히 요구하던 뜻에 부응(副應)해 주었다. 그리고 따라서 종이·붓·먹 및 호두[胡桃] 등을 주었으며, 앞서 사람을 보내어 꽃을 달여서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맛보였다.

이 절의 경치는 죽히 하룻밤 묵을 만한 인연이 있었으나, 참소(站所)가 아닌 때문에 햇불을 들고 전진하여 초경(初更)에 강고(江尻)에 들었다. 산승(山僧)이 사의(謝意)를 표



법의 인연은 비록 이제야 맺었지만  
 시구를 남기어 지나간 일 기억되네  
 폭포에 비쳐서 등불빛 요란하고  
 포단에 누웠으니 잠 맛이 펍 좋네  
 나그네 걸음이라 머물러 설 수 없으니  
 더구나 밝은 저 달을 저버리면 어떡하나  
 원운(原韻)

法緣憐始結  
 詩句記曾過  
 瀑布燈光亂  
 蒲團睡味多  
 客行留不得  
 其奈月明何

삼청의 세계에 탑은 우뚝 솟았는데  
 문을 열면 만 리 바다와 마주치누나  
 고기잡이 배들은 연과 밖에서 돌아오고  
 사신의 행차는 빗속을 지나가네  
 새 매화는 곱게 피어 온 땅에 가득하고  
 하늘에 거의 닿은 고목들 많기도 하네  
 다른 나라에 들어와 물색을 옮겨 되니  
 나그네 고향 시름 어찌 건디란 말인가  
 부사(副使)

塔聳三清界  
 門開萬里波  
 漁舟煙外返  
 征節雨中過  
 滿地新梅好  
 參天古木多  
 殊邦題物色  
 其奈客愁何

숲 속을 거닐으니 잇따라 취미가 나네  
 오래도록 배만 타서 풍파에 시달렸기에  
 육오의 등에 업혀 누각(樓閣)은 뚝뚝 떴고  
 사모가 지나가니 중들이 환영하네  
 꽃 속에 숨은 폭포소리 아스랑게 들려오고  
 청산이 가까우니 구름 구경 많이 하네  
 눈을 들어 저 하늘 극동(極東)을 바라보니  
 부상은 아직도 얼마나 남았는지  
 종사관(從事官)

林行轉生趣  
 舟楫久風波  
 樓泛六鼈戴  
 僧迎四牡過  
 花深聽瀑迴  
 山近見雲多  
 縱目天東極  
 扶桑且幾何

청정(淸淨)의 세계는 연륙에 의지하고  
 드높은 창문은 눈빛 파도를 내려다보네  
 누대를 돌아보니 시권이 걸려 있으니  
 고금의 사신들 지나간 흔적이로세  
 꽃향기에 감싸여 제천<sup>87)</sup>이 어둑하고

淨界依蓮麓  
 高窓瞰雪波  
 樓臺詩卷在  
 今古使車過  
 花氣諸天暗

87) 제천(諸天): 불가(佛家)의 용어(用語). 불경(佛經)에서 삼계(三界)의 28천을 제천(諸天)이라 일컫는데, 천(天)이란 청정(淸淨)하고 광결(光潔)함을 말함.

폭포 소리 끊임없이 가랑비가 흩날리네  
앞날의 기약이 분명 멀지 않을 텐데  
매화꽃이 그때 가면 어떻게 되려는지  
남옥

泉聲細雨多  
前期知不遠  
梅蕊更如何

불연이 정청의 땅에 머물러 있어  
누대(樓臺)의 그림자 창파에 뒹뒹 띄네  
설납은 시권(詩卷)을 손에 들고 기다리는데  
사신의 가마는 비를 맞으며 지나가네  
층벽에서 떨어져 폭포는 가직하고  
온 뜰은 매화나무 많기도 하군  
운림의 언약을 다시 다짐하지만  
돌아가는 시기가 어떻게 되려는지  
성대중

佛緣留淨地  
樓影泛蒼波  
雪衲携詩待  
星輶帶雨過  
瀑流層壁近  
梅樹一庭多  
更證雲林約  
歸時定若何

동해의 막바지에 부사산(富士山)이 솟아나서  
선루가 창파(滄波)를 관리하고 있군 그래  
곤어(鯤魚)와 봉(鵬)새는 난간 앞에 나타나고  
해와 달은 주렴(珠簾)을 스쳐 지나가누나  
빗방울이 성글어라 샘소리 생동하고  
깊숙한 운림(雲林) 속에 불영도 많도다  
황화의 사명을 매화가 알 터이니  
예와 이제 비교하면 생각이 어떠하오  
원중거

富嶽窮東海  
禪樓領漫波  
鯤鵬當檻出  
鳥兔半簾過  
疎雨泉聲活  
幽林佛影多  
皇華梅樹識  
今古意如何

매화 향기 부처님 뺨속에 스며드는데  
절집 그림자 유유히 바다에 떨어지누나  
법의 세계 삼천이 열려 있고  
사신의 배는 열한 번을 지나갔네  
폭포 소리 죽림(竹林) 사이로 아스라이 들리는데  
용의 기운 무럭무럭 주렴(珠簾)을 뚫고 드네  
사문(沙門)<sup>88)</sup>의 밖에서 문득 말을 세우고 보니  
더구나 부슬비에 시의 시름 어찌하리오  
김인겸

梅香透佛骨  
寺影落鯨波  
法界三千闢  
仙槎十一過  
瀑聲穿竹遠  
龍氣入簾多  
立馬沙門外  
詩愁奈雨何

88) 사문(沙門): 중(僧)을 사문(沙門)이라 칭하는데 범어(梵語)로는 근식(勤息)이란 뜻이다. 즉

매달린 사다리는 불당(佛堂) 길과 통하는데  
 싸늘한 석경(石磬)소리 봄물결에 메아리치네  
 선인장(仙人掌) 위에는 노을이 갓 걷히고  
 매화 피는 시절에 나그네 잠깐 지나가누나  
 경계(境界)는 맑고 조출한데 개척된 땅은 적고  
 날이 활짝 개면 보이는 하늘은 꺾이나 많네  
 선인(仙人)의 피리와 학이 서로 기다릴 터이지만  
 사명(使命)을 맡은 길이라 기한 바빠 어찌하리  
 이해문

懸梯通佛路  
 寒磬響春波  
 仙掌霞初捲  
 梅花客暫過  
 境清開地小  
 晴見得天多  
 笙鶴宜相待  
 王程有限何

하늘을 능지를 듯이 높이 솟은 저 누각(樓閣)은  
 해가 목욕하는 물결에 닿아 있군 그래  
 나그네 앉은 자리 흰 구름 일어나고  
 신선이 떠난 뒤라 황학이 아득하구나  
 매백은 때마침 삼춘의 절반인데  
 연하의 승지여서 십경이나 되게 많다는군  
 황화의 사신이 대필을 남겼으니  
 시의 예술은 음하의 옛 솜씨를 이었구려  
 홍선보

高山凌霄閣  
 平臨浴日波  
 白雲生客坐  
 黃鶴杳仙過  
 梅柏三春半  
 煙霞十景多  
 皇華留大筆  
 藻思續陰何

『해사일기(海槎日記)』



## 심언광

○ 낙산사에서 저절로 흥이 나서 성사에게 지어주며[洛山漫興贈成師]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sup>89)</sup>

89) 심언광(1487, 성종18~1540, 중종35)의 본관은 삼척(三陟)이고 자는 사형(士형), 호는 어촌(漁村)이다. 예조좌랑 준(濬)의 아들이며, 찬성 언경(彦慶)의 동생이다. 1507년(중종2)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어서 1513년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 예문관검열에 보임되었다.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하면서 문명을 날려, 지평·정언·장령·홍문관교리·집의 등을 지냈다. 언관을 역임하면서 국방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하였고, 국가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심정(沈貞)을 비롯한 권간들의 횡포를 탄핵하였다. 1530년 대사간이 되어서는 형 언경과 함께 김안로(金安老)의 등용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안로가 조정에서 실권을 장악하면서 봉당을 조직하고 대옥(大獄)을 일으켜 사람들을 모해하자, 비로소 후회하게 된다. 특히 김안로가 그의 외손녀를 동궁비로 삼으려 하자 이를 질책하자, 관계가 악화되었다.

1536년 이조판서가 되고, 이어서 공조판서를 역임하면서 김안로의 비행을 비판하자 김안로의 미움을 받아 이듬해 함경도관찰사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곧 김안로와 그 일당이 축출되자, 우참찬에 올랐다. 시(詩)·서(書)·화(畵)에 능하였다. 시호는 문공(文恭)이고 문집으로는 어촌집이 있다. 이 작품들은 『동관록』(東關



밝은 해가 새벽 바다 위에 솟아오르니  
 붉은 아침 노을은 산을 비추네  
 창문 열어 해를 맞이하니  
 홀연히 구름이 높이 떠 있네  
 햇살이 구름 틈으로 들어오니  
 밝은 햇살 낙산사를 비추네  
 옛 벼를 정중히 맞아주니  
 바다는 푸르름으로 넘쳐 흐르네  
 성사(成師)께서 이 해를 보시고  
 영원히 내 마음을 보게 해 주시네  
 『漁村集』

白日曉生海  
 丹霞朝映山  
 開窓迓羲馭  
 忽在重雲端  
 外物幸投隙  
 光明猶一圓  
 寅賓古蘭若  
 海色青漫漫  
 師乎觀此日  
 永作吾心看

○ 섬대사에게 주며[贈瞻上人]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

내 스승을 보지 못하니  
 오히려 스스로 스승의 마음 알겠구나  
 푸르른 오봉의 길  
 송라 그늘에서 수행하시네  
 내려봐도 쳐다봐도 길은 있는데  
 산과 바다는 높고 또 깊네  
 인연 따라 내 시를 지으니  
 먼 곳에서 알아주는 사람 있네  
 세상 생각 끝나지 않아  
 꿈 깨어 산중에서 찾네  
 『漁村集』

我不見師面  
 猶自知師心  
 蒼蒼五峰路  
 住錫松蘿陰  
 俯仰道有在  
 山海高且深  
 隨緣索我詩  
 方外猶知音  
 塵機若未息  
 夢寤山中尋

○ 차운하여 오대사에게 주며[次韻贈悟上人]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

분명히 책 속에 풍류와 운치 논하며

分明風韻卷中論

錄)에 수록되어 있다. 동관록은 1530년 강원도 관찰사 재임기간의 작품들이다.

심언광이 강원도관찰사로서 공무로 낙산사에 도착하여 절로 흥이나 성사에게 지어준 시로 보인다. 일출의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다. 새벽녘 아침 해가 바다 위로 솟아오르자 붉은노을이 산을 비춘다. 이에 창을 열고 해를 맞이하니 홀연히 구름이 높이 떠 있어 햇살이 구름 틈으로 밝은 햇살이 비춘다. 아침 해가 옛벼를 반갑고 정중하게 맞아주는데 바다는 푸르름으로 넘쳐흐르며 반겨준다. 성사께서 이 해를 보시고 영원히 내 마음을 보게 주어 고맙다는 심회를 노래하고 있다.

은 세상 유명인사들이 모두 한 말씀 올렸네  
 백발노인 멀리서 반가이 맞아주시니  
 스승은 가셨어도 내 마음에 남아 있네  
 낙산사에서 즐거운 꿈속에서 즐거움을 헤아리니  
 흔한 잠꼬대는 공허한 말 뿐이네  
 차가운 늦가을 산길에 임금의 사절 머무니  
 한나절 천천히 돌아도 마음만 남아있네  
 『漁村集』

一世名公盡贈言  
 白首天涯青眼日  
 眉師雖去悟師存  
 洛山奇遊夢裏論  
 尋常吟嚙但空言  
 窮秋駐節山前路  
 半日遲回意有存

○ 차운하여 은대사에게 주며[次韻贈崑上人]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

낙산의 명산에 말씀 올린 때  
 시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네  
 높은 산은 성과 같고 소나무는 덮개 같고  
 하늘은 물과 같고 달은 눈썹 같네  
 속세의 땅에 살아가기 쉽지 않으니  
 속세 밖에서 강산 지키며 몸을 부지하세  
 선비 된 몸 잘못을 스스로 비웃으니  
 차라리 옛 회포를 훌훌 털어버려야지  
 『漁村集』

洛迦名山贈言時  
 意在無忘不在詩  
 青嶂似城松似蓋  
 碧天如水月如眉  
 塵中壤地艱棲息  
 物外江山足護持  
 自笑爲儒身常誤  
 寧能抖擻爇襟期

○ 앞서 읊은 태평루를 차운하며[太平樓次前韻]. 이 시는 관찰사 때 지은 것으로 부사 이영식이 무진년에 누각에 다시 걸었다[此詩觀察使時作府使李榮植戊辰重揭樓上]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

태평루 남은 비석에서 옛 현인 찾으니  
 외로운 성에 지는 해가 난간을 비치네  
 강산에 금절(金節) 머물 곳 있어도  
 비단 돛자리에 술 따르는 벗 없네  
 백발을 근심할 때 눈처럼 희어지고  
 얼굴에 병으로 고운 얼굴 사라졌네  
 해당화가 곳곳에서 서로 곱다 자랑하니  
 예부터 붉은 연꽃은 장막 아래 신선이구나  
 『漁村集』

峴首殘碑問古賢  
 孤城殘日獨憑軒  
 江山有地留金節  
 樽酒無人伴綺筵  
 髮爲憂時添雪白  
 顏因觸瘴減春妍  
 棠陰處處爭相說  
 舊是紅蓮幕下仙

○ 낙산사 스님에게 주며[贈洛山僧]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

구름이 깃든 곳에 마음 끌리는 것이 아무 것도 없네  
내 근심이 어느 스님 영혼을 훼손할까  
이 몸속에는 어릴 적 습관 남아 있어  
덧없는 인생 한 해에 다섯 번 운다오  
『漁村集』

雲棲無物了關情  
憂惱何僧損性靈  
有底此身嬰俗累  
一年長哭五浮生



### 최립

○ 낙산사팔월십칠일(洛山寺八月十七日)간이(簡易)

최립(崔昱)<sup>90)</sup>

아득한 하늘가 달이 질 무렵에  
만경창파 갑자기 붉은빛 번쩍이네  
꿈틀거리는 온갖 괴물들 불을 머금고  
밝은 달을 황도 가운데 전송하누나  
『簡易集』

玉宇迢迢落月東  
滄波萬頃忽翻紅  
蜿蜿百怪皆銜火  
送出金輪黃道中

○ 낙산에 거주하는 승려 창운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기에 그의 시권 속의 시에 차운하  
며[洛山住僧昌雲來謁爲次卷中韻]

간이(簡易)

최립(崔昱)

아침 비 잠깐 개었다가 저녁에 다시 부슬부슬  
들쭉날쭉 송죽의 서늘함 아예 압도해 버리누나  
시원한 마루에 산사람이 또 와서 얘기하니  
삼복더위 무서운 줄 전혀 느끼지 못하겠네  
『簡易集』

朝雨纔晴晚雨霏  
竹涼松翠鎮參差  
軒清又得山人話  
正是三庚也不知

90) 최립(1539, 중종34-1612, 광해군4)은 본관은 통천(通川)이고, 자는 입지(立之), 호는 간이(簡易)·동고(東臯)이다. 아버지는 진사 자양(自陽)이다. 이이(李瑀)에게 수학했다.

외교문서 작성에 뛰어나 임진왜란 때는 여러 번 명(明)나라에 사신으로 갔었다. 1555년(명종 10)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561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했다. 전쟁 후에는 판결사(判決事)·강릉부사·형조참판 등을 역임했다. 광해군 즉위 후 대북정권이 등장하자 정계에서 은퇴하여 평양에 은거했다. 문집으로 『간이집』이 있다.

○ 또 차운하다. 창운은 내가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종백(宗伯) 박응소(朴應邵)의 글을 얻어 가지고 와서[又雲不曾相識 今得朴宗伯應邵書來]

간이(簡易)

최립(崔嶽)

시권에 새 시 얻는 일이 세상에 어디 쉽겠나만  
 올려놓은 의자 내려 평생의 벗처럼 대하노라  
 무슨 수로 이렇게 춘조의 청탁을 얻어 냈노  
 한번의 식형이 만호후(萬戶侯)보다 나올지니  
 『簡易文集』

袖卷求詩不世情  
 懸床爲下似平生  
 何從得此春曹託  
 萬戶堪輕一識荆

○ 낙산사(洛山寺)에서 즉흥으로 읊으며.[洛山寺卽事]

간이(簡易)

최립(崔嶽)<sup>91)</sup>

누각의 바다 해 기막히단 말은 전에 들었다만  
 중추의 둥근달 보려면 일 년을 꼬박 기다려야 하네  
 바로 이때 이곳에서 모진 비를 만나다니  
 나의 영동 시를 천공이 방해를 하네  
 『簡易文集』

樓觀海日昔聞奇  
 月得中秋一歲期  
 此地此時逢苦雨  
 天公停我嶺東詩



## 선수

○ 차낙산현판(次洛山懸板)

부휴당(浮休堂)

석 선수(釋 善修)<sup>92)</sup>

달빛을 등불삼아 이정에 앉아서  
 적적한 봄 회포 노승과 함께 풀다  
 바다의 창룡은 때때로 물을 뿌리고  
 우레 같은 파도소리 밤 깊으니 더 하네

梨亭獨坐月爲燈  
 寂寞春懷語老僧  
 碧海蒼龍時打水  
 驚波雷吼夜來僧

91) 이 시는 강릉부사로 와서 쓴 것으로 보인다. 낙산의 일출이 절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 년을 기다려 중추에 달을 보려고 왔는데 이 때 모진 비가 내려 보지 못한 것을 하늘이 자신을 영동에서 시를 쓰라고 잡아둔 것이라며 아쉬운 심회를 표현하였다.

92) 선수(善修- 1543, 중종 38~1615, 광해군 7)는 스님으로 제자들이 해인사-송광사-칠불암-백장사 등에 부도(浮屠)를 세웠으며, 광해군은 부휴당부종수교변지무에추가홍각대사선수등계존자(浮休堂扶宗樹教辯智無礙追加弘覺大師善修登階尊者)라는 시호를 내렸다. 저서에 <부휴당대사집> 이 있다.

이 시는 선수스님이 낙산사를 찾아 달빛을 벗 삼아 노승과 함께 봄의 적적한 회포를 풀며 밤늦게까지 담화한 내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수는 석양 무렵에 절 앞의 바다를 보며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는 그곳에 고깃배가 있고, 서양에 새 한 마리 나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절간 대문 앞은 푸른 바다요  
 아득한 물결은 하늘에 있다.  
 외로운 섬 밖엔 고깃배 뜨고  
 서양별 하늘가에 새 한 마리 울며 난다  
 『浮休堂大師集』

滄溟近在寺門前  
 萬里鯨波杳接天  
 數點漁舟孤島外  
 一聲啼鳥夕陽邊

○차낙산현판(次洛山懸板)

부휴당(浮休堂)

석 선수(釋 善修)<sup>93)</sup>

달빛을 등불삼아 이화정에 앉아서  
 적적한 봄의 회포 노승과 함께 풀었네  
 바다의 창룡(四神중의 하나)은 때로 물을 뿌리고  
 우레 같은 파도소리 밤에 스님이 찾아왔네

梨亭獨坐月爲燈  
 寂寞春懷語老僧  
 碧海蒼龍時打水  
 驚波雷吼夜來僧

절의 문 앞은 푸른 바다이고  
 아득한 물결은 하늘에 닿아있네  
 외로운 섬 밖에 고깃배 뜨고  
 석양의 하늘가에 새 한 마리 울며 나는구나  
 『浮休堂詩』

滄溟近在寺門前  
 萬里鯨波杳接天  
 數點漁舟孤島外  
 一聲啼鳥夕陽邊



## 채지홍

○ 『동정기(東征記)』

채지홍(蔡之洪)<sup>94)</sup>

93) 선수(1543, 중종 38-1615, 광해군 7)는 조선 중기의 고승으로, 성은 김이고 호는 부휴당(浮休堂)이다. 20세에 지리산에 들어가 신명(神明)의 제자가 되었고 부용(芙蓉)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전국의 유명 사찰을 찾아 수행하였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장으로 나섰다.

명나라 장수 이종성(李宗城)이 찾아와 법문을 듣고 가기도 했으며, 광해군은 스님을 초빙해 설법을 듣고 가사, 푸른 비단장삼, 푸른 비단바지, 금강석 염주와 진완(珍玩)을 주었고, 봉인사(奉印寺)에 재(齋)를 두고 그를 증명으로 삼았다. 1614년 조계산에서 방장산 칠불암으로 옮겼으며 다음해 제자 각성(覺性)에게 교단의 책임을 맡긴 뒤 그해 11월 1일 임종계(臨終偈)를 남기고 입적했다. 제자들이 해인사·송광사·칠불암·백장사 등에 부도(浮屠)를 세웠으며, 광해군은 부휴당부중수교변지무애추가홍(浮休堂扶宗樹教辯智無礙追加弘覺大師善修登階尊者)라는 시호를 내렸다. 저서에 『부휴당대사집』이 있다.

첫 수의 燈, 僧, 增의 운자를 썼다. 시는 선수스님이 낙산사를 찾아 깊은 밤에 찾아, 이화정에 앉아 달빛을 벗 삼아 노승과 함께 봄의 적적한 회포를 풀며 밤늦게까지 담화를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는 前, 天, 邊의 운자를 썼다. 석양 무렵에 절 앞의 바다를 보며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어 아름다워 분별할 수 없고, 넓은 바다의 외로운 섬 그 곳에 고깃배가 있고, 석양에 새 한 마리 나는 모습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표현하였다.

94) 채지홍(1683, 숙종9-1741, 영조17)의 본관은 인천(仁川)이고 자는 군범(君範), 호는 봉암(鳳巖)·삼환재(三患齋)·봉계(鳳溪)·사장와(舍藏窩)이다. 부친은 첨지중추부사 영용(領用)이다. 16세에 권상하(權尙夏)에게 배웠으며

25일 임오일에 연곡역(連谷驛)을 지나 주곡촌(注谷村)에서 점심을 먹었다. 동산역(洞山驛)을 지나 후평포(後坪浦) 마을에서 잤다. 나무 사람들이 바다 반찬을 장만해 가져왔다. 해삼, 조개, 연어, 방어, 대구, 팔초 등 서남 지방에는 없는 것들이다. 광어와 판어(板魚)를 다 가자미[鰈]라고 부른다. 이것은 중국에는 없다. 삶고 구우니 눈이 배불러 입이 먼저 물린다.

모래밭에는 물새들이 보이지 않았다. 대개 알을 낳을 시기인 꽃이 한창 피는 방춘(芳春)에는 모두 외딴 섬에 들어가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나가는 곳은 파도에 울리는 모래밭과 해당화와 소나무 제방과 호수와 방죽이다. 오른쪽으로는 푸른 바다를 끼고 왼쪽으로는 큰 고개를 끼고 있다. 바다는 아득하고 첩첩 산봉우리는 우뚝우뚝 솟아 있다. 고깃배와 상선은 멀리서 가까이서 오가고, 연한 붉은 꽃과 아름다운 신록은 좌우에서 한창이니, 참으로 그림 가운데 경치다.

동쪽으로 바다 끝을 바라보니 하늘과 맞닿아서 끝도 없다. 나는 매우 기이하게 여겨 가마를 메는 이들에게,

“배가 가서 저곳에 이르면 하늘 모양과 바다 색깔이 어떠한가?”라고 물으니, 가마를 메는 이들은 바닷가 사람들인데,

“뱃사람의 말에 ‘저 가운데 가도 하늘이 높고 바다가 넓어 한결같다.’고 합니다.”라고 대답한다. 그 말이 비록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들으니 깨달을 만한 것이 있다. 바로 태산의 정상에 다시 하늘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동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층층이 절벽처럼 솟구쳐서 뿜어내는 물결이 백사장을 지나 길 위까지 침범하여 크게 진동한다. 사람과 말이 때로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비록 바람이 없는 때라도 파도 소리는 항상 그치지 않고 거세게 부딪친다. 따라서 생각해 보니, 지봉(芝峰)이 바닷가 사람의 말을 전하여,

“북쪽 바다가 북쪽에서 흘러 내려와 동해에 이르도록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람이 없어도 절로 파도가 일어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린다. 물에 조수가 없는 것은 또한 멀리까지 흘러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 말이 그럴 듯하다.

아아, 사해를 둘러 돌아보니 중국이 오랑캐에게 함락된 지 100년이 지났고, 오직 이 한 모퉁이만 더러운 때를 멀리 하고 있으니, 아마도 태공이 와서 문왕을 기다린 것과 같은 것인가. 다만 두보의 건곤을 씻는다는 구절을 외우며, 노중련(魯仲連)을 뒤따르지 못한 것만을 한스럽게 여긴다.

26일 계미일에 양양부(襄陽府)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곳에는 현산(峴山), 한수(漢水), 대제(大堤)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별로 아름답지 않다. 동북쪽으로 10여 리를 가서 소

---

뛰어난 학행으로 암행어사 황구하(黃龜河)와 도(道)의 관찰사 등이 추천, 1718년(숙종 44) 왕자사부(王子師傅)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1721년(경종1) 시강원자의(侍講院諮議)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취임하지 않았다. 1740년 형조좌랑에 임명되고, 익위사사어(翊衛司司禦)를 거쳐 공홍도도사(公洪道都事)에 취임하였다가 사퇴하고 귀향, 그 이듬해 죽었다. 저서로 『봉암집』, 『性理管窺』, 『洗心要訣』, 『讀書填補』, 『天文集』 등이 있다.

나무가 있는 고개를 넘으니 성문이 길 옆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 이것이 낙산사(洛山寺)다. 고려의 역사에 ‘충렬왕(忠烈王)이 대장공주(大長公主)와 더불어 이 절에 행차하였다.’고 했고, 스님들이 또한 ‘세조대왕이 오대산에서 와 이곳에 머물렀다.’고 했다. 절의 제도는 매우 사치스럽고 아름다워 상원사와 자웅을 겨룬다고 하는데, 비교적 더욱 크고 웅장하다.

승려들이 사는 요사(寮舍)는 10여 채로 반은 산 위에 있고 반은 산 아래에 있다. 서로의 거리가 30무(武)로 지름길은 매우 험하다. 아래 있는 절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지붕을 지어 덮었고 다듬은 돌로 제방을 만들었다. 샘물은 풍풍 솟구쳐 마르지 않지만 약간 짠맛이 난다. 위아래 절에 승려가 많아 아침저녁으로 함께 물을 길어다 써도, 심지어 큰 가뭄에도 물이 줄어들지 않고 넘쳐서 논이 되고 또 넘쳐서 웅덩이가 된다고 한다. 윗절에 있는 승려는 물 길어 나르는 일에 고생이 심해서 해마다 아랫절에 있는 승려들과 번갈아 바꾸어 산다고 한다.

아랫절 동쪽을 지나 수십 걸음 가면 의상대(義相臺)가 나온다. 산 앞에 한 언덕은 머리를 바다에 드리우고 있는데, 굽어보니 천 길 절벽으로, 평평한 만 리의 푸른 바다를 마주 하고 있다. 옛날 부상(扶桑), 약제(若薺), 울도(蔚島), 여평(如萍) 등은 이를 말한 것이 아닐까?

의상은 신라 신문왕(神文王) 때의 뛰어난 승려로서 원효의 아우요, 홍유후(弘儒侯)의 숙부다. 대 위에 있는 늪은 소나무 아래는 돌이 첩첩이 쌓여 있는데, 의상이 제계하고 앉아서 관음의 말을 듣던 곳이라고 한다.

대를 지나 구불구불 북쪽으로 10여 걸음 가서 보니 전(殿) 밑 부분이 양쪽 절벽에 비껴 걸터앉은 모습이 있다. 거친 파도가 치솟아 밤낮으로 각 밑에서 성난 소리를 내는 곳이 관음굴(觀音窟)이다. 또한 의상이 파란 새로 변해 이 굴에 들어온 관음을 보고 난 뒤에 관음상을 만들어 존모하는 마음을 붙였다고 한다. 거짓됨이 비록 심하긴 하나 매우 아름다워 구경할 만하다.

전의 남쪽 처마 끝에다 이름을 줄지어 쓰고 각각 울시 한 수씩 지었다. 우리들은 모두 늪었으니 어떤 사람이 다시 높은 벼슬에 오를런지 알지 못하겠구나.

절에 오르니 동쪽 모퉁이에 일출을 바라보는 빈일료(賓日寮)가 있다. 새벽부터 일어나 기다렸다. 마침 바다가 어두워 장관을 잃었다. 어찌 조물주는 이리도 시기함이 많은가. 의상이 손수 심었다고 하는 오죽밭을 구경했다. 지금 10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더해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다고 한다.

담장 밖에는 이화정(梨花亭)이 있다. 승려가 이르기를,  
“옛날에 배나무가 있었는데 배가 아주 많이 열렸답니다. 세조가 동쪽으로 순행할 때 승려가 따서 동궁에게 바쳤는데, 이로써 관례가 되었지요. 계미년에 산불이 나 배나무가 재가 되었지요. 새로 심어서 가지가 겨우 한 움큼밖에 되지 않은데도 공납은 매년 같았

답니다. 지금도 폐하지 않고 공납합니다. 승려들은 공납이 힘들어서 그 나무를 가꾸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아, 한때의 공납이 백 년이 지난 뒤에도 폐단을 끼치니, 이름 없이 바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마땅히 경계하던 일이다.

중각(中閣)의 범종은 무게가 1000근은 나간다. 세조가 명해 주조했고, 김수온(金守溫)이 기문을 짓고 정난종(鄭蘭宗)이 글씨를 썼다. 옛날의 자취를 찾아보려 하니 주지가 한 책자를 내왔다. 기이한 말이 거의 대부분이고 괴이함에 가까워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임금이 하사하신 논밭과 백성이 백으로 헤아릴 그 이상으로, 한때 이름난 재상과 높은 벼슬아치들이 간해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좇아 시주를 한 사람이 많았다. 충분히 후세에 비난을 들을 만하다.

『鳳巖集』「東征記」

壬午. 歷連谷驛. 午炊於注谷村. 歷洞山驛. 宿後坪浦村. 浦人輒以海錯見餉. 參, 蛤, 鱧, 魴, 大口, 八梢. 西南之所無者. 廣魚, 板魚. 同謂之蝶. 中國之所未有者也. 烹之炙之. 目飽而口已厭矣. 沙禽水鳥鮮有存者. 蓋以方春卵育之時. 盡入絕島. 未及還來云. 所過無非鳴沙海棠. 松堤湖堰. 右挾滄海. 左挾大嶺. 積水渺茫. 疊嶂嵯峨. 漁艇商帆. 出沒於遠邇. 輕紅嫩綠. 爛熳於左右. 眞畫中景也. 東望海際. 粘天無涯. 余甚異之. 謂執輿者曰. 舟行到彼則天形海色. 復如何. 執輿者是海上人. 答曰. 舟人言行到彼中則天高海濶. 一如此云. 其言雖微. 聽之有足以開悟處. 正與泰山頂上. 更有天者. 一般語也. 東南風來則層濤壁立. 噴薄沙岸. 侵及路上. 掀動震激. 人馬有時辟易. 雖無風時. 波濤之聲. 常洶湧不已. 仍念芝峯嘗傳海人之言. 曰北海自北而流. 下至東海. 晝夜不止. 故無風自波. 其聲遠聞. 水無潮汐者. 亦以長流故也. 其言似是矣. 噫. 環顧四海. 陸沉百年. 而惟此一隅. 遠隔腥塵. 豈或有太公之徒來待文王者歟. 只誦老杜洗乾坤之句. 而恨未從魯連之蹈也.

癸未. 午炊于襄陽府. 其地有峴山漢水大堤之號. 而不甚奇也. 東北十餘里. 踰一松峴. 下有城門. 豁然於路傍. 是爲洛山寺. 麗史有言忠烈王與大長公主幸此寺. 僧徒亦稱. 世祖大王自五臺來駐云. 制度之奢麗. 甲乙於上院. 而較益宏大. 僧寮十數. 半在山上. 半在山下. 相去殆三十武. 而徑甚峻仄. 有一湧泉在下寺之傍. 覆以一屋. 堰以鍊石. 水微有鹹味而滔滔不渴. 上下寺多僧. 朝夕共汲之. 而大旱未嘗減乏. 溢而爲水田. 又溢而爲污池. 居於上寺者. 苦於汲役. 與下寺歲遞以居云. 由下寺東行數十步. 爲義相臺. 山前一崗. 垂頭枕海. 俯臨千尋絕壁. 平看萬里滄溟. 古所謂扶桑若薺蔚島如萍者. 非此之謂歟. 義相者. 新羅神文王時異僧. 元曉之弟. 弘儒侯之叔父也. 臺上古松下有累石. 僧稱義相坐齋請觀音處. 由臺迤而北十餘步. 有一殿脚橫跨兩崖. 而驚濤激瀉. 日夜號怒於閣底者曰觀音窟. 亦稱義相見觀音. 化青鳥入此窟. 設觀以寓慕云. 誕妄雖甚. 妙絕可觀. 列書姓名於殿南簷端. 各吟一律. 而吾輩俱衰矣. 未知何人復見紗籠否也. 上寺東偏. 有日賓日寮. 見日出處也. 曉起以待之. 適值海昏. 失一勝觀. 何其造物之多猜也. 塔前烏竹數叢. 傳言義相所手種也. 至今千餘載. 不增不損. 墻外又



有所謂梨花亭者. 僧言古有梨樹. 結實繁美. 世祖東幸時. 寺僧攜進於 東宮. 仍以爲式. 癸未山火. 梨樹成灰. 新栽. 叢枝僅可拱把. 而每歲貢獻. 至今不廢. 僧徒病於貿納. 將不可保云. 噫. 一時獻曝. 百季貽弊. 無名之供. 昔人所宜戒也. 中閣法鍾重可千斤. 亦稱 世祖之所命鑄. 而金守溫記. 鄭蘭宗書也. 索見古蹟. 則首僧進一册子. 異說頗多而近恠羞稱. 御賜田結民口. 不啻百數. 一時名公碩輔非惟不能諫止. 又從而舍施者多. 足以傳譏於後世也.

『鳳巖集, 「東征記」



## 허목

○ 이생 덕망을 곡하면서[李生德望哭]

미수(眉叟)

허목(許穆)<sup>95)</sup>

난리를 피해 가다 양양 길에서  
서로 만나 고생을 이야기 했네  
은근히 연상으로 찾아와  
나의 어려움 슬퍼했네  
이 깊은 정에 감동되어  
만날 때 마다 기쁜 얼굴이었네  
궁한 처지에도 자주 찾아 주기에  
늙어서도 기쁘게 지냈나 했더니  
누 알아서 생사의 나눔이  
겨우 한 달 사이에 있을 줄을  
아득히 죽음에 돌아갔으니  
모든 일이 한 번의 탄식뿐이네  
평생 품은 뜻 회상해 보니  
가엾고 딱한 마음 아프기만 하구려  
한 백년 목메어 우는 곳은

逃亂襄陽道  
相逢說艱難  
慇懃漣上訪  
哀我邁凶艱  
感此情意深  
逢場開好顏  
窮途頻見過  
垂老得交權  
誰知死生別  
遽在旬月間  
昧然歸化盡  
萬事一嗟嘆  
顧想平生意  
惻惻已含酸  
百年嗚咽處

95) 허목(1595, 선조28~1682, 숙종8)의 본관은 양천(陽川)이고 자는 화보(和甫)·문보(文父), 호는 미수(眉叟)·대령노인(臺嶺老人)이다. 모친은 임계(林梯)의 딸이다. 1615년(광해군7) 정언옹(鄭彦)에게 글을 배우고, 1617년 현감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거창으로 가서 정구(鄭逵)의 문인이 되었다.

1660년(현종1)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趙大妃)의 복상문제로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다. 삼척에 있는 동안 향약을 만들어 교화에 힘쓰는 한편, <정체전중설 正體傳重說>을 지어 삼 년 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1674년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조대비의 복상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서인은 실각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되자 대사헌에 특진되고, 이어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1678년 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679년 강화도에서 투서(投書)의 역변(逆變)이 일어나자 상경하여 영의정 허적(許積)의 전횡을 맹렬히 비난하는 소를 올리고 귀향 했다. 이듬해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교육에 힘썼다.

백양나무 쓸쓸한 무덤가로세  
『眉叟記言』

墟墓白楊寒

○ 강릉 도중에서 설악산을 바라보며 감회를 쓰며[江陵途中望雪嶽感懷作]

미수(眉叟)

허목(許穆)<sup>96)</sup>

설악산 높이가 만 길이나 되어  
봉래산과 강릉까지 그 기운 이어졌네  
대천봉의 눈빛은 뜨는 해를 맑게 비추니  
저 멀리 옥경에 상제들 모여드는 구나  
매월당 거기에 머물며  
거룩한 기상 하늘까지 이어졌구나  
비바람도 꾸짖고 귀신을 희롱하며  
불교에 의탁하여 그 이름 숨겼네  
도성에서 걸식하며 재상을 멸시하며  
해학을 일삼아 저자거리 아이들을 놀라게 했네  
미쳐 날뛰고 고결에만 국한 될까  
그 마음 영원히 해와 달처럼 빛나리  
『眉叟記言』續集

雪嶽之山高萬丈  
懸空積氣連蓬瀛  
千峰映雪海日晴  
縹渺群帝集玉京  
東峯老人住其間  
高標歷落干青冥  
嘯風叱雨弄神怪  
逃空托幻藏其名  
乞食都門傲卿相  
縱譴讎爲市童驚  
猖狂不獨事高潔  
此心長與日月明

○ 기행(記行)

미수(眉叟)

허목(許穆)

가리파(伽利坡)는 원주(原州) 치악산(雉嶽山) 남쪽 기슭의 큰 재다. 단구역(丹丘驛)에서 산골짜기로 15리를 간다. 재를 넘어 골짜기를 나와서 또 15리를 가면 신림역(新林驛)이다. 신림의 남쪽은 횡령(橫嶺)인데 호서 제천현(堤川縣)의 경계이다. 횡령 너머는 가령(假嶺)이고 그 남쪽이 의림지(義林池)이다. 본디 영서와 호서의 애초의 경계는 큰 못이었으니 제천 너머의 고을에 호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이 못 때문이다.

그 동쪽은 유령(楡嶺)인데 영월(寧越)의 경계이고 유령을 넘으면 용정(龍井)이다. 용정은 샘물이 바위 구멍에서 솟아나와 그 가운데가 못인데 홍수나 가뭄에 기도를 올린다.

96) 허목이 복상문제로 삼척부사로 좌천되어 가다 강릉길에서 설악산을 보고 지은 시로 보인다. 설악산의 웅장함과 그 기운이 금강산과 강릉까지 이어졌고, 대천봉의 눈빛이 뜨는 해를 비추자 하늘나라 상제들이 모여들 정도로 승경이다. 이곳에 단종에게 절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방랑하였던 김시습이 이곳에 머물며 자신의 세계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시습의 절개가 하늘까지 이어졌다. 방랑 생활을 하며 뜻 없는 비바람을 꾸짖고 귀신의 세계를 희롱하면서 속세에 살아가기 힘들어 불가에 의지하여 생활하였다.

도성에서는 벗이었던 영의정 정창손과 재상들을 욕하고 희롱하며 일탈된 모습으로 저자거리의 아이들이 놀라기도 하였다. 거짓 미친 체 하며 절의를 지켰던 김시습의 고결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해와 달처럼 빛날 것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영월에서 노릉(魯陵)을 물어보니 군(郡)의 서쪽 큰길가에 있었다. 옛적 군의 아전 엄흥도(嚴興道)라는 자가 노릉을 거둬 묻어 주었다고 한다. 현재 군에는 아전과 백성 중에 엄씨(嚴氏) 성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 일족이 매우 많다. 오래전 일이라 그 대수는 모르겠지만 필시 후세 자손들이 끊기지 않았나보다. 태수 윤후 순거(尹侯舜舉)와 함께 금강정(錦江亭)에 올라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눈 뒤에 배를 타고 정자 아래 석벽을 둘러보았다. 상동(上東)의 골짜기 어귀부터 석령(石嶺)까지는 40리인데 모두 높은 절벽과 푸른 시내였으며 이따금 흰 자갈돌에 깊은 못이 있었다.

재를 넘으면 평창(平昌) 경계이고 또 30리를 올라가면 마차령(摩嵯嶺)인데 정선(旌善)의 경계이며 산골짜기가 깊고 험했다. 재를 내려오면 큰 시내가 골짜기 어귀를 지나가는데 이것은 태백산 살내(薩奈) 앞쪽 시내의 하류이다. 큰 시내의 산길을 따라가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깊은 산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고 바위로 된 봉우리들이 높이 솟아 모여 있어 한낮에도 해가 비치지 않는다. 석동(石洞)에는 이따금 깊은 못이 있고, 나무는 자단(紫檀)과 황양(黃楊)이 많으며 이름 모를 새소리가 들렸다. 역탄(易呑)에 이르면 삼척(三陟)의 경계이고 백전(栢田)이 있다.

울탄(蔚呑)을 오르면 큰 재인데 산에는 회나무가 대부분이어서 관동 지역의 배를 만드는 재목이 나는 곳이다. 울탄을 내려가면 평탄(坪呑)이다. 울탄의 물은 삼(蔘)·조탄(助呑)·갈전(葛田)을 지나 임계(臨溪)의 평탄에 이른다. 서남쪽 황지(黃池)와의 거리는 30리이다.

삼의 남쪽이 건의(巾衣)인데 삼의 남쪽에서 재를 오르기까지는 불과 1리 남짓이다. 재에 올라 내려다보면 그 너머는 수많은 골짜기와 증첩된 봉우리여서 굽어보면 아득하기만 하다. 서남쪽으로 태백산(太白山)을 바라보면 눈 덮인 산이 하늘을 막은 채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볼 수가 없다. 구름 아래로 유령(楡嶺)이 보이고 그 너머는 백석평(百石坪)이다.

역탄의 동남쪽부터 건의이고 건의의 동북쪽은 죽령(竹嶺)이니 그 곳이 두타산(頭陀山)이다. 그 가운데의 갈전과 삼은 산속의 매우 살기 좋은 마을로 장수하는 노인이 많다. 그곳 백성들은 자단으로 만든 활의 몸체를 위시하여 진기한 목재와 인삼·복령·무명·삼〔麻〕 등을 조세로 낸다.

8월에 낙산사(洛山寺)를 구경하며 경숙(京叔 강호(姜鎬)의 자)과 『주역』(周易)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경숙이 말하기를 “초연수(焦延壽)의 『역림』(易林)은 상(象)에 따라 말을 붙인 것으로 궤의 변화가 매우 괴이하다. 후세에 기이하다고 인정받고 싶었겠지만

그 문장은 사실 천근하여 알기 쉽다.” 하였다. - 이때 경숙은 양양 부사(襄陽府使)였다.

저녁에 의상대(義相臺)에서 놀고 밤이 되어 월출을 구경하였는데 그날은 8월 18일이었다. 해상에는 항상 비가 잦아 구름이 감돌며 금세 걷혔다 다시 끼곤 하였는데, 달이 떠오르자 그 빛이 환히 비취 바라볼 만하였다. 아침이 되자 날이 흐리다 잠시 갠데, 바다 빛에 광채가 빛나더니 햇빛이 번쩍이며 자줏빛 기운이 뒤섞여 황홀한 광경이 매우 기이하였다. 예전에 내가 피난하여 관동 지역으로 왔었는데, 1월 15일에 금양(金壤 회양(淮陽)의 옛 이름)의 통자원(通慈院)에서 월출을 구경하였다. 그해 3월 우계(羽溪)에서 일출을 구경하였는데 광채가 불빛 같아 눈이 부시고 자줏빛 기운이 바다에 가득하여 이번에 구경한 것과는 매우 달랐다. 그해는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고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렸으니 태양의 빛도 홍수나 가뭄에 따라 변하는 듯하다.

천후산(天吼山)은 설악산(雪岳山) 동쪽 기슭의 다른 산인데 수성(遼城 간성(杆城)의 옛 이름) 남쪽 경계에 있다. 돌산이 신기하고 빼어나게 아름다운데 아홉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으며 동쪽으로 너른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산이 크게 울면 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산 이름을 천후라고 하였는데, 산에 풍혈(風穴)이 있다. 남쪽에는 석달마(石達麻)가 있고 북쪽에는 선인대(仙人臺)가 바라보인다. 선인대 위에는 선인정(仙人井)이 있다. 바닷가에서 영랑호(永郎湖)까지는 10리인데, 호숫가는 다 흰모래에 소나무 숲이고 이따금 기이한 바위가 있으며 그 너머는 바다이다. 바닷가에는 큰 못이 많이 있는데 영랑호의 경치가 가장 빼어나다.

壬寅正月記行

伽利坡. 原州雉嶽南麓大嶺. 從舟丘驛. 山谷行一十五里. 踰嶺出谷. 又一十五里. 新林驛. 新林南橫嶺. 湖西堤川縣境. 橫嶺外椳嶺. 其南義林地. 自嶺西, 湖西初境. 大澤. 堤川以外. 有湖西之名. 以此澤故也. 其東榆嶺. 寧越境. 逾榆嶺則龍井. 龍井者. 泉出巖竇. 其中潭水. 水旱祈禱.

寧越間魯陵. 在郡西官道上. 古時郡小吏嚴興道者. 收葬魯陵云. 今郡有吏民. 嚴姓者族類甚衆. 舊遠不知其世. 必其後世子孫不絕耶. 與太守尹侯舜舉. 同登錦江亭酌話. 乘舟過亭下石壁. 從上東谷口. 至石嶺四十里. 皆高壁青溪. 往往白礫深潭.

逾嶺則平昌境. 又三十里上摩嵯嶺. 旌善境. 山峽深阻. 下嶺則大川過谷口. 此太白薩奈前川下流. 從大川山逕. 或高或低. 深山沍陰. 巖巒巒合. 白日不照. 石洞往往有潭水. 其木多紫檀, 黃楊. 聞怪鳥. 至易吞. 三陟境. 有柏田.

登蔚吞爲大嶺. 山木多檜. 東界舟材所出. 下蔚吞則坪吞. 蔚吞之水. 過蓼, 助吞, 葛田. 至臨溪坪吞. 西南去黃池三十里.

蓼南爲巾衣. 自蓼南登嶺上. 不過里餘. 登臨則其外萬壑層巔. 俯瞰杳冥. 西南望太白. 雪山塞空. 絕頂埋雲霧. 不可見. 雲霧下. 見榆嶺. 其外百石坪.

自易吞東南爲巾衣. 巾衣東北竹嶺. 其山頭陀. 其間葛田蓼最山中佳村. 多壽考. 其民供紫檀弓幹. 凡瑰材蓼苓布麻之賦.

八月. 觀洛山寺. 與京叔談易. 京叔曰. 焦延壽易林. 因象寓言. 變易深怪. 欲見奇於百代. 其文實淺近易見云. 時京叔爲襄陽.

日夕遊義相臺. 夜望月出. 此八月十八日也. 海上常多雨有雲霓. 乍開乍合. 月上光影. 透出可望. 至朝陰曠少晴. 海色騰耀. 日光閃爍. 紫氣繚軋. 恍惚尤奇. 昔時吾嘗避亂. 出東界. 正月十五日. 金壤通慈院. 觀月出. 其三月. 至羽溪. 觀口出. 光曜如火. 矚目炫煌. 紫氣滿海. 與今日觀望尤異焉. 其年久旱. 而今年多淫雨. 太陽之光. 亦水旱隨變云.

天吼山. 雪岳東麓別山. 在遼城南境. 石巒神秀. 爲九峯. 東臨大海. 山大鳴則大風. 故山名曰天吼山. 有風穴. 南有石達麻. 北望仙人臺. 臺上有仙人井. 海上永郎湖十里. 湖上皆白沙松林. 往往有奇巖. 其外大海. 海上多大澤. 永郎湖最絕勝.

『記言』

○ 산수기(山水記) 동계(東界) 동유박물관(東遊博物)

미수(眉叟)

허목(許穆)

동계에 있는 통천(通川)의 총석정(叢石亭)과 금란굴(金欄窟)의 석문(石文)과 습계(習溪)의 천도(穿島)는 바위 구멍이 남북으로 통해 있어서 파도가 드나든다. 바람이 고요해지면 천도로부터 바다를 건너 총석정에 이르기까지의 8, 9리와 총석정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금란굴에 이르기까지의 10여 리에는 바위굴과 기이한 암석들을 볼 수 있는데, 기괴한 모습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고성(高城)의 단혈(丹穴)과 삼일포(三日浦)에는 석감(石龕)과 단서(丹書)가 있고, 수성(遼城)에는 세 개의 큰 호수가 있다. 열산(烈山)의 북쪽에 있는 명파(明波)의 해안은 모두 명사(鳴沙)로, 밟으면 모래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양양(襄陽) 낙산사(洛山寺)의 관음굴(觀音窟)은 옛날 우리 익조(翼祖)가 이곳에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고 한다. 설악산은 양양의 바닷가를 따라 서북쪽으로 50리 지점에 있는데, 산이 매우 높고 험준하다.

중추(仲秋)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하지가 되어서야 녹는다. 설악산 서쪽은 한계산(寒溪山)으로 남쪽 봉우리는 아슬아슬한 절벽인데, 그 맨 끝이 정상이며 그 아래는 깊은 못이다. 바위가 신기하고 수려하며 높게 이어져 있어 무어라 형용할 수 없으며, 폭포가 300척이나 된다. 시냇물이 구불구불 돌아서 원통(圓通) 계곡 입구를 나와 36개의 돌다리를 건넌다.

강릉(江陵)은 옛 예국(獺國)으로, 한(漢)나라 원삭(元朔) 무제(武帝) 연호 연간에 처음 창해군(滄海郡)을 설치하였고, 한사군(漢四郡) 때 임둔군(臨屯郡)이 되었다. 바닷가에 경

포대(鏡浦臺)와 한송정(寒松亭), 한송정 아래에 술랑정(述郎井)과 석조(石竈)·석지(石池)가 있고 평해(平海)의 월송포(越松浦)가 있다.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鬱陵島)는 하나의 섬인데, 바라보면 세 개의 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다. 바다가 쾌청하면 산의 나무를 볼 수 있으며, 산 아래에는 하얀 모래가 매우 멀리 뻗어 있다. 옛날 우산국(于山國)이 지형의 험고함을 믿고서 복종하지 않자 신라가 계략을 써서 항복시켰고, 고려에 이르러 백길토두(白吉土豆)가 토산물을 바쳤다. 이는 모두 동계의 고사이며 고적이다.

늙은 내가 일찍이 나그네로 유람할 적에 이 지역에 들렀으므로, 특별히 상세하게 알고 있기에 나열하여 기록해서 동유박물 287자를 짓는다.

### 東界 東遊博物

東界. 通川. 叢石, 金欄石文, 習溪穿島石竈. 通南北. 風濤相拍. 風靜則自穿島絕海. 至叢石八九里. 自叢石絕海. 至金欄窟十餘里. 巖窟奇石. 怪狀不可記.

高城丹穴, 三日浦石龕丹書. 迺城三大湖. 烈山北明波海岸. 皆鳴沙. 躡則沙鳴. 襄陽洛山寺觀音窟. 昔我 翼祖禱嗣於此云. 雪嶽. 從襄陽海上西北行五十里. 山極高峻. 中秋始雪. 至夏至雪消. 其西寒溪南峯危壁. 其極絕頂. 其下深淵. 山石神秀巖魄. 不可名狀. 懸瀑三百尺. 川流盤迴. 出圓通谷口. 渡三十六石梁. 江陵. 古獫狁. 漢元朔間. 初置滄海郡. 四郡時. 爲臨屯郡. 海上鏡浦, 寒松, 下述郎井, 石竈, 石池. 平海之越松浦. 于山鬱陵一島. 望三峯岌嶭. 海晴則山木可見. 山下白沙甚遠. 古于山國. 負固不服. 新羅以計降之. 至高麗. 有白吉土豆獻方物.

皆東界古事古跡. 老人嘗客遊過此. 特詳之. 列書. 以爲東遊博物二百八十七言『記言』



## 정두경

○ 찰방 신석번에게 부치다[寄申察訪碩蕃]<sup>97)</sup>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

낙산에 뜬 아침 해가 부상 쪽을 비출 때면  
푸른 바다 구름 안개 만리토록 길고 길리  
예전 친구 관원 되어 한 번 떠나간 뒤로는  
꿈속에서 양양 고을 가끔 찾아가곤 하오

洛山朝日照扶桑  
碧海雲烟萬里長  
一自故人爲吏去  
有時歸夢到襄陽

『東溟集』

97) 신석번(申碩蕃), 1596~1675.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중연(仲衍), 호는 백원(百源)이다. 1633년(인조11)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효종조에 유일(遺逸)로 천거를 받아 형조 좌랑, 진선(進善), 장령 등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신석번은 현종 4년(1663)에 상운 찰방(祥雲察訪)에 제수되었다. 문장에 능하고 경학(經學)에 밝았다. 문집에 《백원집(百源集)》이 있다.

○ 또 준 상인이 낙산으로 가는 것을 전송하다[又送俊上人往洛山]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

상인께서 박연에서 막 돌아와서  
 박연폭포 모습 내게 전해 주었네  
 박연폭포 그 기세는 웅장하고 웅장하여  
 유월에도 하얀 눈이 절벽에서 뿌러지고  
 돌 절벽은 하늘 닿아 아득 높이 서리어서  
 폭포의 물 은하와는 서로 간에 통했으며  
 고모담은 물 깊어서 그 깊이가 만길이라  
 파도 물결 내뿜어져 용왕궁을 만드는데  
 그 소리에 천 바위와 만 골짜기 울리어서  
 동천에는 벽력 치지 않는 날이 없다 하네  
 내가 이 말 들었는데 말 다 끝나기도 전에  
 흥 일어나 다시 구름 산을 향해 가려 하네  
 스스로가 말하기를 다시금 또 영동에 가  
 낙산에 가 푸른 바다 바라보려 한다 하네  
 낙산 동남쪽에서는 하얀 해가 오르는데  
 첫닭 울 때 뜨는 해를 볼 수 있다 말 전하니  
 상인이여 거기 갔다 속히 다시 돌아와서  
 날 찾아와 삼족오의 모습 내게 말해 주게  
 『東溟集』

上人朴淵來  
 傳我朴淵瀑  
 朴淵瀑布氣雄哉  
 六月白雪洒石壁  
 石壁參天鬱穹崇  
 瀑布水與銀河通  
 姑姆之潭一萬丈  
 波濤噴作龍王宮  
 聲動千巖與萬壑  
 洞天無日無霹靂  
 我聞此語語未已  
 逸興却向雲山起  
 自言又作嶺東行  
 將往洛山觀滄溟  
 洛山東南白日出  
 人傳鷄鳴見出日  
 上人速宜歸來乎  
 須語我來三足鳥

○ 낙산사(洛山寺)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sup>98)</sup>

바다 위 정자에 배꽃이 만발하고  
 낙산의 바다는 아득하다  
 관청은 한가하여 할 일이 없으니  
 부상에서 대제경이나 읽으면서 지내리  
 『東溟集』

萬樹梨花海上亭  
 洛山邊海海冥冥  
 訟庭竟日閑無事  
 須讀扶桑大帝經

98) 정두경(鄭斗卿 1597~1673(선조30~현종14))

조선시대의 문신·학자. 자는 군평(君平), 호는 동명(東溟). 본관은 온양(溫陽). 이항복(李恒福)의 문인이다. 1629년(인조 7) 별시문과에 장원하였다. 69년(현종 10) 홍문관제학에서 예조참판·공조참판 겸 승문원제조 등에 임명되었으나, 노환으로 사퇴하였다. 시문과 서예에 뛰어났으며, 대제학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동명집(東溟集)》이 있다.



## 이색

○ 회포를 서술하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나라 동쪽의 산수는 조선에서 으뜸이라  
 찾아 유람할 뜻 가진 지 이미 수년이러니  
 승려에게 물어서 현화사엘 들르고 싶고  
 수묵 산수화 구하러 황해도에도 들어가리  
 의상대 꼭대기에선 길이 휘파람을 불고요  
 영은사 깊은 절벽에선 잠시 좌선을 하고  
 곧장 박연의 천 척 높은 폭포를 빌어서  
 무량 세월 생사 인연을 깨끗이 씻어보리

國東山水冠朝鮮  
 有意高尋已數年  
 欲問瑜伽向玄化  
 因求水墨入黃延  
 義相絕頂長舒嘯  
 靈隱深崖暫坐禪  
 直借朴淵千尺瀑  
 滌清塵劫死生緣

병든 뒤론 욕정 잊고 치발조차 쇠잔한데  
 온 집안이 녹 먹으니 청조에 감사하노라  
 때로는 먼지 자욱해 썩대 문을 꼭 닫는데  
 어느 곳에서 달 밝은 밤에 통소를 부는고  
 깊은 못 늙은 용을 어찌 낚을 수 있으랴  
 산꼭대기 봉황은 본디 불러도 안 온다네  
 다만 지금 우뚝한 도를 누구에게 물을꼬  
 본래에 시골서 한 표주박 물을 마시었네

病後忘情齒髮凋  
 渾家食祿謝清朝  
 有時塵暗閉蓬戶  
 何處月明吹洞簫  
 潭底老龍寧可釣  
 岡頭瑞鳳本非招  
 只今卓爾從誰問  
 陋巷由來飲一瓢

『牧隱詩藁』



## 양사언

○ 낙산사(洛山寺)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sup>99)</sup>

99) 楊士彦 조선 시대의 문신·서예가(1517~1584). 자는 응빙(應聘). 호는 봉래(蓬萊)·해객(海客). 안평 대군, 김구(金絳), 한호 등과 함께 조선 전기의 사대 서예가로 꼽히며 시에도 능하였다. 저서에 《봉래시집》이 있다.

돈녕주부 희수(希洙)의 아들이다. 동생 사준(士俊)·사기(士奇)와 더불어 문명을 날려 당대인이 3형제를 중국의 소순·소삭·소철에 비유했다. 1546년(명종 1) 식년문과에 급제했다. 1556년을 전후로 대동현감을 지냈으며 그 이후 삼등·함흥·평창·회양 등지를 다니며 역임했다. 회양에 나간 것은 금강산을 따라 스스로 택한 것으로 이때 금강산에 관한 시를 많이 남겼다. 만폭동 입구에 "봉래풍악 원화동천"(蓬萊楓岳元化洞天)이라는 8자를 새기기도 했다. 1564년에 고성군의 구선봉 밑 감호(鑑湖)가에 정자 비래정(飛來亭)을 짓고 풍류를 벗삼으며 은거했다.

1582년(선조 15) 다시 안변군수로 나갔으나 다음해 번호(蕃胡) 변란을 당해 수사(守士)의 책임을 지고 해



푸른 안개 자욱하여 끝이 없는데  
 흰 구름 낀 하늘은 아득하구려  
 뗏목 타고 오는 사람 보이지 않고  
 누선은 어디 뗏는 지 알 수가 없다.  
 『蓬萊集』

靑靑霧閣三千丈  
 白白雲窓萬里天  
 望望乘槎人不見  
 不知何處泛樓船



## 김상헌

○ 권운경(權雲卿)이 양양(襄陽)에 부임하는 것을 전송하다 5수. 이름은 권진(權縉)이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이름난 절 낙산사가 지어진 건 고려 때로  
 형승 보면 가팔라서 특별하게 드높다네  
 말 듣기로 오경에는 일출 볼 수 있다 하니  
 백운단의 단상에서 붉은 물결 굽어보소

洛山名刹創前朝  
 形勝岾嶸特地高  
 聞說五更看日出  
 白雲壇上俯紅濤

신선의 땅 한 해 내내 시끄러운 일 없는데  
 외로이 선 납호정은 유월에도 추우리라  
 찬 자리서 졸다 깨자 오귀안은 고요한데  
 바닷바람 불어와서 죽피관을 떨구리라

仙區終歲絕喧煩  
 納灑孤亭六月寒  
 氷簟睡醒鳥几靜  
 海風吹落竹皮冠

습가지의 누관에는 먼지 오래 쌓였는데  
 현수산의 깨진 빗돌 몇몇 봄을 지내었나  
 강한의 풍류 놀이 모두 헛일 되었으니  
 녹문에서 모름지기 망씨나 찾아보소

習家池館久生塵  
 峴首殘碑閱幾春  
 江漢風流祗虛事  
 鹿門須覓姓龐人

철에 따라 나는 진미 고을에다 올리나니  
 입 큰 농어 꼬리 붉은 방어 팔대어도 있네  
 좋은 시절 수연 열기 어느 곳이 켈 좋은가

時羞簇案進官廚  
 巨口鰱魴八帶魚  
 佳節壽筵何處好

서에 귀양가서 1584년 68세로 죽었다. 그는 문명을 날리면서 허균·이달 등과 교류했다. 허균은 〈성수시화 性叟詩話〉에서 금강산에 관한 그의 시를 유선지흥(游仙之興)에 젖어 있다고 평했다. 점복(占卜)에 능하여 임진왜란을 예고했다고 하는데 양사언에 관한 도술적 설화가 지금까지 전한다. 조선 전기 4대가로 일컬어질 만큼 서예를 잘해 초서와 해서에 능했다.

자신의 〈미인별곡〉과 허강의 〈서호별곡〉 및 한시 등을 쓴 〈봉래유묵 蓬萊遺墨〉이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가사로 〈미인별곡〉이 있으며 문집으로 〈봉래집〉이 전한다.

양양의 꽃과 버들 반여 끌고 가보시게

大堤花柳引潘輿

어린 시절 노닐 적엔 모두 머리 검었는데  
순식간에 흐른 세월 몇몇 해가 지나갔나  
근년 들어 만사 모두 맘 식은 지 오래건만  
이별 정만 남아 있어 늙어서도 맘 상하네  
『清陰集』

童叟相隨各鬢蒼  
轉頭時序幾炎涼  
年來萬事休心久

○ 양양 부사 이효숙의 아내에 대한 만사(李襄陽孝叔妻挽詞)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sup>100</sup>

문헌 타고 길에 올라 끄는 말이 엄했으니  
지난날에 일이 홀연 잘못될 줄 뉘 알았나  
맺은 약속 맘에 걸려 괜히 절로 생각나나  
다른 생은 꿈과 같아 기약하기 어렵다네  
상자 속의 옛 수건엔 좀과 거미 모여들고  
문밖의 슬픈 노래 속에 해로 마르누나  
머리 허연 낭군 보니 살고 싶은 뜻 없나니  
세간에서 누가 죽음 슬퍼할 만하다 하나  
『淸陰先生集』

文軒戒路儼驂駢  
宿昔那知事忽非  
成說關心空自憶  
他生如夢杳難期  
篋中故帨蟲絲集  
門外哀歌薤露晞  
白首郎君生意盡  
世間誰道死堪悲

○ 승지(承旨) 이경용(李景容)이 외직으로 나가 양양(襄陽)에 보임되어 가는 것을 전송하다. 아버이를 봉양하기 위해 외직을 구한 것이다.[送李承旨景容出補襄陽。爲養乞外]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협로에서 당음 직에 한 해 넘게 있었는데  
성은 내려 은대에서 입시함을 허락했네

陝路棠陰閱歲廻  
聖恩重許入銀臺

100) 김상헌(1570, 선조3~1652, 효종3)의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 중년 이후 楊州 石室에 退歸해 있으면서 사옹(西礪老人, 만년에 安東에 은거하면서 사옹)이다. 1590년(선조23) 진사가 되고 1596년 전쟁 중에 실시한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명되었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문과 중시에 을과로 급제, 사가독서(賜暇讀書)한 뒤 교리·응교(應敎)·직제학을 거쳐, 1611년(광해군4) 동부승지가 되었다.

1626년(인조 4) 성절 겸 사은진주사(聖節兼謝恩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후 육조의 판서 및 예문관·성균관의 제학 등을 지냈다.

1639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어 6년 후 풀려 귀국하였다. 1645년 특별히 좌의정에 제수되고, 기로사에 들어갔다.

대제학, 이조 판서, 예조 판서, 공조 판서, 병조 판서를 지냈다. 저서에 『野人談錄』·『豐岳問答』 따위가 있고, 『청구영언』 따위의 가곡집에 시조 4수가 전한다.

서쪽 해가 엄자산에 가까워짐 겁이 나서  
 바닷가의 양양 고을 수령 자리 간청했네  
 현수산에 올라서는 숙자 자취 쫓아가고  
 반여 타고 즐기는 일 남쪽 독서 이어 하리  
 풍수 슬픔 미칠 수가 없는 내가 불쌍커니  
 흰머리의 이 늙은이 만 생각이 다 식었네  
 『淸陰先生集』卷之六

怕看西日崦嵫迫  
 乞得東州嶺海隈  
 峴首登臨追叔子  
 潘輿娛樂繼南陔  
 自怜風樹嗟無及  
 頭白人間萬念灰



## 안석경

○ 『동행기(東行記)』

안석경(安錫儼)<sup>101)</sup>

5월 1일(기해). 아침 일찍 출발하였다. 환허 대사(喚虛大師) 신규(信奎)가 이별을 고했는데, 그 말이 자못 정성스러웠다. 유평부(幼平賦) 한 수를 지어주기에 나도 차운하여 화답하였다. 20리를 걸어 간성군의 청사를 지나갔다. 또 남쪽으로 10리를 걸어 선유담(仙遊潭)에 들어간 뒤 가학정(駕鶴亭)에 올랐다.

선유담은 물결이 잔잔하고 넓게 퍼져 운치가 있었으며, 물고기와 새들이 많았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에도 추한 기상은 없었다. 동쪽으로는 바다와 사이를 두고 있고, 일대에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배들이 돛 가득 바람을 안고 가니 구름처럼 높은 파도가 일어난다. 작은 언덕이 구불구불 이어지다가 갑자기 못의 가운데로 들어간다. 정자는 그 머리 부분에 있다. 그윽하고 조용하며 깨끗하여 매우 마음에 들었다.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6, 7리를 가니 소리포(小梨浦)가 나왔다. 맑고 조용하며 경치가 밝은데, 동해와 얇은 모래톱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구경하고 즐길 만하였다. 20리를 가서 청간정에 올랐다. 정자는 왼쪽으로 푸른 바위를 끼고 있고, 동쪽으로 푸른 바다에 접하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만경루(萬景樓)와 이어져 있다. 만경루는 비교적 높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볼 수 있었다. 시판에는 택당 이식의 시가 새겨져 있었다.

만경루는 서남쪽으로 언덕을 이고 있는데, 그곳에는 운근정(雲根亭)의 옛터가 남아

101) 안석경(1718, 숙종44~1774, 영조50)의 본관은 순흥(順興)이고 자는 숙화(淑華), 호는 완양(完陽)·삽교(雪橋)이다. 부친 중관(重觀)의 임소(任所)를 따라 흥천·제천·원주 등지에서 청년기를 보냈다. 부친은 안중관은 김창흡(金昌翕)의 문인으로 이병연(李秉淵)·민우수(閔遇洙) 등 당시 노론계 인사이다. 홍세태(洪世泰) 같은 중인 출신 시인파도 교유한 노론계 학자였다. 1752년은 과거에 응한 마지막 해이기도 하지만, 그 해 아버지가 죽자 그는 곧 강원도 두메산골인 횡성 삽교(雪橋)에 은거한다.

삽교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후반기는 도회적인 생활을 떠나 벼슬을 단념한 채 산중에 은거하였다. 저서로 『삽교집』·『삽교만록』이 있다.

있다. 남쪽으로는 설악산과 천후산(天吼山)의 깨끗한 구름과 바위들이 보이며, 동쪽은 높아 큰 바다를 굽어볼 수 있다. 맑은 계곡을 따라 물이 모여드니 그 경치가 참으로 장엄하다. 아십구나! 운근정의 허물어짐이여.

율촌(律村)에서 잤다. 삼연 김창흡이 운근정을 매우 사랑하여 시를 지었는데, 뒷날에 포부가 큰 선비가 나타나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다.

5월 2일(경자). 일찍 일어나 만경루에 올랐다. 일출을 기다렸는데, 이내 가리어 보지 못하였다. 아쉬웠다. 남쪽으로 20리를 걸어 화암사(華巖寺)로 들어갔다. 화암사는 큰 산을 이고 있으니, 바로 금강산 남쪽에 해당된다. 00관은 자못 돌 빛을 띠고 있었다. 앞으로는 계곡물을 흐르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화암(禾巖)을 대하고 있는데, 수백 길 높이로 우뚝 솟아 있다. 위에는 물레방아가 12개가 있다고 한다.

남쪽으로 5리쯤 올라가서 석인대(石人臺)에 이르렀다. 석인대 위의 돌은 사람의 모습과 같은데 나란히 서 있는 것이 세 개로 전체가 돌로 이루어져 있다. 활처럼 휘어지고 기다란데, 위에는 절구 같이 뚫려 있어서 5, 6 곳에 물이 고인다. 석인대는 남쪽으로 천후산과 설악산을 마주하고 있는데, 돌 모서리가 뾰족하게 솟아 있다. 동쪽으로는 세 개의 호수와 동해의 물을 굽어보고 있다.

원호(圓湖)는 북쪽에 있고, 영랑호는 가운데에 있으며, 청초호는 남쪽에 있다. 통고(通高)로부터 곤강(袞江)까지 4, 5백 리에 이르는 바다를 볼 수 있다. 듣자니, 명나라의 군대가 동쪽으로 와서 조선을 구할 적에 영랑호에 주둔하였다가 3일 만에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에 웃으면서, ‘천하의 절경이다. 아아. 어찌 가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한다. 이 말은 삼연 김창흡이 계현(契玄)에게서 들은 말이라고 한다.

영랑호는 탁 트이고 아늑한데 사방 언덕은 모두 흰 모래로 되어 있으며 기이한 돌이 많다. 동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허공에서 아득하게 출렁거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서쪽으로는 설악산과 천후산, 화암봉과 석인봉이 둘러싸고 있는 경치를 구경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장군이 연연하여 떠나지 못한 것인가?

남쪽으로 15리를 가서 양양(襄陽) 땅에 있는 천후산 계조굴(繼祖窟)로 들어갔다. 5리를 내려와 내원(內院)에 갔다. 또 5리를 가서 신흥사(新興寺)에 들어갔다. 모두 옛날에 구경했던 곳이다. 미타전(彌陀殿)에서 잤다. (이하 일부 생략)

5월 3일(신축). 새벽에 이화정 위로 나아가 일출을 보았다. 구름이 조금 있었지만 바다는 고요하고 바람이 불지 않았다. 붉은 덩어리가 번드치고 들끓으며 출몰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큰 불 수레가 아득한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아침 늦게 절문을 나서 몇 리를 걸어 송림으로 들어갔다. 동해묘(東海廟)를 보았는데

묘의 왼쪽은 바다였다. 앞의 시냇물은 자못 조용하고 넓었다. 지켜서 보호하는 것이 엄하지 않은지라 백성들이 날마다 모여들어 성사를 이루었으니 놀랄 만하였다.

서쪽으로 10리를 걸어 태평루(太平樓)에 올랐다. 태평루 편액 안의 글자는 안평 대군(安平大君)의 글씨로 문미 밖에 걸려 있고, 큰 글씨는 우암 송시열 선생의 글씨로 문미 안에 걸려 있었다.

서쪽으로 몇 리를 걸어 임천(林泉)의 이씨 농막으로 들어갔다. 상사(上舍) 심보(心甫) 이운일(李運一)과 함께 풍류와 사한(詞翰)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내용이 모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데, 나의 풍악축(楓嶽軸)을 높이 쳐 주었다. 그러나 나의 보잘 것 없는 문장을 어찌 감히 학문이 높은 사람 앞에 당돌하게 내 놓겠는가? 이에 몇 편의 시를 외었다. 이운일이 말하기를,

“옛날에 내가 풍악산을 삼일 동안 유람하면서 이백칠십 수의 시를 얻었는데, 어찌 그대는 이십 일 동안 산중에 있으면서 삼십 수를 채우지 못했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천 리 길을 여행하다 보니 피곤하여 붓을 잘 놀릴 수가 없었으며, 산 또한 매우 아름답고 장엄하여 반드시 그에 합당한 말을 찾으려다 보니 붓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었다. 이것이 시가 많지 않은 이유이다. 어찌 그대의 훌륭한 솜씨를 나의 졸렬한 솜씨에 비교하여 논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5월 4일(임인). 임천에 머물면서 이운일이 소유한 만석정(萬石亭)을 찾았다. 이운일이 찾아와 기문(記文)을 부탁하였는데, 피곤하여 사양하였다. 달계서원(達溪書院)을 구경하였다. 이유(李維)는 덕을 두터이 쌓아 문행(文行)으로 현달하였는데, 근후한 행동과 문장을 지닌 여러 후진들이 서숙(書塾)으로 찾아와 공부하고 있었다. 선비들이 파도처럼 모여드니 공경할 만하였다. 저녁에 이운일의 집으로 가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5월 5일(계묘). 이운일과 동행하여 서쪽으로 30리를 갔다. 말 위에서 시를 지었는데 모두 다섯 수였다. 서림(西林)에 도착하여 헤어졌다. 이운일의 근후한 풍류와 정밀한 학문을 그리워 머뭇거리며 떠나지 못하였다. 말을 타고 40리를 가서 갈애(葛厓)에서 잤다. 5월 6일(갑진). 구룡령(九龍嶺)을 넘어 모두 20리를 갔다. 명지거리(明紙巨里)에서 쉬었다. 10리를 가서 인암(印巖)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바로 강릉 지역이다. 수석이 아름다웠다. 20리를 가서 갈마담(渴馬潭)에 있는 김해운(金海運)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5월 7일(을사). 길을 나서 20리를 갔다. 두일창(斗日倉)을 지나 10리를 가서 덕치(德峙)를 넘었다. 다시 10리를 가서 이치(梨峙)를 넘었다. 홍천의 대울곡(大兀谷)을 내려오니 천석이 아름다웠다. 35리를 가서 검산(劍山)의 합윤(蛤澗)에 있는 서씨의 농막에서 유숙하였다. 검산의 동쪽 골짜기에 삼신산 폭포(三神山瀑布)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합

윤의 하류에는 대암 폭포(岱巖瀑布)가 있는데, 여름이면 대암에는 고기가 많다. 또 그 아래에 옥련동(玉連洞)이 있는데, 수석이 기이하고 장엄하였다. 문수연(文殊淵)과 이어져 있다고 한다. 이곳으로부터 기도(棋檣)로 들어갔는데, 또한 하루의 노정이 걸린다고 한다.

5월 8일(병오). 험한 길을 지나 모두 30리 길을 왔다. 횡성의 당현(唐峴)에서 쉬었다. 또 10여리를 가서 유곡(柳谷)에 있는 이씨의 농막에서 잤다.

5월 9일(정미). 아침 일찍 유곡의 입구를 나왔다. 비를 피하여 초현(草峴)으로 들어갔다. 잠시 피하니 곧 날이 개었다. 울동(栗洞)을 나와 동현(銅峴)을 지나 개곡창(介谷倉)을 거쳐 중금(中金)에 있는 진씨(陳氏)의 농막에서 쉬었다. 수백(水白)을 지나 횡성 읍내에 있는 이처사 집으로 갔다. 계암(階巖)을 향하여 출발했다. 이유평과 군자당(君子堂)에서 함께 잤다. 환린(喚麟) 또한 같이 밤을 보냈다. 함께 산수를 유람하고 먼 길을 고생한 뒤에 이별하여 각각 동서로 떠나야 했으니, 그 아쉬운 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월 10일(무신). 이유평이 먼저 떠나고, 환린도 이별하고 떠났다. 여관에 앉아 있었는데, 무료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월 11일(기유). 새벽에 길을 나섰다. 원주의 계암을 지났다. 먼저 출발한 이유평이 10리를 지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계암에서 아침을 먹고 저녁에 보통리(普通里)에 도착하였다.

5월 12일(경술). 일찍 길을 나서 흥원(興元)에 도착하였다.

5월 13일(신해). 안산(安山)에 들어갔다.

금강산의 둘레는 1,200리며, 그 석봉의 둘레는 360-370리이다. 큰 산줄기 동쪽을 외금강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는 160여 리이다. 서쪽을 내금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길이는 100여 리이다. 토산(土山)과 석산(石山)을 합쳐 큰 봉우리만 헤아려도 일만 이천 개가 되며, 석산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봉우리를 합쳐 세어보면 또한 일만 이천 개가 된다. 12라는 숫자는 지방(地方)의 큰 수이다. 그런 까닭에 불가의 책에 ‘금강’이란 말을 실어 놓고, 또한 절로 부합하게 한 것인가!

금강산에는 바위가 서 있는 것이 열에 아홉이나 된다. 그러므로 땅이 이루어진 초기에 성대한 양의 기운이 엉겨 모여서, 뜨거운 것이 곧바로 올라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금강산의 동쪽 산기슭은 바다로 들어가 있는데, 모두 아름답고 기이하며 아득하여 어

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근거를 헤아려 보면, 또한 아름다운 것은 비교할 것이 없고 심후한 것은 끝이 없다. 그 겉으로 드러나 볼 수 있어서 천하에서 경동(驚動)하는 것들은, 주머니 밖으로 드러난 송곳 끝에 불과하다. 복희씨는 괘를 그려 예를 분별하였고, 요 임금은 정사를 잘하였으며, 공자는 저술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것은, 그 온축된 바를 가지고 논한다면, 또한 천만에 한둘도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 중에 구구한 재덕을 가지고 일에 적용하여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자들은, 성급하고 망령됨이 심하다.

『雪橋集』「東行記」

己亥. 早發喚虛. 大師信奎拜別. 辭頗款. 曲幻平賦一詩先贈. 余亦次之. 行二十里過扞城郡治. 又南十里入仙遊潭. 登驚亭. 潭澹蕩窈窕. 而紆回有致. 饒菱萼魚鳥. 回面峰巒無僂頽之氣. 東與海水只隔. 一帶松林. 風帆雲濤. 漂搖蕩洋於若華之上. 小阜蜿蜒. 斗入於潭中. 亭在其頭. 幽閒備灑. 甚可愛. 遵海而南六七里. 見小梨浦. 澄澹昭映. 與東海隔淺沙洲. 可賞二十餘里. 登清澗亭. 亭左夾蒼巖. 而東臨碧海. 右聯萬景樓. 樓較高所覽益遠. 板刻澤堂詩. 樓所負西南臯. 有雲根亭墟. 西南見雪嶽天吼山雲石清. 東峻俯大海水. 陪從於清澗之面. 其賞甚壯. 惜平基廢也. 宿律村. 淵翁甚愛雲根有詩. 後有曠土. 必復立之.

庚子. 晨起升萬景樓. 俟日出. 海霞掩蔽可恨. 西南行二十里. 入華巖寺. 所負大山. 卽金剛之南爲也者. 00官. 頗有石色. 前臨澗水. 東對禾巖魄磊. 特立數百何. 上有水曰十二云. 南陟五里許. 上石人臺. 臺上石如人. 並立者. 三處. 全體石也. 隆然而長. 上穿如白簍. 而水積之者. 五六. 卽臺南. 挹天孔雪岳. 石角峭拔. 東俯三湖大海水. 圓湖在北. 永郎在中. 青草在南海. 自通高至袞江. 四五百里可見. 聞天兵. 東救朝鮮時. 天將屯水. 卽湖三日歸. 歸時大笑而曰. 天下絕境. 嗚呼奈有何. 此語. 三淵聞之契玄云. 永郎. 旣醞藉曠潤. 而四岸. 皆白沙臯. 多竒石. 東接碧海渺漾空明. 西擁雪嶽天吼禾巖石人壤璋之賞. 此所以天將之戀戀. 不能捨者乎. 南行十五里. 入襄陽天吼山繼祖窟. 下五里入內院. 又五里入新興寺. 皆舊賞也. 宿彌陀殿.

辛丑. 晨出梨花亭上. 觀日出. 微有雲氣. 海靜無風. 不見翻紅沸赤出沒屢浴之狀. 而但覩大火輪踊出濛瀨之上. 晚出寺門數界南. 入松林. 見東海廟. 廟左海而前溪水. 頗幽曠. 顧守護不嚴. 祈眈日集. 便成叢祠. 可駭. 西行十里. 登太平樓. 樓扁中字. 安平大君筆也. 懸楣外. 大字華陽先生筆也. 懸楣內. 西數里. 入林泉李氏庄. 李上舍心甫運一. 會話風流詞翰. 皆過絕於人. 而索余楓岳軸. 余顧寂寥數章. 何敢唐突於大至之前耶. 乃誦傳若干篇. 運一曰. 昔吾遊楓岳三日之間. 得二百七十首. 何子之二十日山中. 顧不滿三十首也. 余曰. 千里氣頗疲倦. 不能縱筆. 山又甚竒且壯. 必欲爲相稱之語. 故不能肆筆. 此詩之所以無多也. 抑子之健筆. 以余之拙而何可比論耶.

壬寅. 留林泉. 訪運一萬石亭. 運一求記. 辭以神疲. 見達溪書塾. 李氏維. 以厚德精基. 以文行顯達. 而諸俊進. 皆謹厚有文采. 方聚講於書塾. 音衿濟濟可敬. 夕就心甫. 從容語.

癸卯. 西行運一同行三十里. 馬上呼韻. 皆賦五詩. 至西林. 相別. 戀其篤厚風流. 煥爛文章.

徘徊憫悵不忍遽. 上馬行四十里. 宿葛產.

甲辰. 踰九龍嶺. 凡行二十里. 憇明紙巨里. 十里至印巖. 卽江陵地也. 頗有水石之勝. 二十里宿渴馬潭金海達家.

乙巳. 發行二十里. 過斗日倉. 十里踰德峙. 十里踰梨峙. 下洪川大兀谷. 時有泉石. 行三十五里. 宿劍山之蛤洞徐氏庄. 聞劍山之東谷有三神山瀑布. 蛤洞洞下流. 有岱巖瀑布. 魚於夏. 又其下有玉連洞. 水石奇壯. 連文殊淵云. 自此. 入棋檣. 亦檣一日之程云.

丙午. 踰遠入峙. 凡三十里. 憇橫城之唐峴. 又十餘里. 宿柳谷李氏庄.

丁未. 早出柳谷水口. 逢雨入草峴. 少避旣霽. 出栗洞. 過銅峴. 歷介谷倉. 憇中金陳氏庄. 歷水白. 抵橫城邑治李處士庄. 向階巖. 幼平同宿於君子堂. 喚隣亦同夜. 而山水同賞. 遠道同苦之餘. 將分袂而西東. 其悵然. 可知.

戊申. 幼平先去. 喚隣辭退. 坐旅店無聊. 可知.

己酉. 晨發歷原州階巖. 聞幼平新發. 不過失十里云. 朝飯階巖. 夕抵寶通里.

庚戌. 早發到興原.

辛亥. 入安山.

大抵金剛之山. 周回可千二百里. 而侖石峰嶂. 周回可二百六七十里. 大脊以東. 謂之外山. 其長. 可一百六十餘里. 以西謂之內山. 其長. 百餘里. 合土山石山而數其大峭. 可修一萬二千峯. 執石山而合大小峭而數之. 亦可得一萬二千. 盖十二者. 地方之大數也. 故釋氏書. 懸揣金剛之言. 亦能自合也歟.

金剛山. 其石之立者. 十蓋八九. 豈非地成之初. 其盛陽之氣. 團聚而炎炎直上而然歟. 金剛之山. 其東麓入海者. 皆竒怪而磅礴. 不知其蟠據所竟. 料其根柢之入地者. 亦皆瑰璋. 無比深厚無窮. 則其標之可見. 而驚動於天下者. 恐不過囊錐之末耳. 伏羲之畫卦制禮. 大堯之政事. 孔子之著述. 其見於人者. 就所蘊而言之. 亦當爲千萬之一二矣. 今人抱區區之才德. 而欲其悉展於事. 盡見於世者. 嗚呼其躁妄之甚乎.

『雪橋集』「東行記」



## 이행

○ 영동에 안찰사로 가는 황숙공을 보내며 4수[送黃叔貢按察嶺東 四首]

용재(容齋)

이행(李荇)<sup>102)</sup>

102) 이행(1478(성종 9)~1534(중종 29)의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택지(擇之), 호는 용재(容齋)·장택어수(滄澤漁叟)·청학도인(靑鶴道人)이다. 박은과 함께 해동의 강서파(江西派)라고 불렸다. 1495년(연산군1) 증광문과에 급제한 뒤, 권지승문원부정자를 거쳐 집열·전적을 역임했고, 『성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했다. 1504년 응교로 있을 때 폐비 윤씨의 복위를 반대하다가 충주에 유배되었고, 중종반정으로 풀려나와 교리에 등용, 대사간·대사성을 거쳐 대사헌·대제학·공조판서·이조판서·우의정 등 고위관직을 두루 역임했다. 1530



고삐를 잡고 영동으로 나가며  
구름을 보고 북당을 생각하리  
용승한 성은 근친을 허락하니  
색동옷에 은장이 어려 비치도다  
왕사에 어찌 쉴 겨를 있으랴만  
차마 아버지 상심케 할 수 없으랴  
징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명하여 다시금 술잔 올리누나

攬轡出東道  
望雲懷北堂  
殊恩許榮觀  
彩服映銀章  
王事寧遑息  
親慈未忍傷  
徵黃無幾日  
拜命更稱觴

평생에 흠모하는 벗 황숙도는  
문장이 한나라 작가에 필적하지  
이제 또 동문의 이별을 하니  
북수의 정을 장차 어이 견딜꼬  
밭의 외는 하마 딸 때가 되고  
강의 잉어는 때로 삶을 만하리  
이 늙은이 시를 적어둔 곳으로  
월정을 평소에 늘 기억하노라

平生黃叔度  
文字漢西京  
又作東門別  
那堪北樹情  
園瓜期且摘  
江鯉可時烹  
老子題詩處  
尋常記月精

월정(月精)은 절 이름이다.(月精 寺名)

지난날 장맛비를 만났을 적  
한 가닥 길에서 각자 엇갈렸지  
세상일이란 참으로 우스운 것  
덧없는 인생 만날 기약 없으랴  
서로 만났다가 다시 이별하고  
술잔 잡고 한편 시를 논하누나  
낙산사에 의춘의 시축이 있으니  
한가한 틈에 설미를 찾아보시라

往時遭雨潦  
一路各差池  
世事真堪笑  
浮生未有期  
相逢還作別  
把酒且論詩  
洛寺宜春軸  
乘閑問雪眉

낙산사(洛山寺)의 중 설미(雪眉)가 지정 상공(止亭相公)의 시를 얻어 시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洛山寺僧雪眉 得止亭相公詩爲軸 故云]

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펴내는 데 참여했고, 1531년 김안로를 논박하여 좌천된 뒤 이듬해 함중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당시(唐詩)의 전통에서 벗어나 기발한 착상과 참신한 표현을 강조하는 기교적인 시를 써서 새로운 시풍을 일으켰다. 저서로는 『용재집』이 있고, 1537년 신원(伸寃)되었고, 중종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定)이다.

경치 좋기로 동해가 이름났나니  
 노쇠한 몸 젊어 놀던 때 추억노라  
 대평에서는 술 깨어 말을 달렸고  
 경포에서는 술 취해 누대에 올랐지  
 개골산 못 가본 게 한으로 남건만  
 이내 생애 이미 늙어 백발이로세  
 이 푸른 봄날 그대를 보내노니  
 마음대로 신선의 산을 찾아보오  
 『容齋集』

勝絕傳東海  
 衰遲憶壯遊  
 臺坪醒走馬  
 鏡浦醉登樓  
 遺恨乖皆骨  
 餘生已白頭  
 青春謝吾子  
 隨意訪丹丘

○ 영동(嶺東)에 안찰사(按察使)로 가는 황숙공(黃叔貢)을 보내며 4수(四首)

고삐를 잡고 영동으로 나가며  
 구름을 보고 북당을 생각하리  
 융숭한 성은 근친을 허락하니  
 색동옷에 은장이 어려 비치도다  
 왕사에 어찌 실 겨를 있으랴만  
 차마 어머니 상심케 할 수 없으랴  
 징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명하여 다시금 술잔 올리누나

攬轡出東道  
 望雲懷北堂  
 殊恩許榮觀  
 彩服映銀章  
 王事寧違息  
 親慈未忍傷  
 徵黃無幾日  
 拜命更稱觴

평생에 흠모하는 벗 황숙도는  
 문장이 한나라 작가에 필적하지  
 이제 또 동문의 이별을 하니  
 복수의 정을 장차 어이 견딜꼬  
 밭의 외는 하마 딸 때가 되고  
 강의 잉어는 때로 삶을 만하리  
 이 늙은이 시를 적어둔 곳으로  
 월정을 평소에 늘 기억하노라  
 월정(月精)은 절 이름이다.

平生黃叔度  
 文字漢西京  
 又作東門別  
 那堪北樹情  
 園瓜期且摘  
 江鯉可時烹  
 老子題詩處  
 尋常記月精  
 寺名

지난날 장맛비를 만났을 적  
 한 가닥 길에서 각자 엇갈렸지  
 세상일이란 참으로 우스운 것  
 덧없는 인생 만날 기약 없으랴

往時遭雨潦  
 一路各差池  
 世事眞堪笑  
 浮生未有期

서로 만났다가 다시 이별하고  
술잔 잡고 한편 시를 논하누나  
낙산사에 의춘의 시축이 있으니  
한가한 틈에 설미<sup>103</sup>)를 찾아보시라

相逢還作別  
把酒且論詩  
洛寺宜春軸  
乘閑問雪眉

경치 좋기로 동해가 이름났나니  
노쇠한 몸 젊어 놀던 때 추억노라  
대평에서는 술 깨어 말을 달렸고  
경포에서는 술 취해 누대에 올랐지  
개골산 못 가본 게 한으로 남건만  
이내 생애 이미 늙어 백발이로세  
이 푸른 봄날 그대를 보내노니  
마음대로 신선의 산을 찾아보오  
『용재집』

勝絕傳東海  
衰遲憶壯遊  
臺坪醒走馬  
鏡浦醉登樓  
遺恨乖皆骨  
餘生已白頭  
青春謝吾子  
隨意訪丹丘



## 양창해

○ 양양(襄陽) 낙산사(洛山寺)에서 양창해(楊滄海)가 절구 한 수를 지음.

푸르고 푸른 안개 누각은 삼천 길이나 되고  
희고 흰 구름 창은 일만 리 하늘과 같구나  
바라보다 뗏목을 잡으나 사람 보이지 않으니  
알지 못할 곳에서 누선(樓船)이 뜨네.  
『五山說林草藁』, 車天輅撰

青青霧閣三千丈  
白白雲窓萬里天  
望望乘槎人不見  
不知何處泛樓船

○ 권공 운경<sup>104</sup>) 진 이 양양 부사로 나가게 되어 시를 지어 전송하며[權令公雲卿出知襄陽府詩以送行 縉]

한 쌍 깃발 앞세우고 멀리 대제<sup>105</sup>)를 향해 가니

雙旌遙向大堤馳

103) 洛山寺僧雪眉° 得止亭相公詩爲軸° 故云°

낙산사(洛山寺)의 중 설미(雪眉)가 지정 상공(止亭相公)의 시를 얻어 시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104) 권공 운경: 권진(權縉, 1572~1624)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운경, 호는 수은(睡隱)이다.

105) 대제(大堤): 양양(襄陽)을 가리킨다. 원래는 중국의 호북성(湖北省) 양양현(襄陽縣)에 있는 큰 제방을 지칭하는 말인데, 악부(樂府)인 「襄陽樂」 속에 ‘大堤曲’이 들어 있어서, 양양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여기서

양호와 두예<sup>106</sup>의 풍류가 또 한 때 나타났구려  
 산공<sup>107</sup>이 술에 흠뻑 취한 곳 다시 찾아가면  
 습가지(習家池)<sup>108</sup>를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소

羊杜風流又一時  
 更訪山公酩酊處  
 不知能認習家池

낙산사 이름난 절 우리 동방의 으뜸이니  
 어렸을 적 유람한 자취 꿈속에 아련해라  
 참선하는 절 방은 푸른 바다에 임했으니  
 새벽이면 둥근 해가 붉게 떠오른다네

洛山名利冠吾東  
 少歲遊蹤一夢中  
 禪室上房臨碧海  
 清晨騰出日輪紅

양군의 재주가 동쪽 지방에서 으뜸이니  
 초서와 시의 대가여서 대무<sup>109</sup>와 같도다  
 부친의 솜씨 본받아 글씨를 잘 쓰니  
 바닷가에 잠부<sup>110</sup>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리  
 양봉래<sup>111</sup>의 아들이 양양의 경내에 살고 있다.

楊君才調擅東隅  
 草聖詩豪若大巫  
 身後典刑能作字  
 海濱須記有潛夫  
 楊蓬萊之子寓於境內

아득한 안개 속에 층층 산봉 옥처럼 솟았으니  
 하늘을 가로지른 설악산은 새하얀 모습인데  
 양양 경내의 진산이 된 것에 연유하여  
 오래도록 시인들에게 현산<sup>112</sup>에 비견된다네  
 『월정집』

玉立層巒杳靄間  
 橫空雪嶽雪霜顏  
 只緣作鎮方城境  
 長被詩人擬峴山

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양양이 같은 이름이어서 적용한 것이다.

- 106) 양호(羊祜)와 두예(杜預): 진(晉)나라 때 양호와 두예가 앞뒤로 중국 양양(襄陽)의 태수가 되었다.
- 107) 산공(山公): 진(晉)나라 산간(山簡)으로 자는 계륜(季倫)이다. 당시 사람들이 산공이라고 불렀다. 죽림칠현 중 한 사람인 산도(山濤)의 아들인데 술을 좋아하여 양양의 태수가 되었을 때 늘 고양지(高陽池)에서 노닐면서 번번이 대취하였다. 『晉書』 卷43 「山簡列傳」
- 108) 습가지(習家池): 옛날 중국 양양(襄陽)의 호족(豪族)인 습씨(習氏)들의 아름다운 원지(園池)인데, 산간(山簡)이 양양 태수(襄陽太守)로 있을 때 이곳의 빼어난 경치를 사랑하여 매번 와서 술을 마시고 갔으며 이곳을 고양지(高陽池)라고 명명하였다. 『晉書』 卷43 「山簡列傳」
- 109) 대무(大巫): 법술이 아주 뛰어난 무당을 말하는데, 학문이나 기예에 크게 뛰어나서 자신이 경복(敬服)하는 사람을 비유한다. 『三國志補註』 권6 「吳書」에, “이른바 소무(小巫)가 대무(大巫)를 만난 것처럼 신기(神氣)가 다 빠져버립니다.(所謂小巫見大巫, 神氣盡矣.)”라고 하였고, 두보(杜甫)의 시 「贈韋左丞丈濟」에 “생각지 못했다오 남은 힘 자랑하다 도리어 와서 대무를 뵈게 될 줄 [不謂矜餘力, 還來謁大巫.]”라고 하였다.
- 110) 잠부(潛夫): 뜻을 펴지 못한 불우한 처지의 사람을 뜻한다. 여기서는 양사언의 아들 양만고(楊萬古, 1574-1655)를 이른다.
- 111) 양봉래(楊蓬萊): 양봉래는 양사언(楊士彦, 1517~1584)으로,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응빙(應聘), 호는 봉래이다. 형 양사준(楊士俊), 아우 양사기(楊士奇)와 함께 문명을 떨쳐 중국의 미산 삼소(眉山三蘇)에 견주어졌다. 아들은 양만고(楊萬古)로 문장과 서예로 이름났다.
- 112) 현산(峴山): 중국 양양현 서쪽에 있는 산 이름이다. 양호(羊祜)가 일찍이 양양 태수(襄陽太守)로 있으면서 선정(善政)을 베풀었던 관계로 그 지방 백성들이 양호의 덕을 사모하여 현산에 비(碑)를 세워 그를 기렸는데, 이 비를 바라보는 마음을 노래.



## 조석윤

○ 낙산사(洛山寺)

낙정당(樂靜堂)

조석윤(趙錫胤)<sup>113)</sup>

낙산에 절 지은 지 몇 천 년인가  
 새로 지은 절이 바닷가에 섰네  
 문 열면 부상에서 해 뜨는 것이 보이고  
 선경과 이웃하여 신선도 만날듯 하네  
 풍경소리 바람결에 갈매기 꿈을 깨고  
 성난 파도 법연까지 흘러들겠네  
 선방에서 하루 묵고 갈 길 다시 물으니  
 세속의 인연은 아직도 남았네

洛山有寺幾千年  
 棟年重新倚海天  
 開門扶桑先見日  
 地隣蓬島可枯仙  
 風傳鐘聲驚鷗夢  
 鯨蹴波濤濺法筵  
 一宿禪窓問歸路  
 此生猶未了塵緣

『樂靜先生文集』

○ 낙산사관일출(洛山寺觀日出)

낙정당(樂靜堂)

조석윤(趙錫胤)

동쪽 새벽별이 창으로 비쳐오기에  
 나그네 꿈결에 놀라 깨었네  
 동대에 급히 올라 멀리 바라보니  
 오색구름 트인 곳에 둥근 해 뜨네

扶桑曙色射窓明  
 宿客蒲團夢自驚  
 急上東臺開遠望  
 五雲綻處一輪生

『金剛山詩集』下篇



## 안경운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부사

안경운(安慶運)<sup>114)</sup>

113) 조석윤(趙錫胤-1605, 선조 38~1654, 효종 5)의 본관은 배천(白川)이고, 자는 윤지(胤之)이다. 호는 낙정재(樂靜齋)이다. 부친은 대사간 정호(廷虎)이고, 김상헌(金尙憲)의 문인이다. 대사간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고 때로는 유배를 가면서도 직언을 하였다.

첫 수는 낙산에 머물면서 일출의 광경을 보고 싶었는데, 동창으로 새벽별이 비치자 꿈결에 놀라 깨었다. 이때, 의상대 위를 바라보니 오색구름 트인 곳에 둥근 해의 일출을 보면서 그 장관을 노래하고 있다.

두 번째 수는 낙산사의 사찰이 그 유래가 아주 오래됨을 말하면서 새로 지은 절이 바닷가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문을 열어 일출을 바라보니 선경으로 신선을 만날 듯 승경이다. 선방에서 하루 묵고 다시 속세로 가야만 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있다.

114) 안경운의 본관은 순흥(順興)이고 자는 선여(善餘)이다. 1725년(영조1)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38년(영조 14) 1월 전라북도 고부군수에 부임하였지만 1738년 10월에 백성을 잘 돌보지 않았다고 하여

세월이 헛되이 지나 공직 가운데 있었고  
 이 승경에 있게 되니 다행 아니겠는가  
 관음굴에 빠르게 임하려니 몸에 깃이 내려하고  
 불대(佛台)에 높이 오르니 겨드랑이에 바람이 이네  
 초운(楚雲)은 골짜기를 막아 신의 발자취 남았고  
 복희씨 기뻐해서 진성(辰星)을 침범한 하늘에 오르네  
 경관 감상은 끝나지 않았지만 돌아갈 마음에  
 인간은 가히 머리가 센 노인을 비웃을 만하네  
 『峴山誌』

光陰虛度簿書中  
 何幸名區此會同  
 仙窟快臨身欲羽  
 佛台高陟腋生風  
 楚雲鎖峽留神躅  
 羲馭侵最上太空  
 清賞未闌歸意動  
 人間可笑白頭翁



## 박성

○ 낙산사망해(洛山寺望海)

대암(大庵)

박성(朴惺)<sup>115)</sup>

화각은 바닷가에 높이 솟았고  
 넘실거리는 물결은 하늘에 닿았네  
 평생 심안이 적었음을 꺼리고  
 이제부터 흐름에 따라 유유히 살라네  
 『大庵集』

畫閣高臨大海頭  
 鯨波萬里接天浮  
 平生心眼嘗嫌小  
 從此悠然上下流



## 유경시

○ 『유금강산록(遊金剛山錄)』

함벽당(涵碧堂)

유경시(柳敬時)<sup>116)</sup>

감금되었다. 1740년(영조 16) 9월 조동점(趙東漸)의 후임으로 제주목사에 부임하였으며, 1743년(영조 19) 3월에 사직(司直)에 임명되어 제주를 떠났다. 1743년 연희각(延曦閣) 동쪽 과수원 안에 있는 굴림당(橋林堂)을 중수하였다. 또 조정에 진흥곡 5천 석을 요청하여 굶주린 백성에게 공급하였고, 1743년에 운주당(運籌堂)을 중수하였다. 1745년(영조 21) 정월에 양양부사로 도입하였다.

115) 박성은 임란시 의병으로 활동하였지만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낙산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라는 이 시는 자신의 바다와 관련하여 심회를 표현하고 있다. 낙산의 높은 대에서 바라보니 넘실거리는 바다와 하늘이 닿아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물의 흐름처럼 유유히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116) 유경시(1666, 현종 7~1737, 영조 13)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함약(欽若), 호(號) 함벽당(涵碧堂)이다. 고산(孤山) 이유장(李惟樺)과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의 문하생이고, 1694년(숙종 20)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閔氏)의 복위를 계기로 실시된 별시에서 유학(幼學)으로 병과 12인에 급제하여 순천부사(順天府使)를 지냈다. 1727년(영조 3)에 양양부사(襄陽府使)가 되니 대관명에는 도적의 소굴이 있었다. 그 적도에 부종(附從)하던 산맹(山氓)을 통해 탐지하여 그들을 체포하여 처형(處刑)하니 부내(府內)가 안도 하였다. 이

우리나라에는 이름난 산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유독 금강산을 으뜸이다. 중국 사람들도 심지어 ‘고려(高麗)에서 태어나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외국 사람도 금강산의 이름을 듣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도 금강산을 한번 보지 못한다면 어찌 평생에 한이 되지 않겠는가.

금강산은 영동(嶺東)의 고성(高城)과 회양(淮陽) 사이에 있다. 내가 영남(嶺南)의 안동(安東) 땅에 살고 있으니, 서로 간의 거리가 거의 700 리나 된다. 그러나 한번 벼슬길에 올라 그 사이에 세속에 폭 빠져 있던 것을 생각하여 가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마침 정미년(1727) 가을을 맞아 양양 부사(襄陽府使)로 부임하였는데, 양양과 이 산은 불과 3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 업무 중 한가한 시간에 정신을 차려 절기(節氣)를 살펴보니 이미 늦어 단풍잎이 지고 눈도 너무 일찍 쌓여 가고 싶어도 또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초봄을 기약하였다가 올 봄에 이른 것이다.

고령(高靈) 신척(申滌)이 본도 좌막(佐幕)으로 있었는데, 편지를 보내 나와 함께 유람하면서 경치를 구경하기로 약속하였다. 우선 설악(雪嶽)으로부터 시작하여 3월 9일 신흥사(神興寺)에서 모였는데, 신흥사는 양양부의 경내에 있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먹고 도착하여 보니 부장(副將) 일행은 이미 화암사(華巖寺)로부터 천후산(天吼山) 꼭대기에 올라와 옛 이야기를 몇 마디 늘어놓고 있었다. 산의 모든 경치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호응할 겨를이 없었다. 산의 사면은 모두 바위로 둘러져 있는데 마치 하나의 병풍처럼 깎여져 있고 석굴(石窟)이 있는데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세상에 전해지기를 조화상(祖和尚)이 거처하던 곳이라 하여 계조굴(繼祖窟)이 되었다고 한다. 굴 가운데에는 몇 개의 시렁이 엮여져 있고 좌우에는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여 문승(門僧) 수도자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삼았다고 한다. 절구 한수를 지어 읊었다.

벽옥을 둘러 병풍을 만들었는데  
누가 능히 깎아 만들 수 있겠는가  
선사의 자취 이미 멀어졌는데  
석굴이 다만 이름을 남아있구나

碧玉環爲障  
誰能削得成  
仙師迹已遠  
石窟但留名

굴 가운데에 돌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평평하게 깔려 있고, 그 넓이가 수백 여 척이나

---

로 인해 양양은 산과 바다의 물산이 풍족하여 공물(貢物)을 진상할 때 봉하고 나머지는 백성(百姓)에게 돌려주었다. 한번은 같은 고향사람이 국유림을 살피는 황장경차관(黃腸敬差官)으로 양양에 왔는데 진봉(進封)하고 남은 나무로 관재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공은 이를 거절하자, 그 아들에게 주었으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고 역시 거절(拒絕)하였다. 문한관(文翰官)과 외직을 거쳐 1732년(영조8) 사헌부장령에 올라 김경, 김시발의 옥사를 변명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목민관(牧民官)으로 선정(善政)을 베풀었고, 청백이(淸白吏)에 들었다. 저서 『涵碧堂集』이 있다.

되어 수백 사람이 모여 앉을 수 있다. 비가 올 듯하여 오래 머무를 수 없어 곧장 산을 내려와 내원암(內院庵)에서 잠시 쉬었다가 본사(本寺)에 도착하였다. 땅의 형세가 비록 내려와도 경내는 좀 널찍하지만 앞뒤 산봉우리의 험준하고 매우 수려함이 모두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날, 낙산(洛山)으로 향하려다 비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 결국 머물러 묵으면서 아사(亞使)와 함께 나란히 누워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다음날 새벽, 견여(肩輿)로 서쪽 골짜기로 들어오는데 맑은 물과 흰 돌 사이로 잡초와 바위 꽃이 모두 볼만하였다. 와선대(臥仙臺)에 도착하니 개울 위에 평평하고 널따란 바위가 있는데 마치 자리를 깔아놓은 듯하였다. 그런데 물이 팔팔 내려가며 맑은 못에 이르는데 앉았다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미 속세를 떠난 생각을 갖게 한다. 조금 위로 백 여 걸음쯤 올라가면 비선대(飛仙臺)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계곡 위에 역시 돌이 있는데 아주 깨끗한 감색 활석(滑石)으로 와선(臥仙)보다 더 위험하였다. 관청 하인에게 태평소(太平簫)를 불게하기도 하고 소관(小管)을 불게 하여 번갈아 서로 소리를 내고, 한잔 술을 올리게 하며 대화를 하였다. 돌 위에서 오랫동안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먼저 한 절구 읊었다.

한가로이 누워있는 부사인데	閒臥黃堂是
누워있는 신선은 날아오를 것 같도다	臥仙如飛乘
역참(驛站)은 비선대요	驛是飛仙臺
명예가 신표와 짝하여 함께 노닐거니	名偶符同遊
나그네는 비선이로다	客子是飛仙

내가 와선이라 하니 아사가 대응하여 말하기를, “와선이 먼저 머무르고 또한 비선이 선경(仙境)에서 함께 노닐고 있으니 역시 한 신선입니다. 와선이 비선과 같지 않고 더 잘 나르는 것이 진짜 신선이니 누워 있는 것이 어찌 신선입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즉각 놀리며 답하기를, “위에 비선이 있고 아래에 와선이 있는데 누가 장차 날을 것인가? 누워 게으름 피우다가 신선이 되기를 경쟁하는데 빠른 자는 잘 날지만 한가한 자는 누워 있다. 세간에 한가로이 누워 있는 자가 곧 진짜 신선이라네.”라고 하였다. 아사가 또 놀리며 답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자진(子晉)이 날아 신선이 되었으나 극락세계에서는 누워서 신선이 되어 날거나 누워서 저절로 응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진위(眞僞)의 구별을 앞으로 꼭 여러 신선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웃으며, “조금도 떠들 일이 아니네. 신선의 신분도 아닌데 어찌 이 땅의 주인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곧 절로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함께 낙산에 이르렀다. 아사는 경치를 구경하다가 혼



자 머물고, 나는 이미 익히 본데다 또한 산에 돌아가 목을 도구를 챙겨야 했기 때문에  
오후에 관아로 돌아왔다.

『遊金剛山錄』

東國素稱多名山. 而獨以金剛爲第一. 中華人. 至有願生高麗一見金剛之語. 夫以外國之人而  
聞名. 傾想猶如此. 則況生於國內而不得一見. 豈非平生之所可恨者乎. 金剛在嶺東高淮之間.  
余居嶺南之安東地之相距也. 蓋七百餘里. 思一致身. 於其間而汨沒塵冗. 願莫之. 遂偶於丁  
未秋. 分竹於襄陽. 襄之距此山. 不過三宿而可至. 朱墨餘閒. 倍覺馳神. 而屬節序已晚. 楓葉  
衰盡. 積雪太早. 欲往而又不可得要. 以開春爲期. 及今年春.

高靈申君滌. 爲本道佐幕. 馳書告我約與同遊而探勝. 先自雪嶽始. 三月初九邀會于神興寺.  
神興在府境. 余卽蓐食赴之. 亞使行自華嶽寺已在天吼山上頭. 敘舊才數語. 山之諸景. 湊目  
前. 應接不暇矣. 山四面皆石環立如削宛然一屏障. 有石窟. 其深不測. 世傳. 祖和尚. 住錫之  
處. 仍名爲繼祖窟. 窟中結數架. 左右繚以奇巖斷石. 爲門僧修道者居之云. 爲吟一絕曰. 碧  
玉環爲障. 誰能削得成. 仙師迹已遠. 石窟但留名. 窟中有石. 天然平鋪. 廣袤數百餘尺. 上可  
坐百餘人會. 有雨意. 不可久留. 卽下山. 少憩于內院庵. 到本寺. 地勢雖下. 而境稍寬. 前後  
峯巒峭拔奇秀. 皆在目前.

是日欲向洛山. 而雨勢不止. 遂留宿. 與亞使聯枕穩話. 翼曉. 肩輿入西洞. 清泉白石間. 以雜  
卉巖花. 皆可賞. 至臥仙臺. 有石盤於溪上. 如布席. 然水瀰瀰下爲澄潭. 坐移時. 令人已有出  
塵之想稍上百許武. 有所謂飛仙臺者. 溪上亦有石. 潔淨紺滑. 殆勝於臥仙. 使官僮或吹太平  
簫或吹小管. 與相響. 命進一觴對話. 石上久之不能去. 先吟一絕曰. 閒臥黃堂是臥仙如飛乘.  
駟是飛仙臺. 名偶符同遊. 客子是飛仙. 我臥仙. 亞使應曰. 臥仙先着. 又飛仙仙境同遊. 亦一  
仙臥仙不若飛仙. 勝飛是真仙. 臥豈仙. 余卽戲答曰. 上有飛仙下臥仙. 誰將飛. 臥漫爭仙. 疾  
者善飛. 閒者臥. 世間閒臥卽真仙. 亞使又戲答曰. 曾聞. 子晉飛爲仙. 不說青蓮. 臥作仙飛.  
臥自應. 眞僞別. 須將此語問諸仙. 余笑曰. 不須嗷嗷. 非仙分. 安得爲此地主人.

『遊金剛山錄』



## 이조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관찰사

이조(李肇)

낙산사에 정모(旌旄)<sup>117</sup> 잠시 세워두고  
끝 없는 바다 저 웅장함이 눈에 들어오네

旌麾暫住梵王宮  
眼界滄茫時仕雄

117) 정모(旌旄): 관가의 깃발.

절은 거북이 등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듯  
 유객은 풍류 속에 노니는 듯 가물가물하구나  
 부상에 떠오르는 해 하늘 높이 솟았고  
 푸른 바다 파도소리는 만개 구멍에서 뿜어내는 바람이네  
 현산은 예전에도 이와 같았을까  
 아이들이 취산공<sup>118</sup>에게 손뼉친다오  
 『峴山誌』

寺在浮沉鰲岫山  
 人遊縹渺蜃樓中  
 扶桑瑞色三竿回  
 滄海波聲萬竅風  
 峴山昔時何似此  
 兒童拍手醉山公



## 김원행

○ 낙산사<sup>119</sup>에서 사람들과 일출을 바라보며 최간이<sup>120</sup>의 시에 차운하다

[洛山寺 與諸人觀日出 次崔簡易韻]

미호(溟湖)

김원행(金元行)

끝도 없는 푸른 물결 동으로 다 흐르는데  
 상서로운 붉은 구름 법당 먼저 물들이고  
 겹겹의 채색 호위 속 황금바퀴 솟구치더니  
 어느새 서광이 온 누리를 채우누나  
 『溟湖集』

極目滄溟盡向東  
 靄雲先射梵宮紅  
 重重綵衛金輪湧  
 已放祥光滿域中



## 박순

○ 증낙산사승(贈洛山寺僧)

사암(思庵)

박순(朴淳)<sup>121</sup>

118) 취산공: 위나라 죽림칠현의 한사람

119) 낙산사(洛山寺):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강현면 전진리 오봉산(五峯山)에 있는 절이다. 오봉산을 낙산이라고도 한다.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의상대사(義湘大師)가 기도를 하다가 관세음보살을 만나 보살이 가르쳐 준 곳에 지은 절이다. 낙산은 범어(梵語)인 보타락가(補陀落伽)의 준말로 관세음보살이 항상 머무르는 곳이라는 뜻이다.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이다.

120) 최간이(崔簡易): 최립(崔嵬, 1539~1612)으로, 본관은 통천(通川), 자는 입지(立之), 호는 간이(簡易)·동고(東皐)이다. 팔문장(八文章)의 한 사람으로, 차천로(車天輅)의 시(詩), 한호(韓濩)의 글씨와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 일컫는다. 주청 부사(奏請副使)로 두 차례 중국에 갔으며, 이때 지은 자주(咨奏)가 중국인의 칭찬을 받아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가문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끝내 요직에 등용되지는 못하였다. 저서에 『簡易集』이 있다.

121) 박순(朴淳) 1523(중종 18)~1589(선조 22).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충주.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菴). 아버지는 한성부 좌윤우(祐)이다. 1553년(명종 8) 정시문

낙산의 기이한 절경은 맑은 새벽 있어  
 산승이 말을 듣고 나가 보니  
 만리의 붉은 물결 푸른 물에 지고  
 백령이 치받아 새해에 든다.  
 『思庵集』

洛山奇勝在清晨  
 今聽山僧語動人  
 萬里赤波漫碧落  
 百靈扶出火輪新



## 이휘진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전승지(前承旨)

이휘진(李彙晉)<sup>122)</sup>

차진 하늘의 큰 물결은 오산 봉우리 정상에 있고  
 천상의 기운은 길게 어조(御藻)에 모이네  
 거룩한 덕은 천년을 견디며 눈물 흘려 사모하고  
 외로운 신하가 이 날 친히 임금 뵈었네  
 푸른 하늘 동해의 울연한 봉  
 옛날과 같은 사롱중인(紗籠中人)은 상서로움 질구나  
 꿈결에 난화(난화)는 대저 어느 곳에서 피고  
 서룡(西龍)과 청작(靑雀)은 날 어두워 만나기 어렵구나  
 『峴山誌』

黏天鯨浪頂鰲峰  
 元氣長合御藻濃  
 聖德千年堪涕慕  
 孤臣當日況親逢  
 諸天藍蔚海東峰  
 依舊紗籠瑞彩濃  
 夢裏欄花何處是  
 西飛靑雀香難逢



## 권필

○ 송 임천(宋林川) 남수(柵壽) 형의 유거(幽居)에 부쳐 제하다.

석주(石洲)

권필(權鞞)

과에 장원급제한 뒤 전적·수찬·사인 등을 지냈다. 1555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한 뒤 한산 군수·직제학·동부승지·이조참의 등을 거쳤다. 1565년 대사간으로 있을 때 대사헌 이탁(李鐸)과 함께 척신 윤원형을 탄핵하여 제거하는 데 앞장섰다. 그뒤 대제학·우의정·좌의정을 거쳐 1572년(선조 5)부터 약 15년간 영의정을 지냈다. 동서당쟁이 심할 때 이이·성혼 등을 편들어 상소하다가 도리어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았다. 그뒤 직에서 물러나 영평(永平) 백운산(白雲山)에 은거했다. 서경덕의 문인으로 천지(天地)의 생성을 이천과 이후로 구분한 태허설(太虛說)을 주장했다. 또한 정치의 도(道)는 충과 효라면서, 자신으로 보면 집안이 먼 저이고 나라는 뒤이지만 예(禮)로써 보면 나라가 존귀하고 집안은 낮다고 했다. 글씨는 송설체(松雪體)에 능했으며, 시는 당시풍(唐詩風)을 따랐다. 저서인 〈사암집〉은 동서분당(東西分黨)이 싸울 선조 당시의 주변 실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개성 화곡서원(花谷書院), 광주 월봉서원(月峰書院), 나주 월정서원(月井書院), 영평옥병서원(玉屏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22) 이휘진의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자는 태래(泰來)이다. 숙종34(1708) 식년시(式年試) 乙科3 합격하였다.

젖은 이슬은 안개와 섞여 묽고 짙은 빛  
 온갖 꽃들은 울긋불긋 봄바람에 피었구나  
 동군은 변화한 봄 경치 관장하지 않고  
 몽땅 선생이 구경하도록 넘겨주었어라  
 위는 춘회단(春回壇)이다.

浥露和煙淡復濃  
 百般紅紫共春風  
 東君不管繁華事  
 都付先生杖履中

초당 동쪽 가 옛 단 서쪽에  
 춘설이 허공 가득 내려 지척도 흐릿해라  
 생각건대 밤이 추워 사람은 잠 못 들고  
 두견새 울음 그치고 달도 나직이 지겠지  
 위는 이화정(梨花亭)이다.

草堂東畔古壇西  
 香雪漫空咫尺迷  
 想得夜寒人不寐  
 子規聲歇月輪低

듣건대 새집을 튼튼하게 지었는데  
 운림과 꽃 바위 경치 둘러 있다지  
 아노니 공은 평천기를 짓지 않고  
 진군의 높은 효성을 본받고자 하리라  
 위는 사효당(思孝堂)이다.

見說新堂結構牢  
 雲林花石與周遭  
 知公不作平泉記  
 欲學甄君孝義高

『石洲集』



## 임억령

○ 차낙산사판상운(次洛山寺板上韻)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sup>123)</sup>

큰 파도는 봄에 절을 뒤흔들고  
 소나무 위의 달이 승려들을 엿보네  
 읊조리는 글소리에 바람이 일어

海濤春動寺  
 松月夜窺僧  
 嘯引長風發

123) 임억령(1496~1568)의 자는 대수이고, 호는 석천이다. 1516(중종 11)년에 진사가 되었고, 1525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1545(명종 즉위)년 금산 군수 때에 을사사화가 일어나, 동생 임백령이 소윤으로 대윤의 선배들을 내몰자 자책을 느껴 벼슬을 내놓고 해남에 은거하였다. 1552년에 동부승지에 등용되어 병조 참지를 지내고,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1557년에 담양 부사가 되었다. 문집으로는 『석천집』이 있다.

이 시는 임억령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낙산사를 찾아 쓴 시로 누구의 작품보다 뛰어 나다. 관찰사로 부임하여 당쟁의 와중에서 낙산의 장엄함과 바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장부의 숨은 큰 뜻을 표현하였다. 봄이 되어 세상을 뒤 흔드는 파도소리 있는 밤에 소나무에 걸린 달이 스님을 엿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읊조리는 노랫소리는 정신을 더 맑게 한다.

낙산사는 전통적으로 배가 유명하다. 달빛 속의 배꽃은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 이러한 밤에 스님과 마주앉아 있는 자신의 큰 뜻을 알 수 없음을 표현하였고, 비가와도 변하지 않는 바다처럼 흔들림 없이 자신을 꿈을 펴보고 싶다는 강한 표현이다.

지금 세상인은 기운을 더하네

今人氣益增

고요한 밤 달빛은 배나무에 비꼴고  
빈 창에는 나그네 승려와 마주 앉네  
늬라서 장부의 큰 뜻을 알리요  
비는 바닷물을 더하지 못하는구나  
『石川集』

夜寂梨橫月  
窓虛客對僧  
誰知丈夫量  
滄海雨無增



### 홍계적

○ 낙산사(洛山寺)

수허재(守虛齋)

홍계적(洪啓迪)<sup>124)</sup>

의상대 앞은 가을 물결이 희고  
이화정 가에 새벽안개는 붉다  
수평성 물결 위에 아침 해 뜨니  
갈매기 노래하며 하늘을 난다오  
『守虛齋遺稿』

義湘臺前秋瀾白  
梨花亭上曉霞紅  
俄頃日破層濤上  
鷗鳥驚呼天海空



### 이중협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관찰사

이중협(李重協)<sup>125)</sup>

부용(芙蓉) 한 가지가 거울 속에 드러져 있고  
이곳에 와서 조화의 기이함 보네  
청조(靑鳥)는 날아 진불(觀世音보살)을 보고

芙蓉一朵鏡中垂  
到此方看造化奇  
靑鳥飛來眞佛見

124) 홍계적(1680, 숙종6~1722, 경종2)의 자는 혜백(惠伯), 호는 수허재(守虛齋)이다. 1708년 문과에 급제, 도승지·부제학 등을 지냈고 21년 대사헌으로 있을 때 세제(世弟)의 대리청정을 주장하다가 소론과 대립하여 신임사화(辛壬士禍)를 유발하였다. 흑산도로 귀양 갔다가 역모가담 죄로 서울에 압송되어 옥사하였다. 영조(英祖)가 즉위한 후 신원(伸冤)되어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저서에 『守虛齋遺稿』가 있다.

낙산사의 가을 어느 날 아침 일출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의상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파도의 포말과 적벽에 부딪혀 흰 포말의 물결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화정가 새벽안개가 일출로 인해 안개가 붉게 물들고,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올라오면 신선의 세계처럼 느껴지고 그 위로 갈매기들도 즐거워 날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125) 이중협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화중(和仲)이다. 증광시(增廣試)에 합격하여 참봉(參奉)과 공조참판을 하였다.

천자의 소식 노승은 아네  
 삼나무 소나무는 촘촘하여 보주(寶珠)를 간직한 탑 지키고  
 함지(咸池)에서 목욕한 해 난간에 임하였네  
 이화대로 향해 올라서니  
 부상(扶桑)의 그림자가 동쪽 끝 가지에 있네  
 『峴山誌』

翠華消息老僧知  
 杉松密護藏珠塔  
 欄檻平臨浴日池  
 爲向梨花埜上立  
 扶桑影接最東枝



### 양경우

○ 관음굴(觀音窟)

제호(霽湖)

양경우(梁慶遇)<sup>126)</sup>

부처님 전 향로에 자단 향 사르니  
 소나무에 이슬 떨어질 때 외로운 학이 우네  
 새벽달 가을 산은 고요한데  
 고승은 문 닫고 수정 구슬 한 없이 돌린다오  
 『江原道誌』

紫檀燒罷佛前爐  
 松露翻時獨鶴呼  
 門掩秋山五更月  
 老僧輪盡水晶珠



### 장영수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사류(四柳)

장영수(張永銖)<sup>127)</sup>

우뚝 솟은 넝쿨 엉킨 소나무에 돌문 하나

立立松蘿石一門

126) 양경우(1568, 선조 1~?)의 본관은 남원(南原)이고 자는 자점(子漸), 호는 제호(霽湖)·점역재(點易齋)·요정(寥汀)·태암(泰巖)이다. 아버지는 충장공 양대박(梁大樸)이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 양대박이 창의하자, 아우 양형우(梁亨遇)와 함께 아버지를 보필하였다. 양경우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고경명(高敬命)에게 갔는데, 고경명은 양경우에게 기무를 맡겼다.

1595년(선조 28)에는 격문을 돌려 군량 7천 석을 모으는 공을 세우니 조정에서 참봉에 제수하였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에는 종사관으로 있으면서 공을 세웠다. 그 해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죽산현감·연산현감을 거쳐 판관이 되었다.

1616(광해군 8)에는 중시(重試, 조선시대에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교리로 승진하였고 이어 봉상시첨정에 이르렀다. 그 뒤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와서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과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배웠다. 문집 『제호집(霽湖集)』은 『양대사마실기(梁大司馬實記)』와 함께 묶여 간행되었다. 조정에서 이조참의를 추증하였다. 정조 때에는 정려(旌閭)를 내렸는데 거기에는 ‘부자충의지문(父子忠義之門)’이라 하였다.

127) 장영수의 호(號)는 사류(四柳)이다.

불쑥 솟아 편안히 앉아있는 달마존자  
 낙산사의 신이 아끼고 보호하는 천년 땅  
 끝없는 바다 무량하여 아득히 넘치는 구나  
 탑 근처의 새는 허물어진 기와 구멍 엿보는데  
 골짜기 아래층은 석양 받으며 물동이 기울이네  
 봉래산은 바람 부는 어느 산에 있는가  
 다섯 잔 향기로운 차에 양 겨드랑이 번쩍이네  
 『江原道誌』

突然安坐達摩尊  
 洛神慳護千年地  
 恒海無量萬里痕  
 塔近鳥窺頽片穴  
 澗低僧倒夕陽盆  
 蓬萊山在風何處  
 五椀香茶兩腋掀



## 채팽윤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희암(希菴)

채팽윤(蔡彭胤)<sup>128</sup>

푸른 바다 한쪽에 층진 봉우리 꽃혔는데  
 소나무, 계수나무, 우거져 자줏빛 녹색 이네  
 난간을 바라보니 규벽 움직이는데  
 누전의 상방에서 또 만나 뵈네  
 『希菴集』

滄溟一面插層峰  
 松桂陰陰紫翠濃  
 試看欄頭奎壁動  
 上房樓殿亦遭逢



## 이경석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sup>129</sup>

128) 채팽윤(1669, 현종10~1731, 영조7)의 본관은 평강(平康)이고 자는 중기(仲耆), 호는 희암(希菴)-은와(恩窩)이다. 1687년(숙종 13) 진사가 되고, 1689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검열을 지낸 뒤 그해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호당(湖堂)에 선임된 자들과 승정원에 나아가 시부를 지어 포상을 받았다. 그가 쫓겨나 노닐 때면 언제나 숙종이 보낸 내시가 뒤따라 다니며 그가 읊은 시를 몰래 베껴 바로 숙종에게 올리게 하리 만큼 시명(詩名)을 날렸다.

1691년 세자시강원의 벼슬을 거쳐 1694년 정언(正言)에 있으면서 홍문록에 올랐으나, 이이(李珥)-성혼(成渾)의 문묘출향(文廟黜享)을 주장한 이현령(李玄齡)의 상소에 참여했다 하여 삭제되었다.

1722년(경종2) 2월 양양부사로 도입하여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가 있다. 그 후 벼슬에서 물러나 제자들에게 학문을 강론하며 지내다가 1724년 영조의 즉위로 승지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도승지대사간을 거쳐 예문관제학에 임명되었다. 1730년(영조 6) 병조참판-동지의금부사-부제학을 역임하였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렸고, 특히 시문과 글씨에 뛰어났다. 저서로 『희암집』이 있다.

129) 이경석(1595, 선조 28~1671, 현종12)의 본관은 진주(鎭州)이고 자는 상보(尙輔), 호는 백헌(白軒)-쌍계(雙溪)이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1617년(광해군 9) 증광별시에 합격했으나, 다음해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비상소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서 삭적(削籍)되었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뒤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사찰을 살펴보니 관동의 절승이니  
 쓸데없는 나라 근심만 깊었네  
 일찍이 그림 쫓아 그 안을 보았는데  
 지금이 바로 꿈속에서 노는 것 같네  
 창해에서는 먼저 뜨는 해 보고  
 건곤은 홀로 다락에 의지하였네  
 한 밤중에 나는 한 줄기 피릿소리  
 만 리에 떠 있는 조각구름 걷는 구나  
 『峴山誌』

寺壇關東勝  
 吾深杞國憂  
 曾從畫裡見  
 今似夢中遊  
 滄海先觀日  
 乾坤獨依樓  
 三更一聲笛  
 萬里片雲收



## 금원 김씨

○ 『호동서략기(湖東西洛記)』

금원 김씨(錦園金氏)<sup>130)</sup>

나는 관동(關東)의 봉래산(蓬萊山) 사람이다. 스스로 금원(錦園)이라 호를 하였는데, 어려서 잔병이 많아 부모가 불쌍하게 여겨 여자가 해야 할 가사나 바느질은 가르치지 않고 글공부를 시켰다. 글 공부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경사(經史)에 대략 통하게 되고

승문원부정자·검열·봉교·춘추관사관(春秋館史官) 등을 지냈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승문원주서로서 왕을 공주로 호종(扈從)했다. 같은 해 문과증시에 장원했고, 정안·교리 등을 거쳐 1626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다. 이듬해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체찰사 장만(張晩)의 종사관(從事官)으로 강원도 지방의 군사모집과 군량미조달에 힘썼다. 양주목사·승지를 거쳐 1632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으며, 이듬해 부제학으로 <삼전도비문 三田渡碑文>을 찬진(撰進)했다. 1638년 양관 대제학을 지내고 이조참판·이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1641년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이사(貳師)로 심양(瀋陽)에 갔으나 1년간 봉황성(鳳凰城)에 구금되었다.

귀국한 뒤 대사헌·이조판서·우의정·좌의정을 거쳐 1649년(효종 즉위) 영의정이 되었다. 1653년에 풀려나 영중추부사를 지냈으며, 1668년(현종 9)에는 궤장(几杖)을 받았다. 남인이라서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으로 부터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총애를 받아 유임되었다. 저서로 『백현집』이 있으며, 조정(趙綱)·조익(趙翼) 등과 함께 『長陵誌狀』을 편찬했다. 남원 방산서원(方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30) 금원김씨(1817, 순조 17~?)는 원주인으로 호는 금원(錦園)이고, 삼호정시단(三湖亭詩壇)의 동인이다. 원주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병을 자주 앓아 몸이 허약하므로 그의 부모가 글을 배우도록 했는데, 글을 뛰어나게 잘해서 경사(經史)에 능통했고, 고급의 문장을 섭렵하여 시문에 능했다. 1830년(순조 30) 3월 14세 때 남자로 변장하고 단신 금강산을 유람하여 견문을 넓혀 시문을 짓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돌아와서 사랑이며 규당(奎堂)학사인 김덕희의 소실이 되었다.

1843년(현종 9) 27세로 문명을 떨쳐서 세상에서 ‘구수 사마자장(司馬子長)’이라고 칭호하였다. 1845년에는 김덕희와 함께 서도와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1847년에 돌아와 서울 용산에 있는 김덕희의 별장인 삼호정에 살면서 같은 처지의 벗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규합하여 시문을 지으면서 시단을 형성하였다.

1850년에는 『湖東西洛記』를 탈고하고 1851년(철종 2)에 『죽서시집』 발문을 썼다. 일찍부터 충청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 일대, 즉 호동서략(湖東西洛) 등의 명승지를 주유 관람하고, 또 내·외금강산과 단양일대를 두루 편력하면서 시문을 써서 시 『湖洛鴻爪』 등이 수록된 시집 『호동서략기』를 남겼다.



고금의 문장을 본받아 배워 흥이 나면 때때로 시문(詩文)을 짓기에 이르렀다.

가만히 내 인생(人生)을 생각해 보았다. 금수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실로 다행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되 야만인이 사는 곳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나라와 같은 문명국에 태어난 것은 더욱 다행이다. 그러나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불행이요,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도 불행이다. 그러나 하늘은 나에게 산수(山水)를 즐기는 어진 성품과 눈과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어 다만 산수를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고절하게 보고 듣게 해 주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하늘이 나에게 총명한 재주를 주어 문명(文明)한 나라에서 이를 글로 쓸 수 있게 하였으니 이 또한 좋지 않은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규방(閨房) 깊숙이 들어앉아 여자의 길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세상에 이름을 날릴 것을 단념하고 분수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세상에는 침윤(詹尹)의 거북이 없으니 굴자(屈子)가 점친 것을 본받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 말에 이르기를, “책략은 짧으나 지략이 넉넉하거든 그 뜻대로 결행하라.”라고 하였으니 내 뜻은 이에 결정되었다.

아직 혼기에 미치지 아니 한 나이에 강산(江山)의 승경(勝景)을 두루 보고 증점(曾點)을 본받아 세속의 일 다 잊고 맑은 물에 떡 감고 무우(舞雩)에 올라가 글을 읊조리다 돌아오면 성인도 온당하다 할 것이다.

마음은 이미 집을 떠나 이름 있는 명승지를 찾아 맑게 유람할 것을 정하였다. 아버지에게 이 계획을 사뢰는 지 오래 되어 겨우 허락을 얻었다. 어렵게 받은 허락이라 마음이 후련하기가 마치 새장에 갇혀 있던 새가 새장을 나와 끝없는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는 기분이고, 좋은 말이 굴레와 안장을 벗은 채 천리를 달리는 기분이다.

간성(杆城)으로 길을 바꿔 청간정에 올랐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계곡의 시내라는 뜻의 ‘간(澗)’으로 이름을 정한 그 뜻을 알 수 없다. 정자 앞 바다 물속에 돌이 있는데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거북바위라 부른다. 그 거북바위 가운데에 자마석(自磨石)이라는 돌이 있는데 돌 위와 아래에 마치 이제 막 작게 쪼아 낸 것 같은 돌이 있어 큰 것은 살구 잎만 하고 작은 것은 동전만 하다. 자마석이란 위아래의 두 돌이 엇갈려 이들을 갈아낸 것이라고 일러진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두 돌의 사이가 거의 한자 이상이나 되니 어찌 서로 갈 수 있겠는가? 그렇더라도 만약 먹으로 여겨 글자를 쓴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 모두 갈아 없어질 것이라고 하니 그 이치를 깨닫기 어렵다. 정자 위에 앉아 월출을 보고자 했다. 닭이 울 때가 되자 홀연히 바다 구름이 영롱해지면서 반원의 달이 숨을 듯 드러날 듯 살포시 그 얼굴을 드러냈다. 찬란한 빛이 구름 끝에서 토해져 나오는데 하얀 연꽃 한 송이가 바다 위를 두루 비추는 듯하다가 갑자기 푸른 유리 만경이 아름다운 정자 맑은 대청 앞에 펼쳐진 듯했다. 마지막까지 모두 드러

나자 맑은 바람 서늘한데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져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리하여 차 끓이는 아이에게 차를 들이도록 하고 먹을 갈아 시 한수를 썼다.

하늘 푸르게 터져 저녁 구름가로	片天靑綻暮雲邊
천지개벽 그 순간 온갖 물상 한가지로 새롭고	萬象新同開闢年
할 일 없는 아이좋은 차 끓이니	解事奚童將煎茗
소나무 가지 사이 비친 초생달 받으며 맑은 샘물 긴네	漏松缺月汲清泉

창에 붉은 햇살이 비추고 추녀에서 새들이 어지럽게 우니 비로소 봄잠에서 깨어났다. 푸른 바다 굽어보니 운무 걷혀 그 끝 측량할 길 없어 더욱 천지의 거대함을 깨닫게 되어 스스로 부평초 같은 인생이 창해의 일속임을 한탄했다.

양(襄陽) 낙산사를 찾았다. 푸른 산이 사방으로 둘러는데 소나무 잎만 무성했다. 관음사는 바다 위에 있는데 한쪽은 언덕 귀퉁이에 의지해 있고 한쪽은 기둥을 바다 쪽에 세워 허공에 얹어 절을 지었다.

법당은 굉장한데 불상은 흰 비단으로 감싸 냐다. 마루 가운데 나무 판때기에서 바닷물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내려다보니 석굴 속에 울리는 소리는 마치 갠 하늘의 우레 소리가 산악을 뒤흔드는 것 같았다. 협창을 열고 멀리 바라보니 물빛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데 산과 내의 경물이 모두 그림 속에 있는 듯하다. 흰 갈매기들이 하늘을 선회하며 내려앉는 것도 역시 하나의 기이한 경관이었다. 바닷가의 여자들은 모두 나이 먹은 사람들로 하나같이 맨발인데 산부추를 뜯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었다.

상선들이 자주 푸른 물결 속에 출몰하고 있었다. 포구 주변의 시골집들은 대부분 고래의 뼈로 절구를 만들었으니 그 고래의 크기를 알 수 있었다. 물개가 많이 물 밖으로 나와 바위 위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모두 검은 색으로 모양이 같았다. 물개는 사람을 보면 쫓고 가까이 가면 곧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의경대(儀景臺)에 올라 일출을 보려고 했다. 닭이 몇 차례 울자 멀리 바다와 마주 친 하늘을 보았다. 운애만이 아득하여 잠시 걷히기를 기다렸으나 모든 것이 고요한 채 조금도 변하지 않으니 하늘을 가린 구름이 마귀노릇 하는 것 같아 한스러울 뿐이었다.

한(漢)나라 이십(李壽)은,

“날이 밝아지려 하면 맑은 바람이 멩게멩게 음화(陰伙)를 퍼낸다. 그래서 바다에서 해를 보려면 해는 대부분 구름 기운(雲氣)에 의해 가려지게 되니, 어찌 밤의 어두운 기가 아직 흩어지지 아니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구름이란 물의 기운이다. 바닷물의 기운이 태양에 의해 부풀려져 위로 올라가 구름이 되어 떠돌며 날다가 어스푸레 밝아지려 할 때 진탕하는 것이다.

조금 있자 홀연히 붉은 거울 하나가 바다 속으로부터 불쑥 솟아올랐다. 구름 끝이 아

래로 늘어져 있는 곳에서 점차 올라오며 빛이 회오리쳐 끓으며 백옥 같은 쟁반에서 진주를 높이 들어 올리는 듯한데 잔잔한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저편에서 붉은 비단 일산처럼 가볍게 흔들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흐린 구름 기운을 뚫고 빠르게 둥근 바위가 그대로 솟아오르니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 미친 듯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출 듯했다. 상서로운 햇무리가 아래로 해면을 비취 한바탕 붉은 구름을 부풀리다가 또 다시 평지로 쏟아지니 위아래가 온통 붉은 색으로 젖어 마침내 하늘과 땅을 한 덩이 불꽃으로 만드니 참으로 보기 드문 장관이었다. 한편의 절구를 얻었다.

해는 연자처럼 바다위의 하늘 구름 깨뜨리고  
 얇게 떠올라 자꾸자꾸 치솟네  
 물 걷고 땀나무 지고 가는 시골 골목길  
 뽕안 안개 속 붉은 노을 비쳐 가벼운 티끌 적시네

紅輪碾破海天雲  
 且得竿餘轉運頻  
 汲水擔薪材巷曲  
 控濛瑞靄溫輕塵

강릉으로 길을 바꿔 경포대에 올랐다. 단청 누각이 반공(半空)에 우뚝 솟았는데 호수의 잔잔함은 거울 같고, 이제 막 씻어 놓은 듯한 물밑의 맑은 모래는 셀 수 있을 것 같다. 푸른 산을 비단에 놓은 수 같고, 해안의 모래는 주옥같은데 늙은 소나무들 우뚝하고 푸른 버들가지 하늘하늘 늘어뜨리고 있는데, 피꼬리는 울고 해당화 붉은 색 토해 놓아 그 광활한 모양과 아름다운 경치는 말로 그려낼 수 없었다. 고을은 사람이 많이 살고 변화한 곳인데, 충효의 정려문이 굽이마다 별려서 있어 요임금 순임금의 덕치로 백성들이 모여들어 즐비하게 집을 짓고 사는 아름다운 봉지를 이곳에서 오히려 볼 수 있다.

몸 돌려 울진(蔚珍)으로 향해 망양대(望洋臺)에 올랐다. 대는 바다 위에 있는데 눈앞이 탁 트여 종일토록 눈 미치는 곳까지 바라보아도 하늘 끝 뵈지 않고 거친 파도가 물방울만 토해 놓으니 날리는 것이 흰 눈과 같아 은하수가 흘러져 떨어지는 것처럼 온 천지에 부슬부슬 뿌린다. 바다 속 섬은 파도에 뒤흔들리는데 밝은 태양 아래 우레 소리만 천지를 진동한다. 옛날 바람 속 파도의 험함을 양후(陽候)의 파도라 일컬음은 이것을 이름이 아니겠는가? 상선들이 미친 듯 몰아치는 파도와 노한 물결 속에서 출몰하는데 이를 볼 때마다 위태로운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 자신도 모르게 놀라 부르짖게 되었다.

평해(平海)를 향해 가서 월송정에 올랐다. 바람 고요하고 물결도 멈췄다. 날씨 청명하여 멀리 섬을 바라보니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푸른 색깔만 하늘에 맞닿아 있어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오직 바다의 무한한 기운만을 깨닫게 해 사람으로 하여금 감회를 일으키게 한다. 덧없는 세상 사람의 생, 가련할 뿐인 것을!

삼척(三陟)으로 가서 죽서루에 올랐다. 오십천(五十川) 흐르는 물이 멀리 태백산을 감싸 돌아 동해로 흘러들어 간다. 천지조화의 현묘함이 하나하나마다 몹시 기이하여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돌아가는 것마저 잊었다. 진기한 새들이 쌍쌍이 나는데 대부분 이름을 알 수 없었으나 아름다운 곳의 금수라 어찌 범상한 금수와 다르지 않겠는가?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두 가지의 아름다움을 함께 하기 어려우나 바로 이곳 수 백 리 안에서 천하의 두 기이함을 함께 본다. 산은 1만 2천 봉에, 바다는 삼일포, 총석정, 해금강에 우연히 천지의 정채롭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흘러서 빛나 인자(仁者)와 지자(知者)의 즐거움을 함께 하니 관동에 들어오지 않고는 천지의 온전한 공을 볼 방법이 없을 것이다.

팔경(八景)에 대해 중요한 곳을 대체적으로 다 살펴보았으나 그래도 미련이 있어 인제(麟蹄)에 이르러 설악산을 찾았다.

돌들 불쑥불쑥 솟아 하늘에 닿았고, 산봉우리들 우뚝 벌려 있는데 돌들 희기가 눈 같아 ‘설악’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돌산들이 천겹으로 아득히 솟아 험하다. 돌을 가르는 물은 만으로 굽어졌는데 조용하고 깊숙한 곳을 흐르는 그 물은 차고도 많다. 계곡 물을 건너 자꾸 산길 돌고 도니 일천 봉우리는 빼어남을 다투고, 우거진 교목들은 하늘을 가렸다. 늙은 소나무에서는 학이 울고, 사슴은 풀숲으로 내달는다. 신선이 산다는 요지(瑤池)요, 낭원(琅苑)이요, 봉래(蓬萊)요, 방장(方丈)이다.

계곡물을 끼고 좌우에는 붉은 철쭉이 뻗뻗하게 피어 흐르는 물에 질게 비쳐 있어 긴 무지개가 드리운 듯하니 옥천(玉泉)에 드리운 무지개도 이곳보다는 낫지 못할 것이다. 옥천은 연경의 옥천산(玉泉山) 아래에 있는데 샘이 구슬을 뿜어내는 듯하여 분설(噴雪)이라고도 한다. 물이 괴어 못이 되었는데 넓이는 3장(丈) 남짓하다. 연경 팔경의 하나로 옛날에는 옥천수홍(玉泉垂虹)이라 했는데 지금은 옥천박돌(玉泉趵突)이라 한다. 위에 비석이 있는데 ‘천하제일천(天下第一泉)’이라 쓰여 있다 하였다. 내가 비록 보지는 못했으나 그 드리워진 무지개의 모양도 이 기막힌 절경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산이 가파르게 깎여 하늘에 닿아 있어 조심조심 나아가 그 꼭대기에 오르니 대승폭포라고 이르는 것이 반공에 걸려 아득히 늘어졌는데 진주처럼 곱고 부서진 옥처럼 아름다운 물방울이 좌우에 뿜어져 한낮의 우레 소리와 함께 이슬비처럼 자욱이 내리고 있었다. 그 쏟아져 날리는 기세는 바람의 신이 연출하는 말할 수 없는 기이한 장관이니 중국 여산(廬山)의 안암(鴈岩)과 어느 것이 더 뛰어난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폭포는 삼천 척(三千尺)이 될 뿐만 아니라 마치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아 이백(李白)이, ‘날아 흘러 떨어지길 삼천 척[飛流直下三千尺] 마치 은하수가 구천하늘에서 떨어지는 듯[疑是銀河落九天]’이라고 읊은 구절은 바로 이 폭포의 신기함을 전하는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흰 비단이나 백설(白雪)도 오히려 평범한 말일 것이며, 옥룡(玉龍)이 은빛 무지개를 허리에 둘렀다고 하면 혹시 그것에 가까울는지 모르겠다.

우비와 모자를 쓴 김에 가까이 가서 폭포를 보려고 하니 날려 쏟아져 튀어 흩어지는 물방울이 한없이 모자 위에 날아왔다. 소리는 우레가 치는 것 같고 물방울은 모자를 뚫을 듯해 비록 물방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놀라고 두려워 진정할 수 없었다.

아침 안개가 허공에 가득하여 숲과 골짜기를 분간하기 어렵다. 산봉우리들이 구름 사이에 나타났다 가려졌다 하니 마치 푸른 옥을 깎아서 그림 병풍을 둘러놓은 듯하다. 조금 있자 검은 구름이 비로소 걷혀 달은 밝고 바람은 시원한데 산봉우리들과 바위의 온갖 기이한 모양들이 전부 내 눈앞에 나타났다. 한편의 시를 얻었다.

천봉 우뚝 서 하늘 찌르는데  
가벼운 안개 퍼지니 그림 같지가 않네  
이 곳 설악산 기막히게 좋은 곳이니  
대승폭포 곁에 초막 하나 지었으면

千峯突兀插天餘  
輕霧初絃畫不如  
好是雪岳奇絕處  
大乘瀑布勝庭廬

백담사(白潭寺)로 들어가 잠깐 쉬었다가 수렴동(水簾洞)을 찾았다. 수석(水石)이 역시 기이하고 장대하다. 설악에는 옛날에 김 삼연(金三淵)의 영시암(永矢庵)과 김 청한(金淸寒)의 오세암(五世菴)이 있었으나 그들의 자취가 남아 있지 않아 비록 볼 수 없지만 설악의 이름이 이 두 사람 때문에 더욱 알려져 금강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

산과 바다의 기이한 장관을 이미 두루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화려하고 변화한 곳을 보고자 마침내 서울로 향했다.

『湖東西洛記』

余關東蓬萊山人也。自號錦園。兒小善病。父母愛憐之。不事女工。教以文字。日有聞悟。未幾年。畧通經史。思効古今文章。有時乘興。題花詠月。竊念吾之生也。不爲禽獸而爲人幸也。不生於薙髮之域。而生於吾東文明之邦。幸也。不爲男而爲女。不幸也。不生於富貴。而生於寒微。不幸也。然而天既賦我以仁知之性。耳目之形。獨不可樂山水。而廣視聽乎。天既賦我以聰明之才。獨不可有爲於文明之邦耶。既爲女子。將深宮固門謹守經法。可乎。既處寒微隨遇安分湮沒無聞。可乎。世無詹尹之龜。難效屈子之卜。而其言曰。策有所短。智有所長。使之自行其意。則吾志決矣。迨此未笄之年。周覽江山之勝。欲效曾點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則聖人。亦當與之矣。心既定計。屢懇于親堂。而後黽勉許之。於是。胸次浩然。如鷺鳥出籠。有直上九霄之氣。良驥脫勒。有便馳千里之志。

轉向杆城。上清澗亭。濱海而名澗者。莫曉。其義也。亭前海水中。有石如伏龜。號龜巖。巖中有石。名自磨石。石上下有若新加細琢者。大如杏葉。小如小錢。謂兩石交磨所致。而兩石上下相間。幾爲尺餘。豈能相變耶。然若以墨書字。則過數日。輒磨蓋云。其理。誠不可曉矣。坐亭上。欲看月出到鷄鳴時。忽見海雲玲瓏乎輪冰玉。若隱若現。漸露眞面。光色晃朗吐出雲端。恍疑白蓮花一朵。遍照海面。忽若碧琉璃萬頃。玉宇澄廓端。俛畢露清風。泠泠意想。仙仙夜深。不能眠。命茶童進茶。磨墨題詩曰。

片天青綻暮雲邊  
萬象新同開闢年

鮮事奚童將煎茗

漏松缺月汲清泉

窓日射紅。簷鳥亂啼。始覺春眠。俯臨滄海。雲捲霧收。莫測其涯。益覺天地間。爲物之鉅。而自歎浮生之渺。一粟也。

訪襄陽洛山寺。青山四圍。松葉苑密。觀音寺臨於海上。一邊倚於岸角。一邊立柱海中。架虛築寺法堂。宏壯佛像。護以白紗。從軒中木板。下見海水。吞吐石窟中。晴雷撼岳。開夾窓望。見水光接天。山川景物。盡在畫中。白鷗紛紛飛。下亦一奇觀也。海邊女子。皆黃髮赤脚。以採萑爲業。商船往往出沒於滄波中。浦邊材家。多以鯨骨爲臼。其大。可知也。海狗多出。蹲坐巖上。皆黑色。形同凡狗。見人則吠。逼之則入于水中矣。上儀景臺。欲觀日出。鷄數唱遙望。海天雲靄。漠漠移時俟候。然恨陰翳之爲魔矣。漠李尋云。日將早清。風發群陰。伙觀日於海者。多爲雲氣所翳。豈曉夜羣隱之氣。猶有所未散而然耶。雲者。水之氣也。海水之氣。爲太陽所激。上升爲雲。遊揚震盪於桴嗽。未嗽之際耶。稍久忽見紅鏡一顆。自海中倏騰。雲端冉冉。漸升光色。盪漾有如白玉盤。上高擎真珠缸。碧波灣外。微颭紅錦傘也。已而快擺駁氛全湧。圓輪不覺失驚狂。喜踴躍欲舞瑞暈下射海面。漲成一陣。紅雲又復倒垂於平地。上下通紅。便成簇火。乾坤。誠一奇觀也。得口經詩曰。

紅輪碾破海天雲

上得竿餘轉運頻

汲水擔薪材蒼曲

沆濛瑞靄浥輕塵

向平海。上越松亭。風靜浪息。日氣清明。極望島歟。若有若無。海色接天。不見端倪。而只覺沆瀣之氣。而令人興感。浮世人生。只堪。可憐也哉。往三陟。上所西樓。五十川流水。遠環太白山。注于東海。天地造化之妙。在在甚奇也。探看忘返。奇鳥雙飛。多不知名。而勝區禽獸。蓋亦墨於凡常也。夫觀山觀海。難其兩美。而乃於此數百里內兼。觀天下之雙奇。以山而於萬二千峯。以海而於三日浦叢石亭海金剛。不意天地精英之氣。偏萃於此。以全仁知之樂。而不入關東經。以見天地之令功矣。

八景既盡領畧。猶有餘戀。到麟蹄。訪雪岳山。石勢連天。峯巒聳列。石白如雪。故名雪嶽也。石山千疊。嵯峨峯嶺。名川萬曲。幽深淒冷。屢渡溪澗。行迴山路。千峯爭秀。喬蔭蔽天。鶴啖古松。鹿走懸藤。可謂瑤池琅苑蓬萊方丈也。緣溪左右。紅躑躅業業爛開。花叢相間。濃映流水。如垂長虹。玉泉垂虹。未必過此矣。玉泉在燕京玉泉山下。泉噴如珠。或名噴雪泉。潄爲池。廣過三丈。爲燕京八景之一。古稱玉泉。垂虹今改玉泉趵突。上有砒曰。天下第一泉。吾雖未見。若其垂虹之狀。則恐未有似此奇絕者。山勢。糾絕接天。寸寸而進上。其絕頂有曰。大乘瀑。掛于半空下垂。幾百千丈。真珠碎玉。左右噴落。白日雷霆而露濛濛。其氣勢風神之千奇萬壯。未知與廬山雁宕。孰爲伯仲。而此瀑不啻爲三千尺。疑是銀河落九天之句。正爲此瀑。傳神也試欲擬議。則素練白雪。猶屬尋常例語。玉龍腰銀蝶竦。庶或近之。着雨具帽機。始近視之。飛湍濺沫亂着帽上。聲如雹打。若將穿破。雖知爲水沫。而猶不覺魄驚神悸。不能定情。

之. 朝露滿空. 不辨林壑. 峯巒出沒雲間. 若削青玉. 而列畫屏俄見黑雲. 始收月明風清. 峯垂巖石之手奇. 萬詭盡輸. 吾眼底矣. 得一詩曰.

千峯突兀插天餘  
輕霧初收畫不如  
好是雪山高絕處  
大乘瀑布勝匡廬

入白潭寺. 少憇. 訪水簾洞. 水石亦奇壯也. 雪嶽舊有金三淵永矢庵. 及金清寒五世菴. 今其遺墟. 雖不可見. 而雪獄之名. 盖以二公. 益若與金剛并時矣. 山海之奇壯. 既爲歷覽. 更欲觀綺麗繁萃之場. 遂向京城.

『湖東西洛記』



### 유사규

○낙산사보벽간운(洛山寺步壁間韻)

상유(桑榆)

유사규(柳思規)<sup>131)</sup>

법당에 높이 걸린 등불은 밝고  
방석에 한가롭게 참선하는 스님이 앉았네  
하룻저녁 속되지 않는 이야기 도리어 무뢰하고  
천리 밖 어머니 생각만 더 하네

蓮榻高懸照佛燈  
蒲團閑坐入禪僧  
一宵清話還無賴  
千里思親恨轉增

비단 같은 물결에 등불 같은 달빛 속에  
선방에 고요히 노승과 마주 앉았네  
탑에 달린 풍경소리 맑게 들리고  
꿈속의 나그네 생각 깨달음 적네

波光如練月如燈  
靜坐禪房對老僧  
靈塔曉傳清鐸響  
夢中霸思覺未增

『桑榆集』

131) 유사규(1534, 중종29~1607, 선조40)의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자(字) 여헌(汝憲) 호(號) 상유자(桑榆子)이다. 1562년(명종1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홍문관정자가 된 뒤 정언·지평·평양서윤·해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1593년(선조 26)에 남양부사가 되었다. 때마침 흑심한 기근으로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하자 죽(粥)을 끓여 기민(饑民) 진휼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듬해 병조참지, 이어 첨지중추부사, 판결사 등을 역임했다. 이어서 봉상시정(奉常寺正)·병조참지 등을 거쳐 1604년에 첨지중추부사가 되고 곧 장례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에 올랐다.

이 시는 낙산사 법당에 등불 밝은데 스님은 한가로이 참선하는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무뢰 해 보이는데, 멀리 계신 부모님을 생각에 잠긴다.

비단처럼 맑고 부드러워 보이는 물결과 등불 같이 밝은 달빛 속에서 스님과 마주 앉았다. 이러한 산사에 풍경소리 맑게 들리는 경치 때문에 꿈 속 같은 느낌에 나그네 자신은 깨달음이 적다고 표현하여 고요하고 여유 있는 산사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 이정암

○ 낙산사(洛山寺)

사류재(四留齋)

이정암(李廷菴)<sup>132)</sup>

어찌다 꿈같이 낙산사에서 신선처럼 노니  
 하늘 끝에 은은히 저녁 종소리 들리네  
 늦가을 여기 온 것은 나는 한하네  
 달빛아래 배꽃을 볼 수 없기에

一夢仙遊豈化城  
 雲端隱隱暮鐘聲  
 我行恨值秋風晚  
 不見梨花夜月明

풍경소리 맑게 들리는 등불 아래  
 고요히 참선하는 스님  
 세상에 괴로움 어느 날 그칠 것인가  
 파돛소리 여음은 근심만 더하네

一聲清磬一龕燈  
 坐對跏趺人定僧  
 自笑勞生何日已  
 海濤聲裏旅愁增

132) (중종 36)~1600(선조 33).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중훈(仲薰), 호는 사류재(四留齋)·퇴우당(退憂堂)·월당(月塘). 아버지는 사직서령(社稷署令) 당(宕)이며, 동생은 이조참판 정형(廷馨)이다. 1561년(명종 16)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로 기용된 후 승정원주서·공조좌랑·예조좌랑·전라도도사·경기도도사 등 내외직을 두루 역임했다.

1571년 예조정랑을 거쳐 사헌부지평이 된 후 춘추관의 직책을 겸하여 <명종실록>을 편찬하는 데 참여했다. 1572년 연안부사, 1576년 장단부사 등을 역임한 후 1578년 양주목사로 나갔다. 이때 향교와 도봉서원(道峰書院)을 증수하는 등 많은 치적을 쌓았다. 그후 장령·사성·장악·원정 등을 거쳐 1587년 동래부사가 되었으며, 이어 대사간·승지·이조참의를 역임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개성유수로 있던 아우 정형과 함께 개성을 지키려 했으나 임진강의 방어선이 무너져 실패, 황해도로 들어가 의병을 일으켰다. 이때 왜장 구로다[黑田長政]가 이끄는 수천 명의 군사를 연안(延安)에서 대파하여 왜군의 북진을 저지하고 해서지방을 안전하게 확보했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로 의주에 있던 행재소(行在所)와 기호지방은 강화(江華)와 연안을 통하여 연결됨으로써 전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 공을 인정받아 경기도관찰사 겸 순찰사로 임명되었으며 1593년 병조참판·전주부윤·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1594년 당시 유성룡(柳成龍)·성혼(成渾) 등이 제기한 명나라 군사의 철병에 맞추어 일본과 화해하자는 주장에 동조했다가 주전파(主戰派)들로부터 크게 공격당했다. 1596년에는 충청도관찰사가 되어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했다. 그러나 죄수를 임의로 처벌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가 지중추부사로 재기용되고, 황해도관찰사 겸 도순찰사가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해서초토사(海西招討使)로서 해주를 수비했다. 난이 끝난 후 은퇴하여 풍덕(豐德)에 거처하다가 죽었다. 저서로는 <상례초 喪禮抄>·<독역고 讀易攷>·<왜변록 倭變錄>·<서정일록 西征日錄>·<사류재집> 등이 있다. 1604년 연안 수비의 공으로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월천부원군(月川府院君)으로 추봉되고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연안 현충사(顯忠祠)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낙산사는 예부터 배꽃이 아름답다. 특히, 달빛 아래 배꽃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꿈에 그리던 낙산사를 찾아 신선처럼 즐기는데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하늘가에서 들려오지만 달빛 아래 배꽃을 볼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두 번째 수에서는 풍경소리 맑게 들리는 등불아래 고요히 참선하는 스님의 모습을 보며 세상의 괴로움을 언제 다 할지 근심하는데 파돛소리는 더 근심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세 번째 수는 깨달음을 위해 절을 찾았지만 시름과 걱정을 버리지 못하는데 갈 길이 멀어 더 힘겹다. 이에 동창을 열자 삼신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시름 걱정 아직 끊이지 않고  
 갈 길은 멀어서 힘에 겹구나  
 동창을 활 짝 열고 두 눈을 들어 보니  
 보일 듯한 삼신산 아득히 바라보네  
 『四留齋集』

多病相如味解消  
 不堪鞍馬去經遙  
 東窓拓盡擡隻眼  
 隱約三山八望過



안축

○ 낙산 시운을 따라서(次洛山詩韻)

근재(謹齋)

안축(安軸)<sup>133)</sup>

부처님은 두루 통하는 경지에 계셔  
 바닷가 봉우리에 계셨다고 하네

太聖圓通境  
 曾聞海上峰

133) 안축(安軸)이 1330년(충숙왕 17년) 강릉도(江陵道) 존무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관동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읊은 노래이다. 전체 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변, 통천, 고성, 간성, 양양, 강릉, 삼척, 정선의 고을, 즉 관동팔경(關東八景)을 묘사한 경기체가(景幾體歌)로 정철(1536-1593)의 관동별곡보다 250년 앞서 지었다. 안축의 관동별곡은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서두에 관동지방의 뛰어난 경치를 이야기 하며 시작한다.

관동팔경의 구체적인 중심 제재를 보면 제1장에서 서사(序詞)로서 순찰경(巡察景), 제2장은 학성(鶴城), 제3장은 총석정(叢石亭), 제4장은 삼일포(三日浦), 제5장은 영랑호(永郎湖), 제6장은 낙산사(洛山寺), 제7장은 임영(臨瀛), 제8장은 정선(旌善)의 절경이다. 이는 금강산(金剛山)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우아한 풍치로 그 대상을 찬양하고 절승경개(絶勝景概)를 이룬 자연 속에 노니는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다.

선선이 노닐었던 양양의 자연을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자연과 풍부한 음식, 그리고 배 띄우고 노니는 풍류는 이 작품을 읽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낙산과 강선정, 상운정의 풍경과 그곳에서 거문고 타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안축(1287년 충렬왕13-1348년, 충목왕4)의 휘(諱)는 축이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당지(當之), 호는 근재(謹齋)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전주사록(全州司錄)·사헌규정(司憲糾正)을 지내고 1324년(충숙왕 11) 원(元)의 제과(制科)에도 급제해 개주판관(蓋州判官)으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고려에 돌아와 성균학정(成均學正)을 거쳐 충혜왕(忠惠王) 때 강원도 존무사(存撫使)로 파견되었다. 이때 충군애민(忠軍愛民)의 뜻이 담긴 문집 『關東瓦注』를 남겼다. 시를 통해 그 시가 칭찬하는 것과 꾸짖는 것을 살펴서 권면과 경계를 삼고자 함이었다.

1332년(충숙왕 복위1) 판전교(判典校)·지전법사(知典法事) 재직 시 파면 당했다가 전법판서(典法判書)로 복직되었으나 내시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었다. 충혜왕이 복위하자 다시 전법판서·감찰대부(監察大夫)에 등용되었으며, 1344년(충목왕 즉위)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를 지내고 판정지도감사(判整治都監事)가 되어 양전(量田) 행정에 참여했다. 민지(閔漬)가 지은 『編年綱目』을 이계현(李齊賢) 등과 다시 편찬했고 충렬왕·충선왕·충숙왕의 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경기체가인 「關東別曲」·「竹溪別曲」을 지었고, 문집은 『근재집』이 있다. 흥녕군(興寧君)에 봉해졌고, 순흥의 소수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관음보살의 상주처인 낙산사는 불교의 성지이고, 깨달음의 공간이다. 고승인 의상대사가 낙산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바닷가에 절을 건립하였고, 고려 공민왕과 신돈이 낙산사를 찾아 풍년의 고마움을 감사로 예배드렸다.

많은 스님과 지식인들이 낙산을 찾아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하고 싶었지만 속세의 번뇌와 욕망 때문에 친견하지 못했다. 관음보살을 친견하느냐 못하느냐 보다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불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귀결하고 있다.

은혜는 감로주와 같이 윤택하고  
 향은 임금께서 내리신 조서 있네  
 사람에게 따라 그 모습 늘 나타난다지만  
 얽히고 혼란한 눈으로 만나지 못해  
 부처님 진신이다 아니다 말하지 말게  
 다만 자비로운 모습에 절하면 되네  
 『謹齋集』

恩同甘露潤  
 香有紫泥封  
 隨類身常現  
 纏迷眼不逢  
 莫論眞與假  
 但自禮慈容

○ 관동별곡(關東別曲)

근재(謹齋)

안축(安軸)

바다는 겹겹, 산은 첩첩, 관동의 뛰어난 경치  
 푸른 휘장 붉은 장막에 둘러싸인 병마영주  
 옥대 띠고 일산 기울이며 검은 창 붉은 깃발 늘어진 모래사장으로

海千重 山萬壘 關東別境  
 碧油幢 紅蓮幕 兵馬營主

아. 순찰하는 광경이 그 어떠합니까  
 이 지방 백성들이 의를 기리는 풍속 따르네  
 아. 임금의 교화와 중흥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帶傾蓋 黑紅旗 鳴沙路  
 爲 巡察景 幾何如  
 朔方民物 慕義趨風  
 爲 王化中興 景幾何如

학성 동쪽의 원수대와 천도섬 국도섬  
 삼산 돌고 십주 지나, 금자라가 이고 있는 삼신산  
 안개 거두고 붉은 노을 사라져 바람 고요하고 물결 잔잔하니  
 아. 높이 올라 바라보는 창해의 모습 그 어떠합니까  
 계수나무 노로 아름다운 배 저으며 기녀들의 노랫소리  
 아. 경승지 둘러 보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鶴城東 元帥臺 穿島國島  
 轉三山 移十州 金鼇頂上  
 收紫霧卷紅嵐 風恬浪靜  
 爲 登望滄溟景 幾何如  
 桂棹蘭舟 紅粉歌吹  
 爲 歷訪 景幾何如

총석정 금란굴의 기암괴석  
 전도암, 사선봉, 푸른 이끼 낀 옛 비석  
 내 발로 바위를 돌아보니 뛰어난 그 형상, 이상한 모양  
 아. 세상 천하에 없는 것이로다  
 옥비녀 꽃고 구슬신발 신은 많은 나그네  
 아. 또 어느 날 다시 찾아올고

叢石亭 金窟 奇岩怪石  
 顛倒巖 四仙峯 蒼苔古碣  
 我也足 石巖回 殊形異狀  
 爲 四海天下 無豆舍叱多  
 玉簪珠履 三千徒客  
 爲 又來悉 何奴日是古

삼일포, 사선정, 전설이 깃든 좋은 경치  
 미륵당, 안상저, 서른여섯 봉우리  
 밤 깊고, 물결 잔잔 소나무 끝 조각달

三日浦 四仙亭 奇觀異迹  
 彌勒堂 安祥渚 三十六峯  
 夜深深 波松梢 片月

아. 그 고운 화랑들의 모습이 나 여기 있소 하네  
술량도들이 새겨 둔 붉은 여섯 글자  
아. 오랜 세월 오히려 분명하구나

爲 古溫貌 我隱伊西爲乎伊多  
述郎徒矣 六字丹書  
萬古千秋 尙分明

선유담, 영랑호, 신청동 안으로  
푸른 연잎 자라는 모래사장, 푸르게 빛나는 뗏부리, 십 리에 서린 안개

仙遊潭 永郎湖 神淸洞裏

은은한 향기, 짙푸른 나무 숲, 거울같은 맑은 호수,  
아. 배 띄워 노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순채국과 농어회, 은실처럼 가늘고 눈같이 희게 써네  
아. 양젓이 맛있다 한들 이보다 더하리오

綠荷洲 靑瑤 風烟十里  
香翠森森 琉璃水面  
爲 泛舟景 幾何如  
蓴羹鰯膾 銀絲雪縷  
爲 羊酪 豈勿參爲里古

설악산의 동쪽, 낙산의 서쪽의 양양 풍경  
강선정, 상운정,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네  
자주 빛 봉황 타고 붉은 난새 타고 내려오는 우아한 신선들  
아. 붉은 거문고, 다투어 타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풍류로운 술꾼들 습육의 지관같은 좋은 경치 속에서  
아. 사계절 놀아 보세

雪嶽東 洛山西 襄陽風景  
降仙亭 祥雲亭 南北相望  
騎紫鳳 駕紅鸞 佳麗神仙  
爲 爭弄朱絃景 幾何如  
高陽酒徒 習家池館  
爲 四節 遊伊沙伊多

삼한의 예의, 오랜 풍류 간직한 옛 고을 강릉에는  
경포대, 한송정에 달 밝고 바람 맑은데  
해당화 길, 연꽃 핀 못, 봄가을 좋은 시절  
아. 노닐며 구경하는 광경 어떠합니까  
등불 밝힌 누각에서 새벽 종소리 울린 후  
아. 해 뜨는 광경 어떠합니까

三韓禮義 千古風流 臨瀛古邑  
鏡浦臺 寒松亭 明月淸風  
海棠路 池春秋佳節  
爲 遊賞景 何如爲尼伊古  
燈明樓上 五更鍾後  
爲 日出 景幾何如

오십천, 죽서루, 서촌팔경  
취운루, 월송정, 십리의 푸른 숲  
옥저 불고 가야금 타며, 청아한 노래 부르고 우아한 춤추며  
아. 귀한 손님 맞이하고 보내는 광경 어떠합니까  
망사정에 위에서 창파만리 보노라면  
아. 갈매기도 반갑기도 하여라

五十川 竹西樓 西村八景  
翠雲樓 越松亭 十里靑松  
吹玉弄瑤琴 淸歌緩舞  
爲 迎送佳賓景 何如  
望亭上 滄波萬里  
爲 鷗伊鳥 藩甲豆斜羅

강은 십리, 절벽은 천 층, 거울같이 맑은 물을 에워쌓네  
풍암 수혈 지나 비룡산에 올라

江十里 壁千層 屏圍鏡澈  
倚風巖 臨水穴 飛龍頂上

좋은 술 기울이고 용빙봉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여름바람 씩며

傾綠蟻 聳氷峯 六月清風

아. 피서하는 광경 어떠합니까

爲 避暑景 幾何如

옛날 주씨 진씨가 더불어 무릉의 풍물 대대로 전하듯

朱陳家世 武陵風物

아. 자자손손 이어가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爲 傳子傳孫景 幾何如

『謹齋集』



### 심수경

○ 낙산사(洛山寺)

청천당(聽天堂)

심수경(沈守慶)<sup>134</sup>

오래된 절을 찾으니 등불 이백이 달려 있고

古寺來懸二百燈

잠시나마 한가한 맛 산승에 즐기네

暫時閑味適山僧

창밖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고

軒窓勝絕眞堪愛

벽에 걸린 시문들은 한결 돋보이네

滿壁留詩價倍增

『聽天堂集』



### 이춘원

○ 서낙산주지축(書洛山住持軸)

구원(九畹)

이춘원(李春元)<sup>135</sup>

134) 심수경(1516, 중종11~1599, 선조32)의 본관은 풍산(豊山)이고 자는 희안(希安), 호는 청천당(聽天堂)이다. 1546년(명종1)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하였다. 1552년 검상(檢詳)을 거쳐 직제학을 지냈다. 1590년(선조 23) 우의정에 오르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제찰사가 되어 의병을 모집하였으며, 이듬해 영중추부사가 되었다가 1598년 물러났다. 청백리오 문장과 서예에도 능했고, 저서로는 『청천당시집』·『청천당유한록』 등이 있다.

이 시는 오래된 낙산사에 등불이 이백 개 걸려 있다면 아마도 큰 법회가 있었던 것 같다. 이백 개의 등불이 달려 있는 오랜 된 사찰인데 오히려 승방은 한가롭고 고요하다. 이런 사찰에서 세상시름 잊고 잠시 동안이지만 스님처럼 한가롭다. 창밖의 낙산 절경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하다. 절에 걸려 있는 문인들의 시문이 더욱 풍치를 느끼게 한다.

135) 이춘원(1571, 선조4-1634, 인조12)의 본관은 함평(咸平)이고 자는 立之, 元吉(改字), 호는 구원(九畹)이다. 1571년 漢城 薰陶坊에서 태어나 이미 6세에 글을 지었고, 洪至誠에게 배우다가 朴淳이 영의정을 그만두고 永平에 은거할 때 찾아가 배웠다. 1591년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1596년(선조29) 文科庭試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98년 明나라 茅遊擊(茅國器)의 접반관으로 安東에 갔으며, 1602년 陳請官으로 중국을 다녀왔으며, 1603년 文學을 거쳐 병조정랑으로 옮겼으며 이어 御史를 제수 받고 湖西에 내려갔다. 1604년 成均館사예, 1605년 長興府使로 나아가 청백리로 선정되었다. 1609년 모친의 병환으로 사직하고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얼마 후 우승지를 제수 받았다. 1620년 천자의 탄신을 축하하는 사행으로 북경에 다녀왔다. 이듬해인

억 만 가지 번뇌는 다 사라지고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을 찾을 것만 같네  
 서풍이 싸늘하게 불어오는데  
 나 홀로 누대에 기대었구나  
 『九畹集』下篇

萬慮今方盡  
 三山直可求  
 西風吹古劍  
 獨倚寶陀樓



## 신익성

○ 『유금강소기(遊金剛小記)』

신익성(申翊聖)<sup>136)</sup>

고성(高城)의 모든 경내는 산, 바다, 호수, 정자는 물론이고 아주 평범한 바위라고 할 지라도 모두 뜻과 모양이 있다. 새 같은 것, 짐승 모양을 한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날 아갈 듯 하기도하고 달아날 듯 하기도하였다. 남강(南江)은 바다로 흘러들었고 칠성 바위들이 바닷가에 쪽 벌려져 있어 옥으로 된 죽순과 옥비녀인 듯하였다. 해산정(海山亭)이 내리누를 듯이 있으니 신선들이 살던 곳이라고 할 만 하다. 삼일호(三日湖) 근처에는 몽천사(夢泉寺)의 옛 터가 있는데 규모가 작은 절이기는 하지만 맑은 정취는 오나라의 북고와 우위를 겨룰 만하다. 태수가 거사(居士)에게 작은 모옥을 짓게 하고 그것을 경영하였다고 한다.

삼일호 서쪽 절벽 위에는 붉은 글씨가 있는데 비스듬히 기울어지고 움푹 패어 사람

1621년 詔使를 맞으러 安州로 나갔다가 안주의 百祥樓에서 중풍을 맞아 벼슬을 그만두었다. 1634년 7월 26일 사망하였다. 1

이 시는 깨달음을 준다는 낙산사를 찾아오니 수많은 번뇌가 다 사라지고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을 찾을 것 같다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속세의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이 이곳에서 모두 사라진다. 몸과 마음 모두 맑아져 신선의 세계 같다. 바람 부는데 홀로 누대에 올라 느낌 감회를 표현하였다.

136) 신익성(1588~1644)의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자는 군석(君奭), 호는 낙전당(樂全堂)·동회거사(東淮居士)이다. 정숙옹주(貞淑翁主)와 혼인하여 동양위(東陽尉)에 봉해졌고, 임진왜란 때에는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에 올랐으며 1606년(선조 39) 오위도총부부총관이 되었다.

광해군 때 폐모론이 일어나자 이를 반대하다가 방축(放逐)되었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후 재 등용되어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왕명으로 3궁(宮)을 호위(扈衛)하였으며,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세자를 모시고 전주에 피하였고,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인조를 호종하여 끝까지 성을 지켜 청군과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주화파(主和派) 대신들이 세자를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자고 하자 칼을 뽑아 그들을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호종의 공으로 재상과 같은 예우를 받고, 1638년에는 오위도총부도총관을 제수하였으나 사퇴하였다. 화의가 성립된 뒤 삼전도비사자관(三田渡碑寫字官)에 임명되었으나 이를 거부, 사퇴하였다. 1642년 명나라와 밀무역하다가 청나라에 잡혀갔던 선천부사 이계(李桂)가 조선이 명나라를 지지하고 청나라를 배척한다고 고하여, 이 일로써 최명길(崔鳴吉)·김상헌(金尙憲)·이경여(李敬輿) 등과 함께 심양(瀋陽)에 붙잡혀가 억류당하였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주선으로 풀려나와 귀국하여 시·서로써 세월을 보냈다. 문장·시·서에 뛰어났으며, 특히 김상용(金尙容)과 더불어 전서의 대가였다. 저서로는 『낙전당집』·『樂全堂歸田錄』·『靑白堂日記』 등이 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의 자취가 닿기 어려웠다. 새겨진 글자의 서법(書法)이 아주 고풍스러웠으니 홍춘정(洪春亭)이 안렴사가 되었을 때에 문장을 지어 검은 돌에 새겨서 바위를 깎아내고 새겨 넣었다고 한다. 그 위에는 매향비(埋香碑)가 있는데 글자들이 이미 떨어져 나가는 했지만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니 대개는 향을 묻은 사람들의 성명을 적어놓은 것이었다.

부용호(芙蓉湖)는 방백 정하숙(鄭下叔)이 사는 곳이다. 호수가 외금강 아래에 있어서 경치가 뛰어날 뿐 아니라 그 주위의 골짜기도 깊숙하고 조용하면서도 씨 뿌리고 모내기 할 만 한 땅이 있어 은자들의 은거지가 될 만하였고 가마를 빌릴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감호(鑑湖)는 사방 3, 4리이고 물이 맑아서 터럭까지도 환히 비추고 앞으로는 구선봉을 마주 대하여 금강산의 향로봉과 백담동 같은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다. 그 아래는 규모가 비슷비슷하여 왼쪽에는 양사언이 살던 옛 집이 있다. 촌락이 숲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듯하다. 오른쪽에는 키가 큰 소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바닷가를 가릴 정도였다. 그 소나무 너머에 사봉이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 있어 옥같이 보인다. 호숫가에 있는 정자는 토호였던 정유(鄭維)가 세운 것이라고 한다. 바닷가에 호수가 많지만 당연히 이 감호가 제일이다.

간성(杆城)으로 가는 길에서 바다 갈매기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물가 모래밭으로 내려앉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주 기이하였다. 이리저리 훑어보는 사이에 굽이진 해안으로 나오니 어가(漁家)들은 해안에 의지하여 있고 아녀자와 아이들이 섞여 앉아 있는 가운데 언덕같이 쌓아놓은 물건이 있는데 바로 잔물고기들이었다. 갈매기 떼가 와서 채가도 꺼리지 않았다.

동해의 거룻배는 통나무를 파내어 만드는데 너댓 명이 탈 수 있으니, 농어를 잡는 것으로 생업을 삼는다. 해가 뜨면 돛을 펼치고 나가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가 오후 서너 시쯤 하늘 밖 저쪽에 한 점이 나타났다가 잠깐 사이 물가에 닿으니 정말 가볍고 빠르기가 나는 듯하였다. 선대(仙臺)와 능파정(凌波亭)은 모두 해상에 있는 볼거리인데 표연한 모습이 세상을 버리고서 홀로 서 있는 듯한 의취가 있다.

영랑(永郎)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서에 쓰여 있다. 금강산에도 영랑정이 있고 고성에도 영랑호가 있으며 간성에도 영랑호가 있는데 영랑이라고 하는 이가 누구이고 또 언제 사람인지 모른다. 영동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선의 부류라고 한다. 고성의 호수는 그윽하고 간성의 호수는 더욱 맑고 시원스런 풍경을 갖고 있다. 소나무 숲과 암석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같으며 반나절만이라도 돌아다니면 영랑을 만날 것만 같다.

고성의 수석이 기이한 곳들은 다 쓸 수 없을 정도이고, 현종암(懸鐘巖)은 마치 엮어 놓은 종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이 별집 같이 텅 비어 십여 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 조화옹의 교묘한 솜씨를 알 수 있다.

선유담(仙遊潭)은 원래부터 신령스런 곳이다. 내가 피곤하여 소나무 뿌리에 기대어

갔는데 꿈에서 옛 옷과 관을 쓴 사람과 즐겁게 선(仙)과 불교의 일들에 대해 말하였다. 잠에서 깨어도 여전히 그 이야기가 기억나니, 기이하다.

열산호(烈山湖)는 바닷가에 있는데, 관동에서 제일 크다. 넘실대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타고 나갈 배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명사(鳴沙) 수백 리를 가마를 타고 가기도 하고 작은 누각 같은 데서 걸터앉아 있기도 하는 등 마음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였다. 처음 고성을 빠져나왔을 때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앉아서 쉬니 행차가 더뎠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경치가 뛰어나 모두 다 감상할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 매향포(埋香浦), 우두대(牛頭臺), 화진포(花津浦) 등 몇몇 곳은 경치가 더욱 기이하였다.

9월 13일

청간정(淸澗亭)에 이르렀다. 환한 달빛과 바다 파도가 서로 넘쳐흐르고 하늘에는 구름조차 없어 대낮같이 밝았다. 이에 내가 만경대에 올라 돌을 베고서 누웠더니 밤이 깊어지자 서늘한 이슬이 옷을 적시었고 맑은 기운이 뼈에까지 스며들었다. 노복에게 만경대 아래에서 피리를 불도록 하였는데 어룡이 모두 솟아 올라올 것만 같았다. 이 밤, 이 달을 천하가 공유하는 것이지만 나처럼 득의해서 바라보는 이도 없을 것이다.

청간정은 아주 바다 가까이에 있어 사나운 파도가 뜰까지 칠 때면 그 소리가 아주 웅장하였다. 잠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당나라 사람이 시에서 ‘조수(潮水) 소리는 처음 온 나그네를 근심스럽게 하는구나.’라 한 것이 사실이었다.

청간정 기둥에 비스듬히 쓰여진 글자 20개가 있는데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쓴 것으로 그 후 사람들이 새겨 넣었는데 그 세월을 헤아려보니 소재의 나이 23세 때 쓴 것이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모래를 밟았을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데 관동 수백 리에 걸쳐 그렇지 않은 곳이 없다. 해당화가 그 위에 줄지어 피면 마치 담요를 펼쳐놓은 듯, 비단 장막을 둘러쳐 놓은 듯하다. 가을이 깊어지면 금앵도 같은 열매를 맺는다.

바닷가의 길이 모두 명사이기는 하지만 드문드문 바윗길도 있는데 반드시 파도 가운데서 돌출하여 대를 이루니 하나도 평범한 것이 없다. 평지에는 반드시 푸른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푸른 일산 같이 수백 리에 뻗쳐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소나무 아래로 다닌다. 한여름에도 시원한 기운이 있다.

천후산(天吼山)은 양양(襄陽)에 있다. 골짜기와 산봉우리가 금강산과 나란히 일컬어질 만하다. 하늘을 향해 곧바로 솟아 있으면서 크지는 않지만 이름난 가람이 많은 정토(淨土)라서 암자를 짓고 사는 고승들이 많다고 한다.

내가 일출을 세 군데에서 보았었는데 그 중 해산정에 머문 것이 가장 길었으나 비가 자주 와서 세 차례만 보았을 뿐이다. 청간정, 낙산사(洛山寺)에서는 모두 맑게 개였었는데 낙산사에서 본 것은 더욱 대단하였다. 세상에서 낙산의 일출을 일컫는 것도 연유가 있다.

양양의 수령이 낙산사 이화정(梨花亭)에서 내게 술을 대접하였다. 술에 반쯤 취하자 의상대(義相臺)로 자리를 옮겼다. 몇 개의 점이 저쪽 하늘가에서 오는 것이 보였는데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고깃배가 도착한 것이라고 하였다. 잠시 후에 하얀 돛이 물가에 닿아 바다의 진미를 제공하여 실컷 술을 마셨다. 자리에 있던 어린 기생이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관동별곡(關東別曲)을 불렀는데 매우 맑고 아름다워 듣노라니 정신이 새로웠다.

상운역(祥雲驛)의 유객당(留客堂)이 자못 깨끗하였다. 뜰 거의 오죽은 울창하여 사랑할 만했다. 한 쪽은 바다로 이어졌는데 키 큰 소나무들이 수십 리에 뻗어 있으면서 흰 모래 위에 그늘을 드리웠으니 관동의 명소이다. 역관이 배 다섯 개를 가져왔는데 그 크기가 여러 되나 되는 바가지만 하였다.

강릉의 경계로 들어가니 지세가 매우 넓고 마을은 풍요로웠다. 관란정(觀瀾亭) 아래 푸른 소나무가 시냇가를 따라서 십리에 펼쳐져 있었다. 때는 깊은 가을로 해상의 가을 빛은 매우 더디게 비추었다. 아주 울긋불긋한 붉은 잎 들이 볼 만하였다. 정자에는 지어놓은 시들이 벽에 가득하였는데 모두 벼슬아치들의 시였다. 세월을 따져보니 5, 60년이나 되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도 있었다. 아! 세상의 유명한 벼슬아치들이 헛된 성명을 흠쳐 한때에 드날리지 않음이 없으나 죽고 나서 후에 이름이 일컬어 지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슬프도다.

우두대가에는 단정하게 단장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보니 강릉에 적을 두고 있는 기생 옥랑(玉娘)이었다. 젊었을 때 평강(平康)에서 같이 있다가 보지 못한 지 십여 년이 되었다. 옛날에는 머리 땀은 어린 기생이었는데 나이가 든 모습이었다. 그녀도 내 수염과 머리를 보고서 놀랐다.

강문교(江門橋)를 건너 호숫가 숲 사이에 은근히 보이는 누각을 바라보니, 붉게 칠해져 우뚝 솟아 올라온 것이었다. 말을 타고 가서 사립문을 두드려 보니 정자는 비었고 주인은 없었다. 뜰가에 있는 푸른 오동나무와 짙은 대나무는 사람의 뜻을 아는 듯 하였고 안팎의 호수와 바다가 기이함을 서로 뽐내는 듯하였다. 때마침 해가 기울어 석양이 호수에 물들었고 바다의 파도는 하늘 끝까지 맞닿아 고요한 듯하였다. 해상에서 제일가는 곳이었다.

『遊金剛小記』

水岾. 內外山界也. 外山僧徒持籃輿來. 替內山僧告辭. 仍乞詩. 無慮數十輩. 賦詩清事. 應副作一役事. 有爲而爲之. 便作苦. 自水岾醉過隱身菴. 菴中唯有一僧. 名曰普珠. 携之登隱身臺. 出半天臨大海. 而九井峯十二瀑布. 蜿蜿如鬪龍爭珠. 昨夜雨過. 落勢尤壯. 此內外山第一壯觀也. 域中諸宗師. 爲休靜立碑于金剛山. 治石高一丈有半. 月沙相國譯文. 乞余書之. 白蓮菴法堅長老年八十. 病臥蒲團. 與之言. 清峻豪爽. 極有快處. 恨不得從容耽討耳. 萬景臺. 卽外山之最高峯. 東臨滄海. 海天一色. 指點三山十洲. 飄然有乘雲之意. 荀中郎登北固



望海。謂秦漢之君。必褰裳濡足。若令荀公臨此地。當作如何觀也。榆帖。巨剎也。結構宏麗。山影樓跨大溪。尤爲勝絕。化龍潭亦奇絕。烏啄井爲古蹟。寺中藏光廟御押教書。元時制勅。山影樓跨大溪傑構。朱欄畫桷。映帶上下。秋色政佳。錦石纈彩。令篋奴度曲發行。壺以澆之。外山之水。大於山影樓。縈回數十里。諸峒溪澗合流於百川橋。境落昭曠。石勢奇詭。踏山者到此洗心。舊有橋亭宏麗。今已毀矣。盧倂爲榆寺所尊者。見於地志。怪誕不可信。而狗帖上有盧倂井。行人必唾之。麗朝宰相閔漬所著山水記。尤妄誕不可信也。狗帖之路。羊腸百盤。到盧倂夫人之祠。始得坦壤。行數十里。清川白石。頗覺夷曠。民居甚稀。蕭條之境。益復清幽。外山自柏顛諸菴臨海者。面勢極爽豁。鉢淵之水戲。動石之古蹟。稱勝絕。而新溪一面峯巒水石。處處殊異。楊蓬萊結屋其下。舊址猶存。新溪寺燬去。或云傍近驛奴苦其遊客馳騁涉險。火之。數年來。草木荒翳。山門谿逕。湮塞不可通。泛舟於三日浦。摩娑丹書之壁。觴于四叡亭。酒酣。太守李敬仁克甫歌之侑之。不覺歡暢。余亦以一絕書扇頭以酬之。就浴于湯泉。泉卽金剛山之外面。光廟朝沐浴行宮舊址尚在。浴已投養珍驛村舍甚陋。大雨一晝夜。溪水大漲。人跡不通。傍有僧雙乞。神歇。能談禪說因果。據胡床聽之忘倦。高城一境。無論山海湖亭。雖尋常巖石。皆有意態。如禽如獸。或飛或走。南江入海。七星石諸巖羅列海門。如玉筍瓊簪。海山亭壓之。真是叡區。三日湖邊有夢泉寺舊址。若結構小蘭若。其清絕可與吳中北固爭甲乙。太守令居士結茅茨。將經營云。丹書在三日湖之西絕壁上。欹仄陷凹。人跡難到。所書字法甚古。洪春亭爲按廉時。作文刻烏石。剔巖以納之。其上有埋香碑。字已剝落。猶有可讀處。蓋記埋香人姓名。芙蓉湖鄭方伯下叔所卜。湖水在金剛之外山下。不但景致奇勝。洞天幽邃。頗有種黍蒔稻之地。足爲隱者棲遯之所。恨不得稅駕焉。鑑湖方數里。清澈可鏡毫髮。前對九叡峯。宛是金剛之香爐百塔諸勝。其下傑構參差。左有楊蓬萊舊業。村落隱映林間如畫圖。右有長松。捍蔽海門。松外沙峯特立干霄。望之如玉。據湖而亭之者。土豪鄭泂云。海上固多湖。當以此爲第一。扞城路上見海鷗千群下汀。意甚異之。顧眄間。出曲渚。漁家依岸。婦幼雜坐。有物如丘阜。卽細魚也。鷗群攫之無忌。東海鰈子。剝木爲之。可容四五人。以釣巨口魚爲業。日出便張帆而出。瞬息不見。晡時一點從天外來。俄卽泊岸。可知其輕快飛。叡臺凌波亭。皆海上勝賞。飄飄有遺世獨立之意。永郎之名。紀之丹書。金剛山有永郎帖。高城有永郎湖。扞城又有永郎湖。所謂永郎者。不知何許人。亦不知年代。嶺東人傳之爲眞叡者流。高城湖幽絕。扞城湖尤清遠爽塏。松林巖石。殆非人境。遺遙半日。庶幾與永郎遇。高城之水石奇處。不可殫記。而懸鐘狀如覆鐘。而其中虛缺如蜂窩。可容十餘人。足見造化之巧。僊游潭自是靈境。余倦倚松根。夢與古衣冠人劇談叡釋事。覺來猶能記其語。異哉。烈山湖際海。而在關東最鉅。望之渺瀰。恨無舟楫以泛之。鳴沙數百里。或以軟輿。或跨小衛。隨意行止。初出高城。途中遇會心處。便坐憩。行爲遲遲。前路所經。愈往愈勝。不暇應接。埋香浦。牛頭臺。花津數處爲尤奇。

九月十三日。到清澗亭。月華與海濤相盪。天無纖翳如白晝。余迺登萬景臺。枕石而臥。夜久涼露沾衣。清氣襲骨。奚奴從臺下吹篋。魚龍皆聳。此夜此月。天下共之。亦無如我得意看。清澗亭最近海驚濤喧打庭際。聲甚壯。夢寐不成。唐人詩云潮聲偏懼初來客。實際也。清澗亭柱

間有斜行卅字. 卽盧蘇齋爲游客時書也. 後人刻之. 考其歲月. 蘇翁廿三歲時書也. 所謂鳴沙者. 踏之琅琅有聲. 關東數百里. 蓋無不然. 海棠花羅生其上. 如鋪氈如錦障. 秋深結子如金櫻子. 海上路皆鳴沙. 間有巖逕. 必突出波心爲臺. 無一等閑. 平地必有蒼松. 落落如翠蓋狀. 亘數里. 行人多從松下行. 盛夏亦有爽氣. 天吼山在襄陽. 其洞壑峯巒. 可與金剛竝稱. 特立盤礴不大耳. 名藍淨土. 多高僧棲結者云. 余觀日出凡三處. 留海山亭最久. 而多雨只得三次. 清澗亭. 洛山寺皆清霽. 而洛山寺所看尤偉. 世稱洛山觀日出者. 亦有由歟. 襄陽使君爲余觴于洛山寺之梨花亭. 酒半移席于義相臺. 見數點從天際來. 邑人言漁舟且至. 俄以白帆泊岸供海珍. 遂劇飲. 席次小妓詠松江相國關東曲. 頗清婉. 聽之神王. 祥雲驛留客堂頗淨灑. 庭畔烏竹. 蔥菁可愛. 一面際海. 長松數十里蔭映白沙. 關東名區也. 驛官供梨五枚. 其大如數升瓠. 入江陵界地勢頗寬闊. 村居豐腴. 觀瀾亭下. 蒼松沿溪十里. 時值深秋. 而海上秋色頗遲. 紅葉正纈可翫. 亭臺間題詩滿壁. 皆宦客作. 考其歲月. 或有五六十年者. 而已不識誰何. 噫. 世間名宦者. 無非竊虛聲. 馳驚一時. 身歿而名不稱如此. 悲哉. 牛頭臺邊靚粧人候之. 就視卽江陵籍妓玉娘也. 蓋少日平康舊伴. 不見而十餘年. 昔日丫鬢小奴. 已具衰相. 渠亦驚我鬚髮. 渡江門橋望見臨湖樓閣. 隱映林間. 丹腹聳空者. 遂馳往款扉. 亭空無主. 庭畔碧梧脩竹. 政可人意. 表裏瀟海. 爭相獻奇. 時斜景浸湖. 海濤接天杳杳. 海上第一區也.

『遊金剛小記』



## 남용익

○ 낙산사(洛山寺)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sup>137)</sup>

거울같이 맑은 물결이 없어 기상은 한가롭고

鏡水長波氣像閑

하조대는 저 멀리 아득하네

河臺極目渺茫間

중용과 활원을 다 갖추어

從容闊遠兼斯二

우주의 기관은 낙산이 으뜸일세

宇宙奇觀最洛山

『壺谷集』

137) 남용익(南龍翼)1628(인조 6)~1692(숙종 18).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운경(雲卿), 호는 호곡(壺谷). 아버지는 부사 득봉(得朋)이다. 1646년(인조 24) 진사가 되고, 1648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시강원설서·병조좌랑·홍문관부수찬 등을 지냈다. 1655년(효종 6)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와 사가독서(賜暇讀書)했다.

1656년 문과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좌참찬·예문관제학 등을 지냈다. 1683년(숙종 9) 예조판서, 1687년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지낸 뒤 이조판서가 되었다.

1689년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하자, 서인이 이를 반대하다가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긴 기사환국으로 명천에 유배당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로는 자신의 시문집인 <호곡집> 과 신라시대부터 조선 인조대까지의 명인 497인의 시를 모아 엮은 <기아 箕雅> 와 <부상록 扶桑錄> 이 있다. 글씨로는 <예판남선비 禮判南銑碑> · <도검제남은표 都檢制南閔表> 가 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 정추

○ 냉천(冷泉) 138)

원재(圓齋)

정추(鄭樞)

바닷가 산이 밝은 세상 되기 전부터  
 금년까지 몇 번이나 흥망을 보았네  
 가을빛이 온 들에 젖어 붉은 벼가 수북하고  
 해가 오봉산에 비쳐서 붉은 연기 오르네  
 덕녀(德女)의 옛터엔 잔디가 섬들을 덮었고  
 원효의 남긴 자리에는 나무가 하늘에 닿았네  
 누에 올라 상사(相思) 꿈을 맺고자 한다면  
 꿈속에도 응당 냉천을 잔질하리라

海岸山從赫世前  
 幾看興廢迄今年  
 秋涵一野亞紅稻  
 日照五峰生紫烟  
 德女故居莎覆砌  
 曉公遺跡樹連天  
 登樓擬結相思夢  
 夢裏還應酌冷泉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 江原道 襄陽都護府

○ 산에 의지한 누관은 병속의 세상일세[倚山樓觀壺中]

원재(圓齋)

정추(鄭樞)

산에 의지한 누관은 병 속의 세상이요  
 물을 이웃한 여염은 그림 속 안개 세상이네

倚山樓觀壺中地  
 俯水閭閻畫裏煙



## 채련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채련(蔡璉)

맑은 가을에 수레 타고 성 동쪽으로 나가  
 예배 보려고 절에 이르렀네  
 푸르른 그림자는 많은 산에 낀 안개에 스치고

清秋命駕出城東  
 爲禮金山到梵宮  
 翠華影拂千山霧

138) 냉천은 부 동쪽 15 리 오봉산 아래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관음보살이 여자로 변하여 벼를 베는데 원효대사가 냉천의 물을 마시면서 관음보살과 더불어 실없는 말로 농지거리를 하였다고 한다.

낙산사의 담론 중에 관음보살과 원효대사의 만남은 의미 있으면서도 흥미롭다. 냉천은 관음보살과 원효대사의 만남의 장소이고 깨달음의 공간이다. 오봉산의 예부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의 흥망을 지켜보았다. 관음보살이 화신이 벼를 베던 곳은 가을 들녘에 벼가 많고, 해가 오봉산을 비추자 붉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관음보살의 화신인 덕녀의 자리에는 잔디가 섬들을 덮었고, 원효가 남긴 관음송은 하늘에 닿아 있다. 누에 올라 사모의 꿈을 이루고 싶거든 꿈속에서라도 당연히 냉천에서 술이나 마시자는 심회를 노래하였다.

맑은 벽제소리 만학 골짜기 바람으로 전하네  
『東國輿地勝覽』

清蹕聲傳萬壑風



### 강희맹

○ 큰 들녘 동쪽 끝에 바다 해를 보고(大野東頭看海月)

강희맹(姜希孟)

큰 들녘 동쪽 끝에 바다 해를 보고  
긴 숲 일면에 강 하늘이 보이네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 江原道 襄陽都護府)

大海東頭看海日  
長林一面見江天



### 이우

○ 와유현(臥遊軒- 양양의 관아) 송재(松齋)

이우(李瑀)<sup>139)</sup>

영공(嶺空) 서쪽서 당기고 바다는 앞에서 당기는데  
누대에서 노래 부르고 피리 불며 노년을 보내네  
선달 거센 바람 오봉의 눈 탐하는데  
밥 짓는 새벽 온 마을 연기 가득하네  
높은 파도 북쪽에서 밀려와 지축을 흔들고  
장기(나쁜 기운) 품은 구름 동쪽에서 걷혀 달 하늘에 떴네  
낙산의 절은 임금이 다녀가신 곳  
온 골짜기 솔바람소리 샘물소리 낸다네  
『江原道誌』

嶺空於西海控前  
樓臺歌吹度長年  
臘深風奮五峯雪  
炊曉村橫百里烟  
鯨浪北來坤動軸  
瘴雲東捲月生處  
洛山紺宇宸遊處  
萬壑松濤殷石泉

139) 이우(1469, 예종1~1517, 중종12)의 본관은 진보(眞寶)이고 자는 명중(明仲), 호는 송재(松齋)이다. 조카가 이황(李滉)이다. 1498년(연산군 4)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권지부정자로 기용된 뒤 검열·대교·봉교를 지냈다. 1506년 동부승지로 있을 때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이에 가담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4등으로 청해군(靑海君)에 봉해졌다.

그 뒤 우부승지·진주목사·동지중추부사·호조참판·오위도총부부총관·형조참판·강원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1514년에 중종반정 당시 윤장(尹璋)·조계형(曹繼衡) 등과 함께 입직승지(入直承旨)로서 공을 세운 것처럼 가장했다는 김은(金銀)의 상소로 녹권(祿券)을 빼앗기고 삭직되었다. 이듬해 안동부사로 기용되었다. 시문에 뛰어나 강원도관찰사로 있을 때 관동지방을 유람하면서 지은 시가 『關東行錄』에 전한다. 예안 청계서원(淸溪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송재집』이 있다.



## 임숙영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소암(疎庵)

임숙영(任叔英)<sup>140)</sup>

이화정 가 바다에 뜬 구름 동쪽에 있어  
스스로 관세음보살의 오색 가운데 있네  
떠오르는 달은 빛을 비추고

梨花亭畔海雲東  
自在觀音五色中  
浮出玉輪光照耀

광한부<sup>141)</sup> 신선의 풍악은 하늘 높이 부는 성난 바람일세  
『疎庵集』

廣寒仙樂落天風



## 최상익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최상익(崔商翼)<sup>142)</sup>

내가 와서 우거진 부상의 가치를 잡고  
날아서 푸른 바다 지나니 세상이 어찌 알겠는가  
밝은 밤 학은 화표<sup>143)</sup>로 돌아가고  
저녁이면 스님은 종 칠 때 정하네  
오봉산이 가을이 깊어 피릿소리 자주 나고  
대해는 많은 시를 짓게 하네

我來年翳扶桑枝  
飛過滄溟世莫知  
華表鶴歸明月夜  
梵宮僧定暮鍾時  
五峰秋老三聲笛  
大海波驅百首詩

140) 임숙영(1576, 선조 9~1623, 인조1)의 본관은 풍천(豊川)이고 초명은 상(湘). 자는 무숙(茂淑), 호는 소암(疎庵)이다. 1601년(선조 34) 진사가 되고, 1611년(광해군 3) 별시문과의 대책(對策)에서 주어진 이외의 제목으로 척족의 횡포와 이이첨(李爾瞻)이 왕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존호를 올리려는 것을 심하게 비난하였다. 이를 시관 심희수(沈喜壽)가 적극 취하여 병과로 급제시켰는데 광해군이 대책문을 보고 크게 노하여 이름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몇 달간의 삼사의 간쟁과 이항복(李恒福) 등의 주장으로 무마, 다시 급제되었다. 그 후 승문원정자박사를 거쳐 주서가 되었다. 인조반정초에 복직되어 예문관검열과 홍문관정자박사부수찬 등을 거쳐 지평에 이르렀다. 저서로 『소암집』이 있다.

141) 광한부(廣寒府): 달의 궁전, 월궁전.

142) 최상익(1631, 인조9~1699, 숙종25)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성백(成伯)이다. 1657년(효종 8) 사마시를 거쳐 1660년(현종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60년(현종1) 문과에 급제하였고, 1671년 사간원헌납·매천군수로 나갔으나 정유악의 탄핵을 받아 체직되었다. 1682년(숙종8) 9월에 양양부사로 도임하였다. 1684년(숙종10)에 安邊 縣監(안변현감)으로 보직되었으나 취임하지 않다가 1699년 충청도관찰사가 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고 이 해에 작고하였다.

143) 화표: 화표는 중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에서 사용되는 기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좌(臺座, 받침대), 반룡주(蟠龍柱, 파리를 틀고 있는 용이 새겨져 있는 기둥), 승로반(承露盤)과 그 위에 있는 준수상(蹲獸像)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표는 일종의 건축 양식으로 손꼽히지만 중국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오래된 현산에서 일없이 술만 마시니  
 숨어 사는 신선은 다시 누구인가  
 『峴山誌』

千古峴山無事酒  
 謫仙風彩更呵誰



유득일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귀와(歸窩)

유득일(俞得一)<sup>144</sup>

행렬이 날듯이 큰 언덕 지나가니  
 종소리 이미 낙산사 서쪽에서 울리네  
 소나무 숲에 쌓인 돌길은 멀고  
 바람에 실린 파도는 수평선 너머 나지막하다  
 이름난 경치 지팡이 잡고 다니며 절경에 빠져보고  
 처마에 해떨어져 층계에 오르네  
 백사장 갈매기 또한 나그네 심정을 아는지  
 푸른 연기 가르며 구구 운다오  
 『歸窩集』

征袂翩然過大堤  
 鍾聲已動洛伽西  
 松園石逕竹邊遠  
 天入風濤盡處低  
 地勝移筇綠絕壑  
 簷虛納日上層梯  
 沙鷗亦鮮遊人意  
 飛割蒼烟故故啼



여필용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여필용(呂必容)<sup>145</sup>

금강산 일만 봉 다 둘러보고

領略金剛一萬峰

144) 유득일(1650, 호종1~1712, 숙종38)의 본관(本貫) 창원(昌原)이고 자(字) 영숙(寧叔), 호(號)는 귀와(歸窩)이다.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으로, 1675년(숙종1) 생원(生員)이 되고, 1677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1682년 지평(持平)이 되었다. 1686년에 부수찬(副修撰)으로 기용되고 정언(正言)·교리(校理)·검상(檢詳)·승지(承旨)를 역임하였고 1695년 대사간이 되었다. 이듬해 강원도 관찰사가 되고 전라도·함경도의 관찰사를 역임한 뒤에 대사성(大司成)·대사헌·이조 참판(吏曹參判)을 거쳐, 1704년(숙종30) 형조 판서에 이어 병조판서가 되었다. 1706년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 형조 판서가 되었다.

145) 여필용(1655 ~ ?) 자(字)는 휴경(休卿)이다. 1783년(숙종9)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가 되었고, 병조 좌랑(兵曹佐郎)·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집의(執義)를 거쳐,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병조참의(兵曹參議)·예조참의(禮曹參議)·공조참의(工曹參議)·호조참의(戶曹參議)·예조참판(禮曹參判)·병조참판(兵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강원도감사를 지냈다. 후에 승정원 승지(承政院承旨),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右尹(우윤), 예조(禮曹)·호조 참판(戶曹參判)·돈녕부지사(敦寧府知事) 등을 지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외직으로는 부안 현감(扶安縣監)·서산 군수(瑞山郡守)·홍주 목사(洪州牧使)·완주 목사(完州牧使)를 지냈다.

동쪽 큰 바다에는 저녁구름 짙었네  
 받들어야 할 문장과 글씨를 보니 감격스럽고  
 어찌 사신(詞臣)을 이 곳에서 만날 줄이야  
 『峴山誌』

東臨大海暮雲濃  
 雙擎翰墨堪垂涕  
 何況詞臣此地逢



### 홍봉조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간산(孟山)                      홍봉조(洪鳳祚)<sup>146)</sup>

청정한 정도 낙가봉에  
 영왕(寧王·당 현종의 형)의 보배로운 글씨의 먹이 짙구나  
 오색구름 가운데 상서로운 해가 떠오르니  
 황하가 하청(河淸)<sup>147)</sup>할 즈음에 하물며 다시 만나리  
 『峴山誌』

金沙淨界洛伽峰  
 尙有寧王寶墨濃  
 五色雲中昇瑞日  
 河淸勝際況重峰



### 김진상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퇴어자(退漁子)                      김진상(金鎭商)<sup>148)</sup>

하얗게 센 머리로 해상봉에서 서로 만나니  
 꾀꼬리 울고 제비가 지저귀는 소리에 녹음이 짙구나  
 어찌 옛 절의 사롱(紗籠)<sup>149)</sup>있는 것을 알고  
 다시 선조의 옛 동료와 더불어 만나리  
 『退漁子遺稿』

白首相逢海上峰  
 鶯啼鶯語綠陰濃  
 誰識古寺紗籠裏  
 更與先祖舊侶逢

146)

147) 하청(河淸): 황하의 물이 맑다는 뜻으로, 기대할 수 없는 사물.

148) 김진상(1684, 숙종10~1755, 영조31)의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자는 여익(汝翼), 호는 퇴어(退漁)이다. 1699년(숙종 25) 진사가 되고 1712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설사·지평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1720년 홍문록에 올라 수찬을 지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풀려나 이조정랑으로 등용되었다.

이어 수찬·필선·부교리 등을 역임하던 중 1729년(영조 5) 기유처분으로 실시된 탕평책에 반발하여 퇴거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환로에 진출하여 1735년 부제학, 1738년 대사성, 1740년 대사헌을 거쳐 1753년 좌참찬에까지 이르렀다. 글씨에 능하여 많은 비문을 썼다. 문집으로 『퇴어당유고』가 전한다.

149) 사롱(紗籠): 현판에 먼지가 앉지 못 하도록 덮어씌우는 천.



## 박태관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응재(凝齋)

박태관(朴泰觀)<sup>150)</sup>

높은 대에서 동쪽을 바라보니 첫 눈에 놀랐는데  
푸른 바닷물 아득히 퍼져 잔잔하구나  
어느 곳이 하늘이고 어느 곳이 땅인지  
해와 달은 늘 이곳에서 뜨고 지는구나

高臺東望眼初驚  
積水滄茫萬里平  
不識乾坤何處卷  
常看日月此中生

고요한 고깃배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데  
눈처럼 흩어지는 파도는 큰 고래싸움임을 알겠네  
천년토록 어찌 저 바닷물 더하고 덜어졌으리  
한없이 넓고 넓어 이름 짓기 어렵구나

漁船靜似浮孤島  
雪浪應知鬪巨鯨  
千古那曾有增損  
洋洋浩浩儘難名

『凝齋稿』



## 정식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명암(明庵)

정식(鄭弼)<sup>151)</sup>

석벽 오르면서 나귀 발굽 벗겨졌는데  
수많은 산봉우리와 시내도 건넌네  
날리는 꽃잎 봄바람이 한 바탕 지나고 나니  
돌아가려해도 낙엽에 길 묻혀 갈길 몰라 한다오

登登石壁脫驢蹄  
踰盡千岑或越溪  
花雨東風曾一過  
却因黃葉路依迷

서풍이 비 뿌려 앞산을 지나가니  
골짜기 나무 가을 빛 들어 비단 잎 아롱지네  
깃든 새 숲에 들어 바윗길 어둑하니

西風吹雨過前山  
洞樹秋光錦葉斑  
宿鳥投林岩路暝

150) 박태관(1678~1719)의 본관은 반남(潘南)이고 자는 士賓, 호는 응재(凝齋)이다. 부친의 상을 치른 후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연과 벗하였다. 만년에는 김창흡과 지기가 되어 설악산을 찾기도 하였다. 김창흡이 편집해 준 『응재고(凝齋稿)』가 있다.

151) 정식(1683, 숙종9~1746, 영조22)의 자(字)는 경보(敬甫), 호(號)는 명암(明庵)이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대형(大亨)의 손자이다. 『진양속지』 권2 「인물조」에 의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재주가 있고, 젊어서부터 독서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지조가 맑고 고상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아름다운 산수를 찾아 풍류를 즐겼다. 지평(持平)에 추증(追贈)되었다.



지팡이 짚고 스님 흰구름 밟고 돌아온다오

一筇僧踏白雲還

걸어서 성 동쪽 취원대 오르니  
들복숭아 산살구 온성에 활짝 폈네  
세상 어지러워 일 많은 때  
봄빛 보고 묻노라 오기는 오는지를  
『明庵集』

步上城東聚遠臺  
野桃山杏滿城開  
世間擾擾方多事  
爲問春光有底來



### 조재호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손재(損齋)

조재호(趙載浩)<sup>152)</sup>

송제마을은 바다 위에 뜬 구름 옆에 쑥 나오고  
굽어보니 창해는 매우 묘묘하네  
산줄기 하나는 설악을 따르고  
하늘 열고 땅을 갈라 금강에 견주었네  
문 앞에 가까운 어룡굴  
다락 밖에는 일월광을 태평스럽게 대하네  
발밑 찬 기운은 만리에 통하고  
배는 가벼워 봉새와 더불어 날고자 한다  
『損齋集』

松提突風海雲傍  
俯視滄溟極渺茫  
山出一支從雪嶽  
天開別地較金剛  
門前近接魚龍窟  
樓外平臨日月光  
脚下冷氣通萬里  
舟輕歎與大鵬翔



### 이송

○ 홍덕보 묘표(洪軒洪德保墓表)

이송(李淞)

홍덕보(洪德保)는 휘(諱)는 대용(大容)이요, 호는 담헌(湛軒)이니, 그 조선(祖先)은 남

152) 조재호(1702, 숙종28~1762, 영조38)의 본관은 풍양(豐壤)이고 자는 경대(景大), 호는 손재(損齋)이다. 동생이 진종(眞宗, 영조의 아들인 효장세자)의 비 효순왕후(孝純王后)이다. 1739년(영조 15)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의 추천으로 세자시강원에 등용되어 서연(書筵)에 참여했다. 1744년 홍산현감(鴻山縣監)으로 재직 중 춘당대문과에 급제했고, 승지로 특진한 뒤 지돈녕부사·경상도관찰사·이조판서·우빈객을 역임했다.

1754년 우의정이 되었고, 다음해 세자책봉 문제를 정리한 <천의소감 闡義昭鑑> 편찬의 도제조(都提調)를 겸했다. 1762년 장헌세자의 폐위문제가 대두되자, 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소를 올렸으나 오히려 역모 혐의가 씌워져 종성(鍾城)에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1775년 신원되었다. 저서로 『손재집』이 있다.

양인(南陽人)이다.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이었던 용조(龍祚)의 손자요 나주목사(羅州牧使)였던 역(櫟)의 아들이니(그 조와 부) 2대는 함께 재주로서 소문이 났다. 덕보는 또 미호선생(溪湖先生) 김원행(金元行)에게 사사(師事)하였으니, 그 동문 선비들은 모두 도의(道義)를 연마하고 성명(性命)을 담설하였다. 덕보의 제부형제(諸父兄弟)들은 박사업(博士業)과 과거 공부(科擧)를 하거나 또한 문사(文詞)로써 저명하였는데, 덕보만이 오직 옛 육예(六藝)의 학에 뜻을 두어 상수(象數)와 명물(名物), 그리고 음악의 정변(正變) 정풍(正風)과 변풍(變風)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여 묘하게 이치에 합하고 신기하게 해설을 하였다. 특히 천문의 전차(躔次)와 일월의 내왕에 대해서는 그 형상을 본떠서 기구(器具)를 만들고 시(時)를 점치고 절후를 측량함에는 추호도 어긋남이 없었다. 언젠가 계부(季父)인 참의공(叅議公) 역(櫟)을 따라 연경(燕京)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곳의 성지(城池)와 궁궐, 인물과 재화(財貨) 등을 골고루 관찰하였으며, 선비들을 만나서는 번거롭게 통역관을 내세우지 않고 그들과 언어를 통하였으며, 항주(杭州)의 학자인 엄성과는 서로 학덕(學德)을 절차탁마(切磋琢磨)하고 어려움을 질문하였으니, 중국의 선비들은 덕보의 재학(才學)을 높이 칭찬하여, 우리 나라 선비들을 만나면 반드시 담헌의 안부를 물었다. 내가 소시에는 덕보와 서로 알지 못했는데, 경인년(1770, 영조 46)에 풍악산(楓岳山)에서 만나 산과 바다를 주유(周遊)하면서 그와 침식 언담을 같이하며 서로 함께 지냈다. 돌이켜 보건대, 그는 본의 아니게 억지로 ‘예예’ 하는 일이 없고, 자기의 뜻을 보이되 거슬리는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는 유람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은 꼭 함께 다녔다.

갑오년(1774, 영조 50) 봄에 나와 함께 동으로 바다에 나갔다가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에 이른 일이 있었다. 바다와 하늘이 서로 맞붙고 저녁 달빛이 물에 흐르는데 덕보가 거문고를 끌어당겨 몇 곡조 타니, 홀연히 서울에서 관리가 내려와 절간의 은을 두드리면서 덕보를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에 제수한다는 글을 내어놓았다. 그리하여 덕보는 그 이튿날 먼저 돌아갔으니, 그 후 10년간 내외 관직을 역임하면서 나와 함께 전일과 같이 서로 종유(從遊)하지 못했다. 그러나 때로 혹 만나 교산(郊山)에 모여 유련(留連)하면서 즐겁게 지내기도 하였다. 언젠가 나에게 말하기를,

“서울 중앙의 자그마한 관직은 다만 공문서의 지시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마치 소나 양같은 것을 기르고 회계나 맞도록 하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옛날에 孔子도 이런 일을 하였지만) 이런 것이 비록 성인(聖人)이 하던 일이라고는 하지마는 하기에 어렵지 않고, 그리고 (외직으로) 오직 주(州)와 현(縣)을 맡는 것은 내 뜻을 행하여 볼 만한데 이것도 역시 상부의 관청과 지방의 토호들이 방해하고 막아서 뜻을 펴볼 수 없으니, 혼자 애쓰면서 조심히 열쇠나 잘 보관하고 법률이나 지킬 따름이다. 그리고 나의 성품은 각색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겉으로 위엄을 부려 몸가짐을 무겁게 하는 일은 잘 되지 아니하며, 오직 공평하고 청렴한 것으로 위엄을 낳게 하여 이치(弛置)해 버리는 일이 없으니, 이것이 나의 사적(仕績)이다.”하였다.

지난해 겨울에 내가 덕보와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또 산사(山寺)에 같이 가기를 약속

하였는데, 그 후 10일도 못 되어 덕보는 병 없이 졸지에 별세하였다. 아! 슬프다. 덕보가 일찍이 나와 더불어 담론한 것과 그가 간직했던 마음, 그리고 그 소행 등을 다 진술할 수는 없으나 그 학문이 오로지 평실(平實)을 숭상하고 과월(過越)하고 교격(矯激)한 것이 없으며, 세속 선비들이 이론만 숭상하고 실행 실용(實行實用)을 전연 방치함에 대해 일찍부터 민탄(憫歎)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리고 고금 인물들의 정사(正邪)·시비(是非)를 논함에 그 억양 취사(抑揚取捨)한 것은 전배(前輩)들의 정안(定案) 밖에 뛰어난 것들이 많았다. 그가 지닌 대심(大心)이야말로 공평하게 보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아량이었으니, 대도(大道)에 돌아가 뾰족하고 작고 좁고 사사로운 것을 버리는 것은 진실로 지금 세상에 있어서 행하기 어려운 일이며, 될 수만 있다면 온 세상에 이런 도(道)가 보급되었으면 한다. 덕보의 시조는 휘(諱)가 선행(先幸)이니 고려의 금오위 별장 동정(金吾衛別將同正)이요, 이조(李朝)에 들어와서는 부제학(副提學) 휘 형(炯)과 이조 판서(吏曹判書) 정효공(貞孝公) 휘 담(曇)과 판중추 남양군 충목공(判中樞南陽君忠穆公) 휘 진도(振道)가 가장 드러났는데, 부제학은 직언(直言) 때문에 혼란한 연산조(燕山朝)에서 화(禍)가 무덤[泉壤]에 미침을 만났고, 정효공(貞孝公)은 청백리에 기록되고 효(孝)로서 정려각(旌閭閣)이 세워졌으며, 충목공은 인조반정(仁祖反正)의 공신으로 책훈(策勳)되었다. 나주공(羅州公) 담현의 아버지의 부인은 청풍 김씨(淸風金氏) 군수(郡守) 방(枋)의 딸이니, 지금 나이 77세로 아직 살아 계신다. 덕보는 한산(韓山) 이홍중(李弘重)의 딸에게 장가들어 3년 1남을 낳았으니, 아들은 원(遠)이요, 조우철(趙宇喆)·민치겸(閔致謙)·유춘주(俞春柱)는 그 사위이다.

덕보는 영종 신해년에 낳았으니, 죽을 때 나이는 53세였다. 관직으로는 내직에 감역(監役)과 돈녕부 참봉(敦寧府參奉), 익위사 시직(翊衛司侍直),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예빈시 주부(禮賓寺主簿),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의빈부 도사(儀賓府都事) 그리고 간혹 수리 낭청(修理郎廳)에 차출되었으며, 외직으로 태인 현감(泰仁縣監)·영천 군수(榮川郡守)를 지냈다. 그 묘소는 서쪽 둔덕인 구미(龜尾) 벌에 있다. 아들 원(遠)이 묘 앞에 비석을 세우려 하기에 내가 이 글을 써서 주어 비석 뒷면에 새기게 한다. 덕보가 별세한 그 이듬해인 갑진년 10월 6일에 옛 벗인 서림(西林) 이송(李淞)이 적음.

인보(寅普)가 난곡(蘭谷) 이장(李丈) 댁에 가서 이월암 참봉집(李月巖參奉集)을 보니, 권말에 서림(西林) 이송(李淞)이 월암을 곡(哭)한 제문이 붙어 있다. 그 제문의 문사(文辭)가 심히 고상하였고 그 아래에는 대연(岱淵) 이면백(李勉伯 호)의 기록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참봉군(參奉君)이 본래는 서림을 알지 못했는데 나자회(羅子晦 이름은 열(烈))가 정릉(貞陵)의 영(令)이 되어 참봉군을 초청하매 참봉군이 그 직소(直所)에 이르렀는데 이때 서림도 마침 와서 같이 잤던 것이다. 그런데 그 후 다시 소식이 서로 끊겼고 참봉군은 세상을 떠나버렸다. 사람들 또한 서림이 참봉군을 곡한 제문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승지(承旨)인 강인(姜 표암(豹庵)의 아들이 일찍이 서림을 방문하여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참봉군에 대한 말이 나오니, 〈서림〉은 이 제문의 초를 내어 보았다. 강인이 빌어서 자기 집에 가져가려고 청하자, 서림이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그는 마침내 암송하여 돌아가서 기록하여 두었노라.”하였다.

이것을 보면 서림의 사람됨은 독특한 지조로서 세속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 자취를 숨김에 힘썼으며, 남에게 알려짐을 부끄러워했었다는 것을 알겠으니, 그는 문장만 고상할 뿐이 아니었던 것이다. 거년 겨울에 담헌서(湛軒書)를 발간할 것을 계획하고 담헌이 엮어놓은 애오려제영(愛吾廬題詠)을 다른 사람에게 입수하매 거기에 서림의 시 두 편이 있었으니, 마치 큰 구슬을 얻은 것처럼 놀랍고 기뻐다. 담헌의 후손 영선(榮善)을 보고 경과를 말하고 또,

“서림은 담헌의 지극한 벗인데 혹 집에 전해지는 다른 글이 없는가?”

하고 물었더니, 영선이 말하기를,

“서림이 지은 담헌의 묘표(墓表)가 있다.”하였다.

이 밖에 또 유람할 때 쓴 글이 없는가 하고 구해 보았더니, 김 상국(金相國 상국은 정승)이 모르겠다고 하였다. 서림의 글이 과연 이렇게도 귀한 것인가! 1개월 후에 영선이 이 묘표의 글을 가지고 왔기에 인보(寅普)는 읽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아! 이 글이야말로 바로 소위 고문(古文)의 전아(典雅)한 것을 훌륭히 다한 글이다.”

고 하였다. 연암(燕巖)이 지은 묘지명과 비교하면 연암은 탕일(宕逸)하며 기이(奇異)한 데가 보이지마는 서림은 순실(醇實)하고 깊고 아름다우며 그 꽃다운 향내가 멀리 풍긴다. 내가 감히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는 것을 속단하여 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글을 볼 때 담헌을 아는 면 같은 것이 서림이 더 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서림의 글은 곡절이 있을뿐더러 그 홀로 아는 데 이르러서는 연암과 어찌 그 우열을 비교할 뿐이겠는가! 서림은 자신이 이미 당세에 이름이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고, 또 세속에는 글을 아는 이가 드물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그 이름을 들 수 있는 이가 없었다. 이 묘표는 다행히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지만 그가 고심담사(苦心覃思)하여 유현하고 오묘한 것을 끌어내어 놓은 것이 또 이루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일 터인데, 이것들이 이미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만 것인가! 혹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버려져 있다가 바람에 날리고 서리에 젖어 찢기고 좀먹고 쥐가 물고 가서 굴러다니다가 없어지고 만 것인가! 서림은 세상에서 고매한 선비이니, 응당 사후의 영예(榮譽)에 대해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관심은 없었지만 그의 화려한 유문(遺文)은 다만 일인일가(一人一家)의 정화(精華)를 이루었을 뿐만이 아닌데, 가려져 드러나지 않고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슬픈 일이다! 지금 인보가 종합해 본 서림의 시문(詩文)은 비록 이것밖에 안 되지만 세상에 글을 아는 이가 있다면 응당 농암(農巖)이후 4-5명의 문장가에 서림이 그 사이에 들어감을 알 것이다. 그 〈글의〉 의법(義法)이 근엄(謹嚴)하고 운용이 급박하거나 번거로움이 없으며, 또 음절이 잘 어울리고 문장이 문채로워 그 뛰어남이 다른 이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는 청(淸)나라의 선비인 왕중(汪中)과 손이양(孫詒讓)에 의사(擬似)함이

있다. 서림의 두 시와 묘표는 이제 다 담헌서 뒤에 부록으로 붙이되 그가 월암(月巖)을 곡한 제문은 담헌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 제문에,

“서림(西林) 이송(李淞)이 배를 타고 임단(臨湍)을 지나면서 칠탄(七灘) 이공(李公)의 묘가 강 언덕 위에 있는 것을 듣고 삼가 글을 가지고 고하노니, ‘서경(西京 여기서서 서한(西漢)을 말함)에 성한 기운이 모여 두 사마(司馬 사마천(司馬遷)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났도다. 문장이 대대로 흥하여 자취를 답습하였도다. 좌해(左海 우리 나라)에 상서로운 기운이 엉겨 그대가 진정한 용(龍)이 되었도다. 성기(聲氣)의 상통할 이는 그 누구겠는가. 불려도 화합할 이 없으니 세풍(世風)이 삭막하도다.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난 것은 동문의 곁에서였도다. 청초한 모습은 이 진(晉)나라 선비에 허황된 말이 없었도다. 마음의 깨달음은 선종(禪宗) 같았고 행동의 규칙은 곧 문례(文禮)였도다. 붓과 종이를 의지하여 그 심오한 것을 끌어내매 빛나고 향기롭기 그지없고, 신선의 의상(衣裳)같이 아리따운 비단의 무늬로다. 거창하게 늘어놓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하물며 곱게 꾸밀까 보냐. 부자가 양(量)이 많음을 자랑하여 곳집에 천백 가지의 물건을 쌓아 두더라도 실용에 아무 소용이 없으면 그 쌓임은 썩은 냄새만 날 것이다. 이런 것은 보물을 사고 파는 파사(波斯 페르샤)의 모임에 자리를 같이 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손아귀에 들어갈 만한 작은 기이한 옥은 이것이 상석에 오를 것이로다. 내 상자 속에 감추어 때때로 자기만이 완송(玩誦)하였도다. 명당(明堂)에 추천하지 아니하였으니 뉘 이를 알아 적절히 쓰겠느냐. 추강(秋江)에 배를 띄우니, 적벽이 곁에 있도다. 듣건대 초숙(草宿)의 고분(孤墳)이 그대의 무덤이라 하네. 간밤에 달을 대해 눈물을 흘리면서 그대를 곡하는 글을 지었노라. 손을 씻고 읊노니 신령께서는 부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다오.”

라 하였으니, 대개 이 글은 소위 ‘높고 높아서 마치 가을 구름이 아득히 높이 떠서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 전근해 볼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격이라고 하겠다. 지금 담헌서를 발간함에 있어서 서림이 지은 담헌정려(湛軒亭廬)의 시와 묘표를 부록에 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서림의 인품과 문장의 대강에 대해 술급(述及)하여 이것을 여기에 붙이고 또 아울러 남을 곡한 제문을 수록하여 서림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규례를 넘는 실례라고 하겠다. 그러나 서림의 시문이 전해지는 것이 아주 적어서 사정이 부득이 하니 규례는 경우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더구나 이 담헌서에 서림의 유편(遺篇)이 그 인연을 뻗쳐서 여기에 전하게 되니, 이것은 두 선생이 평생 같이 놀던 즐거운 뜻을 생각함에 역시 그 혼백도 가상히 여겨 좋아할 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서림은 영웅대군(永膺大君) 염(琰)의 계출이요, 자(字)는 무백(茂伯)이다.”

라고 한다. 정인보(鄭寅普)는 삼가 기록한다.

杭州의 학자인 엄성과는 서로 학덕(學德)을 절차탁마(切磋琢磨)하고 어려움을 질문하였으니, 중국의 선비들은 덕보의 재학(才學)을 높이 칭찬하여, 우리 나라 선비들을 만나면 반드시 담헌의 안부를 물었다. 내가 소시에는 덕보와 서로 알지 못했는데, 경인년

(1770, 영조 46)에 풍악산(楓岳山)에서 만나 산과 바다를 주유(周遊)하면서 그와 침식 언담을 같이하며 서로 함께 지냈다. 돌이켜 보건대, 그는 본의 아니게 억지로 ‘예예’ 하는 일이 없고, 자기의 뜻을 보이되 거슬리는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는 유람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은 꼭 함께 다녔다. 갑오년(1774, 영조 50) 봄에 나와 함께 동으로 바다에 나갔다가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에 이른 일이 있었다. 바다와 하늘이 서로 맞붙고 저녁 달의 달빛이 물에 흐르는데 덕보가 거문고를 끌어당겨 몇 곡조 타니, 홀연히 서울에서 관리가 내려와 절간의 은을 두드리면서 덕보를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에 제수한다는 글을 내어놓았다. 그리하여 덕보는 그 이튿날 먼저 돌아갔으니, 그 후 10년간 내외 관직을 역임하면서 나와 함께 전일과 같이 서로 종유(從遊)하지 못했다. 그러나 때로 혹은 만나 교산(郊山)에 모여 유련(留連)하면서 즐겁게 지내기도 하였다. 언젠가 나에게 말하기를,

“서울 중앙의 자그마한 관직은 다만 공문서의 지시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마치 소나 양같은 것을 기르고 회계나 맞도록 하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옛날에 孔子도 이런 일을 하였지만) 이런 것이 비록 성인(聖人)이 하던 일이라고는 하지마는 하기에 어렵지 않고, 그리고 (외직으로) 오직 주(州)와 현(縣)을 맡는 것은 내 뜻을 행하여 볼 만한데 이것도 역시 상부의 관청과 지방의 토호들이 방해하고 막아서 뜻을 펴볼 수 없으니, 혼자 애쓰면서 조심히 열쇠나 잘 보관하고 법률이나 지킬 따름이다. 그리고 나의 성품은 각색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곁으로 위엄을 부려 몸가짐을 무겁게 하는 일은 잘 되지 아니하며, 오직 공평하고 청렴한 것으로 위엄을 낳게 하여 이치(弛置)해 버리는 일이 없으니, 이것이 나의 사적(仕績)이다.”하였다.

지난해 겨울에 내가 덕보와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또 산사(山寺)에 같이 가기를 약속하였는데, 그 후 10일도 못 되어 덕보는 병 없이 즐지에 별세하였다. 아! 슬프다. 덕보가 일찍이 나와 더불어 담론한 것과 그가 간직했던 마음, 그리고 그 소행 등을 다 진술할 수는 없으나 그 학문이 오로지 평실(平實)을 숭상하고 과월(過越)하고 교격(矯激)한 것이 없으며, 세속 선비들이 이론만 숭상하고 실행 실용(實行實用)을 전연 방치함에 대해 일찍부터 민탄(憫歎)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리고 고금 인물들의 정사(正邪)·시비(是非)를 논함에 그 억양 취사(抑揚取舍)한 것은 전배(前輩)들의 정안(定案) 밖에 뛰어난 것들이 많았다.

그가 지닌 대심(大心)이야말로 공평하게 보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아량이었으니, 대도(大道)에 돌아가 뾰족하고 작고 좁고 사사로운 것을 버리는 것은 진실로 지금 세상에 있어서 행하기 어려운 일이며, 될 수만 있다면 온 세상에 이런 도(道)가 보급되었으면 한다. 덕보의 시조는 휘(諱)가 선행(先幸)이니 고려의 금오위 별장동정(金吾衛別將同正)이요, 이조(李朝)에 들어와서는 부제학(副提學) 휘 형(炯)과 이조 판서(吏曹判書) 정효공(貞孝公) 휘 담(曇)과 판중추 남양군 충목공(判中樞南陽君忠穆公) 휘 진도(振道)가 가장 드러났는데, 부제학은 직언(直言) 때문에 혼란한 연산조(燕山朝)에서 화(禍)가 무덤

[泉壤]에 미침을 만났고, 정효공(貞孝公)은 청백리에 기록되고 효(孝)로서 정려각(旌閭閣)이 세워졌으며, 충목공은 인조반정(仁祖反正)의 공신으로 책훈(策勳)되었다. 나주공(羅州公 담헌의 아버지)의 부인은 청풍 김씨(淸風金氏) 군수(郡守) 방(枋)의 딸이니, 지금 나이 77세로 아직 살아 계신다. 덕보는 한산(韓山) 이홍중(李弘重)의 딸에게 장가들어 3년 1남을 낳았으니, 아들은 원(蓮)이요, 조우철(趙宇喆)·민치겸(閔致謙)·유춘주(俞春柱)는 그 사위이다.

덕보는 영종 신해년에 낳았으니, 죽을 때 나이는 53세였다. 관직으로는 내직에 감역(監役)과 돈녕부 참봉(敦寧府參奉), 익위사 시직(翊衛司侍直),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예빈시 주부(禮賓寺主簿),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의빈부 도사(儀賓府都事) 그리고 간혹 수리 낭청(修理郎廳)에 차출되었으며, 외직으로 태인 현감(泰仁縣監)·영천 군수(榮川郡守)를 지냈다. 그 묘소는 서쪽 둔덕인 구미(龜尾) 벌에 있다. 아들 원(蓮)이 묘 앞에 비석을 세우려 하기에 내가 이 글을 써서 주어 비석 뒷면에 새기게 한다. 덕보가 별세한 그 이듬해인 갑진년 10월 6일에 옛 벗인 서림(西林) 이송(李淞)이 적음.

인보(寅普)가 난곡(蘭谷) 이장(李丈) 댁에 가서 이월암 참봉집(李月巖參奉集)을 보니, 권말에 서림(西林) 이송(李淞)이 월암을 곡(哭)한 제문이 붙어 있다. 그 제문의 문사(文辭)가 심히 고상하였고 그 아래에는 대연(岱淵) 이면백(李勉伯 호)의 기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참봉군(參奉君)이 본래는 서림을 알지 못했는데 나자희(羅子晦 이름은 열(烈))가 정릉(貞陵)의 영(令)이 되어 참봉군을 초청하매 참봉군이 그 직소(直所)에 이르렀는데 이때 서림도 마침 와서 같이 잤던 것이다. 그런데 그 후 다시 소식이 서로 끊겼고 참봉군은 세상을 떠나버렸다. 사람들 또한 서림이 참봉군을 곡한 제문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승지(承旨)인 강인(姜 표암(豹庵)의 아들이 일찍이 서림을 방문하여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참봉군에 대한 말이 나오니, 〈서림〉은 이 제문의 초를 내어 보았다. 강인이 빌어서 자기 집에 가져가려고 청하자, 서림이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그는 마침내 암송하여 돌아가서 기록하여 두었노라.”

하였다. 이것을 보면 서림의 사람됨은 독특한 지조로서 세속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 자취를 숨김에 힘썼으며, 남에게 알려짐을 부끄러워했었다는 것을 알겠으니, 그는 문장만 고상할 뿐이 아니었던 것이다. 거년 겨울에 담헌서(湛軒書)를 발간할 것을 계획하고 담헌이 엮어놓은 애오려제영(愛吾廬題詠)을 다른 사람에게 입수하매 거기에 서림의 시 두 편이 있었으니, 마치 큰 구슬을 얻은 것처럼 놀랍고 기뻐다. 담헌의 후손 영선(榮善)을 보고 경과를 말하고 또,

“서림은 담헌의 지극한 벗인데 혹 집에 전해지는 다른 글이 없는가?”

하고 물었더니, 영선이 말하기를,

“서림이 지은 담헌의 묘표(墓表)가 있다.”

하였다. 이 밖에 또 유람할 때 쓴 글이 없는가 하고 구해 보았더니, 김 상국(金相國 상

국은 정승)이 모르겠다고 하였다. 서림의 글이 과연 이렇게도 귀한 것인가! 1개월 후에 영선이 이 묘표의 글을 가지고 왔기에 인보(寅普)는 읽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아! 이 글이야말로 바로 소위 고문(古文)의 전아(典雅)한 것을 훌륭히 다한 글이다.” 고 하였다. 연암(燕巖)이 지은 묘지명과 비교하면 연암은 탕일(宕逸)하며 기이(奇異)한 데가 보이지마는 서림은 순실(醇實)하고 깊고 아름다우며 그 꽃다운 향내가 멀리 풍긴다. 내가 감히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는 것을 속단하여 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글을 볼 때 답현을 아는 면 같은 것이 서림이 더 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서림의 글은 곡절이 있을뿐더러 그 홀로 아는 데 이르러서는 연암과 어찌 그 우열을 비교할 뿐이겠는가! 서림은 자신이 이미 당세에 이름이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고, 또 세속에는 글을 아는 이가 드물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그 이름을 들 수 있는 이가 없었다. 이 묘표는 다행히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지만 그가 고심답사(苦心覃思)하여 유현하고 오묘한 것을 끌어내어 놓은 것이 또 이루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일 터인데, 이것들이 이미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만 것인가! 혹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버려져 있다가 바람에 날리고 서리에 젖어 찢기고 좀먹고 쥐가 물고 가서 굴러다니다가 없어지고 만 것인가! 서림은 세상에서 고매한 선비이니, 응당 사후의 영예(榮譽)에 대해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관심은 없었지만 그의 화려한 유문(遺文)은 다만 일인일가(一人一家)의 정화(精華)를 이루었을 뿐만이 아닌데, 가려져 드러나지 않고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슬픈 일이다! 지금 인보가 종합해 본 서림의 시문(詩文)은 비록 이것밖에 안 되지만 세상에 글을 아는 이가 있다면 응당 농암(農巖)이후 4~5명의 문장가에 서림이 그 사이에 들어감을 알 것이다. 그 〈글의〉 의법(義法)이 근엄(謹嚴)하고 운용이 급박하거나 번거로움이 없으며, 또 음절이 잘 어울리고 문장이 문채로워 그 뛰어난이 다른 이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는 청(淸)나라의 선비인 왕중(汪中)과 손이양(孫詒讓)에 의사(擬似)함이 있다. 서림의 두 시와 묘표는 이제 다 답현서 뒤에 부록으로 붙이되 그가 월암(月巖)을 곡한 제문은 답현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 제문에, “서림(西林) 이송(李淞)이 배를 타고 임단(臨湍)을 지나면서 칠탄(七灘) 이공(李公)의 묘가 강 언덕 위에 있는 것을 듣고 삼가 글을 가지고 고하노니, ‘서경(西京) 여기서는 서한(西漢)을 말함)에 성한 기운이 모여 두 사마(司馬) 사마천(司馬遷)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났도다. 문장이 대대로 흥하여 자취를 답습하였도다. 좌해(左海) 우리 나라)에 상서로운 기운이 엉겨 그대가 진정한 용(龍)이 되었도다. 성기(聲氣)의 상통할 이는 그 누구겠는가. 불려도 화합할 이 없으니 세풍(世風)이 삭막하도다.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난 것은 동문의 곁에서였도다. 청초한 모습은 이 진(晉)나라 선비에 허황된 말이 없었도다. 마음의 깨달음은 선종(禪宗) 같았고 행동의 규칙은 곧 문례(文禮)였도다. 붓과 종이를 의지하여 그 심오한 것을 끌어내매 빛나고 향기롭기 그지없고, 신선의 의상(衣裳)같이 아리따운 비단의 무늬로다. 거창하게 늘어놓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하물며 곱게 꾸밀까 보냐. 부자가 양(量)이 많음을 자랑하여 곳집에 천백 가지의 물건을 쌓아 두더라도 실



용에 아무 소용이 없으면 그 쌓임은 썩은 냄새만 날 것이다. 이런 것은 보물을 사고 파는 파사(波斯 페르샤)의 모임에 자리를 같이 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손아귀에 들어갈 만한 작은 기이한 옥은 이것이 상석에 오를 것이로다. 내 상자 속에 감추어 때때로 자기만이 완송(玩誦)하였도다. 명당(明堂)에 추천하지 아니하였으니 뉘 이를 알아 적절히 쓰겠느냐. 추강(秋江)에 배를 띄우니, 적벽이 곁에 있도다. 듣건대 초숙(草宿)의 고분(孤墳)이 그대의 무덤이라 하네. 간밤에 달을 대해 눈물을 흘리면서 그대를 곡하는 글을 지었노라. 손을 씻고 읽노니 신령께서는 부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다오.”

라 하였으니, 대개 이 글은 소위 ‘높고 높아서 마치 가을 구름이 아득히 높이 떠서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 전근해 볼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격이라고 하겠다. 지금 담헌서를 발간함에 있어서 서림이 지은 담헌정려(湛軒亭廬)의 시와 묘표를 부록에 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서림의 인품과 문장의 대강에 대해 술급(述及)하여 이것을 여기에 붙이고 또 아울러 남을 곡한 제문을 수록하여 서림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규례를 넘는 실례라고 하겠다. 그러나 서림의 시문이 전해지는 것이 아주 적어서 사정이 부득이 하니 규례는 경우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더구나 이 담헌서에 서림의 유편(遺篇)이 그 인연을 뻗쳐서 여기에 전하게 되니, 이것은 두 선생이 평생 같이 놀던 즐거운 뜻을 생각함에 역시 그 혼백도 가상히 여겨 좋아할 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서림은 영응대군(永膺大君) 염(琰)의 계출이요, 자(字)는 무백(茂伯)이다.”

라고 한다. 정인보(鄭寅普)는 삼가 기록하다

#### 湛軒洪德保墓表[李湫]

洪德保. 諱大容. 號湛軒. 其先南陽人. 司諫院大司諫諱龍祚之孫. 羅州牧使諱櫟之子. 二世俱以才聞. 德保又師事溪湖先生金公元行. 同門士皆磨礪道義. 談說性命. 德保諸父兄弟. 治博士業. 亦有以文詞著名. 德保獨有志於古六藝之學. 象數名物. 音樂正變. 研窮覃思. 妙契神解. 天文躔次. 日月來往. 象形制器. 占時測候. 不爽毫釐. 嘗隨季父參議公穩. 入燕都. 備觀城池宮闕人物財貨. 其遇士民. 不煩象鞮. 與通言語. 與杭州學者嚴誠. 切劘質難. 中州士尚稱德保才學. 值我國土. 必問湛軒安否. 余少與德保不相識. 歲庚寅. 相遇楓岳中. 周遊山海間. 寢食言譚不相捨. 顧不强爲唯諾. 而觀其意無所忤. 自是凡有遊覽. 二人必偕. 甲午春. 與余東出海上. 至襄陽洛山寺. 海天相拍. 夕月流光. 德保援琴彈數調. 忽有京曹隸. 扣禪扉致除書. 以德保爲繕工監監役. 明日德保先歸. 十年間踐歷內外官. 不得與余相從遊如前日. 然時或邀會郊山. 留連歡暢. 嘗謂余曰. 京司小官. 只有公書期會. 如牛羊長會計當. 雖聖人事. 不難及. 惟州縣若可行己志. 而亦上下妨格. 無所措施. 所自勉. 謹管鑰守法律而已. 性不喜刻核. 又不能莊嚴取重. 惟公廉生威. 不至弛置. 是則余仕績也. 去歲冬. 余過德保一宿. 又留約山寺. 未十日. 德保無病猝逝. 嗚呼德保. 所嘗與余譚論. 及其所存所行. 不可盡述. 然其爲學全尚平實. 絕無過越矯激. 其於世儒崇長言議. 全遺實行實用. 未嘗不憫歎. 論古今人邪

正是非。抑揚取捨。多出前輩定案之外。其大心所存。公觀併受。同歸大道。以祛夫尖小狹私。斯固今世之所難行。而顧其願則亦普矣。德保始祖諱先幸。高麗金吾衛別將同正。入我朝。副提學諱洵。吏曹判書貞孝公諱曇。判中樞南陽君忠穆公諱振道。卽最顯。副學以直道。值燕山昏亂。禍及泉壤。貞孝錄清白。以孝旌閭。忠穆策仁祖靖社勳。羅州公之配清風金氏。郡守枋女。壽今七十七尚在堂。德保娶韓山李弘重女。生三女一子。子遠。趙宇喆閔致謙俞春柱。其婿也。德保生於英廟辛亥。死時壽五十三。所歷官。內則監役。敦寧府參奉。翊衛司侍直。通禮院引儀。禮賓寺主簿。司憲府監察。儀賓府都事。間差脩理郎廳。外爲泰仁縣監。榮川郡守。其葬在西原龜尾坪。遠方樹石墓前。余書此貽之。俾鐫其背。德保沒之明年甲辰十月六日。故友西林李淞。識。

#### 附 後記[鄭寅普]

寅普往於蘭谷李丈家。見李月巖參奉集。卷末附寫李西林淞。哭月巖文。其辭甚高。而下有岱淵識語云。參奉君。素不識西林。羅子晦烈之令貞陵。邀君至直所。西林亦來會共宿。後復落落。及君下世。人亦未聞西林有祭君文。姜承旨豹庵子嘗造西林。談次偶及君。因出示是草。姜請借至其家。西林不肯。姜遂暗誦。歸而錄之。視此則知西林爲人。孤介絕俗。務自晦而耻見知。不惟文之高也。去年冬。方謀刊湛軒書。而從人得湛軒所編愛吾廬題詠。則西林詩二篇在焉。驚喜如遇巨琛。見湛軒後孫榮善爲道之。且問西林湛軒至友。或有他文傳家者乎。榮善言湛軒墓表。有西林作。而更求。遊觀金相國爲之。不知西林之文。果若是其可貴歟。後踰月。榮善以此文至。寅普讀而歎曰。嗟乎此文。乃所謂古文之能盡雅者。方之燕巖所爲誌。燕巖以宕逸見奇。而西林醇實淵懿。芬芳自遠。吾雖不敢遽論其誰不及而誰過。然若以知湛軒。則意西林或加深焉。而西林之文。又足以曲折以赴其所獨知。則其於燕巖。豈但頡頏而已哉。西林既不屑當世名而流俗知文者鮮。至於今無人能舉其名。此表則幸不佚。而其苦心覃思引擲幽眇者。又不知爲幾何。則其已散亡無復存歟。或尙遺在人間。而輾轉於風霜蠹鼠。亦行將盡歟。西林高世之士。宜其不置忻戚於身後之名。然其菁英之遺。非第爲一人一家之華。而掩翳至此。唏矣。今寅普前後所見西林詩文。雖止於此。世有知者。當知燕巖以後四五名家。西林位置其間。至其義法之謹而運以不迫。不屑錫燁而章采迴倫。則又寡與爲比。擬諸清儒汪中孫詒讓似之。西林二詩及表。今皆附刊湛軒書之後。而其哭月巖文。於湛軒爲無與。然其文曰。西林李淞。舟過臨湍。聞七灘李公之墓。寄在岸上。謹操文以告曰。西京盛萃。司馬惟二。作者代興。方躅并軌。左海凝祥。子真一龍。聲氣之感。俾誰雲從。唱而無和。世風攸索。我始一覲。東門之側。清是晉士。而無誕詭。悟類禪宗。用則文禮。迺憑毫楮。迺抽厥蘊。天葩淨香。仙綃淡紋。不屑爲鉅。矧以爲妍。彼以其富。有廩百千。無匱于用。載列葦羶。波斯之會。未許躡席。奇璧在握。方是上客。藏我箱篋。時自玩誦。不薦明堂。誰云適用。秋江理艇。赤壁在傍。草宿孤墳。聞子攸藏。前宵對月。和淚成章。盥水一讀。神庶我聽。殆所謂標然如秋雲之迴。可望而不可即者夫。方且刊湛軒之書。而附以西林所爲湛軒亭廬之詠墓阡之表則固也。今乃述及於西林人品文章之概以附之。又且并錄其哭人之文。以圖傳西林。疑若失之踰例。然西林詩文傳者寥寥。事有不容於已。則例有時而變。抑此湛軒之書。而西林之遺篇。延緣而傳。念其生平游

處之歡. 意亦兩先生魂魄所嘉與也. 或曰. 西林系出永膺大君琰. 其字曰茂伯. 鄭寅善. 謹記.  
『湛軒書』



## 임순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이조좌랑 임순(任珣)<sup>153)</sup>

양양 동쪽에는 창해가 있고	峴岵之東滄海漫
청산은 단지 나무 사이에 둘러쌓았네	靑山繚繞祇樹間
사또 행차 깃발 푸른 소나무에 나부끼고	繡旗影落蒼松轉
뿔피리 소리는 푸른 물결 가운데서 도네	畫閣聲殷碧浪回
섬돌의 대나무와 뜰의 배나무는 옛날과 다름없이 좋고	砌竹庭梨依舊好
그윽한 전각의 기문들은 남아 전하네	幽欄曲檻記曾來
속세의 형역 <sup>154)</sup> 에 진실로 웃음 나고	風塵形役眞堪笑
끝내 양쪽 귀밑머리에 서리 내렸네	贏得繁霜兩髮皚

『峴山誌』



## 강헌규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수소재(守素齋) 강헌규(姜獻奎)<sup>155)</sup>

공들여 쌓은 탑 만장의 봉우리 만들어	功塔層成萬丈峰
지금까지 은혜 드러나 바다가 하늘에 짙구나	至今恩露海天濃
보잘 것 없는 신하 남몰래 만수무강 축원하니	微臣暗祝無疆錄
천년동안 태평하여 요순시절 만나시리	熙洽千年堯舜逢

『江原道誌』

153) 임순의 본관은 풍천(豊川)이고 자는 경진(景珍)이다. 영조(英祖) 18년(1742) 임술(壬戌) 정시(庭試)합격하였고, 관직은 현감(縣監), 승지(承旨)를 역임하였다.

154) 형역(形役): 마음이 육체의 노예가 되는 일.

155) 강헌규(1797, 정조21~1860, 철종11)의 본관은 진주(晋州)이고 자는 경인(景仁)·경수(景受), 호는 수소재(守素齋)·농려(農廬)·주일당(酒一堂)이다. 강필효(姜必孝)의 3남 중 1남으로 태어났으며, 1797년에 대사간 강필로(姜必魯)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26세 때 1822년(순조22)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 32위로 합격하였다. 저서는 『농려만록(農廬漫錄)』이 있는데, 서간문(書簡文), 제문(祭文), 행장(行狀) 등이 실려 있고, 필사본 3책으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 유휘문

○ 낙산사루(洛山寺樓)

호고와(好古窩)

유휘문(柳徽文)<sup>156)</sup>

첩첩 산길을 넘고 넘어  
 바닷가 구름 속의 높은 누에 올랐네  
 웃으며 장공을 활보하듯  
 사람이 사는 곳을 알 수가 없네  
 『好古窩集』

行行路遇萬重山  
 第一高樓雲海間  
 一笑長空飛步闊  
 不知何處是人寰



## 최계옹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동량(幢梁)

최계옹(崔啓翁)<sup>157)</sup>

부상에서 처음 해가 절을 비추니  
 붉은 비단 하늘에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 가득 찼네  
 십도삼산의 안개 밖  
 신선과 천제가 사는 궁궐에는 없는 가운데 있네  
 슛고래와 암고래가 거세게 물결쳐 천 층의 파도 일으키고  
 갈매기 백로를 만리풍으로 흔들여 날려 보내네  
 동해의 기이한 광경 이처럼 승경이 되고

扶桑初日射梵宮  
 紅錦漲天氣勢雄  
 十島三山烟霧外  
 銀台金窟有無中  
 鯨鯢噴薄千層浪  
 鷗鷺搖揚萬里風  
 東海奇觀此爲勝

156) 류휘문(1773, 영조49~1832, 순조32)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공회(公晦), 호는 호고와(好古窩)이다. 류장원(柳長源)에게 도학을 배웠고 영남의 학자들과 교유(交遊)하면서 일생을 학문을 닦고 고산서당(高山書堂)과 여강(廬江)·구계(龜溪)·황산(黃山)·고운(孤雲) 등 여러 서당에서 후진만을 양성하였고 벼슬에 뜻이 없었다. 1817년에는 중국을 여행하였고 기행문으로 서유록『西遊錄』을 썼다. 저서로는 『周易經典通編』, 『律呂新書』, 『滄浪問答』 등이 있다.

관찰사와 암해어사가 벼슬을 천거하였지만 끝내 관직에 나가지 않고 후진양성에만 힘썼다. 중국을 여행할 정도로 새로운 세계에 관심이 많았다. 영남에서 관동의 낙산사까지 여행하면서 깊고 깊은 산과 길을 넘고 또 넘어 낙산사에 도착하여 바닷가 구름 위에 높이 솟은 루에 올라 보니 말로만 듣던 신선세계 같다. 그곳에서 너털 웃음을 치며 장공을 거닐 듯 걸어보니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신선의 세계로 느끼면서 이 시를 썼다.

157) 최계옹의 본관은 삭녕(朔寧)이고 자는 내심(乃心), 호는 동량(幢梁)이다. 한성부 우윤 최행(崔荇)이 손자로, 1681년(숙종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설서(設書)를 지냈다. 1695년 지평으로 동지사의 서장관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고, 그 후 정언을 지냈다. 1704년 장령으로서 앞서 단종이 폐위될 때 이를 지지한 대신들의 관직 추탈을 주장하다가 파직되었다. 1706년 보덕으로 기용되고 집의·사간을 역임하였으며, 홍문관에 등용되었다가 1710년 과격한 상소를 하여 제주목사로 좌천되었다. 1714년(숙종40) 6월에 양양부사로 도임하였다.

고황(高皇)의 고하우열의 판정은 대개 공이라 말하네  
『峴山誌』

高皇題品盖云公



### 유송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관찰사

유송(俞崇)<sup>158)</sup>

명사십리 둔덕을 모두 밟아보니  
지는 해는 이미 현산 서쪽에 걸렸네  
어두우니 소나무 숲 멀리서 종소리 들리고  
설악의 가을 경치 바닷물 아래까지 이어졌네  
손에 이끌린 고승은 깊고 험한 골짜기를 찾으며  
지팡이에 의지한 게으른 나그네 위태롭게 사다리 밟네  
난간에 의지하여 홀연히 꿈에 드니 물가 섬에 다다르니  
학이 날아와 내 울음 앗아 가네  
『峴山誌』

踏盡明沙十里堤  
斜陽已掛峴山西  
鍾聲暝出松林迴  
嶽色秋連海水低  
手擎高僧尋絕壑  
筇扶倦客躡危梯  
憑欄忽夢臨阜島  
縞衣翩然掠我啼



### 유희경

○ 양양도중(襄陽途中)

촌은(村隱)

유희경(劉希慶)<sup>159)</sup>

유희경은 제복장(祭服匠)으로 호는 촌은(村隱)이다. 일찍이 이이첨(李爾瞻)과 사귀었는데

158) 유송의 본관은 창원(昌原)이고, 자는 원지(元之)이다. 1699년(숙종35)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정언, 지평 등을 역임했다.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승지가 되었으나, 신임사화로 강진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와 도승지가 되었다. 경기도관찰사 때 정미환국이 일어나 소론이 등용되자 이를 반대했다. 이듬해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충청도 소모사로 기용되고, 뒤에 공조 참판에 이르렀다. 시조 1수가 청구 영언에 전한다.

159) 유희경(1545-1636)의 본관은 강화(江華)이고, 자는 응길, 호는 촌은이다. 촌은의 부친은 품계로 종칠품인 동계공랑이었다는 것만 전할 뿐, 그의 자세한 가계는 알 수 없다.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이었던 남언경(南彦經)에게 문공가례를 배우게 되었다. 국상 때나 혹은 사대부가에서 상을 당하면 촌은을 부르곤 했으므로 당시 "양예수(楊禮壽)가 뒷문으로 나가면, 유희경(劉希慶)이 앞문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촌은은 이처럼 상례에 밝아 치상에 불러 다닌 외에도 곧은 절개로 칭송이 있었고, 임란 때는 의병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시문학에 능해 당시에 쟁쟁한 사대부들과 교류하였다. 촌은은 신분이 미천하여 벼슬에 나가지는 못했는데, 생전에 가의를 제수 받았다. 이것은 대질(80세 노인)로써 얻은 품계인데, 그전에 통정에 해당하는 품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광해군 때에 폐모를 상소하라는 이이첨의 청을 물리치고 은거하였다. 저서로 『촌은집』, 『상례초(喪禮抄)』가 있다. 이 시는 양양을 찾아 청초호와 해당화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낀 감회를 표현 하였다.

데, 뒤에 이이첨이 모후(母后)를 폐하자는 의론을 주장하자 이내 절교하였다. 그는 양양도중(襄陽途中)이라는 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산은 비 기운 머금고 물은 연기를 머금었는데  
 청초호 백로 졸고 있네  
 해당화 길을 따라 내려가니  
 꽃잎이 채찍에 걸려 떨어지네  
 『靑莊館全書』 卷之三十五 淸脾錄 卷之四

山含雨氣水含煙  
 靑草湖邊白鷺眠  
 路入海棠花下去  
 滿地香雪落揮鞭



## 신흙

○ 양양으로 부임하는 정시회를 보내면서[送鄭時晦赴襄陽] 3수

상촌(象村)

신흙(申欽)

숙자의 풍류로도 남은 것은 이름뿐이고  
 거꾸로 실렸던 산공도 그 자취 간 곳 없네  
 밤중만 봉래산에 일출 광경을 볼 수 있다면  
 내 몸에 필요한 물건 이 세상에 뭐가 있으리

風流叔子名空在  
 倒載山公跡已淪  
 半夜蓬萊看日出  
 世間何物是關身

기이(其二)

이화 산우 그 시는 석천의 시 아니던가  
 사람 놀라게 절묘한 시 뼈까지도 날 듯하지  
 호해의 백년 세월 내가 이미 늙었는지  
 하늘 위의 생학이 꿈결 속에 아롱거리네

梨花山雨石川詩  
 妙詩驚人骨欲飛  
 湖海百年吾已老  
 上清笙鶴夢依依

기삼(其三)

은미한 말 안 하여도 마음속으론 목계가 되고  
 간책은 있어 보았자 힘이 이미 부친다네  
 해 저문 소양강에 마음껏 즐기는 자연  
 배 가득히 연월이요 강물 줄기 차가워라  
 『象村集』

微言雖絕心還契  
 簡策空存力已闕  
 歲暮昭陽天放在  
 滿篷煙月一江寒



## 이이명

○ 차제낙산사(次題洛山寺)

소재(疎齋)

이이명(李頤命)<sup>160)</sup>

티끌 속의 정기 날리며 서쪽으로 와  
낙산사에 이틀 머물며 한만 새롭네  
바다의 안개는 돋는 해 가리고  
산의 꽃은 반이 지고 봄 동산 그윽하네  
『金剛山詩集』下篇

西來旌旗暗飛塵  
信宿琳宮恨轉新  
海霧苦遮暘谷日  
山花半謝祇園春



## 이민구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동주(東州)

이민구(李敏求)<sup>161)</sup>

거북이 등 위에 용의 기운 서린 산  
절 문의 단청은 웅장함이 새롭게 보이네  
오랫동안 신기루는 금방(金榜)<sup>162)</sup>에 붙고

鰲頂山回龍勢蟠  
寺門丹碧壯新觀  
長時蜃氣吹金榜

160) 이이명(1658, 효종9)~1722, 경종2)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지인(智仁)·양숙(養叔), 호는 소재(疎齋)이다. 조부는 영의정 경여(敬輿)이며, 아버지는 대사헌 민적(敏迪)이다. 1680년(숙종6) 별시문과에 급제, 홍문관정자에 기용된 후 박사·수찬·응교·헌납·이조좌랑 등을 역임했다. 1686년 문과 중시에 급제하여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승정원의 승지가 되었다. 대사간까지 승진했다. 1701년에 예조판서로 특임되었으며, 이후 한성부판윤·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1706년 우의정에 올랐으며, 1708년에는 좌의정에 올랐다. 소론의 격렬한 공격을 받아 관작을 삭탈당하고 남해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죽음을 당했다. 저서는 『소재집』, 『東國疆域圖說』, 『田算撮要』, 『江都三忠傳』 등이 있다. 과천 사충서원(四忠書院)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강원도 관찰사로 양양을 순례하며 낙산에 묵으며 쓴 것으로 보인다. 띠끌 속에 관찰사의 정기를 앞세우고 공무로 와 낙산사에 머무니 고요하고 한가로운 산사는 몸과 마음 모두 맑아지고 깨끗하게 느껴지고 새롭기만 하다. 낙산의 장관인 일출은 안개가 가려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산꽃들이 반은 졌지만 봄 동산이 그윽하기만 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161) 이민구(1589, 선조22~1670, 현종11)의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자시(子時), 호는 동주(東州)·관해(觀海)이다. 아버지는 실학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한 수광(睟光)이다. 1612년(광해군 4) 증광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수찬·병조좌랑·지평·응교 등을 지내고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세자를 따라 남하했다가 돌아와 승지·임춘군수 등을 역임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도검찰부사(江都檢察副使)가 되어 왕을 강화로 피난시키기 위해 배 편을 준비했으나 적군이 어가(御駕)의 길을 막아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

난이 끝난 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하여 아산으로 유배되었고, 1643년 영변으로 이배(移配)되었다. 1649년에 풀려나온 뒤 대사성·예조참판 등을 지냈다. 문장이 뛰어났고 사부(詞賦)에 능했다. 저서에 『동주집』, 『讀史隨筆』, 『諫言龜鑑』, 『唐律廣選』 등이 있다.

162) 금방(金榜): 과거에 급제한 사람 이름을 게시하는 방.

이 밤 둥근 달 빛은 배웅하네  
 특별히 풍악은 머무는 나그네를 취하게 하고  
 하늘의 별은 사람을 움직여 추운데 오르게 하네  
 높아서 떨어진 모자 정리는 바로 쓸데없는 일이고  
 찬바람 빌려와 천자가 타는 수레에 걸터앉으리라  
 『峴山誌』

此夜蟾光送玉盤  
 特地笙歌留客醉  
 中天星斗動人寒  
 登高落帽渾閑事  
 直借冷風跨紫鸞

○ 도사가 뒤따라 낙산에 도착하였기에 농담삼아 써서 시를 재촉하다

[都事追到洛山戲筆督詩]

동주(東州)

이민구(李敏求)

그대의 재주 본래 왕로를 뛰어넘고  
 관동 산천은 특별히 아름답지  
 차마 시 없이 풍경을 마주하라  
 어찌다 영랑호를 훌쩍 지나쳤구나  
 『東州集』

君才本自邁王盧  
 嶺外山川又別區  
 可忍無詩對風景  
 忽然走過永郎湖

○ 낙산사에서 일출을 보다[洛山寺觀日出] (東州)

이민구(李敏求)

여섯 용이 해 받들어 하늘 높이 올라오니  
 망망한 은빛 바다에 자욱한 안개 사라진다  
 희화에게 알리노니 고삐 느슨히 잡아라  
 우연 서쪽 두둑이 멀지 않단다  
 『東州集』

六龍扶日上層霄  
 銀海茫茫積霧消  
 爲報羲和徐按轡  
 虞淵西畔未全遙

○ 낙산의 9월 9일 연회에서[洛山九日宴集] 동주(東州)

이민구(李敏求)

자라 머리에 산 감돌아 용의 기세 서렸고  
 단청 칠한 절 문 장관이네  
 오래도록 신기가 금빛 현판에 붙었고  
 이 밤 달빛을 옥쟁반에 보내오네  
 아름다운 곳 생황 노래에 머문 나그네 취하고  
 중천의 별빛이 사람을 즐겁게 하네  
 높이 오르고 모자 털굶은 모두 한가한 일  
 곧바로 가벼운 바람 빌려 붉은 난새 타리라  
 『東州集』

鼇頂山回龍勢蟠  
 寺門丹碧壯新觀  
 長時蜃氣吹金榜  
 此夜蟾光送玉盤  
 特地笙歌留客醉  
 中天星斗動人寒  
 登高落帽渾閑事  
 直借冷風跨紫鸞





## 조문수

○ 낙산사(洛山寺)

설정(雪汀)

조문수(曹文秀)<sup>163)</sup>

옥같은 명사십리에 백구가 날고  
 지는 해는 선계를 황금으로 물들었네  
 이화정 기슭에 폭풍으로 수레는 멈추었고  
 구름 없는 바다에 달빛만 밝구나  
 『雪汀集』

鳴沙戛玉白鷗邊  
 落日浮金翠鰲上  
 梨花亭畔駐廳輪  
 銀海無雲月正朗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설정(雪汀)

조문수(曹文秀)

봉래산은 아득하고 바다 빛은 희미한데  
 밤 깊은 절에 달빛은 차갑네  
 가련하다. 옥 같은 사람 어디 갔는가  
 홀로 절의 열두 계단 오르네  
 『雪汀集』

蓬萊滄茫海色微  
 夜深臺殿月淒涼  
 可憐如玉人何處  
 獨上瓊樓十二涕



## 수초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취미(翠微)

수초(釋 守初)<sup>164)</sup>

163) 조문수(1590, 선조23~1647, 인조25)의 본관(本貫)은 창녕(昌寧)이고 자(字)는 자실(子實), 호(號) 설정(雪汀)이다. 1609년(광해군1) 진사(進士)가 되고 1624년(인조2) 현감(縣監)으로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지평(持平)·수찬(修撰)·필선(弼善)·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어 특진관(特進官)을 겸했다. 1645년 좌승지(左承旨)에 이어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승진, 하흥군(夏興君)에 봉해졌으며, 1647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가 인조 정해년(1647) 12월 25일 양양 임지(任地)에서 숨졌다. 시(詩)와 해서(楷書)에 능했다.

양양부사였던 주문수의 작품으로 양양부사로 부임하였다가 죽었다. 낙산 해변은 예부터 옥 같은 백사장 이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고 항상 갈매기처럼 느껴진다. 이화정에서 폭풍으로 머무는데 달빛이 구름 한 점 없는 망망대해를 비추는 정경을 표현하였다.

164) 수초(1590~1668)의 조선시대의 승려로 속성 성(成)으로 본관 창녕(창녕)이고 자(字)는 태훈(太昏), 호는 취미이다.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成三問)의 후예로서 성균관 북쪽의 이름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출가의 뜻을 품었으나 형이 허락하지 않자 몰래 설악산으로 가서 경헌(敬軒)의 제자가 되었다. 1606년 두류산(頭流山)의 선수(善脩)를 찾아가 그의 천거로 각성(覺性)의 문하에 들어갔다. 그 후로 여러 곳의 명승(名僧)들을 찾아 편력하고 서울로 돌아와 이름난 유학자(儒學者)들과도 사귀면서, 각성의 법을 이어받았다.

유학에도 통달하여 김욱(金旭)·이식(李植) 등 당시의 유학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중주(仲州)

절벽에 서 있는 천 년 고목  
 하늘 높이 치솟은 백 척 의상대  
 신승이 가버려 자취 없고  
 구름 밖 멀리 선학이 나는구나  
 『江原道誌』

倚壁千年樹  
 凌虛百尺臺  
 神僧去無跡  
 雲外鶴徘徊



장유

○ 휴 상인이 낙산으로 떠나려 하면서 시권을 가지고 와 보여 주기에 차운하여 시를 지어 주면서[休上人將向洛山 携詩卷來示 次韻以贈]

계곡(谿谷)

장유(張維)<sup>165</sup>

남능북수를 논하지 마오  
 사람마다 마음속에 등불 하나씩 있는 것을  
 병중에 만난 스님 서로들 말이 없이  
 밝은 모습 근심 대하는 듯하네

休論北秀與南能  
 箇箇人心有一燈  
 病裡逢僧兩無語  
 炯然如對玉壺冰

맑은 가을 관동으로 석장(錫杖)을 날리나니  
 그 옷자락 만 골짜기 바람을 불러일으키네  
 듣자니 낙가산(洛伽山)에 다시 건립하였다고  
 포금 속에 절이 있음을 알겠네  
 『谿谷先生集』 卷之三十三, 七言絕句

清秋飛錫向關東  
 一衲行披萬壑風  
 聞說洛伽重建立  
 祇園知在布金中

의 오봉사(五峯寺), 학성(鶴城)의 설봉사(雪峯寺), 승평(昇平)의 조계사(曹溪寺) 등 세 곳에 탑이 있다. 문집에 『翠微詩集』이 있다.

스님으로 대 학자였던 수초스님이 아마도 설악산에서 불제자로 생활하면서 의상대의 풍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의상대 앞의 노송은 오랜 낙산의 역사를 안은 채 지켜왔다. 아득히 높은 곳에 위치한 대는 허공으로 솟아 있다. 지금 의상대사 같은 신승은 없지만 구름 밖 멀리 학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은 신선의 세계처럼 느끼면서 표현하였다.

165) 장유(1587, 선조20-1638, 인조16)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지국(持國), 호는 계곡(谿谷)·묵소(默所)이다.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의 사위이며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아버지이고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1605년(선조38) 사마시를 거쳐 1609년(광해군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했고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그후 대사간·대사헌·대사성을 지내고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 때 공주로 왕을 호종한 공으로 다음해 신풍군(新豐君)에 봉해졌다. 그 후 대제학으로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겸임했다. 1631년 딸을 봉림대군(鳳林大君, 효종)에게 출가시켰고, 1636년 병자호란 때는 공조 판서로서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강화론을 주장했다. 이듬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모친상(母親喪)으로 끝내 사직했으며 장례 후 과로로 죽었다. 이정구(李廷龜)·신흠(申欽)·이식(李植) 등과 더불어 조선문학의 4대가로 불린다. 저서로 『谿谷漫筆』·『계곡집』·『陰符經注解』가 전한다. 신풍부원군(新豐府院君)에 진봉되었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 이명후

○ 『유금강일록(遊金剛日錄)』

이명후(李明厚)<sup>166)</sup>

우리 동방에 명산이 셋 있는데, 영남의 지리산(智異山)과 관서의 묘향산(妙香山)과 동해의 금강산(金剛山)이 그것이다. 세 산 가운데 금강이 가장 아름답다. 중국 사람들도 ‘조선국에 태어나 한번 금강산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니, 이로써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우리 동방에서만 최고인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경치임을 알 수 있다. 나도 한번 유람하여 평생의 소원을 풀어 보려 했으나 아직 실행하지 못했다.

이에 형부 좌시랑(刑部左侍郎)으로 있다가 외직을 힘써 구해 승정(崇禎) 무진년(1628년, 인조6년)에 강릉부사(江陵府使)가 되어 정월에 부임했다. 공사(公私)의 일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4월에야 대강 정돈이 되었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 나이가 육순에 가까워, 지금 풍악산을 유람하지 않으면 뒷날에 후회할까 두려워, 드디어 유람하기로 결정하고 두 아들 현기(顯基)와 원기(元基)를 데리고 떠나기로 했다.

4월 12일 계묘일. 말을 타고 연곡(連谷)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 동산(洞山)에 이르렀는데 권칭(權稱) 정기평(鄭基平)이 술을 가지고 찾아왔다.

13일 갑진일. 일찍 동산을 출발해 정오에 상운(祥雲)의 유객당(留客堂)에서 점심을 먹었다. 날이 저물 무렵 낙산사(洛山寺)에 이르렀다. 나의 벗인 양양 부사(襄陽府使) 지세(持世) 조위한(趙偉韓)이 이화정(梨花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악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려 잔치를 거두고 빈일료(賓日寮)에 들어가 즐겁게 놀다 날이 어두워져서야 파했다.

절은 신라 때 신승(神僧)인 의상(義相)이 창건했다고 한다. 후전(後殿)에 관음상을 모셨는데, 만든 모양이 매우 정묘하다. 선당(禪堂)의 벽 위에는 안견(安堅)이 그린 산수도가 있다.

절은 관동팔경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아름답다. 사람들은 중국 금산(金山)의 감로사(甘露寺)와 비교하는데 어느 절이 더 뛰어난지는 알 수 없다. 절 동쪽에는 의상대가 있고 대 북쪽에는 관음굴(觀音窟)이 있다. 세속에 전하기로는 익조(翼祖)가 아들 연기를 빌던 곳이라고 한다.

14일 을사일. 아침 일찍 낙산사를 출발해 청초호(靑草湖)를 거쳐 영랑호(永郎湖)를 지났다. 영랑호에서 잠시 쉬었는데 매우 맑고 경치가 아름답다. 청간정(淸澗亭)에서 점심을 먹고 만경대(萬景臺)에 올랐다. 이 또한 팔경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직접 보니 들은 것과는 같지 않다.

166) 이명후(李明厚-연대 미상)의 본관(本貫)은 경주(慶州), 호(號)는 성암(誠菴)이다.

청간정에서 20여 리를 가니 뚝 끊어진 산이 바다를 옆에 두고 우뚝 서 있다. 아전에  
게 물어 보니 능파대(凌波臺)라고 한다. 수레를 돌려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동쪽으  
로는 큰 바다를 마주 하고 있다. 바닷가 경치는 대략 비슷하나, 서쪽의 경치는 좌우에  
호수가 있어 파도가 포구에 드나든다. 논을 새로 갈아서 허연 물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  
다. 작은 다리가 시내 위에 걸쳐 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어촌 마을에서 저녁연  
기가 올라오고 있다.

겹겹으로 이어진 산과 고개는 구름 가에 아름답게 서 있고, 저녁놀은 비추었다 사라  
졌다 한다.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다. 내가 ‘앞쪽 경치가 뒤쪽 경치만 못하다’고 하자,  
따르는 이들도 모두 그렇다고 한다.

10여 리를 더 가니 선유담(仙遊潭)이 나왔다. 못은 별로 크지 않은데 앞산이 에워싸  
고 있어서 큰 산이 물 가운데 거꾸로 들어간다. 못 좌우에는 큰 소나무 수백 그루가 숲  
을 이루었고, 앞뒤는 맑고 시원하다. 비록 영랑호만 못하지만 그윽하고 깊숙한 맛은 마  
음에 들었다. 논하는 이들도 어느 것이 더 뛰어난지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저녁에 간성(杆城)에 이르렀다. 고을 수령은 나의 벗 중정(仲靜) 김상복(金尙宓)인데,  
차원(差員)으로 서울에 가고 없었다. 그와 더불어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니 한번  
만나는 것도 명수(命數)가 있어야 하는 것임을 알겠다. 이에 마음이 아쉬웠는데, 아랫사  
람들마저 매우 박하게 대하니 더욱 언짢았다. 달빛을 맞으며 누대에 올라 유량(庾亮)이  
쓴 남쪽 누대란 구절을 읊었다. 천박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했는데도 그가 달을 즐기는  
마음이 없으니 어찌란 말인가?

15일 병오일. 새벽에 가서 대궐에서 행하는 예를 보았다. 일찍 간성을 출발해 20여  
리를 가서 화진포(花津浦)에 이르렀다.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들어가니 바닥이 은은  
하게 보였다. (물속에) 집 (屋宇) 이 있다는 말은 불경스러워 믿을 수 없다. 대개 모래  
톱의 물이 번갈아 나오고 맑고 넓으며 깊숙한 곳을 경포(鏡浦)에 비교하는데, 경포가  
아래에 있으나 경포라는 이름은 도리어 그 위에 있으니 왜 그런가?

대의 좌우에는 좋은 논과 밭이 많이 있다. 왼쪽에는 군사(軍士) 이경순(李敬淳)의 집이  
있다. 경순은 문장과 시를 잘했는데 늙어서 죽은 뒤 아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집  
은 이사를 갔으나 묘는 아직도 남아 있다. 오른쪽에는 군사 이연(李連)의 집이 있다. 모  
두 돈을 주고 사서 살면서, 그 곁에 있는 마전(馬田)을 소작으로 부친다고 한다. 벼슬을  
버리고 살고 싶어도 누가 팔겠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혀를 찼다.

오시(午時) 가 가까워서야 별산(別山)에 이르렀다. 말을 쉬게 하고 여물을 먹였다. 무  
송도(茂松島)를 지나서 명파역(明波驛)에서 잠시 쉬었다. 송도(松島)를 지나 대강역(大江  
驛)에서 점심을 먹었다. 무송과 송도의 승경은 대략 만경대와 다름이 없다.

어제 저녁에 박시창(朴時昌)이, 간성 사람들이 대접을 박하게 했다고 화를 내면서 팔까  
지 휘두르며,

“언제쯤 고성(高城)에 도착할까?. 고성은 틀림없이 대강(大江)에서 성대하게 차려 놓고

기다릴거야.”라고 했는데, 어찌 이처럼 조용한가.

대강에 이르렀으나 역참에서 기다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승려가 미리 재계하고 기다리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라고 하자 모두 배를 잡고 크게 웃는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밥을 지었다. 밥을 먹고 나니 짙은 안개가 하늘에 비끼고 가는 비가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강을 출발해 감호(鑑湖)로 가는 길에 전 도사(都事) 정전(鄭涇)의 정자에 올랐다. 네모진 호수에 바위 봉우리가 아름다워 마음에 들었다. 주인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벼슬을 구해 조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아아, 이런 강호의 경치를 두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려고 벼슬 얻을 생각을 한단 말인가?

바닷길을 따라 10여 리를 가니 바위봉우리가 나왔다. 바로 현종암(懸鍾巖)이다. 바위에 구멍이 움푹 파여 집과 비슷해서 비와 눈을 피할 수 있겠다. 세상에 전하기로는, ‘오백 나한이 바다에서 나와 석실에 살다가 좌해(左海)로 배를 타고 떠났다. 그러므로 위에는 현종암이 있고 바닷가에는 부주암(覆舟巖)이 있고, 서쪽에는 계주암(繫舟巖)과 곡포암(穀包巖)이 있다. 모두 신성(神聖)한 옛날의 자취다.’라고 한다. 그 말이 불경스러워 모두 기록할 수 없다.

드디어 산에서 내려와 남강(南江)에 이르렀다. 날이 이미 어두워져 뱃사람이 배를 대고 강북 언덕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불이 명멸(明滅)하는 동안 강을 건넜다.

태수(太守)인 명로(明老) 허계(許啓)는 오래된 벗이다. 언덕에 서서 목을 길게 빼고 오래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가 오자 정성스럽게 위로해 준다. 언덕에 올라 마주 보니 매우 기뻐했다. 서서 술 한 잔을 마시고는 나를 이끌어 해산정(海山亭)에 올랐다. 이윽고 몇 잔을 마시고는 술자리를 파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따라온 이들은 모두 이슬을 맞으면서 잔다. 매우 불쌍하여 정자의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16일 정미일. 일찍 일어나 주변을 두루 구경했다. 해산의 경치를 평가하려 하는데, 바다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더니 아침 늦게야 비로소 개었다. 동쪽으로 해문(海門)을 바라보니, 바위가 바다 가운데 우뚝 서 있다. 마치 거센 파도에 버티고 서 있는 지주(砥柱) 같다.

남쪽에는 바위산 세 봉우리가 눈앞에 줄지어 서 있다. 서남쪽에는 금옥(金玉)이 서 있는데, 푸른색이 눈에 가득하다. 동서쪽에는 양귀암(兩龜巖)이 있다. 큰 강이 마치 하얗게 바랜 듯 너른 들 가운데를 에워싸며 흘러간다. 평하는 이들이 죽서루(竹西樓)보다 낫다고 하는데 팔경에는 끼이지 못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명로와 더불어 고산대(高山臺)에 올랐다. 달을 기다려 강에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 이경(二更)이 되어서도 달빛을 보지 못하고 몇 잔의 술을 마시고는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遊金剛日錄』

吾東方，有三名山，嶺南之智異，關西之妙香，東海之金剛，三山之中，金剛爲最勝，故中國人，有願生朝鮮國，一見金剛山之句，是則山之勝致，非但爲吾東之最，在中國亦不多得，可知也。願一遊歷，以償平生之願，而未果焉。崇禎戊辰，以刑部左侍郎，力求補外，爲江陵府使，正月視事，公私之務，如至四月，稍自釐，因念吾身，年迫六旬，不以此時，往遊楓岳，則恐有後時之悔，遂決意探勝，率二子顯基元基。

十二日癸卯，騎馬至連谷，午餉，夕抵洞山，權稱鄭基平，持酒來見。

甲辰，早發洞山，午餉祥雲留客堂，日晡，直抵洛寺，襄陽府使趙偉韓持世，即故舊也，預待于梨花亭，陳酒樂，因雨捲，入賓日寮歡宴，日昏乃罷，寺新羅神僧義相所創，後殿，設觀音塑像，制作極精妙，禪堂壁上，有安堅山水圖，寺之勝致，則關東八景之一也，人擬中朝金山甘露寺等，而未知優劣如何，寺東，有義相臺，臺北，有觀音窟，諺傳，翼祖祈嗣之處云。

乙巳，早發洛山，歷青草湖，過永郎湖，少憩，殊爲清絕，午餉清澗亭，登萬景臺，亦八景之一也，而眇見頗不如所聞，自清澗，行二十餘里，有一斷山，傍海徒立，問於郵吏，則乃凌波臺也，回車登眺，則東向面大洋，海邊之景，大畧相似，而西望，則左右湖水，漲入浦口，水田新耕，白水平鋪，小橋架川上，漁村撲地，夕烟初起，重山疊嶺，矗立雲際，斜光掩映明滅，真快景也，吾謂前面之景，不若後面，諸從者，皆以爲然，又行十里，得仙遊潭，潭之廣不甚濶遠，而前山環擁，長麓走入波心，湖水左右，映帶長松數百株林立，後前清曠，雖不如永郎，幽邃可愛，善論者，亦未易甲乙，向夕扞城郡，主倅即舊知金尙宓仲靜，以差員上京，不得與之穩討，信知一會之有數也，悵然之餘，其下人待之甚薄，尤可恨也，乘月登樓，詠庾亮南樓之句，興不淺而其無賞心，何。

丙午，曉行望 闕禮，早發扞城，行二十餘里，到花津浦，乘舟入湖中，隱隱見水底，屋宇其言不經不可信，大槩洲渚，互出清曠幽邃比於鏡浦，鏡浦殆在下風而鏡浦之名，返在其上，何耶，且其臺之左右，多良田美畚，左則軍士李敬淳之家，淳也，能文善詩，老死，其子不能守，拔宅移居，其基尙存，右則軍士李連之家皆可賃而居，其傍又多馬田，亦可賃耕，思欲鮮官留居，誰能與買山錢耶，不覺咄咄，近午抵別山，歇馬啖飯，行過茂松島，暫憩明波驛，歷松島，午餉大江驛，茂松，松島之勝，大畧與萬景臺無異，昨昏，朴時昌，憤扞城人之不待，乃奮臂，曰何時當到高城之境也，高城，必盛辦出待於大江，豈若是寥寥然哉，及到大江，則無一人到站上，余戲之，曰預期僧齋不腹，非此類也耶，相與捧腹大噱，久之，設食，食後，大霧橫天，細雨濛濛，因自大江發行，趨鑑湖之路，登前都事鄭泂之亭，方湖石峯，清絕可愛，問其主人之何在，則方入朝求仕，噫，有此江湖之勝，而當此世亂之日，尙有求仕之心耶，循海路，行十餘里，有石峯，即所謂懸鍾巖也，石竇穹窿，如屋宇，可以避雨雪，世傳，五百羅漢，自海中出，寄寓石室，泊舟于左海，故上有懸鍾巖，海邊有覆舟巖，西有繫舟巖，穀包巖，皆神聖古迹，其言不經，皆不足記，遂下山，行到南江，日已曛黑，舟人艤船而待江北岸上，火光明滅，因渡江，太守許啓明老，即吾世友也，長立于岸上，引領而望，勞慰甚勤，登岸而對，相喜可知也，立飲一盃，相携入海山亭，因飲數盃，食罷就寢，而諸從者，霑濕露處，誠可矜憫，而亭之勝槩，未暇賞也。

丁未. 早起周覽. 欲評海山之勝. 而海霧蒙瞶. 日晚始霽. 東望海門. 有石巍然立海中. 如砥柱頹波. 南有石山三峯. 排列於面前. 西南金玉立. 蒼翠滿目. 東西有兩龜巖. 大江. 如白練橫拖大野之中. 評者. 以爲勝於竹西. 而以不入於八景. 爲恠云. 黃昏. 與明老. 登高山臺. 欲待月放舟江中. 玄雲掩翳. 迨至二更. 未見月光. 各飲數盃. 悵然而還.

『遊金剛日錄』



## 이해조

○ 현산 삼십경을 읊으며[峴山三十詠] 명암(鳴巖) 이해조(李海朝)<sup>167)</sup>

산과 물이 어울리는 경치를 겸비하기는 어렵다. 仁者和 智者인 재주로도 능통함을 갖출 수 없다. 비록 하나의 언덕과 골짜기, 물, 돌을 보고 듣기 오히려 어렵다. 하물며 강과 산이 크며 큰 바다와 명산이 어울려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우리나라의 영동 팔경인 오직 뛰어난 양양의 두 경지는 설악산이 바다와 접해 있어, 양양의 설악산은 소금강이라고 부른다. 하늘이 조화롭게 신이 창조하여 낙산사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크고 넓다. 또한 고성(高城)의 해산정과 그 우열을 다룬다. 이는 참으로 산과 바다가 아름다움을 갖추었고 그리고 고을의 이름이 중국의 지세가 훌륭한 현산과 한수가 부합하여 모방하여 이름을 정하였다.

산옹(山翁) 숙자(진나라 장수 羊祜의 자)의 풍류와 운치가 있어 이름을 돌아보며 감회를 상상하니 잇을 수가 없다. 호수가 보이는 산 아래 집을 꾸미고 만물을 잘 꾸미니 가치가 백배는 더하다

고을에 옛 기록이 없어 누각(樓閣)과 관대(觀臺), 사찰에서 책을 적막하게 읊으니 단지한 때, 한 곳의 경치만을 기록하여 일찍이 없었던 것을 찾아내고 한 고을의 경치를 관상하며 기록하여 나타내어 밝히니 나는 심히 아까워 이에 상고하여 여지승람에 신는다.

또 고을을 방문하여 노인 가운데 현산 삼십경의 글을 짓기 위해 각부에 승경을 짧고 간략하게 요구하니 삼연(三淵) 김자익(金子益)이 화답하였다.

아. 오래된 고을과 산천에 특히 기근으로 굶어 죽는 것이 몹시 결렬하였다. 누런 순

167) 이해조(1660, 현종1)~1711, 숙종37)의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자는 자동(子東), 호는 명암(鳴巖)이다. 우의정 정구(廷龜)의 증손이고 대제학 일상(一相)의 아들이다. 1689년(숙종15)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위되자 벼슬을 단념하였다가 1694년 왕후가 복위된 후 빙고별검(氷庫別檢)이 되고, 1702년 전주 판관(全州判官)으로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1709년(숙종35) 2월 양양부사로 부임하였다. 정언(正言)·부교리(副校理)·집의(執義)·대제학을 역임하고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 하였다. 조부 때부터 3대가 모두 대제학(大提學)을 지냈고, 시문에 능하여 김창흡(金昌翕)으로부터 천재라는 격찬을 받았으며 저서 『鳴巖集』이 있다.





봄의 푸른 물결이 바람에 시원하구나  
 청명한 백사장에 오리가 일색이고  
 큰 제방의 버들 빛이 서로 어울리네  
 산옹은 취하여 돌아감을 잊고  
 벼슬아치임을 분별하지 못하네  
 비단 도포 입은 신선이 없어 한스러워  
 하늘에 포도주가 가득 넘쳤으면

春波碧瀏瀏  
 一色晴沙鴨  
 交暎大堤柳  
 山翁醉忘歸  
 不辨青綈綬  
 恨無錦袍仙  
 虛漲蒲萄酒

○ 낙산사의 해맞이(洛伽觀日)

낙산사를 또한 낙가사라고 칭한다. 해변 어디에서나 가히 해맞이를 할 수 있고, 해가  
 뜬 동쪽을 바로 대하고 있다. 이화정은 아주 높고 시원한 곳에 있어 가장 멀리 바다  
 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해맞이는 반드시 낙산사라고 말한다[洛山寺. 亦稱洛伽寺.  
 海傍無非可觀日. 而洛山正對陽谷. 梨花亭極高敞望海最遠. 故觀日必稱洛山云]

푸른 하늘 끝 푸른 바다는  
 푸른 유리 같은데 넓고 넓구나  
 붉은 구름이 금륜(金輪)을 안아  
 온갖 채색이 많아 화려하구나  
 이화정에 가지 않고  
 떠오르는 해를 맞이 했네  
 매일 아침 이 광경을  
 다만 스님만 알고 보내는 구나

靑空際滄海  
 浩浩碧琉璃  
 紅雲擁金輪  
 衆彩紛陸離  
 不到梨花亭  
 焉對扶桑枝  
 朝朝此光景  
 但遣山僧知

○ 울산바위 뜬 소문(天吼聞風)

천후산은 읍에서 북으로 육십 오리에 있다. 석봉은 깎은 듯이 가파르고 기이하고 장관  
 이다. 세속에서 소금강이라고 칭하는데 즉, 설악산의 한 갈래로서 산허리에 바람구멍이  
 둘 있다. 큰 바람이 불려고 하면 산이 스스로 먼저 운다고 하여 이름 하였다.[天吼山在  
 府北六十五里. 石峯峭削奇壯. 俗稱小金剛. 卽雪岳一支. 山腰有兩風穴. 大風將起. 山自先  
 鳴. 故名]

산이 높고 험하여 소금강이라  
 두 구멍에 바람이 성난 듯하구나  
 어룡이 굴에서 뒤흔드니  
 소나무 계수나무 모아 거문고 두드리네

嵯峨小金剛  
 吼怒雙竅風  
 震蕩魚龍窟  
 戛瑟松桂叢

바람이 더 이상 거세게 부지마오  
 천지는 본래 동쪽에 있네  
 외적을 막은 신선만이  
 그대를 빌어 승천하고자 하오

莫助扶搖勢  
 天池本在東  
 惟有禦寇仙  
 借爾欲乘空

○ 의상의 기적(義相異蹟)

고려의 승 익장의 기문에 낙산사 동쪽 수리쫘 해변에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굴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머물던 곳이라고 세상에 전한다. 굴 앞에 한자리 깔만한 돌이 있어 신라 의상법사가 이에 돌 위에서 전좌배례하며 관세음보살 진상을 진견하려고 14일을 기다려도 볼 수 없어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용이 붙들고 돌 위로 나왔다.

관세음보살이 굴속에서 팔을 내밀어 수정염주를 부면서 “내 몸은 볼 수 없다. 다만 굴 위를 따라가면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난 곳에 이르면 그곳이 내 이마머리다. 여기에 불전을 짓고 상설안배 하라” 하였다. 용이 바치는 여의주와 보옥을 의상께서 받아가지고 오니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았다. 이에 그 땅에 절을 짓고 용이 바친 옥으로 불상을 마련하여 봉안하니 곧 관음사요 수정염주를 소장한 보물의 절이 되었다.

고려 유자량이 병마가사 되어 관음굴 앞에 이르러 분향재배하니 청조가 꽃을 물고 날아와 노래하며 꽃을 두건 위에 떨어뜨렸다. 유자량의 시에 명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청조를 이 사람이 만나 것이라고 말했다. 굴 왼편 한 기슭에 바다에 우뚝 솟아 예부터 의상이 머물던 곳을 이름 하여 의상대라 하였다. 대 앞에 구불구불 서린 여러 그루의 고송이 불만하다.

高麗僧益壯記. 洛山寺東數里許海邊. 有窟可容舟. 世傳. 觀音大士所住處. 窟前. 有石可鋪一席. 新羅義相法師. 乃於石上展拜. 求見觀音眞像. 二七日未獲觀. 便投身海中. 有神龍扶出石上. 觀音 卽於窟中. 伸臂授水晶念珠曰. 我身不可觀. 但從窟上. 行至雙竹湧出處. 是吾頂上. 於此. 可營一殿. 安排像設也. 神龍獻如意珠及寶玉. 義師受珠玉而來. 有雙竹自抽. 乃於其地創殿. 以龍所獻玉. 造像安之. 卽觀音寺. 藏珠於是. 寺傳寶之. 高麗庾資諒爲兵馬使. 到窟前拜稽. 有青鳥啣花飛鳴. 花墜幘頭上. 庾資諒詩. 明珠非我欲. 青鳥是人逢云云. 窟左一麓陡起入海. 舊稱義相所憇處. 名以義相臺. 臺前數株古松蟠屈可玩.

의상대사의 황홀한 일  
 바다에 투신하여 진상을 구했네  
 용이 의상을 감싸 안으니  
 석상에 오래도록 엮드려 있었네  
 스님이 머물던 곳 아득하여  
 옛날 누대는 천길 벼랑에 서있구나

義師事恍惚  
 投海求真像  
 神龍護袈裟  
 宛在舊石上  
 蒼茫住錫處  
 古臺立千丈

대 앞의 소나무는 가지는  
언제나 동쪽으로 향하리

臺前松樹枝  
幾時復東向

○ 관세음보살의 신상(觀音神像)

쌍죽이 솟아 바다는 깨끗하고  
법당의 불정은 한없이 높구나  
관음상을 아름다운 옥으로 만들고  
깊은 동굴 배 모습과 흡사하네  
청조가 천화를 물어다 떨구고  
용이 토한 여의주가 빛나네  
옛 자취를 어루만지고 싶어  
오래 앉아 있으니 바람만 차구나

雙竹湧海湄  
孤棟架佛頂  
神像巧鑿玉  
窟恰容艇  
鳥銜天花墜  
龍吐驪珠爛  
舊迹欲摩挲  
坐久風淒冷

○ 계조암의 오랜 굴[繼祖舊窟]

천후산 아래 있다. 굴 밑 벼랑의 작은 암자에 스님은 모든 번뇌가 비었고, 계조선사가  
입정한 곳으로 전한다. 굴 앞에 거대한 흔들바위가 있고, 동으로 큰 바다요, 앞은 달마  
봉과 여러 봉우리를 대하고 있다[在天吼山下. 窟底架崖構小菴. 空無僧. 世傳繼祖禪師入  
定處. 窟前巨石錯立. 東臨大海. 前對達摩諸峯]

유명한 조사들이 설교하던 곳으로  
오랜 된 굴속에 푸른 이끼 무늬졌네  
구부러진 바위는 웅크린 범 같고  
둥근 봉우리는 진을 친 군사 같구나  
두 구멍에서 갑자기 바람 마시니  
어두운 구름이 겹겹이 둘러싸는 구나  
빈 암자는 고요한데 스님은 없고  
지나가는 신도들만 향을 피우네

祖師講道處  
古窟蒼苔紋  
穹巖若蹲虎  
環峯如列軍  
倏吸雙穴風  
繚繞重溟雲  
空菴寂無僧  
鑪檀徒自焚

○ 비선대의 층층이 깊은 소(飛仙層潭)

천후산 남쪽에 신흥사가 있고 절 앞 오리좁 깊숙한 곳은 산봉우리 첩첩하고 숲이 우  
거졌는데 흰 돌이 평평하게 깔리어 맑은 물이 흐르는 못이 곧 와선대이다. 와선대를 지  
나 물길 따라 수리 오르면 첨예한 산봉우리 밑에 바위샘이 흘러 와선대보다 기이한 장

관이며 맑고 시원한 비선대이다. 이곳이 양양 제일의 동천이다.[天吼山南有神興寺. 寺前五里餘洞府深邃. 疊嶂森羅. 白石平鋪. 溪流成潭. 卽卧仙臺. 自卧仙沿溪上數里. 峯巒泉石. 比卧仙益奇壯清爽. 乃飛仙臺. 此是峴山第一洞天也.]

신선이 놀면서 누워 쉬다가 날아간 곳	遊仙或飛卧
층층이 깊은 소 아래 위로 나누어져 있네	層潭分下上
큰 반석이 땅을 덮고	鋪地盤石大
골짜기를 씻는 듯 폭포는 장관이구나	漱壑飛泉壯
봉래 섬에 갈 필요도 없이	不必蓬萊島
녹색 옥으로 만든 지팡이 잡고 멀리 왔네	遠携綠玉杖
흰 두건 쓰고 또 감탄하면서	且歎白接離
하루 종일 높고 푸른 산봉우리만 바라보네	終日看靑嶂.

○ 권금성의 남은 성가퀴(權金殘堞)

설악산 머리에 있다. 석축 둘레는 천여 척으로 부서진 성가퀴는 아직도 남아 있다. 옛날 권씨와 김씨 두 가문이 난을 피해 쌓았다고 하여 이 이름 하였다. 토왕성과도 서로 연결되고 성 동편에는 수백 척이나 되는 폭포수가 걸려 있는데 토왕성 역시 어느 대에 성축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옛날 토씨 성의 왕이 조성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在雪岳頂. 石築周千餘尺. 廢堞尙在. 俗傳昔有權金二家. 避亂于此. 故名. 與土王城. 相連城. 東有瀑布掛流數百尺. 土城亦不知何代設築. 而或傳古有土姓王造此云.]

옛날 권씨와 김씨가 난을 피해	權金昔逃難
옛날에 쌓은 성가퀴가 남아 있네	殘堞餘古壘
토왕성과도 대치 하며	對峙土王城
폭포수도 멀리 보이는구나	遙望瀑布水
어느 대 전쟁이 없었는지	何代無兵戈
몸을 감출 땅을 찾기 어렵네	難得藏身地
상산 <sup>168</sup> 과 더불어 설악산도	商山與雪岳
사호의 두 집안 자식 같구나	四皓後二子

○ 공허한 하조대(河趙空臺)

읍 남쪽 삼십 리에 있다. 낮은 산기슭이 바다 가운데로 비스듬히 빠져나간 가파른 절벽

168) 상산(商山): 中國 陝西省 商縣 동쪽에 있는 산. 四皓가 秦나라 亂離를 避하여 숨은 곳.

위에 정자가 있다. 대 앞에 규룡같이 구부러진 여러 그루의 고송이 꾸민 일산처럼 가리어져 있으며 기이하게 깊은 골과 바위는 파도에 부딪치는 그 자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조선 건국 초 하륜과 조준 두 사람이 여기 머물러 쉬면서 놀았다고 하여 이름 하였다고 한다.[在府南三十里. 小麓迤入海中陡絕爲臺. 臺前數株古松. 蚪屈掩翳左右巖壑. 奇邃海濤衝激凜. 不可久留. 世傳國初河崙趙浚兩人遊憇于此. 故得名云.]

영민하고 준수한 인물 여기에서 즐겨	英俊亦樂此
하조대의 이름 영원하리라	古臺名不朽
창해군 찾아오니	應尋滄海君
마침내 위천 <sup>169)</sup> 의 늪은이 용맹을 떨쳤네	終奮渭川叟
이끼 짙은 물가는 전에도 한적 했는데	苔深舊磯空
바람이 세차니 울부짖는 겨울 소나무	風急寒松吼
해신제 위해 잔 올리려 하니	欲酌清波奠
한없는 북두칠성만 기우는 구나	恨不傾北斗

○ 현산의 달맞이(峴首待月)

읍 앞 낮은 산을 현산이라 한다[邑前小麓俗稱峴山]

허리띠 늦춰 맨 경험이 없었는데	不經緩帶翁
이 산의 작은 계단을 밟았네	茲山等蟻垤
모름지기 지는 해 아쉬워	何須惜落日
우리는 초승달을 기다리네	我方待新月
타루비 한 조각 밝혀 보니	一片墮淚石
이미 가신 님 어찌 도우리	何補已朽骨
이 삼영을 비추던 달그림자가 이르러	及此成三影
다만 술잔을 기울일 수밖에 없네	但進盃中物

○ 의춘암의 화전놀이(春巖賞花)

부 서쪽 오 리에 있고, 예문이라 칭한다. 마을 가운데 맑은 물과 반석은 가히 놀만 한 곳인데 개울가의 반석에는 10여명이 앉을 수 있어 봄철 두견화 만개하면 태수가 화전놀이 하였다고 이른다. 지금은 의춘암이라 고쳐 부른다.[府西五里餘. 俗稱禮門. 洞中泉

169) 위천: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기 전에 낚시하던 곳.

石可玩. 溪邊小巖. 可坐十餘人. 春時杜鵑爛開. 太守輒賞花於此云. 今改以宜春巖.]

어느 곳이 화전놀이 하기 좋은가	何處賞春宜
작은 바위가 봄이 되면 어여쁘구나	小巖春可憐
잔을 권하니 오리가 녹파를 일으키고	盃添鴨綠波
꽃은 학림의 신선을 대하는구나	花對鶴林仙
꽃을 꺾어 흰 머리에 꽂고서	折來插白髮
술 취해 추는 춤은 어떤 춤인가	醉舞何躑躅
아이들 한바탕 웃음을 더하고	街兒添一笑
산옹은 지금도 소년이구나	山翁今少年

○ 무산의 구름과 비(巫山雲雨)

읍 앞 남대천에 늘어선 산봉우리를 무산이라고 한다.[邑前南大川邊列嶂羅立. 俗稱巫山]

아침부터 홀을 잡고 바라보는 곳	朝來拄笏處
상쾌한 기분은 서산만 못하네	爽氣非西山
단구의 병풍모양 특이하고	恠底丹丘屏
누런 발 사이 내 뜻을 펼치네	張我黃簾間
은 산 언덕에 겹쳐진 속에	銀山堆疊裏
열두 봉우리 얽혀있네	綰結十二鬢
어찌하여 구름 비오기를 기다리나	何待作雲雨
오랫동안 꿈속에서 얼굴이나 대하리	長對夢中顏

○ 나무 숲 사이에 아른 거리는 녹문[鹿門烟樹]

부의 성 서쪽을 지나 작은 농가들로 한 마을 을 이루는데 무성한 뽕나무로 가리운 앞에는 남대천이 흐른다. 임천이라 부르는데 녹문이라고도 한다[府城西過一小墅村落. 周布桑柘掩翳. 前臨大川. 俗號林泉. 亦稱鹿門.]

서쪽 숲에 몇 집이나 되는가	西林人幾家
마을에 황혼이 지는구나	墟里曖黃昏
나무 그늘 짙은 먼 들에	樹陰團遠野
외진 마을에 연기도 맑네	烟色淡孤村
소와 염소 함께 돌아가는데	不分牛羊歸

다만 닭과 개소리만 시끄럽네  
솔밭 길 따라 오가는 사람  
누가 녹문에 은거 하는지

但聞鷄犬喧  
松逕去來人  
誰是隱鹿門

○ 자지산의 영초(芝山靈草)

자지산은 부의 남쪽 칠십 리에 있다. 산중에는 자지가 많이 나므로 이름 하였다.[紫芝山在府南七十里. 山中多生紫芝. 故名.]

꽃 사이에 두건 쓴 늙은이 나타나  
소나무 그늘 아래서 노인이 반기네  
다만 녹색 포도주 맛보니  
영묘한 지치로 빚었다네  
지치로 일 또한 많아지고  
한번 취하니 늙어감도 잊는구나  
주림을 고치는 약이 없으니 어찌하오  
남대천의 봄날 물결이 좋구나

花間接羅翁  
松下笑綺皓  
但傾綠蒲萄  
焉用紫芝草  
三秀亦多事  
一醉不知老  
那無療飢物  
漢水春波好.

○ 부드러운 줄기의 순지[蓴池嫩莖]

부의 동쪽 팔 리 구봉산 아래 있다. 두 호수가 좌우로 시원하게 펼쳐있어 이름을 쌍호라 하고 또한 순지라고도 한다.[在府東八里九峯山下. 兩湖夾其左右. 故名以雙湖. 亦稱蓴池.]

이슬 젖은 아욱 캐어 국을 끓이니  
젓빛 같이 기름지고 부드럽네  
생성요리 아름다운 맛 잃고  
깨닫지 못하고 솔바닥만 긁는 구나  
어찌 미리된장을 넣지 않고  
채고 같이 참 좋구나  
가을바람에 어린 매가 나래를 펴고  
너를 잊지 못해 관직을 그만두리라

露葵采作羹  
軟滑流膏乳  
鮭菜失佳味  
不覺頻斲釜  
豈曾下鹽豉  
政好如釵股  
秋風張季鷹  
戀爾宜解組

○ 태평루의 풍류[太平歌管]

태평루는 곧 객사이다. 문루는 매우 넓고 시원하다. 태수는 늘 이곳에서 풍류를 베풀었다.[太平樓. 卽客舍. 門樓極宏敞. 太守每張樂於此云.]

높디높은 누각은 설악산으로 인하여	飛欄倚雪嶽
좌부선인의 신비로운 음악이 빛나는 구나	仙樂喧紫府
남대천의 물결은 목이 메어 흐르지 않고	漢波咽不流
무산의 구름이 오가며 흐르네	巫雲行復住
바다와 하늘이 여음이 울려 퍼지고	海天散餘響
어룡이 뒤섞여 춤을 추네	魚龍紛起舞
오랜 된 동제는 쓰지 않고	不用舊銅鞮
월궁의 악보를 새로 탐내는구나	新偷月宮譜

○ 동해묘의 제사(海廟香火)

동해신묘는 부의 동쪽 해변 송림 속에 있으며 봄가을에 제를 올린다.[東海神廟. 在府東海邊松林間. 春秋設祭.]

울창한 송림 속은 시원하고 고요한데	松林閭森爽
신을 모신 신궁은 엄숙하고 밝다	神宅儼明宮
향을 피우니 하늘하늘 구름이 되고	爐香裊汀雲
깃발 날리어 바닷바람 일으키네	旗脚颺海風
모든 백성 늘어서서 제를 올리니	蜿蜿享百靈
여러 해 풍년 들 효험 있구나	穰穰驗屢豐
부끄러운 관리들 명심하고	愧乏吏部銘
바다를 맡은 신에게 치성을 드리네	致崇如祝融

○ 죽도의 신선절구[竹島仙臼]

죽도는 부의 남쪽 사십 리 관란정 앞에 있다. 섬은 푸른 대가 가득하고 섬 아래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갈리고 갈려서 기교하게 파인 속에 둥근 돌이 하나 들어 있다. 민간에 전하는 말에 그 속에 둥근 돌이 흔들리고 회전하여 절구가 되었는데 다 갈려 없어지면 세상의 개혁된다고 한다. 심수경의 시에 “바위사이 돌절구 기이한 자취 찾는데, 신선들 어느 해 이곳에서 노닐까”하였고, 이우의 시에 “절구로 방아 찧기



시작하였는데 한 밤 중에 흙쳐 어깨에 지고 비석을 물속에 빠트렸구나”라고 하였다.[島在府南四十里觀瀾亭前. 滿島皆蒼竹. 島下海澨有石凹. 如槽磨礪巧刻中有一圓石. 諺傳. 圓石搖轉其中. 磨而成臼. 磨盡. 則世改矣. 沈守慶詩. 巖間石臼尋奇迹. 仙子何年此地遊. 李堦詩. 春磨凹石猶初刳. 偷負沈碑半夜天.]

깊고 깊어 푸르른 죽도에	深深蒼竹島
아름다운 옥절구 소리	英英玉杵臼
어찌 그리 빨리 돌려 갈아는가	磨轉何太速
많이 갈아서 짧은 시간	千刳彈指久
효험이 좋은 약을 다시 찜지 않으니	玄霜不再擣
운영 <sup>170)</sup> 을 볼 수 있을지	雲英能見否
나는 바위에 술통을 만들어	我欲作窪樽
오랫동안 포도주나 담아두려오	長盛葡萄酒.

○ 청초호 용갈이(草湖龍耕)

쌍성호 일명 청초호라고 한다. 부의 남쪽 사십 리에 간성과 경계에 있다. 둘레가 수십 리고, 매년 겨울 얼은 후에 얼음이 갑자기 물결을 일었다. 북쪽 기슭에 남쪽 기슭까지 마치 쟁기질로 물결을 갈라 얹은 것 같은 형상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르기를 용갈이한다고 하였다. 이에 이것으로 한해의 짐을 졌다고 한다.[雙成湖. 一名青草湖. 在府北四十里杆城界. 周數十里. 每冬月合凍後. 冰忽鱗起. 自北岸至南岸. 有若犁破狀. 村人謂之龍耕. 以此占年云.]

눈 속의 아름다운 풀은	雪裏種瑤草
용과 신선의 부름임을 아네	知有呼龍仙
긴 호수가 밭이 되어	長湖爲十畝
얼음 갈이가 연기 같이 갈구나	耕冰如耕烟
서릿발이 갑자기 햇살에 번쩍이고	霜鱗乍閃暎
하늘의 쟁기는 어찌 빙빙 도는가	雲耜何蹁躚
스스로 갈이 하고 또 비가 오는데	自耕又自雨
어찌 풍년이 아니라고 근심하는가	何憂不豐年

170) 운영(雲英): 중국에 배향이라는 인물이 남교를 지나다가 목이 말라 한 老嫗의 집에 들어가서 물을 청하자 노구가 처녀 운영을 시켜 물을 가져다주었다. 배향이 물을 마시고는 운영에게 장가들기를 청하자, 노구가 옥저구(玉杵臼)를 얻어오면 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배향이 옥저구를 얻어와 마침내 운영에게 장가들어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

○ 상운정의 송림(祥雲松林)

상운정은 부의 남쪽 20여 리에 있다. 바닷가의 장송이 울창하여 뜨는 해가 보이지 않는다. [祥雲亭. 在府南二十餘里. 傍海長松森鬱. 仰不見日.]

해돋는 바다가 막혀서	遮障扶桑池
작은 풀언덕이 환상으로 변화였구나	移幻小茅嶺
용왕의 분노를 변화하고자 하니	龍鱗欲變化
서리 맞은 나무 고고하고 굳센 것을 근심하네	霜幹愈孤勁
술 취해 백접리를 벗고	醉脫白接離
바람 쏘일 때 머리 드러내네	灑風時露頂
지금부터 팽택령 벼슬 그만두고	從今彭澤令
다시는 삼경(171)을 그리워하지 않네	不復戀三徑

○ 큰 제방의 수양버들(大堤楊柳)

현산 서쪽에 사방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대제라고 부른다. [峴山西傍. 有通衢. 俗稱大堤]

버들 빛은 아름다운 큰 제방에	大堤嫩柳色
푸른 비단 옷 입고 계집아이 노니네	遊女翠羅襦
현산의 배꽃이 날리니	梨花峴山雨
한가로이 제방을 그리며 희롱하네	閒弄蘓堤圖
산옹은 길거리에서 취하여	山翁街頭醉
늘어진 수양버들 좋구나	好掛青絲壺
하늘하늘한 버들가지 꺾으려하니	欲借裊裊枝
영랑호 물결이 출렁이네	搖蕩永郎湖

○ 봉정암의 고고한 탑(鳳頂孤塔)

봉정암은 설악산 정상에 있어 굽어보면 만개의 봉우리와 동쪽으로는 넓은 동해를 접해 있다. 시원하게 뚫린 골은 견줄 데 없고 암자 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가히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곳이다. 유의하여 세운 탑이 고고하게 높이 솟아 있는데 언제 창건

171) 삼경(三徑): 정원(庭園) 안의 세 갈래의 좁은 길. 뜻이 변(變)하여 은자(隱者)의 문안의 뜰 또는 그 주거(住居)를 이룸.

했는지 알 수 없다. 곁에 두 개의 술 단지 구멍이 있는데 이는 지극히 오래 전 배를 매  
던 곳이라고 전한다. 봉정암 아래 이십 리 쯤에 십이폭포가 있고, 폭포 서쪽에 김시습  
이 살던 옛 터가 있다.[鳳頂菴. 在雪嶽絕頂. 俯視萬峯. 東臨大海. 爽豁無比. 菴西有大巖.  
廣可坐數千人. 當心造塔. 突兀孤起. 不知創自何世. 而傍有石罅二孔. 傳是浩劫繫舟處云.  
鳳頂下二十里許. 有十二瀑. 瀑西. 有清寒子舊基.]

공경스럽고 고고한 봉정암은	翼翼孤鳳頂
봉래산과 서로 마주 대하며 버티네	對峙蓬萊嶽
바다를 굽어보니 바위의 형세가 장엄하고	俯海石勢壯
하늘 높이 탑 그림자 우뚝 솟아있네	摩空塔影矗
넓고도 넓어 궁리하기 어렵고	洪荒莽難窮
누가 옛날에 배를 매었는가	誰是維舟客
김시습의 집터 또한 갈려서 없어졌는데	清寒亦磨滅
어느 곳에서 구름 폭포 찾고 있을까	何處尋雲瀑

○ 선림원지의 부서진 비석(沙林斷碑)

사림사는 부의 서쪽 칠십 리 산협에 있는데 다만 절은 없고 절터만 남아 있다. 절 앞의  
석비에 곧 매월당이 왕희지의 글자체로 집자하여 홍각선사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필획  
이 완연하여 실물과 흡사하여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이 완상하였다. 근자에 나무꾼들이  
두들겨 부서 조각난 비로만 남아있다.[沙林寺. 在府西七十里山峽間. 寺廢但有舊址. 寺前  
石碑. 卽梅月堂. 集王右軍字. 記弘覺師行迹者也. 筆畫宛然逼真. 人多寶玩. 近爲樵牧撞碎.  
斷碑猶存.]

깨어진 비석을 누가 보물인지 알았겠는가	斷碣孰知寶
내가 그 비석 아래서 잠자려고 한다오	我欲宿其下
김시습의 문장은 고고하고	梅堂文高古
난정의 필체가 변화했네	蘭亭筆變化
작게 깨어진 비석 용의 기세 솟구치니	微分跳龍勢
글자를 얻어 베껴서 전하리라	能傳換鵝寫
양양(중국) 부사가 한 조각 돌비석에	羊公一片石
남의 손을 빌리는 못함이 한스럽다	恨未此手借

○ 오색령에서 고사리 캐기[西嶺采蕨]

오색령은 부의 서쪽에 있으며 고비와 고사리가 많이 생산된다.[五色嶺, 在府西, 多生薇蕨.]

끝 매봉 남쪽에 산물이	季鷹南山物
이제부터 오색령에서 생산되네	今從西嶺生
어린 아이 주먹 쥔 듯 하고	已作小兒拳
나물국은 천리에 으뜸이다	不下千里羹
다만 놓아버리면 없어질까 두려워	但恐放筋空
광주리를 기울이니 가득하여 좋네	猶喜傾筐盈
지금부터 고기 낚지 않고	從今不釣魚
비 그쳐 화창하니 새순 고사리 따리라	和雨摘新莖

○ 북진의 고기구경[北津觀漁]

북진은 낙산사 서쪽 수 리 쯤에 있다. 태수는 낙산사에 들렀다가 매양 북진에서 고기구경을 하였다.[北津, 在洛山西數里許, 太守每自洛寺, 觀漁於此津云.]

고기잡이 배가 후진에 모이니	漁艦簇北津
검은 그물이 운연같네	緇網如雲烟
작은 고기는 거두지 않고 버리니	盈尺棄不收
방어와 연어 뛰어오르는 물소리	灑灑騰魴鯉
용백국의 거인을 따라	欲從龍伯國
여섯 마리의 자라를 잡으려오	一釣六鰲連
뱃머리에서 사공이 웃으면서	堪笑槎頭客
다만 방어의 못을 묶는구나	但解縮項編

○ 냉천의 옛집(冷泉故居)

냉천은 오봉산 아래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관세음보살이 벼 베는 여인으로 변화하였는데, 고승 원효대사가 지나가다 냉천에서 물을 마시며 부인과 희롱하였다고 한다.[冷泉, 在九峯山下, 世傳, 觀音化爲女刈稻, 高僧元曉, 因取飲冷泉與之戲謔.]

정추의 시

鄭樞詩

바닷가 산이 밝은 세상 되기 전해왔는데  
 금년까지 몇 번이나 흥망을 보았네  
 가을빛이 온 들에 젖어 붉은 벼가 수북하고  
 해가 오봉산에 비쳐서 붉은 연기 오르네  
 덕녀(德女)의 옛터엔 잔디가 섬돌을 덮었고  
 원효의 남긴 자리에는 나무가 하늘에 닿았네  
 누에 올라 상사(相思) 꿈을 맺고자 한다면  
 꿈속에도 응당 냉천을 잔질하네

海岸山從赫世傳  
 幾看興廢迄今年  
 秋涵一野亞紅稻  
 日照五峰生紫烟  
 德女故居莎覆砌  
 曉公遺迹樹連天  
 登樓擬結相思夢  
 夢裏還應酌冷泉

관세음보살이 아난으로 변화하여  
 들에서 예쁘게 변화하여 수척해 보이네  
 일찍이 눈이 내리기 전에  
 논에서 벼를 베는구나  
 고승 원효도 여자를 희롱하다가  
 바로 넘어져 실패하였네  
 아름답게 꾸민 여인의 옥정을 깨달아야 하고  
 냉천에 풀만 무성하구나

觀音化阿難  
 天冶幻枯槁  
 曾不散天花  
 而來刈田稻  
 高僧亦解佩  
 泥絮乍顛倒  
 尙學羅裙色  
 萋萋冷泉草

○ 검달동의 황폐한 터(黔洞荒墟)

검달동은 부의 남쪽 팔십 리 아주 험한 산골에 있다. 첩첩한 산중에 봉우리가 둥글게  
 굴러 쌓여 있어, 인적이 드물다. 즉, 김시습이 은거하던 곳으로 옛 자취가 남아 아직 있  
 다. 속세에 전하기를 오세 동자(김시습)가 살던 터라고 말한다.[黔達洞. 在府南八十里山  
 谷間絕險處. 疊嶂環擁. 人迹罕到. 卽梅月堂舊隱處. 遺址尙存. 俗傳五歲童子基云.]

그대는 본래 청한함을 알고 있지만  
 살기 좋은 곳으로 어찌 검달동을 선택했는지  
 김시습의 이야기 전하는데  
 오랜 세월 뜻이 변치 않네  
 쓸쓸히 고사리 캐던 노래를  
 후세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을까  
 텅 빈 김시습의 집터만 남아  
 오류(五柳)의 시간이 보일 듯 말듯하구나

知君本清寒  
 卜地焉取黔  
 猶傳五歲童  
 不死千年心  
 悽悽采薇歌  
 後世誰知音  
 空餘小梅月  
 掩映五柳陰

○ 남호당에서 바다를 바라보며(灑堂望海)

남호당은 부의 태평루에서 동편으로 수십보 정도에 있다. 한 면을 굽어 바다를 보면서 예전에 유상하던 곳이다. 당은 훼손되어 복구되지 않았다.[納灑堂. 在太平樓東數十步許. 俯海一面. 舊爲遊賞之所. 堂毀未復.]

남대천과 더불어 흥겨운 주연에	習池與漢水
잡된 것에 물들지 않네	不足一染指
내 황죽 발을 말아 올리니	卷我黃竹簾
남호당에서 보는 푸른 바다 최고구나	盡納滄溟水
영웅들이 연회를 즐기고	鯨鵬戲樽俎
소인들은 침상에서 여자와 노니네	蟾鷓掠枕几
때로는 신선의 뗏목을 만나	時時遇槎仙
물길이 얼마나 되는지 묻노라	窮河問道里

○ 영혈사에 스님을 찾아감(靈穴尋僧)

영혈사는 설악산에 있다. 신라 승려 원효대사가 창건한 곳으로 옛날에는 고승이 많았다고 한다.[靈穴寺. 在雪嶽. 新羅僧元曉所創建. 舊多高僧云.]

능엄경을 스스로 읽지 못하니	楞嚴不自讀
모든 번뇌 누구와 이야기 할까	誰與講空有
잠시 떠나 벗과 흥겨운 주연을 즐기는데	暫謝習池伴
불문(佛門)의 벗이 찾아오네	來訪空門友
벼슬 생활이 그 얼마인가	已許玉帶鎮
부부의 정을 애석해 하지 마라	莫惜鴛鴦綉
백련사에 들어가려고 하니	欲入白蓮社
이 포도주는 어찌 하나	奈此葡萄酒

『鳴巖集』

다음 시는 양양부사 이해조(1660-1711)가 조선조 최고인 문인으로,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산수를 즐겼던 당대의 스승인 김창흡(1653-1722)선생께 드리자 이에 같은 제목으로 화답하였다.



## 김창흠

○ 현산 삼십경을 읊으며[峴山三十詠]      삼연(三淵)      김창흠(金昌翁)<sup>172)</sup>

○ 설악산의 맑은 경치[雪嶽晴光]

높고 높이 솟아 태초부터 빛나	峩峩太始白
추위와 더위 어느 때 쉴 날이오	寒暑豈歇時
바다위의 해는 사그라지지 마오	海日莫銷鑠
붉은 구름 신기하게 피어오르네	紅雲發神奇
신선의 벼슬을 군성 서쪽에서 하며	僊尉郡城西
매양 두 손 턱 괴고 읊조리며 바라보네	吟望每支頤
요대 <sup>173)</sup> 의 수천점	瑤臺數千點
거센바람 백접리 <sup>174)</sup> 에 뿌리는구나	飄洒白接離

○ 한수의 봄 물결[漢水春波]

오대산은 한수의 발원	五臺我嶧冢
푸른 물결 해구 <sup>175)</sup> 에 출렁이네	滄浪漾海口
맑은 강물은 사조 <sup>176)</sup> 의 화려한 시가 되고	澄爲謝朓練

172) 김창흠(1653, 효종4~1722, 경종2)의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이다. 좌의정 상헌(尙憲)의 증손자이며, 영의정 수항(壽恒)의 셋째아들이다. 형은 영의정을 지낸 창집(昌集)과 예조판서 지돈녕부사 등을 지낸 창협(昌協)이다. 15세에 이단상(李端相)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친명(親命)으로 응시하여, 1673년(현종 14)에 진사시에 합격한 뒤 과장에 발을 끊었다. 백악(白岳) 기슭에 낙송루(洛誦樓)를 짓고 동지들과 글을 읽으며 산수를 즐겼다. 1681년(숙종 7)에 김석주(金錫胄)의 천거로 장악원주부(掌樂院主簿)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1689년 기사환국 때 아버지가 사사되자 영평(永平)에 은거하였다. 『莊子』와 사마천(司馬遷)의 『史記』를 좋아하고 시도(詩道)에 힘썼으며, 친상을 당한 뒤에는 불전(佛典)을 탐독하여 슬픔을 잊으려 하였다. 1696년에 서연관(書筵官)에 초선(抄選)되고, 1721년(경종1)집의에 제수되었으나, 이듬해 영조가 세제(世弟)로 책봉되자 세제시강원(世弟侍講院)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임하고 나가지 않았다. 사회로 절도에 유배된 형 창집이 사사되자 지병이 악화되어 죽었다. 형 창협과 함께 성리학과 문장으로 널리 이름을 떨쳤고, 이황(李滉)의 주리설(主理說)과 이이(李珣)의 주기설(主氣說)을 절충하는 형 창협과 같은 경향을 띠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 양근(楊根)의 미원서원(迷源書院), 덕원의 충곡사(忠谷祠), 울진의 신계사(新溪祠), 양구의 서암사(書巖祠), 강릉의 호해정영당(湖海亭影堂), 포천의 요산영당(堯山影堂), 한성의 독충당(篤忠堂)에 제향되었다. 저서 『삼연집』, 『瀋陽日記』 등이 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173) 요대(瑤臺): 신선이 사는 곳.

174) 백접리(白接離): 두건의 일종.

175) 해구(海口): 바다가 육지 쪽으로 후미져 들어간 곳.

푸른 물결은 이백의 술이오  
 난주<sup>177</sup>)는 푸른 물결에 떠내려가고  
 시에 능해 한수 동쪽을 지키네  
 굽지 않는 파리옥의 빛  
 비로소 술 열 말에 취할 수 있구나

綠是李白酒  
 蘭舟橫碧落  
 能詩漢東守  
 不枉玻璃色  
 方許醉十斗

○ 낙산사의 해맞이[洛伽觀日]

이화대<sup>178</sup>)는 아득히 멀고  
 가까이 산호가 지 있구나  
 붉은 해가 금기둥과 함께 솟구쳐 올라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키네  
 빈왕<sup>179</sup>)은 취령<sup>180</sup>) 뒤에  
 누가 바다를 둘러보고 시를 썼나  
 만약 물으면 하늘 밖의 일  
 구담<sup>181</sup>) 또한 알지 못하네

迢遙梨花臺  
 咫尺珊瑚枝  
 紅盆與金柱  
 指點每於斯  
 賓王鷺嶺後  
 誰爲觀海詩  
 若問天外事  
 瞿曇亦不知

○ 울산바위의 소문[天吼聞風]

무릇 어찌하여 불평이 있는가  
 굉효<sup>182</sup>)는 맑게 갠 하늘에 많네  
 요조숙녀는 스스로 알고  
 큰 파도 바람에 급히 보네  
 5월에 어찌 기다려 짐치나  
 산천은 본래 서로 통하는구나  
 어느새 사물과 나를 깨닫고  
 돌아보니 공허하여 이치를 궁구하겠는가

夫何有不平  
 訇哮殷晴空  
 窈窕知所自  
 倏見洪濤風  
 箕月豈待占  
 山澤本相通  
 於焉了物我  
 回沈理何窮

176) 사조(謝朓): 육조시대시인. 글이 맑고 화려함.  
 177) 난주(蘭舟): 목련으로 만든 아름다운 배.  
 178) 이화대(梨花臺):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 할 때 앉아서 좌선했던 곳.  
 179) 빈왕(賓王): 당나라 초기 유명한 시인.  
 180) 취령(鷺嶺): 석가모니가 설법한 인도의 영취산.  
 181) 구담(瞿曇): 부처.  
 182) 굉효(訇哮): 바람이 대단히 부는 소리.



○ 의상대사의 기적[義相異蹟]

나를 버려 그렇게 환영으로 변화 된 몸  
부처의 모든 묘상을 구하였네  
신령스런 수정염주 구슬 마음속에 떨어져  
자죽<sup>183</sup>은 정상<sup>184</sup>에 솟아났네  
부도<sup>185</sup>는 일마다 변화하고  
배는 구렁에 이미 간 자취 있네  
청조는 가버려 그림자도 없고  
먼 곳을 보니 구름 사이에 물결 광대하구나

捨爾幻化身  
求佛勝妙像  
靈珠落念頭  
慈竹生頂上  
浮屠事多幻  
舟壑迹已往  
青鳥去無影  
極目雲濤廣

○ 관음보살의 신상[觀音神像]

원통전에는 눈이 천개이신 관음보살  
사는 곳은 향해(香海)<sup>186</sup>의 구불구불한 곳  
버들가지에 감수 뿌리고  
중생은 관정<sup>187</sup>을 우러러 보네  
관음보살상 옥을 다듬어 만들는데  
보배로운 달빛 머금었구나  
고된 일 맡아 꽃 드리는 중생  
관음보살의 신령스러운 자취 함께 아우르네

圓通千眼佛  
住處香海廻  
楊枝洒甘露  
衆生仰灌頂  
神像玉琢成  
中含寶月炯  
辛勤獻花徒  
靈迹與之並

○ 계조암의 미묘한 동굴[繼祖幽窟]

계조암 굴은 거대한 낭떨어지기에 굴  
주위에 제단 나누어져 있다  
고승은 감실에 편안하고  
부좌하고 이끼무늬 옷 입었네  
문 앞에 달마존자 계시는데  
향을 사르며 받드는구나  
화로연기 부드럽게 아래로 흘러가고

嵌空巨崖廣  
周遭壇宇分  
高僧安一龕  
趺坐著苔紋  
門前達摩尊  
奉以名香焚  
爐煙冉冉去

183) 자죽(慈竹): 가을에 채취하는 대. 일명 관음죽.

184) 정상(頂上): 관음보살의 이마.

185) 부도(浮屠): 고승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하는 묘탑.

186) 향해(香海):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향수로 된 바다.

187) 관정(灌頂): 受戒하여 불문에 들어갈 때 향수를 정수리에 끼얹는 의식.

설악산 고개의 구름 날아 쫓아가네

飛逐雪嶺雲

○ 비선대 층층이 깊은 소[飛僊層潭]

경대의 맑은 물 굽어보니  
부채같은 청봉이 펼쳐졌네  
비선대 생길 때 묘리를 갖추었나  
어찌 그 세가 이리도 기이하고 장엄한가  
명산을 나막신으로 두루 돌아  
처음부터 맘에 들어 신선 사는 곳 상상하네  
떨어질 듯한 금강암  
놀라 탄식하고 다시 지팡이 잡으오

瓊臺俯金潭  
石扇排靑嶂  
融峙備衆妙  
豈惟勢奇壯  
名山蠟屐遍  
始愜丹丘想  
欲落金剛巖  
驚吁更拄杖

○ 권금성에 남은 성가퀴[權金殘堞]

산에는 수십 마리 핑이 있고  
띠에 얽힌 오래된 터가 남아 있네  
물정이 어두워 속세의 사소한 일로 싸우고  
권씨와 김씨가 있는지 없는지  
생기고 무너져 쓸쓸히 나무와 돌만 남아있고  
증거는 마침내 산 속 짐승들이오  
편안함과 위태함 바르게 헤아리기 어려워  
길게 읊조리며 남은 보루 어루만지며 한숨 쉬네

雲根數十雉  
帶縈尙餘址  
茫昧蠻觸世  
有無權金氏  
成壞空木石  
憑據竟鹿豕  
安危莽難平  
長嘯撫殘壘

○ 쓸쓸한 하조대[河趙空臺]

영웅의 기상 세상 선비에게 바라는데  
견식 넓은 이 모두 동쪽으로 가네  
함께 이 하조대에 임하여  
어찌 계책을 꾀하지 않는가  
바위 벌인 곳에 도깨비 서 있고  
파도 일어 떨어지자 고래상어 울부짖네  
하늘과 땅 이곳에는 분별이 없고  
오래도록 이름 남긴 짝은 길이 생생하구나

風雲希世士  
觀海亦東走<sup>188)</sup>  
同臨此臺上  
有何講畫否  
巖排鬼魅立  
浪輸鯨蛟吼  
乾坤此無倪  
寄名偶不朽

188) 동주(東走): 두보 시에 의하며 선비들이 관의 먼지를 털고 출세할 수 있게 된 의미로 사용 하였다.

○ 현산에서 달맞이[峴首待月]

오랜 세월 동안 진실로 작은 산  
아주 멀리서 달이 좋아 찾아왔네  
밤에 찾아와 밤에 가지 않으니  
어찌 존망을 느끼지 못하겠는가  
깊이 생각하니 부드럽게 바람에 흔들리고  
고개 돌려 타루비<sup>189</sup>)를 돌아보네  
신선들에게 물을 수 없어  
잔 잡고 흰머리 보며 웃음 짓네

千年自小山  
萬里來好月  
來夜非去夜  
寧不感存沒  
長懷緩帶風  
却顧墮淚碣  
羣僊不可問  
把杯晒霜髮

○ 춘암의 화전놀이[春巖賞花]

복사꽃 자두꽃 고을에 만발하지만  
어찌 무릉천 같으랴  
숲을 뚫고 명주 양산 쓰고 화전놀이 가서  
다시 가련함 있음을 들었노라  
바위의 꽃은 봄의 일종으로  
물을 바라보며 아름다움 즐기네  
못 밑의 붉음을 바라보는데  
자신도 모르게 바위 위에서 잠을 자는 구나

爛漫桃李縣  
何似武陵川  
穿林阜蓋往  
更聞有可憐  
巖葩一種春  
臨水弄嬋娟  
貪看潭底紅  
不覺石上眠

○ 무산의 구름과 비[巫山雲雨]

신령한 설악산의 한 자락에서 생겨  
조각조각 모든 산이 험준하네  
멀리 초나라 푸른 하늘 나누어  
작은 무산<sup>190</sup>)이 되었네  
나는 구름에 정이 있다면  
비로 어두워 미인의 머리 잘못 되었네  
아마도 새벽에 원숭이 울음소리인 듯  
단풍나무 숲 사이에 분명하지 않네

靈嶽所抽枝  
片片皆孱顏  
遙割楚天碧  
結爲小巫山  
雲飛若有情  
雨暗失翠鬢  
猶疑曉猿聲  
隱約楓林間

189) 타루비: 부사 이상일(1644년, 인조22에 7월에 양양부사로 도입하였다)의 선정비.  
190) 무산(巫山)- 중국 사천성과 호북성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巫山之夢'의 고사인 옛날 초나라 襄王이 꿈에 무산의 여신과 밀회하였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으며, 남녀의 밀회를 뜻하는 말.

○ 연기가 나무를 가린 녹문[鹿門煙樹]

군 서쪽 가운데 푸릇푸릇한 아름다운 경치  
 바라보니 뽕나무와 산뽕나무 무성하네  
 아득히 먼 곳에 연기 절로 생겨  
 어둑어둑 저물 새 가까이에서 마을을 바라보네  
 논밭 같고 곡식 심음에 즐거움이 있음을 알고  
 처자는 탈 없이 잘있네  
 가히 유형주<sup>191</sup>)를 알겠노라  
 길게 탄식하며 녹문에 감사하오

郡西半莽蒼  
 望中桑柘繁  
 漠漠自生煙  
 曖曖相望村  
 知有耕耘樂  
 妻子以安存  
 可知劉荊州  
 長嘆謝鹿門

○ 지산의 세 가지 뛰어난[芝山三秀]

흰 구름 가장 깊은 곳에  
 곳곳에 영초가 돌아났네  
 부드러운 자경<sup>192</sup>)을 채취해 오니  
 이름도 아름답고 맛 또한 좋구나  
 구가부터 세 가지 뛰어난<sup>193</sup>)으로  
 먼 옛날 상산에 네 노인 있네  
 큰 소리로 노래 부르니 여운의 이치  
 기꺼움과 감개가 외로운 가슴에 가득하네

白雲最深處  
 遍地生靈草  
 採來紫莖柔  
 名佳味亦好  
 三秀自九歌  
 千古有四皓<sup>193</sup>)  
 浩歌理餘韻  
 欣慨滿孤抱

○ 순지의 백경[蓴池百頃]<sup>194</sup>)

풀 우거진 못에서 순채를 캘 수 있는데  
 바닷가에 물결이 조용히 이네  
 줄기를 거두니 수많은 가닥이 은빛으로  
 삼위<sup>195</sup>)가 목으로 들어가는 것 같구나  
 고상하고 멋있는 부규<sup>196</sup>)를 좋아하고  
 우연히 맛있는 농어 맛 보네

芳池可採蓴  
 激灑海之澗  
 抽莖萬縷銀  
 入喉三危露  
 風雅鳧葵興  
 氣味鱸魚偶

191) 유형주(劉荊州): 유표(劉表)가 형주자사로 있었기 때문에 유표를 유형주라고 부른다.  
 192) 자경(紫莖): 삼대가 자주색인 삼.  
 193) 사호(四皓): 한나라 고조 때 商山에 은거해 살던 네 노인.  
 194) 백경(百頃): 밭백이랑(百畝)의 지적.  
 195) 삼위(三危): 仙藥의 한가지.  
 196) 부규(鳧葵): 순채의 하나.

누가 능히 이 맛을 알리오  
한번 맛보니 세속의 구속에서 벗어나네

誰能知此味  
一嘗解塵組

○ 태평루의 풍악[太平歌管]

조용한 태평루에서 홀로 거문고 그치고  
뜰에 양부의 악기를 들여 연주하니  
뜻이 넓어 백리에서도 들려  
수부에게까지 진동하네  
높은 누각에서 팔풍<sup>197)</sup> 불어  
넓은 하늘 많은 신선들 춤을 추오  
큰 물결 시끄러움을 더하며  
바다 위에 뜬 달 또한 삼키고 토해내네

清軒捨孤琴  
庭納兩部鼓  
思廣百里聽  
震蕩及水府  
樓高八風會  
天闊羣僊舞  
鯨波助轟開  
海月亦吞吐

○ 동해신묘에서 제사[海廟香火]

아명<sup>198)</sup>의 신궁은 푸른 소나무 숲에 있어  
엄숙한 신궁을 숭상하네  
살랑살랑 신령스러운 비 내리고  
푸른 깃발 동쪽에 나타난다  
떼 지어 나는 구데기 부화하는 폐단이 생기니  
관리의 게으른 몸 용납하라  
어선은 바다 가운데 섞여 있으니  
제발 바람 사납게 부지마오

阿明碧松宅  
儼然棟宇崇  
颯颯神靈雨  
多自翠旗東  
牲幣孚胎蠻  
寧容吏惰躬  
漁舶交海中  
毋使起盲風

○ 죽도의 신선 절구[竹島僊臼]

천지는 두개의 돌을 갈려고  
하느님은 손을 쉬지 않았구나  
둥근 돌은 크고 작은 것이 없고  
바닷가에 또한 오목한 절구 있네  
갈기를 다하면 바다가 육지가 되고  
형체가 있는 것은 썩어 없어지지 않네

天地兩片磨  
化翁不輟手  
圓機無大小  
海滸亦凹臼  
磨窮海爲陸  
有形孰不朽

197) 팔풍(八風): 팔방에서 부는 바람.

198) 아명(阿明): 동해신명(名).

마고신선에게 물으니  
또한 이런 이치가 있는가 하오

借問麻姑僊  
亦解此理否

○ 청초호의 용갈이[草湖龍耕]

잠룡<sup>199</sup>은 변화에 익숙하여  
연못에 밭이 있는 것 같네  
몸을 보존할 여력이 있어  
밭갈이 마치니 얼음이 단단히 얼었다  
쟁기질 흔적은 강하게 나타나  
호수기슭에서 짐을 친다  
몹시 더운 날 또 비를 내리니  
용은 어느 때 쉬는가

潛龍變化熟  
在淵若在田  
存身有餘力  
耕罷氷腹堅  
犁痕隨闊狹  
湖岸占來年  
炎天又行雨  
龍兮幾時眠

○ 상운정의 송림[祥雲松林]

상운역은 길이 편안하고  
좁은 길에 많은 소나무 가지런하네  
응당 왕래부터 있어야 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모령과 통하네  
뜨거운 기운에 몇 사람이나 더위 먹었나  
음기가 많으면 도리어 겨울이 춥네  
다시 생각하니 생학<sup>200</sup>이 저녁에 내려오려나  
달과 함께 걸어서 잡념 없이 조용히 가네

祥雲驛路平  
夾路萬松整  
種應自徂徠  
韻若通茅嶺  
炎塵幾人暍  
密陰反冬冷  
更思笙鶴夕  
携月步虛靜

○ 큰 제방의 수양버들[大堤楊柳]

어느 곳에 일찍 봄이 찾아오는가  
대제는 질탕하게 노는 길  
제방 가에 황금 수양버들 무성하니  
아름다움이 맑게 개인 호수를 더하네  
산공<sup>201</sup>은 홀로 취하지 않으니

何處入春早  
大堤冶遊途  
堤上鬱金枝  
婀娜拂晴湖  
山公不獨醉

199) 잠룡(潛龍): 승천할 때를 기다리며 물속에 잠겨 있는 용.

200) 생학(笙鶴): 주무왕의 태자 딸이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피리 불며 하강하였다는 고사.

201) 산공(山公):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산도(山濤).

악기를 남녀들이 갖추었네  
습가지<sup>202</sup>)에 쫓아다니고  
수양버들 언덕에 푸른 말이 매어 있구나

歌管士女俱  
歸從習家池  
柳岸繫青駒

○ 봉정암의 외로운 탑[鳳頂孤塔]

봉정암은 세속에서 멀리 벗어나  
비대는 많은 사람이 앓을 수 있는 돌이네  
동으로 부상의 붉은 해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봉래산의 흰 봉우리가 인사하네  
크고 넓은 굴껍데기 붙어있고  
배 매었던 자리는 아직도 남아있다  
구름 사이 외로운 탑 솟아있어  
부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구나

鳳頂迴出世  
飛臺萬人石  
東指扶桑赤  
北挹蓬萊白  
洪荒蟾著崖  
繫舟猶有迹  
雲間起孤塔  
不知何佛力

○ 사림사의 깨진 비석[沙林斷碑]

불제자라 일컫는 홍각선사를  
어찌 도인들 알지 못하겠는가  
매월당 또한 기이한 것을 좋아하여  
돌에 옮겨 베껴 장식했네  
예학의 글 솜씨보다 힘차고  
청해서 글씨를 얻으니 운치가 아름답다  
위협하여 저버리지 않게 힘이 어떠한가  
조각내 넘어뜨려 거칠 수풀 아래 있네  
김시습이 홍각선사<sup>203</sup>)의 비를 세웠다. 왕희지의 글자체를 모아 새겼다고 말한다.[東峯爲弘覺立碑. 集右軍筆蹟而刻之云.]

頭陀曰弘覺  
不知何道者  
梅月亦好奇  
石面賁傳寫  
瘞鶴筆意活  
換鵝風流假  
如何劫未灰  
斷仆荒林下

○ 오색령에서 고사리 캐기[西嶺採蕨]

서산에 일찍 불이 나  
한차례 비에 푸른 고비가 돌아났네  
바구니 들고 나물 캐러 가니

西山早燒餘  
一雨綠薇生  
持筐于以採

202) 습가지(習家池): 진(晉)나라 산간(山簡)이 양양(襄陽)을 다스렸는데 항상 그곳을 찾아 만취했다는 고사.  
203) 홍각선사(弘覺禪師): 신라 때의 스님.

나는 그 이름을 사랑했네  
누가 맛이 쓰다고 했는가  
가히 장부는 충절에 힘쓰시오  
돌아보니 마음이 비리고 씩었으니  
다소 바위와 산봉우리에 정이 있게 하오

紛吾愛其名  
誰云此味苦  
可勵丈夫貞  
願迴腥腐腸  
稍存巖岫情

○ 후진의 고기구경[北津觀魚]

후진에 물고기 종류가 많아  
그물과 통발이 많은 배를 따른다  
고래 새우는 모두 물결과 같이 움직이고  
도마 올려 방어와 연어를 요리하네  
갈대는 사람들이 깃이 갈색이라고 생각하고  
관주<sup>204</sup>)는 오직 좋은 곳을 택하였네  
춘추로 아가위를 훼손하니 싫어하고  
다시는 유연<sup>206</sup>)을 즐기지 말라하네

北津鱗介湊  
罾罟比千船  
鯨蝦舉波蕩  
登俎用魴鯉  
蘆人惟羽褐  
官廚但擇鮮  
春秋譏矢棠<sup>205</sup>)  
勿復樂流連

○ 냉천의 옛집[冷泉故居]

서광이 구봉 아래 있어  
가을 경치는 노인초이네  
어떤 인연으로 냉천에서 잔질 하였나  
미인이 있어 분홍 벼를 베고  
모름지기 색시공을 아는가  
깨끗함과 더러움 두개의 도가 아니네  
관세음보살 어찌 쉽게 얻으랴  
나습<sup>207</sup>)은 늙어서 깨닫고 돌아갔네

祥光九峰下  
秋色老忍草  
何緣酌冷泉  
有美刈紅稻  
須知色是空  
淨染不二道  
觀音豈摩登  
羅什還曉老

옛날에 전하기를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벼를 베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서로 희롱하였는데 관음보살이 여자로 현신하였다고 말한다.[古傳元曉遇一女刈稻于此地。與之相戲。蓋觀音現女身云.]

204) 관주(官廚): 수령의 음식을 만드는 곳.  
205) 당(棠): 아가위(산사자-山査子-. 산사나무의 열매)  
206) 유연(流連): 노는데 팔려 집으로 돌아가기를 잊음.  
207) 나습(羅什): 인도스님 구마나습



○ 검달동의 황폐한 터[黔洞荒墟]

동봉이 뜬구름처럼 돌아다니며 자취를 남겨  
 무릇 깊은 숲에서 다하였다  
 홀로 쳐다보니 이곳이 설악산  
 두루 찾아보니 검달동의 깊은 계곡이구나  
 고기잡고 나무 하는데 오세라 부르고  
 고결한 학덕 만고의 마음이라  
 고비 캐는 무리가 있어야  
 석담을 또한 알아주는 벗이라네

東峰雲遊迹  
 大抵盡窮林  
 孤瞻雪嶽邇  
 遍搜黔谷深  
 漁樵五歲喚  
 水月萬古心  
 要之採薇徒  
 石潭亦知音

○ 남호당에서 바다를 바라봄[灑堂望海]

물건이 커야 꽤 볼 수 있고  
 해외는 다시 물이 없다  
 당고<sup>208</sup>를 굉장이라 칭하는데  
 남호당의 기운은 만리에서 들어오네  
 천지는 나무뿌리가 드러나  
 세월의 처음과 끝을 볼 수 있네  
 돌아보니 큰 자라의 등뼈 아닌가  
 바로 이 집의 난간이네

物大有可觀  
 海外無復水  
 堂高稱宏量  
 灑氣納萬里  
 乾坤露根柢  
 日月見端始  
 還疑巨鰲脊  
 卽此軒檻是

○ 스님이 찾는 영혈사[靈穴尋僧]

신령한 스님이 이 절에 오래 머물었는데  
 인품 모두 신비함이 있네  
 돌아가는 봉우리에 따라 학이 머물고  
 샘이 솟고 길에서 호랑이 표호하네  
 동재에서 불경 한 권 들고 읽는데  
 태수가 찾아 왔네  
 팽택<sup>209</sup>에서 높은 자리 능히 할 수 있는데  
 원공<sup>210</sup>은 술로 병들지 않는 다오

神僧所卓錫  
 風氣團妙有  
 峰廻隨鶴止  
 泉涌經虎吼  
 東齋貝葉書  
 扣玄來太守  
 能爲彭澤高  
 遠公不病酒

208) 당고(堂高): 집을 짓기 위해 땅을 높이 돋운 부분.

209) 팽택(彭澤): 진(晉)의 도연명(陶淵明)은 팽택(彭澤)의 수령이 되었으나. 관리생활에 염증을 느끼자 80여일 만에 사직한 내용이다.

210) 원공(遠公): 진나라 고승인 慧遠.



남효온

○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남효온(南孝溫)

백두산이 여진(女眞)의 경계에서 기원되어 남으로 조선국 해변 수천 리에 뻗었다. 그 산의 큰 것은 영안도(永安道)에 있어서는 오도산(五道山)이요, 강원도(江原道)에 있어서는 금강산(金剛山)이며, 경상도(慶尙道)에 있어서는 지리산(智異山)인데, 수석이 가장 빼어나고 또 특이한 것은 금강산이 제일이다. 산 이름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골(皆骨), 하나는 풍악(楓岳), 하나는 열반(涅槃)인데 방언(方言)이요, 하나는 지달(枳怛), 하나는 금강(金剛)인데 화엄경(華嚴經)에서 나왔고, 하나는 중향성(衆香城)으로 마하반야경(摩訶般若經)에서 나왔는데 신라 법흥왕(法興王) 이후의 칭호이다.

내가 삼가 살펴보니, 부처는 본시 서융(西戎)의 태자이다. 그 나라가 중국 함양(咸陽)과 9천여 리가 동떨어져서, 유사(流沙)·흑수(黑水)의 먼 땅과 용퇴(龍堆)·총령(葱嶺)의 험산으로 한계하여 중국과 더불어 통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중국을 넘어서 동국(東國)에 이 산이 있는 줄을 알았겠는가.

특히 이 산이 있는 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조선국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로써 상고하면 주 소왕(周昭王)의 세대는 우리나라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중엽에 해당되고, 부처는 실로 서방(西方)인 사위국(舍衛國)에서 낳았다. 그 불설(佛說)의 천함(千函)·만축(萬軸) 속에 무한의 세계를 말했으나, 일찍이 한마디 말로 ‘조선국’이라 칭한 것이 없은즉, 그가 이 나라 이 산을 알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정녕 부처가 설법할 때 그 일을 과장하여, 바다 가운데 금강·지단·중향 여러 산이 있는데, 억만의 담무갈(曇無竭)이 그 권속을 거느리고 있다 하여, 어리석은 속인(俗人)을 놀라게 하기를 장주(莊周)의 곤봉(鯤鵬) 천지(天地)의 설과 고사(姑射)·구자(具茨)의 논과 같이 하여, 까마득한 가운데 말을 붙여 두고 고대(高大)한 지경으로 세속을 놀라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는 무식한 대중을 뒤흔들어 피어내자는 것에 불과하다.

어찌 참으로 금강·지단이 이처럼 괴이한 것이 있겠느냐. 부처가 말을 붙여 둔 것이 이와 같은데, 신라 스님으로 부처를 배우던 자도 역시 망령되어 스스로 자기 나라를 높이 평가하여 풍악(楓岳)으로써 금강산을 만들고, 담무갈의 상(像)을 추작(追作)하여 망령된 말 실지화한 것임에랴. 동해를 지적한 것인 줄을 알 것이요. 동서남북이 바다 아닌 것이 없거늘, 어찌 유독 동해(東海)만이 해중이 되려고 하여 풍악을 금강으로 단정하려는 것인가.

더더구나, 우리나라를 중국에서 비록 해외(海外)라고 하지만, 서북은 물으로 요동(遼東)을 연(連)하고, 그 사이에 다만 압록강 하나가 가로막혔을 뿐이며, 압록강이 결코 바다가 아닌데 우리나라를 지적하여 해중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틀린 말이다.

그러나 금강의 칭호가 세대를 지난 지 오래라, 즐지에 변경하기 어려워서 나 역시 ‘금강산’이라 지칭한다. 대개 산의 모양이 하늘의 남북에 우뚝 솟아 큰 땅덩어리로 누르고 있는데 큰 봉우리가 36봉이요, 작은 봉우리가 1만 3천봉이다. 한 가지가 남으로 이백여 리를 뻗었는데, 산 모양이 높고 뾰족하여 대략 금강의 본상과 같은 것은 설악산(雪岳山)이요, 그 남쪽에는 곁따른 영(嶺)과 악(岳)이 있다.

동쪽의 한 가지가 또 하나의 작은 악(岳)을 이뤘으니 천보산(天寶山)인데, 하늘이 장차 눈이나 비가 오려면 산이 저절로 운다. 그러므로 이름을 읍산(泣山)이라 한다. 읍산이 또 양양(襄陽) 고을 후면을 돌아서 바닷가로 닫는데, 오봉(五峯)이 특별히 섰으니 낙산(洛山)이다. 금강의 한 가지는 또 북으로 백여 리를 뻗어 한 고개가 있으니 이름은 추지(湫池)요, 추지의 산이 또 통천(通川) 고을 후면에서 잔산(殘山)과 서로 만나서 실날 같이 끊어지지 않고 북으로 굴러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것은 총석정(叢石亭)이다. 산의 동쪽은 통천(通川)·고성(高城)·간성군(杆城郡)이요, 서쪽은 금성현(金城縣) 회양부(淮陽府)이다. 산에 벌여 있는 것이 부(府)가 하나, 군(郡)이 셋, 현(縣)이 하나이다.

을사년 4월 보름날에 서울을 출발하여 보제원(普濟院)에서 유숙하였다.

정묘일에 90리를 가서 입암(笠巖)에서 유숙하였다. 무신일에 소요산(逍遙山)을 지나서 큰 여울을 건너 60리를 갔다. 연천(連川) 거인(居仁)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기사일에 보개산(寶蓋山)을 지나고 또 철원(鐵原) 고동주(古東州) 들을 지나고 남으로 머리 돌려 백여 리를 갔다. 금화(金化)에서 유숙하였다. 경오일에 금화현(金化縣)을 지나서 60리를 갔다. 금성(金城) 향교(鄉校)에서 유숙하였다.

신미일에 창도역(昌道驛)을 지나서 보리진(菩提津)을 건너 78리를 갔다. 신안역(新安驛)에서 유숙하였다. 임신일에 비에 막혀 신안(新安) 후동(後洞) 백성 심달중(沈達中)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계유일에 우독현(牛犢峴)을 건너서 화천현(花川縣)을 지나고 보리진(菩提津) 상류(上流)를 건너 추지동(湫池洞)으로 가는데, 시내를 따라 올라가니 일기가 매우 차고 산의 나무는 바람을 받아 한 쪽으로 기울어져 연한 잎이 겨우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아가위는 만발하여 진달래는 아직 싱싱하니, 일기가 서울보다 2, 3배나 차운 것을 깨달겠다. 추지(湫池)는 보리진에서 나오고, 보리진은 금강산 외두설(外兜率)에 이르러 금성진(金城津)과 더불어 합하고 또 산기슭을 다 지나서 만포천(萬瀑川)과 더불어 합하고, 또 춘천(春川)에 이르러 병항진(瓶項津)과 더불어 합해서 소양강(昭陽江)이 된다.

예를 들면 나무꾼이 우연히 그곳에 갔다가 두 번 다시 찾으니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산 아래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선경(仙境)이 되었다고 한다. 재마루에 추지원(湫池院)이 있고 추지원을 지나니 동쪽 가에 하늘빛이 매우 새파랗다. 운산(雲山)이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아니고 바로 바닷물이다.” 하므로, 나는 눈을 씻고 다시 살펴본 연후에야 하늘과 물을 구별하게 되었다. 그 물이 언덕과 동떨어져서 차츰 멀어질수록 높아져 아슬하게 하늘과 더불어 서로 맞닿았으니, 평소에 본 물[水]은 모두 이이들 재룡에 불과하다. 재마루에 동으로 내려가니 일기가 점점 따뜻하여 철쭉이 바야흐로 피고, 나뭇잎이 그늘을 이루어 비로소 여름 맛이 난다. 왕왕나무를 깎아 질러 길을 보수 하였으니, 이른바 잔도(棧道)라는 것이다. 때때로 말 위에서 산 살구를 따서 먹었다.

재마루에서 20리를 가니 중대원(中臺院)이 있다. 또 5리를 더 가서 냇가에서 요기하고 비로소 평지를 밟기 시작했다. 또 15리를 더 가서 통천군(通川郡)에 당도하였다. 이날에 산을 걸은 것이 모두 90리요, 평지를 걸은 것이 15리였다. 군수(郡守) 자달(子達)을 찾아보니 자달(子達)이 나를 동헌(東軒)의 별실에 있게 한다. 자달의 춘부장이 나를 매우 다정스레 대우하였다. 갑술일에 자달과 작별하고 15리를 가서 총석정(叢石亭)에 도착하였다.

나는 그 아래 이르러 보니 과연 돌산이 바다 굽은 턱으로 들어가 뱀 형상과 같이 칭칭 감았다. 산이 바다에 들어가 그치는 대목에 사선정(四仙亭)이 있다. 정자에 다다르기 전 3, 40보 거리에서 북으로 한 가닥 길을 넘으니, 네 돌이 바다 속에서 솟아나 자른 듯이 석주(石柱)를 묶어놓은 것 같다. 총석이란 이름을 얻은 것이 이 때문이다. 바다 서쪽 변안(邊岸)은 모두 총석의 형태로 되어 1마장쯤 뻗었다. 총석의 곁에 하나의 평석(平石)이 또한 물 가운데 있고, 작은 돌이 잡되게 쌓여 물으로 연했다. 나는 운산(雲山)과 더불어 맨발로 기슭을 내려가 평석 위에 앉고, 종놈을 시켜서 석결명(石決明)·소라(小螺)·홍합·미역 등의 종류를 따오게 하였다. 운산과 더불어 두 손을 모아 물을 받아 서로 희롱하며 고개를 쳐들어 멀리 바라보니, 하늘 끝과 땅 끝이 툭 띄어 유리 명경이 서로 비치는 듯하고, 위언(韋偃)과 곽희(郭熙)가 재주를 다하여 그림을 그려 놀던 것 같았다.

그래서 뒤송송하여 꿈속이 아닌가 의심하다가 한참만에야 밝혀졌다. 나는 사랑스러워서 떠나려고 하지 아니하니, 운산이, “해가 벌써 많이 갔다.” 한다. 나는 비로소 걸어 나와 사선정에 오르니, 정사에 손순효공(孫舜孫公)의 현판시(懸板詩)가 있고, 또 중인[僧人] 석자(釋子)의 이름과 호가 많이 씌어 있다. 나는 그 안에 앉아서 한 바다를 굽어보니 네 총석(叢石)이 더욱더 기이하며, 보이는 것은 아래 평석(平石)에서 보는 것과 같으나 안계(眼界)는 더욱 광활하다. 정자 남쪽에 기울어진 비석이 있는데, 글자가 없어져서 어느 때에 세운 것인지 알 수 없고, 정자 동쪽으로 약 4,50리쯤에 섬 하나가 바다 가운데 있어 완연히 서로 마주 대한 것 같으며, 정자 밑 바위 아래 두어 척 배가 오라가락하여 고기를 낚고, 남으로 어점(漁店)이 있어 어부들이 그곳에서 그물을 말린다.

물 가운데 온갖 잡새가 좌우로 날아들어 우짖는데, 어떤 것은 몸이 하얗고, 어떤 것은 몸이 검으며, 어떤 것은 부리가 길고, 어떤 것은 부리가 짧으며, 어떤 것은 부리가 붉고, 어떤 것은 부리가 파랗고, 어떤 것은 꼬리가 길고, 어떤 것은 꼬리가 짧으며, 어

편 것은 날개가 검고, 어떤 것은 날개가 푸르러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나는 사언시(四言詩) 네 수를 정자 기둥에 쓰고 조금 앉았노라니, 풍량이 일었다. 그래서 내려와 바닷가 백사장을 따라 나가는데, 모래가 허해서 말발굽이 빠지고, 오직 물가의 추진 땅만이 굳어서 굽이 빠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는 간혹 언덕에 대질러 말안장에까지 뛰어오르므로, 말이 놀래서 언덕으로 나온다. 종놈을 시켜 말고삐를 끌고 가는데 풍경이 더욱 아름답고 왕왕 모래통이 산을 이루었다. 바다가 뒤집힐 적에 물결에 밀린 것이다. 또 바닷물이 백사장 가에서 혹은 모여서 배설되지 않는 것과, 혹은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조그마한 흰 돌이 뒤섞여서 해안을 이룬 것도 있고, 또 못 돌이 쫙긋하게 바닷가에 서서 송곳 같은 것, 채찍 같은 것, 사람 같은 것, 짐승 같은 것, 머리는 크되 부리는 뾰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사석(沙石)가에 해당화가 서로 잇달아 혹은 꽃이 피고, 혹은 망울이 맺고, 혹은 붉고, 혹은 희고, 혹은 단엽(單葉)으로 되고, 혹은 여러 잎으로 되었다.

나는 도중에서 요기하고 60리를 가서 동자원(童子院)을 지나 등도역(登道驛)에서 유숙하는데, 밤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걷히고 나무가 뽑혔다. 을해일에 등도역을 출발하여 만안역(萬安驛)을 지나는데, 경유하는 곳마다 방죽이 많고, 바닷가의 보이는 것은 전날과 같았다. 웅천(瓮遷)에 당도하니, 쌓인 돌이 언덕을 이뤄 대략 총석(叢石)의 백분지 일이나 된다. 웅천을 다 지나니 조그만 돌벼랑이 있어 푸른 독을 깎아지르듯 하고 냇물이 서쪽에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위 밑을 빙 둘러 거위알처럼 특 튀었다. 종놈을 시켜 미역을 따서 국을 끓이게 하고, 석결명(石決明)을 따서 소금에 구워 점심을 먹었다. 장정(長井)의 해변(海邊)을 지나서 고성(高城)의 온정(溫井)에 당도하니, 온정은 바로 금강산의 북동(北洞)이다.

이날 60리를 걸었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두견새 소리를 들었다. 병자일에 바람이 불어 둔정에서 머물렀다. 정축일에 금강산에 들어가 5,6리를 걸어서 한 고개를 넘어 남으로 신계사(新戒寺)에 들어갔다. 고개의 동쪽에는 관음봉(觀音峯)이 있고, 북쪽에는 미륵봉(彌勒峯)이 있다. 서쪽에 한 봉우리가 있는데, 미륵봉에 비하면 더욱 빼어났으나 그 이름은 무엇이지 알 수 없다. 또 그 서쪽에 한 봉우리가 멀리 구름 밖에 있으니, 비로봉(毗盧峯)의 북쪽 가닥이다. 신계사는 곧 신라 구왕(九王)이 창설한 것인데, 중 지료(智了)가 고쳐 지으려고 재목을 모으고 있다. 절 앞에 지공백천동(指空百川洞)이 있고, 그 남쪽에 큰 봉우리가 있는데 바로 보문봉(普門峯)이다. 그 봉우리 앞에는 세존백천동(世尊百川洞)이 있다.

동 쪽에는 향로봉(香爐峯)이 있고 향로봉 동쪽으로 큰 봉우리 일곱이 서로 연하여 큰 산 하나를 이루었는데, 관음봉·미륵봉에 비하면 몇 십배가 되는지 알 수 없다. 하나는 비로봉의 한 가닥이요, 하나는 원적봉(元寂峯)의 한 가닥이요, 또 하나 위가 평평한 것은 안문봉(雁門峯)의 한 가닥이요, 또 하나는 계조봉(繼祖峯)의 한 가닥이요, 또 하나는 상불사의(上不思議)요, 또 하나는 중불사의(中不思議)요, 또 하나는 하불사의(下不思議)

다. 불사의라는 것은 암자 이름인데, 신라 중 율사(律師)가 지은 것이다.

일곱 봉의 아래에는 대명(大明)·대평(大平)·길상(吉祥)·두솔(兜率) 등의 암자가 있어 세존천(世尊川)의 곁에 있다. 나는 지공천(指空川)을 걸어 보문암(普門庵)을 넘어 산으로 5·6리 가니 솜대[綿竹]가 길을 이루었다. 암자 아래 도착하니 사주(社主) 조은(祖恩)은 바로 운산(雲山)의 친구라 나를 대접하는 것이 자못 정의가 있었다. 암자에 올라 앉으니 동북은 바다가 바라보고 동남은 고성포(高城浦)가 보인다. 암자 앞에 나옹(懶翁) 근선사(勤禪師)의 자조탑(自照塔)이 있다.

자리가 정해지자 조은이 생생한 배[梨]와 잣을 대접하고 다음에 밥상을 드리는데, 목이(木耳 버섯)와 석이(石耳)도 있고 산나물이 없는 것이 없었다. 때마침 두견새가 낮에 우니 밑은 깊은 산중임을 알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조은과 작별하고 산으로 5·6리를 가서 발연(鉢淵)을 지나고, 거기서 또 반 마장을 더 가서 발연암(鉢淵庵)에 이르렀다. 중이 전하기를, “중 율사(律師)가 이 산에 들어오니 발연의 용왕(龍王)이 살 수 있는 땅을 지시하였다.

그래서 절을 짓고 이름을 발연암이라 하였다.” 한다. 암자 뒤에 봉우리 하나가 있는데 보문암에서 바라보던 일곱 봉우리의 맨 끝 봉이다. 암자 위로 조금 가면 폭포가 있어 수십 길을 드리우고, 좌우에는 모두 흰 돌이 있어 다듬은 옥과 같이 미끄러우니 앉을 수 있고 누울 수도 있다. 나는 행장을 풀어 놓고 두 손을 모아 물을 받아 입을 축인 다음 꿀물을 마시었다. 발연의 고사(故事)에 “유희(遊戱)를 좋아하는 중들이 폭포위에서 나뭇가지를 꺾어 놓고 그 위에 앉아 물 뒤에 놓아 물결을 타고 순류로 내려간다. 그러면 교(巧)한 자는 순하게 내려가고, 졸(拙)한 자는 거꾸로 내려가는데, 거꾸로 내려가게 되면 머리와 눈이 물에 빠져서 한참 허우적거리다 도로 나오니, 곁의 사람들이 모두 깔깔 웃었다.

그러나 그 돌이 미끄럽고 운택해서 비록 거꾸로 날아와도 몸이 상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희롱하기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나는 운산으로 하여금 먼저 시험하게 하고 뒤를 이어 따라갔는데, 운산은 여덟 번을 해서 여덟 번을 다 맞히고, 나는 여덟 번 해서 여섯 번 밖에 못 맞혔다. 그리고 바위 위로 나오니 손뺑을 치고 모두 웃는다. 이에 책을 베고 돌 위에 누워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사주(社主) 축명(竺明)이 와서 나를 끌고 사(社)로 들어가 사의 뒤뜰에 있는 비석을 보게 하였다. 비석은 바로 율사(律師)의 뼈를 저장한 비로서, 고려 중 형잠(瑩岑)의 소작이요, 때는 승안(承安) 5년 기미 5월이었다. 비 곁에 마른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율사의 비가 섬으로부터 5백여 년에 세 번 마르고 세 번 번성했는데, 지금 다시 말랐다고 한다. 구경을 다하고 도로 암자로 내려와 밥을 적에 저녁밥을 먹고 또 폭포에 갔다가 밤이 깊고 찬기가 들어 서야 비로소 들어왔다.

무인일에 발연을 떠나 폭포 하류를 건너 소인령(小人嶺)을 올라가는데, 재가 험악하고 준급하여 걸음걸음이 쳐다보고 올라가기만 하니, 소인이란 이름을 얻은 것이 빈 말

이 아니라는 것을 믿겠다. 나는 열 걸음에 아홉 번을 쉬어서 바야흐로 첫 번 고개를 올라가니 유점산(楡岾山)이 왼편에 있고 불사의봉(不思議峯)이 바른편에 있으며, 동해(東海)가 뒤에 있고 환희점(歡喜岾)이 앞에 있다. 소인령(小人嶺)이 무릇 여덟 고개인데, 점점 나아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일곱 번째 고개에 당도하면 세 불사의봉과 더불어 나란하고, 그 나머지 여러 산은 다 눈 아래 있다.

통천(通川)·고성(高城)·간성(杆城) 등 세 고을이 산 밑에 벌여 있고 아득한 바다를 바라보면 하늘과 더불어 가이 없다. 여덟 번째 고개를 오르니 불사의봉이 이제는 아래 있다. 여기서 서쪽으로 돌아 산그늘을 따라가는데, 길은 너무도 험준하며 측백(側柏)은 길에 비껴 있고 동청(冬靑 사철나무)은 섞여서 나고, 쌓인 눈은 골짜기에 가득하고, 송라(松蘿 소나무 겨우살이)는 나무를 칭칭 감았다. 나는 호표(虎豹)에 걸앉고 규룡(虯龍)에 오를 나뭇가지를 더위잡고 가게 되어, 몹시 피곤하기에 눈을 가져다 꿀을 타서 마시니 갈증이 문득 풀린다.

이윽고 다시 나서서 돌고 돌며 영금영금 기어서 환희점을 오르니, 소인령의 제 팔봉 보가 또 한두 등(等)이 더 높다. 점(岾)의 동쪽은 토봉(土峯)이 하나요, 점의 서쪽은 석봉(石峯)이 셋이다. 환희점을 넘어 남으로 내려오니 철쭉이 텃불을 이루는데 날씨가 차서 망울만 맺고 꽃은 피지 않았다.

작은 시내 하나 있는 데를 당도하여, 손과 얼굴을 씻고 또 작은 고개 하나를 넘어 두솔암(兜率菴)에 당도하였는데 이름을 백전(柏田)이라고 한다. 발원에서 여기까지가 삼십여 리나 암자에 들어가 한참 동안 앉았다가 도로 나와 출발하여 1리쯤 가서 적멸암(寂滅菴)에 들어가니, 중 하나가 가사(袈裟)를 입고 입정(入定)하였다. 암자 뒤에 토산(土山) 하나가 있는데 적멸봉(寂滅峯)이요, 암자 앞 골짜기 동쪽에 석산(石山)이 있는데 성불봉(成佛峯)이다. 암자를 지나서 또 돌아서 서북으로 향하여 곧장 한 골짜기로 내려가니 두 개천이 어울려 흐르고 수석이 맑고 상쾌하다. 바로 12폭포의 원류이다.

내를 건너서 올라가니 개심암(開心菴)이 있고, 그 암자에 들어가니 중이 납의(衲衣)를 입고 있을 따름이다. 또 개심전대(開心前臺)에 올라 여러 봉우리를 바라보니, 앞에는 적멸봉 하나가 있고 뒤에는 개심후봉(開心後峯)이 둘이 있고, 왼편으론 백석봉(白石峯) 하나가 있는데, 이 봉은 봉우리가 스물다섯이다. 그 아래는 운서굴(雲栖窟)이 있고 바른편에는 동구(洞口)이다. 다시 암자로 돌아와 요기하고 서울에서 온 거사(居士) 송생(宋生)이란 자를 보니 그 말이 몹시 허황했다. 운산이 말하기를, “지금 해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 이 암자에서는 유숙할 필요가 없고 다시 떠나서 더 가는 것이 좋겠다.” 하므로, 나는 그 말을 따라 개심후점(開心後岾)을 넘으니, 이 재는 환희재에 비해 한두 등급이 더 높다. 이로부터는 돌과 나무가 모두 하얗다. 왼편으로 가니 높은 봉 둘이 마주 섰고, 바른편으로 가니 석봉(石峯) 하나가 송곳과 같이 뾰족한데 아래에는 계조굴(繼祖窟)이 있다. 남쪽 가에 두 봉이 있어 솔과 잣나무가 울창하다. 두 봉이 합친 곳에 오르니 개심후절에 비해 또 한두 등급이 더 높다. 그 등성이를 따라 남으로 내려가니, 측백나무

가 길을 메우고 두견화가 만개하여 진한 향기가 코를 찌른다. 동(洞)은 바로 대장동(大藏洞)인데 수석이 맑고 상쾌하여, 지나온 곳은 이에 비교가 안 되고 동(洞)은 또 그윽하고 깊다. 이 물 근원을 따라가면 3·4일 후에 바야흐로 비로봉(毗盧峯)에 당도한다고 한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면 내의 북쪽에는 석봉이 다섯이요 남쪽에는 석봉이 둘인데, 그 중 하나는 흰 돌이 포개져 서책(書冊)을 쌓아 놓은 것 같다. 호승(胡僧) 지공(指空)이 이곳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안에 대장경이 있으므로 동(洞)이 이로 인하여 대장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행장을 풀고 오래도록 앉아 구경하며 석상에서 노숙할 계획을 하니, 운산이 말하기를, “안개가 사람에게 스며드니 곤란하다. 오늘은 날이 비록 저물었지만, 오히려 원적암까지는 갈 수 있다.” 하므로, 그 말에 의해 대장봉(大藏峯)을 따라 서쪽으로 가니, 돌로 된 봉 다섯이 바른편에 있고 흙으로 된 봉 아홉이 왼편에 있고, 골짜기 물은 남쪽으로 쏜다.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 바른편 산중 허리를 끼고 한 큰 재에 오르니, 이름은 안문점(雁門岾)인데 안문봉(雁門峯)의 남쪽 가닥이다. 재는 대장후점(大藏後岾)에 비해 또 한 두 등급이 더 높다. 고개를 내려가 서쪽으로 접어들어 시내를 따라가니 왼편에는 산이 있는데, 모두 소나무, 잣나무가 늘어서서, 그 봉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겠고, 바른 편에는 큰 봉 다섯이 있는데, 모두 내산(內山)의 남쪽 가닥이다. 냇물 남쪽 토산(土山)의 서쪽에 솟은 봉 셋이 있어 그 머리가 보이는데, 그 중 하나는 관음봉(觀音峯)이다. 그 봉 아래 돌이 있어 부처 형상과 같은 고로 그런 이름을 얻은 것이다. 그 아래 원적천(元寂川)은 안문천(雁門川)과 더불어 서로 합쳐, 맑고 넓은 것이 대략 대장동 물과 더불어 비슷하다. 잠깐 동안 앉아 구경하고 물줄기를 거슬러 북으로 올라가니, 밟히는 것이 모두 시냇가 하얀 돌이요, 좌우로 산 수십여 봉우리가 흰 병풍을 두른 것 같았다.

이윽고 원적암에 당도하니 암자 뒤에 큰 봉이 있어, 지난 여러 봉에 비하면 몇 백배나 더 높은지 알 수 없으니 이른바 원적봉이요, 원적봉 남쪽에 봉이 있어 원적봉에 비하면 몹시 낮게 보이나, 여러 봉우리에 비하면 또한 차이가 있으니 이른바 원적향로봉(元寂香爐峯)이요, 암자 동남쪽을 바라보면 토봉(土峯) 하나가 높이는 원적봉과 같고 그 위는 오목하니, 이른바 안문봉이다. 중이 이르기를, “사자가 그 위에서 새끼를 기른다.”고 한다. 백전(柏田)에서 여기까지가 또 30리이다. 암자에 중 계능(戒能)이 있어 문자를 조금 이해한다. 기묘(己卯)일에 원적암을 출발하여 오던 길을 따라 내려가 안문수(雁門水)와 합류하는 시내 위에 손을 씻고 입을 축이고 물줄기를 따라 문수암(文殊庵)을 지나 묘길상암(妙吉祥庵)에 당도하니, 암자가 시냇가에 있어 수석이 매우 명쾌해 보였다. 여기서부터 철쭉이 피기 시작했다. 냇물 남쪽에 봉우리 넷이 있고, 냇물 북쪽에 깎아지른 듯한 석벽 하나가 있다.

나는 시냇가 반석 위에 앉아 양추를 하고 암자에 들어가 제명(題名)하였다. 암자에는 노승 도봉(道逢)이란 자가 있었는데 용문사(龍門寺)의 사승(邪僧) 처안(處安)과 회암사(檜岩寺) 사승 책변(策卞)이 모두 대우하여 스승으로 섬기니, 이 때문에 명망이 여러 절



에 펼쳐 재물을 모은 것이 가장 많았다. 나를 보고 인사하는데 매우 거만하므로 나는 말도 하지 않고 나와 버렸다. 시내를 따라 서쪽으로 가니 절터가 있고, 절터 안에 돌부처가 석벽 사이에 새겨져 있다. 절터 아래 큰 돌이 있어 위가 편편한데, 냇가 곁에 있으므로 나는 그 위에 앉아 잠깐 쉬었다. 북쪽에는 봉 여덟이 있고 남쪽에는 관음봉 이하 다섯 봉이 있고, 북쪽에는 여덟 봉이 있고 그 뒤에 큰 봉 돌이 있어 그 머리가 보이는데, 그 중 하나는 원적봉으로 서쪽으로 향해 있고, 그 중 하나는 월출봉(月出峯)인데 남쪽으로 향해 있고, 그 아래는 불지암(佛知庵)과 거빈굴(去賓窟)이 있다.

나는 이 두 암자를 지나서 마하연(摩訶衍) 전대(前臺)에 이르니, 담무갈(曇無竭)의 석상(石像)이 있다. 대(臺)는 바로 이 산의 한 중심지인데 담무갈은 이 산의 주불(主佛)이다. 그러므로 승속간(僧俗間)에서 여기를 지나는 이는 손을 모아 절하고 가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런데 운산은 지팡이로 그 이마를 두들겼다. 늙은 중 나옹(懶融)이 마중 나와서 나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마하연의 사적을 보여 주었다. 이때에 우는 비둘기가 뜰 안에 가까이 다니니, 산 사람의 기심(機心)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뜰에 있는 풀은 그 형상이 부추와 같은데 그 꽃이 조금 붉다. 나옹은 말하기를, “옛날 지공(指空)이 이 산에 들어와 말하기를, ‘이 산은 흙이나 돌이 모두 부처형상으로 되었는데 유독 여기에만 없다.’ 하여, 부처를 세워 예배하였으니 바로 산정(山頂)의 석관음(石觀音)이다. 그 부처가 선 곳에 이 풀이 나서 지금 백여 년이 지났어도 시들지 아니하니, 산 사람이 지공초(指空草)라고 부른다. 지공은 남천축국(南天竺國) 술사(術士)로서 고려 말에 들어와 그 도술로서 불법을 널리 선포하였다.”고 한다.

나는 만경대(萬景臺)로 가는 것을 나옹에게 청하니, 나옹은 자못 싫어하며 비로봉의 정상은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한다. 나는 나옹과 작별하고 만회암(萬灰庵)에 당도하여 종놈을 시켜 밥을 지어 싸가지고 만경대에 오르기로 하니 만회암 중도 역시 싫어하며 말리면서 하는 말이, “길이 없으니 가서는 안 됩니다.” 한다. 그리고 운산 역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내가 강행하여 한 산마루를 넘어 한 골짜기를 내려가고 또 한 마루를 올라 나뭇가지를 더위잡고 내려가는데, 낙엽이 쌓여 무릎이 빠지고 썩은 나무가 겹쌓여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분간할 수 없고 새 한 마리도 울지 아니하며, 다만 두어 길 폭포가 숲 밖에서 울릴 따름이다. 운산이 바윗돌을 타고 올라가니 폭포 위에 또 폭포가 있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으므로, 운산은 몸이 오싹하여 간신히 내려오며 하는 말이, “산길을 이미 잃어버렸으니 수목 밑만 억측하고 무인지경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 돌아가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만회암으로 와서 요기를 하고 도로 마하연을 지나고 또 묘봉(妙逢) 사자(獅子) 두 암자를 지나서 사자 목에 이르니, 그 돌에 쇠줄이 밑으로 드리워져 사람이 더위잡고 올라가는 잡이로 삼았다. 민채(閔漬)의 유점기(楡岾記)에 이르기를, “호승 종단(宗坦)이 이 산에 들어와서 차지하고자 하니, 사자가 길목에 와서 막고 있으므로 종단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운산은 산마루의 한 돌을 가리키며 저것이 사

자의 형상이라 하는데, 나는 자세히 보니 자못 사자와 같지 아니하고 바로 투박한 하나의 둥근 돌이다.

넷물이 여기 와서는 더욱더 기이하고 맑아서 10여 리가 한결같이 하얀 돌이 끊어지지 않고, 곳곳마다 폭포가 있어 그 아래는 깊은 못이요, 못 아래도 역시 폭포가 있다. 그러므로 동명(洞名)을 만폭동(萬瀑洞)이라 하니, 폭포가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나는 서쪽 가를 따라 내려갔다. 사자항에서 서쪽 가로 내려가면 봉 넷이 있는데, 하나는 윤필봉(潤筆峯)이요, 하나는 비로봉(毗盧峯)의 향로봉(香爐峯)이요, 하나는 향로봉의 다음 봉이요, 하나는 금강대(金剛臺)이다. 동쪽에 봉 셋이 있는데 모두 이름이 없다.

이 세 봉을 다 지나면 보덕굴(普德窟)이 있고, 굴 앞의 냇가에 하얀 큰 반석이 있어 수백 명이 앉을 수 있으며, 아래위로 폭포가 있고 폭포 아래는 모두 못이 있다. 반석에 앉아서 암자를 쳐다보니 매우 아름다웠다. 중국 사신 정동(鄭同)이 와서 이 산을 구경할 때에, 한 두목이 있어 하느님께 맹서하기를, “이는 참으로 불경(佛境)이니 원컨대 여기서 죽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부처의 세계를 보련다.” 하고 드디어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지금 저 위 못이 바로 그 못이다. 나는 바위 면에 이름을 쓰고 굴에 오르는 데, 돌을 쌓아서 운계(雲梯)를 만들어 높이가 수백여 길이다. 그 계단을 다 지나면 암자가 벽 사이에 걸려 있는데, 구리 기둥 두 개가 약 두어 길 되는 것으로 고이고, 기둥 위에다 집 하나로 짓고 쇠줄 하나를 만들어, 한 끝은 기둥에 매고 한 끝은 돌에 매어 또 쇠줄 하나를 만들어, 그 집을 묶어서 두 끝을 돌에 매고 관음(觀音)의 소상을 그 위에 안치하였다. 또한 사(社)를 지어 중이 거처할 곳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그 곁에다 집 하나를 만들어 포주(庖廚)로 삼았다. 승사(僧舍)의 서쪽 관음굴(觀音窟)의 위에다 대(臺) 하나를 두어 이름을 보덕대(普德臺)라 하였는데, 보덕(普德)이란 것은 관음 화신(化身)의 이름이다.

나는 먼저 승사(僧社)에 들어가니, 바로 친구 동봉(東峯) 청한자(淸寒子)의 벽기(壁記)가 있고, 허주(虛舟)의 그림이 있다. 이윽고 사(社)에서 굴로 내려오니 쇠줄이 돌이 있으므로 나는 더위잡고 내려오는데, 판자 소리가 삐걱삐걱하여 공포심이 들었다.

이른바 관음 앞에는 원장(願壯)이 자못 많았다. 나는 나와서 대상(臺上)을 둘러보고 도로 승사(僧舍)로 들어가 밥을 먹고 내려와, 다시 넷물 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흰 돌이 하도 윤택하여 맨발로 거닐어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윽고 앞으로 나가 수건암(手巾岩)에 당도하니, 동봉(東峯)이 기(記)에 이르기를, “관음이 변해서 아름다운 계집이 되어 수건을 이 바위에서 씻다가 중 회정(懷靜)에게 쫓겨서 바위 밑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바윗돌이 비스듬하여 혹은 깊은 못이 되고 혹은 폭포도 되었으며, 바위 가에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되어 볼수록 심신이 상쾌하므로, 나는 앉았다 누웠다 하며 물을 희롱하여, 그 기이(奇異)함을 구경하고 떠날 줄 몰랐는데, 운산이 떠나자고 재촉하여 표훈

사(表訓寺)로 내려왔다. 서쪽으로는 금강대(金剛臺)로부터 이하에 열 한 봉을 거쳐왔고 동쪽으로는 보덕굴(普德窟)로부터 이하에 일곱 봉을 거쳐서 왔다.

이날에 산을 타고 간 것이 전부 30리였다. 주지승 지희(智熙)는 운산의 친구인데, 나를 대우하기를 매우 후히 하여 등불을 켜고 차와 밥을 준비하여 준다. 절에, 지원(至元) 4년 무신 2월에 세운 비가 있는데, 바로 원(元) 나라 황제가 세운 것으로 봉명신(奉命臣) 양재(梁載)가 글을 짓고, 고려 우정승(右政丞) 권한공(權漢功)이 글씨를 썼다. 황제가 표훈사 중을 재(齋)하여 만인의 결연(結緣)을 만든 것을 기록한 것이다. 비석의 뒷면에 태황(太皇) 태후(太后)가 은포(銀布) 얼마, 영종황제(英宗皇帝)가 얼마, 황후(皇后)가 얼마, 관자불화(觀者不花) 태자(太子) 및 두 낭자(娘子)가 얼마, 완택독심왕(完澤禿瀋王) 등이 얼마, 대소 신료(臣僚)가 얼마라는 것을 기재하였으니, 이는 곧 시주한 것을 적은 것이다. 이날 밤에 나를 위해 조그마한 침방을 치워주니 친함을 표시한 것이다.

경진일에 지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였는데 산중의 별미를 있는 대로 장만하여 나를 대접하고 노복들에게도 역시 후하게 하였다. 작별하게 되자 부채 하나 가죽신 하나를 나에게 선사하고 또 운상에게도 똑같이 선사하였다. 나는 냇가를 따라 오리쫂 내려가서 동남으로 한 산에 들어가 나무 밑으로 가는데 고개를 들어 보아도 하늘이 보이지 않으며 역로(歷路)의 봉만(峯巒)도 헤아릴 수 없었다. 또 5·6리쯤 가니 목은 성이 있다. 아마도 왜적의 난리를 피할 때에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터를 지나서 한 높은 산에 오르니 절정의 동편에 두 암자가 있는데 대송라(大松蘿)·소송라(小松蘿)이다. 여기서부터 나는 발이 다 부르터 걷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대송라에 당도하여 누워서 쉬다가 잠이 들었다. 잠이 깨자 그 절의 중 성호(性湖)에게 청하여 산길의 앞잡이가 되게 하고 망고대(望高臺)에 올라 암자 뒤 동쪽 가의 산상을 따라 측백나무 가지를 더위잡고 나ant 가지를 헤치고 한 산마루에 올라서 또 곧장 산 중허리로 내려가 거기서 돌아서 북으로 올라가니, 깎은 듯한 하얀 돌을 깎아 세운 것이 몇 천인지 알 수 없는데 드리운 것도 같고 떨어질 것도 같으며 왕왕히 쇠줄이 아래로 드리워 손으로 끊고 올라가 승상(僧床)·응암(鷹岩)의 두 봉 사이로 벗어났다. 승상(僧床)이란 이름은 봉의 아래 돌이 있어 승상과 같기 때문이요, 응암이란 이름은 봉의 위에 돌이 있어 매의 형상과 같기 때문이다. 응암(鷹岩)의 북쪽에서 절벽으로 오르는데, 혹은 나뭇가지 혹은 돌의 모서리를 더위잡았다. 모두 계산하니 암상(岩上)으로 걸은 것이 약 10여 리쯤 된다. 대상(臺上)에 오르니 4통5달(四通五達)하여 승상(僧床)·응암(鷹岩) 두 봉이 도리어 산 밑에 있고 전일 만폭동에서 거쳐서 온 여러 봉은 구질(丘埴)과 같아 분변할 수 없다.

다만 보니 진견성봉(眞見性峯)이 북쪽에 당해있고 그 봉 뒤에는 비로봉(毗盧峯)이 형세가 하늘을 고인 듯하여 여러 봉에 비하면 몇 백 배가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전에 평지에서 쳐다본 것은 바로 그 지엽이요, 상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봉우리 서쪽에 만경대(萬景臺)·백운대(白雲臺)·중향성(衆香城)이 있고 그 다음으로 마하연(摩訶衍) 후봉(後峯)이 서 비로봉과 연결하여 한 산악을 이룬 것 같다.

동북에 안문봉(雁門峯)이 있어 비로봉에 다음가고 안문봉 뒤에 대장(大藏)·상개심(上開心) 여러 봉이 있는데, 다만 뾰족한 머리가 붓끝처럼 보일 뿐이며 여러 뾰족한 봉우리 남쪽에 두 봉이 있어 여러 뾰족한 봉우리에 비하면 2·3 등급이 나직하게 보이는데, 이름은 십왕봉(十王峯)이다. 봉 뒤에 십왕백천동(十王百川洞)이 있고 냇가에 영원암(寧原庵)이 있다. 운산이 일찍이 이곳에 올랐다고 한다. 또 십왕수(十王水)가 내려와 만폭동과 더불어 합류하여 장안사(長安寺) 앞 냇가 되고 십왕봉 뒤 백천동 동쪽에 토봉(土峯) 하나가 있어 위는 평평한데 십왕봉보다 약간 높으니, 그것은 천등봉(天燈峯)이요, 그 남쪽에 솟은 봉이 천등봉보다 한두 등급 높으니, 그것은 미륵봉이요, 천등봉·비륵봉의 사이에 두 봉이 그 머리를 내보인 것은 관음봉(觀音峯)·지장봉(地藏峯)이요 미륵봉 남쪽에 토봉(土峯)이 있어 미륵봉보다 1·2등급이 낮게 보이는 것이 달마봉(達磨峯)이요, 달마봉의 서쪽에 또한 토산 하나가 있어 몹시 나직한데 그 이름은 알 수 없다. 산의 남쪽은 곧 금장(金藏) 은장면(銀藏面)이다. 장안사(長安寺) 서북쪽에 신림사(新林寺)가 있고 신림사 서북쪽에 정양사(正陽寺)가 있고 정양사 서북쪽에 개심대(開心臺)가 있고 개심대 서쪽에 개심암(開心庵)이 있다.

그 산이 위까지 통해서 수목이 새파랗게 한쪽을 내리덮었다. 그러나 그 봉이 꺾이나 낮아서 여러 봉과 비교가 아니된다. 개심대 북쪽에 토산(土山)이 있어 몹시 높아 미륵봉과 더불어 동서로 마주 섰는데, 이름은 서수정봉(西水精峯)이라 그 봉의 남쪽에는 옹호암(熊虎庵)이 있고 봉의 뒤에는 수정암(水精庵)이 있는데, 곧 비로봉 북면의 물이 쏟는 골짜기이다. 개심대의 뒤 수정암의 남쪽에 한 토산이 있어 개심대 뒷산보다 약간 높는데 이름은 발령(髮嶺)이다. 중이 이르기를, “고려 태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여기를 지나다가 이 재에 올라 비로봉을 바라보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며 머리카락을 끊어 가지에 걸고 사문(沙門)으로 들어가려는 뜻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 재를 발령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나는 대석(臺石) 위에 앉아 봉의 이름을 다 묻고서 사방을 두루보니 신기가 화평하고 상쾌하여 몸이 높은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겠다. 한 시간이 지났기로 내려가려 하는데, 안변(安邊) 중 네 사람이 뒤미처 올라오기에 네 명의 중과 함께 내려왔다. 네 명의 중은 상운점(上雲帖)으로 돌아가고 나는 승상석(僧床石)에 오르니, 심신이 오싹하여 무서운 생각이 들기로 도로 내려와 송라암(松蘿庵)에 당도하여 벽상을 보니, 친구 대유(大猶)의 이름 및 자와 절구시(絕句詩) 한 수가 있다. 이날에 산길을 걸은 것이 모두 25·6리였다. 운사월 신사일에 송라암을 출발하여 옛 성터를 거쳐 남으로 한 골짜기를 내려가 왼편으로 두 봉을 지나고 바른편으로 네 봉을 지나서 안양암(安養庵)에 당도하니 암자 뒤에 나한전(羅漢殿)이 있어 개명(開明)하여 앉을 수 있기로 나는 그 위에 앉아 일기를 썼다. 암자 앞에 깊은 못이 있으니, 이름은 울연(鬱淵)인데 김동(金同)이 빠져 죽은 곳이다. 김동은 고려 시대 부자 사람인데 평생에 부처를 좋아하여 울연의 위에다 암자를 짓고 모든 바위의 면에다 불상(佛像)을 조각하여 부처를 공양하고 중을 재(齋)하니 쌀

바리가 개성과 연속하였다. 지공(指空)이 이 산에 들어와 김동을 보고 외도(外道)라고 지적하니 김동이 불복하였다.

지공이 맹서를 지어 말하기를, “네가 옳고 내가 그르면 오늘 안으로 내가 천벌을 받을 것ियो, 내가 옳고 네가 그르면 오늘 안으로 네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니 김동이 그러자고 하였다. 지공은 마하연(摩訶衍)에 들어가서 자는데 과연 밤에 뇌성벽력이 일어나 김동사가 물과 돌에 부딪쳐 김동은 절의 부처와 절의 종 그리고 절의 중과 한꺼번에 울연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한다. 울연 위 한 마장쯤에 김동사 옛터가 있다. 안양암을 지나서 동으로 산 중턱을 돌아오니 붉은 척축과 푸른 솜대[綿竹]가 길가에 가득하다. 미타암(彌陀庵)에 당도하니, 암자 뒤에 칠봉(七峯)이 열립해 있고 암자 앞에 물이 있다.

이 물은 바로 울연의 하류(下流)이다. 주승(主僧) 해봉(解逢)에게 청하여 차 한 잔을 얻어 마시고 식사 후에 왼편으로 명수(明水)·지장(地藏)·관음(觀音) 세 암자를 지나고 바른편으로 양심(養心)·영쇠(靈碎) 두 암자를 지나니 십왕백천수(十王百川水)가 여기 와서 만폭동과 더불어 합류한다. 이곳을 벗어나니 냇가 돌들이 청흑색으로 변하였다. 미타암으로부터 십여 리를 향하여 장안사(長安寺)에 당도하니, 이 절은 바로 신라 법흥왕(法興王)이 초창하였고 원(元) 나라 순제(順帝)가 기황후(奇皇后)가 더불어 중창(重創)하였다. 바깥문에는 천왕(天王) 둘이 있고 맨 안에 법당이 있고, 좌상에 큰 부처 셋과 중 부처 둘이 있다. 부처 앞에 금으로 쓴 액자(額字)에는, “황제 만만세(皇帝萬萬世)”라 하였다.

법당의 4면에 작은 부처 만 5천이 있는데, 모두 원 나라 황제의 소작이요, 그 동쪽 모퉁이에 무진등(無盡燈)이 있는데, 그 등의 내부 4면은 모두 동경(銅鏡)으로 되고, 가운데다 촛불 하나를 두고 곁으로 여러 중의 형상을 세워, 이내 초에 불을 붙이면 여러 중이 모두 촛불을 잡고 있는 듯한데, 역시 원 나라 황제의 소작이요, 다섯 왕불(王佛) 위에 또 다섯 중불(中佛)이 있는데, 복성정(福城正)의 소작이다. 당(堂)의 서실(西室)에 달마(達磨)의 초상이 있고 동북 모퉁이에 나한전이 있고 당에는 금불(金佛) 다섯이 있고, 좌우로 나한의 소상 16개가 있다. 나한의 곁에 각각 시봉승(侍奉僧) 둘씩이 달려 기술이 극히 정밀하고 교묘하였다. 나한전의 남쪽에 한 집이 있고, 그 집안에 대장경함(大藏經函)이 있다. 나무로 새겨 3층 집을 만들고 그 가운데 철구(鐵臼)가 있고, 철주(鐵柱)를 그 위에 두어 위로 집 대들보와 연속하게 하고, 함(函)을 그 가운데 두어 집 한 모퉁이를 잡고 흔들면 3층이 저절로 돌아가게 되니 구경할 만하다. 역시 원 나라 황제의 소작이다. 구경을 다하고 나니 주지(住持) 조징(祖澄)이 차와 밥을 준비하였다.

식사 후에 가랑비를 무릅쓰고 그 전에 오던 천변(川邊)을 따라 올라가서, 울연 보현암(普賢庵)을 지나서 신림사(新林寺)에 당도하여 잠깐 쉬었다. 장한사에서 지나온 여러 봉과 아울러, 아침나절 지나온 일곱 봉과 십왕동(十王洞) 어귀에서 바라보이는 여러 봉을 합쳐 헤아려보면, 냇물 동쪽에 봉 29개가 있고 냇물 서쪽에 봉 18개가 있다. 여기서

부터 올라가는 데는 전록(前錄)에 실려 있다. 신림사(新林寺)로부터 천친암(庵)에 오르고, 천친암으로부터 정양사(正陽寺)에 올라가면 절재[拜岾]가 바른편에 있다. 중이 말하기를, “고려 태조가 산에 들어왔을 적에, 5만의 담무갈(曇無竭)이 이곳 재에서 현신(現身)하므로, 태조는 무수히 절을 올렸다. 그래서 이름을 절재라 하였다.”고 하였다. 정양사로부터 또 비를 무릅쓰고 쌓인 수목 속으로 약 10리쯤 올라가서 보현령(普賢嶺)에 올라, 거기서 서쪽으로 3·4리쯤 올라가서 개심암(開心庵)에 당도하니, 옷이 다 젖고 또 큰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이날에 산길로 모두 40리를 걸었다.

임오일에 비가 개어 개심대에 올라 여러 봉을 바라보니, 망고대(望高臺)와 더불어 대략 같고 조금 다를 뿐이다. 비로봉 중향성(衆香城)은 동쪽에 있고 선암(禪庵) 뒷봉은 서북쪽에 자리잡고 있으니, 곧 비로봉이 서쪽 가지이다. 마가연 뒷봉은 바로 선암봉(禪庵峯) 앞에 있고 영랑현(永郎峴)은 선암봉 뒤에 있고 서수정봉(西水精峯)은 영랑현 서쪽에 있고, 월출봉(月出峯)은 비로봉 동남에 있고, 일출봉(日出峯)은 월출봉(月出峯) 남쪽에 있고, 원적봉(元寂峯)은 일출봉 남쪽에 있는데, 망고대(望高臺)는 보이지 않는다. 원적향로봉(元寂香爐峯)은 원적봉 남쪽에 있고, 안문봉(雁門峯)은 또 그 남쪽에 있고, 안문봉 북쪽에 한두 봉이 있어 멀리 보이는데, 보문(普門)에서 서쪽으로 바라보이는 것이다. 진견성봉(眞見性峯)은 또 안문봉의 남쪽에 있다. 망고대는 또 그 남쪽에 있고 십왕봉은 망고대 위에 두각만 나타내고, 천등(天燈)·관음(觀音)·지장(地藏)·미륵(彌勒)·달마(達摩) 여러 봉은 그 동남에 퍼져있는데 이는 그 대략이다. 대 남쪽에 안심대(安心臺)가 있고 대 곁에 개심태자(開心太子)의 석상(石像)이 있는데, 중이 말하기를, “이는 신라국 태자와 개심 태자가 안심태자와 양심태자 돈대부인(頓臺夫人)과 함께 여기 와서 수도하였는데, 모두 범흥왕의 아들이다.”라고 한다. 지금 네 암자가 있어 그대로 옛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런지 않은지 자상하지 않다.

식사 후에 개심암으로부터 서쪽으로 묘덕암(妙德庵)을 내려가, 견극선암(見克禪庵)에 들어가니 뒤에 느린목[緩項]이라 이름된 것이 있는데, 지공(指空)이 산에 들어오던 길이라고 한다. 천덕암(天德庵)을 지나니 암자 앞 수원부(水原府)에 사는 양반집 과부가 도산재(都山齋)를 베풀어, 중 수백 명이 산 중턱에 열지어 앉아 떠드는 소리가 온 골짜기를 요란하게 하는데, 과부는 못 중들 가운데 낫을 드러내놓고 결연(結緣)하고 있었다.

또 원통암(元通庵)을 지나니 암자의 좌우에 두개의 내가 있어, 암자 앞에 와서 합류하는데, 역시 승경이다. 여기를 지나서 원통암 뒷재 영랑현(永郎峴)을 오르니 지나온 봉이 일곱이었고, 또 윤필암(潤筆庵) 고개를 넘어 윤필암을 지나고, 또 사자령(獅子嶺)을 넘어 동으로 가니 바로 지난 날 보던 사자암이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역시 전록(前錄)에 기재되었거니와, 산천이 다름없고 하얀 돌도 여전한데, 다만 냇가 양쪽에 철쭉꽃이 지난 밤 비에 활짝 피어 끊임없이 서로 연속하여 가다가는 무더기로 있으니 구경할 만하다.

나는 그전 길을 따라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안문점(雁門岾)을 채 못가서, 동남으로

한 골짜기에 들어가 요기하고 수점(水岾)을 넘어 동으로 내려 왼편으로 시내 줄기를 보고, 바른편으로 남산을 끼고 나무 그늘 속으로 거닐어 성불암(成佛庵)에 당도하여 불암 위에 앉아 동해를 바라보니, 비가 지난 뒤라 더욱더 환하여 전날에 비할 바 아니었다. 객승(客僧) 죽희(竹熙)란 자가 나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였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죽희·성통(性通)과 더불어 불정암(佛頂庵)을 가보니 암자가 지난해에 화재를 만났다. 불정대(佛頂臺)에 올라가니 대 가운데 구멍이 있어, 산 밑 깊은 못에 통하여 바람이 그 속에서 나온다. 중이 말하기를, “옛적에 용녀(龍女)가 이 구멍에서 나와, 차(茶)를 불정조사(佛頂祖師)에게 받들었다.” 하는데, 그 말이 매우 순진하고 대 아래에 청학(靑鶴)이 해마다 그 가운데서 새끼를 기른다고 한다. 나는 대 위에 앉아 바라보니 동에는 바다가 있고 서에는 안문봉이 있고, 북에는 상개심(上開心)·적멸(寂滅)·백전(柏田) 등의 절이 있고, 그 아래는 흰 바위가 한 벼랑을 이루고 폭포가 아래로 드리워 11층을 내려가는데, 반은 숲 속에 들었고 내가 바라본 것은 6층일 따름이다. 저물녘에 돌아와 성불암(成佛庵)에서 유숙(留宿)하였다. 이날에 산길을 걸은 것이 60리였다.

계미일에 성불암에서 바다를 바라보니 여명(黎明)으로부터 하늘 동쪽에 붉은 빛이 비치더니, 잠깐 사이에 해가 솟아올라 온 바다가 다 붉게 보이고, 해가 간대[竿] 세 길이쯤 올라오니 바다 빛이 맑고 하얗다. 나는 단편시를 지어 기록하였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한 작은 고개를 넘어 10리쯤 가서 유점사(楡岾寺)에 당도하니, 구연동(九淵洞) 물 근원이 미륵봉(彌勒峯)에서 나와 절 앞에 당해서는 수점천(水岾川)과 함께 합류한다. 절에 수각(水閣)이 있어 내 남북쪽을 깔고 앉았는데, 물고기가 앞에서 뛰다가 큰물이 지면 연어(連魚)·송어(松魚)가 모두 수각 앞까지 올라온다고 한다. 절의 바깥문은 해탈문(解脫門)인데 천왕(天王) 둘이 있고, 다음은 반야문(般若門)인데 천왕 넷이 있고 다음은 범종루(泛鍾樓)가 있는데, 누 곁에 한 방에 노춘(盧僊)의 상(像)이 있고, 맨 안에 능인보전(能仁寶殿)이 있고 전 안에는 나무를 새겨서 산 모양을 만들어, 53구의 부처가 그 사이에 열립해 있고 전 뒤에는 한 우물이 있어 이름을 오탁수(烏啄水)라 한다. 맨 처음 까마귀가 쪼는 것을 보고 발견했기 때문이다. 절에 명(明)이란 사주(社主)가 있어 묵헌(默軒)·민채(閔漬)의 유점기(楡岾記)를 내보는데, 그 대략에 53구의 부처에 대해서는 본시 서역(西域) 사위국(舍衛國)에서 세존(世尊)을 보지 못한 삼만가(三萬家)가 문수보살의 말을 받아서, 석가의 상을 지어 부어[鑄] 쇠북 속에 담아 바다에 띄워 저 갈 데로 가게 하였다. 부처가 월지국(月氏國)에 이르자 그 나라 왕이 집을 지어 부처를 안치하였는데 그 집이 화재를 만났다.

부처가 왕에게 현몽하여 다른 나라로 가고자 하니, 왕이 부처를 쇠북 속에 넣어서 또 바다에 띄웠다. 부처가 신라국 고성강(高城江)에 이르니, 태수(太守) 노춘(盧僊)이 부처에게 살고자 하는 곳을 물으매, 부처가 금강산으로 들어가는지라 노춘은 뒤를 따라 찾아가는데, 중[尼]이 돌 위에 앉아 그 길을 인도한 데는 그 땅 이름을 이대(尼臺)라 하고, 개가 재 위에 있어 그 길을 인도한 데는 그 땅 이름을 구점(狗岾)이라 하고, 노루가

산협(山峽) 입구에서 길을 인도한 데는 그 땅 이름을 장항(獐項)이라 하고, 부처의 머무른 곳에 당도하여 쇠북 소리를 듣고 반긴 데는, 그 땅 이름을 환희점(歡喜岾)이라 하였다. 노춘이 남해왕(南解王)에게 아뢰어 큰 절을 지어 불상을 안치하였는데, 이름은, “유점사(楡岾寺)”라 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민채의 설이 여섯 가지 큰 망언(妄言)이 있는데 하나도 취할 것이 없다. 쇠가 물에 뜨는 이치가 없는데, 그, “사위국(舍衛國)에서 지어 부은 쇠북과, 부처가 바다에 떠나 월지국(月氏國)을 거쳐 신라에 왔다.”는 것이, 제1의 크나 큰 망언이요, 쇠란 스스로 걸어가는 이치가 없는데, 그, “고성강에 밀린 금부처가 저절로 금강산 유점사로 들어가고, 또 물탕에서 끓어오르는 물방울을 피하여 구연동(九淵洞) 바윗돌 위로 날아서 들어갔다.”는 것이 제2의 크나 큰 망언이요, 불교는 본시 서융(西戎)의 교로써 후한(後漢) 명제(明帝) 시대부터 비로소 중국에 들어왔고, 또 수백 년 후 남북조(南北朝) 시대로 신라의 중엽에 당하여 동방으로 유입되어 소신(小臣) 이차돈(異次頓)이 그 법을 이룬 사실이 국사(國史)에 실려 있는데, 그, “전한(前漢) 평제(平帝)의 세상인 신라 제2대 남해왕의 조정에 일이 있어 비로소 유점사를 창설하였다.”는 것은 제3의 큰 망언이요, 가령 민채의 설과 같이 부처가 비록 한 나라 명제 시대에 비로소 중국으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 부처가 있기는 남해왕 때부터 비롯되어, 실로 중국보다 앞섰다면 어찌하여 사적에 실리지 않았겠는가.

우리 사람이 무식하여 부처를 받들기를 제 아버지처럼 받든다. 그래서 왕건(王建) 태조의 고명(高名)으로도 속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숭상하기를, “우리가 나라를 지니게 된 것은 실로 부처의 힘을 입었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이때를 당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언어와 문장을 크게 과장하여 역사에 실었을 터인데, 사가는 오히려 기재하지 않았거늘, 민채는 바로 무식한 야인의 말을 믿고 기록하였으니 제4의 큰 망언이요, 가령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백성의 중도 있게 되고 신중[尼]도 있게 되어, 반드시 불법(佛法)이 그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며, 그전에 없었던 것은 너무도 분명한데, 그, “노춘이 부처를 찾아갈 적에 신중이 길을 인도하였다.”고 했으니, 불교가 있기도 전에 어찌 신중이 있겠는가. 이것이 제5의 큰 망언이요, 더구나 중국 인물들의 널리 듣고 많이 본 그것으로도, 오히려 서역(西域)의 범서(梵書)를 통하지 못하여 호승(胡僧)과 더불어 번역을 하고서야 그 글이 세상에 밝혀졌는데, 사위국 월지국에서 기록한 쇠북에서 글자를 노춘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그때에 문적(文籍)이 희귀하여 사람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였는데, 서역의 사적을 말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여 제6의 큰 망언이니, 민채의 황당무계함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여섯 가지 큰 망언이 있고 한 마디도 명교에 보탬 될 것이 없으니, 이 기록은 빼버리는 것이 옳겠다. 더구나 삼국의 초기에 사람이 일정한 성이 없고, 이름 자도 사람의 이름과 같지 않은즉 노춘이란 이름부터가 후세에서 지어 넣은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어찌 신라 말엽에 학식 있는 술승(術僧) 원효(元曉)·의상(義相) 율사(律師)의



무리들이 비로소 이 산의 사적을 과장하고자 하여 추후에 써놓은 것이라 아니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찌 이렇게도 그릇된 점이 많단 말인가. 두루 다 구경하고 누각으로 나와 앉으니, 명(明)이 우리를 위하여 냇가에까지 보내주었다. 개복대(改服臺)를 지나니 이 대는 바로 지난 병술년에 유점사에서 불공할 적에 거가(車駕)가 옷을 바꿔 입던 곳이다. 또 단풍교(丹楓橋)를 지나자 다리 머리에서 잠깐 쉬었고, 또 장항(獐項)을 지나다가 말을 가지고 나를 맞기 위하여 온정(溫井)으로 오는 자를 만났다. 그래서 말을 타고 구점(狗岾)을 넘는데, 길이 험악하여 혹은 말을 타기도 했고 혹은 걷기도 했다. 이대석(尼臺石)을 지나서 마루로부터 평지에 당도하여, 건천(乾川) 가에서 요기를 하고 준방(蹲房)을 지나서 고성군(高城郡)에 도착하였다. 유점사에서 여기까지는 60리였다. 태수(太守) 조공(趙公)은 나의 조부와 더불어 좋아하는 처지라, 나를 보고 후히 대우하였다. 때마침 양양 군수(襄陽郡守) 유자한(柳自漢)이 먼저 와서 좌상의 반찬을 준비하였다.

갑신일에 태수 조공이 유양양을 위해 삼일포(三日浦)의 놀이를 하게 되어 나도 따라갔다. 삼일포는 신라 시대에 화랑(花郎) 안상(安祥)·영랑(永郎)의 무리가 와서 3일 동안을 놀고 파했다. 그래서 이름이 되었다. 포구의 암벽(巖壁) 사이에 단서(丹書) 여섯 글자가 있는데, 화랑의 무리가 쓴 것이라고 한다. 수면(水面)에서 4·5리를 가면 돌섬 하나가 있고, 낙락장송이 두어 그루가 있으므로 이름을 송도(松島)라 하고, 동남의 모퉁이에서 바라보면 돌이 거북 모양과 같으므로 귀암(龜岩)이라 하고, 귀암의 뒤에 하얀 바위가 바닷가에 우뚝 솟아 있으므로, 이름을 설암(雪巖)이라 한다. 물 북쪽에 몽천사(夢泉寺)의 옛터가 있는데 참으로 절경이다.

나는 훈도(訓導) 전대륜(全大倫) 및 유양양을 따라, 배를 타고 송도에 정박하였다가 또 배를 노닐하여 단서(丹書)가 있는 암벽(巖壁) 아래 당도하니, 과연 여섯 글자가 있어, “영랑도 남석행(永郎徒南石行)”이라 하였는데, 그 글자가 돌에 심한 공격을 받았다. 전대륜은 말하기를, “옛날에 손님을 싫어하는 태수가 있었는데, 손이 이 고을에 오게 되면 반드시 단서를 보고자 하는 고로, 태수가 그 비용을 대어 주기 싫어서 쳐부숴버리려고 했다.” 한다.

그러나 그 글자가 획이 인멸되지 않아서 해독할 수 있다. 나는 그 글의 뜻을 물으니 대륜은 말하기를, “영랑(永郎)이란, 신라 사선(四仙)의 하나요, 남석(南石)은 이 돌을 지적인 것이요, 행(行)이란 돌 위로 간다는 것이다. 세상의 문인들이 모두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였다. 나는 생각하건대 이 돌이 고성에서 보면 북쪽에 있고, 금강에서 보면 동북간에 있고, 동해 바다에서 보면 서쪽에 있는데, 그 ‘남석’이라 칭한 것은 더욱 해득할 수가 없고, 또 여섯 글자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 문리(文理)가 대단히 소략(疎略)하여 아희들의 솜씨와 같으니, 옛사람의 문법이 응당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일을 좋아하는 아희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곧 수량의 무리 가운데 남석행(南石行)이란 성명을 가진 자가 제 이름을 써 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배를 멈추고 돌 위에 오르니, 그 정상(頂上)에 미륵불(彌勒佛)을 위한 매향비(埋香碑)가 있는데, 고려 시대에 세운

것이다. 배를 타고 송도로 돌아와 종일토록 술을 마시고 노는데, 반찬이 매우 풍성하였다. 혹은 어부를 시켜 고기를 그물질하여 회를 쳐서 먹기도 하고, 혹은 연구시(聯句詩)를 지어 부르고 화답하기도 했다. 오후에 큰 바람이 부니 태수는 무서워서 배를 타고 돌아가고 나는 온정(溫井)으로 돌아왔다.

을유(乙酉)일에 온탕에 들어가 목욕하고, 병술(丙戌)일에 목욕하고, 정해(丁亥)일에 목욕하며 무자(戊子)일에 목욕하고 나와 쉬었다. 기축·경인 양일간에 다 쉬었다. 가서(家書)를 받았는데 자당께서 안녕하시다고 했다.

신묘(辛卯)일에 회정(回程)하여 온정을 떠나가면서 고사리를 췌다. 고성군을 지나고 또 만호도(萬戶渡)를 지나서 배를 타고 고성포(高城浦)를 건너 강변에서 밥을 지어 먹었다. 영동(嶺東)의 민속이 매년 3·4·5월 중에 날을 가려 무당을 맞이하여 수륙(水陸)의 별미를 성비하여 산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부자는 말바리로 실어오고, 가난한 자는 이고 지고 와서 신전에 차려 놓고 피리를 불고 비파를 타고 연 삼일을 재미나게 놓고 취해 배부른 연후에야 비로소 집으로 내려와 사람과 사고팔고 하며, 만약 제사를 아니 지내면 한 자치 벼도 사람과 매매를 못한다. 고성의 민속제는 바로 이날인지라, 가는 길 곳곳마다 남녀들이 몸단장을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왕왕 저자와 같이 많이 모인 데도 있었다. 설암(雪巖)을 지나니 설암의 이남에는 기묘한 돌이 몹시 많았다. 안창역(安昌驛)을 지나서 안석도(安石島)에 오르니 잘잘한 돌이 밑으로 연하고, 전죽(箭竹)이 덩불을 이루며, 전죽 아래는 해당화가 있고 해당화 아래는 하얀 돌이 있어, 혹은 평평하고 혹은 솟고 혹은 쌓이고 혹은 부숴졌다.

나는 섬 아래서 한바퀴 돌고 앉았다 누웠다 하며, 실컷 구경하다가 도로 나와 구장천(仇莊遷)을 지나니 역시 기묘한 곳인데, 웅천(瓮遷)만은 조금 못하다. 사천(蛇川)을 건너 명파역(明波驛)을 지나 냇가에서 요기하고, 술산(戌山)을 넘어 다시 바닷가를 따라 무송정(茂松亭)에 당도하니 정자는 바로 바다 굽은 턱에 있는데, 역시 육로(陸路)와 연결하여 장송(長松)이 그 맨 꼭대기에 나고, 하얀 돌은 그 기슭을 이뤘다. 그리고 안석(安石)에 비해 몇 배가 높은지 알 수 없다. 열산(烈山)을 지나서 간성(杆城) 땅에 들어가 포남(浦南)에 있는 어떤 민가(民家)에서 유숙하였다. 이날에 바다를 따라 행한 것이 모두 1백 20리였다.

임진(壬辰)일에 비를 무릅쓰고 포남에서 출발하여 반암(盤巖)을 지나 19리를 가니 비가 몹시 퍼부어서 간성(杆城) 객사(客舍)에서 유숙하는데 태수 원보곤(元輔昆)이 술밥을 보내와서 운산은 취해 넘어졌다.

계사(癸巳)일에 비가 췌다. 출발하여 문암(門巖)을 지나 바다를 따라 45리를 가서 청간역(淸澗驛)에 당도하니, 누가 물가에 가까이 있고, 누의 뒤에는 절벽이 깎아지르고, 누 앞에는 많은 돌이 쫙쫙 솟았다. 나는 누의 뒤 절벽 위에 오르니, 바라보이는 것이 더욱 넓어 서쪽으로 설악(雪岳)을 보니 비가 내리 쏟아지는 것 같은데, 하늘 남쪽에는 해가 중천에 동실 떴다.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어둑하고, 뒤에는 꽃이 환하여 절묘

한 경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절벽 위에서 요기하고 또 바닷가로 행하여 사령(沙嶺)의 해안을 지나니 이때에 동남풍이 거세게 불어 바다 물결이 기슭에 대지르는데, 천병(千兵) 만마(萬馬)가 몰아서 노는 것 같았다. 물이 부딪는 곳에 붉은 무지개가 건각에 나타났다 도로 사라지곤 하니 참으로 장관이었다. 죽도(竹島)를 바라보니 백죽(白竹)이 연기와 같고, 개울 밑 돌 위에 해달(海獺)이 줄지어 떼로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물소리와 더불어 어울려 해안에 진동하였다.

또 부석(腐石)에 당도하니 청간(淸澗)에서 여기까지는 20리이다. 또 바른편으로 천보산(天寶山)을 지나 송정(松亭)에 당도하여 여기서부터 낙산(洛山)을 바라보며 20리를 가서 낙산동(洛山洞)에 들어갔다. 또 10리를 가서 낙산사(洛山寺)에 당도하니, 지나는 길에 피택(陂澤)이 많아서 그 크기를 10리 혹은 20여리 되는 것이 여섯이나 된다.

그리고 두 곳의 큰 개와 두 곳의 큰 내를 건너고 죽도(竹島)를 셋이나 지났는데, 기암(奇巖) 괴석은 몇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낙산사는 신라 중 의상(義相)이 지은 것인데, 그 절의 중이 그 사적을 전하기를, “의상이 직접 관음(觀音) 대사를 해변 굴속에서 만나니 관음이 친히 보주(寶珠)를 주고 용왕(龍王)이 또 여의주(如意珠)를 바치기에 의상은 두 구슬을 받았다. 이에 절을 짓고 전단토(旃檀土)를 가져다 손수 관음상을 만들었다. 지금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굴이 바로 관음의 머무른 곳이요, 뜰 가운데 있는 석탑이 바로 두 구슬을 수장한 탑이요, 관음 소상은 바로 의상이 손수 만든 것이다.” 한다. 무자(戊子) 연간에 요승(妖僧) 학열(學悅)이란 자가 있어 나라에 아뢰어 절터에다 큰 법당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곁에 있는 민간의 전답을 다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지금 학열이 죽은 지 1년인데, 그 도제 지생(智生)이 일찍이 학열에게 곱게 보였던 관계로 학열이 죽자 노비(奴婢) 전답, 재물을 다 얻어서 그 이익을 관리하고 있다. 절 앞에 정자 하나가 바닷가에 가까이 있고, 감나무 숲이 여러 겹을 두르고, 대와 나무가 온 산에 가득하다. 나는 정자에 올라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정자를 내려와 언덕 밑을 지나서 큰 대숲에 갔다가 도로 주사(廚廬)를 지나서 곡구(谷口)로 내려가 왼편으로 암석(巖石)을 거쳐 조그마한 뗏가지를 헤치고 반 마장쯤 가서 이른바 관음굴이란 곳에 당도하니, 조그마한 동불(銅佛)이 굴속의 조그마한 실내에 있어 바람과 햇볕을 가리지 못하고 방 아래서는 파도 물결이 돌을 대질러 산 형상이 흔들리는 듯하고, 지붕 판자가 노상 올린다. 나는 내려와 동구에 당도하자 운산이 중 계천(繼千)을 데리고 와서 나를 맞아 절로 들어가니 지생이 나와 영접하여 하룻밤을 지냈다.

갑오(甲午)일 이른 아침에 나는 정자에 올라 앉아 해 뜨는 것을 구경하였다. 지생이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나를 인도하여 관음전을 구경시키는데 이른바 관음상은 제작한 기술이 극히 정밀하고 교묘하여, 정신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전 앞에 정취전(正趣殿)이 있고, 전 안에는 금불 셋이 있다. 나는 출발하여 남쪽 길로 가다가 서쪽으로 접어들어 20리쯤 가서 양양부(襄陽府) 앞 냇가에 당도하여 말을 쉬게 하고, 또 10리를 가서 설악(雪岳)으로 들어가 소어령(所於嶺)을 올라 고개를 내려오니 냇물은 왼편에 있고, 봉만

(峯巒)은 바른편에 있다. 산기슭을 다 지나서 냇물을 건너 왼편으로 가니 물은 맑고 산은 빼어나고 하얀 돌이 담 쌓여 대략 금강산의 대장동과 같다.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서 오색역(五色驛)을 당도하니, 하얀 달이 벌써 산 위에 동실 높이 떴다. 이날 물으로 30리를 걷고 산으로 40리를 걸었다.

을미(乙未)일에, 오색역을 출발하여 소솔령(所率嶺)을 지나니, 설악산이 무려 수십여 봉우리인데, 다 정상은 희고, 시냇가 돌과 나무도 또한 희게 보인다. 세상에서 작은 금강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헛된 말이 아니다. 운산이 말하기를, “매년 8월에 다른 산은 서리가 미처 오지 않았는데도, 이 산만은 먼저 눈이 내리므로 설악이라 한다.” 하였다. 재마루 돌 위에 팔분체(八分體)로 쓴 절구시 한 수가 있는데, “무진년에 난 단군(檀君)보다 먼저 나서 기준(箕準)의 마한(馬韓)을 목도하였네. 영랑(永郎)과 함께 수부(水府)에 노닐고, 또 술을 마시며 인간에 머물렀네.” 하였다. 먹발[墨跡]이 아직도 싹싹하니, 반드시 쓴 적이 오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에 신선이라는 것이 없으니, 어찌 일 좋아하는 자가 우연히 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정자(정이(程頤))는, “하늘에 빌어 나라 운명(運命)을 길게 하는 것과 보통 사람이 성인에 이르는 것으로써 신체를 수련하여 연령을 끌어가는 것에 비한다.” 하였으니, 깊은 산중에 역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 시를 읽어 보니, 사람으로 하여금 속세를 벗어난 느낌이 들게 한다. 나는 재마루에서 동해 바다와 하직하고, 재를 내려와 서남으로 나무 밑으로 걸어가니 길이 험악하고 골짜기가 깊숙하였다. 정향(丁香) 꽃을 꺾어 말안장에 꽂고, 그 향내를 맡으며 면암(眠巖)을 지나 30리를 가서 말을 쉬고 신원(新院)을 지나 또 15리를 가니 냇물이 설악의 서쪽으로부터 와서 소솔천(所率川)과 합류하여 원통역(元通驛) 아래 이르러서는 큰 강이 되었다. 원통으로 전진하니 산천이 광활하여 매우 아름다웠다. 원통으로부터 평지를 밟고 또 25리를 가서 원통천(元通川)을 건너서 기린현(麒麟縣) 물이 여기와 합류하였다. 강을 따라 5리를 가서 인제현(麟蹄縣)에 유숙했다. 이 날에 산으로 60리를 걷고, 물으로 30리를 걸었다.

병신(丙申)일에 배를 타고 병항진(瓶項津)을 건너 서·남으로 향하여 선천(船遷)을 지나고, 또 서남으로 향하여 만의역(萬義驛)을 지나며, 또 산간으로 향하여 홍천(洪川) 땅에 들어가 천감역(泉甘驛)에 유숙했다. 모두 80리를 걸었다.

정유(丁酉)일에 또 서·남으로 향하여 마령(馬嶺)을 넘고 또 서남으로 향하여 큰 강을 따라 내려가 구질천(仇叱遷) 영봉역(迎逢驛)을 지나 60리를 가서 홍천현에 당도하여 현감(縣監) 백기(伯起)를 만나보고 동숙(同宿)하였다.

무술(戊戌)일에 배를 타고 앞강을 건너 괘전령(掛錢嶺)을 넘어 백동역(百同驛) 뒷산을 거쳐 지평현(砥平縣)을 지내고, 또 천곡원(天谷院)을 지나서 서남에 돌길로 들어갔다. 이날에 도합 90리를 걸어서 권교리(權校理) 경우(景祐)의 집에서 잤다.

기해(己亥)일에 가랑비를 무릅쓰고 서쪽으로 향하여 천곡천(天谷川) 하류로 건너 오빈력(吾賓驛) 양근군(楊根郡)을 지나고, 또 월계천(月溪遷) 우원(偶院)·요원(腰院)·말원

(末院)을 지나서 용진(龍津)을 건너 봉안역(奉安驛)에서 유숙하였다. 이날에 도합 80여 리를 걸었다.

경자(庚子)일에 두미천(豆尾遷) 평구역(平丘驛)을 지나 중녕포(中寧浦)를 건너 70리를 향하여 서울에 들어왔다. 총계하니 산으로 향한 것이 4백 85리요. 바다로 향한 것이 2백 74리요, 물으로 향한 것이 9백 37리였다. 을사 윤 4월 21일 신축에 기록하다.

『續東文選』 卷之二十一, 錄

白頭山起自女眞之界. 南延於朝鮮國海邊數千里. 其山之最大者. 在永安道曰五道山. 在江原道曰金剛山. 在慶尙道曰智異山. 而泉石之最秀且奇者. 金剛爲冠. 山名有六. 一曰皆骨. 一曰楓岳. 一曰涅槃者. 方言也. 一曰枳怛. 一曰金剛者. 出華嚴經. 一曰衆香城者. 出摩訶般若經. 新羅法興王以後所稱也. 愚謹按佛者. 本西戎太子. 其國距咸陽九千餘里. 限之以流沙黑水之遠. 龍堆蔥嶺之險. 與中國不通. 安知越中國而東國乃有此山哉. 非特不知有此山. 亦不知有朝鮮國者. 以史考之. 當周昭王之世. 我邦箕子朝鮮之中葉. 佛實生於西方舍衛國. 其佛說千箇萬軸中. 說無限世界. 而曾無一語稱朝鮮國者. 則其不知此國此山明矣. 豈非佛說法時. 誇大其事. 以謂海中有金剛. 枳怛. 衆香諸山. 而有億萬曇無竭. 率其眷屬. 以駭愚俗. 如莊周鯤鵬天池之說. 姑射具茨之論. 寓言於冥漠之中. 驚俗於高大之境而然者乎. 此不過震動黔黎. 劫誘無識者. 而豈真有金剛. 枳怛如是其怪者乎. 佛之寓語如是. 而羅僧學佛者. 亦自高大其國. 以楓岳指爲金剛. 而追作曇無竭之像. 以實妄語乎. 且佛所云海者. 安知指東海乎. 東西南北. 莫非海也. 豈獨東海爲海中. 而以楓岳定爲金剛者乎. 且我邦於中國. 雖云海外. 而西北陸連遼東. 其間只隔鴨綠一江. 鴨綠江固非海矣. 其指我邦爲海中者謬甚矣. 然金剛之稱. 歷世既久. 難可猝變. 余亦指爲金剛山也. 蓋其爲山. 跨天南北而峯嶺. 壓后土之洪濛. 大峯三十有六. 小峯一萬有三千. 一枝南延於二百餘里. 山形竦峭. 略如金剛本岳者曰雪岳. 其南有所率嶺. 岳東一枝又成一小岳. 曰天寶山. 天將雨雲. 山自鳴. 故或曰鳴山. 鳴山又蔓迴於襄陽府. 後走於海濱. 五峯特起. 曰洛山. 金剛一枝又北延於一百餘里. 有一嶺. 名曰楸池. 楸池之山. 又於通川官後. 周遭殘山. 如線之不絕. 北轉而入海中曰叢石亭. 山之東曰通川. 高城. 杆城郡. 西曰金城縣. 淮陽府. 列置山下者凡一府三郡一縣. 太歲乙巳之四月望日. 余發長安. 宿普濟院.

丁卯. 行九十里. 宿笠巖.

戊辰. 過逍遙山. 涉大灘行六十里. 宿漣川居仁家.

己巳. 過寶蓋山. 又過鐵原古東州野南頭行一百餘里. 宿金化甲士鄭時成家.

庚午. 過金化縣. 行六十里. 宿金城鄉校.

辛未. 過昌道驛. 涉菩提津. 行七十八里. 宿新安驛.

壬申. 滯雨. 宿新安後洞百姓沈達中家.

癸酉. 度牛犢峴. 過花川縣. 涉菩提津上流. 赴楸池洞. 循溪而上. 天氣甚寒. 山木嫌風而亞脆. 葉纔出. 棠梨開滿. 杜鵑未衰. 覺天氣寒於漢陽二三倍矣. 楸池者. 菩提津所從出者. 津到金

剛山外兜率。與金城津合。又歷盡山麓。而與萬瀑川合。又至春川。與瓶項津下流合。爲昭陽江。古有樵夫偶到其處。再尋之則不得矣。山下人相傳爲仙境云。嶺上有楸池院。過院則東邊天色甚碧。雲山曰。此非天。乃海水也。余刮目更察。然後辨其爲天與水也。其水距岸漸遠而漸高。遙與天相接。平生觀水。盡爲兒戲矣。自嶺而東下也。天氣漸溫。躑躅方開。木葉成陰。始覺夏氣。往往斫木補道。所謂棧道者也。時時於馬上。摘山杏以啗之。自嶺行二十里。有中臺院。又行五里。於川邊攤飯。始履平地。又行十五里。抵通川郡。是日。山行摠九十里。地行十五里。見郡守子子達。子達館余于衙別室。子達尊公遇余甚款。

甲戌。辭子達。行十五里。抵叢石亭。余至其下。果有石山入海曲。逶迤如蛇形。山之入海極頭。有四仙亭。未及亭三四十步。北越一路則有四石起自海中。截然如東柱石然。所以得名叢石者此也。海西邊岸。盡爲叢石。形亘里餘。叢石之傍。有一平石。亦在水中。而小石雜積連陸。余與雲山。赤足下岸。坐平石上。令奴人採石決明。小螺。紅蛤。海藿等物。與雲山擲水相戲。舉眼眺瞻。則乾端坤倪。軒豁無涯。如瑠璃明鏡相照。韋偃郭熙効技然。恍然疑是夢中。久乃可明。余眷顧不肯出。雲山曰。日已晏矣。余始出岸上四仙亭。亭有孫公舜孝懸板詩。又多僧人釋子名號。余坐其中。俯視滄溟。四叢石尤奇。所見略與下平石同。而眼界則尤闊矣。亭南有碑。傾側字沒。不知何時所立。亭東約四五十里許。有一島在海中。宛然若相對然。亭巖下。有二舟往來釣魚。巖南有魚店。漁人曬網其間。水中雜鳥飛鳴左右。或體白體黑。或嘴長嘴短。或嘴紅嘴青。或尾長尾短。或翰黑翰青。不可以數。余題四言四章於亭柱。居無何。風浪起。余下來。循海邊白沙而行。沙虛馬蹄易沒。惟水邊浪痕。堅不沒蹄。然海濤時或衝岸。至於馬羈。馬皆驚怖出岸。令奴人控馬行。風景尤奇。往往沙嘴成山。海惡時流波所聚也。又有海水於沙邊或滯而不泄者。或滯而入海者。又有白石小石雜成海岸者。又有衆石巉巖立海濱。如錐者。如鞭者。如人者。如獸者。如禽者。末大而根銳者。根大而末銳者。沙石之邊。海棠相屬不絕。或花或蕊。或紅或白。或開而單葉者。或開而千葉者。余於中道攤飯。行六十里。過童子院。宿登道驛。夜大風。發屋拔木。

乙亥。發登道。過萬安驛。所經陂澤甚多。海濱所見如前日。至瓮遷。積石成岸。略如叢石之百一。歷盡遷上。有石小陂。如磨蒼玉。有川自西而入海。周於巖下。洞如明鏡。令奴人採藿烹羹。採石決明鹽魚以配午飯。過長井海邊。抵高城溫井。井乃金剛山北洞也。是日。行六十里。至此始聞杜鵑聲。

丙子。以風留溫井。

丁丑。入金剛山。行五六里。越一峴而南入新戒寺之墟。峴東曰觀音峯。北曰彌勒峯。彌勒峯之西。有一峯。比彌勒峯而加秀。不知其名。又其西。有一峯。遠在雲表。毗盧峯之北枝也。新戒寺。卽新羅九王所創也。有僧智了改創鳩材矣。寺前有指空百川洞。其南有大峯。曰普門峯也。峯前有世尊百川洞。東有香鱸峯。峯東有七大峯相屬成一大山。比於觀音。彌勒峯。不知其幾百倍。其一。毗盧峯之一枝。其二。元寂峯之一枝。其三上平者。雁門峯之一枝。其四。繼祖峯之一枝。其五。上不思議。其六。中不思議。其七。下不思議。不思議者。庵名也。新羅僧律師所創也。七峯之下。有大明。大平。吉祥。兜率等庵在世尊川傍。余涉指空川。越普門庵。

山行五六里。綿竹成徑。及到庵下則社主祖恩。乃雲山故人。遇我頗有恩意。坐庵上。東北望海。東南見高城浦。庵前有懶翁勤禪師自照塔。坐定。祖恩饋生。柏子訖。進飯。烹香蕈。石蕈爲饌。山蔬極備。時杜鵑午啼。可卜山深矣。飯後辭祖恩。山行約五六里。涉世尊百川水。又行一二里。左視兜率庵而東。又行五六里。涉一大川。循川東偏而上行五六里。過鉢淵。又行半里。至鉢淵庵。僧傳云。新羅時有僧律師入此山。鉢淵龍王獻可居之地。於是創社曰鉢淵庵云。庵後有一峯。在普門望見七峯之末峯也。庵上少許。有瀑布橫垂數十丈。左右皆白石。滑如磨玉。可坐可臥。余解裝掬水漱口。飲蜜水。鉢淵故事。釋子遊戲者乃於瀑布上。折薪而坐其上。放於水上。順流而下。巧者順下。拙者倒下。倒下則頭目沒水。久乃還出。傍人莫不酸笑。然其石滑澤。雖倒。下體不損傷。故人不厭爲戲。余令雲山先試之。繼而從之。雲山八發而八中。余八發而六中。及出巖上。拍手大笑。乃枕書臥石成小睡。社主竺明來。引余入社。使見社後碑石。乃律師藏骨之碑。高麗僧瑩岑所撰。時承安五年己未五月也。碑側有枯松二株。自律師碑立五百餘年。三枯三榮。而今復枯矣。覽畢還下庵。明饋飯。飯後又到瀑布。夜深天寒。始入來。

戊寅。發鉢淵。涉瀑布下流。涉小人嶺。嶺路險惡而峻。步步仰上。得名小人。信不虛也。余十步九歇。方涉初嶺。楡岾山在左。不思議峯在右。東海在後。歡喜岾在前。小人嶺凡八。漸前而漸高。至於第七嶺。則與上不思議峯齊。諸山盡在目下。通川。高城。杆城三郡。列置山底。眺瞻溟海。與天爲際。陟第八峯。則不思議峯。風斯在下矣。自此而西轉從山陰。行路甚絕峻。側柏橫路。冬青雜生。積雪滿谷。松蘿著樹。余踞虎豹登虬龍。攀枝以行。勞甚。取雪和蜜而飲。渴肺頓醫。子美所謂嵌空太始雪也。已而復渴。透迤匍匐。得登歡喜岾。高於小人第八峯又加一二等。岾東土峯一。岾西石峯三。越歡喜而南下也。躑躅成林。天寒。蕊而不花矣。至一小溪。洗手頰面。又越一小峴。抵兜率庵。庵一名柏田。自鉢淵至此三十餘里。入庵坐。良久還出。上道行一里許。入寂滅庵。有一僧袈裟入定矣。庵後土山曰寂滅峯。庵前巷東石山曰成佛峯。過庵右轉而西北行。直下一洞。有二川交流。水石明爽。乃十二瀑布源流也。涉川而上。有開心庵。入庵則有一僧衣衲而已。又登開心前臺。望見諸峯。前有寂滅一峯。後有開心後二峯。左有白石一峯。二十有五頭。其下有雲棲窟。右則洞口也。還入庵攤飯。見京來居士宋生者。其語甚詭。雲山曰。今者天日尚早。不可止宿此庵。祇可復行。余從其計。越開心後岾。岾高於歡喜岾又加一二等。自此木石皆白。左歷二峭峯竝立。右歷一石峯如錐鋒。下有繼祖窟。南邊有二峯。松柏鬱蔥。陟二峯之交。高於開心後岾又加一二等。從岾而南下也。側柏塞路。杜鵑間開。馨香擁鼻。洞乃大藏洞也。川石明快。所歷無此比。洞又幽夔深邃。窮川源則三四日方到毗盧峯云。姑以眼所及記之。則川之北石峯五。南石峯二。其一則白石疊成。如積書冊然。胡僧指空指此曰。此石內有大藏經。洞因此得名。解裝坐玩良久。欲爲暴宿巖石之計。雲山曰。此雖無惡獸。霧氣襲人。可畏。今日雖暮。猶可至元寂庵。余從之。循大藏峯而西。五石峯在右。九土峯在左。而洞水南注。沿流而下。挾右山腰。陟一大岾。名曰雁門岾。雁門峯之南枝也。岾高於大藏後岾又加一二等。下岾而南。循澗而行。左有山。皆松柏。不辨其峯。右有五大峯。皆內山之南枝也。川南土山之西。有三峭峯見其頭。其一觀音峯。峯下有石如佛形。故

得名然也。其下元寂川。與雁門川相合。清曠略與大藏水等。坐玩須臾。泝流而北上。所踏皆溪邊白石。左右山數十餘頭。圍如雪屏。已而至元寂庵。庵後有大峯。加於衆峯不知幾百倍。所謂元寂峯。峯南有峯。比元寂峯甚卑。而此諸峯亦有徑庭。所謂元寂香爐峯也。庵東南。望見一土峯。高齊元寂峯而其上凹。所謂雁門峯也。僧云。獅子育兒其上。自柏田至此又三十里。庵有僧戒能。稍解文字。

己卯。發元寂。從古道下至雁門水交流之上。洗手漱口。循流而下。過文殊庵。至妙吉祥庵。庵在溪邊。水石甚明。自此躑躅始開矣。川南有四峯。川北有石壁削立者一。余坐川石上養齒。入庵題名。庵有老僧道逢者。龍門邪僧處安。檜巖邪僧策下。皆禮而師之。以此名重諸山。得貨最多。見我禮甚倨。余不言而出。循溪而西。有寺基。基上有石佛刻在石壁間。寺基下有大石上平。臨在川上。余坐其上小歇。寺基以北有峯八。以南觀音峯以下有峯五。北八峯之後。有二大峯露其頭。其一元寂峯西面。其一月出峯南面。其下有佛知庵。闕賓窟。余過二庵。至摩訶衍前臺。有曇無竭石像。臺乃此山之正中。而曇無竭乃山之主佛。僧俗過此者莫不攢手拜過。雲山以杖叩其額。入寺中。寺有老釋懶融。出與余語。示摩訶衍事跡。時有鳴鳩馴擾庭下。可卜山人無機矣。庭中有草。其形如韭。其花少紫。融曰。昔指空入此山曰。此山土石皆佛。獨此空地。立此而禮山頂之石觀音。其所立地。生此草至今百餘年不衰。山人呼爲指空草。指空者。南天竺國術士。麗季來入我邦。以其術廣布佛法云。余請萬景臺路於融。融頗惡之。毗盧頂上不可踏。余辭融至萬灰庵。令奴人炊飯裹之。上萬景臺。萬灰僧亦惡而止之曰。無路不可去。雲山亦不欲。余強行。越一山頂下一洞。又上一頂。攀枝以下。積葉沒膝。朽木交橫。東西皆迷。一鳥不鳴。但瀑布數丈。飛鳴於林表而已。雲山緣石以登。則瀑布之上。又有瀑布如前。雲山身竦。艱難得下曰。山路已失。不可臆度。樹木之下。以求無人之境。不如還去。余從其言。還出故道而來。至萬灰攤飯。還過摩訶衍。又過妙峯。獅子二庵。至獅子項。其石有鐵鎖垂下。以爲人攀上之資。閔漬楡帖記云。胡宗旦入此山欲壓之。有獅子當項拒之。宗旦不得入。雲山指山頂一石曰。此獅子形也。余詳視之。頗不類獅子。乃頑然一圓石也。川水至此則尤加奇麗。十餘里一白石不斷。處處瀑布。其下深潭。潭下亦有瀑布。故洞名曰萬瀑洞。所以記瀑之非一也。余循西邊而下。自獅子項下西邊有峯四。其一潤筆峯。其二毗盧峯之香爐峯。其三無名。其四金剛臺。東邊有峯三。皆無名。歷盡三峯而有普德窟。窟前川邊有白大石。平可坐數百人。上下皆瀑布。瀑下皆深潭。坐石上仰見庵子。甚奇。中使鄭司之來觀此山也。有一頭目誓天曰。此真佛境。願死於此。作朝鮮人。長見佛世界。乃投水而死。今之上潭是也。今題名巖側。登窟則積石爲雲梯。高可數百餘丈。沒上梯則有庵掛於壁間。以二銅柱約數丈者撐之。柱上構一室。作一鐵鎖。一端着柱。一端着石。又爲一鐵鎖圍其室。而着兩端于石。置觀音塑像。其上又作一社。爲僧所住。又其傍。爲一室爲庖廚。僧舍之西觀音窟之上。築一臺。曰普德臺。其曰普德者。觀音化身名也。余先入僧社則乃故人東峯清寒子壁記。虛舟申持正丹青畫手申。俄而自社下。窟有鐵鎖二。余攀下樓板。聲咿軋可懼。所謂觀音前願狀頗多。余出。歷觀臺上。還入僧舍飯訖。下來。復循川流而下。白石滑澤。赤足而行。亦不生繭。已而前至手中巖。東峯記云。觀音化爲美女。洗手巾于此巖。爲僧懷靜所逐。入巖下云。巖石橫斜。或成深淵。或



成瀑布。巖邊可坐萬人。見之心神舒暢。余坐臥弄水。玩其奇好。不得去。雲山促行。下表訓寺。西自金剛臺以下所歷十一峯。東自普德窟以下所歷七峯。是日山行摠三十里。住持智熙者。雲山故人。待余甚厚。燃燈饋茶。茶退饋飯。寺有至元四年戊寅二月碑。乃大元皇帝所立。奉命臣梁載撰。高麗右政丞權漢功書。蓋記其皇帝飯表訓僧。作萬人結緣也。碑陰。載太皇太后出銀布若干。英宗皇帝若干。皇后若干。觀者不花太子及二娘子若干。完澤。禿瀋王等大小臣僚若干。此即記舍施也。是夜。館余於小寢。親之也。

庚辰。智熙饋朝飯。極辦山家之味。饋余奴從亦厚。臨別。以扇一鞋一贈余。又贈雲山如之。余從川邊行五里許。東南入一洞。樹底行。仰不見天。所歷峯巒不可計。又行五六里許。有故城。疑倭賊避亂時所築。歷城基上一高山頂。東偏有二庵。曰大松蘿。小松蘿。自此余足生繭。行甚艱澁。至大松蘿。臥歇成睡。睡覺。請寺僧性浩爲山行鄉導。從庵後攀側柏枝排木枝。登一山頂。又直下山腰之半。復轉而北上。仰見白石削立。不知幾千丈。若垂若墜。往往鐵鎖垂下。手引而登。出僧床。鷹巖兩峯之間。僧床之名。以峯下有石如僧床也。鷹巖之名。以峯上有石如鷹形也。鷹巖北上絕壁。或攀木枝。或攀石角。總計巖石行約十餘里許。陟望高臺。四通五達。僧床。鷹巖二峯。却在山底。前日萬瀑洞所歷諸峯。如丘垤不可辨。但見真見性峯當北面。其峯後毗盧峯。勢若撐天。比諸峯不知幾百倍。乃知平地之仰見者乃其枝裔也。非上峯也。峯西南。有萬景臺。白雲臺。衆香城。其次有摩訶衍後峯。相屬於毗盧峯。如成一岳。東北有雁門峯。次於毗盧峯。雁門後有大藏。上開心諸峯。只見峭頭如筆鋒然。諸峭峯之南有二峯。差卑於諸峭峯二三等。名曰十王峯。峯後有十王百川洞。川傍有寧原庵。雲山嘗遊於此云。又十王水下與萬瀑洞合流。爲長安寺前川。十王峯後百川洞東。有一土峯。上平而差高於十王峯。曰天燈峯。其南有峭峯。高於天燈一二等。曰彌勒峯。天燈。彌勒之間。有二峯露其頭。曰觀音峯。地藏峯。彌勒峯南有土峯。卑於彌勒峯一二等。曰達磨峯。達磨峯西。亦有一土山。卑甚不知其名。其峯之南。即金藏銀藏面也。長安寺西北。有新林寺。新林寺西北。有正陽寺。正陽寺西北。有開心臺。臺西有開心庵。其山通趾頂皆土。樹木蔥蔥。蔓回於一面。然其峯甚卑。非諸峯比也。開心臺北。有土山甚高。與彌勒峯東西相對。名曰西水精峯。峯南有熊虎庵。峯後有水精庵。即毗盧峯北面水所注之洞也。開心臺之後。西水精之南。有一土山。差高於開心後山。名曰髮嶺。僧云。高麗太祖將兵過此。上此嶺望見毗盧峯。無數向禮。斷髮掛枝。以示欲入沙門之意。故名其嶺曰髮嶺云。余坐臺石上問峯名畢。回瞻四顧則神氣怡然。浩浩乎覺其身之高矣。移時欲下來。安邊僧四人繼上。與四僧偕下。四僧歸上雲岫。余上僧床石。心神悄然可懼。還下來至松蘿。見壁上有故人大猷名字及絕句一首。是日山行。總可二十五六里。

後四月辛巳。發松蘿經故城基。南下一洞。左歷二峯。右歷四峯至安養庵。庵後有羅漢殿。開明可坐。余坐其上書日課。庵前有深淵。名曰鬱淵。金同所陷也。金同者。麗時富人。平生佞佛。作庵鬱淵上。諸巖面皆刻佛像。供佛齋僧。米馱連屬開京。指空入此山。以同爲外道。同不服。指空作誓曰。汝是我非則今日我蒙天禍。我是汝非則今日汝受天禍。同曰然。空入宿摩訶衍。夜。雷雨果作。金同寺爲水石所亂擊。同與寺佛。寺鍾。寺僧等同時陷入鬱淵云。鬱淵上里許。有金同寺基。過安養。東轉山腰也。躑躅綿竹。青紅滿徑。赴彌勒庵。庵後有七峯列立。庵

前有水，乃鬱淵下流也。請於主僧解逢，飲茶一碗，食後，左歷明水，地藏，觀音三庵，右歷養心，靈碎二庵，十王百川水，於此與萬瀑洞合流，過此則川石非復白色，自彌陀行十餘里，抵長安寺，寺乃新羅法興王所創，元朝順帝與奇皇后重創，門外有天王二軀，法堂有大佛三軀，中佛二軀，佛前有金額曰，皇帝萬萬世，堂之四面，有小佛一萬五千軀，皆元帝所作，其東側，有無盡燈，燈內四面皆銅鏡，中置一燭，傍立衆僧形，及燃燭則衆僧皆如執燭然，亦元帝所作，五王佛之上，又有五中佛，福城正所作也，堂之西堂，有達摩真，東北隅，有羅漢殿，堂坐，有金佛五軀，左右，有土羅漢十六軀，羅漢之傍，各有侍奉僧二軀，技極精巧，羅漢殿之南，有一室，室內有大藏經函，刻木成三層，屋中有鐵臼，置鐵柱其上，上屬屋樑，置函其中，執屋一隅而搖之，則三層自回可玩，亦元帝所作，觀畢，住持祖澄饋茶飯，飯後冒小雨，循故川邊而上，過鬱淵普賢庵，至新林寺少歇，自長安所歷諸峯，竝其朝日所經七峯，十王洞口望見諸峯計之，則川東有峯二十有九，川西有峯十有八，自北以上則載在前錄，自新林上天親，自天親上正陽，則拜帖在右，僧云，高麗太祖入此山時，五萬曇無竭見身此帖，太祖無數禮拜，因名爲拜帖，余自正陽，又冒雨西上樹林底約十里許，登普賢嶺，又西上三四里許，至開心庵則衣濕盡，而大雨作矣，此日山行，總可四十里。

壬午雨霽，登開心臺望見諸峯，則與望高臺大同而小異，毗盧峯，衆香城在東禪庵後，峯跨於西北，卽毗盧峯之西枝也，摩訶衍後峯，正在禪庵峯前，永郎峴在禪庵峯後，西水精峯在永郎峴西，月出峯在毗盧東南，日出峯在月出峯南，元寂峯在日出峯南，在望高臺不得見者也，元寂香爐峯，在元寂峯南，雁門峯又在其南，雁門之北，有一二峯遙見，自普門而西望者也，眞見性峯又在雁門之南，望高臺又在其南，十王峯露頭於望高臺之上，天燈，觀音，地藏，彌勒，達磨諸峯，列其東南，此其略也，臺南有安心臺，臺側有開心太子石像，僧曰，此新羅國太子也，太子與安心太子，養心太子，頓臺夫人，到此修道，皆法興王子也，今有四庵，仍其舊號，未詳是否，食後從開心西下妙德庵，入見克禪庵後有名緩項者，指空入山時路也，過天德庵，庵有水原府士族寡婦設都山齋，僧纍五百人列坐山腰，喧聲動於洞中，寡婦於衆僧中，露面作結緣，又過元通庵，庵之左右有二川，於庵前合流，亦佳境，過此上元通後嶺，永郎峴前所歷諸峯七，又越潤筆庵嶺，過潤筆庵，又越獅子嶺而東，則卽曩日所見獅子庵也，自此所見峯巒，亦載前錄，山川無異，白石如前，但川兩傍躑躅花去夜雨盡開，纏纏相屬，或成一田，可玩也，余從故道泝流而上，未及雁門帖，東南入一洞攤飯，越水帖而東下，左視川流，右挾南山行樹陰中，左歷峯七，右歷峯四，而北涉川水，陟一高山，下至成佛庵，坐庵上望見東海，雨後益明，非前日比，有客僧竹熙者爲余炊飯，飯後與竹熙，性通等歸見佛頂庵，庵於去年，災於火矣，登佛頂臺，臺中有穴，連山下深潭，有風出其中，僧云，昔有龍女出此穴，奉茶於佛頂祖師，其語甚彪，臺下有青鶴，年年育兒其中云，余坐臺上，望見東南海水，西有雁門，北有開心，寂滅，柏田等寺，其下白巖成一壁，有瀑布垂下十二層，半入林表，余所望見者，六層而已，黃昏，還投成佛庵，是日山行六十里。

癸未，在成佛望見海中，自黎明天東赤色，須臾，日輪飛上，海色盡赤，日上三竿，海色澄白。

余作短篇以記之。飯後越一小峴行十里。赴榆岾寺。九淵洞水源出彌勒峯。至寺前與水岾川合流。寺有水閣。跨川南北。遊鱗飛躍於前。有大水則連魚。松魚。魴魚皆至水閣下。寺之外門曰解脫門。有天王二軀。次日般若門。有天王四軀。次日泛鍾樓。樓傍一室。有盧僂像。最內有能仁寶殿。殿內刻木作山形。有五十三佛列立其間。殿後有一井。名曰烏啄。水始以烏啄得之也。寺有明社主者。出示默軒閔漬榆岾記。其意略曰。五十三佛。本西域舍衛國不見世尊三萬家。承文殊師尼說。鑄成釋迦像。盛以金鍾浮海。任其所之。佛至月氏。其王作室置佛。其室災。佛夢於王。欲去他邦。王盛佛鍾中。又浮諸海。佛至新羅國高城江。太守盧僂請佛所次居。佛入金剛山。僂隨後尋之。有尼坐石上導其路者。地名曰尼臺。有狗於岾上導其路者。地名曰狗岾。有獐於峽口導其路者。地名曰獐項。至於佛之所住處。聞鍾聲歡喜者。地名曰歡喜岾。僂聞於南解王。作大伽藍以安佛像者。名曰榆岾寺。謹按閔漬之記。有七大妄說。而無一可取者。金無浮水之理。其曰。舍衛國所鑄鍾佛浮於海中。歷月氏而到新羅。一大妄也。金無自行之理。其曰。泊高城江。金佛自入金剛山榆岾。又避湯沸飛入九淵洞巖石上。二大妄也。佛本西戎之教。自後漢明帝時始來中朝。而又數百餘年南北朝時。當新羅之中葉。流入于東土。小臣異次頓贊成其法。載在國史。其曰。當前漢平帝之世。新羅第二南解王之朝有此事。始創榆岾寺。三大妄也。假如閔漬之說。佛雖於漢明帝時始來中國。而我國之有佛。肇於南解而實先於中朝。則何以於史籍不載乎。東人無知。奉佛如君父。夫以王太祖之高明。未免於俗習。尙曰。我之有國。實賴佛力。當是時。假有此事。則必誇其事大其言。而載之史矣。史猶不載。而漬乃信其野人之語而記之。四大妄也。假有此事。東人之有僧有尼。必自此始之。而前此無有此法章章矣。其曰。盧僂之尋佛也。有尼導其路。未有佛法之前。安有僧尼。五大妄也。佛飛入洞。萬萬無理。而僧之取佛。佛怒霽而不復飛去。是何前靈而後愚也。兒童之怒。尙不可威止。讚佛之靈而反不如兒童可乎。六大妄也。且以中朝人物之多聞博見。尙未通於西域之梵書。有與胡僧譯之。而後其文明於世。舍衛。月氏國所錄金鍾之字。盧僂又安能解之哉。況其時文籍鮮少。人不解字。而其言西域事跡明白。則七大妄也。甚矣漬之無稽也。有七大妄。而無一語可補於名教者。則知此記闕之可也。而況三國之初。人無定姓。而名字不類於人。則盧僂名字。疑亦後世所作。豈非新羅季世。有文術僧元曉。義相律師之徒。始欲誇大此山事跡。而追述者歟。不然。何其謬誤之若是乎。覽記畢。明坐余茶禮。出坐水閣。又饋餅食訖。明爲送于川邊。過改服臺。臺卽丙戌年榆岾佛事時車駕改服之所也。又過丹楓橋。於橋頭少歇。又過獐項。逢馬從迎我者自溫井來。乘馬越狗岾。岾路險惡。或馬或步。過尼臺石。自岾至平野。於乾川邊攤飯。過蹲房。投高城郡。自榆岾至此六十里。太守趙公。與余先祖友善。見余厚遇。時適有襄陽守柳自漢先在坐。盤饌甚備。

甲申。太守爲柳襄陽爲三日浦之遊。余從之。三日浦者。新羅時有花郎安祥。永郎之徒。遊三日乃罷。故名焉。浦口巖壁間。有丹書六字。仙徒所書也。水方四五里。中有一石島。有長松數株。故名曰松島。東南隅。望見石如龜。故名龜巖。龜巖之後。有白巖率崱於海濱。名曰雪巖。水北有夢泉寺故基。眞絕境也。余從訓導金大倫及柳襄陽乘舟泊松島。又棹舟至丹書巖下。果有六字。曰永郎徒南石行。其字爲石所亂擊。大倫曰。前有厭客太守。客來郡者必欲觀丹書。

故太守惡其供費，欲擊碎云。然其字畫不泯，可解讀。余因問其文義。大倫曰：永郎者，新羅四仙之一。而南石者，指此石也。行者，行于石也。世之文人，皆解如是。余惟此石，自高城視之則在北，自金剛山視之則在東北，自東海視之則在西。其稱南石，尤不可解。且六字成文，文理大疏，類兒童手。古人文法，應不如是。若非出於兒輩之好事，則是永郎之徒有姓名南石行者題名乎。泊舟登石上，其頂有爲彌勒佛埋香碑，高麗時所立。舟還松島，終日宴飲，盤饌甚盛。或令漁人網魚斫脰，或聯句唱和。午後大風作，太守惶懼還舟。余還溫井。

乙酉，入湯井浴。丙戌浴。丁亥浴。戊子，浴而出歇。己丑，庚寅歇。得家書，慈堂安穩。

辛卯，回程。發溫井，行且採薇。過高城郡，又過萬戶渡，乘舟渡高城浦，於江邊炊飯。嶺東民俗，每於三四五月中擇日迎巫，極辦水陸之味以祭山神。富者馱載，貧者負戴，陳於鬼席。吹笙鼓瑟，嬉嬉連三日醉飽。然後下家，始與人買賣。不祭則尺布不得與人。高城俗所祭乃是日也。行路處處，男女盛粧，絡繹不絕，往往稠如城市。過雪巖，巖以南，奇石甚多。過安昌驛，登安石島，細石連陸，箭竹成林。竹下有海棠花，花下有白巖，或平或立，或積或碎。余歷回島下，坐臥遊玩。還出過仇莊遷，示奇境。差後於瓮遷，涉蛇川，過明波驛，於川邊攤飯。越戌山，還從海邊，至茂松亭。亭正在海曲，而亦連陸路。長松生其頂，白石成其麓。高於安石，又不知幾倍矣。過烈山入杆城境，宿浦南民舍。是日，沿海行總一百二十里。壬辰，冒雨發浦南，過盤巖，行十九里。雨甚，止宿杆城客舍。太守元輔昆饋酒飯，雲山醉倒。

癸巳，雨霽，發過門巖，沿海行四十五里，抵清澗驛。有樓臨水，樓後絕壁削立，樓前衆石巉巖。余登樓後壁上，所望尤廣。西見雪岳，雨脚如注。天南，午日正中，海昏於前，花明於後。奇玩不可數計。於壁上澆飯。又行海濱，過沙嶺海曲。是時東南風急，海濤衝岸如千兵萬馬，水所激處，紫虹立成，隨立隨滅，真壯觀也。望見竹島，白竹如煙，竹下石上，海獺成行而群鳴，鳴聲與水聲合，雷動海曲。又至腐石，自清澗至此二十里，又右歷天寶山到松亭，自此望見洛山，行二十里，入洛山洞，又行十里，抵洛山寺。所歷陂澤，其大十餘里或二十餘里者六，涉大浦二，大川二，過竹島三，名巖奇石，不知其幾也。洛山者，新羅僧義相所創，寺僧傳其事跡云，相見觀音親身於海邊窟中，觀音親授寶珠，龍王又獻如意珠，相受二珠，於是創寺，取旃檀土，手作觀音像，今之海邊小窟，乃其觀音所住也。庭中石塔，乃藏二珠塔也。觀音塑像，乃其相手作者也。戊子年間，有妖僧學悅建白，於寺基作大伽藍，自居其中，盡取傍民田以爲己業，今悅死一年矣，其徒智生嘗媚於悅，悅死而盡得奴婢田貨管其利。寺前有一亭臨海，柿林周匝，竹木徧山，余坐亭上望海，下亭歷陂下，至大竹林，還過廚舍下口谷，左歷巖石披小竹，披將半里，至所謂觀音窟者，有小銅佛在窟下小室，不蔽風日，室下海濤激石，山形如掀，屋板長鳴，余下至洞口，雲山與僧繼千來迎我。至寺，智生出迎館待。

甲午平明，余坐亭上望出日，智生饋朝飯，引余見觀音殿，所謂觀音像，技極精巧，若有精神焉。殿前有正趣殿，殿中有金佛三軀，余出道南路西轉而行，行將二十里，至襄陽府前川上歇馬。又行十里入雪岳，陟所於嶺下峴，則川水在左，峯巒在右，過盡山麓，涉川流而左，山明水秀，白石交加，略如金剛山大藏洞，沿流而上，至五色驛，山月已白矣。是日，陸行三十里，山行四十里，乙未，發五色驛，度所率嶺，雪岳亂嶂，無慮數十餘，峯皆頭白，溪邊石木亦白，俗

號小金剛山. 非虛語矣. 雲山曰. 每八月. 諸山未霜. 而此山先雪. 故云雪岳. 嶺上石間. 有八分書一絕云. 生先檀帝戊辰歲. 眼及箕王號馬韓. 留與永郎遊水府. 又牽春酒滯人間. 墨跡尙新. 書之必不久也. 世無仙者. 豈非好事者偶題歟. 然子程子以國祚之祈天永命. 常人之至於聖人. 以此修煉之引年. 深山大澤之中. 亦有這般等人. 未可知也. 讀其詩. 令人有出塵之想. 余於嶺上辭東海. 下嶺西南行樹底. 道塗險絕. 洞壑幽深. 折取丁香花. 插馬鞍以聞香. 過眠巖. 行將三十里歇馬. 過新院. 又行十五里. 有川自雪岳西面而來者. 與所率川合流. 至元通驛下爲大江. 前至元通. 山川曠莽甚佳. 自元通履平地. 又行二十五里. 涉元通川. 麒麟縣水於此合流. 循江行五里. 宿麟蹄縣. 是日. 山行六十里. 陸行三十里.

丙申. 乘舟渡瓶項津. 西南行過船遷. 又西南行過萬義驛. 又行山間入洪川境. 宿泉甘驛. 總行八十里. 丁酉. 又西南行越馬嶺. 又西南行. 循大江而下. 過仇叱遷. 迎逢驛. 行六十里赴洪川縣. 見縣監伯起同宿.

戊戌. 乘舟渡前江. 越掛牋嶺. 歷百同驛山後過砥平縣. 又過天谷院. 西南入石徑. 是日行. 總九十里. 宿權校理景祐家.

己亥. 冒小雨西行. 涉天谷川下流. 過娛賓驛. 楊根郡. 又過月溪遷. 隅院. 腰院. 末院. 渡龍津. 宿奉安驛. 是日行. 總八十餘里.

庚子. 過豆尾遷. 平丘驛. 涉中寧浦. 行七十里入京. 總計山行四百八十五里. 海行二百七十四里. 陸行九百三十七里.

乙巳後四月二十一日辛丑. 記.

『續東文選』卷之二十一, 錄



## 이규준

○ 『금강일기(金剛日記)』

석곡(石谷)

이규준(李圭峻)<sup>211)</sup>

당나라 사람의 말 가운데, “고려국(高麗國)에 태어나 금강산(金剛山)을 한 번 보고 싶다.”라는 말이 있으니, 금강산은 천하의 산이다. 나 석산인(石山人)은 사촌동생 수(修)가 관동(關東)에 유람 가서 돌아오지 않으므로, 가서 그를 찾아보고 겸해서 금강산도 보고자 하였다.

211) 이규준(1855, 철종6~1923)의 자는 숙현(叔玄), 호는 석곡(石谷)이다. 원래 유학자로서 경사자집(經史子集)에 능통하였다. 명말 청초에 중국에 와 있던 야소회사(耶蘇會士)들이 편술한 한역서(漢譯書) 등을 읽고 서양의 역법(曆法)을 논한 《포상기문 浦上奇文》(1책), 수학(數學)을 논한 《구장요결 九章要訣》(1책)을 발표하였으며, 그밖에 《신교술세문 新敎術世文》(1책), 《석곡산고 石谷散稿》(2책)들을 세상에 전하였다. 의학연구에 전념하여 《황제소문절요 黃帝素問節要》(2책), 《본초 本草》(상·하 2책)와 《동의보감》을 다시 연마한다는 뜻에서 《의감중마 醫鑑重磨》(3책)를 발표하였다.

임인년 4월 7일[정유]에 출발하자 정선조(鄭先祚)가 따라 나섰다. 걸어서 곡강(曲江) 40리에 도착하니, 사백(舍伯) 및 여러분들과 전별시를 지었다. 북쪽으로 영해(寧海)를 지나 평해(平海)에 들어갔다. 이곳은 바로 강원도의 남쪽 경계이다. 군(郡)에서 동쪽으로 7리 떨어진 바닷가에 월송정(月松亭)이 있는데,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로써 일본과 지척이요, 한없이 넓은 금빛 물결과 명사십리(明沙十里), 사계절이 비취빛 병풍을 이룬 곳이 월송정의 뛰어난 경치라고 하겠다. 울진(蔚珍) 경계를 지나니 석등현(石磴縣)이 있다. 해안이 있는데 지대가 평평하여 백 명이 앉을 수 있다고 한다. 이곳이 망양정(望洋亭)의 옛터이다. 오직 남아 있는 것은 노송 수백 그루로써 올라가 멀리 바라보니 만리나 끝없이 펼쳐져 회포를 풀 수 있어 망양(望洋)이라는 시를 지었다. 삼척(三陟)을 지나 소공령(召公嶺)에 오르니 고개와 언덕이 길게 이어져 30리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고개의 이름은 관찰사가 순찰한다는 의미에서 따온 것이다. 죽관도(竹串島)를 지나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동해비(東海碑)를 보고 삼척읍(三陟邑)에 들어갔다. 삼척군 서쪽에는 죽서루(竹西樓)가 있는데 오십천(五十川)이 합쳐져 흐르고 절벽이 수백 척인데 돌 위에 누각을 세워놓았다. 올라가서 다리를 쉬고 공경스럽게 울곡(栗谷) 이이(李珣) 선생의 판상운(板上韻)에 차운하였다.

17일.

북쪽으로 강릉(江陵) 병산촌(柄山村) 반정리(半亭里)에 가서 사촌동생을 만나 손을 잡고 곡을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집과의 거리는 570리이다. 사흘을 묵고 서북쪽으로 강릉부(江陵府)를 지나 7리를 가 오죽현(梧竹軒 ; 烏竹軒)에 들어가 울곡 선생이 탄생한 곳을 보았다. 계곡과 산이 구불구불하고 유풍(遺風)은 맑고 깨끗하였다. 동쪽으로 3리를 내려가 경포대(鏡浦臺)에 올라가니 들판의 물이 호수를 이루고 주변이 10리에 달하며 바다의 모래가 독을 만들었다. 호수는 깊지도 얕지도 않은데 거울처럼 조용하고 맑았다. 호수 구비에는 대(臺)가 있고 대 위에 활터를 만들었는데 비단처럼 아름다워 눈을 놀라게 하였다. 이어서 현판 위에 있는 운(韻)에 차운하고 서북쪽으로 양양(襄陽)을 지나 북쪽으로 20리를 가 낙산사(洛山寺)를 찾았다.

낙산사는 해안 산봉우리 위에 있는데 수많은 소나무들이 사방을 막고 있어 사람들이 사는 동네와 떨어져 있는 것 같았으며, 절 아래의 해안에는 바위 구멍이 뚫려 균열이 생기고 깊이를 알 수 없다. 양쪽 해안에 작은 암자 하나를 세워 놓았는데 매년 풍랑이 드나들 때마다 난간과 누각 아래에서 금석(金石)이 쟁쟁 울리는 소리를 내고 튀어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훌륭한 경관이다.

서북쪽으로 간성(杆城)을 지나 청간정(淸澗亭)을 찾았는데 정자는 남아 있지 않고 단지 보이는 것은 계곡의 맑은 물결뿐이었다. 애암포(崖巖浦)를 지나는데 바위돌 가운데에는 위아래가 맷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서로 몇 치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돌 멩이를 그 사이에 두고 밤을 지나면 반드시 갈리기 때문에 자마석(自磨石)이라고 부른

다는 것이다. 또한 명사포(名沙浦)에는 10리나 되는 흰 모래가 펼쳐져 있는데 밟으면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 이 또한 모두 기이한 일이다. 서북쪽으로 고성(高城)의 경계에 이르니 10리에 걸쳐 해안이 펼쳐져 있는데 돌의 형세가 험하고 바다 속에 들어가 있어 해금강(海金剛)이라고 불리운다. 돌 모양이 배를 엮어놓은 것 같았는데 세속에서는 53개의 부처가 돌로 만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곳에 도착하여 비로소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고 전한다.

『金剛日記』, 「石谷散稿」

唐人有言曰. 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 則金剛. 天下山也. 石山人. 以其從弟脩. 客遊關東不返. 將往搜之. 因觀金剛山.

壬寅之四月初七日丁酉. 啓裝. 鄭先祚從之. 行至曲江四十里. 與含伯及諸賢. 賦錢別. (詩見上) 北過寧海入平海. 乃江原道南境也. 郡東七里海上. 有月松亭. 稱爲關東八景之一也. 扶桑咫尺. 萬頃金波. 明沙十里. 四時翠屏. 月松亭之勝景也. 過蔚珍境. 有石嶺縣. 在海岸. 其上土平. 可坐百人云. 是望洋亭舊址也. 惟有古松數株. 登臨聘眺. 萬里無邊. 足以暢懷. 賦望洋. 過三陟. 登召公嶺. 嶺岡長延. 登降三十里. 嶺名. 取道伯巡察之義也. 過竹串島. 見眉姿許先生東海碑. 入三陟邑. 君西有竹西樓. 五十川. 合而成匯. 絕壁百尺. 架石起樓. 登臨歇脚. 敬次栗谷先生板上韻.

十七日. 北至江陵柄山村半亭里. 得從弟. 握哭相叙. 距家五百七十里. 留三日. 西北過江陵府. 行七里入梧竹軒. 觀栗谷先生胎地. 溪山宛轉. 而遺風漠然. 東下三里. 登鏡浦臺. 野水成湖. 彎回十里. 海沙成堤. 湖水不深不淺. 淨明如鏡. 湖曲有臺. 臺上起榭. 綺麗駿矚. 因次板上韻. 西北過襄陽. 北二十里. 尋洛山寺. 寺在海岸峰上. 萬松四塞. 人境似絕. 寺下海岸. 岩穴坼裂. 深不可測. 兩岸架一小庵. 每風浪出入時. 聞金石噌吰踊躍放欄閣之底. 是爲奇觀也. 西北過杆城. 尋清澗亭. 亭不存. 但見澗水清流而已. 過崖岩浦. 有岩石. 上下如磨扇. 相離數寸. 人以石子. 置放其間. 經夜. 必銷磨. 名云自磨石. 又有鳴沙浦. 十里白沙. 踏則步步生聲. 亦皆異事也. 西北至高城境. 十里海岸. 石勢崎嶇. 入于海中. 稱爲海金剛. 有石如覆舟. 諺傳五十三佛. 石舟渡海. 抵此. 始入金剛山.

『金剛日記』, 「石谷散稿」



## 일연

○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sup>212)</sup>(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212) 『三國遺事』卷第三

213) 일연(1206, 희종2~1289, 충렬왕15)의 속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견명(見明)이다. 자는 회연(晦然), 호는 무극(無極)·목암(睦庵)이다. 경주 장산군(章山郡, 지금의 경산시) 출신으로, 아버지는 지방 향리 출신인 언필(彦弼)이다.

14세 때 설악산 진전사(陳田寺)로 출가하여 대웅장로(大雄長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로부터 선(禪)수행을 위해 여러 곳을 유력하였고 여러 사람들의 추대로 구산문(九山門) 사선(四選)에의 으뜸이 되었고 22세에는 최고 고시인 선불장(選佛場)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1227년(고종 14) 선불장(選佛場)에 나아가 상상과(上上科)에 급제한 이후 포산(包山), 경주 근처 현풍현 비슬산)의 보당암(寶幢庵)·무주암(無住庵)·묘문암(妙門庵) 등지에서 머물렀으며, 1237년 삼중대사(三重大師)가 되고 1246년 선사(禪師)가 되었다.

1249년 최씨 무인정권과 밀접한 유대를 가지고 있던 정안(鄭晏)의 초청으로 남해(南海) 정림사(定林社)에 머물게 되었다. 이는 일시적으로 최이에게 반발한 정안이 수선사(修禪社) 계통의 승려를 기피하여 가지산문(迦智山門)의 일연을 초청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가지산문의 승려들이 최씨 정권과 연결되어 1251년에 완성된 대장경 조판 중 남해분사(南海分司)에서의 작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1259년 대선사(大禪師)가 되었고, 1261년(원종 2) 원종의 명에 따라 강화도에 초청되어 선월사(禪月社)에 머물렀는데, 이때 지눌(知訥)의 법맥을 계승했다. 이는 그가 가지산문에서 사굴산문(閻崛山門)으로 법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원종을 옹위한 정치세력이 불교계를 통솔하기 위해 일연을 이전의 수선사 계통의 승려를 대신한 계승자로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연은 중앙정계와 관련을 맺은 이후, 이를 배경으로 가지산문의 재건에 힘썼다. 1268년 왕명에 의해 운해사(雲海社)에서 대장낙성회(大藏落成會)를 주관하고, 1274년 비슬산 인흥사(仁弘社)를 중수한 후 왕의 사액에 따라 인흥사(仁興社)로 개명했으며, 같은 해 비슬산 용천사(湧泉寺)를 불일사(佛日社)로 개명했다.

1277년(충렬왕 3)부터 충렬왕의 명에 따라 운문사(雲門寺)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三國遺事』의 집필에 착수했다. 1283년 3월 국존(國尊)으로 책봉되고, 원경충조(圓鏡沖照)라는 호를 받았으나 노모의 봉양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1284년 인각사(麟角寺)에서 2회에 걸쳐 구산문도회(九山門徒會)를 열었는데, 이는 가지산문이 일연을 중심으로 고려 불교계의 전 교권을 장악한 것을 뜻한다. 1289년 7월 왕에게 올리는 글을 남기고 7월 인각사에서 입적하였다. 이해 10월 인각사 동쪽 언덕에 탑을 세웠으니, 시호는 보각(普覺)이고 탑호는 정조(靜照)이다.

『삼국유사』 찬술을 위해 1278년에 이미 <역대연표>를 작성하고, 이후 그의 나이 73~76세에 운문사에서 『삼국유사』를 찬술했다. 저서로는 『語錄』 2권, 『偈頌雜著』 3권, 『삼국유사』 5권, 『중편조동오위』 2권, 『祖派圖』 2권, 『祖庭事苑』 30권, 『禪門頌事苑』 30권, 『大藏須知錄』 3권, 『諸乘法數』 7권 등이 있다.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11년(1285)에 일연스님이 지은 5권 2책의 역사책이다. 인종23년(1145)에 김부식을 비롯한 11명의 편사관이 왕명에 의해 편찬한 50권 10책의 기전체 사서(紀傳體 史書) 『삼국사기』이다. 이 두 책은 우리 고대사 연구에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구 의미가 크다. 왕력(王曆), 기이(紀異), 흥법(興法), 탑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으로 항목을 나누어 고조선으로부터 후삼국까지의 역사, 지리, 문학, 종교, 미술, 민속 등 문화 전반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 글은 『삼국유사』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에 수록되어 있다. 조신전의 마지막에 이 전기를 읽고 책을 덮고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면 어찌 조신사의 꿈만 그렇겠는가. 지금 모두가 세속의 즐거운 일만 기뻐하고 애쓰고 있지만 이것은 다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쓴 글이다.

낙산은 불교의 성지이고, 깨달음의 공간이다. 낙산이란 원래 관음보살이 있다는 서역의 보타낙가산(寶陀洛伽山)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관음보살은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치유해줄 뿐 아니라 모든 중생의 소원을 해결해 주는 보살이다. 낙산의 공간적 배경을 고통과 슬픔을 깨달음의 세계로 설정하였다. 낙산사는 관음보살이 함께 하는 자비의 도량으로, 이곳과 관계된 의상과 원효는 한국불교를 발전시킨 고승으로, 두 고승의 소중한 만남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한국불교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켰지만 신앙적 형태는 달랐다.

원효는 관음보살을 친견하지 못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이 부족해서이다. 법사들이 만난 여인은 모두 관음보살의 화신이다. 원효 같은 고승이 왜 깨닫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대목이다. 눈에서 벼를 베던 여인에게 벼를 달라고 청하자 여인은 벼가 영글지 않았다고 말하며 거절한다. 농경사회에서 벼는 먹고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양식이었다. 이것을 달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문화인류학적으로 본



옛날 의상법사 처음 당나라에서 돌아와 관음보살(觀音菩薩)의 진신(眞身)이 이 해변 어느 굴에 산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낙산이라고 이름 했는데, 이는 대개 서역(西域)에 보타낙사산(寶陁洛伽山-관음보살이 있다는 산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소백화(小白華)라고도 하였는데 백의대사(白衣大士-관음보살의 하나)의 진신이 머물러 있는 곳 이기에 이것을 빌어다 이름 하였다.

의상이 재계(齋戒) 후 칠 일만에 좌구(座具)를 새벽 물위에 띄웠더니 용천팔부(龍天八部-불법을 수호하는 여러 神將)에 시중들이 굴속으로 안내해 들어가 공중을 향해 참선을 하니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내준다. 의상이 받아가지고 물러나오니 동해용이 또한 여의보주(如意寶珠) 한 알을 바치므로 의상이 받들고 나와서 다시 칠일 동안 재계(齋戒)하고 나서 이에 관음보살의 참모습을 보았다. 관음보살이 말하기를 “좌상(座上)의 산마루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다. 그곳에 불전(佛殿)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 법사가 이 말을 듣고 굴에서 나왔더니 과연 대나무가 땅에서 솟아나왔다. 이에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시니, 그 둥근 얼굴과 고운 바탕이 마치 천연적으로 생긴 것 같았다.

대나무가 다시 사라지자 그제서야 비로소 관음보살의 진신이 살고 있는 곳임을 알았다. 이 때문에 그 절 이름을 낙산사(洛山寺)라 하고 법사는 자기가 받은 두 구슬을 성전(聖殿)에 봉안하고 그곳을 떠났다.

다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속세의 욕망을 끊어야 할 스님에 대한 경계로 보인다.

관음보살을 친견하기에 정성이나 성의가 부족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는 겸손이 부족했던 불자였다.

다리 밑에서 월수백을 빨고 있는 여인에게 원효가 물을 청하자 여인이 더러운 물을 떠 주자 법사가 옆길러 버리고 다시 깨끗한 냇물을 떠 마신다. 속세의 욕망을 끊어야 할 월수백을 빨고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모습에서 법사의 의식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속세의 철없는 행동을 보고 파랑새가 ‘스님 그만 두시오’한다. 그리고는 숨어버린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소나무 밑에 신 한 짝 있었다. 그리고 법사는 절에 이르러 관음보살상의 자리 밑에 전에 보았던 신 한 짝을 보고 비로소 전에 만난 여인이 관음보살의 진신임을 알게 되었다. 법사는 의상이 만났던 장소에서 관음보살의 진용을 친견하려 하였으나 풍량이 심해 보지도 못하고 떠났다.

이 이야기에서 두 스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지극한 기도와 불심으로 속세의 욕망을 끊고 불도에 정진했던 의상과 반면에 속세욕망을 끊어야 할 불자가 여인을 보고 희롱하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을 느낄 수 있다.

조신전 같이 꿈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우리 문학사에서 고대설화에서부터 시가, 수필,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왔다. 꿈을 소재로 한 작품은 민족의식과 관계있는 것으로 꿈의 서사양식은 인도의 불경 『잡조장경』의 「사라나비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작품도 깨달음을 주기 위한 서술로 불경 속에 수록되어 중국의 육조시대나 당대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불경역경사업이 성행하여 당대 소설인 「침중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 「침중기」를 일연스님이 읽고 조신전 창작에 영향을 받았다.

꿈은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문학사에 자주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신으로, 이 작품은 우리 소설사에서 최초의 소설로 그 배경을 낙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성지이고 깨달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신라말기의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모순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의식반영으로 사회전반적인 모순과 현상을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 문학사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 후에 원효법사가 뒤를 이어와서 여기에 예(禮)하려고 하였다. 처음에 남쪽 교외(郊外)에 이르니 논 가운데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벼를 베고 있었다. 법사가 희롱삼아 그 벼를 달라고 하자 여인은 벼가 영글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또 가다가 다리 밑에 이르자 한 여인이 월수백(月水帛-생리대)을 빨고 있다. 법사가 물을 달라고 청하자 여인은 그 더러운 물을 떠서 받친다. 법사는 그 물을 옆질러 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 마셨다. 이때 들 가운데 있는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그를 불러 말하였다. “제호(醜鬪)스님 [불법이 뛰어난 인물]은 그만 두시지요.” 그리고 갑자기 숨어 보이지 않는데 그 소나무 밑에는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법사가 절에 도착하자 관음보살상의 자리 밑에 또 전에 보았던 신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그제서야 전에 만난 성녀(聖女)가 관음의 진신임을 알았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이라 하였다. 법사가 성굴(聖窟)에 들어가서 다시 관음보살의 참 모습을 보려고 하였으나 풍량이 크게 일어나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다.

그 뒤 굴산조사 범일(崛山祖師 梵日-신라 고승, 품목이라고도 한다)이 태화(太和-당나라 문종의 연호)연간(827-835)에 당나라에 들어가 명주(溟州) 개국사(開國寺)에 이르니 왼쪽 귀가 없는 스님 하나가 여러 스님들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사에게 말한다. “저 또한 고향 사람으로 저의 집은 명주의 경계인 익령현(翼嶺縣-양양) 덕기방(德耆坊)에 있습니다. 조사께서 다음 날 본국으로 돌아가시거든 모름지기 저의 집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이윽고 조사가 많은 승려가 오며 있는 곳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염관(鹽官-中國 杭州 鹽官縣 鎮國海昌院)에 있던 齊安禪師)에게서 법을 얻고(이 일은 모두 본전에 자세히 있다.) 회창(會昌-당나라 무종의 연호) 7년 정묘(丁卯-847)에 본국으로 돌아오자 먼저 굴산사(崛山寺)를 세우고 불교를 전하였다.

大中 12년 戊寅(858) 2월 보름 밤 꿈에 전에 보았던 스님이 창문 밑에 와서 말한다. “옛날에 명주 개국사에서 조사와 함께 약속이 있어 이미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늦는 것입니까?” 조사는 놀라 꿈에서 깨어 수 십 명의 사람을 데리고 익령(翼嶺) 경계에 가서 그가 사는 곳을 찾았다. 한 여인이 낙산 아래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물으니 덕기(德耆)라고 한다. 그 여인에게 아들 한 명이 있는데 나이가 겨우 8세로 항상 마을 남쪽 돌다리 가에 가서 놀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한다. “나와 같이 노는 아이들 중에 금빛이 나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조사에게 말하였다. 조사는 놀라서 기뻐하며 그 아이와 함께 놀았다는 다리 밑에 가서 찾아보니 물속에 돌부처가 하나 있어서 꺼내어 보니 왼쪽 귀가 끊어져 있고 전에 보았던 스님과 같았다. 이것은 곧 정취보살(正趣菩薩)의 불상이었다. 이에 간자(簡子-점치는 뗏조각)를 만들어 절을 지을 곳을 점쳤더니 낙산 위가 제일 좋다고 하여 여기에 불전 세칸을 지어 그 불상을 모셨다(고분에 범일의 일이 앞에 있고, 의상과 원효의 일은 뒤에 있다. 그러나 상고해 보건대 의상과 원효 두 법사의 일은 당나라 고종 때 있었고, 범일

의 일은 회창(會昌) 후에 있었다. 그러므로 연대가 서로 120년이나 차이가 난다. 이런 연유로 지금은 앞뒤가 바뀌어 책을 꾸몄다. 혹은 범일이 의상의 문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그 뒤 1백년이나 지나 들에 불이 나서 이 산까지 번져왔으나 오직 관음, 정취 두 성인을 모신 불전만은 그 화재를 면했고, 그 나머지는 두 타버렸다. 몽고의 병란이 있는 이후 계축, 갑인 연간(1252-54)에 두 성인의 참 얼굴과 두 보주(寶珠)를 양주성(양양)으로 옮겼다. 몽고군사가 몹시 급하게 공격하여 성이 장차 함락되려 하자 주지 선사 아행(住持 禪師 阿行 -옛이름은 希玄)이 은으로 만든 합(盒)에 두 보주를 넣어가지고 도망하려 하였다.

이것을 절에 있는 종 걸승(乞升)이 빼앗아 땅 속에 깊이 묻고 맹세 하였다. “내가 만일 병란으로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면 두 보주는 끝내 인간 세상에 나타나지 못해서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요, 내가 만일 죽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 두 보물을 받들어 나라에 받칠 것이다.” 갑인년(1254) 10월 22일에 이 성이 함락되었다. 아행(阿行)은 죽음을 면하지 못했으나 걸승은 죽음을 면했다. 그는 적의 군사가 물러가자 이것을 파내어 명주도(溟州道) 감창사(監倉使)에게 받쳤다. 이때 낭중(郎中) 이녹수(李祿綏)가 감창사였는데 이것을 받아 감창고(監倉庫) 안에 간직해 두고 교대할 때 마다 서로 전해서 이어 받았다. 무오년(1258) 11월에 이르러 본업(本業)의 늙은 스님, 지림사(祇林寺) 주지 대선사 각유(覺猷)가 임금께 아뢰었다. “낙산사의 두 보주(寶珠)는 국가의 보물입니다. 양주성이 함락 될 때, 절의 종 걸승이 성 안에 묻었다가 적병이 물러 간 뒤에 파내서 감창사에게 바쳐서 명주영 의 창고 안에 간직하여 왔습니다. 지금 명주성도 지킬 수 없으니 마땅히 어부(御府)로 옮겨 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야별초(夜別抄) 10명을 내어 걸승을 데리고 명주성에서 두 보주를 갖다가 내부(內府)에 안치해 두었다. 그때 사자로 간 10명에게는 각각 은 1근과 쌀 5石씩 두었다.

옛날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세규사(世達寺)의 장원(莊園)이 명주 날리군(捺李郡)에 있었는데 본사에서 스님 조신(調信)<sup>214)</sup>을 보내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하였다. 조신이

214) 이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은 낙산으로, 낙산(洛山)이란 원래 관음보살이 있다는 서역의 보타낙가산(寶陀洛伽山)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관음보살은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치유해 줄 뿐 아니라 모든 중생의 소원을 해결해 주는 보살로, 낙산의 공간적 배경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계로 설정하였다. 낙산사는 관음보살이 함께 하는 자비의 도량이다. 이곳과 관계된 의상과 원효는 한국불교를 발전시킨 고승으로, 두 고승의 소중한 만남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한국불교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켰지만 신앙적 행태는 달랐다.

의상은 재계 후 칠 일만에 좌구를 새벽 물위에 띄웠더니 용천팔부의 시종들이 굴속으로 안내해 들어가 공중을 향해 참예하니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내준다. 의상이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동해의 용왕이 또한 여의보주 한 알을 바치므로 의상이 받들고 나와 다시 칠일 동안 齋戒하고 나서 이에 관음보살의 참모습을 보았다. 관음보살이 “좌상의 산마루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다. 그 곳에 불당을 짓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법사가 들고 굴에서 나오자 과연 대나무가 땅에서 솟아 나왔다. 이에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시니 그 둥근 얼굴과 고운 바탕이 마치 천연적으로 생긴 것 같았다. 대나무가 다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공(金昕公)의 딸을 좋아하여 아주 반하였다. 여러 번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가 지나 그 여인에게 배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갑자기 김씨 남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말한다.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뵈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하여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이기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갔습니다. 지금 내외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40년간 같이 살면서 다섯 자녀를 낳았다. 집이 다만 네 벽뿐이고, 좋지 못한

---

시없어지자 비로소 관음보살의 진신이 살고 있음을 알았다. 법사는 자기가 받은 두 구슬을 성전에 봉안하고 그곳을 떠났다.

그 후 원효법사가 뒤에 와서 여기에 예하러 하였다. 처음에 남쪽 교외에 이르자 논 가운데 흰 옷을 다고 대답한다. 또 가다가 다리 밑에 이르니 한 여인이 월수백을 빨고 있었다. 법사가 물을 달라고 청하자 여인은 그 더러운 물을 떠서 주자, 법사는 그 물을 엇질러 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신다. 이 때 들 가운데 있는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그를 불렀다. “제호(醜胡)스님은 그만 두시오.” 그리고는 갑자기 숨어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 소나무 밑에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그제서야 전에 만난 성녀가 관음의 진신임을 알았다. 이런 연유로 당시의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이라 하였다. 법사가 성굴로 들어가 다시 관음의 진용을 보려고 하였으나 풍량이 크게 일어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떠나버렸다.

원효는 관음보살을 친견하지 못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이 부족해서 이다. 법사가 만난 여인은 모두 관음보살의 화신이다. 원효 같은 고승이 왜 깨닫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대목이다. 논에서 벼를 베던 여인에게 벼를 달라고 청하자 여인은 벼가 영글지 않았다고 말하며 거절한다. 농경사회에서 벼는 먹고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양식이었다. 이것을 달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문화인류학적으로 본다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달라는 의미로 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속세의 욕망을 끊어야 할 스님에 대한 경계로 보인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관음보살을 친견하기에 정서이나 성의가 부족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는 겸손이 부족했던 불자였다.

다리 밑에서 월수백을 빨고 있는 여인에게 원효가 물을 청하자 여인이 더러운 물을 떠 주자 법사가 엇질러 버리고 다시 깨끗한 냇물을 떠 마신다. 속세의 욕망을 끊어야 할 월수백을 빨고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모습에서 법사의 의식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속세의 철없는 행동을 보고 파랑새가 ‘스님 그만 두시오’한다. 그리고는 숨어버린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소나무 밑에 신 한 짝 있었다. 그리고 법사는 절에 이르러 관음보살상의 자리 밑에 전에 보았던 신 한 짝을 보고 비로소 전에 만난 여인이 관음보살의 진신임을 알았다. 법사는 의상이 만났던 장소에서 관음보살의 진용을 친견하려 하였으나 풍량이 심해 보지도 못하고 떠나 버렸다.

이 이야기에서 두 스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지극한 기도와 불심으로 속세의 욕망을 끊고 불도에 정진했던 의상과 반면에 속세욕망을 끊어야 할 불자가 여인을 보고 희롱하는 모습은 인간적인 면을 느낄 수 있다.

조신몽 같이 꿈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우리 문학사에서 고대설화에서부터 시가, 수필,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왔다. 꿈 을 소재로 한 작품은 민족의식과 관계 있는 것으로 꿈의 서사양식은 인도의 불경 잡보장경의 사라나비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작품도 깨달음을 주기 위한 서술로 부경 속에 수록되어 중국의 육조시대나 당대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불경역경사업이 성행하여 당대 소설인 침중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꿈은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문학사에 자주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신으로, 이 작품은 우리 소설사에서 최초의 소설로 그 배경을 낙산을 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성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신라말기의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모순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민초들의 의식반영으로 사회전반적인 모순과 현상을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양양을 대표할 뿐 아니라 우리 문학사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 없었다. 마침내 형상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로 두루 다녀서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마침 명주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15세 된 큰 아이가 갑자기 굶어죽자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네 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羽曲縣)에 이르러 길가에 초옥(草屋)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이 들었다. 더욱이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자 열 살 난 계집 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었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픔을 부르짖으며 앞애와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이 몇 줄이고 흘렸다.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한다.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가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었는데 집을 나온 지 50년 동안에 정이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엮혔으니 가히 두터운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병으로 쇠약하여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결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문전에서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이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 지초(芝草)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더 누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못 새가 다 함께 굶어죽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짝을 잃은 난조(鸞鳥)가 거울 향해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서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자 여인이 말한다. “나는 고향으로 갈 것이니 그대는 남쪽으로 기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타나 남은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하였다.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졌고 망연(惘然)히 세상일에 뜻이 없어졌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 평생의 소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하게 없어졌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었다. 그는 돌아와서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돌미륵(石彌勒)이었다.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私財를 내어 정토사(淨土寺)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하였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 없다. 의논해 말한다. “이 전기를 읽고 나서 책을 덮고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니 어찌 조신사(調信師)의 꿈만이 그렇겠는가. 지금 모두가 세속의 즐거운 것만 알아 기뻐하고 애쓰고 있지만 이것은 다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詞 를 지어 경계한다.

잠시 즐거운 마음은 이미 가버리고	快適須臾意已閑
근심 속에 남모르게 늙어버렸네	暗從愁裏老蒼顏
모름지기 황량(黃梁)이 다 익기를 기다리지 말고	不須更待黃梁熟
노생은 인생이 한바탕 꿈인 것을 깨달았네	方悟勞生一夢間
몸을 다스림에 잘못됨은 먼저 정성인데	治身臧否先誠意
홀아비는 미인 꿈꾸고 도둑은 창고를 꿈꾸네	鰥夢蛾眉賊夢藏
어찌 가을날 청야몽만으로	何以秋來清夜夢
때때로 눈을 감아 열반에 이르리오	時時合眼到清涼

『三國遺事』

昔, 義湘法師始自唐來還, 聞大悲真身住此海邊窟內, 故因名洛山, 盖西域寶陀洛伽山, 此云小白華, 乃白衣大士真身住處, 故借此名之, 齋戒七日, 浮座具晨水上, 龍天八部侍從, 引入峯內, 參禮空中, 出水精念珠一貫給之, 湘領受而退, 東海龍亦獻如意寶珠一顆, 師捧出.

更齋七日, 乃見真容, 謂曰, 於座上山頂雙竹湧生, 當其地作殿宜矣, 師聞之出掘, 果有竹從地湧出, 乃作金堂, 塑像而安之, 圓容麗質, 儼若天生, 其竹還沒, 方知正是真身住也, 因名其寺曰洛山, 師以所受二珠, 鎮安于聖殿而去.

後有元曉法師, 繼踵而來, 欲求瞻禮, 初, 至於南郊水田中, 有一白衣女人刈稻, 師戲請其禾, 女以稻荒戲答之, 又行至橋下, 一女洗月水帛, 師乞水, 女酌其穢水獻之, 師覆棄之, 更酌天水而飲之, 時, 野中松上有一青鳥, 呼曰, 休醒口和尚, 忽隱不現, 其松下有一隻脫鞋, 師既到寺, 觀音座下又有前所見脫鞋一隻, 方知前所遇聖女乃真身也, 故, 時人謂之觀音松, 師欲入聖峯, 更觀真容, 風浪大作, 不得入而去.

後有堀山祖師梵日, 太和年中入唐, 到明州開國寺, 有一沙彌截左耳, 在衆僧之末, 與師言曰, 吾亦鄉人也, 家在溟州界翼嶺縣德耆坊, 師他日若還本國, 須成吾舍, 既而遍遊叢席, 得法於鹽官[事具在本傳], 以會昌七年丁卯還國, 先創堀山寺而傳教, 大中十二年戊寅二月十五日, 夜夢昔所見沙彌到窓下, 曰, 昔在明州開國寺, 與師有約, 既蒙見諾, 何其晚也, 祖師驚覺, 押數十人, 到翼嶺境, 尋訪其居.

有一女居洛山下村, 問其名, 曰德耆, 女有一子年才八歲, 常出遊於村南石橋邊, 告其母曰, 吾所與遊者, 有金色童子, 母以告于師, 師驚喜, 與其子尋所遊橋下, 水中有一石佛昇出之, 截左耳, 類前所見沙彌, 卽正趣菩薩之像也, 乃作簡子, 卜其營構之地, 洛山上吉, 乃作殿

三間安其像，[古本載梵日事在前，湘曉二師在後，然按湘曉二師爾口於高宗之代，梵日在於會昌之後，相去一百七十餘歲，故今前却而編次之，或云，梵日爲湘之門人，謬妄也。

後百餘年，野火連延到此山，唯二聖殿獨免其災，餘皆煨燼，及西山大兵已來，癸丑甲寅年間，二聖真容及二寶珠，移入襄州城，大兵來攻甚急，城將陷時，住持禪師阿行[古名希玄]以銀合盛二珠，佩持將逃，寺奴名乞升奪取，深埋於地，誓曰，我若不免死於兵，則二寶珠終不現於人間，人無知者，我若不死，當奉二寶獻於邦家矣。

甲寅十月二十二日城陷，阿行不免而乞升獲免，兵退後掘出，納於溟州道監倉使，時，郎中李祿綏爲監倉使，受而藏於監倉庫中，每交代傳受，至戊午十月，本業老宿祇林寺住持大禪師覺猷奏曰，洛山三珠，國家神寶，襄州城陷時，寺奴乞升埋於城中，兵退，取納監倉使，藏在溟州營庫中，今溟州城殆不能守矣，宜輸安御府，主上允可，發夜別抄十人，率乞升，取於溟州城，入安於內府，時使介十人各賜銀一斤·米五石。

昔，新羅爲京師時，有世達寺(今興教寺也)之莊舍，在溟州捺李郡(按『地理志』，溟州無捺李郡，唯有捺城郡，本捺生郡，今寧越，又牛首州領縣有捺靈郡，本捺已郡，今剛州，牛首州今春州，今言捺李郡，未知孰是)，本寺遺僧調信爲知莊，信到莊，上悅口守金昕公之女，惑之深，屢就洛山大悲前，潛祈得幸，

方數年間，其女已有配矣，又往堂前怨大悲之不遂己，哀泣至日暮，情思倦憊，俄成假寢，忽夢金氏娘，容豫入門，粲然啓齒而謂曰，兒早識上人於半面，心乎愛矣，未嘗暫忘，迫於父母之命，強從人矣，今願爲同穴之友，故來爾，信乃顛喜，同歸鄉里，計活四十餘霜，有兒息五，家徒四壁，藜藿不給，遂乃落魄扶攜，糊其口於四方，如是十年，周流草野，懸鶉百結，亦不掩體，

適過溟州蟹縣嶺，大兒十五歲者忽餓死，痛哭收瘞於道，從率餘四口，到羽曲縣(今羽縣也)，結茅於路傍而舍，夫婦老且病，飢不能興，十歲女兒巡乞，乃爲里嫗所噬，號痛臥於前，父母爲之歔歔，泣下數行，婦乃口澁拭涕，倉卒而語曰，予之始遇君也，色美年芳，衣袴稠鮮，一味之甘，得與子分之，數尺之煖，得與子共之，出處五十年，情鍾莫逆，恩愛綢繆，可謂厚緣，自比年來，衰病歲益深，飢寒日益迫，傍舍壺漿，人不容乞，千門之恥，重似丘山，兒寒兒飢，未遑計補，何暇有愛悅夫婦之心哉，紅顏巧笑，草上之露，約束芝蘭，柳絮飄風，君有我而爲累，我爲君而足憂，細思昔日之歡，適爲憂患所階，君乎予乎，奚至此極，與其衆鳥之同餓，焉如隻鸞之有鏡，寒棄炎附，情所不堪，然而行止非人，離合有數，請從此辭，信聞之大喜，各分二兒將行，女曰，我向桑梓，君其南矣，方分手進途而形開，

殘燈翳吐，夜色將闌，及旦鬚髮盡白，惘惘然殊無人世意，已厭勞生，如飶百年辛苦，貪染之心，洒然冰釋，於是，慙對聖容，懺滌無已，歸撥蟹嶼所埋兒塚，乃石彌勒也，灌洗奉安于隣寺，還京師，免莊任，傾私財，創淨土寺，勸修白業，後莫知所終，

議曰，讀此『傳』，掩卷而追繹之，何必信師之夢爲然，今皆知其人世之爲樂，欣欣然役役然，特未覺爾，

乃作詞誡之曰。

快滴須臾意已閑，暗從愁裏老蒼顏，不須更待黃梁熟，方悟勞生一夢間，治身臧否先誠意，鰥  
夢蛾眉賊夢藏，何以秋來清夜夢，時時合眼到清涼。

『三國遺事』卷第三



## 배용길

○ 산비둘기 소리를 듣고[聞鶻鳩]

금역당(琴易堂)

배용길(裴龍吉)

낙산 남쪽 발독 배꽃 나무에  
즐겁게 가지 사이에서 울고 있네  
오늘 오로봉 아래서 듣자니  
치량하여 옛날 정과 다르네  
『琴易堂集』

洛山南畔梨花樹  
喜爾枝間自在鳴  
今日五蘆峯下聽  
淒然不似昔年情



## 이관명

○ 김사직 유 과 신익중 심 의 시를 차운해서 급히 짓다[走次金士直 樛 申翼仲 鐔 韻]  
屏山 (屏山) 이관명(李觀命)

어찌하여 칠 척의 장부 몸으로  
오랫동안 티끌세상에서 사람들 눈총 받았는가  
좋아라 연하 덮인 청절한 땅이니  
들꽃과 산새도 사람을 시기하지 않누나

如何七尺丈夫身  
久受塵間衆目嗔  
好是煙霞清絕地  
野花山鳥不猜人

둘째 수(其二)

낙산에서 동쪽 바라보면 흰 구름 유유히하니  
선객의 맑은 풍모로 몇 해나 보냈는가  
속진에 찌든 마음 씻어 주는 폭포 있으니  
우리들 이제부터 자주 와서 노닐어야지  
이상은 사직에게 주다.

洛山東望白雲悠  
仙客清風度幾秋  
洗滌塵襟飛瀑在  
吾儕從此數來遊



셋째 수(其三)

대궐에 소장 올리기 이미 틀렸으니  
한마디 말로 못사람들 분노 살 일 마시게  
이제부터 눈썹 찌푸릴 일 벗어났으니  
강호로 가 촌사람과 짝하는 게 좋으리라

北闕封章計已誤  
休將一語博群嗔  
從今免作皺眉事  
好向江湖伴野人

넷째 수(其四)

인간만사 모두가 유유히 흘러  
물외의 풍광은 봄에서 다시 가을이로다  
듣건대 동산에 꽃이 지려 한다니  
빨리 가서 맑은 놀이 채비해야 하리라  
이상은 익중에게 주다.

人間萬事摠悠悠  
物外風光春復秋  
聞道東山花欲老  
速宜相就辦清遊

다섯째 수(其五)

반평생 전원으로 돌아갈 계책 이루지 못함에  
고향의 원숭이와 학은 나를 그리며 화낸다네  
이제 와서 연못가에 자리 잡아 집 지은 것은  
바로 자연 속에 방랑하는 사람 되려 함이라

半世歸田計未遂  
故山猿鶴想吾嗔  
今來占得潭邊築  
要作林泉放浪人

여섯째 수(其六)

골짜 안의 연하 덮여 돌아갈 흥 끝없으니  
꽃은 따뜻한 봄이 좋고 낙엽은 가을이 좋아라  
수레 기름칠하고 말 꼴 먹이니 누가 나를 따를까  
금화산의 반쪽씩은 함께 놀만 하거늘  
이상은 스스로 번민을 달랜 것이다.

洞裏煙霞歸興悠  
花宜春煦葉宜秋  
膏車秣馬誰從我  
一半華山可共遊

『屏山集』



이산해

○ 기행(紀行)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쫓겨난 이 신하 대죄하던 곳  
대동강 동쪽 외진 마을이었지

孤臣昔竅罪  
涓水東村僻

당시엔 풍파가 창졸간에 일어나  
 화란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죽음 못 면하리라 다들 말했지만  
 성상께서 통촉하시리 나는 믿었네  
 하해 같은 은혜로 목숨 보전하여  
 외진 이곳 영해로 귀양왔었지  
 찢어진 옷 어깨와 팔꿈치 드러나고  
 행낭 자루엔 남은 곡식이 없었네  
 금오랑<sup>215</sup>이 길 떠나라 재촉해대니  
 잠시인들 지체할 수 없었다오  
 사위인 이랑<sup>216</sup>이 나를 좇아와서  
 갈림길에서 비통한 이별할 제  
 어디로 갈거나 말은 못 하고서  
 서로 부여잡고 길 위에서 울었지  
 저물녘에 상원촌에 들어서니  
 나무 그늘에 숨은 오두막이었네  
 수안 길에선 진흙탕에 빠지고  
 신계협에선 더위에 시달렸지  
 주인은 나를 후하게 대접하여  
 술을 내고 쟁반에 어육을 담아 와서  
 유락하는 신세 은근히 위로해 주니  
 반기는 눈빛 참으로 막역지우였네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안협촌  
 가는 길은 강 따라 굽이굽이 꺾였지  
 둘째 딸아이가 장인을 따라  
 난리 피하여 숲 속에 숨어 있다가  
 나를 보고 울며 잠시만 머물라 애원했네  
 그러나 메조밥이 채 익기도 전에  
 옷깃 떨치고 떠나 돌아보지 않으니  
 부녀간의 은정 칼로 자르듯 아팠네  
 이천에서는 늙은 종을 만났는데  
 우리 열 식구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었지  
 늙은 아내는 작별이나 할 양으로

風波起倉卒  
 禍機將不測  
 人言死難免  
 我恃天鑑燭  
 鴻恩荷曲全  
 嶺表賜譴謫  
 破衣露肩肘  
 行囊無餘粟  
 金吾催登途  
 頃刻留不得  
 李郎追我來  
 慘慘臨岐別  
 認之自何方  
 相扶路上泣  
 暮投祥原村  
 樹底藏蝸屋  
 衝泥遂安路  
 觸熱新溪峽  
 主人遇我厚  
 杯盤盛魚肉  
 慙勤慰流落  
 青眼眞莫逆  
 窈窕安峽村  
 緣江路百折  
 仲女隨舅翁  
 避亂依林樾  
 啼呼願少留  
 糲飯炊未熟  
 拂衣去不顧  
 恩情如斷割  
 伊川逢老僕  
 十口竄深谷  
 老妻欲相訣

215) 금오랑(金五郎): 의금부의 관리.

216) 이랑(李郎): 필자의 사위인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을 가리킨다.

나를 기다리며 길가에 서 있었건만  
 뿌리치고 말을 채찍하여 지나가니  
 어느 새 운산을 넘어 아득히 멀어졌네  
 밤중에 평강현을 지날 적에는  
 달도 없는 어둠 속 부엉이가 울었지  
 금화촌에서는 비에 막혀 머물렀는데  
 시냇물이 깊어 말의 배까지 차올랐네  
 사위 유량은 어린 딸을 데리고서  
 양식을 싸들고 산 넘고 물 건너와  
 낡은 이불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눈물과 함께 길 떠나는 내게 주었지  
 가고 또 가서 낭천을 지나노라니  
 산이 깊어 범 발자국이 많았네  
 양구와 인제 두 고을의 태수는  
 옛적부터 교분이 있어온 터라  
 말술을 나에게 마시라 권하매  
 그 깊은 정 뱃속에서 우리나라왔지  
 동쪽으로 한계산을 바라보니  
 뿔뿔이 세운 창칼처럼 높은 봉우리들  
 저물녘에 산 아래 역참에 묵노라니  
 구름과 산 기운에 잠자리가 눅눅했지  
 새벽녘에 미파령 잣마루를 오르니  
 동해 바다가 몸 굽히면 잡힐 듯  
 층암절벽에 말발굽이 미끄러져  
 열 걸음에 예사로 아홉 번 넘어졌지  
 미파령을 내려와 원암에 당도하니  
 세 가닥 장대 높이로 해가 기울기에  
 황혼에 낙산사로 가서 투숙하는데  
 절간 밥상이라 죽순과 나물이 섞였지  
 늙은 중이 나를 불러 깨우더니만  
 새벽 창으로 일출 광경 보라 하네  
 평소에 꿈에서나 그리던 곳인데  
 하룻밤 묵으니 참으로 절승이었지  
 해가 뜰 무렵 멀리 현산을 바라보니  
 안개 낀 수림이 뿔뿔이 둘러 있었지

待我立路側  
 麾之策馬過  
 已覺雲山隔  
 夜過平康縣  
 月黑鵂鷂哭  
 滯雨金化村  
 溪深過馬腸  
 柳郎偕弱女  
 贏糧勤跋涉  
 携來一弊衾  
 和淚贈行役  
 行行過狼川  
 山深多虎跡  
 楊麟兩太守  
 分義自疇昔  
 斗酒勸我飲  
 深情出肝膈  
 東望寒溪山  
 嵯峨森劍戟  
 暮宿山下驛  
 雲嵐濕枕席  
 曉登彌坡嶺  
 東溟俯可挹  
 層崖馬蹄滑  
 十步恒九蹶  
 下嶺到元巖  
 三竿日已夕  
 黃昏投洛山  
 僧盤雜筍蕨  
 老衲呼我起  
 曉窓看日出  
 平生夢想地  
 一宿眞勝絕  
 平明望峴山  
 煙樹圍簇簇

짧은 노를 저어 강어귀를 내려오니  
 외로운 성에서 뿔피리 소리 들리었네  
 쓸쓸한 고을이라 동산현에는  
 낙봉<sup>217</sup>의 시가 벽에 걸려 있었지  
 명사십리 백사장엔 해당화 향기롭고  
 경포대 호숫가에는 찬 솔이 푸르렀네  
 임영은 예로부터 이름난 지역이  
 산수도 좋거니와 좋은 유적 많아  
 말 위에서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렸던가  
 노정을 다잡아 번갯불처럼 치달렸네  
 갖은 고생을 겪고 올령재를 넘으니  
 화현 고개가 또 우뚝이 서 있었지  
 험한 길을 빠져나와 평원을 지  
 진주성<sup>218</sup> 밖에 다 달아 유숙하였더니  
 수령이 추위에 떠는 날 불쌍히 여겨  
 솜을 넣은 도포를 입으라 주고는  
 조각배로 나를 전송해 준 그 온정  
 담수는 깊고 깊어 천척이었네  
 높고 높은 소공대에서는  
 멀리 울릉도가 역력히 보였고  
 울진이라 독송정에서는  
 여윈 말 매어놓고 여물을 먹였지  
 망양정에서 아득한 바다를 바라보니  
 하늘과 물 푸른빛이 서로 엉겼어라  
 이에 흥금 어느 새 후련히 트이어  
 시름도 즐거움도 죄다 던져버렸지  
 월송정 객점에서 안장을 풀고 쉬는데  
 머리를 쳐드니 머리가 천정에 부딪쳤네  
 의연히 내 고향 집에 돌아온 듯하니  
 분수를 헤아림에 만족할 줄 알겠더라  
 야밤에 치달려 온 화급한 통문을 보니  
 승냥이 같은 도적떼가 가득 몰려온다네  
 이름 없이 헛되이 죽는 게 부끄러웠지

短棹下江口  
 孤城聽吹角  
 蕭條洞山縣  
 駱峯詩掛壁  
 鳴沙海棠香  
 鏡浦寒松綠  
 臨瀛古名區  
 山水多勝蹟  
 馬上幾回首  
 嚴程若電掣  
 間關踰栗嶺  
 火峴又突兀  
 脫險度平曠  
 眞珠城外宿  
 使君憐我寒  
 綈袍縫密密  
 扁舟送我情  
 潭水深千尺  
 崔嵬召公臺  
 蔚陵看歷歷  
 仙槎獨松亭  
 瘦馬留一秣  
 望洋臨縹緲  
 天水相涵碧  
 胸襟覺浩浩  
 憂樂盡拋擲  
 卸鞍越松店  
 舉頭頭打屋  
 依然返桑梓  
 揆分庶知足  
 羽書半夜馳  
 豺狼急充斥  
 一死愧無名

217) 낙봉(駱峰): 조선조 문신인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의 호.

218) 진주성(眞珠城): 강원도 삼척(三陟).

이내 목숨이 아까운 건 아니었다오  
 창황히 서둘러 뒤고개를 넘어가면서  
 한 달이라 삼십 일 동안 기갈을 참았네  
 적이 지나간 뒤에 처소로 돌아와보니  
 소슬한 가을바람이 이미 불더라  
 나의 두 자식과 그 어미인 아내가  
 지친 모습으로 이곳 해변을 찾아왔지  
 만 번 죽을 위험 끝에 홀연히 상봉하니  
 꿈인가 생시인가 알기 어려웠네  
 황보촌에서 귀양사는 삼 년 동안에  
 골육 친지 만나마 영락했으니  
 슬퍼해도 소용없음이야 익히 알지만  
 쇠잔한 머리 날로 흰 터럭이 늘었지  
 광음은 절로 하염없이 흘러가고  
 한서는 수레바퀴통처럼 빨리 바뀌니  
 눈길 닿는 곳마다 마음이 언짢아서  
 때때로 흥건히 흐르는 눈물을 닦았지  
 어찌 객지살이 괴로움 때문이라  
 대궐을 연모하느라 창자가 찢어졌네  
 의주의 물굽이는 오염하며 흐르고  
 대동강에 뜬 달도 빛이 처량하리  
 아득한 행궁은 어드메 있느냐  
 소식을 전할 길은 전혀 없구나  
 어저께 저녁 고을 사람이 전갈하길  
 임금 수레가 도성으로 돌아왔다기에  
 근심 중 이렇게 반가운 소식 들으니  
 황홀한 마음을 형언하기 어려워라  
 천심도 재앙 내린 것을 후회하는가봐  
 적의 형세가 절로 무너져 움츠리네  
 난세와 치세는 본래 서로 이어지니  
 삼한 땅이 앞으론 평안해지리라  
 이제부턴 모쪼록 밥이나 많이 먹어  
 해골이 산야에 버려짐이나 면해야지  
 군자는 이치대로 살아감을 중시하나니  
 곤궁함 속에서도 오히려 자득한다네

軀命非所惜  
 蒼黃踰後嶺  
 三旬忍飢渴  
 賊過還僑舍  
 秋風已蕭瑟  
 兩兒與母妻  
 纍纍尋海曲  
 萬死忽相逢  
 眞夢未易識  
 三年黃保里  
 骨肉半零落  
 自知無益悲  
 衰鬢日添白  
 光陰自荏苒  
 寒暑如轉轂  
 觸目懷作惡  
 時時淚盈掬  
 豈緣羈旅苦  
 戀闕腸欲裂  
 嗚咽龍灣水  
 淒涼大同月  
 行宮杳何處  
 魚鴈亦難達  
 昨暮邑人傳  
 車駕旋故國  
 憂中聞吉語  
 恟忭難容說  
 天心應悔禍  
 賊勢自崩蹙  
 否泰本相仍  
 三韓將安怙  
 從今但加餐  
 骸骨免填壑  
 君子貴理遣  
 窮厄猶自得

범인들은 그저 이해득실만 중시하여  
 심화를 태우며 자신을 들볶아  
 내 이제 고인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어찌하여 길이 소인마냥 근심하는가  
 돈이 생기면 곧바로 술을 사먹고  
 미친 노래 불러 울적한 회포나 풀리라  
 『鵝溪遺稿』

衆人重得喪  
 膏火相煎爍  
 我今師古人  
 胡爲長戚戚  
 有錢卽沽酒  
 狂歌暢幽鬱



## 박지원

### ○ 순찰사에게 올림<sup>219)</sup>

새해를 맞이하여 순사또의 건강이 신령의 가호로 만강하시며, 부모님께서도 한결같이 강녕하시리라 믿으며, 위로와 축하를 아울러 올리는 정성을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관(下官 연암의 자칭)은 지난겨울에 독감을 거듭 앓고부터 두 다리에 힘이 없어지더니, 그대로 무릎이 오그라붙어 펼 수 없게 되어 버려, 안방에서 움직이는 데도 반드시 부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해가 바뀐 뒤 이처럼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아직도 나아가 새해 인사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어찌 그지 있겠습니까.

지금 예조의 관문(關文)에 “신흥사(神興寺)의 잡역을 경감한 뒤로 종이에 먹도 마르기도 전에 불법 징수가 전보다 10배나 더하다.”고 하고, 심지어 ‘수향리(首鄉吏)를 상사(上使)<sup>220)</sup>하여 엄형으로 다스리라’는 조처까지 있으니, 그 땅을 맡아 다스리는 수령으로서는 너무도 놀랍고 두려워 몸 둘 바가 없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잡역 경감에 대한 절목(節目)을 영문(營門) 감영으로부터 반첩(反貼)<sup>221)</sup>받아 책자로 만들어서, 하나는 영문에 비치하고 하나는 본부(本府 양양부)에 비치하고 하나는 그 절에 보내어 증빙할 자료로 삼았으니, 설사 탐관오리가 있다 한들 어찌 구구하게 몇 권(卷)<sup>222)</sup>의 종이를 절목 이외에 더 징수하려 하겠습니까.

219) 순찰사에게 올림: 1801년 음력 1월 강원 감사에게 양양 신흥사(神興寺) 중들의 행패를 바로잡아 줄 것을 청원한 편지이다. 그러나 강원 감사가 미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해 봄에 연암은 병을 핑계 대고 양양 부사직을 사임했다고 한다. 『過庭錄』

220) 상사(上使):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명하여 죄인을 잡아 오게 하는 일을 말한다.

221) 반첩(反貼), 보내온 공문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222) 권(卷): 한지를 세는 단위로, 스무 장으로 된 한 묶음을 말한다.

또 관속(官屬)들이 지방 그 절로부터 협박받는 처지가 되어, 조심조심 날을 보내며 오히려 털끝만큼이라도 탈이 잡힐까 두려워하는 판국인데, 또한 어찌 감히 멋대로 10배의 불법 징수를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利害)를 놓고 헤아려 보면 절대로 이럴 리는 없습니다. 진실로 관문의 내용과 같다면, 아무 것도 꺼릴 바가 없는 듯이 구는 절의 중들이 어찌 절목을 하나하나 들어 본관(本官 양양 부사)에게 따져 바로잡지도 않고, 또한 어찌 의송(議送)<sup>223</sup>을 순사또에게 올리지도 않고서, 감히 감영과 고을을 무시한 채 단계를 건너뛰어 경사(京司 중앙 관청)에 호소하여 무난히 사실을 날조함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하관이 재임한 지지난해 시월 보름부터 이달 그믐까지 겨우 100일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고을 일에 대해서는 아직 두서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 시행해야 할 모든 일은 단지 문서화된 규정을 살펴 행할 뿐입니다. 이른바 삭납지지(朔納紙地)<sup>224</sup>는 두어 권에 불과한 데다, 비록 명색은 관납(官納)이나 본래부터 넉넉한 값으로 사서 썼으며, 지금은 또 값을 더 쳐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감영에서 소용되는 지식(紙席 두꺼운 종이로 만든 자리)과 상사(上司 직속 상급 관청)에 전례에 따라 납부하는 것도 모두 본전(本錢)으로 직접 샀으며 조목에 따라 값이 매겨져 있으니, 한 번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세세한 일이라 많은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저 본부(本府)에 신흥사(神興寺)가 있는 것은 바로 한 고을의 난치병과 다름이 없으며, 그 절에 창오(昌悟)<sup>225</sup>와 거관(巨寬)<sup>226</sup>이라는 승려가 있는 것 역시 그 절의 난치병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놈들이 하찮은 중으로서 여러 해 동안 서울 근교의 산들에 머무르면서, 중들을 피고 협박하여 절 재산을 탕진했는데, 말과 외모가 간사스럽고 종적이 수상합니다. 무뢰배와 결탁하고 외람되이 막중(莫重)한 곳<sup>227</sup>을 빙자해서, 오로지 수령을 모함하고 관속들에게 위엄을 세우는 것만을 일삼는 것이 제놈의 수법인즉, 관리가 관리 노릇 못 한 지가 오래입니다. 토호들이 시골구석에서 무단(武斷)하고 관부(官府)를 쥐고 흔드는 일이 옛날부터 간혹 있었지만, 중들이 이같이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은 지금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내수사(內需司)의 관문 내용을 고쳐 바꾸고 용동궁(龍洞宮)<sup>228</sup>의 수본

223) 의송(議送): 백성이 고을 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리는 항소장(抗訴狀)을 말한다.

224) 삭납지지(朔納紙地): 매월 초하루마다 바치는 지물(紙物)을 말한다.

225) 창오(昌悟): ‘창오(暢悟)’의 오기인 듯하다. 창오(暢悟)는 1797년(정조 21) 거관(巨寬)과 함께 신흥사의 명부전(冥府殿)을 중수했으며, 1801년(순조 1) 역시 거관 등과 함께 용선전(龍船殿)을 창건하고 열성조(列聖朝)의 위패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그 뒤에도 그는 1813년(순조 13) 거관 등과 함께 보제루(普濟樓)를 중수하고, 1821년(순조 21) 거관 등과 함께 극락보전(極樂寶殿)을 중수하였다.

226) 거관(巨寬): 1762~1827. 호를 벽파(碧波)라고 하며, 율승(律僧)으로서 많은 제자를 두었다. 창오(暢悟)와 함께 신흥사 내의 건물들을 힘써 중수하였다. 신흥사에 있는 그의 부도(浮屠)에는 강원 감사 정원용(鄭元容)이 찬한 비가 있다.

227) 막중(莫重)한 곳: 왕실을 가리킨다.

228) 용동궁(龍洞宮): 명종(明宗) 때 세자궁(世子宮)으로 설치한 궁인데, 한양의 서부(西部) 황화방(皇華坊)에 있었다. 명례궁(明禮宮), 덕수궁(德壽宮), 어의궁(於義宮), 수진궁(壽進宮)과 함께 4궁이라 불렀다. 이

(手本 손수 작성한 서류)을 첨부하였는데, 제일 먼저 강원도 양양에 있는 신흥사는 바로 열성조(列聖朝)의 구적(舊蹟)이 봉안된 곳이라는 점을 들고 수령이 삼가 받들어 행하지 않은 죄를 나열해 놓았으니, 이는 모두 창오와 거관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지 못한다면, 제 한 몸에 갑자기 닥친 재난은 본시 걱정할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고을의 폐해는 어찌하며 나라의 기강은 어찌하겠습니까?

‘열성조의 구적’이라고 한 것은 본부에 있는 낙산사(洛山寺)와 같은 곳을 이름이요, 신흥사가 아닙니다. 세조 병술년(1466)에 낙산사를 임시 숙소로 삼으신 일이 있는 데다, 성종의 친필이 열 겹이나 싸여 보물로 간직되어 있고, 숙종의 어제(御製) 현판은 사룡(紗籠)<sup>229</sup>에 싸인 채 걸려 있어 지금까지도 보배로운 글씨가 하늘을 돌며 빛을 발하는 은하수처럼<sup>230</sup> 휘황찬란하며, 명 나라 성화(成化) 5년(1469)에 주조한 큰 종에는 당시의 명신(名臣)들이 왕명을 받들어 기록한 글이 있어 한 절의 귀중한 보물이 되었으니, 이것들은 모두 낙산사의 오래된 보배인 것입니다. 신흥사의 경우는 명 나라 송정(崇禎) 갑신년(1644)에 새로 창건하여 내력이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아 역대 임금들이 남긴 글들이 본래 있지 않은데도, 감히 모호하게 막중한 곳을 끌어다가 궁속(宮屬)들을 속여서 부탁하여 수본을 발급받기를 도모하기를 이처럼 쉽게 하였으니, 다른 것은 오히려 어찌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작년에 감영과 본 고을에서는 비록 실상이 이와 같은 것을 알았지만, 다만 말이 막중한 곳과 관계되고 일이 내수사에 관련되는 까닭에, 감히 드러내놓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어서 미봉하여 넘겼으니, 중들이 더욱 패악을 부리는 것은 전적으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절이 본시 전답의 소출이 많아서 부자 절이라 일컬어지는데도,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정초에는 취한 김에 아료를 부려, 떠돌이 걸인들을 묶은 채로 구타하여 거의 살육(殺獄)을 이룰 뻔한 것이 6명이나 되었습니다. 고한(辜限)<sup>231</sup>이 이미 지났는데, 5명은 겨우 목숨을 건져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게 되었으니 거의 걱정이 없겠으나, 그중 1명은 상기도 위태로운 지경이니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일만 보더라도, 중들의 버릇이 세력을 믿고 완강하고 막돼먹어 못할 짓이 없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원당(願堂)<sup>232</sup>을 다시 설립하는 일은 책임진 곳이 따로 있으며 한낱 중들과 관련된 바가 아니니, 사리(事理)로써 헤아려 보면 실로 ‘쥐 잡다 그릇 깰’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러한 궁들은 토지를 약탈·매입하거나 면세 특권을 이용하여 수세지(收稅地)를 확대하는 등으로 재산 늘리기에 힘써 폐단이 많았다.

229) 사룡(紗籠): 현판에 먼지가 앉지 않도록 씌운 천을 말한다.

230) 하늘을 …… 은하수: 원문은 ‘雲漢昭回’인데, 『시경』 대아(大雅) 운한(雲漢)에 “저 밝고 큰 은하수는 하늘을 따라 그 빛이 도네.(俾彼雲漢 昭回于天)”라고 하였다.

231) 고한(辜限): 보고기한(保辜期限)의 준말이다. 남을 상해한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처벌을 보류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안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죄가 성립되었다.

232) 원당(願堂): 역대 임금들의 명복을 비는 법당(法堂)인데, 궁중에 있는 것은 내원당(內願堂)이라 하였다. 여기서는 창오와 거관 등이 설립을 추진한 신흥사의 용선전(龍船殿)을 가리킨다.



앞드려 바라건대 이러한 사정을 비변사에 보고하거나 장계(狀啓)를 올려 조사해 주도록 청함으로써, 요망한 중놈들이 막중한 곳을 빙자하여 속임수를 일삼는 죄를 속히 시정하게 해 주심이 어떻겠는지요?

현재 병세를 돌아보건대 감기까지 더치는 바람에 묵은 증세가 한꺼번에 발작하여 실로 무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나, 바야흐로 군사훈련에 달려가야 할 때를 당하여 기일이 몹시 촉박할 뿐더러 여러 해 동안 누적된 속오군(東伍軍)<sup>233</sup>의 궤액(闕額 부족한 수효)을 보충할 방도가 없으니, 과연 병을 말하고 사무를 폐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답답한 개인적인 사정을 어찌 이루 다 아뢰겠습니까. 군사훈련이 지난 뒤에는 사면(辭免)을 거듭 간청해야 될 형편이니 하량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우선 이만 줄입니다.

#### 上巡使書

伏惟新元. 旬宣體履神相萬重. 侍候一向康寧. 伏庸慰賀無任下誠. 下官前冬重經毒感. 兩脚無力. 因成膝攣. 房闈轉動. 亦須扶擁. 歲翻此久. 尚稽就拜. 下懷悵鬱何極. 今此禮曹關內. 神興寺雜役蠲減之後. 紙墨未乾. 其所侵徵十倍於前. 至有首鄉吏上使嚴刑之舉. 爲其守土者. 萬萬震慄. 靡所容措. 去年夏間. 蠲減節目. 自營門反貼成冊. 一置營門. 一置本府. 一付該寺. 以爲憑考之地. 則設有貪官污吏. 寧肯區區於數卷之紙. 加徵於節目之外. 而官屬輩方爲該寺所脅持. 兢兢度日. 猶恐其一毫執頃. 亦安敢橫肆十倍之侵徵乎. 揆以利害. 萬萬無此理也. 誠如關辭. 則以若無所顧忌之寺僧. 何不枚舉節目. 下正于本官. 亦何不卽呈議. 送于巡按之下. 而乃敢不有營邑. 越訴京司. 無難搆捏. 至於此極乎. 下官莅任. 自去年十月之望. 至今晦間. 纔滿百日. 其於邑事. 未諧頭緒. 則凡諸施措. 只按成規. 所謂朔納紙地. 不過數卷. 雖名官納自來. 優價買用. 而今又添給價本矣. 其他營需紙席. 上司例納. 莫不以本錢直買. 逐條係價. 一按可知. 而此猶細事. 不須多下. 大抵本府之有神興寺. 卽一邑心腹之疾. 而該寺之有僧名昌悟巨寬者. 亦一寺心腹之疾也. 渠以么麼緇徒. 逗遛京山. 許多年所. 而誘脅衆僧. 蕩盡寺財. 言貌姦譎. 蹤跡詭秘. 締結無賴. 猥托莫重. 專事陷害長吏. 立威官屬. 此其伎倆則官不得爲官久矣. 土豪之武斷鄉曲. 把持官府. 古或有之. 僧徒之若是橫恣. 今始初見. 乃者翻關內司. 粘連龍洞宮手本. 首舉江原道襄陽所在神興寺. 卽列聖朝舊蹟奉安之處. 臚列守令不謹奉行之罪. 此莫非昌悟巨寬之所誣罔也. 此不明下. 則一身駭機. 固不足恤. 而其於邑瘼何. 其於國綱何. 列聖舊蹟云者. 如本府所在洛山寺之謂也. 非神興寺也. 光廟丙戌. 洛山爲駐蹕之所. 而成廟宸翰十襲寶藏. 肅廟御製. 紗籠板揭. 至今寶墨. 煌煌雲漢昭回. 成化五年所鑄大鍾. 俱有當時名臣承命銘述. 爲一寺重器. 此皆洛山古寶也. 至若神興寺. 新勅於崇禎甲申. 百餘年間. 列朝遺文. 本無有在. 而乃敢漫憑引重. 瞞囑宮屬. 圖出手本. 若是容易. 則他尙何說. 昨年營邑. 雖知實狀之如此. 而第以語涉莫重. 事關內司. 故莫敢明言暢說. 彌縫以度. 則僧徒之益肆悖慢. 職此之由也. 該寺素饒田產. 號稱富刹. 多不守分. 甚至歲初. 乘醉起鬧. 縛打流丐. 幾成殺獄. 多至六名. 辜限既過. 五名則僅得生道. 扶杖起動. 庶

233) 속오군(東伍軍): 선조(宣祖) 이후 향촌을 지키기 위해 『紀效新書』의 속오법(東伍法)에 따라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을 혼합하여 편성한 지방군(地方軍)을 말한다.

可無虞. 其中一名. 尙在危境. 前頭之事. 有未可知. 卽此一款. 足驗僧習怙勢頑悖. 無所不至. 願堂復設. 所重有在. 非關於一僧徒. 則揆以事理. 實無忌器之嫌. 伏望將此事情. 或論報備局. 或狀請勘覈. 亟正妖僧藉重誣罔之罪. 如何如何. 顧今病勢. 又挾風感. 宿症俱作. 實爲難強. 而方當赴操. 期日甚促. 束伍之多年闕額. 充補無計. 則果非言病廢務之時. 私情悶迫. 如何勝喻. 過操後勢. 將控辭申懇. 庶蒙諒悉. 姑此不備.

『연암집』



## 이수광

○ 관동을 안찰하러 가는 홍 감사<sup>234</sup>) 휘세를 송별하며[送洪監司輝世按關東]

이수광

관동이라 명승지 스무 고을을 관할하니  
홍 감사는 원래부터 신선들의 무리라오  
새벽에는 창해를 술잔에 거꾸로 쏟고  
가을에는 물색을 전대에 거뒀들이리라  
총석정 높은 바람은 학등<sup>235</sup>)에 불어오고  
낙산사 아침 해는 자라 머리에 솟으리  
봉래<sup>236</sup>)의 옛 친구들 이내 소식 물을 터  
백발의 노쇠한 몸 아직도 아프다 하소

管領名區二十州  
使君元是列仙流  
滄溟倒瀉杯中曉  
物色收歸囊裏秋  
叢石高風來鶴背  
洛山初日湧鼈頭  
蓬萊舊侶應相問  
白首龍鍾病未休

『지봉집』



## 이직

○ 장로를 전송하는 시에 차운하다[次送睿長老]

형재(亨齋)

이직(李稷)

234) 홍 감사(洪監司) 휘세(輝世), 홍서봉(洪瑞鳳, 1572~1645)으로,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휘세, 호는 학곡(鶴谷),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1590년(선조23) 진사가 되고, 1594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02년 이조 좌랑과 성주 목사를 거쳐 1610년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을 주동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고, 익녕군(益寧君)에 봉해졌으며,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235) 학등: 신선은 학을 타고 노닌다는 전설에서 온 말로, 신선이 타는 학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홍서봉을 신선에 빗대어 한 말이다.

236) 봉래(蓬萊): 1604년(선조37)에 지봉이 일찍이 안변 부사(安邊府使)가 되어 동해 가에 있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봉래’는 전설 속의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동해 가운데 있으며 신선이 산다고 한다.

예부터 낙산에 대해 들어 왔기에  
 바로 한번 올라가고 싶었는데  
 공명에 얽매어 괴롭게 지내다가  
 마침내 자연의 한가함을 맛보게 되었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노승의 모습을 바라보니  
 속세에 얽매어 살던 모습 부끄럽구나  
 만약 관세음보살을 보게 되면  
 현묘한 가르침 잘 받들고 돌아오시게  
 『亨齋詩集』

昔曾聞洛山  
 直欲一登攀  
 苦被功名累  
 終乘水石閑  
 飛空看錫杖  
 側足愧塵關  
 若見白衣聖  
 細傳玄旨還



## 윤휴

○ 동정부(東征賦) 임자년

백호(白湖)

윤휴(尹鑣)

애석하게도 나이 늙고 날로 쇠해가는 나  
 한 해가 저물면 마음 더 안 좋다네  
 주공 꿈꾸는 공자도 아닌데  
 무슨 상 나라 자탄하는 기자일 것인가  
 갑자기 이는 가을소리에  
 하늘은 텅 비고 초목들 빛 누르네  
 바람 불어와 옷깃에 나부길 때면  
 흰구름 따라 거닐어보기도 했지  
 봉래산 지향하여 가자고 하니  
 산이 겹겹으로 푸르르기만 하네  
 검푸른 바위산 따라 발길을 옮기니  
 신평이 휘날리고 있는 듯 느껴지고  
 반곡에 가 노자 소식 물어보니  
 흰털 눈썹에 깡마르고 가벼운 몸매라네  
 높고 가파른 보개산을 지나  
 북관에 올라서 고금 흥망 굽어보고  
 짧은 비문을 부여에서 읽고는  
 진도가 목숨 바친 것 슬펐다네  
 마니산에 앉아 장탄식을 하면서  
 험준한 산에 눈여겨보노라니

惜余年老而日衰兮  
 歲晚晚而志不平  
 非魯叟之夢周兮  
 豈箕父之咨商  
 秋聲忽以動容兮  
 天宇廓兮草木黃  
 風飄飄而振袂兮  
 從白雲而相羊  
 指蓬萊而言邁兮  
 山萬重兮蒼蒼  
 遵紺岳以前途兮  
 想神旆之飛揚  
 問老子於盤谷兮  
 厖眉皓兮瘦骨輕  
 過寶蓋之巉巖兮  
 登北觀而吊興亡  
 讀短碣於夫如兮  
 哀哉陳陶之致命  
 坐摩尼而長息兮  
 迎岳色之嶒嶒

비천을 박찬 손살같은 물이  
 명연에 모여 땀똥고 있네  
 웬 적들은 저리도 많을까  
 임금 덕화가 옛만 못한 탓이겠지  
 험한 바윗돌 부여잡고 위로 또 위로  
 정양산 꼭대기에 올랐더니  
 비로봉 높아높아 못 향기가 감도는 듯  
 골마다 파인 글들 횡텡그렁하네그러  
 대관령까지 싸잡아서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동해바다 손에 잡힐듯 횡 둘러 장관이로세  
 어찌면 이리 보기 좋게 울울창창할까  
 온통 붉은 잎에 향기로운 덩굴들  
 한밤중이면 해맑은 기운 솟고  
 이슬기운 들이마서 창자를 씻는다네  
 천을성 바라보며 휘파람 불고  
 동서남북 거침없이 마음을 펼쳐보네  
 기기묘묘 이 무슨 조화속이런가  
 만 가지나 되는 꽃들 형용할 수가 없네  
 처음에 보고서는 놀라 자빠졌다가  
 지팡이에 기대 서서 하나하나 보았더니  
 어떤 놈은 나서서 가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돌아왔다 가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걸터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놈은 도망가다 넘어진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암컷처럼 엎드려 있고  
 어떤 놈은 수컷같이 꺾꺾하고  
 어떤 놈은 우뚝 서 있기도 하고  
 어떤 놈은 그냥 내닫기도 하고  
 어떤 놈은 꼬떡얇고 무게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놈은 대들 수 없을 만큼 존엄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놈은 깎아지른 듯 혼자 높이 서있기도 하고  
 어떤 놈은 우뚝 서서 서슬이 멀끔한 놈도 있고  
 어떤 놈은 현무가 되어 도사리고 있기도 하고  
 어떤 놈은 곰과 표범처럼 사나워 보이기도 하네  
 굼틀굼틀 굼틀거리는 놈

凌飛川以高舉兮  
 集鳴淵而翱翔  
 何梵宇之怒起兮  
 嘆帝德之衰降  
 攀峿嶠而上出兮  
 陟正陽之崇崗  
 毗盧卓兮衆香蔚  
 穴網峻兮永閔徂  
 據關嶺而磅礴兮  
 挹溟洋而穹聳  
 夫何鬱葱而成章兮  
 紛艷葉與蔓馨  
 存皞氣於中宵兮  
 吸沆瀣而嗽腸  
 臨天乙而舒嘯兮  
 撫四極而揚靈  
 何造化之逞奇兮  
 噫有萬之難狀  
 始屬目而駭惑兮  
 徐倚杖而騁望  
 或出以去兮  
 或還以往  
 或蹲以踞兮  
 或走而僵  
 或雌而伏兮  
 或雄以彊  
 或峙以立兮  
 或馳以騁  
 或安重以難危兮  
 或尊嚴以難抗  
 或戍削而孤高兮  
 或穹竦而兢稜  
 或爲玄武而蚪蟠兮  
 或爲熊豹而獷獐  
 蠕以蜿蜒兮

흘긴 눈으로 내리보고 치보는 놈  
 입 오물거리며 물에서 노는 놈  
 쌍쌍으로 날아 공중을 오르내리는 놈  
 말이 달 속에서 나와  
 구름을 밟고 마냥 달려가는 듯  
 봉이 천 길 높이에서 날다가  
 덕이 빛나는 곳 발견하고 날아오는 듯  
 또 어찌 보면 왕의 대가가 나갈 때  
 백관들 모두가 뒤따라 가는 듯  
 대장이 장단에 올라 있고  
 삼군이 명령을 듣고 있는 듯  
 문채 찬란하고 경건한 태도인가 하면  
 한가로워도 보이고 통실통실한 듯도 해  
 이글이글 곤륜산 집어삼키는 불길 같기도 하고  
 용솟음치는 큰 바다의 성난 파도 같기도 하고  
 덩실하기 당 나라의 공덕비 같은 것도 있고  
 우뚝하기 한 나라 구리기둥 같은 것도 있고  
 붉은 구름 자색 무지개가 상제 거실을 호위하고 있는 듯  
 표범꼬리로 장식한 기가 천자 행렬의 의장으로 서 있는 듯  
 명당에 모여 있는 흘기같이 웅기종기 파기도 하고  
 궁궐 뜰에 있는 종정같이 쟁글쟁글 소리도 나고  
 태액지 맑은 물에 피오르는 연봉오리 같은 것도 있고  
 장양 큰 사냥 때 별처럼 늘어섰던 크고 작은 도끼들도 있고  
 태고의 눈이 그대로 쌓여있듯이 새하얀 것도 있고  
 몽글몽글 신선에게서 받은 현상같이 생긴 것도 있네그러  
 또 요순 시절 읍양의 풍속같이  
 온화하고 명랑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탕과 무왕이 정벌할 때같이  
 정정당당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진 나라·초 나라가 중원을 두고 다투다가  
 흑자는 패업을 이루고 흑자는 절제를 받는 것 같은 것도 있고  
 유방과 항우가 형양에서 싸우기 시작하여  
 하나는 성했다가 패하고 하나는 넘어졌다가 일어섬도 있고  
 다 집어삼키기도 하고 한 쪽 차지하기도 하여  
 끝까지 양보라고는 없었던 것 같은 것들도 있고

倪以俯仰  
 喁以游泳兮  
 翩以頡頏  
 神駒出乎月窟兮  
 躡雲氣而長驤  
 威鳳翔于千仞兮  
 覽德輝而來騰  
 又若王者之駕出兮  
 而百職咸從  
 大將登壇兮  
 而三軍之聽命  
 匪匪翼翼兮  
 闕闕靡靡  
 熒熒然如崑崗之烈炎兮  
 洶洶然如巨海之濤浪  
 崇崇如唐室之天樞兮  
 轟轟如漢帝之金莖  
 如彤雲紫霓之衛帝居兮  
 如豹尾罕旗之扈天仗  
 如明堂之圭笏峩峩兮  
 如大庭之鍾鼎將將  
 如太液清波之天開菡萏兮  
 如長揚大蒐之星陳威揚  
 皓皓焉如留太古之素雪兮  
 積積焉如受寒門之玄霜  
 又如唐虞之揖讓兮  
 穆穆皇皇  
 如湯武之征伐兮  
 正正堂堂  
 如晉楚之相遇於中原兮  
 或奮而成伯或折而受盟  
 如劉項之交爭於滎陽兮  
 或勃而債或跌而昌  
 樊哉如并吞割據兮  
 而極力不相讓焉

왕도도 패도도 모두 바닥이 나	窘哉如王伯道窮兮
결국 칼과 창으로 맞닥뜨린 것 같은 것들도 있으며	而至於劍戟相撞者
또 용사가 갑옷 입고 창 들고 난리에 임함도 있고	又如勇夫之被堅執銳而赴難兮
선비가 붓 들고 책 끼고 다니면서 공명을 세움도 있으며	如章甫之擒翰挾策以立名
헨걸차고 굳세기 맹분 같고 북궁유 같은 그런 유형도 있고	赳赳乎洸洸乎如賁如黜兮
문채스럽고 빛나기 자유·자장 같은 그런 유형도 있고	斐如而章如而如游如張
붕거가 큰 기 빼앗아들고 춤추는 것 같은 놈도 있고	如鵬舉之奪蠹而舞兮
운장이 말을 몰아 달려가는 꼴 같은 것도 있고	如雲長之策馬而騁
안연이 무릎 위에 책을 놓고 위연히 탄식함과 같은 것도 있고	如淵之橫經而喟然
증점이 쟁그랑하고 거문고 밀치는 것 같은 것도 있고	如點之舍瑟而鏗爾
이윤이 유신의 들에서 담담히 도를 즐김과 같은 것도 있고	如摯之嚚嚚然樂道於莘野兮
제갈량이 담박하게 용중에 누워 이성을 다스림과 같음도 있고	如亮之淡泊猗理性於隆中
부열이 부암에서 담 쌓는 일에 종사함과 같은 것도 있으며	如說之於傳巖身操版築兮
휘가 녹문산에서 누에 치고 뿡나무 가꿈과 같은 것도 있으며	如徽之於鹿門躬服蠶桑
정조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처녀처럼	如處子之貞保兮
얇전하고 수줍고 차분하게 생긴 것도 있고	窈窕幽靖
수양에 몰두하고 있는 조용한 선비같이	如靜士之潛養兮
정숙하고 깔끔하고 의젓해 보이는 것도 있고	齋戒矜莊
석가여래가 명상하며 조용히 눈감고 있음과 같은 것도 있고	如伽之入定寂默昏冥
노자가 마음을 비우고 현묘한 꿈속에 잠겨 있음과 같음도 있네	如聃之閉玄虛沖靜
하늘이 기을자 여와씨가 고인 돌과 하늘을 고정시킨 자라같이 생긴 돌도 있고	又如女媧補天之石立極之鰲兮以之天傾
복희씨와 우 임금 때 역상을 그리게 만든 하도를 지고 온 말과 낙서 실고 온 거북 모양으로 생긴 것들도 있고	如羲夏負圖之馬載書之龜以畫玄象
구개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진주조개 같은 것도 있고	如珠貝之羅陳於九市兮
푸른 하늘에 뒤섞여 있는 기성 두성 같은 모양도 있고	如箕斗之錯落於青冥
우 임금 때 만든 구정의 세 발같이 생긴 것도 있고	如妣氏之九鼎三足兮
진시황 때 만든 열두개 금인같이 생긴 것도 있고	如嬴皇之十二金人
악기틀 같은 것도 있고 쇠북같이 생긴 것도 있고	若鑪若鍾
무안군이 훈련 때 지붕이 들썩이게 치던 북 같은 것도 있고	如武安勒兵之鼓屋瓦盡振兮
낭사에서 저격으로 진시황을 놀라게 했던 첩퇴 같은 것도 있고	如浪沙狙擊之椎祖龍魂驚
패공이 천하를 다투던 삼척검같이 생긴 것도 있고	如沛翁爭天下三尺之劍兮
당양 장판파에서 장비가 쓰던 장팔사모같이 생긴 것도 있고	如當坂衛龍孫丈八之槍

일만 군중을 진력하게 했던 이 사도가 혼든 기 모양도 있고  
 못 추장들 조아리게 한 곽 영공의 벗은 투구 모양도 있고  
 들에 혈육이 낭자하게 했던 유 부수의 무기 같은 것도 있고  
 가슴을 베고 정강이를 자른 악 절도 같은 것도 있으며  
 또 조 태위가 창읍에서 오비를 견제하면서 치밀한 계획과 힘을 기르며 대들어도 끄떡  
 않고 있었던 것 같은 것도 있고

又如條太尉之按吳淞於昌邑兮謀深氣壯角之不動

주공근이 조조를 적벽강에서 쳐부술 때  
 불이 맹렬하고 바람 세차 상영까지 전소시켰던 것 같은 것도 있고

火烈風猛燒及上營

물귀신이 오정을 지휘하여  
 산천을 이리저리 뒤바꾸어 놓은 것 같은 것도 있고  
 우 임금이 용문산을 뚫고 지주를 부수고 이궐산을 잘라

如巨靈之揮五丁兮

反山川之紀經

如神禹之鑿龍門折砥柱關伊闕兮

墜斷天地之性

천지의 성품을 도막도막 끊어놓고  
 또 삼천 선비가 공자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 같고

又如三千簪裾兮仰聽孔聖之經誦

十萬豺豸兮咸總尚父之鷹揚

맹수 같은 십만 군대가 모두 강태공 지휘 아래 움직여  
 한 황제가 신성에서 거의했을 때 삼군이 소복을 입었네

漢皇之舉義於新城兮三軍縞素

陳涉之大呼於楚澤兮萬姓

진섭이 초택에서 크게 일어나자 만백성이 호응했고  
 荷兵

황제 헌원씨가 흉려산에서 치우를 죽일 때  
 동두철액이 부월의 형을 받던 것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광무 황제가 왕심·왕읍을 치수에서 쫓음이  
 맹수들이 맹풍과 벼락 속에서 맹렬히 싸우는 기상이니

軒轅之戮蚩尤於凶黎兮

銅頭鐵額之伏斧鉞於大刑

光武之走尋邑於滢水兮

熊豹犀象之奔股崩戰於烈風迅雷

周旋而睨之兮

俯監而瞠之

纖微磊岨兮

木石同場

碌碌碌碌兮

巨細相撐

雜選紛糾兮

醜怪繆刑

주위를 돌면서 눈여겨보고  
 또 내려다보니 눈이 휘둥글했다  
 섬세하고 작은 놈 울쑥불쑥 험상궂은 놈  
 나무와 돌이 한데 모여 있고  
 얼그럭 덜그럭 쌓여 있는 놈 올망졸망한 놈  
 큰놈 작은놈이 서로 물려 있으며  
 잡담하게 얽히고 설켜  
 추하게 생긴 놈 괴짜로 생긴 놈이 얽혀 있어

진 나라 채찍에 물려온 것 같은 놈이 있는가 하면      如秦鞭之驅兮  
 우 임금 도끼에 찍힌 것 같은 놈도 있고      如禹斧之邊  
 순 임금에 의해 손발이 묶여 있는 이부같이 생긴 것도 있고      如貳負之荷桎梏於帝姚兮  
 우 임금에 의해 족쇄가 채워진 지기같이 생긴 것도 있고      如支祈之被牢鎖於夏王  
 함양의 저자에서 초나라 사람 이사의 잘린 허리와 목 같음도 있고      如咸市楚斯之腰領兮  
 철도끼로 잘라놓은 유소 계집 달기의 목과 정강이 같은 것도 있고      如玄鉞蘇妲之脰脛  
 속임질 잘하다가 쪼개진 전거의 대머리같이 생긴 것도 있고      如田巨之矯誣禿首而斲兮  
 왕위 찬탈했다가 살아진 유공후 예의 긴 팔과 같은 것도 있고      如夷羿之僭竊長臂而烹  
 도망갔다가 사지가 찢긴 상앙의 팔다리같이 생긴 놈도 있고      如鞅之走而輓兮  
 왕돈처럼 꿰어얹은 자세로 목이 잘린 것같이 생긴 놈도 있고      如敦之踞而斲  
 불을 놓아 지글지글 끓게 한 동탁의 배꼽처럼 생긴 놈도 있고      如卓之燔火燃其臍兮  
 죽었을 때 칼로 파버린 환온의 귓밥같이 생긴 놈도 있고      如溫之斃刃陷其腦  
 옥홀에 맞아 부서진 진호의 머릿골처럼 생긴 놈도 있고      如晉護之腦碎於玉珽兮  
 칼날에 떨어져나간 양교의 머리통같이 생긴 놈도 있고      如楊釗之頭隕於劍鋌  
 제부에서 곤장 맞는 진회같이 생긴 놈도 있고      如檜高之受杖帝府兮  
 머리를 함에 넣어 오랑캐나라로 보냈던 사와 모양 같은 놈도 있으며      如師佉之函首虜庭  
 또 어찌 보면 육조 시대에 중국인과 오랑캐가 섞여 살던 것 같기도 하고      又如六朝之夷夏雜糅兮  
 오대 적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난잡을 피우던 것 같기도 하고      如五代之君臣相攘  
 필리가 남하를 □□할 때 강 따라 줄을 섰던 햇불 같은 것도 있고      如佛狸之□南夏也列炬沿江兮  
 목돌이 한 고조를 에워싸고서 기마로 진을 치고 사방을 살피던 것 같은 것도 있고      如冒頓之繞漢祖也陳騎按方  
 부진이 강좌에서 병력을 자랑하면서 말채찍을 던져 강을 막고 기를 들어 태양을 가리울 때      如符秦之耀兵於江左投鞭斷流舉旗蔽明兮  
 처량한 모습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꼴 같은 것도 있고



而奔走於鶴唳風聲

양 무제가 동태사에서 불교에 몸바쳤을 때 중들이 길을 막고 사찰이 공중으로 치솟았으나  
如梁武之捨身於同泰緇衣塞路佛刹巨空兮  
대성이 함락될 때 우두커니 서만 있었던 것같이 생긴 놈이 있더라

而却立於臺城之崩喪

아아, 슬피라

噫嘻悲乎

그 기울고 몰락된 형세와 깨져 없어진 물골들이라니

其傾陷之勢破歸之象

안개가 짙어 돛대가 부러진 것은

霧黑檣摧

육 승상이 남천에서 황제를 등에 업었을 때이고

陸丞相之負帝於南天兮

회오리바람에 바다가 뒤집힌 것은

風颶海翻

장 추밀이 바다 가운데서 목숨을 불고할 때였다

張樞密之捨命於中瀛

송산에서 밤에 무찌를 때는

松山夜鑿

날으는 탄환에 비석이 부러졌고

礮石摧於飛丸兮

관내가 유린을 당할 때는

關內橫蹂

차령에 의해 하늘이 진동하기도 했었지

九竄震於借靈

아아,

嗚呼

물건들을 보면 감회도 많아

唉茲觸物之多感兮

이내 마음 슬프기만 하다네

余懷之傷矣

그리고 또 어두컴컴한 곳에 살고 있는 도깨비들 하며

亦又有魍魎魍魎之宅於幽陰兮

숲 속에 굴 파고 사는 두더지 날다람쥐 여우 너구리들이

鼯鼯狐狸之穴於林莽

어두운 곳에서 숨어지내면서

潛晦兮

낮이 되면 멋대로 날뛰고

當晝以趨

의심을 품은 듯 수줍음을 타는 듯

含疑畜羞兮

사람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하면서도

見人以慙怩

그래도 제가 사는 곳에서는 내로라 하고

猶且據所以視雄兮

세력을 부리면서 제 혼자 잘난 체하고

馮勢而自臧

하늘도 부끄러워 않고 사람도 부끄러워 않고

不愧以忤兮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유 있게 지내는 꼴들이

不惕以異

어쩌면 꼭 간사한 소인배들 물골이어서

實儉人宵夫之狀類兮

내 그놈의 속들 알아보고 싶지도 않다네

吾不欲究其肺腸

그러나 그것들 역시 음양 이치가 하나로 뒤섞이고

是蓋一理二氣之磅礴兮

음과 양이 서로 운행하고 움직이면서

交運而迭盪

제각기 그 꼴대로 만들어놓은 것들이기에

所以體物而化成者

그렇게 번덕 심한 구름과 미쳐 날뛰는 파도와도 같다네

若是其雲譎而波狂

다만 만이면 만 개 하나하나 다른 꼴들을

惟吹萬之不齊兮

누가 그렇게 말아서 만들어내는 것일까  
 가보고 싶으나 막혀 있는 남녘 오랑캐땅  
 하늘을 한번 훨훨 날아봤으면  
 구경하기에 빠져 돌아갈 줄도 모르고  
 길을 바꿔 다른 곳으로 가노라네  
 못 꽃들이 살던 곳 어디냐고 물었더니  
 어찌면 다른 말들이 그리도 많을까  
 헝헝그렁한 대자연 속에 들어가  
 수많은 폭포들 칼칼 쏟아지는 소리를 듣고  
 붉은 낭떠러지에 푸르른 봉우리하며  
 새하얀 돌들 그리고 깊고 넓은 물  
 신령한 새가 살던 옛집을 보아도  
 소리 안 들린 지가 천년이라네  
 새란 놈은 어찌하여 제 자랑만 한다던가  
 물건마다 종류 달라 같은 것이 아니라네  
 화룡은 설레설레 물 속에 잠겨 있어  
 벼락 치고 비 쏟아져도 끄떡도 않는다네  
 아마도 못을 비우고 떠나버려  
 이름만 남아있지 신령은 없는 게 아닐까  
 아, 수없이 오고 가는 구경꾼들  
 말도 못하게 몰려드는 성명 뿐이지  
 비컨대 용문에 모여드는 고기들이  
 어떤 놈은 실패하고 어떤 놈은 용 되어 하늘로 오른다던가  
 그들이 남겨둔 것 후인이 보고서는  
 향냄새와 악취를 구별해서 말한다네  
 거미 뒤를 따라 어루만지면서  
 붓을 집어들고 정서를 그려본다네  
 마하연을 찾아 쉬면서는  
 이것이 대승이라는 뜻을 알았고  
 이웃을 끊고 외로이 사는 자 만나서는  
 궁벽한 길 찾아 괴상한 짓 하고 있음을 탄식했다네  
 노향을 캐 실에 꿰어 허리에 차고  
 계수나무 가지 휘어잡고 맴을 돌고  
 삼대 꺾어 지팡이 삼고  
 지초를 식량 삼아 먹으면

孰回幹以主張  
 懷臨睨之阨南夷兮  
 憶翮然而下大荒  
 懼耽觀以流連兮  
 遂改路而下降  
 問百華之遺墟兮  
 何異言之幻魘  
 入元化之呀然兮  
 聽萬瀑之砰訇  
 惟丹崖與翠巘兮  
 石皚皚兮流汪汪  
 瞻靈禽之舊宅兮  
 聲不聞兮千齡  
 云何鳥之自標兮  
 物有類而非貞  
 乃火龍之盤沈兮  
 邈乎雷雨之滿盈  
 豈竭澤而去之兮  
 恐名存而無靈  
 噫游子之來往兮  
 紛雜選其名姓  
 比龍門之鱗集兮  
 孰點額而化升  
 徒留看與後人兮  
 指薰蕕於臭芳  
 步蜘蛛以摩挲兮  
 聊拈筆以抒情  
 尋摩訶以憩息兮  
 知寓義於大乘  
 還孤宿之斷隣兮  
 嘆索隱而怪行  
 採盧香以紉珮兮  
 援碧桂而彷徨  
 折疏麻以為杖兮  
 餌玄芝以為糧

마음속이 너무나도 유쾌하고  
 정신이 맑고 건강하기 시작한다네  
 운대의 가을빛을 보며 섰노라면  
 찬바람이 갑자기 내 옷에 불어오고  
 안문을 넘어 동으로 가거드면  
 산 속의 온갖 풍광 다 접한다네  
 운취산에 가 자유자재로 노닐면서  
 산에 비치는 낙조 따라 즐겨볼까  
 현자들 불러 모은 금대도 아니요  
 신령을 접하는 명정도 아니면서  
 역대를 두고 왜 그리들 지었을까  
 황제 사는 대궐처럼 휘황찬란하게  
 중에게 부드러운 말을 붙여  
 백개의 남긴 발자취를 보고  
 이어 전쟁에 싸워 이기는 방법 듣고서는  
 칼을 어루만지며 정신이 그쪽으로 갔다네  
 구름이 뭉게뭉게 조용히 비가 내려  
 주룩주룩하는 소리 밤새워 들었더니  
 일천 산들 갑자기 모습이 달라져  
 비단구름이 가로 펼쳐져 있는 듯하네  
 마부에게 남으로 갈 길 차리게 하고  
 성사를 넘고 무지개다리를 건너  
 자천을 따라가다가 돌산에 올라가서  
 양양한 동해바다를 바라보니  
 노중련의 고고한 모습도 생각나고  
 공자가 타리라던 때 보고도 탄식했네  
 안기생을 부를 수가 있다던가  
 진 나라 동남동녀들 어디로 갔단 말가  
 아득한 마음 갈피잡을 수가 없어  
 머리 풀어헤치고 봉황이나 타고싶다네  
 그리고 바람 박차고 구만리 날으는 큰 봉새랑  
 깊은 바다에 누워 있는 큰 자라 고래랑도 생각나고  
 백천의 풍광을 구경하기 위해  
 한가한 날을 잡아 돌아봐야지  
 가마를 내려두고 전송 나온 자에게 하직을 고함이어

竊快在其中心兮  
 精醇粹而始壯  
 倚雲臺之秋色兮  
 溘泠籟之吹我裳  
 踰雁門以東逝兮  
 挹萬景之嵐光  
 投雲翠以偃仰兮  
 步山映而怡情  
 豈招賢之金臺兮  
 非接靈之明廷  
 何歷代之營構兮  
 儼皇居之煒煌  
 接軟語於禪子兮  
 覩伯喈之遺蹤  
 聞制勝於游方兮  
 撫孤劍而神往  
 雲祈祈而作雨兮  
 聽建宵之浪浪  
 千山忽以改觀兮  
 若雲錦之橫張  
 戒僕夫而南出兮  
 跨星查兮渡虹梁  
 沿磁川以陟陟兮  
 望東海之洋洋  
 想仲連之高蹈兮  
 嘆尼父之攸乘  
 殆安期之可招兮  
 眇秦童之何往  
 心超忽以靡屆兮  
 欲披髮而御鳳凰  
 思搏風之鯤鵬兮  
 逮偃溟之鰲鯨  
 攬風光於百川兮  
 聊暇日以周章  
 弛擔輿而謝送者兮

젊고 예쁜 사람 멀리 가기 때문이라네  
 높고 확트인 바다산에 올라  
 험준한 구정산도 돌아봐야지  
 아, 비로봉 그리고 구룡연이  
 유독 꿈속에 아른거리네  
 그렇게도 유별나게 고고한 표상  
 그리고 그 속에 깊이 간직된 신비한 것들을  
 내 살살이 다 볼 수 없는 것은  
 힘이 벌써 그만큼 달려서라네  
 변화하는 사물의 형태를 두루 관찰하자면  
 온갖 험난과 어려움 갖추 맛을 봐야겠지  
 마치 순임금이 깊은 산에서 살 때  
 나무와 돌과 함께 살았듯이  
 그리고 우임금이 구년홍수 다스리면서  
 섬이고 물가고 닥친 대로 갔듯이 말이야  
 포구에서 목란을 기대고 보아도  
 신선 사는 곳 아득하여 알 길이 없다네  
 감호를 가다가야 그만둘 수가 없지  
 맑은 물결이 일렁일 것 아닌가  
 석감에 숨어 있어도 마음 끄는 것은  
 출렁출렁 들리는 파도소리이며  
 수레 만 대가 굴러가는 것은  
 승산 화산같이 험준한 산들이라네  
 예쁘장한 유담 영호 다 보아도  
 내 마음에 드는 것들 아니지만  
 어찌면 청산의 눈빛은  
 고개 돌려 볼 때마다 눈에 그리 차는지  
 저 쌍쌍이 노니는 백조들  
 그리고 명사에 붉은 해당화  
 그것이 바다 곁에 사는 풍류이며  
 나그네 서글픔도 달래준다네  
 맑은 시내 따라 천천히 거닐다가  
 날아갈 듯 잘 지어진 집을 보고서  
 그리워지는 옛사람 보지를 못하고  
 그 마음 노래가락에 실어본다네

蓋婉孌乎遠將  
 憑海山之高軒兮  
 回瞻乎九井之崢嶸  
 噫毗盧與九淵兮  
 獨依依乎夢想  
 惟卓犖之高標兮  
 與神怪之幽藏  
 余不得攀援而窺闕兮  
 久矣膂力之無強  
 獸物化變態之是遍  
 而亦險阻艱難之備嘗  
 而譬重華之處深山也  
 木石與居  
 想夏伯之參洪流也  
 洲渚與登  
 倚木蘭於浦口兮  
 杳仙踪兮難詳  
 馳鑑湖且焉止息兮  
 漪灩澦之清激  
 隱石龕而嬋媛兮  
 聽濤聲之  
 車轟輻止萬轂兮  
 岳嵩華止嶒峻  
 歷遊潭與永湖之艷媚兮  
 非余心之所賞  
 何星山之雪色兮  
 每回首而盈眶  
 惟兩兩之白鳥兮  
 與鳴沙之紅棠  
 實傍海之風流兮  
 解羈懷之悵悵  
 過清澗而弭節兮  
 得傑構之飛甍  
 懷古人而不見兮  
 託餘響於清商

노닐기 위해 일찍 출발하여  
 죽포에 배 띄우고 사방을 바라보니  
 설악에는 구름 드리워 있고  
 동해의 물결 호호망망도 하여  
 낙가산 올라 절간에 들리면  
 산간이 맞아주어 반갑고  
 선원 데리고 현학을 울리며  
 나대의 유향을 듣는다네  
 어찌면 이 좋은 곳 규모도 이리 굉장할까  
 바다도 물도 온통 승지로세  
 금선굴 하며 의상대 하며  
 돋는 해 맞이하는 이화정 하며  
 먼저 비를 뿌려 먼지 씻게 하고  
 또 바람 시켜 영을 선포하려는지  
 하늘은 어두컴컴 쓸쓸하기만 하고  
 구름은 짙 끼었다 금방 벗어지네  
 끝도 안 보이는 저 넓은 바다  
 정신이 아찔하여 하늘에 오르는가 싶다네  
 하늘에 등실 떠 해와 어울리는 듯  
 웅덩그렁하고 어슴푸레하기도 하고  
 아득한 저 별 석목이 아니던가  
 부상 저 끝까지 가보고 싶다네  
 진 나라의 천황이라는 것  
 어느 시대 누가 만든 이름이라던가  
 두 눈을 하늘 밖으로 돌려  
 떠오르는 붉은 햇빛을 보니  
 용광로 속에 이글거리는 불덩어리  
 온 바다가 부글부글 끓고 있네  
 붉은빛 수레에 자색 일산을 달고  
 눈부시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마치 뜬구름이 가리운 듯 침침하여  
 얼른 뛰어오르지 못하고 있더니  
 주위의 장애물 다 녹여내고  
 불끈 솟아올라 제 길 따라 간다네  
 못 용들이 끼고서 힘차게 날아가니

乃夙駕而容與兮  
 航竹浦以盱衡  
 雲垂垂於雪岳兮  
 波浩浩於東溟  
 登洛伽兮入禪門  
 喜山簡之逢迎  
 携仙源而奏玄鶴兮  
 聽羅代之遺響  
 何寶地之宏規兮  
 占海陸之雄勝  
 金仙窟兮義相臺  
 賓日僚兮梨花亭  
 先雨師以清塵兮  
 命風伯而宣令  
 天淒陰以沈寥兮  
 雲靄靄而汎晴  
 極瀛渤之無際兮  
 神飄飄兮上九紘  
 勢浮天而浴日兮  
 氣瀕洞而泱泱  
 渺析木之疇許兮  
 直欲窮乎扶桑  
 繫秦域之天皇兮  
 云幾代而何名  
 寓雙眸於天外兮  
 窺出日之紅光  
 火輪熾於鴻爐兮  
 環海涌其爲湯  
 紛彤車與紫蓋兮  
 班陸離其上下  
 若浮雲之晦曖兮  
 又潛躍其難升  
 旣蒸蒸而銷化兮  
 更騰騰而遵養  
 羣龍翼其奮飛兮

상하사방 온 천지가 금방 흰하네  
 저렇게도 밝기만 한 저 태양의  
 가는 길을 누가 감히 막으랴  
 하늘을 가로질러 땅을 짜고 가노라면  
 만물이 다 그 덕에 자란다네  
 내 사실 그를 보고 감명을 받아  
 정과 동의 음양 이치 깨달았다네  
 저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속에  
 소장의 이치가 생겨나는 것이라네  
 개인 달도 어찌면 저리 밝을까  
 서로 바라보고 번갈아서 밝혀준다네  
 천리 멀리 검은 연기 한 점 없고  
 만경창파에 금물결 일렁이다가  
 해면에 갑자기 장풍이 불어오고  
 천둥 벼락이 큰소리를 치게 되면  
 크나큰 그 소리 그 빛이  
 아마 어둠 속에서 명멸하리  
 내 그 광경 끝까지 다 구경을 못하고  
 눈을 돌리고 귀도 돌리려고 생각했네  
 환하고 넓은 유일한 길을 찾아  
 무변의 광경을 두루 살펴보고  
 옛 철인들 마음을 다시 생각하니  
 광풍이요 제월이요 상서 그것이었네  
 왔던 길로 내 수레 다시 돌려  
 그 길로 죽 도로 갔다네  
 하늘도 울어대는 험준한 산을 지나  
 만 길이나 치솟은 뿔부리를 바라보고  
 창해의 유희를 굽어보면서는  
 한 나라 때 장량을 생각했다네  
 용감한 사나이를 만났더라면  
 박랑에서 충분히 요절을 냈으련만  
 아마도 시운이 맞잖은 탓으로  
 부질없는 장자방 눈물만 흘렸다네  
 춘주에 들러 길을 멈추고  
 경운의 청평을 물었더니

六合俄其宣朗  
 寔大明之隆熙兮  
 敢闕過於長程  
 用經天行而緯地勢兮  
 函品彙而亨貞  
 實有震於余衷兮  
 悟懸陰於飛陽  
 彼小大之相乘兮  
 從有契乎消長  
 何霽月之清輝兮  
 又代明於相望  
 泯纖煙於千里兮  
 漾金波之萬頃  
 長風忽其駕海兮  
 巨雷殷其流轟  
 聲與色其兩大兮  
 想起滅於窈冥  
 余惟茲覽相觀之不可以極兮  
 思收視而返聽  
 觀昭曠於一原兮  
 瞰無邊之光景  
 念先哲之襟期兮  
 日光霽與瑞祥  
 回朕車以復路兮  
 乃遂焉而還征  
 凌天吼之嶒嶸兮  
 瞻皓岵之萬丈  
 俯滄海之遺墟兮  
 思漢代之張良  
 豈猛士之可求兮  
 能奮袖於博浪  
 恐時運之參差兮  
 空雪涕於子房  
 入春州而停驂兮  
 問慶雲之清平

물은 푸르러 못을 이루었고  
 산은 높아높아 상당이로세  
 고고한 열경의 풍도는  
 산과 함께 높고 물과 함께 푸르르며  
 자현의 속세를 초월했던 일들  
 탐욕자 간신배의 본보기가 아니던가  
 긴 흐름을 따라 돌아 돌아가면  
 아득한 서울거리에 닿을 것이고  
 동쪽 성곽을 보며 돌아가면  
 높다란 대궐문도 바라보이리  
 삼각산 어찌 그리 높고 험준하며  
 한강수는 어찌 그리 흐름이 세찰까  
 울창한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거리는 어두운 먼지 속에 있고  
 오릉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고  
 사교에는 연기가 자욱한데  
 백성들은 밭 갈고 누에 치고  
 선비들은 거문고 타고 글 외우는 곳  
 참으로 아름다운 이 산하  
 이름하여 기자 나라의 남쪽 지대라네  
 삼가 단군의 뒤를 이어  
 부사의 유풍을 이 땅에 심고  
 세월 멀어 팔조지교는 잘 몰라도  
 흥범구주는 없어지지 않았다네  
 계찰이 노 나라에서 악 구경하던 일에 비하면  
 비록 다른 점이 있으나 감히 말은 못하겠네  
 옛날 중니가 올라가서는  
 태산에서 천하가 작다고 했고  
 회옹은 낭랑하게 시 읊으며  
 축융봉에서 가슴 털어놓았었지  
 속세를 초탈한 가의는  
 하늘 둥글고 땅은 모나다는 이치를 터득했고  
 소요부는 천하를 두루 돌며  
 바람과 번개를 타고 다녔다네  
 내가 지금 구경다니는 것이야

水青青而成淵兮  
 山崔崔兮上黨  
 夫何悅卿之高風兮  
 共山高而水清  
 惟資玄之逸躅兮  
 寧不律夫貪佞  
 遵長淮而摶流兮  
 襲天街之蒼莽  
 瞻東郭而言復兮  
 望閭門之將將  
 何白岳之律律兮  
 而漢水之湯湯  
 濟南山之蒼蔚兮  
 塵九逵之冥冥  
 樹五陵之葱葱兮  
 煙四郊之芒芒  
 民耕桑之雩雩兮  
 士絃誦之洋洋  
 誠河山之美哉  
 曰箕邦之南壤  
 欽檀君之克讓兮  
 尙父師之遺馨  
 緬八條之難詳兮  
 而九範之匪亡  
 比季札之觀樂於虞節兮  
 雖有他而不敢請  
 昔仲尼之登覽兮  
 小天下於岱宗  
 惟晦翁之朗吟兮  
 乃盪智於祝融  
 賈生之鵠舉兮  
 觀天地之圓方  
 堯夫之歷覽兮  
 駕風霆而旁行  
 惟今日之遊賞兮

옛 성현들 뒤를 어떻게 따르랴  
 그러나 성인이 위연 탄식을 했던 것은  
 사실 풍영을 길이 허여했던 것 아닌가  
 끝맺음을 하기를  
 공자는 인자 지자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면서  
 산은 정하고 물은 동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맹자는 호연지기를 말하면서  
 배양를 잘해야 생긴다고 했지  
 그 교훈에 대한 감회가 많아  
 가을바람에 흥을 돋우고  
 감정을 산과 바다를 통해 풀어보았다네  
 지적한 것도 다르고 서로의 경지도 비록 다르지만  
 천사인사사물의 이치는 서로 번역되어 가는 것이라  
 濼也夫  
 『白湖全書』

豈追蹤於賢聖  
 繫元聖之嘯然兮  
 實深與乎風詠  
 亂曰  
 孔言仁智之樂兮  
 由山水之動靜  
 孟云浩然之氣兮  
 因善養以生  
 惟茲感懷之長兮  
 蓋溯秋風以起興  
 憑海山而抒情  
 雖所指所造之不同兮  
 天時人事物理之相推而相



### 유영길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월봉(月篷)      유영길(柳永吉)<sup>237)</sup>



### 윤증

○ 낙산사(洛山寺)에서 판상 시에 차운하며[洛山寺次板上韻]  
 명제(明齋)      윤증(尹拯)<sup>238)</sup>

237) 류영길(1538, 중종33-1601, 선조34)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호는 월봉이다. 22세 때 문과에 장원으로 발탁 되어 공조좌랑에 제수, 명종19년 명종21년(1566년)에는 선천군수로 나가고 그 뒤 공조를 거쳐 종부시 첨정과 사도내 첨정을 지낸 후 선조4년(1571년)에는 이천군수로 부임했다가 이어서 장단부사로 옮겼다. 선조9년(1576년)에는 진주목사에 임용되었으며, 부친의 상을 당하여 탈상 후 성주목사에 제수되었다. 선조21년(1588년)에는 장례원 판결사가 되었고 겨울에 양주목사로 가서는 모친상을 당하였다. 선조24년(1591년)에는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선조34년(1601년)에 원해서 성천부사로 나아가 그 해 12월 11일에 작고하니 향년 64세이다.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경연의금부 춘추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세자좌빈객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추증되었다.

238) 윤증(1629, 인조7~1714, 숙종40)의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자는 자인(子仁), 호는 명제(明齋)·유봉(酉峰)이다. 장인인 권시(權誥)와 김집(金集)에게 배웠다. 29세 때에는 김집의 권유로 당시 회천에 살고 있던 송시열



도가 소멸과 성장 관여치 않으니  
 어찌 인간의 즐거움과 근심 알겠는가  
 또한 장차 나무로 활과 화살 만드는 뜻은  
 바다와 산에 의지하여 놀 것을 즐기려 하네  
 초여름 맑아 절기가 화합할 때  
 배꽃이 낙산루에 피었구나  
 창해는 만 리나 되는데  
 날 저물어 채운이 걷히는구나  
 『峴山誌』

不關道消長  
 何知人樂憂  
 且將弧矢志  
 聊付海山遊  
 首夏清和節  
 梨花洛山樓  
 滄溟正萬里  
 日夜彩雲收



## 조종저

### ○ 낙산주석(洛山酒席)

간재(良齋)

조종저(趙宗箸)<sup>239)</sup>

넘실거리는 흰 물결에 산바람 흔들리고  
 등불 밝은 곳에 스님은 한가롭네  
 문 앞은 푸른 바다 뜰에는 밝은 달  
 천하의 기경 혼자서 보네

白浪翻天風撼山  
 佛燈明處寺僧閑  
 門前滄海庭前月  
 獨占奇觀天地間

### ○ 낙산관일출(洛山觀日出)

간재(良齋)

조종저(趙宗箸)

(宋時烈)에게 『朱子大全』을 배웠다. 송시열의 문하에서 특히 예론(禮論)에 정통한 학자로 이름났다. 1663년(현종 4) 천거되어 내시교관·공조랑·지평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했다. 숙종 대에도 호조참의·대사헌·우참찬·좌참찬·우의정·판돈녕부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했다. 『숙종실록』은 윤증의 생애를 배신으로 기술했지만 사실상 그는 한 번도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당시 남인·노론(老論)과 함께 3대 정당 중의 하나인 소론(少論)을 이끌었던 저명한 정치가였다.

스승인 송시열과 대립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묘갈명(墓碣名)을 송시열에게 부탁했는데 이 문제로 이로 인하여 윤증과 송시열은 사제 간의 의리가 끊어지고 윤증은 송시열의 인격 자체를 의심,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인적 감정과 함께 남인에 대한 처벌문제로 서인이 강·온 양파로 분리될 때 그를 지지하는 사류(士類)들에 의해 소론의 영수로 추대되었다.

저서로 『명재유고』·『明齋疑禮問答』·『명재유서』 등이 있다. 홍주 용계서원(龍溪書院), 노성 노강서원(魯岡書院), 영광 용암서원(龍巖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239) 조종저(1631, 인조9년~1690, 숙종16)의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자는 취숙(聚叔), 호는 간재(良齋)이다. 1680년(숙종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서인(西人)이 등장할 때 종부시정이 되었다. 1675년(숙종1) 7월에 양양부사로 도임하였다. 학문에 뛰어나고 특히 역사에 밝았으며, 산수·천문·의약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달하였다.

양양부사로 낙산사에서 술자리를 하고 느낌 감회를 표현하였다. 넘실거리는 물결이 산바람에 흔들리는 데 산사의 스님은 등불 밝히고 참선하는데 한가롭기만 하다. 수천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낙산의 풍경인 문 앞은 바다요, 뜰에는 달, 천하의 기경을 혼자 보는 것을 아쉬워하며 표현하였다.

술에 취해 깊게 잠들어  
새벽에도 깨지 못하네  
스님이 다가와 아침 해 보라기에  
은해는 창망한데 붉은 빛 물들었네  
『良齋集』

宿醉昏昏睡正濃  
晨光侵戶尙矓矓  
居僧蹴我看朝日  
銀海蒼茫萬里紅

양양부사 시절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에 깨지 못하자 스님이 다가와 일출을 보라고 하기에 일어나 일출을 보고 지은 시이다. 망망한 은빛 바다에 일출로 붉게 물드는 광경을 보고 표현하였다.

○ 제회원당(題懷遠堂)

간재(良齋)

조종저(趙宗著)

만발한 요황(모란)에 자하기운 가득하고  
현산 서쪽 발두둑에 비로소 해가 기울네  
그대 습지<sup>240</sup> 떠나가지 마시게  
임천 호사가에 와서 취해 보세  
『良齋集』

百朶姚黃爛紫霞  
峴山西畔日初斜  
使君不向池習去  
來醉林泉豪士家



## 김상성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도계(陶溪)

김상성(金尙星)<sup>241</sup>

달이 불을 밝혀 수정궁에서 나오고  
만리 물결 백 길이나 우뚝 섰네  
우주는 은하수 밖으로 통하고  
산하의 그림자는 고운빛깔 무지개 가운데서 반사되네  
봉래산, 영주산에 겨를 산이 없고

金盆擎出水晶宮  
萬里洪濤百丈確  
宇宙氣通銀漢外  
山河影射彩覽中  
蓬瀛底處無邊

240) 양양은 예부터 모란이 많았다. 모란이 불게 물들어 화려하게 피었는데, 황혼 무렵해가 기울자 벗들과 즐거운 연회를 하며 보내고 싶은 심회를 표현하였다.

241) 김상성(1703, 숙종29~1755, 영조31)의 본관은 강릉(江陵)이고 자는 사정(士精), 호는 도계(陶溪)·손곡(損谷)이다. 어려서부터 글을 잘 지었으며, 13세 때 영평(永平)의 <금수정기 金水亭記>를 지어 신동이라는 평을 들었다. 1723년(경종3)에 진사가 되었고, 그 해 정시문과에 장원한 뒤 사서가 되었으며, 이어서 1727년(영조 3)에 병조좌랑이 된 뒤 정언·부수찬·부교리·헌납·응교를 거쳐, 1734년 부평부사(富平府使)가 되었다. 1736년에는 대사간이 되었고, 이어서 승지·대사성을 거쳐 1744년에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그 후 형조참판·대사헌과 병조·이조·공조의 참판을 차례로 역임하고, 1752년 병조판서가 되었으며 예조판서·좌빈객·판의금부사를 거쳐 1755년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오나라, 초나라 사이에 바람 잘날 없네  
하늘이 맑으니 햇살 밝고  
음험한 기운 쓸어내어 천공을 넓게 하리라  
『峴山誌』

吳楚之間不盡風  
要識大明今快靚  
氣陰掃廓荷天公



## 김이안

○ 낙산사(洛山寺)

삼산재(三山齋)

김이안(金履安)<sup>242</sup>

노래하며 십 일 만에 큰 해변에 와보니  
낙산사 밖은 하늘마저 끝났네  
이 땅 좁은 줄 여기서 알겠고  
바람 타고 신선이나 찾아가 보리  
『三山齋集』

十日行吟大海邊  
洛山寺外更无天  
年來漸覺區中隘  
便欲乘風訪列仙



## 이기상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관찰사 민와(敏窩)

이기상(李箕翔)

뜰에 국화는 서리 내린 뒤 피어나지만  
세상의 존몰을 알기 참으로 어렵네  
세월 보낸 지 삼 년이 넘어가고  
사람 일 생각하면 옛날과 다르구나  
선계인 이곳을 앞서 지나간 사람들 그리워  
단청 기둥에 옛 시들 많이도 걸렸구나

庭前猶開霜後枝  
世間存沒誰何如  
光陰美去餘三記  
人事懷來異昔時  
仙界自憐前度客  
畫樑重陽舊題詩

242) 김이안(1722, 경종2-1791, 정조15)의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원례(元禮), 호는 삼산재(三山齋)이다. 김상헌(金尙憲)의 후손으로 노론(老論)을 대표하는 김창협(金昌協)의 증손자이자 김원행(金元行)의 아들로 정조대 산림으로 우대되었던 인물이다. 1762년(영조38)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경연관(經筵官)에 기용되었다. 충주목사 지평·보덕·찬선·제주(祭酒)를 지냈다. 저서에 『儀禮經傳記疑』, 『啓蒙記疑』, 『삼산재집』 12권이 있고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열흘 동안 즐거이 노래하며 여행하여 낙산의 큰 해변에 와보니 낙산의 바다가 하늘과 닿아 보며 세상이 좁게 느껴진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바다가 한 없이 넓고 망망대해로 알았는데 바다와 하늘이 닿아 있는 것처럼 보여 이 땅이 좁게 느껴지며 이 글을 썼다. 예부터 낙산은 신선이 다는 세계가 있다는 유래를 듣고 그곳으로 신선을 찾아가고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바다풍월에 어찌 뜻이 없을까 만은  
 옥같은 시들을 어느 누가 다시 보여줄까  
 『敏齋先生文集』

海上風月無何裡  
 瓊韻他年和更誰



남한조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손재(損齋)

남한조(南漢朝)<sup>243</sup>

바닷가 푸르게 떠있는 다섯 봉우리  
 쓸모없는 자신은 황혼에 나무 그늘 어둡구나  
 배나무에 달빛 가득 머무는 꽃 그림자 혼드니  
 아마도 신선들 밤에 만나는 모양이구나  
 『損齋文集』

海上蒼然三兩峰  
 蹇驢暮踏樹陰濃  
 月滿梨亭花影亂  
 依稀仙侶夜相逢



윤홍규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도계(陶溪)

윤홍규(尹弘圭)<sup>244</sup>

물결 출렁이는 관음굴  
 아득히 높은 의상대  
 기이한 소문과 괴이한 일 많아  
 이야기한들 몇 사람이나 믿을까  
 『陶溪遺稿』

蕩漾觀音窟  
 峩嶢義相臺  
 異聞多弔詭  
 說與幾人乖

243) 남한조(1744, 영조20-1809, 순조9)의 본관 의령(宜寧)이고, 자 종백(宗伯), 호 손재(損齋)이다. 9세에 고아가 되어 외삼촌인 김진동(金鎭東)으로부터 글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어 한번 들으면 모두 외웠다고 한다. 초야에 은둔하여 문경의 선유동(仙遊洞)에 옥하정(玉霞亭)을 지어놓고 후진교육에 힘썼다. 여러 번 도백(道伯)과 암행어사의 천거를 받았지만 끝내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저서로 『손재문집』이 있다.

244) 윤홍규(1760, 영조36 ~ 1826, 순조26)의 본관은 파평(波平)이고 초명은 두기(斗基), 자는 의보(毅甫), 호는 도계(陶溪)이다. 1792년(정조16) 생원(生員)이 되고, 학행으로 천거되어 의선공감가감역(擬繕工監假監役)을 지내다가 1800년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가 되고, 이어 익찬(翊贊)이 되었다. 1814년(순조14) 창녕현감을 거쳐 1818년 고성군수(高城郡守)에 이르렀다. 평소 학문에 전심하여 주자서(朱子書)를 비롯, 성리학과 역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예학(禮學)에도 밝아 사람들이 그를 ‘관서부자(關西夫子)’라 하였다. 또한, 시문에도 뛰어나 고성군수(高城郡守)로 있을 때 지은 『楓嶽紀行詩』는 유려한 문체를 구사한 작품이다. 저서에 『喪禮笏記』 『陶溪遺稿』가 있다.



## 강일규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부사 쌍괴정(雙槐亭)                      강일규(姜一珪)  
 팔경 중에 제일 이름 난 곳                      八景中間第一名  
 이화정의 나무는 빛나고 빈 정자만 있네                      梨花樹光有虛亭  
 난간에 기대어 홀연히 산하가 다했음을 깨닫고                      憑檻忽覺山河盡  
 베개 베고 누워 평안히 해와 달이 뜨는 것 보면 노래하네                      歌枕平看日月生  
 물에 빠져 흐릿해져서 청조는 끊어지고                      弱水微茫青鳥斷  
 빈산에 취화 가벼움 상상하네                      空山想像翠華經  
 도의 기운이 가까이 있는 것을 스님은 알지 못하고                      眉間道氣僧知否  
 영음한 새로운 시는 밤에 들어서야 이루어지네                      靈陰新詩八夜成

『雙槐亭集』

강일규의 본관은 진주이고 자는 백옥(伯玉)이다. 증광시에 합격하여 참의를 지냈다.



## 이해창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송파(松坡)                      이해창(李海昌)<sup>245)</sup>  
 휘감아 도는 산마다 산 빛 밝은데                      宛轉羣山氣色新  
 구름사이로 솟는 달은 바퀴보다 크구나                      雲間湧月大於輪  
 하늘 높고 물 쌓여 서로 이어진 곳                      天高水積相連處  
 유리처럼 파랗고 은처럼 희네                      碧似琉璃白似銀

『松坡集』



## 권예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봉안사 마애(磨厓)                      권예(權裔)  
 천길 위태로운 산등성이에 한 길이 나 있고                      千仞危崗一道橫

245) 이해창의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자는 계하(季夏), 호는 송파(松坡)이다. 소과 1624(갑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630년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여 진사(進士)와 사인(舍人)을 역임하였다.

성궁은 멀고멀어 삼청<sup>246</sup>을 눌렀네  
바람과 안개 가득하여 두루미 깊고 먼 선굴에서 헤매고  
소나무 그늘은 창망하여 화성(중계 고침)을 가리네  
물밑 어룡은 마땅히 글자를 아는지  
물결 위 암석은 제명(題名) 있구나  
늙은이 나이 팔십에 마음은 오히려 굳세고  
동해의 바닷소리 만고에 끊이지 않네  
『峴山誌』

仙宮縹渺歷三清  
風煙鴻洞迷仙窟  
松陰滄茫闕化成  
水底魚龍應職字  
波頭岩石却題名  
老年八十心猶健  
不廢東溟萬古聲



### 백영수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운초(雲樵)                      백영수(白榮洙)<sup>247</sup>

멀리 보이는 큰 파도 하늘 구름 속에 잠겨  
하늘모습 바다 색깔 그 모습이 그 모습  
천년석굴에 돌아온 혼 방울져 떨어지고  
오진 석가여래만이 밤낮으로 듣고 있네  
『雲樵漫錄』

極目長波蘸碧雲  
天容海色杳難分  
千年石窟還魂落  
惟有金仙日夜聞



### 조성하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소하(小荷)                      조성하(趙成夏)<sup>248</sup>

246) 삼청(三清): 도교, 옥청, 태청, 상청을 삼천이라함

247) 백영수(1811~1892)의 본관은 수원이고 자는 경소, 호는 雲樵이다. 都承旨 白仁英의 후예로 憲宗 때 武科 출신으로 康翎縣監 등 외직을 오래 거치고 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雲樵漫錄이 있다.

248) 조성하(1845, 현종11~1881, 고종18)의 본관은 풍양(豐壤)이고 자는 순소(舜韶), 호는 소하(小荷)이다. 병조 판서 병준(秉駿)의 아들로 신정왕후(神貞王后) 조씨(趙氏)의 친정 조카이다. 1861년(철종 12)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1865년 이조참의가 되었으나 이후 중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민비세력과 결탁, 대원군 실각 후 1874년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 1876년 지경연사(知經筵事)로 특탁(特擢)되고 이어 공조·예조의 판서를 거쳐 세자시강원좌부빈객(世子侍講院左副賓客)이 되었다. 1879년 이조판서, 이어 판의금부사에 임명되고 1881년 의정부좌참찬에 이르렀다. 저서로 『金剛山記』가 있고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산사는 비가 오면 적막하다. 비오는 낙산사 법당에 불경소리 울리는데 쓸쓸하고 뜰에는 가을 풀이 가득하여 더욱 외로워 보이는데 스님은 보이지 않고 법당에 향불만 피어오르는 모습이 허무하여 표현하였다.

두 번째 수는 낙산의 오랜 역사와 유래인 관음사의 친견, 쌍죽의 모습, 수정염주는 모두 불교의 성지인 깨달음의 공간이다. 하지만 조선조 말기 불교가 힘을 잃어 쇠잔해져 옛날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표현하였다.

낙산사에 비 뿌리는데  
 불경소리만 쓸쓸히 울리는 구나  
 가을 풀 뜰에 가득 스님 보이지 않는데  
 누구 꽃아 놓았는지 향불만 타네  
 자비심 발한 곳 쌍죽(雙竹)이 솟고  
 법력으로 구슬 두 개 거두었네  
 분명 정령(精靈)이 있다면  
 절 쇠잔해지데는 보시(報施)는 없을까  
 『江原道誌』

落山寺裏雨蕭蕭  
 貝葉傳經轉寂寥  
 秋草滿庭僧不見  
 誰將一炷佛香燒  
 慈心發處湧雙竹  
 法方收時藏二珠  
 知是精靈應自在  
 寺殘堪惜捨施無



### 김희대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김희대(金熙大)

바람에 파도 소리 소나무 스치는데  
 산은 절을 감싸고 바다는 산을 돌렸구나

風濤聲在古松澗  
 山擁琳宮海繞山



### 안병두

○ 곧 바로 이화정에 올라가 앉으니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동은(東隱)

안병두(安柄斗)<sup>249)</sup>

산 깊고 나무는 늙고 석문은 높은데  
 안개 노을 모두 밟고 나니 취흥이 좋구나  
 탑 있는 외로운 암자에 부처 환영 보이고  
 우레 울리는 굴에 층층이 파도 부딪친다  
 구름 머문 산굴에 석양 비치는데 저녁 종소리 울리고  
 소나무 가지 끝에 밝은 달 학과 함께 솟는다  
 국화 꽃<sup>250)</sup> 피는 가을에 다시 찾겠다 말하니

山深樹老石門高  
 踏盡煙霞醉興豪  
 塔靜孤菴看影佛  
 雷鳴孤窟激層濤  
 雲岫斜陽鍾晚落  
 松簾明月鶴同皐羽  
 更尋黃菊前期間

249) 안병두(1881-1927)의 자는 극중(極中)이고 호(號)는 동은(東隱)이다. 산수를 좋아 했다. 회당(晦堂) 장석영(張錫英)의 문하에서 즐겨 수학하였으며 윤병기(尹炳夔)가 행장을 지었다

250) 안병두(1881-1927)의 자는 극중(極中)이고 호(號)는 동은(東隱)이다. 산수를 좋아 했다. 회당(晦堂) 장석영

웃으며 답하는 선녀 탁주 올리는구나  
『江原道誌』

笑答香娥進濁醪



### 윤병기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국은(菊隱)

윤병기(尹炳夔)<sup>251)</sup>

반은 푸른 바다 반은 산  
속세도 편안하니 모두 다 한가롭다  
바위 가에 흰 갈매기 학과 더불어 노닐고  
불전 앞 푸른 대나무 소나무 잎 스친다  
나그네는 부처님 찾아와 천천히 거닐고  
스님은 바람 맞으며 늘어진 소나무 사이에 서있구나  
예부터 이 곳 올라온 호걸들  
몇이나 취하여 돌아갈 줄 몰랐던가  
『江原道誌』

半占滄海半占山  
穩得塵寰萬境閒  
岩近白鷗同鶴侶  
殿寒青竹拂松顏  
客來佛日遲遲界  
僧在仙風落落間  
經古登臨豪傑輩  
幾多沈醉不知還



### 강필효

○ 낙산사제영(洛山寺題詠)

해은(海隱)

강필효(姜必孝)<sup>252)</sup>

오봉산의 서기가 낙산에 모여  
큰 바다 둘러서 사찰을 지키네

五峰佳氣赴茲山  
大海三千護寺還

(張錫英)의 문하에서 즐겨 수학하였으며 윤병기(尹炳夔)가 행장을 지었다

251) 윤병기(생몰년 미상)의 호(號)는 국은(菊隱)이다. 소식(小石) 병표(炳彪)의 아우로 천성이 글 쓰고 글 읽는 것을 좋아하여 한번 책을 보고 글을 쓰며 부지런히 학문을 익혔으며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252) 강필효(1764, 영조40~1848, 현종14)의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초명은 세환(世煥), 자는 중순(仲順), 호는 해은(海隱) 또는 법은(法隱)이다. 윤중(尹拯)의 제자인 강찬(姜鄴)과 윤광소(尹光紹)를 스승으로 삼았다. 1803년(순조3)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순릉참봉(順陵參奉), 1814년(순조14)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1842년(현종 8) 조지서별제(造紙署別提)에 임명되었다가 곧 충청도 도사로 옮겼으며, 이듬해 통정대부에 승진,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에 이르렀다. 문집 『해은유고』 있다. 주자학으로 조예가 있는 강필효가 낙산의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자세히 표현하였다. 낙산의 오봉산이 있다. 오봉산은 높지 않지만 동해와 설악의 정기가 서린 곳으로 그 기운이 오봉산에 모여 낙산사를 보호하며 지키는 수호신이다. 고루에 종소리는 은은히 들려오는데 승방의 스님의 염불소리는 고요하다. 이런 아침 예불 중에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는데 장관이라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고루에는 종소리요 승방에는 염불소리  
구름 위의 붉은 해는 낙산사를 비추는구나  
『襄州誌』

鍾動高樓僧唱偈  
昇霏紅日莅東巖



오윤환

○ 밤에 낙산사에서 읊조리며 6월28일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바다 안개에 산 남기 일어 밤 아직 맑지 않은데  
뽕나무 밑에서 자며 나의 인생 깨우쳤네  
니우(泥牛)는 달 물고 어느 곳에 머물렀는가  
불조는 숲에서 우니 정이 있는 듯 하구나  
만흥한 시편은 두자미 같고  
스스로 거문고와 술 즐기니 도연명이라네  
천옹은 나의 배회하는 뜻 혐의하는데  
때문에 처마 끝으로 보내니 새벽에 빗소리 들리네  
『梅谷遺稿』

海霧山嵐夜未清  
宿來桑下覺吾生  
泥牛含月留何處  
佛鳥啼林似有情  
漫興詩篇同子美  
自娛琴酒是淵明  
天翁嫌我徜徉意  
故送詹端曉雨聲

○ 낙산 김춘희의 회근(回韻) 운에 차운하며[敬次金樂汕春萱回韻]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백년 동안의 아름다운 날 또 이제 돌아오니  
수놓은 장막에다 구름병풍 치니 얼굴빛 좋구나  
미나리 나물 새로 나니 향기 수저에 가득하고  
복숭아꽃 옛날 그대로지만 그림자 잔에 비취네  
신상의 텃없는 영화는 혹시 바랄수도 있지만  
인간의 이런 경사는 아마도 어렵다네  
난초 뜰에선 응당 한 없는 수명 누리다 축하하는데  
빛난 붉은 마음이 옥대에 비취네  
『梅谷遺稿』

百年佳日又今回  
繡帳雲屏好面開  
堇菜生新香滿筯  
桃花依舊影侵盃  
身上浮榮猶或也  
人間此慶蓋難哉  
蘭庭應祝無疆壽  
炳若丹心照玉臺



우리나라에 세 개의 이름난 산이 있는데 영남지역의 지리산, 관서지역의 묘향산, 동해의 금강산이다. 이 세 산 중에서 금강산이 가장 좋다. 그래서 중국인이 ‘월하건대 조선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 번 보고 싶네.’라는 시구가 있기도 하다. 금강산의 빼어난 경치가 우리나라의 최고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흔히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 번 차근차근 유람하면서 평생의 소원을 풀어보고 싶었으나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승정 1628년(무진), 형조참판으로서 외직에 보임되기를 강력히 요청하여 강릉부사가 되었다. 정월에 업무를 시작해 공무와 개인적 일로 분주하였는데 4월에 조금 일이 정리되었다. 그래서 내 나이 예순에 지금 풍악산을 유람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훗날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뛰어난 경관을 탐방하기로 결심하였다.

두 아들 현기와 선기, 그리고 박시창을 데리고 12일(계묘)에 출발하였다. 연곡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해질 무렵 동산에 도착하였다. 권칭과 정기평이 술을 가지고 만나로 왔다.

13일(갑진), 아침 일찍 동산을 출발하여 상운역의 유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날이 저물어 부지런히 낙산사에 도착하였다. 양양부사 조위한[자는 지세]은 나의 오랜 벗이다. 이 화정에서 미리 기다리며 술과 음악을 준비하였으나 비가 내려 빈일요를 거둬들여 잔치를 즐기다가 날이 어두워 그만 두었다.

낙산사는 신라 때 신승 의상이 창건하였다. 뒤쪽 전각에는 관음보살의 소상이 있는데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선방 벽에는 안건의 산수도가 있었다. 사찰이 빼어나 경치는 관동팔경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중국의 금산사, 감로사 등과 비교하기도 하지만 어느 곳이 더 절경인지 알 수 없다. 사찰의 동쪽에는 의상대가 있고 의상대 북쪽에는 관음굴이 있는데 익조가 후사를 얻기 위해 기도했던 곳이라고 전한다.

14일(을사), 아침에 낙산사를 출발하여 청초호를 지나고 영랑호에서 잠시 쉬었는데 매우 맑고 빼어났다. 청간정에서 점심을 먹고 만경대에 올랐다. 이 또한 관동팔경의 하나로, 직접 보니 자못 듣던 것만 못하였다. 청간정에서 20여 리를 가자 뚝 끊어진 산 하나가 바닷가에 우뚝 서 있었다. 역 관리인에게 물으니 능파대라 하였다. 수레를 돌려 올라가 조망해 보니 동쪽은 큰 바다이고 해변의 경치는 대개 비슷한데 서쪽을 바라보니 좌우의 호숫물이 포구로 넘쳐 흘러들고 있었다. 눈은 막 써레질을 하여 무이 평평하게 차 있고 작은 다리가 시내 위에 가로놓여 있었다. 어촌이 늘어선 곳에는 저녁연기가 막 피어 오르고 있었다. 겹겹의 산과 봉우리가 구름 사이를 뽀족뽀족 솟아있고 석양이 빛을 숨기며 사그라지니 참으로 장엄한 광경이었다. 내가 앞쪽의 광경이 뒤쪽보다 못하

다고 하니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

또 10리를 가니 선유담이 있었다. 못의 크기는 그다지 넓지 않았지만 앞에 산이 빙 둘러 기다란 산등성이가 뻗어져 물속으로 들어가니 호수의 좌우가 띠를 두른 듯 비치었다. 큰 소나무 수백그루가 앞뒤로 뻗뻗하게 서 있어 맑게 트인 시야는 비록 영랑호만 못하였지만 그윽하고 깊숙한 느낌은 좋아할 만하다. 평론을 잘하는 사람도 우열을 쉽게 가리지 못할 것이다.

해가 저물어 간성군에 이르렀다. 간성군수는 오랜 친구인 김상복[자는 중정이다]으로, 업무로 착출 되어 한양으로 올라갔다.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진실로 한번의 만남에도 운수가 있음을 알겠다. 아쉽게도 그 집 하인의 접대가 매우 박절하여 더욱 한스러웠다. 달빛을 받으며 영월루에 올랐다. 유량은 남루에서의 흥이 알지 않았지만 나는 감상할 마음이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15일(병오).새벽에 망꺽례를 올렸다. 아침 일찍 간성을 출발하여 20여리를 가서 화진포에 닿았다. 그 지역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운근현이었는데 함몰되어 화진포가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들어가면 물밑의 집들이 어렴풋이 보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이 황당하여 믿을 수 없었다. 대개 모래섬과 번갈아 나타나는 모습과 맑고도 그윽한 정취는 경포호와 비교하면 경포호가 아마도 격이 낮을 터인데 그 명성이 도리어 우위에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떠 대의 좌우에는 좋은 논밭이 많았다. 왼쪽은 군사 이경순의 집이다. 이경순은 시문을 잘했으며 늙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이 그 집을 지키지 못해서 온 가족이 이사했으나 그 터는 아직 남아 있었다. 오른쪽은 군사 이연지의 집인데 모두 사들만했다. 그 곁에는 마전도 많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벼슬을 그만두고 머물러 살고 싶은 생각있었지만 누가 나에게 산을 살 돈을 주겠는가.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다.

정오가 다 되어 열산에 이르러 말을 쉬게 하고 밥을 먹었다. 무송도를 지나면서 잠시 명파역에서 쉬었다. 송도를 거쳐 대강역에서 점심을 먹었다. 무송과 송도의 뛰어난 경관은 대략 만경대와 다르지 않았다. 어제 저녁 박시창이 간성사람들의 푸대접에 분개하여 팔뚝을 걷어붙이고 말하기를 “언제 고성군의 경계에 당도하겠습니까. 고성군에서는 반드시 성대하게 갖추어서 대강역에 나와 대접할 것이니 어찌 이처럼 적막하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런데 대강역에 이르니 역참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가 농담하기를 “승려의 잣밥을 미리 기대하다가 배불리 먹지 못한다더니 이런 경우가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서로 배를 움켜 잡고 크게 웃었다. 한 참 있다가 음식을 차려먹고 나니 짙은 안개가 하늘을 덮고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대강역에 출발하여 감호로 가다가 전도사 정전의 정자에 올랐다. 네모난 호수와 바위의 봉우리가 맑고도 빼어나서 좋아할 만하다. 아! 이런 강호의 절경을 가지고도 이 어

지러운 세상을 만나 여전히 벼슬을 구할 마음을 품는단 말인가.

바닷길을 따라 십 여리를 가니 바위 봉우리가 있는데 이른바 현종암이다. 집처럼 둥그런 바위 구멍은 눈비를 피할 만했다. 세상에 전하기를 ‘오백 나한이 바다에서 나와 석실에 기거하다가 왼쪽 바다에 정박시켰다. 그래서 위에는 현종암이 있고 바닷가에는 복주암이 있고, 서쪽에는 계주암과 곡포암이 있는데 모두 신성의 옛 자취이다’라고 하였다. 그 말이 황당하여 다 기록하지 않는다.

마침내 산을 내려가서 남강에 도착하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뱃사람이 배를 준비시켜 기다리고 있었다. 강의 북쪽 위에 불빛이 반짝거리 이를 따라 강을 건넜다. 고성군수 허계(자는 명로이다)는 나와 대대로 교분이 있는 사이로, 오래도록 언덕위에 서서 목을 빼고 기다렸고 매우 정성스럽게 여독을 위로 하였다. 언덕에 올라 마주하니 서로의 반가움이 알만 했다. 그 자리에서 술 한 잔을 마시고 해산정으로 들어가 서너 잔 더 마셨다.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같이 간 사람들은 모두 축축한 곳에 있게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정자의 빼어난 경관을 감상할 겨를이 없었다.

16일(정미),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을 둘러 보았다. 바다와 산의 절경을 폼평하고 싶지만 바다 안개가 자욱하더니 날이 저물어서야 개었다. 동쪽으로 바다 어구를 바라보니 바위 한가운데 우뚝 서 있어 마치 물살이 부딪히는 지주석과 같았다.

남쪽으로 바위로 된 세 봉우리가 눈앞에 늘어서 있고 서남쪽으로 금강산이 옥처럼 서 있어 푸른 빛이 눈에 가득했다. 동쪽과 서쪽에는 두 개의 거북바위가 있었다. 하얀 비단 같은 큰 강은 너른 들판 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평가하는 사람들은 죽서루보다 경치가 뛰어난데 관동팔경에 들지 못함을 괴이해 했다. 황혼녘에 명로와 함께 고산대에 올랐다가 달을 기다리려고 강에 배를 띄웠다. 그러나 검은 구름이 가려 이경에 되도록 달빛을 볼 수 없었다. 각각 술을 서너 잔 씩 마시고 실망하여 돌아왔다.

17일(무신), 밥을 먹을 후 명로와 함께 삼일포에 갔다. 고을 사람들이 미리 배를 준비해 기다리고 있어 이내 그 배를 타고 갔다. 명로가 왼쪽 산의 바위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것은 양봉래가 시를 쓴 바위입니다.”라고 하였다. 붉은 글씨가 있는 곳에 배를 정박하여 이른바 ‘단서’를 보니 ‘술량도만석행’이라는 여섯 글자였다. 처음에는 글자의 흔적이 매우 선명했었는데 어느 완고한 군수가 유람객이 구경하는 것을 싫어해 부셔 버렸다. 그래서 ‘술남석’ 세 글자가 선명하데 나머지는 지워졌다. 단서의 오른쪽에 허백당의 시가 있다. 바위를 움푹 파 내고 그곳에 시를 새긴 돌을 끼워 넣었다. 그 위에 매향비가 있다.

북쪽으로 가서 사선정에 올랐다. 정자주변에는 큰 소나무 7-8그루가 있고 소나무 속에 정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자의 뛰어난 경관은 유람객들이 모두 칭송하지만 몽천의 경치만 못하였다. 눈앞에는 바위 봉우리가 겹겹으로 솟아 있었다. 삼일포의 절경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어 진실로 천하의 절경이다. 유람온 사람들이 사선정만 말하는 것은 어째서 인가.

사선정 뒤쪽 바위에 이름을 쓰고 따르는 사람에게 새기게 하였다. 다시 사선정에 올라 몇 잔을 마시고 저물에 해산정으로 돌아와 잤다.

18일(기유), 일찍이 밥을 먹고 해산정을 출발하였다. 나는 먼저 두 아들인 현기와 선기, 명로의 아들 두향, 박시창과 함께 발연에 이르렀다. 하인에게 물놀이를 시키고 수백 걸음을 더 올라갔다. 바위에 양사언이 쓴 봉래도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 시 3수가 있다. 첫 번째는 남강의 시이고, 두 번째는 창해의 시이고, 세 번째는 자동의 시였다. 글씨가 바위 위에도 새겨져 있는데 필체는 양봉래의 것과 비슷하지만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다. 이끼를 걷어내고 겨우 자획을 알 수 있었다.

조금 지나서 명로가 찰방 이순과 함께 고삐를 나란히 하고 왔다. 이때, 짙은 안개가 하늘에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명로가 말하기를 “이런 짙은 안개는 유람에 가장 방해가 된다.”라고 하여 내가 농으로 “어찌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늘과 통하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한퇴지가 여산에 올랐는데 마침 가을 그믐이었다.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몽친 구름과 짙은 안개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정상이더라도 어찌 능히 다 볼 수 있겠는가. 마음을 가라 앉히고 말없이 기도하면 반응이 있을 것이니 신명이 어찌 정직하게 기도하면 감동하지 않겠는가.

서로 농담하며 웃었다. 마침내 상운 찰방과 작별하였다.

소령고개를 오르자 미풍이 언뜻 불어 안개를 사라졌다. 희구름이 뜬 골짜기를 가득 메우니 마치 흰눈이 막 대지를 뒤덮은 듯 은하수가 골짜기를 가득 채운 듯 하였다. 맑은 봉우리 모습은 마치 땅에서 피어난 연꽃 같았다. 하늘에 구름 한점 없고 석양이 물들어 밝은 빛이 반사되니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장관이었다. 내가 다시 농으로 명로에게 “이것이 하늘과 통한 방도가 아니겠는가.” 하자 명로가 웃으면서 이번 유람에 제가 없었다면 어찌 이런 경관을 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계수대와 환희재를 지났다. 이 고개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 한 층을 오르면 다시 한 층이 더 있다. 바로 20여리를 올라가 비로소 백전암에 도착하였다. 승려 언기를 만났는데 승복을 입은 모습이 매우 위엄하였다. 그와 더불어 말을 해보니 자못 도리를 알고 속세의 얽매임에 벗어나 대개 승려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었다.

19일(경술), 일찍 일어나 골짜기 입구를 내려다 보니 흰 구름이 푸른 산과 뒤섞여 함께 일어나고 있었다. 언기대사가 그것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구름이 이처럼 일어나니 해질녘 반드시 안개가 자욱하게 있을 것이다. 만약, 구정봉에 오르시면 모름지기 일찍 가세요.”하였다.

마침내 재촉하여 밥을 먹고 출발하여 적멸암과 백운암을 지나 구정봉에 올랐다. 산아래 흰 안개가 멀리 겹겹이 산 너머까지 가리고 있어 보이는 것은 곁에 있는 바위 봉우리 뿐이었다. 오후에 짙은 구름이 다 걷히자 안팎의 많은 산들을 셀 수 있었다. 나는 명로와 더불어 각각 재미삼아 절구시 1수씩 짓고 점심을 먹었다. 바위에 이름을 쓰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새기게 하였다. 적멸암으로 돌아와 저녁에는 서쪽 대에 올랐다.

봉우리가 둘러 에워싸고 저 멀리 은신대, 만경대, 불정대 등이 보였다. 서쪽의 대는 호  
은대하고 하였다.

20일(신해), 적멸암에서 일찍 출발하여 대장암에 이르렀다. 돌길이 매우 험준하였다.  
구추령을 넘어 상원사에서 점심을 먹었다. 일찍이 무학대 절경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  
어 가보기로 하였다. 하지만 가마 매는 승려들이 싫어하여 이를 숨겼다. 안문재를 지나  
십 여리를 가서 비로소 이를 알고 깜짝 놀라 모두 탄식하였다. 내가 먼저 출발하였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시냇사 작은 바위에 올라가 기다렸다. 바위 앞  
에 작은 폭포가 있는데 맑고 뛰어나서 볼만 했다. 명로와 두 아들이 뒤쫓아 도착하여  
함께 구경하였다. 내가 탄식하여 “만약 이 대가 경기지방에 있었다면 반드시 사람마다  
칭송했을 것이다. 다만 이 산에 있어 시냇가에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다. 물즐기 하나  
도 절경으로 사람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는냐에 달린 것인가. 그러나 나는 명로와  
함께 다행히 이 대에서 만나절을 완상했으니 이름을 지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李許臺라고 이름을 짓고 글씨를 써서 바위에 새겼다. 밥을 물에 말아 먹고 원적  
암에 도착하였다. 땅의 지세는 사방에 바위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고 사찰은 황폐해 진  
지 오래라 돌부처만 감실에 있다. 드디어 청소를 하고 앉아 비로소 비로봉에 오를 것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구룡연은 함께 볼 수 없었다. 마침 절벽에 써 놓은 권제중, 정0숙,  
조휴 등의 이름을 보았는데 모두가 구룡연에서 비로봉으로 올랐다고 언급하였다. 승려  
종원에게 물으니 과연 좁은 길이 있어 옛날 원적암에서 구룡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서로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다시 구룡연을 완상을 논의하였다.

21일(임자) 원적암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하나 넘고 남쪽으로 시내를 따라 5리 쯤 가  
자 돌길이 매우 험준하였다. 비로봉에 이르니 산이 무너져 돌무더기가 쌓여있는데 이제  
무너진 것은 하얗고 예전에 무너진 것은 검었다. 험하게 쌓인 돌들이 거의 천 길이였는  
데 우리는 모두 그 돌을 잡고 영공영금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길이 끝나고 바위의 틈이  
벌어져 그곳으로 들어갔다. 여기부터 비로봉 정상까지 동쪽은 성과 같은 바위고, 서쪽  
은 평평한 토양이었다. 잡목을 잡고 측백, 진달래, 해송만 있는데 모두 작고 땅에 붙어  
누워 자라고 있었다. 진달래가 막 피어 날씨는 3월 초순과 같았다. 날씨는 맑았다. 정오  
에 동쪽으로 큰 바다를 바라보니 하늘과 맞닿아 아득히 출렁이고 있었다. 안변의 국도,  
통천의 신도와 안조, 고성 of 영진곶이 작은 주먹만한 돌로 보였다. 사방이 멀고 가까운  
산세가 두손을 공손히 호위하듯 둘러 쌓고 오래되어 얼마나 많은 바위인지 알수 없었  
다. 산은 뾰족하고 봉우리가 되고 낮은 것은 고개가 되기도 하였다.

세상에서 1만 2천 봉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눈앞에서 가리킬 수  
있는 영흥의 검산, 안변의 황룡산, 양양의 설악산, 강릉의 오대산, 삼척의 두타산, 원주  
의 치악산, 양구의 저산, 춘천의 청평산, 지평의 용문산, 영평의 백운산, 양주의 천보산,  
송도의 성거산, 철원의 보개산, 해주의 수양산, 장연의 구월산, 등이 있는데 모두 너무  
작아 다 셀 수 없다.

가까이 있는 작은 산들이 수 많은 봉우리와 골짜기의 기이한 모습을 이름 지어 표현하기 진실로 어려웠다. 바위 봉우리들이 높이를 다투고 뛰어남을 경쟁하는데 사람이나 귀신 모습 같기도 하고 새나 짐승의 모습 같기도 하였다. 앉아 있는 듯, 서 있는 듯, 우러러 보는 듯, 굽어보는 듯 하였다. 달려가는 모습은 적에게 달려드는 군사 같기도 하고, 가지런히 늘어선 모습은 조정에서 알현하는 선비와 같았다. 다양한 색깔이 드러날수록 기이하고, 모든 것이 내 지팡이와 발아래 있어 진실로 천하의 장관이었다. 그 중에서도 구정봉, 일출봉, 월출봉, 미륵봉, 혈망봉, 원적봉, 설응봉, 안문봉, 영랑재 등이 못 봉우리 위에 가장 높게 솟아 있었다. 나머지 작은 봉우리들은 함께 온 스님들도 알지 못하였다. 이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녁에 동쪽과 서쪽에 한 줄기 검은 기운이 일어나 한 필의 비단 같이 널려있었다. 한참 후 비가 되어 산과 바다를 덮었고, 비로봉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가끔 보슬비가 물결처럼 밀려와 조금씩 뿌려주는 시야가 오히려 선명하였다. 내가 명로에게 “이미 맑은 날의 경치를 보았고, 또 비오는 경치도 보았으니 하늘이 우리에게 베푼 것이 많네.” 하였다. 서로 기뻐하여 축하해 주었다. 밥과 술을 하고 잠시 후 바위 이름을 새겼다.

저녁이 되어도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였다. 날씨가 개자 하늘이 맑아 저녁놀이 산을 비추자 사의 기운이 더욱 아름다웠다. 두보의 ‘비가 개도 산은 그대로 이고, 푸름이 끝나니 골짜기가 새로운 듯’ 이라는 시구가 경치와 아주 흡사하니 진실로 뛰어난 작품이다. 원적암에서 잤다.

22일(계축), 아침에 허두향은 다시 조정으로 향했다. 우리는 원적암을 출발하여 비로암에서 잤다. 암자는 비로봉을 등지고 일출봉과 월출봉을 마주하고 있고 사찰은 폐허가 되어 승려가 없었다.

23일(갑인), 일찍 비로암을 출발하여 구룡연으로 가는 길을 향하였다. 길 거의 잣나무에 검은 터럭이 매달린 것을 보았다. 승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것은 비휴가 가려운 곳을 나무에 대고 긁을 때 빠진 털이 매달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큰 고개를 넘어 20여리 쯤 가서 구룡령으로 들어갔다. 시냇가 바위는 깨끗하고 봉우리는 기이하고 빼어났다. 짙은 안개가 골짜기에 가득하여 자세히 볼 수 없었다. 바위 봉우리고 길이 나있어 곧 바로 정상으로 올라갔다. 그 아래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골짜기가 있었다. 발을 던기가 너무 어려웠고, 손으로 잡고 오르기에 위태하였다.

구룡연의 보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곳을 넘은 후에 들어갈 수 있다. 명로와 두 아들, 그리고 박시창은 모두 잡고 발 끌면서 올랐다. 나는 산아래에서 그들처럼 잡고 오르려 하였으나 왕양이 수레를 돌린 일을 생각하며 마침내 역지로 오르지 않았다. 밥을 물에 말아 먹고 있으니 한참 후 두 아들과 박시창 등이 세 번째 못까지 보고 돌아와 말하기를 “수석이 뛰어남이 이 금강산에서 제일이다.”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명로가 관북지방으로 난 길을 따라 -관북지방의 길은 구룡연을 따라 곧장 고성으로 가는 지름길이다-고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얼마 후 길을 잃어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하

였다. 서로 끌어주면서 묘길상에 들어갔다, 미륵대를 거쳐 저녁에 마하연에 이르렀다. 뒷쪽에는 중향성이 있고 앞쪽에는 혈망봉, 왼쪽에는 반야대, 오른쪽에는 향로봉이 있었다. 혈망봉 서쪽에 승려가 돌 위에 ㄱ아 있는 모습의 바위가 있는데 담무갈이라 하였다. 나옹이 이 절에 와서 머물 때, 항상 뜰 오른쪽에서 예불을 올려서 지금도 승려들은 감히 그 곳을 밟지 않는다. 그 곳에 갈대가 났는데 많은 승려들이 명당초라 하였다. 이런 것으로 어리석은 속세인을 미혹시키니 참으로 통탄할 만하다. 절 오른쪽에 있는 작은 산기슭이 천축대인데 담갈봉과 바로 마주 하고 있다. 이 날 저녁 비가 내렸다.

24일(을묘), 아침에 마하연에서 길을 나섰다. 암자 앞의 시내와 수석이 맑고 깨끗하여 볼만하였다. 2리 쯤 가면, 사자암이 있다. 여기부터 수석이 더욱 기이하다. 화룡담, 선담, 진주담, 벽하담을 지나 보덕굴에 올랐다. 보덕굴은 보살을 봉안한 집이다. 구리기둥과 쇠사슬로 엮어 묶은 것이 매우 기교하고 정교하였다. 벽에는 돌가신 형과 심사경의 이름이 쓰여 있어 옛 감회를 이길 수 없었다. 뒤쪽의 법당도 맑고 깨끗했다. 절구 몇 수가 있다.

비오는 가운데 끝 흑룡담으로 내려가 명로와 앉아 이야기 하였다. 잠시 후 다시 세건천을 지나니 절구처럼 오목하게 패인 바위가 있었다. 보살이 머리를 감았다는 곳인데 그 말이 황당하여 믿을 수 없었다. 돌 길이 경사지고 미끄러워 발을 내딛기 어려웠다. 바위를 파서 구멍을 만들고 포고녕쿨로 끝을 묶어 놓으니 오가는 사람들이 잡고 다녔다.

만폭동에 이르니 바위에 ‘蓬萊風樂 元化洞天’이라는 초서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는 봉래 양사언이 쓴 것이다. 그 위에 금강대가 있었다. 옛날에는 학의 둥지가 있었다. 학이 날아 오지 않은 지가 벌써 4, 5년 되었다.

또 2-3리를 가서 표훈사에 도착했다. 오현봉에 둘러쌓여 흑자는 다섯 마리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이라고 하였다. 중당에 반야전이 있는데 멋있는 구름속에 부처가 있었다. 왼쪽으로는 3-4척 높이의 구리탑이 있다. 뒤에는 나한전이 있다. 왼쪽에는 옥으로 만든 불상 16구가 있고 오른쪽에는 나무로 만든 불상 16구가 있다. 모두 기이하다. 중간에 커다란 금불상이 합장의 모습을 하고 서 있다. 동쪽 윗방에는 요월현, 석쪽 윗방에는 세심현이 있었다. 선당은 적조라고 이름하고 승당은 정려라고 하였다. 앞에는 작은 누각이 있어 자택에 올라가니 우레가 치고 우박이 많이 내렸다. 기기암, 삼장암, 신탄암, 청련암 등이 모두 가까이 있었다.

처음에는 두루 보려고 했으나 비가 내려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저녁 무렵 날씨가 조금 좋아져 가까스로 정양사에 이르러 혈성루에서 잤다. 날이 어두워져 많이 볼 시간이 없었다. 중국 승려 태준이 찾아왔다.

25일(병진), 아침 불전으로 올라가 나옹의 의발과 사리를 보았다. 사리는 푸른 구슬 한 알인데 좁쌀 크기였다. 유리통에 보관되어 있었다. 통의 크기는 개암나무 열매만 하였다. 금으로 된 통을 곁에 넣어 솜으로 채우고 오색문양의 비단으로 만든 보자기로



많이 싸서 검은 함에 넣어 두었다. 불전 앞에는 육각형 전각이 있다. 그 안에는 돌로 만든 약사여래상을 봉인했다. 사장 벽에는 천왕과 신승이 그려져 있었다. 어떤 사람은 당나라 승려 오도자가 그린 것이라고 한다. 승려가 “나라에 변고가 있으면 이 돌부처가 갑자기 땀을 흘립니다. 이팔의 난과 병자호란 시 모두 그랬다.”고 한다. 불전 뒤에 나옹의 영당이 있고 영당 뒤에는 부도가 있으며 오른쪽에 나한전이 있다. 사찰 밖이 바로 진혈대이다. 지금은 채소밭이 되어 버렸다.

밥을 먹은 후 천일대에 올랐다. 정송강이 “여산의 진면목이 모두 이곳에 있다.” 고 한 곳이다. 산에서 내려와 남쪽으로 10여리를 가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 대송라암과 소송라암에 도착했는데 두 암자는 서로 나란히 가까이 있었다. 소송라암에는 승려 신감이 곡식을 먹지 않고 혼자 살았다. 형색은 매우 파리했지만 얼굴에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의 방으로 들어가니 불상의 오른 쪽에 지공의 영정이 있고 무학과 나옹이 좌우에서 모시고 있었다. 나옹의 모습은 정양사의 그림과 같다 그러나 지공은 관을 쓰고 두 조사는 모두 삭발하고 무학의 오른쪽 눈에 하얀 점이 있었다.

점심을 먹고 망고대로 향하였다. 고개 하나를 올라 쇠사슬을 잡고 도착해 보니 또 쇠사슬아래 드리운 것이 두 곳 이었다. 선기와 박시창이 먼저 올라가고 명로가 뒤따라 올랐다. 현기도 잡고 올라가다가 쇠사슬 하나도 미처 다 오르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 말하기를 “이 길은 비로봉보다 더 위험한데 보이는 것은 정양사의 천일대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나에게 올라가지 말라도 하였다. 얼마 후 선기가 뒤에 와서 역사 말했다.

비가 오려고 하여 남쪽의 상운암으로 내려왔고, 명로와 박시창도 뒤에 도착했다. 지나가는 비를 피하고 남쪽 대에 올랐다. 동쪽, 서쪽, 남쪽에 봉우리가 다투어 솟아 있고 골짜기는 밝고 깊었다. 그 경관은 은선대, 천일대와 서로 경쟁할만 했고 불정대보다 좋았다.

사람들이 망고대의 명성만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 보았다. 하지만 끝내 기이한 경관은 없었다. 이 남쪽 대의 뛰어난 경치가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서로 탄식하면 의아해 했는데 그 이름이 오선암이라고 했다. 내려와 백담동 길을 따라 넝쿨을 잡고 오르는데 박을 던지 못하였다. 줄을 내려 매달은 곳이 10여 곳이고 그 아래 천길 낭떨어지였다.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뼈가 부셔져 죽게 될 것이다. 비로봉, 구룡령의 위험은 이에 비하면 마무 것도 아니다. 훗날 이 산을 유람하는 우리 자손들은 삼가 이 길을 지나가지 말아야 한다. 아주 긴 폭포가 있는데 가장 절경이었다. 나머지 아름다운 곳도 완상할 만 하다. 이어 영원동으로 들어갔다. 시내와 바위의 경치와 봉우리의 기이함이 풍악산에서 최고였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갈 길도 바빠 스치듯 지나서 영원암에 도착하였다. 뜻 앞에 한련, 작약, 목향, 등이 많이 심어져 있었다. 암자는 그윽하고 깨끗했다. 또한 도승 보주가 5년째 곡식을 먹지 않고 겨우 숨만 이어가고 있었다. 선기가 위로하며 “도를 깨우치는 일의 성패는 곡기를 끊었는데 있지 않고 오직 부지런

히 공부하는데 있습니다. 어찌 곡기를 끊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승려가 합장하고 사례하였다.

26일(정사), 일찍 일어나 둘러보니 시왕본가 사자봉이 늘어서서 뛰어남을 자랑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내리던 비가 막 개어 산 빛이 매우 깨끗하였다. 밥을 먹은 후 1-2리쯤 가니 시내와 바위가 매우 아름답고 운치가 있었다. 영원동에서 나와 5리쯤 가니 현봉람에 도착하여 이름을 쓰고 서쪽 대에 올라가니 산세가 띠어나 골짜기가 깊었다. 바위에 파선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 바로 관찰사 숙우공[오숙]의 호이다. 명로가 관청의 일로 돌아가기를 청하자 그와 작별하였다. 골짜기를 벗어나 다시 5리쯤 가니 대궐터가 있었다. 을사년[1605]의 수해로 그 위에 돌이 어지럽게 쌓여서 전혀 분간할 수 없었다. 또 지옥문이 있는데 소위 지옥문은 성문처럼 생겼다. 세상에 전하기를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할 때 태자가 간언하였는데 왕이 듣지 않아 달아나 금강산에서 승려가 되었다. 고려 사람들이 태자를 위해 성문을 쌓고 궁궐을 지었다’고 한다. 생각해 보니 성문이 지금까지 훼손되지 않아 불가에서 억지로 이름 한 것이다.

커다란 바위 하나가 마치 큰 화살촉을 세워 놓은 것처럼 구름 끝에 뾰족하게 솟아 있는 것이 명경암이다. 그 아래 맑은 못은 황천강이다. 시냇가의 큰 바위는 업경대이다. 업경대 앞에 지장봉이 있다. 이 모두가 상식을 벗어난 말로 이름 하여 무지한 백성을 현혹시킨다. 어찌 크게 놀랄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곳은 이른바 시왕백전동이다.

또 5리를 가서 시내를 건너니 그 시내를 따라 내려가니 바위 빛이 푸른 옥과 같았다. 위에 작은 폭포가 있다. 그 아래 맑은 못을 이루었다. 물과 바위가 매우 아름다웠다. 길 옆 외진곳이라 사람들이 이런 경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우연히 발견하고 마침내 그 못을 벽옥담이라 이름 지었다. 장안사 입구까지 1리쯤 되었다.

장안사에 들어가니 이층전각이 있다. 그 위에 편액이 있다. ‘대웅지전’이라고 하였다. 규모가 매우 웅장하다. 전각 안에는 감실 3칸이 있고 위에는 금빛 용이 그려져 있는데 솟씨가 정말 뛰어나다. 중간에는 일곱 불상을 진열했고 그 사이에 작은 불상이 놓여 있었다. 불상 앞을 꾸며놓은 장식 또한 모두 화려했다. 화로와 바리는 구리재질에 은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양식이 고상했다. 무진등이 있는데 그 제도가 지극히 공교로웠다. 모두 일찍이 보지 못한 것들로 세상에 없는 기이한 볼 것이다.

대웅지전의 왼쪽에 사성전이 있는데 이층으로 아라한을 봉안한 곳이다. 좌우에 각각 불상 8구를 봉안 했고 그 모습은 모두 달랐다. 기이하고 괴상하여 아름답고 추한 형상은 오묘함을 모두 표현하였다. 이것은 승려 신여가 만든 것이다. 사찰의 문에는 또 천왕 4구가 있었다. 사찰의 경치는 금강산 여러 사찰 중에 가장 미흡하지만 만들어 놓은 불상은 여러 사찰 중에 정교해서 감상하기에 최고이다. 그러나 요사채가 무너져 승려가 적은 것이 아쉬웠다. 점심을 먹고 나니 소나기가 내려 곧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잠시 뒤 비가 개어 동쪽으로 2-3리쯤 가서 명연을 지나 안양암에 들어갔다. 이 사찰은 벼랑에 바위를 깎아 불상 세 구를 새기고 벼랑에 의지해 불전을 지었다. 그 아래 요사

채인데 폐사되어 승려가 없었다. 적벽에 돌아가신 형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슬픈 감정을 이길 수 없어 오른쪽에 내 이름을 썼다.

다시 삼일암에 올랐다. 옛날에 한 승려가 사흘 머물고 있다가 문득 스스로 도를 깨우쳐 암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고개 하나를 넘어 운지암에 들렀다. 암자가 고요하고 깨끗하고 경치가 그윽하여 삼일암과 비슷하였다. 3, 4리를 가서 청련암에 도착하였다. 앞쪽에는 흰히 보였는데 바위 봉우리가 뻑뻑이 들어서서 그 자태들을 자랑하였다. 풍악산의 정수와 빼어난 경관은 이 중에 모두 있었다. 내 생각에 금강산의 경치가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다. 그런데 칭송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림암을 지나 표훈사로 돌아 왔다. 천덕암까지 시간은 충분하였다. 가마를 메는 승려들이 힘을 다해 어쩔 수 없이 묵었다.

27일(무오), 표훈사에서 기기암을 거쳐 삼장암에 도착했다. 승려 처명이 홀로 거주하는데 또한 곡식을 끊었다. 북쪽으로 5리쯤 올라가서 개심대에 올랐다. 아침안개가 사방에서 운집하더니 눈앞의 바위 봉우리들을 모두 가렸다. 길을 안내하는 승려 종원이 안개가 점점 내려앉아 전망을 방해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인들에게 시야를 가리는 잡목을 베개하고 앉아서 기다렸다. 잠시 뒤 안개 기운이 흰 구름으로 변하여 점점 하늘로 올라갔다. 비로봉, 영랑봉, 혈망봉, 망고봉, 백마봉, 일출봉, 월출봉 등을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었다. 날씨가 맑아 조금도 가리지 않고 산과 산골짜기의 형세가 모두 내 발 아래 펼쳐지니 좌우 사람들이 모두 서로 축하하였다.

남추강이 ‘개심대의 경치는 망고대와 더불어 우열을 다룬다.’고 했다. 과연 거짓이 아니다. 이어 동쪽 천덕암으로 내려가 점심을 먹고, 다시 동쪽으로 가서 내원통암을 둘러 능인암을 도착하였는데, 모두 속세와 떨어진 산중의 암자들이었다. 능인암의 동쪽에 있는 대에 오르니 산수의 깨끗하고 깊음이 현불암과 대적할 만했다.

시내를 따라가다가 만폭동에 못 미친 곳의 골짜기 물과 바위가 걸음을 옮길수록 더욱 기이했다. 바위 웅덩이 하나를 만났는데, 맑고 투명해서 바닥이 보였다. 그 못을 인월담이라 이름 하였다.

또 수십 걸음을 내려오니 폭포가 몇 길을 나는 듯 흘러내려 그 아래에 맑은 못을 이루고 있었다. 그 폭포를 비류라 하고, 그 못을 청학이라 이름 하였다. 폭포 이름은 내가 짓고, 못 이름은 숙우가 지었다. 그리고 바위에 이름을 썼다. 다시 만폭동에서 곧장 만회암에 도착하니 승려 원오가 가사를 입고 맞이하여 절을 하였다. 그는 산중의 도승으로 곡식을 먹지 않고 홀로 살았는데, 승려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았다.

고개 하나를 넘어 백운암으로 들어가니 늙은 승려가 살고 있었다. 죽림암, 만회암, 백운암은 모두 내금강에서 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백운암의 경치는 청련암에 버금갔다. 방으로 들어가니 불상의 왼쪽에 한 폭의 관음변상도가 걸려 있었다. 검은 비단에 은으로 그렸는데, 금빛 얼굴에 푸른 머리를 한 부인이 오른손에 대로 만든 광주리를 끼고 있었고, 그 광주리 안에는 물고기가 있었다. 그리고 소나무와 대나무 아래의 그늘에 서

있는데, 그림의 품격이 매우 뛰어났다.

일찍이 상백운암은 그윽하고 깊고 바위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어 가는 길이 험하다고 들었는데, 시험 삼아 하인 특에게 가서 보게 하였다. 그가 넝쿨을 잡고 올라가 다시 봉우리 꼭대기를 넘어 작은 암자로 내려가서 보고, 승려 세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 반야봉을 지나 마하연에 돌아와 머물고 있으니, 명로가 술을 보내왔다. 유점사 주지 영희가 맞이하러 왔다.

28일(기미). 마하면을 출발하여 수재에 도착하니, 외산의 승려가 마중을 왔다. 내산의 승려와 작별하고 은선암에 도착해 승려 수감을 만났다. 점심을 먹은 후 은선대에 올랐다. 앞에는 선문동의 십이폭포가 마주하고 있었다. 골짜기가 넓게 탁 트여, 벼랑이 기이하고 빼어났다. 상령대암을 지나 만경대에 올라갔는데 박시창은 높고 멀다고 싫어하여 따라오지 못하였다. 만경대의 왼쪽으로 바위 봉우리를 마주하고 있으며-내·외산이 아울러 보였다- 오른쪽에는 흙산이 있고, 앞에는 큰 바다가 있으며, 골짜기는 넓게 트여 시야가 막힌 곳이 없었다. 구정봉과는 우위를 겨룰 만하지만, 개심대나 망고대와 견줄 수 없었다. 산 중의 사찰 가운데 손으로 가리킬 만한 것으로는 동북쪽의 율사와 은선암, 서남쪽의 향로암, 북쪽의 양진굴, 남쪽의 유점사와 종련암이 있고, 자월암과 세 영대암은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올 때 양근의 선대 묘소와 재실을 지키는 승려 원오와 승려 신명이 만나러 왔다. 또 내려가 자월암에 도착하니, 승려 범종이 암자를 지키고 있었다. 다시 중령대암으로 가니 승려 도화가 암자를 지키고 있었으며, 하령대암은 허물어져 승려가 없었다. 운수암에 도착해 승려 응상을 만났다. 그는 사명대사 유정의 법통을 이은 승려로, 30여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나와 동갑이라고 했다.

오는 길에 있는 선담은 위와 아래의 수석이 맑고 깨끗하여 좋아할 만했다. 조계암에 들르니, 길가에 부도 3구가 있었다. 첫 번째는 휴정의 것이고, 두 번째는 자휴의 것이고, 세 번째는 보운의 것이라고 했다.

저녁 무렵 유점사에 도착해 산영루에 올랐다. 노승 법건을 맞이해 침례했는데, 도행이 매우 높았다. 능인전에 들어갔다.-곧 법당이다- 능인전 안에는 목가산과 산골짜기를 만들어 놓았고, 그 골짜기에는 53구의 불상을 봉안했다.

유점사의 사적을 살펴보니, 바로 고려의 재상 민지가 기록한 것이었다. 53불과 동종이 서역에서 바다를 건너와 고성에 닿았는데, 좋은 느릅나무에 걸리고 불상은 느릅나무 뿌리에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지금의 유점사 터였다. 고성군수 노춘이 그 특이한 내력을 기이하게 여겨 사찰을 창건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상도에 맞지 않았다. 그 뒤 여러 번 화재를 당해, 좋은 녹고 불상은 남아 있다.

사찰의 크기와 화려함은 금강산에서 으뜸이었다. 왼쪽에는 응진전이 있어 나한을 봉안했고, 오른쪽에는 해장전이 있어 여러 불상을 봉안했다. 승당은 안목당이며 선당은 적조당이였다. 응진전 왼쪽에 향적당이 있으며, 응진전 아래에 명부전이 있는데 중앙에

시왕을 봉안했다. 그 아래에 대권당이 있고, 그 안에는 노춘의 상을 안치했다. 해장전 아래에는 골승당이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달마상을 봉안했다. 그 아래가 금당인데, 그 안에 담무갈상을 봉안했다. 그 아래 좌우에는 여러 요사채가 있었다. 능인전 아래에는 검은 돌로 만든 12층탑이 있었다. 진여문을 나오면 그 다음이 범종루이고, 그 다음에는 회전문이 있는데 좌우에 각각 천왕 두 구씩을 봉안했다. 그 다음은 해탈문이고 또 그 다음이 산영루이다. 능인전은 승려 영운이 창건했다고 한다.

29일(경신). 밥을 먹은 뒤 유점사에서 북쪽으로 10미리 남짓 가서 불정대에 올랐다. 그 경관이 비록 은선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또 하나의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박달곶으로 내려오니 험하기가 소인곶과 비슷한데, 거리는 1, 2리가 채 못 되었다. 시내 하나를 건너 송림굴에 이르렀다. 두 개의 굴이 있는데 한 곳에는 샘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크고 작은 돌부처 100여 구를 봉안했으며, 승려 경진과 신변이 살고 있었다. 그 암자 앞에는 용연이 있고, 용연 아래에는 석담이 있어 구경할 만했다. 그리고는 왼쪽으로 1, 2리를 가서 외원통사에 도착했다. 절에는 승려 10여 명이 있었고, 대웅이 수좌승이었다.

점심을 먹은 후 외원통사에서 송어담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수석은 모두 기이하고 빼어나서 흥취가 무르익었지만, 일일이 찾아보지는 못했다. 선담의 위아래, 경면상담과 경면하담, 징심상담과 징심하담의 경치가 최고였다. 비록 구룡연이 절경이기는 하나 이보다 크게 빼어나지는 않았다. 그 다음이 백천담과 송어담인데, 모두 유람하며 감상할 만했다. 뒷날 호사가로 하여금 찾아와 구경하게 하고자 이를 갖추어 기록할 뿐이다.

개방사에서 말을 쉬게 했다. 돌아오는 길에 고성 군수가 사람을 보내 고산정으로 초대했다. 강가에서 회포를 풀고 각자 술 세 잔을 마셨다. 저녁 무렵 돌아와 해산정에서 잤다.

5월 1일(신유). 해산정에 그대로 머물렀다.

2일(임술). 아침 일찍 출발했다. 명로가 왔는데, 감호에 있는 최영의 집에서 작별했다. 최영의 동생 최현과 양시익이 함께 나와 영접했는데, 양시익은 양만고의 아들이다. 열산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건봉사에서 잤다.

3일(계해). 일찌감치 출발하여 간성에 도착해 아침을 먹었다. 중경이 관찰사가 되었는데 소식을 들었다. 청간정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양양에 도착하니 지세가 태평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밤에 함께 잤다.

4일(갑자). 지세가 만류해서 저녁 무렵에야 비로소 출발하여, 겨우 상운역 유객당에 도착했다. 찰방 이순은 전사관이 되어 강릉에 갔다고 했다. 박시창이 고성 군수에게 작별을 고하러 갔다가 고성 군수가 만류하며 주는 술에 취해서 도착하지도 못하였다.

5일(을축). 일찍 출발해 동산역에서 아침을 먹고, 연곡에서 점심을 먹었다. 박시창이 왔으며, 저물녘에 관아에 도착했다.

나는 타고난 성품이 홀로 지내기를 좋아하여 세속의 일을 즐겨하지 않는다. 게다가 산수 사이에서 회포를 풀어내기를 좋아해 벼슬길에는 뜻을 끊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

고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어, 부득이 과거공부를 하여 아주 적은 녹봉을 구하였다. 이미 뜻을 이룬 후에도 행적이 도성을 떠나지 않았으니, 초심을 깊이 생각하며 처연히 스스로 슬퍼했다.

지난해 관직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면서 벗들과 함께 풍악산을 유람하고자 했다. 그러나 호란으로 인해 갑자기 성은으로 서용되어, 조정의 명령으로 세자를 모시고 전주에 가게 되었는데, 동쪽을 바라보며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올해 우연히 그 오랜 염원을 이루게 되었다.

아! 사마천은 장대한 유람으로 문장을 이루었고, 소동파는 먼 곳으로 유배되었기에 영외의 문장을 지었으니, 모두 기이한 경관으로 그들의 가슴을 장대하게 했다. 나의 이번 유람은 보잘 것 없어서 지난날의 나와 똑같다. 이 두 사람에 비하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다만 이 유람의 행적을 기록하여 후인에게 찾아가 보도록 할 뿐이다.

吾東方. 有三名山. 嶺南之智異. 關西之妙香. 東海之金剛. 三山之中. 金剛爲最勝. 故中國人有願生朝鮮國. 一見金剛山之句. 是則山之勝致. 非但爲吾東之最. 在中國亦不多得. 可知也. 願一遊歷. 以償平生之願而未果焉. 崇禎戊辰. 以刑部左侍郎. 力求補外. 爲江陵府使. 正月視事. 公私之務勞如. 至四月. 稍自釐正. 因念吾身季迫六旬. 不以此時往遊楓嶽. 則恐有後時之悔. 遂決意探勝. 率二子 顯基, 善基 及朴時昌. 十二日癸卯. 起馬至連谷午餉. 夕抵洞山. 權稱, 鄭基平持酒來見. 甲辰早發洞山. 午餉祥雲留客堂. 日晡直抵洛山寺. 襄陽府使趙緯, 韓持世. 卽故舊也. 預待于梨花亭. 陳酒樂. 因雨捲入賓日寮歡宴. 日昏乃罷. 寺卽新羅神僧義相所創. 後殿設觀音塑像. 制作極精妙. 禪堂壁上. 有安堅山水圖. 寺之勝致. 則關東八景之一也. 人擬中朝金山甘露寺. 而未知優劣如何. 寺東有義相臺. 臺北有觀音窟. 諺傳 翼祖祈嗣之處云. 乙巳朝發洛山. 歷青草湖. 過永郎湖少憇. 殊爲清絕. 午餉清澗亭. 登萬景臺. 亦八景之一也. 而所見頗不如所聞. 自清澗行二十餘里. 有一斷山傍海陡立. 問於郵吏. 則乃凌波臺也. 回車登眺. 則東向面大洋. 海邊之景. 大略相似. 而西望則左右湖水漲入浦口. 水田新耕. 白水平鋪. 小橋橫架川上. 漁村撲地. 夕烟初起. 重山疊嶺. 矗立雲際. 斜光掩映明滅. 眞快景也. 吾謂前面之景. 不若後面. 從者皆以爲然. 又行十里. 得仙遊潭. 潭之廣不甚濶遠. 前山環擁. 長麓走入波心. 湖水左右映帶. 長松數百株森立前後. 清曠雖不如永郎. 幽邃可愛. 善論者亦未易甲乙. 向夕抵扞城郡. 主倅卽舊知金尙宓仲靜. 以差員上京. 不得與之穩討. 信知一會之有數也. 悵然之餘. 其下人待之甚薄. 尤可恨也. 乘月登詠月樓. 庾亮南樓之興不淺. 而其無賞心何. 丙午曉. 行望 闕禮. 早發杆城. 行二十餘里. 到花津浦. 土人言其初古雲根縣. 陷爲花津浦. 乘舟入湖中. 隱隱見水底屋宇. 其言不經. 不可信. 大槩洲渚互出. 清曠幽邃比於鏡浦. 鏡浦殆在下風. 而鏡浦之名. 反在其上何耶. 且其臺之左右. 多良田美畝. 左則軍士李敬淳家. 淳能文善詩. 老死. 其子不能守. 拔宅移居. 其基尙存. 右則軍士李連之家. 皆可賃而居. 其傍又多馬田. 亦可賃耕. 思欲解官留居. 誰能與我買山錢耶. 不覺咄咄. 近午抵列山. 歇馬啖飯. 行過茂松島. 暫憇明波驛. 歷松島. 午餉大江驛. 茂松, 松島之勝. 大略

與萬景臺無異。昨昏朴時昌憤杆城人之不待。乃奮臂曰。何時當到高城之境也。高城必盛辦。出待於大江。豈若是寥寥然哉。及到大江。則無一人到站上。余戲之曰。預期僧齋不腹飽。非此類也耶。相與捧腹大噱。久之設食。食後大霧橫天。細雨濛濛。因自大江發行。趨鑑湖之路。登前都事鄭佃之亭。方湖石峰。清絕可愛。問其主人之何在。則方入朝求仕。噫。有此江湖之勝。而當此世亂之日。尚有求仕之心耶。循海路行十餘里。有石峯。卽所謂懸鐘巖也。石竇穹窿如屋宇。可以避雨雪。世傳五百羅漢自海中出。寄寓石室。泊舟于左海。故上有懸鐘巖。海邊有覆舟巖。西有繫舟巖。穀包巖。皆神聖古迹。其言不經。皆不足記。遂下山行到南江。日已曠黑。舟人艤船而待。江北岸上。火光明滅。因渡江。太守許啓明老。卽吾世友也。長立于岸上。引領而望。勞慰甚勤。登岸而對。相喜可知也。立飲一盃。相携入海山亭。因飲數盃。食罷就寢。而諸從者濡濕露處。誠可矜悶。亭之勝槩則未暇賞也。丁未早起周覽。欲評海山之勝。而海霧蒙眛。日晚始霽。東望海門。有石巍然立海中。如砥柱頹波。南有石山三峰。排列於面前。西南金剛玉立。蒼翠滿目。東西有兩龜巖。大江如白練橫拖大野之中。評者以爲勝於竹西。而以不入於八景爲怪云。黃昏與明老登高山臺。欲待月。放舟江中。玄雲掩翳。迨至二更。未見月光。各飲數盃。悵然而還。戊申食後。與明老往三日浦。邑人已艤船而待。遂登舟而行。明老指左邊山石曰。此乃楊蓬萊題詩石也。泊舟于丹書處。見所謂丹書。則述郎徒南石行六字。而其初字迹甚明。有一頑太守惡遊客翫賞鑿破。述南石三字分明。其餘模糊。丹書之右。有虛白堂詩。鑿陷本巖。納其詩石。其上有埋香碑。因北登四仙亭。亭上有六七大松。松裏安亭。亭之勝。遊人之所共讚。然不若夢泉之勝。面前石峰數重玉立。三日之勝。皆萃於此。真天下之奇絕。而遊人之但稱四仙者何也。題名于四仙亭之北巖。令從者刊刻。又還登四仙亭。飲數盃。薄暮還宿海山亭。己酉早食後發海山亭。余先與二子及明老兒子斗向朴時昌到鉢淵。令下人水戲。稍上數百步。石上有楊士彥書蓬萊島三字。鐫刻甚精。稍下有詩三首。而其一南崗。其二滄海。其三紫洞。書之石上。亦爲鐫刻。筆蹟似楊蓬萊。未知何人所作。洗滌苔文。僅辨字畫。俄而明老與察訪李鎰並轡而來。是時濃霧漫天。咫尺不辨。明老曰。霧暗如此。最妨遊賞。余戲之曰。豈無正直感通之道耶。韓退之登廬山。正逢秋晦。作詩曰屯雲洩霧藏半腹。雖有絕頂焉能窮。潛心默禱若有應。豈非正直能感通。相與戲笑。遂與祥雲相別。登少人嶺。微風乍動。掃除霧氣。白雲平填大壑。皓若白雪初霽。漫布大地。又如銀河瀆洞。衆峯羅列。如拔地芙蓉。天無點翳。夕陽照耀。白光相射。蓋未曾見之奇觀。余復戲明老曰。此非感通之道耶。明老笑曰。此行無吾。何以致此乎。過桂樹臺。歡喜站。其爲嶺峻極于天。上一層。更有一層。凡直上二十餘里。始到柏巖菴。見僧彥機雲衲甚偉。與之言。頗識道理解外膠。蓋緇流之翹楚也。庚戌早起。下見洞口。白雲與青山相間。氛氳而起。機師指雲而言曰。雲起如此。差晚必霧氣橫肆。若欲登九井峯。須早往。遂促食而發。歷寂滅庵白雲菴。登九井峯。則山下白霧遠遮於重山之外。所見只是山傍石峯。午後重雲盡撤。內外諸山。歷歷可數。余與明老各戲占一絕。因啖飯。題名于石。令從者刻之。還寂滅。夕登西臺。峰巒環拱。望見隱身。萬景。佛頂等臺。名其臺曰壺隱。辛亥自寂滅早發。至大藏巖。石路極峻嶮。度九雛嶺。午餉上院。曾聞無學臺之勝。欲往見之。輿僧厭而諱之。過鴈門站。行十餘里。始覺焉。莫不駭歎。余先發而後輩未及

到。因上溪邊小臺以待之。臺前有小瀑。清絕可觀。明老及二子追到共賞。因歎曰。若置此臺於畿輔。必人人稱賞。而在此山。故因爲溪邊之棄地。一水之勝。亦有遇不遇耶。然余與明老幸得此臺。爲半日之翫。不可不名。因名曰李許臺。書而刻之石。啖水飯。到圓寂菴。地勢周遭。石峯嶄峩。而寺廢已久。有石佛在龕而已。遂灑掃列坐。方謀上毗盧。而以不得並賞九龍淵爲恨。適見權霽仲。鄭缺叔。趙休等壁上題名。皆言自九龍登毗盧。因詢僧宗遠。則果有線路自古圓寂達九龍。相與喜抃。更有謀賞之議。壬子自圓寂西踰一嶺。南轉循溪而行五里許。石路甚崎嶇。至毗盧。山崩石堆。新崩者白。夙崩者黑。積石犖确幾千仞皆攀石。匍匐而上。路窮而石勢開罅。由之以入。自此至毗盧頂。東則石面如城。西則肉地盤陀。無雜木。惟有側柏。杜鵑。海松皆矮短。循地平鋪。杜鵑方盛開。氣候如三月之初。是日也。天日清明。日方正中。東望大海際天彌漫。安邊之國島。通川之薪島。卯島。高城之靈津串。點點如拳石。四面遠近山勢。拱向環衛。盤盤焉困困焉。不知其幾千萬山。或矗以爲峰。或靡以爲嶺。世傳萬二千峰者皆妄也。眼前所指者。永興之劍山。安邊之黃龍。襄陽之雪嶽。江陵之五臺。三陟之頭陀。原州之雉嶽。楊口之猪山。春川之清平。砥平之龍門。永平之白雲。楊州之天寶。松京之聖居。鐵原之寶蓋。海州之首陽。長淵之九月。皆如培塿。不可悉數。至若近小則千峯萬壑奇怪之狀。固難名狀。而石峯爭頭競秀。或若人鬼之形。或若鳥獸之狀。如坐如起。若仰若俯。橫馳如赴敵之軍。整列如朝謁之士。形形色色。愈出愈奇。皆在杖屨之下。眞天下之大觀。而其中九井。日出。月出。彌勒。穴望。圓寂。雪鷹。鴈門及永郎帖等峯。最出羣峯之上。其餘細峰。隨行衲子。皆庸瑣無知。無能悉之者。至晡時。東西有黑氣一度。淡抹如匹練。久而成雨。蔽山及海。猶不及毗盧。而往往微雨波及而暫灑。遠近之所見。尙爾不迷。余謂明老曰。既見晴景。又見雨景。天之餉我多矣。相與喜賀。因啖飯喫酒少許。題名于石。向晚未及下山。雨霽天晴。夕陽照山。山氣益佳。老杜雨晴山不改青罷峽如新之句。與此景相符。眞絕唱也。還宿圓寂。癸丑朝。許斗向。還向高城。自圓寂宿毗盧菴。菴背負毗盧。面對日日出峰。而寺廢無僧。甲寅早發毗盧菴。向九龍淵之路。路邊栢樹。見有黑毛掛垂者。僧指示而謂曰。此乃猊痒磨。毛髮掛垂云。踰大嶺約二十餘里。入九龍淵。川石明麗。峰巒奇秀。而重霧滿谷。不能細也。路入石峯。直上其巔。下有不測之壑。擬足甚難。攀登亦危。欲見九龍淵者。必踰此而後乃入。明老及二子朴時昌皆攀援而去。余至山底。將擬攀登。因念王陽回車之事。遂不敢強登。因啖水飯久之。兩子及朴時昌等看到第三淵而回。言水石之奇。爲金剛第一。且言明老欲從塞垣之路。塞垣路由九龍淵。徑走高城之路。而還向高城。既而路迷。不得已還。相轡而行。入妙吉祥。過彌勒臺。夕到摩訶衍。後有衆香城。前有穴望峯。左則般若臺。右則香爐峰。穴望之西。有石如僧坐于石上。名爲曇無竭。懶翁之來住此寺也。常禮拜於庭右。至今僧人不敢踏其地。其地生蘆。衆僧目爲明堂草。以惑愚俗。良可痛矣。寺右有小麓。曰天竺臺。正對曇無竭峰。是夜雨。乙卯朝。自摩訶衍發行。庵前川石清淨可翫。二里許。有獅子庵。自此以後水石益奇。過火龍潭。船潭。眞珠潭。碧霞潭。登寶德窟。其菩薩所安之屋。銅柱鐵鎖盤結以構。極其奇巧。壁上亡兄及沈士經甫題名。不勝感舊之意。其後堂亦清淨。有許禱絕句。雨意漫山。卽下黑龍潭。與明老坐語少時。又過洗巾遷。有石凹陷如臼。卽菩薩洗頭處。其言荒唐不足信。且其石路傾



滑。難於着足。鑿石成穴。以葡萄蔓結其一頭。往來者攀援而行。到萬瀑洞。則石上刻蓬萊楓嶽元化洞天草書八字。乃楊蓬萊所書也。上有金剛臺。舊有巢鶴。不來者已四五季云矣。又行二三里。到表訓寺。五賢峯環擁。或謂五龍爭珠之形。中堂爲般若。有立佛在彩雲之中。左邊有數尺銅塔。後有羅漢殿。左有玉相十六。右有木相十六皆奇怪。中有大金佛合掌而立。東上室爲邀月軒。西上室爲洗心軒。禪堂爲寂照。僧堂爲靜慮。前有小樓。向晚登臨。大雨雷霆。奇奇。三藏。新林。青蓮等庵。皆在近地。初欲遍尋。雨不能如意。薄暮少霽。僅到正陽。宿歇惺樓。日昏未暇周覽。唐僧太峻來謁。丙辰朝上佛殿。見懶翁衣鉢及舍利。所謂舍利。青珠一粒。如黍米大。藏琉璃筒。筒大如榛子。又藏於金合。填以木花。以五色文錦作襍百襲。納諸黑櫃。殿前有六面。殿中安石軀藥師。四壁畫天王神。僧或云唐僧吳道子所寫。僧言國有變亂。石佛輒生汗汁。适亂及胡變皆然云。殿後有懶翁影堂。堂後有浮屠。右有羅漢殿。寺門之外。卽真歇臺。今爲菜田。食後登天一臺。鄭松江謂廬山真面目。盡在此中之所也。因下山南行十餘里。上高山。到大小松蘿。二菴相比爲鄰。小庵有僧信鑑休糧獨住。形貌甚癯而面有青色。入其室則佛座之右。有誌公影子。無學。懶翁左右侍立。懶翁之相。與正陽畫像同。但誌公着冠。二祖師皆頭陀。無學右眼有白點。午餉後向望高臺。登一嶺。攀鎖而下。又攀鎖更登一嶺。到望高臺之下而望之。則又有鐵鎖垂下者二處。善基與朴時昌先登。明老繼登。顯基亦攀上。未盡一鎖。還下而言曰。此路危險。過於毗盧。而見處無過正陽之天一。勸余勿上。已而善基繼來亦止之。且有雨徵。因南下上雲菴。明老與朴時昌繼至。小避行雨。登南臺。東西南三面。峯巒競騰。洞壑明邃。其景可與隱仙。天一相軋。而勝於佛頂。人徒逐望高之名。涉險履危而卒無奇觀。以此臺之勝。無傳於世何耶。相與歎訝。題其名曰五仙巖。因下循百塔洞之路。捫蘿攀崖。不能着足。垂紳而縋下者。幾十餘處。而下臨千仞之壑。一失跬步。便作碎骨之魂。比之於毗盧九龍之險。風斯在下矣。後之爲吾子孫之遊山者。慎毋由此路哉。大槩長瀑一處。最爲奇絕。而其他種種佳處。亦可翫賞。因入靈源洞。則川石之勝。峯巒之奇。爲楓嶽之最。而冒雨行忙。瞥然而過。到靈源菴。則庭前多種旱蓮。芍藥。木香。屋宇精灑。亦有道僧寶珠休糧五載。氣息纔續。善基致慰而言曰。道之成否。不在休糧。惟當勤做工程。何必休糧。僧乃合掌稱謝。丁巳早起周覽。則十王峰。使者峰。羅列競秀。宿雨初霽。山色甚肅。食後稍下一二里。川石亦多佳致。出洞五里許。至顯佛庵題名。因上西臺。山秀洞邃。石上刻坡仙二字。乃使相肅羽公之號也。明老以官故請回。與之相別。出洞又行五里許。有大關基。而乙巳有水患。亂石積於其上。不復辨也。又有地獄門。所謂地獄門者如城門。世傳新羅敬順王之歸附麗朝也。太子諫止之。王不聽。因逃入金剛爲僧。麗人爲太子築城建宮。意其城門至今偶然不毀。僧家彊名之耶。有一大石矗立雲端。如張大簇。爲明鏡巖。下有澄潭。爲黃泉江。川畔有大石。爲業鏡臺。臺前有地藏峰。皆取不經之語而名之。以惑無知之氓俗。豈非可駭之甚者乎。然此所謂十王百川洞也。又行五里渡一溪。循溪而下。石色如青玉。上有小瀑。下成澄潭。水石甚佳。而在路邊僻處。人不知有此佳境。余偶然得之。遂名其潭曰碧玉潭。距長安寺門。蓋未一里。入寺中則有二層殿。扁其上曰大雄之殿。爲制甚宏壯。殿內有佛龕三區。上有金龍盤結之象。精巧絕特。中列七佛。間以小佛。佛前儀仗。亦皆侈麗。爐鉢則銅質銀畫。制樣古雅。又有無盡

燈。爲制極巧。皆所未嘗見。亦絕代之奇翫。殿左有四聖殿亦二層。乃阿羅漢所安處也。左右各安八軀。其爲形貌每各殊態。詭怪美惡之狀。極盡其妙。卽僧人信如所塑也。沙門亦有天王四軀。寺之景致。在金剛諸刹最劣。而佛像所塑。爲諸刹之最妙。亦可賞翫。而獨恨寮舍崩頽。僧徒單寡也。午餉後遇驟雨。不能卽發。少選雨晴。東行二三里許。過鳴淵入安養菴。則鑿崖石。刻佛三軀。倚巖崖因作佛殿。下爲寮舍。寺廢無僧。壁上有亡兄題名。不勝感悼。題名于右。又上三日庵。昔有一僧棲止三日。便自得道。故名其菴云。踰一嶺過雲堦庵。蓮宇之精灑。景致之幽邃。與三日菴相敵。行三四里。到青蓮菴。前面寬豁。石峯面面森羅。各逞其態。楓嶽之精華秀色。盡在此中。余意山景無踰於此。而不見稱於人何耶。過新林菴。還到表訓。日勢足往天德。而輿僧力罷。不得已留。仍爲留宿。戊午自表訓。歷奇奇到三藏。僧處明獨棲。亦絕粒僧也。北上五里許。登開心臺。朝霧四集。眼前石峯。盡被遮隔。引僧宗元以爲霧氣漸下。恐妨眺望。余令下人斫雜木之翳眼者。坐而待之。須臾霧氣化爲白雲。漸騰于天。毗盧。永郎。穴望。望高。白馬。日月等峯。歷歷可數。氣候明朗。無纖翳之隔。山形洞勢。盡在席下。左右之人。無不相慶。南秋江謂開心之景。與望高相爲甲乙者。果不誣矣。因東下天德菴午餉。又東行過內圓通歷能仁。皆山中蘭若之絕塵者。登能仁東臺。山水之明邃。可敵顯佛。因沿流未及萬瀑洞。洞裏川石。隨步益奇。遇一石潭澄澈見底。名其潭曰印月。又下數十步。有瀑飛流數丈。下作清潭。名瀑曰飛流。名潭曰青鶴。瀑則余所命也。潭則肅羽所命也。因題名于石。又自萬瀑洞。直抵萬灰。僧圓悟袈裟迎拜。亦山中之道僧。休糧孤棲。最爲衆僧所尊。過一嶺。入白雲菴。有老僧竹林。萬灰。白雲。亦皆內山之勝區。而白雲之景。亞於青蓮。入室則佛左掛一觀音變相圖。用黑段銀畫。婦人金面青首。右携竹筐。筐裏有魚。立於松竹之下。陰畫品極妙。曾聞上白雲之幽邃。而石峯崿率路險。試令特奴往見。則捫蘿攀上。更躋峰巔。下投小菴。有僧三人棲息云。過般若。還止摩訶衍。則明老送酒。榆帖寺住持靈熙來迎。己未自摩訶衍。行到水帖。外山僧來迎。與內山僧相別。到隱仙庵。見僧水鑑。午餉後登隱仙臺。前對聲聞洞十二瀑。洞壑開豁。巖崖奇秀。因過上靈臺菴。上萬景臺。朴時昌憚其高遠。不能從焉。臺左對石峯。內外山並見。右挹土山。前臨大海。洞壑寬敞。眼界無礙。可與九井爭衡。開心。望高。不可比肩。而山中蘭若之可指者。則東北有栗寺。隱仙。西南香爐庵。北有養真窟。南有榆帖。種蓮菴。而紫月及三靈臺。隱而不見耳。來時楊根先墓齋宮僧圓悟沙彌信明來見。又下過紫月。僧法宗守菴。又歷中靈臺。僧道和守菴。下靈臺頽廢無僧。到雲水菴。見僧人應祥。乃四溟惟政法嗣。率徒弟三十餘人。與余同庚云。來路船潭上下水石清淨可愛。過曹溪菴。路邊有三浮屠。一休靜。二自休。三普雲云。向夕到榆帖。上山映樓。迎法堅老師參禮。道行甚高。入能仁殿。卽法堂。殿中爲木假山爲山谷。谷安五十三佛。因見本寺事蹟。則乃麗朝宰臣閔漬所記。五十三佛及銅鐘。自西域渡海而來泊高城。掛鐘於榆樹。佛在榆根。卽今本寺之基。太守盧僊奇其異迹。爲剏寺宇。其言不經。其後屢遭回祿。鐘銷佛存。殿宇宏侈。甲於山中。左有應真殿。安羅漢。右有海藏殿。安諸佛。僧堂爲晏默堂。禪堂爲寂照堂。應真之左。有香積堂。應真之下。有冥府殿。中安十王。其下爲大權堂。中安盧僊之像。海藏殿之下。有骨僧堂。中安達麻。其下爲金堂。中安曇無竭。其下左右有衆寮。能仁殿下。有玄石十二層塔。出真如門。次有泛

鐘樓. 次有迴轉門. 左右各安天王二軀. 其次爲解脫門. 又其次爲山暎樓也. 能仁殿則僧靈運所創云. 庚申食後. 自楡岾北行十里許. 登佛頂臺. 其景雖不及隱仙臺. 而亦一佳境. 下朴達串. 其險與少人串相等. 而其遠未滿一二里. 渡一溪抵松林窟. 有兩窟. 一窟有泉. 一窟則安石佛大小百餘軀. 有僧敬眞信卞者棲息. 其菴前有龍淵. 龍淵之下有石潭. 可以賞翫. 因左行一二里. 到外圓通寺. 寺中僧人有十餘人. 而大雄爲首座. 午餉後自外圓通. 至松魚潭. 其間水石. 往往奇絕興闌. 未能一一探討. 而船潭上下. 鏡面上下潭. 澄心上下潭爲最. 雖九龍淵勝. 無以大過. 其次百川. 松魚. 皆可遊賞. 後日欲令好事者尋翫而備記之耳. 歇馬於愁房寺. 來路太守送人邀致孤山亭. 臨江暢懷. 各飲三盃. 向昏來宿海山亭. 辛酉仍留海山亭. 壬戌早發. 明老來別於鑑湖崔嶸家. 其弟崔嘯. 楊時益並出接. 楊卽萬古之子也. 午餉烈山. 夕宿乾鳳寺. 癸亥早發. 到杆城朝飯. 聞重卿爲方伯. 午餉清澗. 夕到襄陽. 持世待于太平樓. 夜與同宿. 甲子爲持世所挽. 向晚始發. 僅到祥雲留客堂. 察訪李鎔以典祀官往江陵云. 朴時昌告辭. 太守因爲所挽被酒. 不得到. 乙丑早發. 朝飯于銅山. 午餉連谷. 朴時昌來. 夕到府治. 余賦性幽獨. 不喜俗事. 尤好暢懷於山水之間. 而絕意於仕宦之塗. 早失怙恃. 不能自食. 不得已爲博士業. 以覓升斗之祿. 及其既得. 迹不離闔閭之中. 撫念初心. 悵然自悼. 上季落職在閒. 欲與友人爲楓嶽之行. 因胡亂. 遽蒙 恩紱. 以 朝命陪 青宮. 作全州之行. 未嘗不東望悵然. 今季偶成宿願. 噫. 太史以壯遊成文章. 東坡因遠謫爲嶺外之文. 皆以奇觀壯其胥次也. 余之此行則碌碌. 猶前日我也. 其視二子. 不其愧乎. 但錄其遊行之迹. 俾後人得以探討焉.

『潛窩遺稿』



## 정업

○ 『금강록(金剛錄)』

수몽(守夢)

정업(鄭擘)

나는 작년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물러날 것을 진정했는데 성은으로 허락하시어 무산(巫山)이 있는 양양의 수령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다행한 것이 세 가지다.

첫째는 팔십 노모를 고을을 다스리며 봉양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같은 시기에 벗들이 모두 화를 입었지만, 나만이 아름다운 곳을 유람하며 세상과 멀리 있는 것이다.

셋째는 금강산을 구경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하다가 늙은 나이에 오랜 소원을 풀게 되었다.

그러나 부임한 이후 공무와 개인적인 근심으로 몸을 빼내어 유람길에 오르지 못하고 반년이 지났다. 그런데 나씨(羅氏)와 이씨(李氏) 두 사위가 서울에서 나를 보려고 온 김에, 금강산을 향해 산행 준비를 서둘렀다. 나는 몸이 약하고 게으르다. 그러나 굳게 마

음 먹고 일을 시작하였다.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달리니 말 타는 어려움과 길이 멀다는 사실도 모르겠다. 곧 나를 일으키는 것을 헤아릴 수가 있다.

정오에 낙산사에 들어가 밥을 먹었다. 대포 만호(大浦萬戶) 이준(李濬)이 뵈려고 찾아와 함께 이야기하였다. 저녁 무렵에 청초와 영랑 두 호수를 지나, 청간정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이곳 수령인 영공(令公) 조훤(趙暄)이 좌수 최덕립(崔德立)을 보내어 일행을 접대하였다. 이날이 무오년(1618년, 광해군 10) 윤4월 초하루 기미일이다. 나씨의 이름은 만갑(萬甲)이고 이씨의 이름은 상질(尙質)이다. 손자 원(援)과 낙산사 주지승 원우(元祐)도 따라왔다. 그 외는 천인(賤人)이라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4월 초2일. 아침을 먹고 10리를 갔다. 산의 한 자락이 물 가운데 들어가 있으므로 능허대라고 부른다. 그 앞에는 돌이 겹쳐 있어 마치 작은 섬과 같다. 나씨와 이씨 두 사위가 가서 살펴보았다. 10리쯤 되는 작은 호수다. 둘레는 5리쯤 되고 푸른 산이 3면을 둘러쌌다.

동쪽은 호수 너머에 모래 언덕이 있다. 푸른 소나무가 숲을 이루었고, 그 사이로 사 람들이 오갔다. 가마에서 내려 두 사위와 함께 수십 보를 들어갔다. 산록이 마루처럼 평평하여 십여 명이 앉을 수 있었다. 흰 모래와 소나무 그늘, 그리고 안개는 한 점 티끌도 없었다. 그 아래 암석도 특별하였다. 오랫동안 소요하다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나올 때는 마치 정인을 이별하는 듯했다. 이곳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선이 노닐던 연못이니, 이름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다.

군으로 들어갔다. 수령이 나와 맞이하였는데 대접이 매우 후했다. 점심을 먹고 작은 누각에 올랐다. 앞에는 높이가 여러 길이나 되는 오동나무가 있는데 푸른 잎이 그늘을 만들었다. 이는 사문(斯文) 최립(崔嶷)이 이 고을을 다스릴 때 직접 심은 것이라고 고을 사람들이 서로 전한다. 최립은 으뜸가는 문장가다. 그런데 여기서 벼슬살이를 하면서 왜 벽에 남겨 보물로 전하는 것이 없을까?

성의 서문으로 나가니 바람이 불었다. 모래 먼지가 눈을 가려 눈을 뜰 수가 없다. 거류천에 이르러 사잇길을 택해 화진으로 들어갔다. 호수가 언덕과 골짜기를 걸쳐 있어서 물이 넘실거렸다. 일대의 송림이 바다 입구를 가리었다. 몇 천 그루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속설에 전하기를, ‘옛날 여기에는 고을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용에 의해 쓸려 가라앉아 연못이 되었다’고 한다. 날이 개이고 물결이 잠잠하면 지금도 담장과 집을 볼 수 있다고 하니 괴이한 이야기다.

쓸쓸히 두세 집이 호숫가에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그 가운데 창백한 안색에 백발인 자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이전(李堧)이라 했다. 나이를 물으니 79세라고 했다. 눈과 귀가 밝고 정력이 조금도 쇠하질 않았으니 이것이 '사는 장소가 사람의 기운을 바꾼다'는 것인가? 석양이 명멸하는데 가랑비가 옷을 적셨다. 술잔을 잡고 시를 읊으며 한참 후에 파하였다.

저녁 때 비를 무릅쓰고 말을 달려 열산으로 들어갔다. 옛 관사가 황량하고 판액 위에는 오직 신점(申點) 공 이 남긴 시만이 남아 있었다. 이 땅은 바닷가에서 멀지 않고 계곡과 산이 만나는 곳이라 백성들이 조금 많았다.

내가 두 사위에게 말하기를,

“가득한 물결만 아니라면 이곳에서 살 만하겠다.”

라고 하였다.

나 서방이 말하기를,

“세상과 격리되어 정치의 득실이 들리지 않는 곳이니 은둔하려는 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돌아가며 한참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지자 잠들었다. 승려 원우가 청원향을 태우며 잠자지 않아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였다.

4월 초3일. 아침을 먹고 모래톱을 걸어갔다. 왕왕 굽이진 곳이 메마른 연못을 이루었다. 모래 언덕을 따라서 촌락이 있는데, 모두 생선 가게[漁店]이다. 산자락이 달려 바다로 들어가고 푸른 소나무가 그 위에 울창하다. 무송대(茂松臺)나 송도(松島) 등은 모두 기록할 수가 없다. 비록 두 사위가 좋은 경치를 두루 구경했다고 하지만 모두 올라갈 수는 없다. 아침을 먹고 명파역으로 들어갔다. 풀을 이어서 집을 만들었는데 겨우 한 칸쯤 되었다. 잠깐 말을 쉬었다가 대강역으로 들어갔다. 골짜기가 그윽하고 깊었다. 역인으로서 울타리를 마주하고 사는 집이 10여 호쯤 되었다.

양양의 무인 강효선(姜孝先)이 북도(北道)에서 돌아왔는데 오성(熬城)의 답서를 소매에 넣고 와서 보여주었다. 펼쳐보니 그 노인의 모습이 어슴푸레 떠올라 이별한 마음을 위로할 만하였다. 이 노인은 재상의 위치에서 수십 년을 부침하였다. 계축년 사변에 탄핵을 입고 교외에서 한가롭게 살았다. 작년 겨울 대비의 폐출을 의논하게 되자 당당하게 순 임금을 인용하여 상소하였다가 삼사에서 역적을 두둔하였다고 논하여 북청으로 귀양을 갔다.

밥을 먹고 말을 타고 대령을 넘었다. 돌길이 가파르고 바위가 기울어져 있었다. 고개 밑에는 작은 촌락이 있는데, 쇠 녹이는 것이 직업이었다. 그리고 땅이 비옥하였다. 다시 고개를 넘어 큰 내를 건너면 백천교의 하루다. 흰 자갈과 맑은 물은 이것이 금강산의 기맥임을 말한다. 산이 연이어 펼쳐져 사방이 막히고 나무가 우거져 숲을 이루었다. 이것이 소위 속고촌이다. 금강산의 승려들이 마을에서 양식을 얻어 이곳에 쌓아 저장하였다가 쫓은 다음 절로 옮기니 대개 금강산 여러 절의 근본이 되는 땅이다. 두세 명의 승려가 지키는데 계곡물로 멧돌을 삼아 낮과 밤으로 쫓으니 사람의 힘은 조금도 들이지 않는다. 이것을 만든 자는 교묘한 지혜를 썼다고 할 수가 있다.

저녁에는 두 사위와 함께 시냇가를 걸었다. 산수를 논하여 말하기를,

“이 땅이 열산(烈山)이나 대강(大康)과 비교하여 가장 빼어나다. 만약 근기 지방에서 이와 같은 곳을 얻을 수 있다면, 여생을 보내는데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두 사위가 말하기를,

“저희들이 본 기록에 의하면 서울 주변 수백 리에 과연 이와 같은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봉두(鳳頭) [곧, 선생의 여주강(驪州江) 집의 이름이다.] 같은 곳은 강산의 경치가 뛰어나니 이곳을 버리고서 어디서 은거지를 찾겠습니까? 병부의 연세가 퇴직하여 휴식할 때니,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족히 나태함을 굳게 할 만했다. 저녁은 선방을 빌려서 유숙하였다.

4월 초4일. 골짜기로 점점 깊이 들어갔다. 나무 그늘이 매우 깊어 해를 볼 수 없었다. 다만 쿵쿵 쏟아지는 물소리만 들렸다. 10여 리를 가니 갑자기 커다란 전각이 물 위에 가로놓여 있어, 사람들이 그 사이로 왕래하였다. 말을 내려서 걸어갔다. 기둥에 기대어 앉으니 계곡 물이 소나무 골짜기에서 급히 흘러 내려 연못을 이루었다. 전각 아래는 깊이가 두세 길(丈) 정도였다. 투명하여 그 밑바닥이 훤히 보였다. 노니는 물고기 백여 마리가 모두 각기 허공을 돌아다녀 깃들일 곳이 없는 듯하니 날날이 셀 수가 있다. 좌우의 흰돌들이 가지런히 늘어섰고, 산빛 물색이 깊고 넓어 훌륭한 내 몸이 마치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중 수십 명이 와서 맞이하였다. 모두 푸른 눈에 야윈 얼굴은 세속과 다른 모습이다. 여기부터는 말을 타고 갈 수가 없다. 옷과 식량을 나누어 하인들에게 분담시키고 두 사위와 손자 원은 각기 남여를 타고 갔다. 수석이 빼어나고 수목이 짹짹한 것은 전체가 모두 그러했다. 절벽을 따라 니대와 중대, 그리고 병상대를 둘러보았다. 눈 아래 큰 바다는 넓고 끝이 없어서 여러 산은 모두 낮은 언덕일 뿐이다. 바다 동쪽 기슭에 푸르고 망망한 것이 하늘인지, 물인지, 구름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밖에 특별한 세계가 있는 것인가? 낮 무렵 가랑비가 갑자기 뿌리기 시작하더니 개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하였다. 산신령이 장난삼아 우리들의 옷에 가득한 속세의 티끌을 씻으려는 것인가?

가마를 맨 중이 땀을 비가 오듯 흘리니 반드시 내 비태함에 괴로워할 것이다. 스스로는 편안하지만 남을 수고롭게 하니 사실은 내 마음이 불편하다. 고개를 넘어 내려가니 바위 골짜기는 갈수록 기이하였다. 감탕나무, 측백나무, 노송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녹나무가 우거져 바람에 흔들리고 목련과 철쭉은 꽃이 바야흐로 난만하여 향기가 그 사이에 섞여든다. 시냇물은 구불구불 굽이치고 흐르면서 거세고 높은 소리가 마치 종과 경쇠를 치고 거문고와 비파를 연주하는 듯했다. 산에 가득한 소리와 빛은 사람을 매우 즐겁게 한다. 그래서 귀와 눈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가 없다. 낭떠러지 때문에 간혹 길이 끊기는데, 몇 그루의 나무를 바위에 걸쳐놓고 겨우 사람이 지나간다. 빛속에 도롱이를 입고 가마에서 내려 어렵게 걸었다. 만약 이공린이 이 모습을 그린다면 훌륭한 작품이 될 것이다.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 골짜기 입구에서 바라보니 붉은 기와와 서까래가 온 골짜기를

찬란하게 하였다. 이것이 소위 유점사다. 골짜기를 건너 산영루에 올랐다. 물은 쿵쿵 소리를 내며 아래로 흐르고 산세가 사면으로 둘러쌌다. 구름과 안개가 퍼지고 걷히는데 이를 대하니 유유히 속세와 멀어지는 듯했다. 나는 운취당에서 묵었다. 온돌에 앉으니 매우 따뜻하였고, 창문을 열었더니 상쾌하였다. 고목 노송나무 수십 그루가 근엄하게 계단 아래 서 있다. 그런데 마치 서로 기대고 있는 듯하였다. 뜰은 매우 넓고 앞이 탁 트였다.

주지가 소찬(素饌)을 준비해 왔다. 나에게 대접한 것이 모두 귀한 것이다. '소(韶) 듣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고기맛을 잇을 만했다!' 잠시 쉬었다가 법당을 구경하였다. 금불은 결상 위에 모셨으며 사방 벽의 단청이 화려했다. 향나무로 천축산을 만들어 불상 뒤에 두었고 당 위는 비단 자리로 덮었는데 찬란함이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했다. 좌우 전후 곱친 회랑과 곱복도에 칸 사이가 많은 것이나 엮어 지은 솜씨의 공교로움이 여러 절 중에서 제일이었다. 이번 7일을 택해서 장차 무차회를 열어 낙성할 예정이다. 승려와 속인들이 원근에서 몰려와 매우 번잡하여 문을 메우고 집이 넘쳤다.

이 절은 신라 시대에 창건하여 지금은 1천년이 되었다. 세조 때 화재로 중건하였고, 만력 을미년에 불이 났으며, 갑인년에 또 불이 났다. 하늘이 여러 번 재앙을 내린 것은 또한 그 사이에 뜻이 있을 것이다. 어찌 오래도록 숭봉하며 그치지 않는가? 지금 다시 중건하니 비용은 모두 왕실에서 나갔다. 부도를 새우는 데는 숙고촌의 돌을 캐서 계곡의 가파른 고개 40리를 넘었다. 귀신이 운반한 듯하니 이 일을 이루는데 많은 재물을 허비했을 것이다. 국가가 하늘에 오래도록 번영하기를 기원하는 방법이 이것 밖에 없을까?

저녁을 먹고 명적암에 올랐다. 암자의 중은 응상(應祥)이다. 휴정 선사에게 배워서 경문의 뜻에 해박하며, 석가모니 후의 전법을 말하는데 매우 상세하다. 함께 심성에 대해 논의했더니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었다. 저물녘에 운취당으로 돌아왔다. 노승 법견(法堅)이 운수암에서 내려오고 응상도 내려와서 알현하였다. 함께 이야기하는 사이에 밤이 깊었다.

내가 말하기를,

“낳고 또 낳아서 끝이 없는 것이 ‘이(理)’다. 이미 가버린 기(氣)를 돌이켜서 다시 앞으로 오는 기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나뭇잎이 시드는 것에 비유하자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질 뿐이지 이 잎은 다시 생기를 가질 수가 없다. 윤회설은 어떤 근거로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니, 법견이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 혼백은 없어지지만 그 본성은 스스로 존재하여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람이나 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이와 기를 말한다면 이는 스스로 이요, 기는 스스로 기일 뿐이니 섞어서 말할 수 없다. 사람과 동물을 말한다면 기 가운데 이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 어찌 기를 떠나 홀로 존재하는 이가 있겠는가? 만약 사람과 동물이 비록 죽어 없어지지만 그 성(性)은 스스로 불멸한다고 하면, 성을 떠나고 이를 떠나 불사불멸하여 환하게 홀로 존재하는 것이 따로 있을 것이니 이것이 무슨 성인가? 이것이 마땅히 이를 아는 자들에게 웃음꺼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또 말하기를,

“유가와 불가의 존심법(存心法)이 가장 비슷하다. 일이 없을 때는 이 마음이 맑고 고요하여 한 가지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물과 접촉해서는 이를 따라 순응하기 때문에 각기 그 마땅함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 유가의 오묘한 요체다. 가만히 앉아 생각을 멈추는 것인즉 그대들의 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사물과 접촉을 끊고 쓰지 않으면 마침내는 오상(五常)의 도리를 없애는 데 이르니 여기에서 옳고 그름이 구별된다.”

라고 하였다.

법견이 말하기를,

“우리 불가의 법도 득도를 하면 널리 대중을 구원할 뿐입니다. 어찌 사물을 끊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처음에는 마음이 평정되지 않아 사물에 얽매어 그 마음의 맑음을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물을 버리는 것이니, 이것이 소위 반조회광법(反照回光法)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마땅히 비출 뿐이지 왜 반조하는가? 그 빛이 스스로 밝은데 왜 회광하는가? 비유하자면 맑은 거울은 사물이 오면 스스로 응할 뿐인 것과 같으니 거울을 돌려서 비추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배척받는 점이다.”

라고 하였다. 유가와 불가의 같고 다를 것을 서로 이야기 하니 속인과 함께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도리어 좋았다.

절 이름에 느릅나무[榆]를 넣어 지은 것은 석가가 열반하자 석가를 좇는 무리들이 석가의 상을 주조하여 종 안에 담아 바다에 띄웠는데 그것이 떠다니며 여러 나라를 두루 거쳐서 고성군 포구에 정박하였다. 이때가 신라 남해왕 원년이다. 군수 노춘이 듣고 말을 달려 그 곳에 갔다. 그러나 그 자취만이 완연히 진흙에 찍혀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었다. 종을 찾아 고개를 넘어 골짜기 어귀에 들어서자 소나무숲 가운데 느릅나무 한 그루가 있고 종이 그 가지에 걸려 있었다. 드디어 그 일을 왕께 아뢰니 왕은 놀라고 이상히 여기어 행차하여 곧 그 땅에 절을 창건하고 느릅나무가 있는 것으로 그 이름을 지었다.

또 그 땅에는 본래 샘이 없었는데 하루는 까마귀 떼가 모여 와서 땅을 찌더니, 신비



한 샘이 홀연 흘러넘쳤다. 지금의 오혜정이 그것이다. 계방, 문수촌, 니유암, 구령, 노춘정, 장항, 환희령 등은 노춘이 종을 뒤따라서 온 곳의 명칭이다. 혹은 종을 보고 쉬었던 곳, 혹은 문수보살이 비구의 몸으로 화하거나 혹은 증으로 화하여 종이 간 곳을 가르쳐 준 곳, 혹은 노춘이 갈증이 심하여 땅을 파 샘을 얻은 곳, 혹은 개가 나오고 혹은 노루가 나와 노춘을 이끌어간 곳, 혹은 노춘이 피곤하여 잠시 쉬었는데, 종소리를 듣고 기뻐 뛰며 다시 나아간 곳 등 각각의 사건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법희거사(法喜居士)가 모두 상세하게 말해주었지만 너무 황당하고 괴상하여 군자로서는 말할 바가 못된다.

4월 초5일. 절을 나오면 몇 리쯤에 돌을 다듬어 부도 모양을 만든 것이 있다. 물어보니 휴정(休靜)과 그의 제자 자휴(自休)의 사리를 안치했다고 한다. 휴정은 한날 중일 뿐이다. 그런데 도로써 한 세기를 날렸고, 선문의 종사(宗師)와 고승들이 그 문도에서 나와 의발을 전수하였다. 유학자로 행세하지만 행함에 힘쓰지 않아 종신토록 소득 없이 초목과 함께 썩는 자와 비교하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선연(船淵)을 보니 배같이 생긴 돌이 있는데 계곡물이 마치 흰 무지개같이 흘러와서 이 돌에서 물이 깊이 고이는데, 맑고 깊어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는 물이 멈추어 좀 평평하고 얕아진다. 이와 같은 것이 여러 층이 있다. 소위 '구덩이에 찬 뒤에야 흐른다'는 것인가?

물을 건너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면 조계암이다. 집이 깨끗하고 뜰이 넓는데 늙은 승려 두셋이 기거하고 있었다. 암자 오른쪽에도 시냇물이 있다. 길을 따라 올라가니 위쪽은 위험한 비탈이고 아래는 견성암인데 역시 작은 암자다.

잠시 쉬었다가 대령을 넘었다. 땅 기운이 높게 뻗쳐 쌓인 눈이 아직 녹지 않았다. 산 중턱의 좁은 길은 올라갈 수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어갔다. 불정대에 도착하니 낭떠러지가 골짜기와 연결되었다. 바위돌이 갑자기 솟아 낭떠러지 앞 공중에 걸리었고 그 사이는 겨우 몇 발자국이었다. 나무를 걸쳐서 사람이 건너갔다. 그 아래는 몇 천 길(丈)인지 알 수가 없었다. 바위가 손바닥 모양과 비슷했는데 그 위에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었다. 땅을 내려다보니 아득하여 마치 구천에 올라 하계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북쪽에는 구정봉이 있다. 우뚝 서서 하늘에 가까웠다. 봉우리 아래로는 만 길이나 되는 절벽인데, 절벽 사이로 띠를 늘어뜨린 듯한 것이 십이폭포다. 곁에 두어 채의 암자가 있으니 백전과 적멸이다. 그 아래에는 송림굴이 있고, 또 그 아래에는 원통암이 있다. 나씨와 이시 두 사위는 위태한 잔도를 마치 평평한 길을 걷듯이 하였다.

바위에 올라 경치를 바라보자, 내가 손자 원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귀한 집 자식은 마루 아래에도 내려가지 않는다. 구경하는데 심취해 몸을 잊고 헤아릴 수 없는 위험한 곳에 가면 효자가 할 일이 아니다. 두 사위는 따라가지 말라.” 라고 하였다.

나는 절벽에 앉아 있어도 오히려 무섭고 경황이 없어서 돌아오라고 하였다. 걷기도

하고 가마를 타고서 숲을 헤치고 나가 영은암으로 향하였다. 산길이 경사진 것이나 수목으로 뒤덮인 것, 언덕과 절벽이 높고 험한 것 등이 견성암을 오르는 길보다 더욱 어려웠다. 가마를 탔어도 오히려 피곤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가마꾼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잠깐 상영대에서 쉬고 영은암에 도착하여 쓰러져 누웠다. 두 사위를 보니 또 만경대에 오른다. 나는 한걸음도 갈 수가 없으니, 나의 쇠약함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청년 때의 기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 한이다. 유점사에서 불정대까지는 15리고, 불정대에서 영은암까지는 거의 20리다. 영은암은 오히려 유점사에 가깝다. 다만 지대가 우뚝한 절벽이어서 산영루를 굽어본다.

저녁을 먹고 원우가 나를 이끌며 서대로 올라갔다. 암석은 앓을 수가 있었다. 만경대의 우뚝한 봉우리는 그 뾰족한 것이 마치 쇠를 깎은 듯하고 백마와 향로봉 등의 봉우리는 병풍처럼 둘러섰다. 조그만 개미굴 같기도 하고 동굴 같기도 한 여러 산들은 뻐뻐하게 모이고 차곡차곡 쌓여서 비단으로 묶어놓은 듯하다. 시야에서 도망쳐 숨을 수가 없다. 큰 시냇물이 상완동에서부터 땅을 가르며 흐른다. 향연과 산영루 앞의 물이 바로 그 줄기다. 절벽과 계곡 사이에 있는 암자와 굴은 모두 기록할 수가 없다. 그 가운데 운수암이 제일 넓다. 이곳은 법견이 거처하는 곳이다. 영은암도 아름답고 큰데 붉고 푸른 단청이 기풍에서 빛난다. 유점사 주지승이 좇아와서 나와 함께 묵었다. 그 정이 매우 너그럽고 후하다. 민행(敏行)은 그의 이름이다.

4월 초6일. 가마를 땀 증들이 유점사에 모이자 곧 떠났다. 오늘 내려가는 언덕은 어제 올라온 곳이다.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보다 쉽다고 한다. 그러나 위험하고 두렵기는 똑같다. 내산으로 향하니 숲 사이 한 가닥 산길이 있었다. 거친 돌과 기우똥한 절벽, 깊은 구렁이었다. 조심히 걸어서 내수점에 도착하였다. 땅이 조금 넓은 것은 사신들의 휴식처이기 때문이다. 의자에 앉아 잠깐 쉬었다. 석산이 사방에 둘러 있고 길이 북쪽 고개마루쪽에 길이 있다. 고개 세 개가 중첩되었는데 모두 물로 이름을 지었다.

제 3령에 도착하니 장안사 승도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수가 적어서 부득이 유점사 승려에게 가마를 메게 했더니 매우 괴롭게 여겼다. 을사년의 물난리로 언덕과 골짜기가 변하고 돌이 굴러내렸으며 절벽이 무너져 옛 길을 메워버렸다. 발도 디딜 수 없는데 어떻게 가마를 타겠는가? 오래 걸으니 다리가 무겁고 발이 부르텠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마를 탔다. 앞에서 옹호하고 뒤에서 끌며, 좌우에서 부축하였다. 넘어져 떨어짐을 면하니 '위험한 데 나아갔지만 요행이 면했다'고 하겠다.

산수를 감상하는 것은 잠시 동안의 눈요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눈요기를 위하여 한 몸을 위태롭게 하니 이것은 '손가락 하나를 보양하면서도 어깨와 등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가깝지 않은가? 쇠약한 늙은이의 이번 행차를 깊이 후회하였다. 골짜기를 절반도 내려가지 않고 왔던 길을 돌아보니 이 몸이 황홀히 하늘에서 내려온 듯했다. 작은 폭포가 시냇물을 이루니 성담이라고 부른다. 흰 돌이 그 밑바닥에 깔렸다. 앉아서 구경하니 매우 볼 만했다. 눈을 즐겁게 하다가 몸이 위태하게 된 것을 후

회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그만두지 못했다. 산수도 음란한 음악이나 예쁜 여자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그 가운데 빠져들고 돌아올 줄 모르게 한다. 인자(仁者)와 지자(智者)의 ‘요산요수’도 이와 같다고 하겠다.

낭떠러지 사이에는 얼음과 눈이 아직도 엉겨 있다. 그러나 두견화가 피기 시작하고 적목덩굴의 향기가 산을 뒤덮으며 돌 위로 이어졌다. 우거진 푸른 풀들이 길게 늘어져 어지럽게 감기고 엮혀서 산길을 덮었다. 사람이 밟는 것이 모두 이상한 풀과 꽃이다. 맑은 바람이 살짝 불면 어지러운 향내가 풀 위에 진동하여 향내가 물씬하다. 옥과 은으로 만든 것 같은 봉우리를 바라보면 신선이 늘어선 듯 높이 치솟은 것은 비로봉과 일출봉, 월출봉이다. 만약 비로봉의 정상에 올라간다면 고개와 물줄기 및 흩어진 만 가지 다른 모습들을 모두 하나로 관통할 수 있을 것이니, 공자가 천하를 좁다고 한 뜻과 천년을 격했어도 서로 들어맞을 것이다.

내 남은 힘을 무리할 수 없어 그곳을 오르고 넘을 수 없음을 돌아보았다. 우두커니 서서 주저하며 슬프게 바라볼 뿐이고, 개탄할 뿐이다. 이것이 소위 바라볼수록 더욱 높고 우뚝해서 미칠 수 없다는 것인가? 스스로 한계를 긋는 자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인가? 오래오래 계속 쌓아서 낮은 곳으로부터 올라가면 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이 바쁘니 또한 어찌 할 수가 없다. 이 생에서는 제 1층의 경계를 볼 수 없을 것인가?

시냇물 가까이 암자가 있는데 붉은 칠을 한 건물이 고요하며 인적이 없고 단지 불상만 있으니 이것이 곧 묘길상이다. 들어가 점심을 먹고 떠났다. 돌이 더욱 희고 물이 더욱 맑았다. 약사봉 아래 큰 바위에 불상을 조각했는데 그 형상이 매우 웅장하다. 이것은 나옹이 조성한 것이다. 두세 리쯤에서 작은 시냇물을 따라 들어가니 불지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백운봉 아래다. 앞을 보니 폭포가 혈동봉에서 날아오고 봉우리 사이에 작은 굴이 있다. 그런데 겉과 안이 뚫려서 통해 있다.

마하연에 이르니 불지암과의 거리가 또한 두세 리가 된다. 지세가 다른 암자보다 넓고 평평하다. 중향성이 그 뒤편에 솟아 있고 도솔과 담무갈이 그 앞에 늘어섰다. 그 오른쪽에 우뚝 솟아 골짜기 입구에 병풍처럼 막아선 것이 대소 향로봉이다. 가지와 잎이 정원에 녹음을 이룬 것은 회나무와 잣나무다. 그 중 신기한 나무가 있다. 몸통은 소나무이고 잎은 측백나무와 비슷하지만 좀더 가늘다. 그곳에 거처하는 중에게 물으니 계수나무라고 했다. 잎과 껍질을 씹어 보니 계수나무가 아니었다. 세상에 이름이 그 실상과 어긋나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겠는가? 그 잎은 가을이면 누렇게 떨어지고 봄이 되면 다시 푸르러진다고 한다. 오히려 송백이 세한에 절조가 있는 것과는 비길 수가 없다.

정원에 퇴락하고 무너진 작은 단이 있으니 그것은 곧 세조께서 행차하셨을 때 서 계셨던 곳이다. 유적을 어루만짐에 공경심이 일어나고 그 당시가 생각난다. 바른 도리로 써 이 행차를 간하였다면 그 말이 임금의 충명함을 깨우쳤을 것이다. 그러나 바른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녹을 먹는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섬돌 아래에 작약 두어

떨기와 마른 연(蓮)이 네 다섯 뿌리가 있다. 그런데 연잎 크기가 큰 소반만 하고 7월 중에 흰 꽃이 피어나니 선계의 꽃이다. 회양 태수 영공 이숙명(李淑命)이 어사를 기다리느라고 표훈사에 머물다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서 술을 마셨다. 승려 상현(尙玄)은 술잎을 먹으며 홀로 이 암자에서 4년을 거처하였다. 불법 지키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서 아침저녁으로 분향하고 경쇠를 두드리며 꿇어 엎드려 예불하였다. 늙은 나의 나태함을 자각하게 한다. 지금의 사대부들 중에 성심으로 도를 닦음이 이 승려만한 이가 없다. 이것을 기록하여 뜻을 같이하는 이에게 보이고자 한다.

4월 초7일. 중들이 모이기를 기다려 가마를 타고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다. 모두 반석인데 상 같은 것과 잔칫상 같은 것, 아래쪽만한 것이 그 색은 눈과 같았다. 물이 그 위를 흘러 높은 것은 폭포가 되고 낮은 것은 연못이 되어 10층인데, 화룡담, 선담, 응벽담, 벽설담, 구담, 청유리담, 황유리담, 진주담, 청룡담, 흑룡담이 그것이다. 용과 우리는 그 색을 말하고 선(船), 구(龜), 주(舟)는 그 형상을 말한다. 그 층이 높은 것은 두어 길 이요, 낮은 것은 육칠 척인데 진주담이 제일 높다. 물이 떨어져 그 물보라가 비행하는 것이 만섬의 구슬을 흩어놓은 듯하다.

물을 따라 내려가다가 시냇물을 건너서 앉았다. 산 중턱에 암자 하나가 있다. 바위에 선반을 걸쳐 지었다. 바위 밖으로 나온 난간과 기둥은 수십 길의 구리 기둥을 써서 허공 중에 지탱했다. 단청 칠한 것을 바라보니 신기루 같았다. 층층이 쌓인 돌길은 계단과 같았다. 절반도 오르지 못했는데, 힘이 모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나씨, 이씨 사위만이 손자 원과 함께 그 위에 올라갔다. 어지럽고 떨려서 있을 수가 없었다.

이에 앞서가다가 뒤에 가고, 혹은 가다가 쉬었다. 수석이 기이하고 절경인 곳을 만나면 문득 혼연히 돌을 털고 푸른 이끼 위에 앉았다. 그 시원한 형상과 물이 굽이치는 소리가 유연하여 빈 듯하며 깊숙하고 고요함이 이목을 상쾌하게 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었다. 천천히 걷다 보니 날이 이미 저문 것도 알지 못했다. 돌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하인들의 부축에 의해 추락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나는 발을 싸매고 몸에 땀이 흘러도 고생스러운지를 알지 못하고, 넘어지고 배고프고 목말라도 그만두지 못하며, 미친 사람 같은지를 알 수가 없다.

특별히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팔방의 사람들이 천리 길에 식량을 싸들고 달려서 모여든다. 이름 있는 지역의 거공(巨公), 위인(偉人), 호사(豪士)가 지팡이를 짚고 신들매를 하고 피로함을 잊고서 고생을 참지 않는다. 오로지 깊은 절경에 이르지 못 함을 두려워할 뿐이다. 중국인들조차도 ‘고려국에 태어나서 이곳을 한 번 보고 싶다’고 한다. 세조는 천승의 지존으로서 멀리까지 수고로운 걸음을 하였고, 선인(仙人)과 중, 단약을 만들고 도를 닦는 자, 화식을 끊는 자들이 모두 여기를 거쳐 갔으니 고급도 귀천도 현명하고 어리석음도 없다. 부지런히 구경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며, 시를 지어 읊고 책에 신기도 하는 것이 분분하여 그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다. 금강산이 천하에 이

름을 독차지하고 사람을 전도시킴이 이와 같다.

만폭동에 내려가니 돌 위에 '봉래풍악원화동천(蓬萊楓嶽元化洞天)'이라는 여덟 글자가 새겨졌다. 그 꿈틀거림이 용이나 뱀과 같아서 지금까지 자획이 이지러진 것이 없다. 양사언(楊士彦)의 필적이다. 이 노인의 풍류와 화려한 문장은 문단의 한 세대를 풍미하였다. 일찍이 회양 태수를 자청하여 이 산수간에서 왕래하며 높은 곳, 낮은 곳을 살살이 유람하였다. 가마를 타는 것은 이 노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푸른 벽에 학의 둥지가 있으니 이것이 금강대다. 붉은 정수리와 하얀 깃털 학은 어디로 가고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학의 등에 타고 날아갈 수가 없다. 오래도록 석산에 앉아 각각 시를 읊고, 그것을 암석 빈 칸에 새겼으며, 성명을 새기고 그 획을 붉게 칠하였다. 알 수가 없거니와, 삼일포의 옛 자취처럼 천년 동안 불멸하여 이곳을 지나며 보는 자가 어루만지며 감탄하고 이와 함께 더불어 못했음을 한탄할 것이다. 은계(銀溪)의 독우(督郵) 김경직(金敬直)이 관례를 마친 젊은이들 5, 6명을 이끌고 장안사로 찾아왔다. 텅빈 골짜기에 들리는 발자국 소리로 인하여 많은 위로가 되었다.

오후에 각기 헤어졌다. 김경직은 마하연으로 올라가고 나는 표훈사로 갔다. 회양 태수가 마중을 나왔다. 우리들을 법당에 앉혀 놓고, 순두부를 만들어 주니 주린 창자가 갑자기 포식하였다. 이 절은 큰 사찰로서 절반이 을사년 홍수에 떠내려갔지만 이미 수리하였다. 모든 절의 불상은 반드시 문과 들창을 향해서 안치하였다. 그런데 이 절에서는 오직 동편에 설치하였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승려의 말이 자못 허황하여 기록할 수가 없다.

저녁 때 정양사에 올랐다. 길이 산 중턱을 감돌아 있는데, 그늘이 우거져 하늘이 보이지 않으니 모두가 단풍숲이다. 배꽃이 눈같이 흰데 바람이 불 때마다 연한 향기가 끼친다. 처음으로 꽃의 빠르고 늦음이 토지의 춥고 따뜻한 것에 원인이 있음을 깨달았다. 천일대에 올랐다. 1만 2천 봉의 옥으로 깎은 듯 아름다운 봉우리들이 눈앞에 늘어서 특이한 모습을 모두 드러냈다. 층층이고 겹겹인 것, 먼고 가까운 것, 큰 것과 작은 것, 뽕족한 것과 둥근 것, 달려나가는 것, 머무는 것 등이 푸르게 솟고 희게 둘러싸 모두 눈앞에 들어왔다.

여기가 온갖 아름다움이 모인 곳이니, 도를 갖고 말하면 우리 유가의 소위 집대성이다. 선문(禪門)으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크게 깨달아 활연히 대통한 자의 경지인 썸이다. 그러나 만약 깊이 탐색하고 두루 밝아 지나오지 않았다면 어찌 능히 내외와 본말을 거리키는 것 없이 꿰뚫어보아 마음과 눈을 환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혈성루에 들어가니 바라다보이는 풍치는 천일대보다 좋다. 밤에는 기운이 싸늘하니 자연히 잠이 오지 않는다. 호음 거사(湖陰居士)가 ‘거백옥이 사십 나이에 비로소 그릇됨을 알았다’고 읊은 것이 정말로 내 마음과 같다. 절 뒤에 나옹 화상의 부도가 있고 육면각이 당 앞에 있다. 그런데 이같이 유명한 절에 노승 한 사람만이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대개 근년에 요역이 대단히 무거워서 승도들이 편안히 거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중의 암

자와 사찰이 모두 텅텅 비었으니, 하물며 유민들이 길 위를 떠돌아다니고,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빈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늙은 노년에 몇 말의 곡식을 얻기 위하여 관리가 되었으니, 양심을 거역함을 달게 여기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4월 초8일. 등녕쿨을 헤치고 개심대에 올랐다. 대는 절의 가장 꼭대기다. 보이는 시야는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정양사가 진면목과 마주 대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혈성루로 다시 내려오니 매우 피곤하였다. 노승은 나옹이 남긴 의대와 유물들을 보여주었는데 완전히 전날과 같았다. 또 사리는 구슬 모양이고 색은 푸른데 금은으로 장식한 그릇에 담아 수놓은 비단으로 수백 겹을 감았다. 나옹은 동방의 고승으로 신록사에서 열반했다. 그런데 이 절이 나옹의 거처였던 관계로 그 의발을 나누어 소장하였다.

점심을 먹고 장안사로 향하였다. 길은 골짜기로 인해 높낮이가 있는데 천 길이나 되는 늙은 회나무가 길가에 서 있었다. 나이를 물으니 승려도 몇 백 년인지를 알지 못했다. 만약 훌륭한 장인을 만났다면 반드시 기동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헛되이 산속에서 늙으니 애석한 일이다. 골짜기를 나와서 내려갔다. 명운담인데 수석이 특이하여 만폭동의 수석보다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명운담 왼쪽에는 푸른 벽이 하늘을 바치고 있고 오른쪽에는 바윗길이 가파르다. 그런데 허물어져서 한걸음만 잘못 디더도 문득 천 길 깊은 못에 추락할 수밖에 없다. 몇 년 사이에 서너 명의 승려가 익사했다고 한다. 이곳을 지나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고 걸을 수 있었다.

돌들이 파랗고 하얀 곳이 면곡이다. 시냇물을 따라서 몇 리를 갔다. 시냇물 건너서 왼쪽으로 가니 등녕쿨과 뾰뾰한 나무들로 짙은 녹음이 우거졌다. 자칫 한걸음만 잘못 디디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다. 나무줄기들을 잘라내고 후미진 곳을 헤쳐가며 비스듬히 기울어진 곳에 들어가니 길이 끊어졌다. 큰 돌이 많아서 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앉아서 쉴 만한 바위도 있고 구경할 만한 연못들도 있었다. 시냇물을 세 번 건너니 언덕 위에 큰 바위가 있고 물이 그 아래로 질펀히 흘렀다. 산기슭 따라 돌로 된 성가퀴 높이가 두어 길이 되고 또 문이 있었다. 이곳을 통해서 올라가니 골짜기가 더욱 깊어졌다. 그런데 다만 영원암이 있을 뿐이다. 이곳은 백천동이라 부르고 혹은 시왕동이라고 하는 곳이다. 첩첩 싸인 봉우리들이 서로 호위하여 엮드려 있다. 그 중간에 특이한 봉우리들이 우뚝 서 있고, 소나무와 회나무가 비스듬한데 그 위로는 다만 골짜기가 더욱 좁아지니 사람에게 어지러움이 생기게 한다.

가마를 돌려 장안사로 들어갔다. 역시 큰 사찰이다. 금빛 편액이 처마 사이에 걸려 있다. '대웅보전'이라 하니 한 석봉의 글씨다. 법당 가운데에는 세 명의 부처님이 열지어 앉았고 동쪽에는 나한전, 문에는 사천왕이 있다. 밤에 선방에 누워 어제 놀던 것을 회상해 보았다. 걸어가고 쉬고 하던 것이 이미 묵은 자취가 되었다. 살아서 다시 이 산중에 들어와 노승들과 지난 일들을 얘기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유람할 때에 대단히 고생했던 곳이 장차 산을 떠나려 함에 금과 옥처럼 사랑스러웠다. 갈림길에서 사람들과 헤어질 때 자꾸 생각나서 놓을 수 없으니 산수를 사랑하는 병이 이에 이르렀음을

스스로 알지 못했다.

4월 초9일. 아침에 일어나니 첨지 이담(李儻)이 찾아왔다. 스스로 말하기를, ‘조정에 불참하여 삭출(削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일가를 이끌고 영남에 귀향하였다. 한두 명의 벗들과 함께 금강산 네 고을의 강산을 모두 편력하고 춘성에 들어가 청평사를 보고 양구 가는 길에 이곳을 들렀다’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무신년 때부터 시중의 무뢰배와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고 '정운훈(定運動)'에 참록(參錄)하였는데, 이제 발걸음을 돌이켜 산수간에서 노니니 소위 심산유곡에서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아침을 먹고 이군과 작별하였다. 말을 타고 사문(沙門)을 나서서 한 계곡을 아홉 번 건넜다. 산이 점점 멀어지고 속세가 점점 가까워진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지금까지의 좋은 구경이 한바탕 꿈만 같다.

금강원에서 점심을 먹었다. 물은 감돌아 흐르고 들판은 넓은데 민가는 겨우 한두 채 뿐이다. 돌밭이 거칠고 황폐하여 사람의 살림살이가 쓸쓸하다. 또 삼십 리를 갔지만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 앞에 고개 하나가 하늘에 비껴 있으니 쇠랑(洒郎)이라고 부른다. 백 번을 꺾어져서 내려오는데 만 길 구덩이로 떨어질 듯하다. 좌우에 절벽이 서로 마주해서 서 있다. 그런데 끊어질 듯이 이어지고, 뛰어가는 듯 옆드러고, 트레머리를 올린 듯, 우뚝 뽑아낸 듯, 홀로 서 있다. 이것은 골짜기 입구에서 돌 하나로 뭉쳐서 아래로는 땅에 서리고 위로로는 하늘에 가까우니 그 높고 크음을 형상할 수가 없다.

큰 시냇물이 고개 밑에서 발원하니 배 같고 통 같은 것은 연못이고, 혹은 흘러지고 혹은 쏟아지는 것은 지류다. 암벽에서 날라 와서 혹은 수십 발 혹은 열 발이 되는 것은 폭포다. 큰 소나무를 찍어서 양 언덕에 걸쳐놓았다. 그런데 그 높이가 백여 척은 되고 넓이가 네 칸 정도인 것은 판교(板橋)다. 별처럼 벌려 있고 바둑알처럼 펼쳐져 희기가 눈빛 같은 것은 암석이다. 좁고 경사진 위험한 곳에 공중에 걸쳐진 것은 사다리길이다. 다리 아래로부터 산은 더욱 특이하고 물은 더욱 넓어져 서로 두르고 감돌아 이 같은 것이 4, 50리에 바다에 이른다.

정말로 쇠랑동의 맑은 정취는 만폭동에 버금간다. 그런데 이것만이 오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세상의 숨겨짐과 드러남은 사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만남과 만나지 못하는 차이에는 또한 그 사이에 운수라는 것이 있다. 속세의 발자취가 더러운 것은 산신령과 물의 신이 아껴서 감추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듣기에 관의 행차는 험한 것을 꺼려서 이곳으로 다니지 않는다. 승려들이 때때로 왕래하니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음이 산수에게야 무슨 손익이 되겠는가? 지금 천고의 세월 뒤에 나에게 알려지게 되었지만 돌아보건대 나의 성명과 기세가 이미 당세의 중망을 입는 처지가 아니고 후일 굉장한 문장력을 발휘할 수도 없을 터이니 세 치 혀를 놀려서 수다스럽게 칭송한다 해도 필경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그러나 나도 세월을 만나지 못한 자이다. 장차 나르는 새나 숨은 표범처럼 이에 은거

하여 바위굴과 시냇물을 바라보며 여생을 마친다면, 이 산이 세상에 이름남이 비록 강절(康節)의 백원(百源)이나 고정(考亭)의 무이(武夷)보다는 못하겠다. 그러나 ‘종남첩경’의 종남산이나 ‘북산미문’의 북산은 이 산에 비한다면 노예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 서로 만남이 장차 어떠하겠는가?

조진역에 도착하니 우사(郵舍)는 없고 다만 초막 하나가 있을 뿐이다. 잠깐 쉬고는 말과 가마를 타고 달려서 두백촌에 도착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쇠랑 이복은 통천의 경내이다. 태수 김극건(金克鍵) 공이 새로 해안가에 집을 지어서 객관으로 썼는데 매우 정갈하다. 밤에 비바람이 몰아쳐 파도가 거세게 치니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다.

4월 초10일. 밤에 비가 오더니 쾌청하였다.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으며 파도가 잔잔하고 물결이 일지 않으니 먼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비오고 개인 뒤가 아니면 맑고 깨끗한 경치를 볼 수가 없다. 이것은 하늘이 나의 이번 여행을 가련히 여겨 우사와 풍백을 경계하고 단속하여 호수와 산으로 하여금 활짝 걷어 그 진경을 드러내 보이도록 한 것이리라. 두 사위와 함께 농담을 주고받으며 갔다. 해당화가 만발하여 백사장을 덮으니 말도 꽃을 밟고 갔다. 두어 리쯤 가니 마치 문처럼 서로 마주선 바위가 있다. 만약 너희가 길 옆이 아니라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있었다면 반드시 석응암, 사자암 등과 함께 세상에서 나란히 칭송되었을 것이다.

고을을 지나 청허당에 올라갔다. 들녘을 바라보니 매우 상쾌하다. 들으니 고을 원이 이미 총석정에 나와서 기다린다고 한다. 말을 달려가 보니 모여서 산을 이루었다. 그런데 산꼭대기의 높이는 각각 백여 길이며 어떤 것은 여섯 면, 어떤 것은 네 면이고 그 나머지 꺾어져서 물에 눕고 길에 엎드린 자 또한 마모되어 면을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 이것은 귀신이 깎고 신령이 조각한 것인가? 아니면 바람도끼와 달도끼가 이룬 것인가? 비록 여와씨의 묘함과 반수의 기술도 이러한 기교를 능가할 수 없을 것이다. 구경하는 사람은 모두 괴이하게 여기고 감탄한다.

내가 나뭇잎 하나를 들고서 두 사위에게 보이며,  
"이 잎의 아로새김은 가을터럭같이 정교한데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인가? 너희들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는가? 단지 이 나뭇잎만 아니라 천지간에 가득한形形色색 기기괴괴한 것들이 어찌 한계가 있으리오. 이것은 조화옹의 숨씨가 아님이 없다. 형태와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은 기(氣)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렇게 되는 것’이 이(理)다. 모든 사물이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단지 눈으로 항상 접하는 것은 보기만 할 뿐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드물게 접하는 것은 놀랍고 의아해서 의문이 있는데 이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기로써 말하면 어느 것이 심상(尋常)하고 어느 것이 기괴(奇怪)한가? 총석은 곧 나뭇잎이며 나뭇잎은 또한 총석이니 듣는 사람들은 그 의혹을 풀어 보라."

라고 하였다.

금란굴이 섬을 꿰뚫고 누대의 좌우에 있는데 풍량이 일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



니 섭섭한 일이다. 점심을 먹은 후에 군수가 먼저 돌아가고 나도 객사로 돌아왔다. 군수가 다시 주연을 베풀었지만 내가 너무 피곤해서 술을 마실 수 없어 두어 차례 술잔이 돌아가자 이내 파했다. 군수의 아우 극감과 그의 손님인 이흥복(李興復)이 총석의 모임에도 참여하였다. 군수는 효원(孝元)의 아들이니, 아버지가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다. 또 아들이 있는데 세렴(世濂)이라고 한다. 대론(大論) 때 간관이었는데 다른 일을 핑계대고 피하였다. 이 일로 인해서 괘산으로 귀양을 갔다. 군수가 이로 인해 상심하고 있던 참이었다.

4월 11일. 신계를 가려면 매우 멀다. 일찍 떠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 새벽에 일어나 출발하려니 군수가 만류하여 부득불 잠깐 머물렀다. 아침저녁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공짜 밥을 먹는데 오고 갈 때의 관청의 공급이 꼭 사신을 접대하는 것과 같다. 술대접과 음식이 자제의 행차에까지 미치니 문득 한가한 여행으로 고을과 우사(郵舍)에 피해를 끼친 것이 부끄럽다. 다시 쇠랑 시냇물을 건너니 산수의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같이 그리웠다. 가는 길이 급하니 거듭 찾을 수가 없고, 도화원에 이르는 길을 사공이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이 또한 두렵다.

조진역을 지나서 작은 고개를 넘어 심동에 내려가 바다로 나왔다. 마을 집에 들어가 잠깐 쉬니 남쪽 기슭의 고기 잡는 집이었다. 오른쪽으로는 바다가 하늘에 닿았고 왼쪽은 금강산 바깥쪽이다. 그 중간에 바다의 남은 물결이 웅덩이처럼 호수가 된 것이 장전호, 장기호인데, 위태로운 곳이 여러 군데 있다. 구름사다리가 바위 언덕을 돌로 싸고 아득히 바다에 닿아 있는 것이 또한 몇 리나 되었다. 운암재에는 돌로 쌓은 옛 성이 있다.

이 지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소위 만리성인데 여기서 구불구불 함경북도까지 이른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옛날에 지나가는 자들을 막았을 텐데 연대가 멀어서 자세하지 않다. 신계에 가까이 가니, 바위와 봉우리가 더욱 우뚝하고 특이했다. 바위가 사람 같은 것, 새 같은 것, 그릇 같은 것들이 매우 많았다. 그런데 그 중 매바위는 더욱 그 모습이 비슷했다. 골짜기 북쪽에 온정이 있으니 돌을 깎아서 벽돌같이 위 아래를 구분했는데 석천(石川)에 속한다. 석천의 근원은 구룡연인데 구룡연은 비로봉과 구정봉 사이에 있다.

운암재에서 5리쯤 들어가니 연지사 앞에 이르렀다. 사원은 새로 지었는데 또한 중한 사람이 지키고 있었다. 원우가 장안사에서 홀로 유점사를 지나서 또 먼저 여기에 이르러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몹시 위로가 되었다. 여기서 통천군까지의 거리는 백여리이다. 하루 종일 큰 바람이 불어 모래바람이 얼굴을 쳐서 견딜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더욱 심해서 지붕이 흔들거렸다.

4월 12일. 아침에 해가 뜬 직후에 먹구름이 모여며 비가 올 듯했다. 급히 골짜기에 들어가니, 돌 사이 바위틈에 푸른 솔 흰 눈이 완연히 삼동과 같다. 안개가 끼었다 걷혔다 하며 산과 골짜기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 기이한 모습이였다. 바위가 뻗어 바닥이

되어 양 언덕에까지 이어져 맑은 시내가 흘러 펼쳐졌는데 그 울리는 소리가 비파를 타는 듯하였다. 백천과 만폭동만 아름다운 이름을 독차지 했다. 양사언이 이를 좋아하여 고질병이 되어 초가집 두어 채를 그 옆에다 짓고 때때로 왕래하였다. 선옹(仙翁)이 한번 떠나매 그 발자취를 이을 이가 없더니 다행히 황근중(黃謹中) 공이 이 도의 방백이 되어 승려와 돈을 모아서 다시 정사를 지었다. 땅의 형세가 옛 터보다 좀 높아서 거기서부터 올라오니 기이한 봉우리가 소복이 모여 있어서 담장처럼 어우러졌다. 마치 나를 정양사 망루 위에 앉혀 놓은 것 같다. 그러나 수석이 앞을 막았지만, 동북쪽은 트였으니 또한 정양사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만 이 집을 이미 돌보는 이가 없으니 비바람에 쓰러지고 풀과 나무에 묻혔다. 양사언의 암자가 허물어진 터가 된 것 같지 않다. 또한 한번 허물어지고 한번 일어나서 늘 일정하지는 않다는 것일까?

동쪽으로 20리를 가서 골짜기로 들어갔다. 물이 높은 꼭대기에서 층층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너럭바위가 있어 마치 승려의 바리때 같다. 물이 그 가운데 떨어져 못이 되었는데, 물이 짝 차서 킁킁해 밑이 보이지 않으니 반드시 잠복해 있는 신물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가뭄이 심한데, 왜 변화를 부려 천둥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려 우리나라 수천 리를 적시지 않을까?

어렵게 걸어서 반산령에 오르니 자리처럼 평평하고 계단처럼 층이 졌다. 도랑처럼 깊은 바위가 있는데 급한 여울과 나는 듯한 폭포수가 그 자리의 넓고 좁은 것을 따라서 내려온다. 높은 성에서 나팔을 부는 자가 의관을 벗고 바람을 타고 내려오니 거꾸러질 듯하기도 하고 춤추는 듯했다. 순식간에 백 척 바위 밑으로 떨어졌는데 몸과 피부에 손상이 없다. 이 또한 한 번 웃음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수십 걸음 올라가니 양사언의 필적인 '봉래도(蓬萊島)' 세 큰 글자가 있었다. 그런데 자획이 그대로 있고 그 나머지 몇 줄의 글은 이끼가 끼어서 이미 희미하였다. 이 노인은 왜 가는 곳마다 자취를 남겨 뒤에 오는 사람에게 옛 생각을 하도록 하는가? 골짜기를 나와서 30 리를 가서 삼일포에 들어갔다. 아득한 붉은 누각이 보일 듯 말 듯 기이한 바위 푸른 소나무 사이에 있다. 말을 버리고 배를 탔다가 배를 버리고 정자에 올라갔다. 이것이 소위 사선(四仙)이 사흘 동안 놀던 곳이다.

36봉우리의 아름다움이 하늘의 푸르름과 섞여 저마다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절벽까지는 구름과 산들이고 그 사이에는 섬과 모래톱이 교차하였다. 만 리나 되는 푸른 바다가 밖에서 둘러싸고 물결 안에는 흰 바위다. 수풀 사이에 나오고 호수가 못이 되어 넓은 수면을 모두 돌렸다. 사방은 아득히 보이고 정자는 물 중앙에 있다. 푸른 소나무와 아름다운 돌이 또 이리저리 얽혀 있어서 어디나 앉을 만하다. 여기에 앉으면 황홀하여 마치 난새와 학을 타고서 하늘에서 긴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 신선의 피리소리를 아득한 가운데 듣는 것 같다. 세상에 신선이 없다고 한다면 더 말할 것 없지만, 있다면 여기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소위 네 신선이 진짜 신선이라면 장생불사하여 이제까지 천 년 동안 응당 여기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당초에 누가 사흘 동안 놀았다고 했

는가? 네 신선들이 웃을 일이 아닌가? 나는 가는 것도 잊고 오래 앉아 있었고 가면서도 열 걸음에 아홉 번은 뒤돌아보았다.

정신없이 배를 내려 남쪽 언덕에 옮겨 대었다. 위에는 매향비(埋香碑)가 있다. 대개 박달나무는 물에 들어간 지 천 년이 되면 침향이 된다. 그래서 옛사람이 호수에 나눠 묻고는 돌을 세워 그 이름을 기록하였으니 또한 옛날 자취이다. 묻은 지가 이제 몇 백년이 되었는지? 그 잠긴 것을 찾아 일으켜 향내를 일시에 퍼뜨려 세상의 허다한 냄새들을 없앨 수는 없을까? 또 바위 사이에 붉은 글씨로 '술낭도남석행(述郎徒南石行)'이란 여섯 글자가 있는데, 절반은 색이 변해서 알아볼 수가 없다. 오직 술(述), 남(南), 석(石)자만 분명히 보였다. 세상에 전하기를 영랑, 술랑, 안상, 남석 네 신선이 두루 관동을 노닐었는데 총석대와 이 정자가 그 발자취가 지난 곳이므로 모두 사선으로 이름했다고 한다.

알 수가 없다. 네 신선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단약을 먹고 기운을 단련해서 대낮에 하늘로 올라간 자들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도망하여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형상 밖에서 제멋대로 노는 자인가? 붉은 칠과 몽당붓으로 오히려 뒷사람이 그 이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렇다면 인간 세상 보기를 하루살이처럼 여기고 한 가지 일도 그 마음속에 들여놓는 것이 없는 자가 과연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우리들처럼 이름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며 음풍농월하여 스스로 즐길 뿐인 자들과 비교하면 누가 신선이 되겠는가?

하물며 나 같은 자는 세상에서 살아도 세상을 탐닉하지 않고, 사물 가운데 처하되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먹고 마셔도 그 맛을 절제하며, 관복을 입어도 그 귀함을 잊으며, 얼굴은 항상 청춘이고 수염과 머리카락이 세지 않는다. 장차 하늘 끝을 더듬고 달 굴을 밟아 삼십육궁을 오가며 희황[伏羲]의 무리가 되리니, 알 수가 없다. 영랑의 무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 배를 저어 오르내리며 사자석을 어루만지며 머뭇거리다가 날이 이미 저물어서야 통천군에 도착하였다.

새 태수 유박(柳舶)이 아직 교인(交印)하지 못했다. 조용한 빈 객사에 두 사위와 마주 대하고 있자니 매우 심심하였다. 산해정에 올라가니 가까이는 남강에 임했고 멀리는 큰 바다에 임했다. 옆 고을의 관사나 정자가 이에 비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흰 바위 두세 개가 바다 가운데 나란히 서 있는데 옥빛으로 우뚝하다. 이는 삼일포에서 언뜻 언뜻 보이던 것으로, 여기서 보니 대단히 장관이다. 소위 지주(砥柱)가 중류(中流)에서 왔다는 그것인가? 거친 물결 속에 우뚝 서서 사생과 영육에 굴하거나 흔들리지 않으니 이 돌에게 부끄럽지 않을 자가 오늘날 세상에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내 마음에 남몰래 슬픔이 고인다.

4월 13일. 일찍 출발하여 남강 20리쯤에 이르니 현종암이 있었다. '법희기(法喜記)' 중에 종이 바다에 떠서 안창(安昌) 고을에 이르러서 바위에 걸렸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 아래 큰 바위가 물가를 덮고 있다. 그런데 말을 전하는 이가 이것을 가리켜 종을 싣고

은 배라고 한다. 대단하구나, 사람들이 괴상한 것을 말하기 좋아함이어. 들고는 그냥 다시 빙그레 웃을 뿐이다. 길 오른쪽에 풀로 엮은 정자가 있다. 대강역 동네로 들어가는 어귀이다. 여기서 휴식하며 아침밥을 먹었다. 20리를 달려가면 명파가 있다. 또 20리를 가니 열산이다. 관사에 쉬면서 즐기고 있으니 새와 참새가 사방에 날면서 슬프게 울었다. 마치 원한을 호소하는 듯하였다.

내가 일어나서 보았더니 뱀이 지붕 기와 속에서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 한다. 나는 측은하여 사람을 시켜 잡아 급히 끌어내리도록 하였다. 두어 자나 되는 늙은 뱀이었다. 내가 쫓쫓 하며 혼자 말하기를 너도 미물이거늘 왜 미물을 해치는가?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 숨기면 네 마음대로 해도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나 장차 그 새끼들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저것이 눈치를 보아 멀리 피하는 제비와 참새를 피하지 않으면 마땅히 소굴을 덮어야 한다. 풀린 틈과 허물어진 기와는 백 년 된 오래 된 집에 많은 구멍을 뚫리게 한다. 헐어진 곳의 위로는 비가 오고 옆으로는 바람이 불어 모두 뒤집어진 뒤에야 그칠 것이다. 까마귀가 누구의 지붕에 앉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애통한 일이다. 빨리 뱀을 숲으로 쫓으라고 하였다.

옆 사람이 말하기를,

"심하도다. 그대의 어리석음이어. 죽이지 않으면 장차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만약 우거진 풀들을 모두 뜯고 정원을 깨끗이 쓸어서 안팎이 흰하게 숨을 곳을 없게 하면 뱀이 어찌 처소에 올라와 독을 뿜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비록 이 뱀 한 마리를 죽인다고 해도 머리 뒤에 뾰족한 혀를 가진 뱀이 자기 패들을 끌어 모으면 그 힘은 물건을 해칠 뿐만 아니라 흉하고 독한 기운이 마침내 주인의 침상까지 이를 것이다. 이는 주인이 마음을 돌이켜 깨달으나, 이러한 도모를 알지 못했을 뿐이다. 뱀은 끝이 없는데 어떻게 모두 잡아서 죽일 수 있겠는가? 하물며 저것은 미물이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동물이다. 그 해로움을 제거하면 그만이지 죽이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겠소?"

라고 하였다. 듣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했다. 뱀도 멀리 가버렸다. 저물어 간성에 들어가 달 아래 영월루에 올랐다. 늙은 살구나무가 뜰에 그늘을 드리우고 새로 핀 연꽃은 벌써 돈짜만 해졌다.

4월 14일. 출발하여 청간정에 도착하니 아직 아침이었다. 밥을 먹고 다시 달려서 날이 저물 무렵 낙산사에 들어갔다. 만호 이준, 상사(上舍) 최기백(崔基鎭), 우태승(禹泰承) 군, 박종문(朴宗文)이 함께 와서 기다렸다. 원우가 청간정에서 이미 달려와 순두부를 만들어 일행들을 다 먹였다. 조용히 긴 저녁을 보내고 저물어서 관청에 돌아왔다.

지나온 것을 한 곳에 적어보니 놀랍게도 동(洞)이라고 하는 것이 내산(內山)에 네 곳이 있었다.

수점으로부터 아래와 비로봉으로부터 아래는 만폭동이다. 그런데 천덕동 13폭이 또 그 곁이다. 내원암과 축빙치에 집을 지어 유점사라 했다. 불정대의 남쪽은 솔숲이고 구정

봉의 동쪽은 신계인데, 이는 모두 금강산의 바깥쪽이다. 걸출하니 우뚝 솟아서 안팎 산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비로봉이다. 이 봉우리에 오르면 천 리에 두른 여러 산들이 모두 눈앞에 있으니 삼각산과 구월산 같은 산도 또한 그 모습을 숨길 수 없다. 그 서쪽 안은 망고대이고 밖은 구정봉과 만경대이다. 그 시내가 만폭이나 장안사를 지나서 회양으로 내려가 양구를 거쳐 춘성까지 이르니 이것이 소양강이다. 마침내 한강이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유점동의 시내는 90리를 가서 송림동의 백천수와 합해져 숙고촌을 지나 고성으로 달린다. 또 신계와 발연 두 물이 하나가 된 것과 함께 남강이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산은 그 근본이 하나이다. 그러나 나뉘어 천만 봉우리가 되고, 물은 그 줄기가 달라도 한 근본으로 함께 돌아간다. 한 근본이 만가지 다른 것이 되는 것과 만 가지 다른 것이 하나로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 내가 외산으로부터 내산에까지 이르렀고, 아래로부터 높은 데까지 올라갔고, 얕은 데로부터 깊은 데까지 미쳤으니 깊다고 찾지 않은 곳이 없고 멀다고 이르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데도 생각에 부족한 것이 있는 듯하다.

또 동쪽으로 바닷가를 따라서 총석정을 바깥으로 하고 동석에 들어가서 발연을 다 보았다. 삼일포에서 배를 타고 원승이가 집삼은 곳과 물고기와 용이 구멍을 삼은 곳으로 옛날 자장(子長)도 다 돌아보지 못했고 강락(康樂)도 미치지 못한 곳을 내 마음대로 실컷 보지 못했다. 오래도록 천상의 맑은 기운과 함께 해서 그 다할 바를 알지 못하니 알 수가 없다.

옛 사람들이 이것을 즐거워했던 것일까? 뒤에 올 자로 능히 내가 밟고 지난 것을 좇아올 자가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높게 솟은 것이 산임을 알고 흐르는 것이 물임을 안다. 한갓 산이 되고 물이 됨만 알고 왜 그런지를 모른다면 되겠는가? 진실로 왜 그렇게 된 것을 알고 내 마음에 얻어서 깨닫게 되면 저절로 춤이 나오고, 네 마리 수레 천 대와 만종의 녹도 그 즐거움을 바꿀 수 없으며 광주리의 밥을 먹고 배움을 입어도 그 즐거움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저 푸른 산과 흰 돌은 외물일 뿐이다. 즐거워하는 바가 과연 이것에 있는 것인가? 이것에 있지 않은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은 험난한 곳을 지나서 가기를 게으르지 않았으며, 높은 데 올라가서는 한 삼태기의 공이 이지러짐을 경계하였고, 흘러가는 데 임해서는 가는 것이 쉽음을 깨달았다. 높기는 산악 같고 혼연함이 바다와 같은 것은 그 근원을 거슬러 갔기 때문이다. 산은 끝까지 올라갔으니, 부지런히 옛 사람의 뛰어난 자취를 좇아, 스스로 고명, 광대한 경지에 이르렀다. 마침내 발군의 경지에 이른 것이 마치 태산과 개미굴 같고 바다와 도랑물 같다. 그러니 이번 유람을 떠나 이룬 것은 무엇일까.

余上年陳情乞養。聖恩優許。得幸巫山。私幸有三。奉八十老母專城榮養。其幸一也。一時朋輩俱不免禍網。而余獨優遊仙區。與世相遠。其幸二也。欲一見金剛而不可得。今於垂老之年。

宿願將諧。其幸三也。而顧以下車之後。公務私患。亦無暇於抽身遠遊。一年強半矣。羅、李兩甥自京來省余。仍向金剛。促裝登程。雖以余之衰懶。亦能慨然而作。連鑣齊驅。不覺鞍馬之勤。道路之遠。則可謂起予者商也。午入洛山寺食。大浦萬戶李濬來見。與之語。向夕過青草、永郎兩湖。投清澗亭宿。主倅趙令公暄遣座首崔德立供一行。是戊午閏四月初一日己未也。羅名萬甲。李則尚質其名。孫兒援。洛山住持僧元祐亦從之。其餘賤也不盡記。

初二日。朝食行十里。有山一髮入波心。名凌虛臺。其前有疊石若小島狀。羅、李兩甥往見之。十里許小湖。周回可五里。青山圍三面。東則隔海有沙堤。翠松成林。行人路于其間。下轎與羅、李入數十步。山麓平如臺。可坐十許人。白沙松陰。炯無一點塵埃。其下巖石亦奇怪。逍遙良久。徐徐步出。出來若別佳人然。此世所稱仙遊潭者。可謂名不虛得。入郡。主倅出接頗款厚。午食登小樓。前有梧桐長數丈。綠葉成陰。此崔斯文豈宰郡時手植。郡人相傳說。崔以文章伯。待瓜於此。而何無隻字之留壁間爲寶傳耶。出城西門。風作。塵沙眯眼不可開。到巨淪川。取間途入花津。湖水包跨陵谷。極目瀾漫。一帶松林。蔽遮海口。不知幾千條。俗傳古者邑于此。一朝爲龍所蕩沒爲淵。天晴波靜。則至今可見墻屋云。怪說也。蕭然數三家。臨湖上成村。中有蒼顏白髮者。自道其名曰李荃。問其年七十九矣。聰明精力少不衰。此亦居移氣者耶。夕陽明滅。疎雨濕衣。把酒嘯詠。久而乃罷。夕暮冒雨。馳入烈山。古館荒涼。板上唯有申公點遺什。此地與海曲少遠。溪山回合。民居亦稍多。余謂兩甥曰。若非瀾水波。此中可居。羅曰。與世隔絕。理亂不聞。非遯世者不可居。因劇談夜深宿。僧元祐者。燒清遠香不寐。令人發深省。

初三日。朝食行洲渚之間。往往曲爲澄潭。緣沙岸有村。皆漁店也。山麓走入海。蒼松鬱其上。如茂松臺、松島等者。不可盡記。雖以羅、李之善探勝。亦不能遍登焉。朝後抵明波驛。結草爲亭。纔一間。乍歇馬。馳入大康驛。洞壑竅而深。郵人接籬居者十餘戶。襄陽武人姜孝先。自北道還。袖鰲城答書來見。披來怳然此老面目。可慰隔別懷。此老浮沈相位數十年。癸丑變被彈。卽閑于郊。去年冬。當慈殿廢黜議。凜然引虞舜爲辭。三司論以護逆。竄北青矣。食乘馬踰大嶺。石路巉巖傾側。嶺底有小村。業鐵鑪。厥土沃。又踰嶺涉大川。卽百川橋下流。白磔清流。已是金剛氣脈也。山逶迤而四塞。樹蔥鬱而成林。此所謂稜庫村也。金剛僧乞糧于村。庾諸此以貯。春之輸入寺。蓋金剛諸刹根本地也。有數三僧守之。溪水爲砧日夜舂。不費人絲毫之力。備此者可謂用智巧矣。夕與兩甥步溪上。論山水曰。此地視烈山。大康最勝。近圻若得如此處。可終老無悶。兩甥曰。以吾輩所覩記言。環畿輔數百里。果難等此地。然如鳳頭。卽先生驪州江亭名也。江山絕勝。捨是菟裘於何。聘父年位。正合退休。時不可失云。斯言足立懶。暮借禪房宿。

初四日。入洞漸深。樹陰甚密不見日。但聞水聲激激鳴。行十許里。忽見飛閣橫跨溪流。人往來其中。舍馬而步。倚柱而坐。則溪水自松林洞急流而來。爲潭閣道下。深可數丈餘。清澈洞見其底。游魚百餘頭。皆各空遊無所倚。可歷歷數。左右白石齒齒。山光水色。滉漾動蕩。此身如在畫圖中。釋子數十輩來迎。皆碧眼癯容異俗狀。此後馬不得前。分衣糧令下輩擔去。與羅、李及援。各乘藍輿而行。水石之勝。樹木之密。處處無不然。緣岸而轉。歷尼臺中臺及并上臺

回望。則眼底溟渤。浩浩無涯畔而諸山皆丘垤耳。不知海之東畔蒼蒼然莽莽然者。天耶。水耶。雲煙耶。其外別有世界耶。向午。微雨忽沾洒。乍止乍作。不知山靈喜事。欲洗吾輩滿衣塵土耶。肩輿僧汗如雨。必苦我肥大。自逸而勞人。實余心之所不寧者。逾嶺而下。巖壑愈往愈奇。冬青側柏檜柏楓柟。蔥鬱披拂。木蓮躑躅。花方爛熳芬馥。雜其間溪水。斗折蛇行。激越之響。如鏗金石調琴瑟。滿山聲色。何悅人之多。令人耳目有所不暇於他耶。崖路或斷。用數條木架巖石僅通人。雨中衣蓑。下輿艱步。若使龍眠畫得此景象。誠一奇絕也。循溪而上。入谷口望見。朱甍丹楹。輝映一洞。此所謂榆岾寺也。渡溪上山影樓。水流其下。山勢四面圍合。雲煙開斂。對此悠然有出塵離世之意。館我於雲翠堂。坐埃甚溫。開窓快爽。老檜數十。儼立階下若相持。庭除甚寬敞。住持具素饌。饋我皆珍品。不待聞韶而忘肉味矣。乍歇觀法堂。則坐金佛榻上。丹碧耀四壁。香木象天竺山。置佛後。堂上被以綺席。燦爛眩人目。左右前後。重廊復閣。間架之多。結構之工。可甲於諸刹。卜今初七日。將爲無遮會以落之。僧俗自遠近來。雜沓填門溢堂。噫。此寺創於新羅。今已千餘年。我世祖朝。火而重新。萬曆乙未火。甲寅又火。天之屢示災。抑有意於其間耶。何崇奉之愈久而不已耶。今茲復建。費皆出內賜。至於營立浮屠。伐石椽庫村。踰狗嶺峻坂四十里。有若神運鬼輪者。不知費却幾許財力而就斯役耶。國家祈天永命之道。果在於此歟。夕食。上明寂菴。菴僧名應祥者。受業於休靜師。頗解經文意。言釋氏後傳法甚詳。與之論心性。有令人警發處。向暮還雲翠堂。老僧法堅自雲水菴來見。應祥亦下來。與之語不覺夜深。余曰生生不窮。理也。不可回已往之氣。復爲方來之氣。比之樹葉枯瘁。墮地腐滅耳。此葉豈復有生氣。爾家輪回之說。何所據而云云耶。法堅曰。人死體魄雖消滅。其性則自在不滅。故能復爲人與物。余笑曰。言理氣。則理自理氣自氣。不可混說。言人物。則氣中理已具焉。豈有離氣而獨存之理。若謂人物雖死滅。其性自然不滅云。則是別有離性離氣。不死不滅。炯然獨存底性耶。宜見笑於識理者也。余又曰。兩家存心法最相近。無事時。此心澄靜。一念不起。及至事物之來。循理順應。各得其當。此吾家妙訣也。凝坐息念。則汝法似矣。而絕物混用。終至於滅天常。此邪正所以判也。法堅曰。吾家法亦得道。則普濟大衆耳。豈有絕事物之理哉。但初來心力未定。爲事物纏繞。則不能保此心之澄澈。故遺棄事物。此所謂返照回光法也。余應之曰。當照則何必返照。其光自明。何必回光。比如明鏡。物來自應。返鑑而索照。此見斥於吾家者也。因論儒釋異同。抑勝與俗子作閑說話也。寺之以榆名者。釋迦入涅槃。其徒論釋氏者鑄像。盛之鍾裏。以泛于海。既泛。歷盡諸國。來泊于高城郡浦口。是新羅南海王之元年也。郡宰盧椿聞之。馳至其所。但見其跡宛然印泥。尋鍾踰嶺入洞門。松林中有一榆樹。掛鍾其枝。遂以其事聞于王。王驚異之駕幸。卽於其地創寺。因榆樹以揭其號焉。又其地本無泉。一日群鳥來集啄地。靈泉忽流溢。今之鳥啄井是也。至如憩房。文殊村。尼遊巖。狗嶺。盧椿井。獐項。歡喜嶺等名。是盧椿跡鍾而來也。或見鍾憩息之所。或文殊化比丘身。或化爲尼指去處。或椿渴甚撥地得泉。或狗見。或獐出。引椿去。或椿困少息。聞鍾聲喜躍復進焉。各以其事名之。法喜居士頗詳盡。然怪誕甚。君子所不足語。

初五日。出寺纔數里。有鍊石爲浮圖狀者。問之乃休靜及其弟子自休舍利所藏也。噫。休靜一緇髡耳。能以其道鳴一世。禪門宗師。又持法者出其門徒。衣鉢有傳。其視儒名而行不力。終

身無所得。竟與草木同腐滅者。爲如何。觀船淵有石狀如舟。溪水來若白虹。潭于是石。澄泓不可近。又下而停流少平淺。如是者數層。所謂盈科而後進者耶。渡溪從細逐步入。乃曹溪菴也。室淨庭寬。老僧兩三居其中。菴右亦有溪。導而上。上危坂入下見性。亦小菴也。乍憩踰大嶺。地氣高寒。積雪尚未消。山腰線路。上可容跡。扶筇艱步。抵佛頂臺。有斷崖臨絕壑。巖石斗起。懸空當崖前。其間纜數步。橫木以渡人。其下不知其幾千丈。巖如手掌形。其上可坐數十人。視地茫茫然如登九天而俯下界也。北有九井峯。特立近霄。從峯而下。有萬仞鐵壁。壁間如垂紳者十二瀑。傍有數菴。柏田。寂滅也。下有松林窟。又下而有圓通菴。羅李兩甥履危棧若夷途。登巖石縱觀。余戒援曰。千金之子不垂堂。況耽遊賞。忘身臨不測之危。此非孝子所宜。爲母從羅李往。余坐崖猶怵促回。或步或輿。穿林而行。向靈隱菴。其山逕之危側。樹木之蔽遮。坂崖之巉險。甚於上見性之路。坐肩輿猶不堪勞憊。況肩輿者乎。乍歇上靈臺。到靈隱頽臥。又見羅李又登萬景臺。寸步不能致此身。吾衰也久矣。恨不復少壯時氣力。恣意登陟也。自榆帖至佛頂十五里。自佛頂至靈隱僅二十里。靈隱還與榆帖近。但地勢懸絕。俯視山影樓。夕食後。元祐導我上西臺。巖石可坐。看萬景臺丁峯。矗立如削鐵。且看白馬香爐等峯。羅列如屏。衆山之若埤若穴者。攢蹙累積。綺縵繡錯。莫得遯隱。大川自上浣洞。割地而流。船淵及山影樓前水。卽其裔也。菴窟之懸磬於崖谷間者。不可殫記。其中雲水菴最寬。此法堅所居也。靈隱亦精且侈。金碧耀棟宇。榆帖住持僧追至。同我宿。其情頗款厚。敏行其名也。

初六日。肩輿僧自榆帖朝集。乃發行。今日所下坂。卽昨日所上。下雖易於上。危懼一也。向內山。樹林間一逕。逾犖确傾崖深坑。步步戒心。到內水帖。地少寬。卽使臣憩息處也。踞繩床乍歇。石山四圍。而路出北嶺。嶺凡三重。而皆以水名。上第三嶺。長安僧徒已來待。其數少。不得已令榆帖僧仍擔輿。甚苦之。自乙巳水災。陵谷變。石倒崖傾。填塞舊途。足亦不可着。況輿乎久步。脚重足趺。終乃冒危坐輿。前擁後引。左扶右提。得免顛墜。可謂行險而僥倖者也。山水之勝。不過片時之悅目。爲悅目而危一身。此不近於失肩背者乎。深悔衰翁作此行也。下洞未半。回望來路。此身恍然從天降。有小瀑貯溪。名成潭。白石鋪其底。坐翫甚可愛。以悅目忘身爲悔。而猶愛此不已。山水亦如淫聲美色。使人浸浸然入於其中而不知返者耶。抑仁智者之所樂。亦如是耶。崖間冰雪猶凝。杜鵑花始發。赤木蔓香。蒙山絡石。鞦韆青蔥。至於披披藉藉。纏縈掩蹊。人所踐踏者。皆異草奇葩也。清風乍動。紛香駭綠。霧鬱香氣。玉岫銀巒。望若列仙。巍然突然者。毗盧。日出。月出峯也。若上毗盧絕頂。則峙者流者。散爲萬殊者。庶可一以貫之。而吾夫子小天下之意。隔千載而相契矣。顧此餘力不可強。其所不能攀登躡躑。則佇立夷猶。悵望而已。慨歎而已。此所謂仰之彌高。卓乎其不可及者耶。抑無乃歸於自畫者耶。久久積累。自卑而高。則可以上達矣。行色怱怱。亦不能已矣。此生不得見第一層境界耶。近溪有菴。而朱門彩室。闐然無人。但有佛像在。乃妙吉祥也。入午食而行。石愈白水愈清。若獅峯下。刻大巖像佛。其狀甚偉。此懶翁所爲也。數里許。沿小溪而入。有菴曰佛智。白雲峯底也。前見瀑自穴洞峯飛來。峯間有小穴。表裏洞然。到摩訶衍。去佛智亦數里。地勢比他菴寬平。衆香城聳其後。兜率曼無竭。列其前。秀出於其右。而屏障洞口者。大小香爐峯也。聯柯接葉。凝翠庭除者。檜與柏也。其中有異樹。松身葉似側柏稍細。問居僧。曰桂樹。取葉與皮嚼



之。非桂也。世間名乖其實者。何獨此物。其葉秋而黃落。春則復青云。反不如松柏有歲寒之操也。庭畔有小壇頽圮。卽光廟臨行時所立處。撫遺跡而起敬。且想當時也。有秉正諫此行者。何其言之不能悟聰耶。然恐秉正者。已不能爲食祿人也。砌下有芍藥數叢。乾蓮四五根。蓮葉大如盤。七月間吐白花云。亦仙葩也。淮陽太守李令公倣命。爲候繡衣留表訓。聞余至來訪。食以酒。僧尙玄啖松葉。獨居此菴四年。持法不怠。昏晨焚香擊磬。偃僂禮佛。令老夫警惰。今之士夫間誠心爲道。亦有如此僧者否。錄此將以示同志者。

初七日。俟僧集。輿行洞中。皆盤石。而若床堂。若陳筵席。若限闔奧。其色玉雪也。水流其上。高爲瀑下爲潭者十層。曰火龍。曰船。曰凝碧。曰碧霞。曰龜。曰青琉璃。曰黃琉璃。曰眞珠。曰青龍。曰黑龍。龍與琉璃言其色。船龜珠言其狀。其層高者數丈。卑者六七尺。而獨眞珠最高。水落飛沫。若散萬斛珠也。從流而下。渡溪而坐。則峯腰有菴。架巖石構。而欄楹之出巖外者。用數十丈銅柱。撐之虛空中。丹碧望若蜃樓閣也。石路層層若階級。上未半。力盡不能前。獨羅李與援登其上。恍惚悼慄。不得須臾留。乃與之或先或後。或行或休。遇水石奇絕處。輒欣然拂石而坐蒼苔。冷冷之狀。澹澹之聲。悠然而虛者。淵然而靜者。無不爽耳目而有契於心。逍遙倘佯。不覺日之已晚。石滑跌。賴下輩扶不墜。是何使我畏足汗體而不知苦。顛躓飢渴而不知止。有若狂癡人耶。不獨使我然。使八方之人千里畏糧。奔波來集。名卿巨公。偉人豪士。莫不扶杖結鞋。忘勞喫苦。惟恐深賞之不深。至於中原人。亦祝願生高麗國而見此。光廟以千乘之尊。遠勞玉趾。仙人釋子。鍊藥修法。斷却煙火食者。亦無不窟宅於茲。無古今無貴賤無賢愚。見之齶齶。言之吃吃。詠於詩什。載於書籍者。紛不知其幾許。則金剛之擅天下名而顛倒人何若是耶。下萬瀑洞。則石上刻蓬萊楓嶽元化洞天八字。蜿蜒若龍蛇。至今字畫無訛缺。楊斯文士彥筆迹也。此翁風流文華擅一時。曾乞爲淮陽太守。往來此間。極其崇深。藍輿之乘。實自此翁始。翠壁有鶴巢。是金剛臺也。丹頂縞衣。何所之而不返。使我不得騎其背而翱翔耶。久坐石山。各吟絕句。書巖石間。刻姓名丹其畫。不知千載不滅如三日浦舊迹。過此而見之者。摩挲咨嗟。恨不與之同是耶。銀溪督郵金君敬直。携冠者五六人。自長安歷探而來。空谷登音。慰喜如何。午後各散。金上摩訶衍。我表訓。淮陽太守出迎。坐我輩於法堂。作軟泡以食之。令飢腸頓飽。此寺巨刹也。半爲乙巳水所漂蕩。已修葺矣。諸寺之安佛像。必向門牖。此獨置之東邊。問其由。僧言頗怪誕不可記。向夕。上正陽。路屈曲繞山。陰陰不見天者。皆是楓林耳。梨花如雪。風過聞微馥。始覺花之早晚。隨土地寒暖也。登天一臺。則萬二千峯玉立嬋娟者。無不森羅眼前。奇形異狀。呈露無餘。層層疊疊。遠者近者大者小者高者下者尖者圓者若馳者若逗者。聳翠繚白。不能逃於指點中。此眞衆美之摠會處。以道言。則吾家所謂集大成。禪門所謂一朝頓悟豁然大通者地位也。然若非探搜之深。踐歷之遍。則安能內外本末。洞徹無礙。瞭然於心目之間哉。入歇星樓。觀望之勝。勝於天一。夜間魂氣清冷。自然無寐。湖陰居士所詠蘧瑗方知四十非者。實獲我心。寺後有懶翁浮圖。六面閣在堂前。如許名利。獨有一老僧守之。蓋近年役甚煩。緇徒亦不得安居。山中菴刹。大抵皆空。況赤子之流顛途路。十室九空者何忍言哉。自慙老年爲斗粟作吏。甘爲知罪之距心也。

初八日。冒藤蘿上開心臺。臺寺之絕頂也。所見益高。然不如正陽正對眞面目也。還下歇星樓。

億極。老僧出示懶翁遺衣帶玉塵。宛然如昨。且其舍利。形如小珠。色碧。盛以金銀器。襲以錦繡幾百重。懶翁。東方高僧也。乘化于神勒。此刹亦僧所居者。故分藏其衣鉢焉。午食。向長安寺。路高低于幽壑。千尋老檜。往往立路傍。問之。僧亦不知其幾百歲。若遇良工。必取之爲樑。而虛老巖穴間。可惜。出洞而下。卽鳴韻潭。水石之奇。不下於萬瀑。潭左有蒼壁撐天。右有巖逕傾且缺。一步之差。便墜千尺深潭。數年間。僧之溺死者三四云。過此始放心步。石之青白者綿谷。跨溪行數里。涉溪而左。蔓藤密樹。幽蔭薈蔚。步武錯迂。不知所向。翦柯披輿。傾仄而入路斷。巨石相錯。蹒跚不可步。然石有可坐處。潭有可觀處。三渡溪則岸上有巨巖。水滌於其下。緣麓石堞。幾數丈且有門。由此而上。則洞益深。只有靈元菴。此或云百川洞。或云十王洞者也。疊嶂相擁掩。間有奇峯突立。松檜欹側。其上但洞府逼隘。使人生昫眚。回輿入長安寺。亦大刹也。金榜懸簷間。曰大雄寶殿。韓石峯筆也。列坐於堂中者三佛。東有羅漢殿。門有四天王。夜臥禪房。回想昨遊。行步憩息。已成陳迹。未知此生能復入此山中。與老釋輩了了談舊迹耶否。遊時或有艱苦行處。及將出山去。若與金玉可愛。人臨歧路分携。念念不能捨。不自覺其山水之癖至於此也。

初九日。朝起。李僉知愴來見。自言以不參廷請。被削黜論。携家歸嶺南。因與一二友朋。歷盡四郡江山。入春城觀清平寺。取路楊口。遂來于此云。此人自戊申間。從時輩遊相密。參錄定運動。及今回步。自放於山水間。可謂出自幽谷者。朝食訖。與李君別。騎馬沙門。九渡一水。去山漸遠。塵界漸近。步步回望。向來勝賞。依稀若一夢也。午食金剛院。水回野曠而民家僅一二。石田荒蕪。生理蕭然。又行三十里。途間不逢人。前有一嶺橫天。名洒郎。百折而下。若墜萬丈坑塹。左右絕壁相對立。若斷若連。若躍若伏。或若鬣或若挺然獨立者。至洞口。磅礴一石。下蟠地而上逼天。其高大不可狀。巨川之源於嶺底。若船若槽者潭也。或散或瀉者流也。自巖壁飛來。或數十丈。或十丈者瀑也。斲長松跨兩岸。高可百餘尺。廣可四五間者板橋也。星羅棋布。皓若雪色者巖石也。偏側欹斜。臨危架空者棧路也。自橋以下。山益奇水益廣。相環回轉繞。如是者四十里而至于海。噫。洒郎洞之清絕。可伯仲於萬瀑。而此獨寥寥無聞於世。世間隱顯。在物亦然。其有遇不遇之不同歟。抑亦有數於其間者耶。塵蹤俗跡。若將浼焉。山靈水神。慳祕而不發耶。余聞官行憚險。不路于此。只有雲衲時時往來。其不見知於世宜也。然知不知。於山水何所損益焉。今千載而見知於余。而顧余聲名氣勢。既不能取重於當世。長杠巨筆。又不能發輝於他日。則棹三寸而喋喋稱頌。竟何益。然余亦不遇於世者。將鳥舉豹隱。考槃于茲。巖居而川觀。以終餘生。則此山之名於世。雖下於康節之百源。考亭之武夷。而捷徑之終南。移文之北山。可輿臺於此矣。其相遇也將如何哉。到朝珍驛。無郵舍。只有一草幕耳。乍歇乘馬輜。馳到頭白村。日已暮。自洒郎以北。通川境也。太守金令公克鍵。新構一屋海岸上以館客。甚淨。夜間風雨作。驚浪洶湧。寢不穩。

初十日。夜雨快晴。天淨無纖雲。波伏不興。島嶼分明。不雨不晴。安得清新景象。却是天公憐我此行。戒雨師風伯。不得自恣。而使湖山褻豁呈態耶。與兩甥相與劇談而行。海棠盛開。蔓覆沙路。馬亦踏花。數里許。巖石有相對如門者。使爾不在於道邊。而在於金剛中深墜窮谷。則必與石鷹獅子等巖。竝稱於世矣。過郡上清虛堂。望野頗快爽。聞主倅已出待于叢石。馳到

則積爲山。其巔高各百餘丈。而或六面或四面。其餘折而臥乎水者。仆乎道者。亦無不鍊爲面。此鬼斲神削而然耶。抑風斤月斧之所成耶。雖以女媧氏之妙。般輪之技。必不能如是之巧也。觀者莫不怪且歎。余取一木葉示兩甥曰。此葉雕鏤。細入秋毫。此誰所爲。若等知其由乎。不獨此葉。盈天地之間形形色色奇奇怪怪者何限。此無非造化之功用。形色之可見者。氣也。不可見不可聞其所以然者。理也。凡物豈外於是二者哉。但目所常接者。則徒觀而不察。所罕接者。則驚訝而致疑。此人之恒情也。然以氣言之。則何者爲尋常。何者爲奇怪。叢石卽木葉也。木葉亦叢石也。聞者解其惑。金蘭窟穿島。在臺之左右。而風起浪作。欲往而不可得。欠事也。午食後。主倅先歸。余亦還客舍。主倅復設杯盤。余憊甚不能飲。行數杯乃罷。主倅弟克鑑及其客李興復。於叢石之會亦與焉。主倅。孝元子也。以名父之子。又有子曰世濂。大論時爲諫官。引他事爲避。坐此窟郭山。主倅以此方傷念。

十一日。將向新溪甚遠。非早行不可及。晨起欲發。爲主倅所挽。不得不少留。朝晚抵頭白食。往來館供。若待使命。酒食及於子弟行。却慙作閑行。貽弊邑郵也。復渡洒郎溪。山顏水面。依依舊識。行色卒卒。不可重尋。且怕桃源仙蹊。不許舟子再入也。過朝珍逾小嶺。下深洞出海上。入村廬而小憩。卽南阿漁店也。右則接天溟海。左則金剛外面。間有海之餘派瀟爲湖。名長箭長髻。有數處危棧之繞岩渺臨海者亦數里。雲岩峴。有古城築以石。此地人曰。茲所謂萬里城。自逶迤至北道云。此必是古昔禦暴客者。而年代遠不可詳。近新溪。岩巒益瑰詭。石之如人如禽如器物者甚衆。鷹子岩尤肖厥象。洞之北有溫井。斲石爲甃區上下。屬於石川。川源卽九龍淵。淵在毗盧九井間也。從峴入幾五里。又揭至寺前。寺新建而守之者。亦一箇僧也。元祐自長安獨過榆岾。又先到此待我行。甚可慰。此去通川郡。百十餘里。終日大風。風沙撲面不可堪。入夜尤甚。屋宇震撼。

十二日。朝日纔出。陰雲集欲雨。強入洞石。石間岩罅。蒼松白雪。宛若三冬。而煙霞卷舒。山容隱現。亦異狀也。石亘爲底。達于兩崖。清川散布。響若操瑟。百川萬瀑。何獨擅美名耶。楊斯文士彥愛此成膏肓。結草廬數椽于其側。時往來遊賞。仙翁一去。繼躅無人。幸而黃令公謹中。爲方伯此道。募僧與其費。復構精舍。地勢視古基稍高。自以上踏石磴而登于茲。則奇峯攢簇。繚若墻垣。恍坐我於正陽寺樓上也。然水石逼前。東北開通。亦非正陽之所及。但此舍已無看護者幾。而不爲風雨所傾倒。草木所蕪沒。如楊菴之爲荒墟者乎。此亦一廢一興之不可常者耶。又東行二十里入深谷。有水自絕頂層層而下。下有盤石。狀如禪鉢。水落其中爲潭。黛蓄膏渟。沈沈不可窺。必有神物之潛伏者。而方此天旱。何不起而神變化感震電。油然沛然。澤東方數千里乎。艱步而上半山嶺。則石之有平如席級如階深如溝者。而急湍飛瀑。隨席廣狹焉。高城吹螺者。脫衣冠乘風而下。若倒若舞。瞬息已落百尺岩底。而體膚無損傷。此亦供一笑也。又上數十步。有楊斯文筆跡蓬萊島三大字。字畫不缺。其餘數行書。苔蝕已熹微。何此老之無處不留迹。以起後來者之遐想耶。還出谷行三十里。入三日浦。縹緲丹閣。隱然在奇巖翠松間矣。捨馬而舟。捨舟而亭。則此所謂四仙三日遊處也。三十六峯之媚嫵骯髒者。混天碧而各呈其態。距其崖者丘陵林麓。交其中者坻島洲渚。萬里滄溟。環渾於外。而波心白石。闖現於林樹間。湖水之爲淵者。周匝瀾灣。四望渺然。而亭則水中央矣。蒼髻美石。又經緯之。處

處皆可坐。坐此恍若驂鸞駕鶴。邈長風於雲霄。聞笙簫於杳冥中矣。天下無仙則已。有之則捨此何適。所謂四仙者若是真仙。則長生不死。至今千載。應留此間。當初誰道三日遊。得無爲四仙輩所笑耶。余坐久忘行。行亦十步九回頭。脈脈下舟。移泊南岸。上有埋香碑。蓋檀入水千年爲沈香。故昔人分埋于湖水。因立石記其名。亦古迹也。埋之者今已幾百年耶。其不可探幽起潛。播馨香於一時。消却世間許多衆臭耶。岩石間又有所云丹書述郎徒南石行六字也。半則色漫漶不能別。惟述南石字似明。世傳永郎。述郎。安常。南石行四仙。遍遊關東。叢石臺及此亭。蓋其所迹焉者。故皆以四仙名云。第未知四仙者何許人。服丹鍊氣。白日冲天者耶。抑邈世潔身。遨遊於象外者耶。研丹秃筆。猶恐後人不知其姓名。則視人世若蜉蝣。無一事入其心者。果若是乎。其視吾輩晦名藏蹤。吟風弄月。自樂而已者。孰爲仙也。孰爲非仙耶。況如余者。行世而不溺於世。處物而不累於物。飲食之而節其味。簪纓焉而忘其貴。顏面長春。鬚髮不霜。將探天根躡月窟。往來三十六宮。與羲皇爲徒。則未知永郎輩能如此耶否。棹舟上下。撫獅石而夷猶。日已夕而抵郡。新太守柳(舟十日)未交印矣。闐然空館。與羅李相對。甚少聊。登海山亭。則近臨南江。遠眺大洋。旁邑館榭。絕無肩此者。有白石數三。竝立海中。望之玉色屹然。此闕現於三日浦者。而到此甚快觀焉。所謂砥柱中流者耶。特立驚波駭浪之中。不爲死生榮辱所撓屈。無愧於此石者。在今世能幾人耶。於余懷竊有慨焉。

十三日。早發到南江二十里許。有懸鍾岩。法喜記中。鍾泛海到安昌。懸于岩者此也。其下大石覆于浦渚。傳說者指此爲載鍾船。甚矣。人之喜語怪也。聞來聊復莞爾。道右有草亭。大康驛洞口也。休于此朝食。馳去二十里而明波。又二十里而烈山。憩館舍憊眠。鳥雀回翔悲啼。若有訴怨者。余起而視之。蛇在屋瓦間。吞其雛矣。余隱之。使人急捕而下之。則數尺老虺也。余咄咄私自語曰。汝亦物也。何害物若茲。攀緣屋漏。潛形匿影於不覩不聞之中。行胸臆無還忌。將不遺其焦類。彼不能色舉遠避之燕雀。覆巢宜矣。至於鑽隙毀瓦。使百年舊屋百孔千瘡。上雨傍風。必至於顛覆而後已。不知瞻烏爰止于誰之屋。吁亦痛哉。亟令遠逐之林藪。傍人曰。甚矣。子之迂也。不殺將復爾。余應之曰。若能鋤除荒蕪。洒掃門庭。使內外洞徹。無所隱蔽。彼焉能上處而肆毒。不然則雖殺此一蛇。兩頭閃舌者。引類糾結。其勢將不止於害物。凶焰毒氣。終必及於主人床席之間。此在主人翻然覺悟。不見是圖耳。伏也無盡。豈可盡捕而殺之。況彼雖微物。亦吾與也。去其害而已。殺之則無乃甚乎。聞者皆曰唯唯。蛇亦遠屏焉。暮入杆城。月下登詠月樓。老杏陰庭。新荷已如錢。

十四日。行到清澗。朝未晚也。食又馳。日暮入洛山寺。李萬戶濬。崔上舍基鉞。禹君泰承。朴生宗文。竝來待矣。元祐自清澗已馳歸。具軟泡供一行。因從容永夕。暮還衙。以經過者總之。呀然爲洞者內山有四焉。自水帖而下。自毗盧而下者。萬瀑洞。而天德十三。又其傍也。內院與逐水岐而舍爲楡帖。佛頂臺之南爲松林。九井峯之東爲新溪。此則皆外面也。傑然特出。爲內外山之宗者。毗盧峯。登此則環千里諸山。皆在衽席之下。如三角九月。亦不能遁其形云。其西內焉望高臺。外焉九井峯萬景臺也。其川則萬瀑。經長安下淮陽。迤楊口至春城。是昭陽江也。會爲漢水。赴于海。楡帖洞之川。九十里。而與松林洞百川水合。過稊庫走高城。又與新溪鉢淵水之二而爲一者。同爲南江。入于海。噫。山則其本一也。而分爲千萬。水則其派異也。

而同歸於一本。一本之爲萬殊。萬殊之摠于一者。於此亦可觀矣。余自外而達內。自下而陟高。由淺而及深。無幽不尋。無遠不到。而意若有不足者。又東而遵海濱。升叢石入洞石。窮鉢淵。浮三日浦。猿獠之所家。魚龍之所窟穴。子長之所未遍。康樂之所不及者。無不縱意而飫觀。悠悠乎與(影)氣俱。而不知其所窮。不知古之人其有樂乎此耶。後之來者有能追我之踐履者耶。雖然。峙者吾知其爲山。流者吾知其爲水矣。徒知其爲山爲水。而不知其所以然。可乎。苟能知其所以然而有得乎心者。則自知手之舞足之蹈。千駟萬鍾而不能易其樂。簞食褹袍而不能改其樂。彼青山白石。外物耳。所樂者果在於此耶。其不在乎此耶。若余者。履險歷艱而行不倦。登高戒一簣之虧功。臨流悟逝者之如斯。峯乎如山嶽。渾乎爲河海者。無不溯其源而窮其極。駿駿然追古人之逸迹。自臻乎高明廣大之域。終至於出乎其類。如太山之於丘垤。河海之於行潦。則其發軔於茲遊者。爲如何哉。

『金剛錄』 鄭華



## 낙산사 시문

**발행인** 양양문화원 원장 윤여준  
**번역** 강원도립대학 교수 양언석  
의상도서관 관장 최동훈  
**발행처** 양양문화원  
**인쇄처** 대양프리컴  
**발행일** 2017년 12월 27일



